


#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2회 (한국일본학회 제106회) 국제학술대회

## 「관동대지진 그후 100년」



-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09:30~18:00
- 장소 : 한림대학교(대면 및 ZOOM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학술대회)
- 주최 : 한국일본학회 · 한일언어학회 · 한국일본문학회 · 한일정경사회학회 · 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 · 한국일어교육학회 · 한국일본교육학회 ·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 가천대아시아문화연구소 · 경희대학교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 동의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 부산대학교일본연구소 · 숙명여자대학교인문학연구소 · 인천대학교일본문화연구소 ·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 한림대학교일본학연구소 · 한양대학교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주관 : 한국일본학회 · 한림대일본학연구소HK+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 숙명여자대학교인문학연구소 · 한림대학교일본학연구소 · 사단법인 한일협회 

## 한국일본연구단체

Japanese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일 정

- ◎ 접수 및 등록 ..... 09:30 ~ 10:00  
(장소: 국제회의관 1층)
- ◎ [제1부] 학술발표 ..... 10:00 ~ 12:00
- ◎ 점심시간 ..... 12:00 ~ 13:00
- ◎ [제2부]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 13:00 ~ 16:00

##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	13:00~13:20	개 회 사	이지형 (한국일본학회 회장)
		환 영 사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축 사	윤재석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장) 윤희영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장)

### 〈관동대지진 그후 100년〉

2	13:20~14:00	기조강연	김광열 (광운대 명예교수)
3	14:00~16:00	기획발표	김병진(단국대) 양민호(부경대) 김인덕(청암대)

- ◎ [제3부] 학술발표 ..... 14:30 ~ 17:30
- ◎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 17:30 ~ 18:00

# 학술 발표장 안내

	발표장	분야	장소
제1부	제 1 발표장	일본어학 · 교육분과 일반발표	온라인
	제 2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	온라인
	제 3 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 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1	자연과학관 7114호
	제 4 발표장	한국일본문학회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05호
	제 5 발표장	한국일본역사문화분과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07호
	제 6 발표장	일본어학 · 교육분과 차세대 발표	자연과학관 7109호 (온라인 병행)
	제 7 발표장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기획발표	온라인
	제 8 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11호
제2부	제 9 발표장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국제회의관 1층 국제회의실 (온라인 병행)
제3부	제 10 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	자연과학관 7114호 (온라인 병행)
	제 11 발표장	일본문학분과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05호
	제 12 발표장	한국일어교육학회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07호 (온라인 병행)
	제 13 발표장	한국일본교육학회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09호
	제 14 발표장	한국일본어등번역학회 기획발표	온라인
	제 15 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 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2	자연과학관 7111호 (온라인 병행)
	제 16 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12호 (온라인 병행)
	제 17 발표장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113호 (온라인 병행)
	제 18 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217호
	제 19 발표장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기획발표	온라인
	제 20 발표장	경희대학교 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기획발표	자연과학관 7219호

\* 온라인 접속 각 발표장 URL 및 프로시딩은 학회홈페이지 (www.kaja.or.kr) 공지 참고

\* 휴게실 자연과학관 7101호

# 학술대회 프로그램

## <제1부> 학술발표

10:00-12:00

### 제1발표장 일본어학·교육분과 일반발표

좌장: 강석우(가톨릭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사회: 김의영(한밭대)						
1	10:00 ~ 12:00	이훈성 (고려대)	초·중급 일본어 교재에 보이는 ‘-たち’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조은영 (부산외대)	3	
2		이경숙 (아주대)	生成AI (ChatGPTおよびBing) を導入した日 本語教育の実践報告	백이연 (고려대)	7	
사회: 송숙정(전북대)						
3		김은주 (名古屋工業大)	主格助詞「が」の構造変化 —近世～現代まで—	문창학 (한국외대)	11	
4		박서연(고려대) 박가람(고려대) 한수민(早稲田大)	日韓における慰めの特徴に関する考察 —YouTubeのコメントを対象に—	장윤아 (부경대)	15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 제2발표장 일본문학분과 일반발표

좌장: 박희영(한밭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사회: 편용우(전주대)					
1	10:30 ~ 12:00	강지현 (전남대)	一九作<昔話もの>合巻の摺付表紙考	김인아 (고려대)	19
2		네고로 유키 (성신여대)	「建設期の朝鮮文学」からみる日本語文学研究	남상현 (충남대)	24
3		최고은 (도쿄대)	이회성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론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사소설 사이에서-	이혜인 (충남대)	26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3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 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1**

주관: 한일정경사회학회·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장소: 자연과학관 7114호

좌장: 오현석(서울신학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전영수(한양대)</b>					
1		김혜숙 (한림대)	지원형개발로서의 시모키타자와(下北沢) 에리어의 철도연선 마을만들기(街づくり)	오현석 (서울신학대)	28
2	10:00 ~ 11:30	이주연 (한양대)	민관학 도시 개발: 카시와노하와 루스끼섬을 중심으로	김남은 (한림대)	34
3		김유정 (국회입법조사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 제정 이후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일본 보고서 권고사항에 관한 연구 - 제7차 보고서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임현정 (리츠메이칸대)	38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4발표장 한국일본문학회 기획발표**

주관: 한국일본문학회

장소: 자연과학관 7105호

좌장: 엄인경(고려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기획주제: 재난과 기록, 그리고 문화적 상상력</b>			<b>사회: 김보현(충남대)</b>		
1		김여진 (고려대)	간토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에 대한 문인들의 기억과 기록	이한정 (상명대)	43
2	10:00 ~ 12:00	곽동곤 (고려대)	동일본대지진과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정치적 상상력 -날조되는 총구 ‘후방’의 국민작가-	김욱 (서울대)	47
3		김보현 (충남대)	일본 전통 시가의 재난에 대한 대응과 역할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나카무라 시즈요 (홍익대)	54
4		최가형 (삼육대)	일본 환경재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효순 (고려대)	55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5발표장 한국일본역사문화분과 기획발표**

주관: 한국일본역사문화학회,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고려대글로벌일본연구원

장소: 자연과학관 7107호

좌장: 이기원(강원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page
<b>사회: 신근영(고려대)</b>				
1	10:00 ~ 12:00	이세진 (호서대)	1950년 6.25전쟁의 동원과 접경성 : 속초와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57
2		이기원 (강원대)	18세기 사상사에서 보는 소라이학과 반소라이학 -우노가의 반소라이학의 전향-	73
3		허지은 (서강대)	17~19세기 나고야(名古屋) 지역민의 조선인식 - 나고야에서 유통된 조선관련 서적(書籍)을 중심으로 -	80
<b>사회: 장혜진(가톨릭관동대)</b>				
종합토론: 장혜진(가톨릭관동대), 신근영(고려대) 허지은(서강대), 이세진(호서대), 이기원(강원대)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6발표장 일본어학 · 교육분과 차세대 발표**

장소: 자연과학관 7109호

좌장: 조영남(고려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장양광(가톨릭대)</b>						
1	10:00 ~ 12:00	손주언 (고려대)	日韓医師の疾患状態の伝達ストラテジーに関する 対照研究 -樂觀的・悲觀的な疾患状態の観点から-	이연승 (お茶の水 女子大)	85	
2		서유리 (고려대)	직장인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운동에 관한 사례 -성격유형 및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橋谷萌賀 (고려대)	90	
<b>사회: 김보예(고려대)</b>						
3		박윤선 (고려대)	일본어 유의어의 사용구분에 대한 연구 -「健康な/健やかな/ヘルシーな」의 공기명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長島倫子 (건국대)	96	
4	森田佳子 (고려대)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화제전환에 관한 연구	김지원 (고려대)	101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7발표장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기획발표**

주관: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좌장: 김임숙(부산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근대 일본어 신문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회상			사회: 이승진(건국대)		
1	10:30 ~ 12:00	제옥경 (부산대)	일문지의 접사 고찰 -『조선시보』의 ‘用’과 ‘向’을 중심으로-	윤은혜 (동서대)	106
2		조미옥 (부산대)	기시 야마지 「마의 보관魔の寶冠」論 -1930년대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연재소설 고찰-	소명선 (제주대)	110
3		김나영 (부산대)	<朝鮮時報>에 보이는 전쟁관련 기사의 고찰 - 연재기사를 중심으로 -	공미희 (부경대)	116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8발표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기획발표**

주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장소: 자연과학관 7111호

좌장: 서정완(한림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포스트 제국의 (비)연속성과 탈제국의 가능성			사회: 조수일(한림대)		
1	10:00 ~ 12:00	김경옥 (한림대)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과 여성노동자의 의식 변용 -『우애부인』을 중심으로-	조수일 (한림대)	121
2		김용기 (한림대)	재일한국인 구명운동이 촉발한 히가시오사카의 국제화	채지혜 (한림대)	125
3		김현아 (한림대)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조선 통치에 대한 반성’ -‘동화정책’의 ‘창씨개명’을 중심으로-	김혜숙 (한림대)	129
4		이미애 (한림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전쟁기억’에 관한 일고찰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박신영 (한림대)	133
점심시간(12:00~13:00)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13:00~16:00)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제9발표장 개회식 및 기획학술심포지움

장소 :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

개회식

사회 : 임태균(성결대)

1	13:00~13:20	개회사	이지형 (한국일본학회 회장)
		환영사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2		축사	윤재석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장) 윤혜영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장)

기획학술심포지움 : 관동대지진 그후 100년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제	토론자	page
<b>기조강연</b>					<b>사회 : 신하경(숙명여대)</b>
	13:20 ~ 14:00	김광열 (광운대 명예교수)	100주년에 다시 검토하는 일본 간토(關東)대지진시 한인 대학살 사건		139

기획발표

1	14:00 ~ 16:00	김병진 (단국대)	전쟁경험과 관동대지진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트라우마-	김지영 (숙명여대)	146
2		양민호 (부경대)	언어적 차별로 살펴보는 관동대지진	박효경 (한양사이버대)	151
3		김인덕 (청암대)	한위건과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일본에서의 활동 보기	방광석 (홍익대)	155

**제10발표장** 일본학분과 일반발표

장소 : 자연과학관 7114호

좌장 : 杉本章(고려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 김보경(방송통신대)</b>					
1	14:30 ~ 16:30	정한모 (三重大)	일본 티칭어시스턴트(TA)제도개혁의 실천적 과제 -일본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魚住泰子 (방송통신대)	167
2		박선영 (국민대)	미우라 아야코 '원죄 문학'의 기원 -『빙점』을 중심으로-	이상혁 (고려대)	171
3		제금숙 (동국대)	영화로 재현된 다니자키 준이치로 『치인의 사랑(痴人の愛)』속 젠더 -1949년, 1960년 작품 속 나오미의 재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최가형 (삼육대)	180
4		이덕구 (혜전대)	일본 온천지 식(食)문화의 변화 -자취식(自炊食)을 중심으로-	이정화 (고려대)	185

**제11발표장** 일본문학분과 기획발표

장소 : 자연과학관 7105호

좌장 : 이충호(부신외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기획주제 : 일본 SF문학</b>					
<b>사회 : 김학순(충남대)</b>					
1	15:00 ~ 17:30	김학순 (충남대)	에도시대 과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류정훈 (고려대)	189
2		이문호 (고려대)	<합신전대 메칸더 로보> 小考 -종말론과 미소우주경쟁을 중심으로-	이가현 (고려대)	193
3		류정훈 (고려대)	기상소설과 일본 SF의 성립배경	곽동곤 (고려대)	197
4		이가현 (고려대)	일본 SF가 그리는 국가와 미래 -고마쓰 사료 『일본침몰』-	김보현 (고려대)	199
5		이상혁 (고려대)	'이토 게이카쿠 이후'와 SF패러디 -토비 히로타카 『자생의 꿈』-	이문호 (고려대)	204

**제12발표장 한국일어교육학회 기획발표**

주관: 한국일어교육학회

장소: 자연과학관 7107호

좌장: 김지선(이화여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성윤아(상명대)</b>					
1	15:30 ~ 17:00	檢校裕朗 (극동대)	「繫創」つながり、つくる日本語教育 —J-POPを通じた日本語教育の一例—	川口慶子 (송실대)	207
2		齊藤明美(한림대) 齊藤良子(国土館大)	機械翻訳にみられる日本語の誤用	飯干和也 (상명대)	211
사회: 이경철(동국대)					
3		고유진 (상명대)	근대 일본 교과서 고찰 —독본과 이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박효경 (한양사이 버대)	216

**제13발표장 한국일본교육학회 기획발표**

주관: 한국일본교육학회

장소: 자연과학관 7109호

좌장: 송민영(한국홀리스틱교육연구소)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b>					
1	14:30 ~ 17:00	홍현길 (가천대)	동경대지진 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후 서울대학교가 되고 현재까지 입시지옥의 블랙홀이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가?	김수동 (동국대)	221
2		정영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송민영 (한국홀리스틱 교육연구소)	225
3		신현정 (중부대)	일본의 공생기반 진로교육 현황과 시사점	장지은 (성균관대)	230
4		조규복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과 일본의 상호배타적 사회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인공지능(GPT) 활용 포용적 수업 방법과 내용 모색 —독도를 중심으로—	강태원 (대구동원 중학교)	234
종합토론 송민영(한국홀리스틱교육연구소), 홍현길(가천대), 정영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현정(중부대), 조규복(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수동(동국대), 장지은(성균관대),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제14발표장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기획발표**

주관 :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좌장 : 김한식(한국외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 이주리에(이화여대)</b>					
1	15:00 ~ 17:00	유준희 (이화여대)	한국드라마의 일본어 자막과 더빙번역 비교연구 -『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신사의 품격』을 중심으로-	최소영 (한국외대)	239
2		이나경 (한국외대)	CAT 툴을 활용한 한일 번역 수업 사례연구 : 통번역대학원 전문번역 과목을 중심으로	길영숙 (서울외대)	243
3		송신애 (한국외대)	한국전쟁기 제노사이드 연구와 번역의 역할 -군사용어 ‘疎開’를 중심으로-	조승연 (이화여대)	247
4		남슬기 (한국외대)	일한 포스트 에디팅 연구 -AI 학습용 병렬 말뭉치 데이터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이선화 (중앙대)	251

**제15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 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2**

주관: 한일정경사회학회·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장소 : 자연과학관 7111호

좌장 : 전영수(한양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b>사회 : 임현정(리츠메이칸대)</b>					
1	15:00 ~ 17:00	양기호 (성공회대)	한일간 일본군위안부합의 쟁점과 상호인식 -문재인 정부기 한일간 갈등관계의 변용-	한혜인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255
2		야스모토 히로시(安本博司) (와카야마대)	日本の大学にみる日本学の現在 —和歌山大学の実践と結びつけて—	오승희 (서울대)	259
3		송정현 (동국대)	저출산고령화시대 일본의 규제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전영수 (한양대)	262
4		이영화 (도호쿠대)	지역의 음악 축제와 주민참가 -센다이(仙台) 조젠지 스트리트 제즈 패스티벌-	김혜숙 (한림대)	267

**제16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 기획발표

주관: 한일정경사회학회

장소: 자연과학관 7112호

좌장: 김준섭(국방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포스트코로나に向けた日本の地方行政・政治における新たな動き 사회: 오현석(서울신학대)					
1	15:30 ~ 17:00	河村和徳 (東北大学)	日本における地方議員のDC(デジタ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活用の論点:市区町村議会事務局調査および市区町村議意識調査から考える	김준섭 (국방대)	272
2		堤 英敬 (香川大学)	ポスト・コロナにおける日本の地方選挙の現状と課題	이지영 (대전대)	276
3		高選圭 (福島学院大学)	福島県会津若松市のスマートシティと住民参加	곽진오 (배재대)	280

**제17발표장**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기획발표

주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장소: 자연과학관 7113호

좌장: 박진수(가천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전쟁과 대중문화 사회: 홍윤표(성신여대)					
1	15:00 ~ 17:00	박진수 (가천대)	군가와 미학적 군국주의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 대중 음악-	유수정 (숙명여대)	285
2		박은희 (가천대)	전쟁(戰場)에서의 자살과 생존 -요시쓰네(義経) 최후를 둘러싼 두 서사의 공존-	박태규 (가천대)	287
3		임다함 (가천대)	‘기억’의 시대에 전쟁을 이야기 한다는 것 -애니메이션 <이 세상의 한 구석에(この世界の片隅に)>(2016)를 중심으로-	이현진 (고려대)	292
4		신민정 (가천대)	일본 근대 화가들의 전쟁 표상과 예술의 '건전함'	김지영 (영남대)	297

**제18발표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획발표**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장소: 자연과학관 7217호

좌장: 김환기(동국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재일디아스포라 문화와 다이나미즘			사회: 이영호(동국대)		
1	15:00 ~ 17:00	신재민 (동국대)	198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 속의 마이너리티 - 『민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보현 (충남대)	301
2		정성희 (동국대)	재일코리안 집중거주 지역에서의 민족학급의 역할	김용기 (한림대)	304
3		권연이 (동국대)	국제규범을 통해 본 일본의 대북제재에 관한 일고찰 -조선학교 무상화 운동의 전개와 한계를 중심으로-	김현아 (한림대)	307

**제19발표장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기획발표**

주관: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좌장: 임찬수(중앙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불협시대의 시대, 문화적 공존의 가능성			사회: 김유미(배화여대)		
1	15:00 ~ 17:00	김화영 (수원과학대)	한일 세대론의 비교고찰	오성숙 (한국외대)	309
2		박수정 (성결대)	『BEASTARS』가 제시하는 공존 (불)가능성	전태호 (小樽商科大)	314
3		조용란 (중앙대)	조선후기의 왜관요(倭館窯) 연구 -『제방어호지어소물 어주문추 (諸方御好之御燒物御注文摺)』를 중심으로-	조지영 (同志社大)	320
4		최중락 (중앙대)	한일 TV드라마 포맷 현지화의 의미와 서사분석 -〈이태원 클라쓰〉와 〈룻폰기 클라쓰〉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현진 (동아방송 예술대)	325

**제20발표장**    **경희대학교 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기획발표**

주관: 경희대학교 글로벌류큐오키나와연구소

장소: 자연과학관 7219호

좌장: 손지연(경희대)

순서	시 간	발 표 자	주 제	토론자	page
기획주제: 냉전 아시아와 ‘언어’라는 물음			사회: 곽형덕(명지대)		
1	15:00 ~ 17:00	오카자키 료코 (리쓰메이칸대)	2000년 이후 김시종의 언어세계 - 「생리의 언어」와 「재소(在所)」를 중심으로-	장수희 (동아대)	330
2		장은애 (국민대)	사건 이후 마이너리티 언어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김석범, 메도루마 슌을 중심으로	심정명 (조선대)	334
3		안민화 (동의대)	마이너 영화 속 이언어적 말걸기: 재일/오키나와 재현 속 보이스 오버와 구술 아카이브의 수행성	심정명 (조선대)	338
4		이해미 (경희대)	언어를 파괴하는 언어들 -오키나와와 제주4·3 소설을 중심으로-	하타나카 아이 (경희대)	345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30~18:00

장소: 국제회의실

임시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사회: 조영남(고려대)
1	17:30~18:00	임시 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2	18:00	폐회사	이지형 (한국일본학회 회장)





[제1부]  
**학술발표**

# 초·중급 일본어 교재에 보이는 ‘-たち’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이훈성 (고려대)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본어에서는 명사의 수 표시(number marking)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이지 않다. 수 표시가 의무적인 영어 등의 언어에서는 ‘a student’, ‘cats’와 같이 명사의 수가 명시되는 경우에도 일본어에서는 ‘学生’나 ‘猫’ 등과 같은 단수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본어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수(數)가 문법적 범주가 아니라고 논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어에서 수 표시가 의무적이지 않다고 해도 일본어에서 명사의 복수가 아주 드물게 표시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명사의 복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명사의 복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법을 적절히 교육하고 습득하는 것은 일본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 존재하는 여러 복수 표지 가운데 범용성이 높은 것으로 ‘-たち’를 꼽을 수 있다. ‘-たち’는 접미사로서 명사에 후행해 명사의 복수성을 나타낸다. 예컨대 ‘学生たち’와 ‘猫たち’는 각각 ‘学生’와 ‘猫’의 복수를 나타낸다. 그런데 일본어 초·중급 교재에서 ‘-たち’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보면 불충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인식한 불충분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たち’와 공기하는 명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たち’의 연합적 복수(associative plural)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예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교재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일본어 초·중급 교재에서 ‘-たち’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개선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 대상 및 방법

필자는 한국어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몇 종의 일본어 초·중급 교재에서 ‘-たち’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일본어 교재는 수도권 몇 개 대학교에서 2023년 1학기에 개설된 초·중급 수준 일본어 수업의 교재로 사용된 것들이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업 정보를 참고해 초·중급 수준의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을 선별한 후 이 수업들에서 사용되는 교재 10종 14권을 추려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교재들의 수준은 대략 일본어 능력 시험(JLPT) N5 수준에서 N3 수준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이 된 일본어

교재의 목록을 아래의 표1에 제시한다.

표1. 초·중급 일본어 교재 목록

대학명	수업명	교재명	출판년도
ㄱ대	중급일본어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3』	2018
ㄴ대	일본어I	『New 도키도키 일본어 초급 上』	2020
		『New 도키도키 일본어 초급 下』	2020
		『New 디스크 일본어 上』	2019
	교양일본어 I 교양일본어 II	『KUJAP 일본어』	2005
ㄷ대	일본언어와문화I	『신 다이어트 일본어 초급 1』	2014
	일본언어와문화II	『신 다이어트 일본어 초급 2』	2014
ㄹ대	집중일본어I	『집중 일본어』	2015
ㅁ대	일본어(1)	『두 권으로 끝내는 일본어뱅크 디스크 上』	2011
		『New 디나믹 일본어 Step 1』	2012
	일본어(2)	『두 권으로 끝내는 일본어뱅크 디스크 下』	2011
		『New 디나믹 일본어 Step 2』	2012
ㅂ대	교양일본어I	『대학일본어』	1997
ㅅ대	초급일본어	『일본어 한대 초급부터 한대』	2017

표1에 열거된 교재들의 대부분은 일본어의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와 발음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이 교재들이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 설계되고 집필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교재들에서 ‘-たち’는 비교적 초반 단원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たち’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된다는 점이나 명사의 복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언어 학습의 기본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たち’가 교재 내에서 빠르게 등장하는 것에 비해 ‘-たち’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설명은 교재의 마지막까지 전혀 제시되지 않거나 혹은 제시된다고 해도 대단히 간략한 정도에 머무른다. 교재의 예문에도 ‘-たち’의 기능을 추측하게 할 만한 충분한 단서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본어 학습자는 ‘-たち’의 기능과 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たち’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초·중급 교재에 ‘-たち’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미쓰이(三井 2023)에 따르면 일본어 모어 화자들에 의해 제작된 일본어 초·중급 교재에도 ‘-たち’에 대한 설명은 없거나 간략한데<sup>1)</sup>, 이러한 관점이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재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たち’와 한국어의 ‘-들’은 기능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재의 저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별다른 설명 없이 ‘-たち’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셋째로 일부 교재의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신는 것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에서 자여넣 ‘-たち’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본어 초·중급 교재에서 ‘-たち’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되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향후의 교재에서 ‘-たち’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및 보충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三井さや花. 2023. 「複数を表す接尾辞「たち」の誤用分類の試み ―日本語学習者の作文にみる複数形の誤用系統―」 『一橋日本語教育研究』 11, 一橋日本語教育研究会. 75-89.

## 2.2 ‘-たち’와 공기하는 명사에 대한 설명

전술했듯이 표1의 초·중급 일본어 교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교재에서 ‘-たち’를 초반부부터 도입하고 있으나 ‘-たち’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나 대단히 간략했다.

이 절에서 특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たち’와 공기하는 명사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그것이 결과적으로 ‘-たち’의 오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たち’는 ‘-들’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중급 일본어 학습자는 ‘-들’을 ‘-たち’로 치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たち’를 이해하기 쉽다. ‘-たち’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이토(齋藤 2010)<sup>2)</sup>가 지적했듯이 일본어에서는 비문법적으로 여겨지는 용례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들’에 선행할 수 있는 명사의 범위에 비해 ‘-たち’에 선행할 수 있는 명사의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たち’가 현재 언어 변화를 겪으며 ‘-たち’에 선행할 수 있는 명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헤이안 시대에 ‘-たち’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신을 가리키는 명사와 공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일본어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고 현재의 시점에서 ‘-たち’는 ‘學生たち’, ‘猫たち’와 같이 존경의 대상이 아닌 인간 명사는 물론 인간과 친근한 관계에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와도 공기한다. ‘-たち’와 공기할 수 있는 명사의 범위가 인간과 가까운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명사가 의인화되지 않는 상태<sup>3)</sup>에서 ‘-たち’와 공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의 혼재는 초·중급 일본어 교재에서 ‘-たち’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닛타(1997)<sup>4)</sup>는 ‘花たち’와 같이 식물 명사와 ‘-たち’가 공기하는 용례를 문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机たち’와 같이 무생물 명사와 ‘-たち’가 공기하는 용례는 비문법적으로 인식했다. 무생물 명사와 ‘-たち’의 공기가 비문법적이라고 보는 최근 연구로는 시모지(Shimoji 2022)<sup>5)</sup>, 미쓰이(三井 2023) 등이 있다. 한편 무라하타(2019)<sup>6)</sup>나 일부 일본어 사전에서는 무생물 명사와 ‘-たち’가 공기하는 용례를 문법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대 일본어 문어 균형 코퍼스(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이하 BCCWJ)에도 ‘-たち’와 무생물 명사의 공기 용례가 존재하며, 웹 검색에서도 이러한 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던 ‘-たち’의 성격 변화가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비교적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たち’의 기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낳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화되지 않은 ‘机たち’와 같은 용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용례를 초·중급 일본어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는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필자가 BCCWJ의 일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무생물 명사와 ‘-たち’의 공기 용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2) 齋藤明美. 2010. 「日本語と韓国語の複数形接尾辞について -「-たち」と「-들」を中心にして」『일본어학연구』 제27집, 한국일본어학회, 69-86.

3) 무생물 명사와 ‘-たち’가 공기한 용례를 비문법적인 용례로 보는 일본어 화자도 영화나 만화 등에서 의인화된 ‘車’, ‘機関車’ 등을 ‘車たち’, ‘機関車たち’로 지칭하는 것은 비교적 용인하기 쉬운 것이다.

4) 仁田義雄. 1997. 『日本語文法研究序説 : 日本語の記述文法を目指して』, くろしお出版. 118-119.

5) Shimoji, M. 2022. "Number in Japonic family," Daniel, M. and Acquaviva, P. (eds.), *Number in the World's Languages: A Comparative Handbook*.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505-528.

6) 村端佳子. 2019. 「日本語の複数標識に見られる英語の影響-「-たち」が表象する個別化の観点から-」『宮崎国際大学教育学部紀要教育科学論集』第6号、宮崎国際大学教育学部、15-27.

해 보이나, 이러한 용례는 ‘-たち’의 전체 용례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볼 때 초·중급 일본어 교재에서는 ‘-たち’를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소개하는 전략이 주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たち’와 ‘-들’이 기능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명확히 다른 부분도 있음을 학습자에게 상기시킨다. 두 번째로 ‘-たち’와 공기하는 명사의 대부분이 주로 인간 명사 및 인간과 가까운 관계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임을 안내한다. 이어서 비교적 최근의 변화로 ‘友人の口からは、すっかり忘れていた思い出たちがたくさん出てきた.’<sup>7)</sup>와 같은 용례가 보이나 일본어 모어 화자들 가운데는 이를 비문법적으로 보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3 ‘-たち’의 연합적 복수 기능에 대한 설명

연합적 복수(associative plural)<sup>8)</sup>란 간단히 말해 사토(佐藤), 스즈키(鈴木), 다카하시(高橋)라는 세 명의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을 ‘佐藤たち’, ‘鈴木たち’, ‘高橋たち’ 등으로 지칭하는 용법을 말한다. ‘-たち’가 연합적 복수 표지로서 사용되는 용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들’은 연합적 복수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철수, 영수, 영희라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세 사람을 ‘\*철수들’, ‘\*영수들’, ‘\*영희들’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비문법적이다.

표1의 초·중급 일본어 교재 가운데 ‘-たち’의 연합적 복수 용법을 다루는 교재는 없었다. 다행히 초·중급 수준 학습자의 입장에서 ‘佐藤たち’와 같은 용례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합적 복수는 일본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서도 관찰되며, 한국어에서도 ‘-네’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나마 연합적 복수 표지로 기능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연합적 복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佐藤たち’와 같은 용례를 처음 접한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해당 용례가 순간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 간단한 설명과 예문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た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3.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를 위해 제작된 교재 10종 14권에서 ‘-たち’가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 기존의 교재에서 ‘-たち’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첫째로 ‘-たち’와 공기하는 명사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과 둘째로 연합적 복수 표지로서의 ‘-たち’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たち’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을 논했다.

7) 「(ひととき) 高校生だった自分と」『朝日新聞』2022年12月19日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505537.html> (2023년 7월 31일 확인)

8) 연합적 복수란 용어는 associative plural의 번역어이다. 이 복수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associative plural 대신 group plural, cohort plural을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으며, 일본어 번역어도 連合複數, 結合の複數, 近似複數, 連結的な複數 등으로 다양하다.

# 生成AI(ChatGPTおよびBing)を導入した日本語教育の実践報告

李敬淑(アジュ大学)

## 1. 研究の背景と目的

2022年11月に公開された対話型AI・ChatGPT登場は、外国語教育に大きな衝撃を与えている。日本では東京外国語大学がいち早くChatGPTの取り扱い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を発表しており(<https://www.tufs.ac.jp/education/guideline/>)、自然な文章をいとも簡単に作り出すChatGPTを見ながら外国語を教える教員の仕事がAIのChatGPTに置き換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の声も上がるほどである。

ChatGPTと代表される大規模言語モデルの登場は、日本語教育においてもまさにパラダイムシフトであろう。ChatGPTを含む生成AIによって日本語教育の物理的な環境も一気にデジタル化へと突き進む可能性もある。

ChatGPTは、①例文作成②文法説明③作文添削④会話練習のパートナー⑤翻訳および要約⑥単語帳の作成⑦試験問題の作成⑧授業計画案の作成等、日本語教育において様々な活用方法が考えられる。

一方、ChatGPTやBingChatなどの生成AIが日本語教育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様々な議論がなされているが、日本語教育においてChatGPTをどのように活用すればいいかその具体的な活用方法や学習効果などについては、まだわからないことが多い。

本研究は、生成AIのChatGPTおよびBingChatを実際の日本語授業に導入した授業実践報告である。

無料版のChatGPT3.5は2021年までのデータを基にしているため、最新の情報を踏まえて回答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が、BingChatは最新のデータも使えるため、本研究ではChatGPTを中心に活用しながらもBingChatも併せて活用している。

本研究の目的は、①ChatGPTを日本語学習や指導にどこまで活用できるか②学生のChatGPTへの認識や満足度の調査③実践的な試みを通してChatGPTの限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

尚、本研究は、日本語授業への実践的な試みであり、日本語専攻の上級日本語学習者を対象とした実践報告は稿を改めて議論したい。

## 2. ChatGPT/BingChatを活用した授業実践

### 2.1 実施科目

日本語2(初級、受講生24名)と日本語2(初級後半～中級、受講生19名)の二つのクラスでChatGPTを導入して授業を行った。このクラスは、大学の一般教養科目でありながら本校国際学部の専攻科目でもある。

## 2.2. ChatGPTの授業への導入

まず、学期の初めにChatGPTの導入について説明し、ChatGPTの使い方などをまとめた授業の資料を学生に配布した。授業では主にChatGPTを使用した。日本語の文章生成にはBingChatも使うように促した。BingChatは生成される文章情報の出典が表示されるため、リサーチにも活用できるからである。また、ChatGPTやBingChatの使い方を授業で説明する際、10分以内に留めるよう授業の時間配分に注意を払った。

### ■ Step1: ChatGPTの仕組みや限界について教える

- ✓ ChatGPTが①例文作成②文法説明③作文添削④会話練習の疑似パートナー⑤翻訳⑥単語帳の作成、のように日本語学習に使えることを教えた。
- ✓ ChatGPTが内包する問題点については、ChatGPTによって生成される文章情報に関して他のリソースを駆使してその情報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繰り返し強調しながら教示した。
- ✓ BingChatの場合は「より創造的に」「よりバランスよく」「より厳密に」の3種類の会話スタイルの設定や「作成」機能においてトーンを変えることで文章のフォーマル度が変わるので、生成される日本語の文章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くるかなど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図1)。

### ■ Step2: ChatGPTのプロンプトの書き方を教える

- ✓ プロンプトエンジニアリングとはChatGPTにどのようなテキストを生成させるかを指示するスキルのことをいい、ChatGPTの力を最大限に引き出すための条件設定の方法である。
- ✓ 「あなたは日本語教師です」、「100字以内の例文を5つ」、「分かりやすく、例をあげながら」、「小学生レベルの日本語で」のようなプロンプトの条件設定に関しても授業で実演しながら教示した。
- ✓ ChatGPTを有効活用する方法を明示し、実際にその目的で使ってもらおうことだろう。自分の言葉で書き始める前に一般的な知識を俯瞰すること、行き詰まったときに問いかけと回答を通して発想のヒントを得ること、ビジネスの定型的な文章を作成すること、プログラミングを補助することなどが活用法として現時点で提案されている。

### ■ Step3: ChatGPTを活用した作文課題を出す

- ✓ ChatGPTを使用した作文課題を2回出題している。一回目は授業で習った日本語の文型の入った例文をChatGPTを活用して作る課題である。
- ✓ 2回目の課題は、日本語の作文課題である。韓国語の文章をまず学生自身が日本語の文章で作成し、次に同じ韓国語の文章をChatGPTに作らせて、最終的にHiNative (<https://ja.hinative.com/>)の日本人に直してもらい、自分の作文とChatGPTで生成された文章を日本語母語話者にチェックしてもらうものである。

### ■ Step4: ChatGPTを活用した作文課題のフィードバック

- ✓ ChatGPTを使った課題のフィードバックを通してChatGPTの使い方や限界についてももう一度授業の中で確認する
- ✓ ChatGPTやBingChatが出している日本語の文章を共有し、それらを批判的に分析する時間を設けることで、ChatGPTが生成する日本語の文章を批判的に検討する時間を設けた。



図1. BingChatの画面

일본어 문형 「Vたばかりです。」가 들어간 일본어 예문을 10개 만들어줘. 단, 고등학생 수준의 일본어로 부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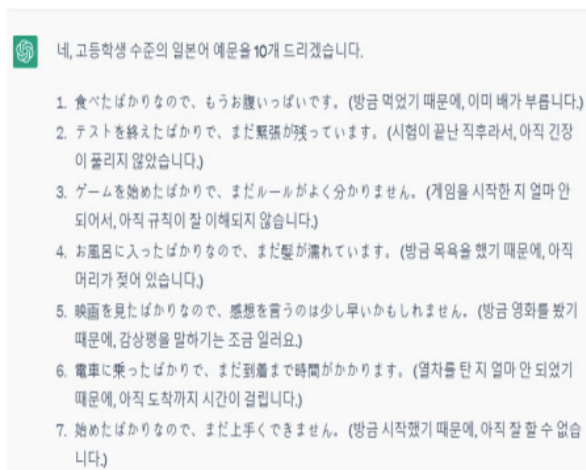


図2. 学生の提出したしたChatGPTの画面

### 3. 結果と考察

ChatGPT의 활용狀況や学生の反応を調べるため、受講生43名を対象に学期終了後の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以下、調査結果である。

#### 3.1 ChatGPTの日本語学習への活用状況

##### ■ ChatGPT/BingChatは日本語学習に有用だと思うか

✓ 非情に有用(12%)、有用(63%)、普通(26%)の結果で、約8割の学生は生成AIが日本語学習に有効であると考え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 ■ 他の科目でもChatGPTを導入しているか

✓ 他の科目では導入されていない(60%)、他の科目でも導入している(60%)の結果であった。

##### ■ ChatGPTを週に何回つかっているか

✓ 毎日使っている(2%)、週に何回も使っている(23%)、週に1回程度(60%)、週に一回未満(14%)の結果であり、85%の学生は特にChatGPT関連の課題がなくても定期的にChatGPTを使用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 ■ 日本語学習のどの分野にChatGPTを使用しているか(複数回答可能)

✓ 単語(16%)、文法(49%)、作文(53%)、会話(28%)、その他(9%)の結果で、ChatGPTを主に文法や作文、会話の勉強に活用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 ■ 日本語学習にChatGPTを活用することへの満足度について

✓ ChatGPTを日本語の学習に活用してみたうえでの満足度は、大変満足(9%)、満足(58%)、普通



(33%)であり、約7割の学生はChatGPTやBingChatなどの生成AIに対するイメージが肯定的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 3.2 ChatGPT導入への課題

教師側の立場としてChatGPTを導入におけるいくつかの課題について述べたい。

#### ■ ChatGPTのハルシネーション(hallucination)問題

- ✓ 作文の添削や文法説明においてみられるハルシネーション(hallucination)問題があり、ChatGPTを使わないほうがいいという学生がおり、ChatGPTが学習の妨げになる場合も考えられる。
- ✓ ただし、ハルシネーション(hallucination)問題は、有料版のChatGPT4においてはかなり減っているのは事実であるが、有料版を学生に使用させるべきなのかについては議論の余地がある。

#### ■ 課題の設定や評価方法

- ✓ ChatGPTによって日本語の文章が簡単に生成されるため、日本語の授業でどのような課題を出題すべきか悩ましいところである。例えば、作文の課題をAIの生成した文章を安易にコピーするような行為が横行すると、自分で考えて書いたり話したりする本当の意味での日本語力の向上につながらないからである。
- ✓ ChatGPTの使用を念頭に学習につながるような課題作りの工夫が必要である。

#### ■ 教師側に求められる生成AIを使いこなせるようなスキル

- ✓ 生成AIの技術的な発展は目まぐるしいもので、その速度に圧倒されてしまうほどである。
- ✓ 生成AIを授業で導入するためには、教師へのAIリテラシー教育が最も必要であろう。

## 4. まとめ

本研究では、ChatGPTやBingChatを日本語の授業に導入して授業を行った実践事例の一つである。ChatGPTのような生成AIがこれからの日本語教育に与える影響は計り知れない。

学習者主導の学習設計や個別学習を生成AIが手助けしてくれる日も近いように思える。

### 【参考文献】

- 오선경(2023)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의 챗 GPT 활용 사례와 학습자 인식연구」『교양교육연구』 17(3), pp.11-23.  
尾関基行・山本あすか(2023) 「遠隔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でのChatGPTの利用に関する一検討」『日本教育工学会研究報告集』 2023(1), pp.77-83.

# 主格助詞「が」の構造変化

—近世～現代まで—

金銀珠 (名古屋工業大学)

## 1. はじめに

主格助詞「が」は、古代日本語では「吾妹(わがいも)」のような連体格の用例が多かったのが、構造変化を経て、現代日本語の主要な主格助詞として定着している。従来の研究では「が」が主格助詞として定着していく過程において、どのような構造変化をしたのか、あまり論じられて来なかった。本発表では、特に近世以降から現代に焦点を当てて、この問題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近世以降に注目するのは、中世末までに「が」が主格助詞として一定の地位を確立しているのが知られており(山田2010, 金2020など)、主格助詞における構造変化は、近世以降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ためである。

## 2. 考察

考察は、1650年頃から1970年頃までの日本語資料を、50年ほどの時間的間隔をおいて分析する(「調査資料」参照)1)。資料は基本的に全範囲を対象とするが、他の資料に比べ比較的長い場合は、500例前後の資料の切りのよい所までを対象とする。以下、「が」の変化について、構文による違い、「が」と述語の間に介在する従属節、の二点に注目して考察する。

### 2.1 構文別の変化

「が」が用いられる構造を(1)のような主節、(2)のような従属節、(3)のような連体節、(4)のような準体節に分けて、その用例数の変化を表1にまとめる。

- (1) 是に懐紙が有よ(集狂言, 316p)
- (2) あれは爪が割て居ぬから、まだ人が乗られる。(鹿の子餅, 353p)
- (3) せつかれて忠兵衛が戻した小判、お目にかけうか(冥途, 129p)
- (4) それじやア此糸が合点しねへも尤サの。(春色・巻之三, 十六ウ)

---

1) 使用資料③と⑤のそれぞれの2点は、文体が同じで成立年度にあまり隔たりがないため、同じ時期にまとめた。なお、③と⑦以外は、コーパス検索アプリケーション「中納言」のCHJから「が」の用例を検索し、資料を確認しながら、用例を収集した。資料名は便宜上、最初の二・三文字で省略した。

<表1> 「が」の構造別の用例変化

	主節	従属	連体	準体	合計
集狂言	237 (47%)	206 (41%)	31 (6%)	32 (6%)	506
冥途	58 (53%)	37 (34%)	11 (10%)	3 (3%)	109
鹿・聞	84 (53%)	64 (40%)	6 (4%)	5 (3%)	159
春色	209 (42%)	206 (41%)	58 (11%)	24 (5%)	497
交・明	102 (23%)	260 (57%)	69 (15%)	22 (5%)	453
吾輩	211 (43%)	196 (40%)	85 (17%)	4 (1%)	496
白夜	218 (43%)	146 (29%)	137 (27%)	2 (1%)	503

表1を見ると、「が」は近世期から現代語まで、主節および従属節において安定した使用を示している。(4)のような用言の連体形が名詞のような機能を持つ準体法は、中世末までにかなり衰退しているのが知られており、これにより、「が」の用例も多くない。連体節においては、近世初期の集狂言之類では6%の割合で用いられていたのが、現代語の白夜草紙では27%に使用が拡大している。連体節を、被修飾語が修飾部の述語と何らかの格関係を成す「内の関係」(例文(5))と、何らかの格関係を成さない「外の関係」(例文(6))に分けて見ると、「が」は表2のように外の関係において使用を伸ばしている。これは、次節で見るように「が」の構造拡大に影響する重要な変化である。外の関係を成す被修飾語は(6)のような「の」や「気、わけ、時、ばかり、事実、事、くせ、位、ほど、頃、様子」などのようないわゆる形式名詞に相当する語類が多い。

- (5) せつかれて忠兵衛が戻した小判、お目にかけうか(冥途, 129p)  
 (6) 余が車屋の黒と知己になつたのはこれからである。(吾輩, 16p)  
 (7) 一番先に見付けたものが之を食ふ権利があるものとなつて居る。(吾輩, 8p)

また、内の関係の連体節でも、連体修飾部と被修飾語が成す関係には一定の偏りが見られる。すなわち、(5)のような連体修飾部と被修飾語が、動作と動作に関わる格関係を成す例に偏り、(7)のような、被修飾語が人や物で、連体修飾部が人や物の属性を表す例(以下、「人・物連体」)は、歴史的にさほど使用率を伸ばしていない、という点が特徴的である。人・物連体の用例数の変化を見ると、「1例(集狂言)→1例(冥途)→1例(鹿・聞)→0例(春色)→2例(交・明)→3例(吾輩)→5例(白夜)」のようになる。近世期から明治末の「吾輩は猫である」までの8例中、5例が(7)のような形式名詞「もの(物・者)」の用例であり、表2で見たように、被修飾名詞が形式名詞を中心とするところで構造拡大したのと連続的である。

## 2.2 介在従属節の変化

本節では、「が」と述語の間に介在する従属節の種類について見る。「が」と述語の間に介在する節は、近世以降、現代語まで(8)のような事柄を描写する、テ節と引用のト節、(9)のような連用節が最も一般的で多い。原因、理由などを表す「ので」「から」など、仮定を表す「ば」「なら」、逆接を表す「が」「ども」などの介在はあまりなく、事柄を描写する節が主に介在している。これは、「が」を受ける述語が連体形述語であったという古代語の構造の記憶を維持していることに起因しているものと考えられる(金2022)。連体形述語が受ける従属節は事柄を描写するものがほとんどであったためである。

- (8) ミヤこの者<sup>が</sup>ミ付てわらふて、路次すがらうたをよまふ、といひて(集狂言, 381p)  
 (9) 彼鬼兵衛<sup>が</sup>、如才なく機嫌をとり、なに事も深切めかして勤めおき、今は唐琴屋のあるじのごとく万事に我意を

行へど(春色・卷之二, 一ウ)

「が」が構成するこのような文構造は、古代語の主語を表す主要な形態であった無助詞が取る構造と比較すると、構造がかなり小さく、その分、文の区切り目と意味の理解がしやすい。無助詞主語が従属節や主節に用いられる場合、述語との間には、原因・理由、仮定、逆接などを表す節が制限なく介在している(金2022)。しかし、このような「が」の構造は、逆の面から見れば、原因・理由や条件などが述べられず、主格助詞として用いられる幅がかなり狭められているとも言える。「が」と述語の間にテ節や連用節、ト節などの事柄を描写する節以外のものが介在している例は少なく、以下(10)～(15)にまとめる(時代順、他にドモ節介在1例)。

- (10) 私<sup>が</sup>斯しておくから男妾でも囲て置様にと一言のことでも気にかけてやアなさるめへかと太義気兼をして居るのに(春色・卷之九, 十六ウ)
- (11) 是れ<sup>が</sup>以前で見ると、御用に成るから其方は出て行け、家は持退きても苦しからず、は以来の上納に及ばず、と申付ける位の事也(明治・卷二, 二八ウ)
- (12) バルザック<sup>が</sup>或日自分の書いて居る小説中の人間の名をつけ様と思つて色々つけて見たが、どうしても気に入らない。(吾輩, 44p)
- (13) 平生吾輩<sup>が</sup>彼の背中へ乗る時に少しは好い顔でもするなら此漫罵も甘んじて受けるが(吾輩, 13p)
- (14) 私<sup>が</sup>妻以外の女になら可能であっ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白夜, 16p)
- (15) 自分<sup>が</sup>その気になれば、十時間はおろか十一時間でも十六時間でもうつらうつらと眠っていられそうな気がした。(白夜, 39p)

これらの用例には、原因を表すカラ節((10)), 逆接や順接条件を表すト節((11)), ガ節((12)), バ節((15))等が介在している。助詞「が」と述語の間に介在する従属節は、厳密には(10)のカラ節、(12)のガ節のように、主語の行為や動作などを指すものであるが((10)のガ節の述語「つけて見た」の行為主はバルザック)、ここでは、広く、従属節の主語が「が」で示される主語とは違うものや((11)(13)), 節ではなく名詞句の用例も含めている((14))。

(10)～(15)の用例は、構文的に二つの特徴を持っている。第一に、(11)以外、「が」に係る述語が、出来事に対する主語(又は話し手)の主観的な感情や評価を含む構文である点である。例文(10)の述語が「気兼をして居る」、(12)が「気に入らない」、(15)が「気がした」、といった具合である。これらの例文の構文構造を示すと、(16)のようになる。ここで、(16)のような構造において「が」の構造拡大の余地が開かれていると言えそうである。では、なぜ、このような構文であるのだろうか。「が」には対象格とも言われる(17)のような用法があり、歴史的に見ると、「惜しい」「残念」「無念」「恨めしい」「不憫」など感情や評価を表す形容詞述語から出発している。(16)の構文は、(17)のような感情や評価を表す構文をベースとして、事柄叙述の部分的感情・評価の理由や条件などとして用いており、(16)のような構文から派生して出来たも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 (16) 【主語「が」——事柄叙述(ト節・バ節・カラ節など)——感情・評価述語】
- (17) 五十両<sup>が</sup>惜しければ、母御の前で言ふわいやい(冥途, p.132)

第二に挙げられる構文的特徴として、述語の部分の文末の名詞が、名詞としての性質が失われ、助動詞や接続詞のように機能語化する、いわゆる文末名詞文とも言われる構文が目立つ点である((10)(14)(15))。(15)の構造は、(15a)のように「気」を被修飾語とする連体修飾節とは解釈出来ず、(15b)のように主語「自分」

がに係る述部の一部として解釈される。

- (15a) {{{自分が(～)十六時間でも眠っていられそうな}気}がする}
- (15b) {自分が(主語)―(～)十六時間でも眠っていられそうな気がする(述部)}
- (15c) 自分は{が?}その気になれば, 十六時間でも眠っていられそうだった。

このような文末名詞文の振る舞いは, 新屋(1989), 三宅(2005), 小柳(2018)などの共時的・通時的の研究において既に指摘されており, 「つもりだ」「わけだ」「はずだ」「ものだ」のようなもともと形式名詞類の語類に多い。前節で, 「が」が形式名詞類を中心とした外の関係の連体節に構造拡大したのと連動する。

(15)の例文は, 文末名詞文の「気がする」がなければ, (15c)のように助詞「は」がより自然な構文である。助詞「は」と述語との間に介在する節は条件・理由なども入り, 介在従属節にさほど制限がないためである。これは, (10)と(14)の例文でも同様である。つまり, 「が」が文末名詞文の主語として用いられる場合は, 「が」の構造が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が, これが何に起因しているか, 明らかではなく, 今後の考察が必要である。

### 3. まとめ

本発表では, 近世以降から現代語までの主格助詞「が」の構造変化について考察した。論じた点を, 次の(18a,b,c)にまとめる。

- (18) a. 「が」と述語の間に介在する従属節は, 事柄を描写する節が集中する。
- (18) b. 「が」の構造は, 感情・評価を表す述語が成す構文, 文末名詞文の構文において構造拡大の余地が開かれている。
- (18) c. 連体節は被修飾名詞に形式名詞類が集中する外の関係において拡大している。内の関係の人・物連体も最初は形式名詞が多かったが, 用例数はさほど伸びていない。

(18b,c)についての歴史的変化のより詳細な考察が必要である。今後の課題とする。

### 【参考引用文献】

- 金銀珠(2020) 「主格助詞「が」に係る述語の拡大―上代から中世までを対象に―」『名古屋大学国語国文学』113
- 金銀珠(2022) 「無助詞「の」「が」の歴史的展開―平安～現代までの構造変化に注目して―」名古屋言語研究会第192回例会レジュメ
- 小柳智一(2018) 『文法変化の研究』くろしお出版
- 新屋映子(1989) 「文末名詞」について『国語学』159
- 三宅知宏(2005) 「現代日本語における文法化―内容語と機能語の連続性をめぐって―」『日本語の研究』1-3
- 山田昌裕(2010) 『格助詞「が」の通時的研究』ひつじ書房

### 【調査資料】

- ①集狂言之類(1642): 大塚光信編(2006)『大藏虎明能狂言集翻刻註解』/②冥途の飛脚(1711): 小学館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③【喃本】鹿の子餅(1772)・聞上手(1773): 『江戸笑話集』岩波古典文学大系/④春色梅児与美(1836, 卷一～卷十): 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史研究用テキストデータ集/⑤交易問答(1869)・明治の光(1875): 国立国会図書館蔵本/⑥吾輩は猫である(1907, 1p～78p): 大倉書店/⑦白夜草紙(1975, 7p～105p): 文芸春秋

# 日韓における慰めの特徴に関する考察

—YouTubeのコメントを対象に—

朴胥延 (高麗大)・朴カラム (高麗大)・韓洙玟 (早稲田大 委託履修生)

## 1. はじめに

日本と韓国の慰めの戦略の使用に相違点があると言われている(元智恩 2010a)。日韓慰めに関する研究には他にも、関山(1998)、黒川(2001)、元智恩(2010b, 2011)、차경미(2020)などがあるが、慰めの談話データの収集が難しいが故に、いずれも談話完成テストやドラマ分析などの方法を用いている。しかし、日韓慰め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には、実生活で使われる日本語と韓国語の慰めを比較する必要がある。そこで本稿では、日韓同じ状況でどのような「慰め」が使われるのか分析するために、YouTubeの動画に書き込まれた日韓慰めのコメントを大量に収集し、対照分析を行う。

## 2. 研究方法

### 2.1 本研究における「慰め」の定義

本研究では関山(1998)と차경미(2020)の定義を参考し、「相手の苦痛を減らす目的を持つ発話行為、または相手に襲った困難や苦痛によって生じる様々な問題、又は困難まで心配して行う発話行為」を慰めと見なす。

### 2.2 分析資料

本研究では、日本人と韓国人がYouTubeに投稿した動画に書き込まれたコメントを収集し、対照分析を行う。YouTubeのコメントから資料を集めた理由は二つある。一つ目は、日韓で同じ場面での慰めが大量で収集できると期待できるからであり、二つ目はYouTubeのコメントには打ち言葉としての特徴が現れるため、より現代社会に寄り添った研究結果が得られると期待できるからである。

分析資料とするの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関する経験談を語る日韓各々2本の動画であり、動画に書き込まれたコメントをPyCharmというプログラムを用いてクローリング<sup>1)</sup>、抽出したコメントである。その中で、慰めに該当するコメントのみを分析対象とする<sup>2)</sup>。<表1>は動画が投稿されたチャンネル名と抽出したコメント数、また、分析対象となる慰めのコメント数と談話機能の数である<sup>3)</sup>。

<表1> 本研究の分析資料

国別	チャンネル名	コメント数	慰めのコメント数	談話機能の数	計
日本	岩本勉チャンネル	238	208	466	709
	マリンパッパ〜 MARINPAPPA	209	152	243	
韓国	삼대장 Samdaejang	474	317	537	693
	오영주 OH!YOUNGJOO	131	80	156	

1) 2022年4月16日にコメントの抽出を行った。

2) 本研究では、分析の際に、コメントに含まれた絵文字、顔文字の機能は除外する。

3) 本稿での談話とは、ひとまとまりの言語表現である。

### 3. 分析及び考察

#### 3.1 談話機能からみた慰めの分類

〈表2〉は分析資料を関山(1998)、元智恩(2010a, 2010b, 2011)、차경미(2020)の慰めの分類を参考にし、再分類したものである。

〈表2〉 日本語と韓国語の慰めの談話機能

談話機能	定義	例
元気づけ	慰め客体を励ましたり、元気が出るようにさせること。	「岩ちゃんの元気で乗り切ってください」 「긴강한 모습 기다리겠습니다」
同情	慰め客体の置かれた状況・立場を理解しつつも、観望的な姿勢を保つこと。かわいそうに思うことや、あわれむことなどを含む。	「神様からの贈り物大変だけどね働きすぎだと」 「凄くしんどそう」 「아 진짜 아파보여요」
感情移入	慰め客体の苦しみや悲しみを慰め主体も同じように感じること。また、慰め客体の立場から物事を捉えること。	「아프셨다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心配	慰め客体の様子をうかがうこと。	「大丈夫ですか？」 「목이나 머리 안 아프세요?」「괜찮나요?」
アドバイス	慰め客体に現在の状況でできる対処方法や、してほしい行動を示すこと。	「今は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 「아플 땐 잘먹고 잘쉬고 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약 잘챙겨드세요」
庇う	慰め客体が責任を感じたり他人から責められたりしないように、慰め客体を庇い守ること。	「こんな時世なんで」 「十分気をつけていたんだろから」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걸리게 되더라고요」
安心	慰め客体の状況が酷くならなかったことや良くなったことに対して、慰め主体の安心を示すこと。	「熱が下がって良かったですね」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安心させる	未来の肯定的な展望を示すなど、慰め客体の不安を和らげること。	「開幕前で良かったです」 「걱정하지마시고」 「일주일이면 거의 다 완치됩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ほめ	慰め客体の苦痛や困難を乗り越えるため行った努力や成果を認め、褒めること。	「動画配信ありがとう」 「貴重なお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른 격리자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남겨줘서 고마워요」
冗談	有名なセリフや名言、言葉遊びなどを用いるなどで、慰め客体を笑わせようとする。ノリ・いじり・からかいを含む。	「岩ちゃんの熱さで、北海道の雪を溶かして来てや」 「새로운 그림 오히려 좋아 농담이고」 「도운님께서는 약조건에서도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その他		「明日は我が身」 「오늘 새삼 제가 느낀 영주님은 말씀을 차-엄 예쁘게 바르게 잘 하세요」

関山(1998)や元(2010a, 2010b, 2011)で「大変だったんだね」「기분 안 좋겠다」を〈共感〉として分類しているが、本稿では上記の例のような先行研究の〈共感〉を〈同情〉に分類し、慰め客体の苦しみや悲しみを慰め主体も同じように感じたり、または慰め客体の立場から物事を捉える談話は〈感情移入〉に分類した。

また、関山(1998)では、〈手助けを申し出る〉、元(2010, 2011)では〈協力〉に当たるが、慰め主体が協力を申し出たり、その旨を表明することで慰め客体に助力しようとしている。本研究では直接慰め客体を手助けすることはできかねるため、コロナに感染した慰め客体に「こんな時世なんで」「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걸리게 되더라고요」といった形で慰め主体が助力する談話が現れた。

### 3.2 談話機能からみた慰めの使用頻度

<表3>は、日本と韓国のコメントに現れた談話機能の頻度数とその割合である。

<表3> 日本と韓国のコメントに現れた談話機能の頻度数と割合

日本				韓国			
順番	区分	頻度数	割合(%)	順番	区分	頻度数	割合(%)
1	元気づけ	289	40.8%	1	元気づけ	296	42.7%
2	アドバイス	155	21.9%	2	アドバイス	153	22.1%
3	庇う	119	16.8%	3	同情	105	15.2%
4	安心	58	8.2%	4	庇う	35	5.1%
5	同情	37	5.2%	5	ほめ	28	4.0%
6	ほめ	19	2.7%	6	安心させる	26	3.8%
7	心配	16	2.3%	7	感情移入	15	2.2%
8	冗談	8	1.1%	8	安心	14	2.0%
9	安心させる	4	0.6%	9	心配	10	1.4%
10	その他	4	0.6%	10	冗談	9	1.3%
11	感情移入	0	0.0%	11	その他	2	0.3%
合計		709	100.0%	合計		693	100.0%

まず、<庇う>に関しては日本が16.8%であることに対して、韓国は5.1%にとどまり、日本が韓国の3倍以上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一方、<同情>に関しては、逆に日本が5.2%であることに対して韓国が15.2%であり、韓国が日本のおよそ3倍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また、<安心>と<安心させる>を比較してみると、日本は<安心(8.2%)><安心させる(0.6%)>であり、韓国は<安心させる(3.8%)><安心(2.0%)>であった。日本では慰め主体が安心を示すことに焦点を当て、韓国では慰め客体を安心させることに焦点を当てるとい傾向が見られる。最後に、<感情移入>は韓国のみで表れ、その割合は2.2%であり、これは<安心(2.0%)>や<心配(1.4%)>よりも高い割合である。

このような分析結果は、ポライトネス理論で説明することが出来よう。日本は相手のパーソナル・スペースを尊重し、相手と適度な距離を保とうとするネガティブ・ポライトネスを重視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を持っている。その反面、韓国はポジティブ・ポライトネスを重視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であり、相手のパーソナルスペースに踏み込むことが親身であることの証と捉える。

## 4. おわりに

以上、日本と韓国のYouTube動画に書き込まれた慰めのコメントを対象に、日韓における慰めの共通点と相違点を分析した。その結果、日本では韓国より<庇う>が、韓国では日本より<同情>が多用されていることと、日本は<安心>が、韓国では<安心させる>が多用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らのことから、日本は相手のパーソナル・スペースを侵害しないことを重んじるネガティブ・ポライトネスを、韓国は相手との連帯を重んじるポジティブ・ポライトネスを使用していると言えよう。

本稿では、談話機能の出現頻度をポライトネスの観点から分析したが、日韓における慰めに具体的にどのような表現が使われるのかに関しては別稿に譲る。



## 参考文献

- 元智恩(2010a)「語用論的観点からの日韓の慰めの戦略」『日本文化研究』第36輯, pp.365-378.
- \_\_\_\_\_(2010b)「慰めにおける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語用論的転移と中間言語」『日語日文学』第48号, 대한일어일문학회, pp.251-263.
- \_\_\_\_\_(2011)「言語表現レベルおよび談話レベルにおける日韓の慰めの戦略」『日本語文学』第52号, 日本語学会, pp.23-46.
- 차경미(2020)「모어 화자의 위로 전략 사용 양상과 어휘·문법적 특징 -드라마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국어교육』169, 한국어교육학회, pp.235-281.
- 黒川直美(2001)「日本語における「励まし」の特徴と問題点」横浜「言語と人間」研究会5月例会発表原稿, pp.1-9.
- 関山健治(1998)「日本語の『慰め・激励』表現にみられる Politeness Strategy 一話者の性別と社会変数による影響・大学生の場合」『白馬夏季言語学会論文集』第9号, pp.11-17.

# 一九作<昔話もの>合巻の摺付表紙考

康志賢(全南大)

## 1. 緒言

～錦絵を摺り付けた合巻の表紙を「摺付表紙」といって、本文の挿絵を描いた画工より一段上の絵師を起用する現象も起きるほど、造本作業の白眉を飾る大事な装丁が表紙であった。読者に購買欲を濯るポイントとして、作品の山場・絵様になるところや主役を絵組に捉えて、一流絵師が描くことからして、他のジャンルとは違う、草双紙、引いては合巻の表紙絵は文学・美術史学・書誌学的観点から無視できない個所である。従って、当該作品の主題、絵師の具現する画力、本文との異同を、合巻の摺付表紙から見極める研究方法は必要である。

本稿では、文政三・1820年に一気に刊行された一九の四作の<昔話もの>合巻の作意を考究する手立てとして、このように草双紙の書誌的基礎事項として押さ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摺付表紙」を先ず以て解析する。このような作業を通して、複雑でグロテスクな筋立て、伝奇性という合巻の特性から遠く離れる<昔話もの>合巻を、文政三年に四作も刊行していた理由を推察する端緒が得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

## 2. 文政三年刊一九作<昔話もの>合巻四作の摺付表紙

表紙絵には本文の内容と関係する絵組を入れるのが通例で、主人公及びストーリーの山場か華のある挿絵に因む絵柄を選ぶことになる。よって、作者の作意と版元の目の付け所が自ずと表出するのである。

### 2.1 『大江山酒呑童子談』表紙の絵解きを中心に

～『大江山酒呑童子談』には、摺付表紙の合巻体裁二冊本(前編:三巻一冊の十五丁+後編:三巻一冊の十五丁=六巻二冊全三十丁)と、絵題籤の黄表紙仕立六冊本(前編:上中下巻の三巻三冊の十五丁+後編:上中下巻の三巻三冊の十五丁=六巻六冊全三十丁)が遺存する。



【図2】『大江山酒呑童子談』表紙・右:国会本、左:早大本／【図3】『大江山酒呑童子談』七ウ・八オ、早大本

合巻体裁二冊本である国会本・早大本にて、前編摺付表紙と後編摺付表紙を見開き【図2】で繋げると、紫頭巾の男性が乗った前駕籠と、傾城の乗った後ろ駕籠を一気に肩に担げた駕籠かきという絵様が現れる。これは本文七ウ・八オ【図版3】で、頼光の家臣・坂田金時が「お二人の御身はこの金時が守護して帰ると、頼光の



【図4】『大江山酒呑童子談』表紙・大阪府立図書館本

御乗物と玉折の乗物を一つに縛りて」一人で担げて帰る場面に基づいていよう。七ウ・八オにはしゅてん和尚を睨みつつ、二つの乗物を担げた金時が描かれる。当該本文中の絵組は筋展開に合わせて服装などが写實的に描かれるが、摺付表紙の絵組は華やかになるように、坂田金時をして駕籠かきの服装に、玉折姫と源頼光をして遊女と遊客の服装に引き替えていると解釈できよう。

一方の黄表紙仕立の六巻六冊本であるのが大阪府立図書館本である。但し、後編は遺存せず、前編の上中下巻の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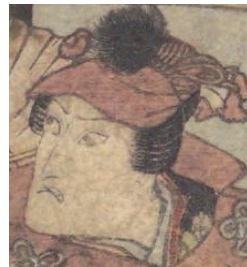
巻三冊の十五丁のみ残る。前編上巻の絵題簽は剥がれているが、中巻・下巻の絵題簽【図4】は遺存する。前編中巻の絵題簽には編笠の男と渡部綱の大首絵、前編下巻の絵題簽には坂田金時一人の大首絵が描かれる。～

ところで、『大江山酒呑童子談』の摺付表紙【図2】に描かれた前籠の男性は、七代目市川團十郎の似顔を用い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その摺付表紙の遊客(に仮託された源頼光)【図2-1】が団十郎の似顔であろうということは、先学が検証済みの次掲『昔噺桃太郎』摺付表紙における、顔に紅隈を施した二重瞼の團十郎似顔絵【図6-1】と比較すると、一層明らかになる。

## 2.2 『昔噺桃太郎』と『勸善花咲翁』表紙の絵解きを中心に



【図版6】『昔噺桃太郎』表紙・国会本



【図2-1】『大江山酒呑童子談』表紙・部分図



【図版6-1】『昔噺桃太郎』表紙・部分図

『昔噺桃太郎』の摺付表紙【図6】には、顔に紅隈を施した二重瞼の七代目市川團十郎の似顔絵【図6-1】が描かれる。この表紙及び、鬼をやっつける場面(八ウ・九オ)の桃太郎が、団十郎の似顔絵だろうという先学の指摘が既に備わる。

では、『勸善花咲翁』と先述『大江山酒呑童子談』の場合は如何だろうか。合巻は話柄の題材のみならず、挿絵が役者の似顔で描かれたりして演劇との結び付きが密接であることは周知のことだが、実は、この二作の表紙にも団十郎の似顔を用いているというのが私見である。即ち、『勸善花咲翁』【図7】の場合も、赤い隈取をした二重瞼の七代目團十郎の似顔絵【図7-1】に違いないと推察している。

山本屋平吉板『昔噺桃太郎』(【図6】)と『勸善花咲翁』(【図7】)両作の摺付表紙は、役者似顔絵の名手・国貞が絵筆を取って、各々悪者の鬼か悪党を、英雄豪傑が踏み潰している荒事舞台を再現しているような絵組になっている。そのような**全体的な構図・画題の相似が、両作『昔噺桃太郎』と『勸善花咲翁』表紙絵の共通点一つ目**である。

『昔噺桃太郎』の摺付表紙【図6】の図案は、桃太郎(:英雄)が鬼をやっつける本文と絵組(八ウ・九オ)を、大分変形しているものの、一応基づいているといえよう。しかし、『勸善花咲翁』の場合は、英雄豪傑に準じる人物が登場するようなストーリーではないのである。登場する悪人は慳貪爺という人物である。そして、摺付表紙【図7】の図案のように「悪者を踏み付ける英雄」というと、殿様の目に灰が入ったので家来たちが慳貪爺を捉える九ウ・十オが関連するかもしれない。つまり、九ウ・十オで慳貪爺が「臼の灰をざるに入れて持ちいで」撒き散らせば、風に吹かれた灰は殿様の目に入ってしまふ。家来たちは慳貪親爺を「さんざんに打擲し…棒縛りにして枯れ木に括り付け、頭よりざるを被せて」しまふ。その枯れ木に棒縛りになって箒を被った爺の前で泣き沈む婆という絵組が九ウ・十オに置かれるのである。しかし、正直爺が花を咲かせる様子を見物する八ウ・九オに描かれる殿様の顔は、キリッとした描線ではなく、バカ殿のようなボヤッとした滑稽な顔付きで、手下たちも然りである。殿様や部下たちはエキストラに過ぎない。表紙図案のようなひっ捕らえる瞬間も本文には描かれない。但し、摺付表紙の英雄に踏まれる人物が、編笠か箒を抱えており、鉢巻をしてキョロとする目付きが、本文中の慳貪親爺と酷似し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



【図7】『勸善花咲翁』表紙・慶応大本



【図7-1】『勸善花咲翁』表紙・部分図

では、この慳貪親爺を踏み付けて見得を切る体の団十郎が、ストーリーと関係ないにも関わらず、表紙絵に大きく描かれる理由は何だろうか。それは英雄豪傑の睨み付ける相手、即ち、彼の目先に配置されたものに関係するのではなからうか。『昔噺桃太郎』の場合、睨まれる相手・鬼の大王は、本文中は表紙絵ほど巨大でもなければ、表紙絵の

ようなポーズにて桃太郎と対峙する場面もない。一方的に負けてしまうからである。『勸善花咲翁』の場合、本文中英雄も登場しなければ、睨まれる相手・鯉も取り挙げられないので猶更不可解である。

ヒントは頬杖付く鬼の大王と、滝登りの鯉の両方が「籠目格子」で表現されている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からうか。鬼と鯉は同じく、竹などで編んだ籠の網の目、またはその連続した格子状の編組を意味する籠目格子で描出されているのである。即ち、山本平吉板『昔噺桃太郎』と『勸善花咲翁』両作の摺付表紙絵組の二つ目の**共通点**として、桃太郎のバックの巨大な鬼の大王と豪傑のバックの巨大な鯉が、籠目格子で表されている点を挙げたい。

斯くして、一つ目、二つ目の共通点を照らし合わせると、第一、籠目格子で表現された巨大な鬼の大王および巨大な鯉の滝登りという同じ描き方、第二、彼らを睨み付けつつ、足では悪者を踏み付ける英雄豪傑という同じ構図が指摘できる。

一九作<昔話もの>合巻四作は文政三年刊行であるが、川添裕氏によれば、文政二・1819年七月浅草奥山

に巨大な籠細工が出現したという。三国志の英雄の他、赤鬼なども籠細工で製作されたというから、まさに『昔噺桃太郎』摺付表紙の頬杖ついて横になっている鬼の大王は、籠細工の赤鬼を表象していると見做しても可笑しくなろう。同氏は文政期を頂点とする細工見世物の空前の興隆振りは、歌舞伎の出し物や浮世絵、噺本から窺えるとするが、本合巻二作『昔噺桃太郎』と『勸善花咲翁』の摺付表紙にもこのような形で籠細工が反映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

猶、幕末によく行われた活人形にて、酒呑童子の趣向を見せた興行の引札・広告文もある。「…御存の四天王大江山入の故事を事細ニ手を尽したる竹一式の籠目細工ニ仕候尤籠細工の名目の義ハ故めかしく御座候へども今般悉く新規新工夫ニ相改め極精密なる細工ニ致させ奉入御覧候間何卒御評判被遊御座々敷御見物被下置候様偏ニ奉希候以上。江戸亀井町細工人太夫元 北雲齋」という口上

を書いた引札～

以上は見世物を披露する側の引札を使った広告文だったが、それを見物した側の記録もある。同文政二年七月に籠細工が両国や浅草に現れたことを記す『増訂武江年表』(斎藤月岑著・嘉永元年脱稿・同三年刊)の記録だが、「◇両国の籠細工: 両国橋西詰に、籠細工にて大なる酒顛童子の形を作り見せ物とす(江戸亀井町策かご師の細工なり。始め天竺の僧うたゝね枕と題して、涅槃の釈迦如来を作りしが、嵯峨の釈尊開帳の折なればとて、酒顛童子に改めし也)」とある。涅槃の釈迦如来から様変わりした見世物の酒呑童子なので、本合巻『昔噺桃太郎』表紙絵の鬼の大王のように寝姿であったのだろう。逆にその見世物の影響を受けて、本合巻表紙絵の 鬼の大王は寝姿で描かれたともいえる。

その両国広小路で披露された「籠細工人亀井斎・人形細工人和泉屋五郎兵衛」が製作した酒呑童子等の様子が、「江戸の花 籠細工」【図8】という表題で遺存する三枚続錦絵から窺える。

「応需 国貞写」で、伊勢屋利兵衛板で出ている。酒呑童子が手枕で横たわる図は、まさに『昔噺桃太郎』表紙絵の鬼の大王【図6】の姿態そのままだろう。両図は版元が違う上に、本文の話柄と関わらない寝そべる鬼を表紙で描いたのは、作者・版元・絵師が共同作業をする中で、特に摺付表紙の場合、絵師の意向が通っていた可能性を示唆する。

且つ又、同七月に浅草奥山では、大坂下りの細工人・一田庄七郎が人物鳥獸草花を作った籠細工のことが、『観物画譜』(朝倉無声収集見世物画譜)に掲載される。『増訂武江年表』によれば、大きい関羽の座像やその他の小さい鳥獸草花を見せたようだが、その様子は「籠細工細工 人浪花一田庄七郎」として、山本屋平吉板にて「応需 国貞写」という三枚続の錦絵に描かれている。従って、作者一九は勿論、板元山本や、絵師国貞は籠細工に強く興味を寄せ、自家製<昔話もの>合巻『昔噺桃太郎』『勸善花咲翁』『むかし噺舌切雀』中、二作『昔噺桃太郎』『勸善花咲翁』の鬼の大王と鯉の滝登りを以て、籠目格子図案にて描出したのではなかろうか。

#### 4. 結 語

以上、先ず以て「摺付表紙」の絵解きを通して、文政三年に一気に刊行された一九作<昔話もの>合巻四作の作製意図を考察した結果、次のような新発見が得られた。

第一、四作の中で、国直が描いたA『大江山酒呑童子談』、国貞が描いたB『昔噺桃太郎』・C『勸善花咲翁』表紙の人物は、七代目市川團十郎の似顔絵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引いては、山本平吉板B・Cの摺付表紙は、各々悪者を英雄(団十郎)が踏み潰している荒事舞台を再現しているような絵組で、全体的な構図・画題が

共通することを指摘した。

しかし、Cの表紙絵の画題は、本文の内容とは全く関係ない。Bの表紙絵も本文の内容とは食い違うところがある。にも関わらず、表紙絵に当該画題が大きく捉えられる理由は何だろうか。ヒントはかの英雄豪傑に睨まれる相手、滝登りの鯉と、手枕した鬼の大王が「籠目格子」で表現されているところにあると見て取った。籠目格子で表現された巨大な鯉の滝登りと鬼の大王という描き方と、彼らを睨み付けつつ、足では悪人を踏みつける英雄豪傑・団十郎という構図が、両作摺付表紙の共通点であることからして、後述するように版元や絵師の意図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と察せられる。

# 「建設期の朝鮮文学」からみる日本語文学研究

根来由紀 (誠信女大)

## 1. 서론

「建設期の朝鮮文学」<sup>1)</sup>は、1946年2月8日と9日の2日間にわたって鍾路キリスト教青年会館で開催された第一回全国文学者大会の会議録である。1945年8月、朝鮮文人報国会の瓦解と同時に創立された朝鮮文学建設本部(以下「文建」と、KAPFの文人たちによって構成された朝鮮プロレタリア文学同盟(以下「文盟」)が統合し、朝鮮文学者同盟(以下「同盟」)が結成され、全国文学者大会が行われた。

「建設期の朝鮮文学」の序章にあたる各祝辞によると、同盟の概括的な理念として大日本帝国主義、封建主義、国粹主義残滓の掃討と清算、及び民族文学の建設と国際化が挙げられる<sup>2)</sup>。特に民族文学建設については、その後に収録されている報告演説の中で大きく取り上げられ、論じられている議題と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に、「建設期の朝鮮文学」は解放後の朝鮮文壇を知る上では欠かせない資料だが、それでは解放前、すなわち植民地期の朝鮮における日本語文学を研究する上ではどのように読んでいけるだろうか。本発表では、実際に資料の内容に触れながら、植民地期から解放空間への転換がどのようになされようとしていたのかを確認していきたい。

## 2. 본론

報告演説「朝鮮民族文学建設の基本課題に関する一般報告」(林和)をはじめとし、たとえば「私たちの詩の方向」(金起林)では詩、「朝鮮戯曲の現状と今後の方向」(韓暁)では戯曲についてなど、これまでどのような状況下で創作が行われてきており、これからどう民族文学を作り上げていくのかを論じている。

林和によると、朝鮮文学とは従来民族的か階級的か、あるいは進歩的か反動的かで考えられていた。しかし、日帝による弾圧や日本化の強要によって親日的か反日的かを問われることとなり、「それゆえに親日文学は存在し、反日文学は存在できなかったのだ」<sup>3)</sup>。解放後である1946年の演説時において、林和は同時に「文学においても問題は親日的か反日的かということからもう一度転回して根本的な地点に戻ることになった」と述べ、階級的な文学か、民族的な文学かを考えるためにはまず、大日本帝国主義残滓の掃討と封建主義の清算の必要性を説いている。

詩においても同様の演説がなされており、金起林は「偉大な民族の受難期において民族を背叛した政治的、文化的全ての叛逆行為は勿論だが、私たちの精神の内部で犯したあらゆる些少な叛逆に対しても私たち自身が先に峻厳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sup>4)</sup>と、転換期において朝鮮の詩を書いていくためにはまず植民地期

1) 本発表では「朝鮮文学者同盟叢書」影印版(創造社、1999)に収録された「建設期の朝鮮文学」を底本とする。

2) 이원주「해방공간의 문학운동에 관한 고찰」『나랏말싸미』第6号(1991) pp.90-107.

3) 林和「朝鮮民族文学建設의 基本課題에 관한 一般報告」より。以下すべて日本語訳は発表者による。

4) 金起林「우리詩의 方向」より。

の清算を追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論じている。

また、韓暁は「所謂国民劇の創造という汚い事業にほぼ全てが動員されたというこの残酷な事実」に言及し、そのような「苦悩」を「新しい世界が創造される苦悩として描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今後の課題を定めている<sup>5)</sup>。

ここでは三つの演説のみ引用しているが、共通する意識としては大日本帝国主義による日本化によって民族的な文筆活動が弾圧されたことが挙げられる。そして、強要されたとはいえ、それに追従したという事実をどう受け入れ、生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問いかけている。

### 3. 결론

一方で、「建設期の朝鮮文学」は第一回全国文学者大会という、謂わば解放後初めて朝鮮文壇とは、あるいは朝鮮文学とはどうあるべきかを全体的に共有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ため、実際にその後の文壇や詩壇の動向や、実際の作品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

また、演説をした、あるいは名前が挙げられている文人たちの中には1946年以降越北した人々もおり、その後の足跡がわからないことも多い。

そのため、この資料だけでは植民地期に書かれた日本語文学が解放後に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たのか、明確に答えを出すことは難しいだろう。しかし、大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日本語や日本に追従することを強要された植民地期から朝鮮民族文学を目指した解放空間への転換がどのようになされようとしていたのかを確認していくことで、日本語文学へ遡る助けに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

5) 韓暁「朝鮮戯曲의現狀과今後方向」より。



# 이회성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론

—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사소설 사이에서 —

崔高恩 (東京大)

이회성의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은 1972년 제 66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외국적 작가의 작품으로서는 첫 수상작이다. 9살에 사별한 어머니, 장술이에 대한 추억을 그린 이 작품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 평가는 아직도 정위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쿠타가와상 선평에서 「한 사람의 이미 완성된 작가의, 부업으로 한 일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고언을 말한 오오카 쇼헤이는 「감정적이지 않은 작품을 기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정서적이라는 표현은 다른 선평자의 긍정적 평가에도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방식은, 박유하의 지적대로<sup>1)</sup>, 이른바 ‘조선의 서정’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박유하는 이 서정의 내실에 대해 어머니를 미화하고, 사할린이라는 장소의 특권화에 의해 성립한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를 듣고, 고모리 요이치는 사후적 상기에 의해 만들어진 ‘강하고 아름답고 슬픈 어머니’ 상이 위험한 내셔널리즘을 지지하는 심정이 될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다.

분명히,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은 전술한 것처럼 어머니=장술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식민지 시대의 불행한 한 풍경」으로 수렴시키는 듯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성, 어머니」=「낳는 성」=「민족」이라는 고전적인 도식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 여성은 민족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며, 식민지와 종주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식민지는 여성으로서 표상되어왔다. 이 점을 생각하면, 피억압민족의 어머니를 미화하는 작가와, 거기에서 ‘서정’을 느끼는 구 종주국의 남성지식인과의 일종의 공범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박유하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이처럼 ‘학대받는 가련한 어머니’의 인상이 강해 서인지, 선행연구에 있어서 이 작품은 종종 작가의 ‘민족지향’ 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독해되어 왔다.

『砵をうつ女』을 발표하기 전년인 1970년 4월,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한 에세이 「국적과 문학의 사이」에서도 이회성은 일본어 창작에서 ‘카프카적인, 어떠한 세계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주체에 뿌리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장 앞에 「진정으로 뛰어난 문학은 세계문학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무슨 언어로 쓰였느냐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냈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문학의 보편성을 말하는 구절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장에 대해 같은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은 「좌담회 일본어로 쓰는 것<sup>2)</sup>에서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민족지향’과 ‘민족주체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두 상반되는 평가가 이회성이

1) 『座談会 昭和文学史 第五卷』集英社, 2004年, p209

2) 김석범 저, 오은영 역 『언어의 주박-「재일조선인 문학」과 일본어』보고사, 2022년, p116

라는 한 작가에 대한 평가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전술한 아쿠타가와상 선평까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이회성의 미묘한 위치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결국, 작가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독자의 어떠한 규정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닐까.

실제로,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김달수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김석범과 달리 사할린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이회성을 ‘재일조선인’ 작가라는 범주에서 동렬로 논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사할린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해,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의 내셔널 알레고리로서의 표상을 읽어내는 동시에, 내셔널 알레고리나 에스닉 아이덴티티라는 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표상들의 길항관계-다언어성,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상대화하는 서술, 민족의 ‘어머니’로 수렴되지만은 않는 장술이라는 여성의 삶-에 주목해 텍스트를 읽어내고자 한다.

# 지원형개발로서의 시모키타자와(下北沢) 에리어의 철도연선 마을만들기(街づくり)

金惠淑(翰林大)

## 1. 서론

2014년에 발표된 마스다레포트가 큰 충격을 준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로컬아베노믹스 정책이 지방정책의 중심축이 되었다. 지방소멸에 반해 일본 수도권에는 인구와 자원이 모여들고, 교외로 도시가 확장되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구중심시가지의 활력저하, 교통수단 변화, 인구가동에 의한 커뮤니티 붕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의 스폰지화,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인구감소사회,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권역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주민과 지방자치체, 민간기업의 역할과 연계, 커뮤니티 합의에 의한 새로운 마을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중심시가지활성화하면 상업기능의 활성화였고, 중앙정부는 1998년, 2006년, 2014년에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설치, 개정하는 등 지역정책에 관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중심시가지의 역할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기능 등 직주근접, 산업기능을 포함해 보다 통합적으로 마을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기능이 집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1)</sup> 즉 지역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느슨한 콤팩트시티+네트워크 거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역재생의 방식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하면, 도쿄 일극집중이 연상되지만 중심가 업무,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도심 곳곳에 인구 유출이 시작되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이 막대해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프라하면, 철도를 들 수 있다. 최근 철도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회사가 마을만들기(街づくり)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 국토교통성에서도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연령감소를 배경으로 도시서비스, 도시경영의 지속성 저하에 따른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철도연선을 축으로 도시기능이 집적하는 구조를 살리면서 교통 결절점인 역주변에 복지, 자녀양육지원, 쇼핑 등 생활지원기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거점병원, 대규모상업시설, 문화홀 등의 도시기능은 연선으로 연결된 시정촌간에 분담, 연대해 서비스 향상을 기해 지선교통을 포함한 공공교통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철도연선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회의 등을 지속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코로나19로 대변하듯 예측불허의 시대에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의 지역재생, 중심시가지활성화의 방식, 철도회사의 기존 개발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마을만들기 조건은 무엇일까? 이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오다큐철도(小田急鐵道)회사와 세타가야구(世田谷区)와의 연계에 의한 '시모키타자와 에리어(이하: 시모키타)'의 철도연선 마을만들기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문제의식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 2.0과 지원형개발의 과정과 개념을 살펴

1) 国土交通省(2015.12), 「鉄道沿線まちづくりガイドライン(第一版)」, p.1.

2)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toshi/toshi\\_gairo\\_tk\\_000036.html](https://www.mlit.go.jp/toshi/toshi_gairo_tk_000036.html) (검색일: 2023.07.25)

보고 마을만들기 성공조건(분석틀)을 도출해 이를 시모기타 사례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요인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다큐철도는 도부철도(東武鐵道)와 함께 국토교통성의 '철도연선 마을만들기' 연구회에 시범모델로 참가하고 있다. 오다큐철도의 프로젝트는 시모기타 선로를 지하화하면서 선로 갱지를 재개발하는 것이고, 에리어는 오다큐선 히가시기타자와역(東北沢駅)에서 세타가야다이타역(世田谷代田駅)까지이며 1.7km에 달한다. 갱지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을 유지해 연선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회사는 수송서비스 확충을 전제로 도심은 일하는 장소 교외는 주거 장소로 개발해 왔다. 철도이용자를 대상으로 터미널역 주변을 중핵으로 해서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획일화해 연선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직선적인 비즈니스를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텔레워크, 온라인 수업 등으로 승객수가 줄어들었다.<sup>3)</sup> 따라서 철도회사는 연선 주변에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직주가 분리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 시도가 지원형개발로 불리는 시모기타 연선마을만들기이다.

본고는 제2장에서 도쿄도 중소기업진단사협회 마을만들기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명명한 '중심시가지활성화 2.0'과 하코모노(箱モノ)개발에서 지원형개발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과 개념을 살펴본다. 이로써 시모기타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위한 성공조건(분석틀)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성공조건(분석틀)에 맞추어 시모기타 재개발 사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성공조건을 다시 정리, 제시하고 시모기타 재개발 성공요인과 한계를 제시한다.

## 2. 성공조건(분석틀): 중심시가지활성화 2.0과 지원형개발

본장에서는 연구회가 코로나19 이후 마을만들기 방향성을 제시한 중심시가지활성화 2.0과 시모기타 지원형개발의 과정과 개념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 성공조건(분석틀)을 도출한다.

### 2.1 중심시가지 활성화 1.0에서 2.0으로<sup>4)</sup>

중심시가지활성화 2.0의 기본방향은 지역기업(중소기업)과 지역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마을의 돈버는 힘과 집객력의 강화, △새로운 마을의 기능과 공간의 정비, △새로운 마을만들기 스킬의 확립이다.

중심시가지활성화 1.0에서 2.0으로

구분	중심시가지활성화 1.0	중심시가지활성화 2.0
국토구조	-도쿄일극집중	-다극분산
라이프 스타일	-대도시 거주 -장시간 통근	-UIJ 톨, 2지역 거주 -직주근접(자전거로 15분 내 거리)

3) 橋本崇・向井隆昭外(2022), 『コミュニティシップ』, 学芸出版社, pp.15-16.

4) 東京都中小企業診断士協会まちづくり研究会・名取雅彦(2021.6.29.), 「アフターコロナのまちづくりー中心市街地活性化2.0」, pp.1-9.

5) 기반산업은 특화계수가 1을 넘는 산업을 말한다.

중심시가지활성화 과제	-상업기능의 회복 -마을 내 거주, 공익시설 집약	-지역경제의 견인과 고용기회 창출 -권역 서비스 제공
목표	-활력있는 상점가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거점
중심시가지의 집적 기능	-권역서비스 기능(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비기반산업, 공익시설) -도시형 주택 -인프라(도로·교통, 어메니티 공간)	-업무기능(기반산업 <sup>5)</sup> ) -권역서비스 기능(비기반산업 <sup>6)</sup> , 공익시설) -도시형 주택 -인프라(도로·교통, 어메니티 공간, 정보기반)
정비대상 공간의 범위	-상점가 및 그 주변	-중심업무지구(CBD)를 포함한 중심시가지 전체
마을만들기 체제	-개발형 마을만들기회사	-기획형 마을만들기회사 -광역서비스 사업자와의 연계

자료: 東京都中小企業診断士協会まちづくり研究会・名取雅彦(2021.6.29.), 「アフターコロナのまちづくりー中心市街地活性化2.0」, p.6.

## 2.2 하코모노(箱モノ)개발에서 지원형개발로

개발 초기에는 시모기타선로 거리도 종래의 하코모노<sup>7)</sup> 개발이라는 발상이었다. 오다큐철도는 획일적인 시설개발을 상정하여 시모기타자와역 주변은 지하화가 아니고 고가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1964년 오다큐선의 요요기우에하라(代々上原)에서 기타미(喜多見) 간 선로를 고가화하고 상하 2선씩 늘리는 여러 노선 사업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 1969년에는 건널목을 폐쇄하고 정부가 철도를 고가화하는 연속입체교차사업을 제도화하자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용적율을 최대한 살린 빌딩을 세워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이 입주하고, 관리부문도 넘길 계획이었다.<sup>8)</sup>

이것이 지원형개발로 전환된 계기는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서이다. 주민은 고가화하면 집을 철거해야하고 소음도 발행한다고 반대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약 3만 5,000명의 서명이 세타가야구 의회에 제출되었다. 반대운동이 확산되었지만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어 수기나미(杉並) 고엔지(高円寺)도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주민 가운데 1995년에는 고가화 반대 등을 내걸고 세타가야구 의회에 출마하기도 했다. 주민 측은 1990년 이후 사업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2001년 정부의 고가사업 인가를 취소하는 도쿄지방법원 판결(최고재판에서는 주민 측이 패소)이 나왔다.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공공사업 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전국 최초로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세타가야구는 2003년에 방침을 변경해 시모기타자와를 포함한 히가시기타자와에서 세타가이다이타 간을 지하화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다. 주민운동은 그 후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6년 고가화 등 개발에 관한 행정소송이 화해(和解)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타가야구가 주민과 협동해서 시모기타자와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주민과 행정 간에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기타자와 PR전략회의(현 시모기타링 마을만들기회의)가 설치되어 개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되었다.<sup>9)</sup>

6) 비기반산업은 수요자 대부분이 지역 내에 있어 역내에서 돈이 순환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소매점, 음식점, 부동산업, 병원 등 서비스업과 보수점검서비스, 회계사무소, 광고업, 정보처리서비스 등 사업장 서비스가 해당된다.

7)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이 짓는 도서관·미술관·체육관·다용도홀 등의 대형건물을 가리키며, 행정주도에 의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의미로 쓰인다.

8) 財界(2022.06.13), "住民との対話は200回以上-小田急の「下北線路街」が全面開業"

<https://www.zaikai.jp/articles/detail/1709>(검색일: 2023.07.20)

9) 毎日新聞(2023.05.05.), "開かずの踏切解消「高架は嫌」闘った下北沢の住民、変えた開発"

<https://mainichi.jp/articles/20230505/k00/00m/040/040000c>(검색일: 2023.07.2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모기타 재개발은 철도회사 주도가 아니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원형 개발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후 지원형개발을 채용한 철도회사 담당자는 반대파를 포함해 주민과 200 회 이상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시모기타 재개발에 13개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녹지를 늘렸으면 한다는 요망을 받아 광장을 설치하고 나무심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가 관리 할 것인가에 고민하던 중 지역 주민들이 볼런티어를 자처하고 나섰다.<sup>10)</sup> 구체적으로 지원형개발은 전체의 70%는 오다큐전철, 나머지 30%는 지역플레이어가 견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플레이어는 주체적으로 운영, 기획, 연대하고 프로젝트를 커스터마이즈(customize)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철도회사와 지역플레이어 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리스크 측면에서도 서로 나누어서 짊어지게 된다. 이를 '30%의 여백을 남기는 지원형개발'이라고 한다.<sup>11)</sup>

### 3. 시모기타자와 에리어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시모기타자와역을 중심으로 오다큐 오다와라선(小田原線)이 지하화되어 그 갱지에 시모기타선로 거리가 만들어졌다. 히가시기타자와역, 시모기타자와역, 세타가야다이타역 3역 1.7km 구간에 13개의 시설이 들어섰다<그림 1>. 연면적은 2만 7,500㎡이며 2022년 1월에 완공되었다. 특히 상업시설과 소호 등 5동 14개 점포로 구성된 보너스트랙(BONUS TRACK)은 2020년 4월 1일에 오픈하였다.



사진: 2013년3월撮影。架線地下化前の下北沢の風景 Photo: Odakyu Electric Railway 자료: DIAMOND online, "下北沢「サブカルの街大改造」が成功した理由、渋谷の再開発になかったのは?", <https://diamond.jp/articles/-/307799>(검색일: 2023.07.14)



자료: BONUS TRACK 이벤트 주최자용 설명회

시모기타자와 상점연합회 회장에 의하면, 시모기타선로 거리가 조성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 선로가 지하화되면서 분단되었던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었다<사진>. 둘째, 걸어 다닐 수 있어 산보 공간이 늘어나 자녀양육 환경도 넓어졌다. 셋째, 철도회사와 상점가회가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대가 지속되도록 오다큐철도는 활동거점을 'NANSEI PLUS' 내에 설치하였다. 한편, 주민 측의 강한 요망으로 만든 '노노하라(ののほら)' 등의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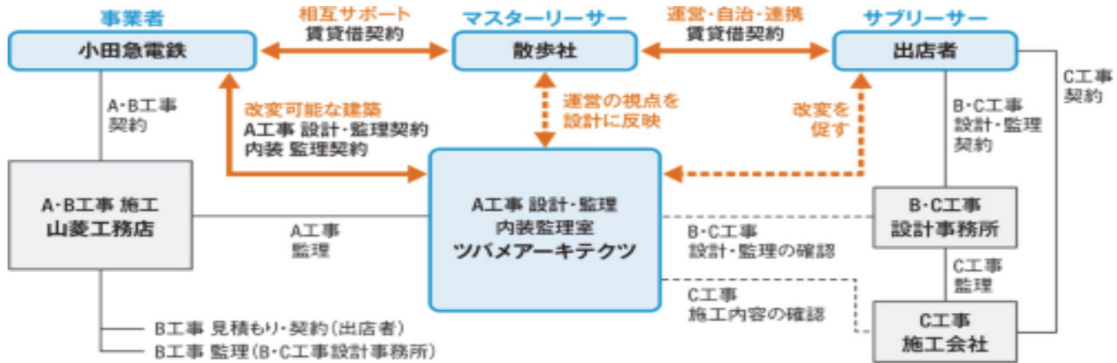
10) 財界(2022-06-13), <https://www.zaikai.jp/articles/detail/1709>(검색일: 2023.07.20)

11) 古田島大介(2022.02.05.), "賛否があった「下北線路街」開発秘話。小田急が気づいたまちづくりで大切なこと". 日刊SPA, <https://nikkan-spa.jp/1808943>(검색일: 2023.07.25)

는 현지 커뮤니티 '시모기타 원예부'가 담당하는 등 오다큐와 주민과의 협업으로 이벤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다.<sup>12)</sup>

13개 시설 가운데 지원형태발의 예로서 보너스트랙에 관해 살펴본다. 최근 10년간 역 바로 옆 점포는 임대료가 3배 가까이 폭등하였고 체인점도 들어섰다. 역에서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는 빈집증가, 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보너스트랙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매력있는 개인 테난트, 젊은 점포기업을 모으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운용은 산보사(散歩社)가 담당한다. 전대자(転貸者)인 산보사는 오다큐전철과 협력해 테난트 유치에도 관계하고 있다<그림 2>. 오다큐전철은 계획을 시작할 때 보너스트랙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개인 테난트에게 사전에 임대부담 능력을 조사하였다. 이는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테난트 니즈에 맞지 않는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불이 가능한 월 임대료는 15만 엔, 점포겸 주택은 10평 정도로, 평당 단가는 1.5만 엔을 목표로 사업과 건물 조성을 계획하였다.<sup>13)</sup>

<그림 2>



자료: 山本恵久(2020.06.25.), “シモキタらしさ回復 個性ある“商店街”に”. 日経XTECH, <https://xtech.nikkei.com/atcl/nxt/mag/na/18/00012/061900031/>(검색일: 2023.07.20)

#### 4.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중심시가지 2.0으로서의 방향성과 지원형태발에서 도출된 성공조건(분석틀)에 시모기타 철도연선 마을만들기를 적용해 살펴보았다.

성공조건(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극분산이다. 다극분산하면, 일극집중 도교도가 공식화되어 있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생각한다. 그러나 도교도 내에서도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공동화되어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밀집된 도심으로부터 공동화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느슨한 콤팩트도시+네트워크이다. 둘째, 걸어서 20분 이내, 또는 자전거로 15분 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직주근접의 마을을 조성한다.

12) 江口和孝(2022.06.08.), “6年以上をかけた「下北線路街」が全面開業 地域価値を創造する“支援型開発”. 経済田論, <https://seikeidenron.jp/articles/20973/>(검색일: 2023.07.20)

13) 山本恵久(2020.06.25.), “シモキタらしさ回復 個性ある“商店街”に”. 日経XTECH, <https://xtech.nikkei.com/atcl/nxt/mag/na/18/00012/061900031/>(검색일: 2023.07.20)

코로나19로 인해 텔레워크가 정착되어 시공간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도 나오듯이 단순히 활력있는 상점가의 활성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생활의 재생으로서 거리에 머무는 시간을 늘일 수 있도록 거점화한다. 넷째, 인프라기능(도로, 교통, 어메니티 공간, 정보기간)을 살려 업무기능, 권역서비스 기능의 확대, 업무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정비대상 공간을 중심업무지구를 포함한 중심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섯째, 마을만들기 이념(컨셉)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형 마을만들기회사를 만든다. 광역서비스사업자와의 연계를 추구한다. 철도연선의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연계가 가능하다. 일곱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지원형개발을 한다. 특히 공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단체, 지역기업과 기초지자체의 연대와 역할이 필요하다. 일본의 철도회사도 지역화되어 있으나 자본의 논리를 더 추구한다. 이를 컨트롤하고 구체적인 공익시설에 대한 니즈는 당사자인 주민에게서 나온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고의 과제인 시모기타 재개발에 대한 성공요인과 한계는 좀 더 성공조건(분석틀)을 심화해 다음 논문에서 분석, 도출하고자 한다.



# 민관학 도시 개발

: 카시와노하와 루스끼섬을 중심으로

이주연 (한양대)

## 1. 서론

본 연구는 일본과 러시아의 민관학 도시개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이 가지는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에 민관학 도시개발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사례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지역은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 Smart City)와 러시아의 루스끼 섬이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와 루스끼 섬 개발을 비교사례로 선정할 이유는 공통적으로 민관학이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주요 도심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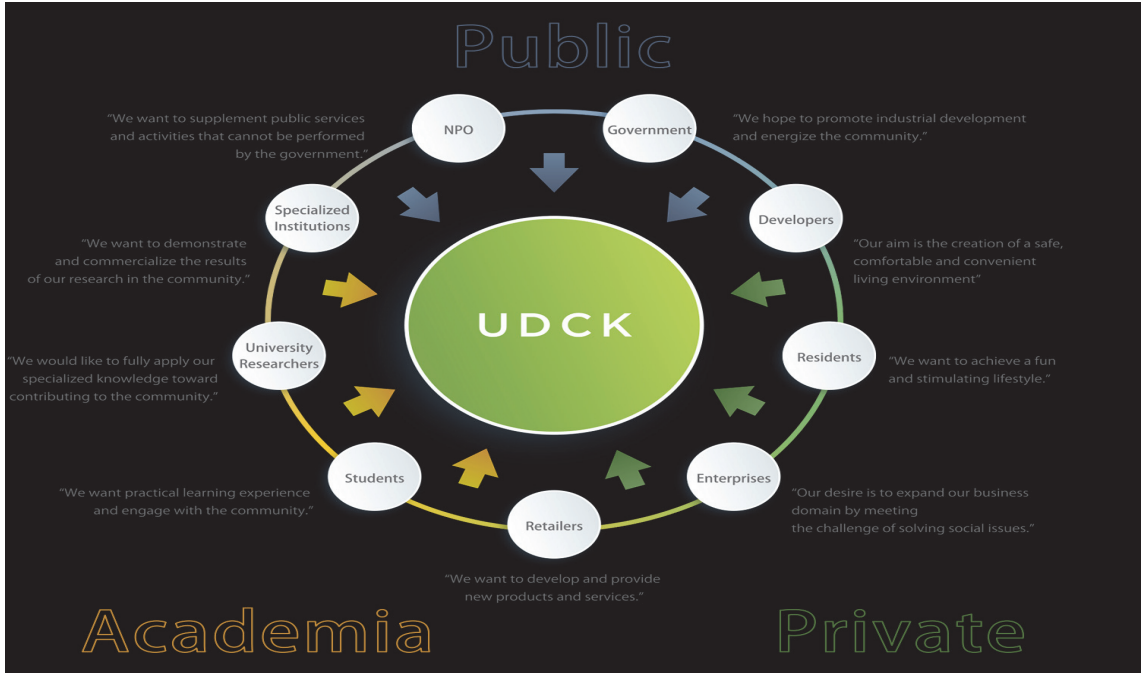
## 2. 카시와노하라 특징 : UDCK

카시와노하 개발의 시작이 미쓰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의 주요 주체가 민간 영역이다. 따라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도 미쓰이 기업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 이후 도시를 유지하는데 민간 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이외에도 민관학이 협력하여 도시를 발전시키는 협력 플랫폼을 지속하고 있다.

카시와노하 스마트 도시의 경우 민관학이 연계되어 개발되었고, 민관학을 연계하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부터 도쿄대학과 치바대학은 카시와노하 지역에 첨단 연구소를 설립했고, 2006년 치바현, 가시와시, 민간 회사와 합작하여 UDCK를 설립했다. 현재 UDCK의 협력 플랫폼을 살펴보면, 정부, 개발자, 거주자, 학생, 대학교, NOP 등 다양한 민관학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UDCK는 싱크탱크, 조정 및 지원, 정보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카시와노하에서 한 가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개발의 주체가 기업이었지만, 도시를 유지하는 주체는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환경 공생형의 개발·정비를 위해 시민과 토론하는 포럼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가령 그림 2에서 보이듯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UDCK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스티커를 거리에 붙이기도 했다. 한편, 도시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본 내 오피스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주요 대도시 중심의 오피스를 벗어나 외곽 소도시 오피스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카시와노하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1> UDCK 플랫폼



<그림2> 거리 걷기 기획 예시



###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 루스끼 센터<sup>1)</sup>

러시아의 면적은 1,709만km<sup>2</sup>로 한반도 78배, 미국의 1.8배로 세계 최대의 영토 보유국이다.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1억 4,471만 명으로 유럽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인구이다.<sup>2)</sup> 그러나 러시아는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하고 있고, 특히 광활한 영토 대비 인구가 매우 부족한 형국이다. 특히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우랄산맥 기준 서쪽은 1억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과 비교하여 동쪽인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는 낮은 인구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분포도가 낮은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도 노보시비르스크(162만), 예카테린부르크(149만), 옴스크(115만) 등 특정 도시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문제가 있다.<sup>3)</sup>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실행했다. 2016년 6월 1일 발효한 이 법안은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민 혹은 이주민들 가운데 희망자에게 1헥타르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정책으로 극동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과 지역 인구 감소 억제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지역의 인구를 현재 6배 규모인 3,6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극동개발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극동지역은 중앙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성이 높고,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교통, 주택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4)</sup>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2024년까지 ①기대수명 5년 증가 및 노동 가능인구 사망률 최대 35% 감소, 연간 주택건설규모 1.6배 확대 ②누적 민간투자액 8,000억 루블로 확대,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신규기업 200개 이상 설립, 신규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sup>5)</sup> 결국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서 극동지역 경제 성장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등 삶의 질을 러시아 평균 이상 수준까지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현섭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서 수소에너지 발전, 극동지역 관광 발전 등이 유망한 분야임을 주장하기도 했다.<sup>6)</sup> 그러나 해당 방식은 사실상 기존의 러시아가 추진했던 도시 개발 방식으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에너지 중심 개발, 비자생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 정책 이외에도 자생적인 도시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발전, 에너지 중심 발전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러시아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1) <https://smartcity.go.kr/2022/03/30/%EA%B7%B9%EB%8F%99%EB%9F%AC%EC%8B%9C%EC%95%84-%EC%B2%A8%EB%8B%A8%EA%B8%B0%EC%88%A0%EC%9D%98-%EC%A4%91%EC%8B%AC%EC%A7%80%EB%A1%9C-%EB%B3%80%EB%AA%A8%ED%95%A0-%EB%A3%A8%EC%8A%A4%ED%82%A4%EC%84%AC/>

2) 2위인 독일은 약838만 명이고, 3위인 영국은 약684만 명이다.

3) 이외에도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첼랴빈스크, 사마라, 로스토프나도누 등이 있다.

4) 강부균, “러 극동지역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추진 배경과 전망”, 「KIEP 동향세미나」 (2015), pp.1-3.

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июня 2020 г. N 427 “О мерах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006260029?index=1> (검색일: 2023.07.21.)

6) 변현섭,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신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중소연구」 제44권 4호 (2020/2021), pp.381-389.

<표1> 러시아 연방관구별 인구 변화(천 명)

	1990년	2001년	2011년	2015년		증감 비율 (2015년 기준)	
						1990년 대비	2001년 대비
전체	147,665	146,304	142,865	143,972	100%	-2.5%	-1.6%
1. 중앙 연방관구	38,018	38,175	38,445	38,951	27.1%	2.5%	2.0%
2. 북서 연방관구	15,310	14,199	13,626	13,844	9.6%	-9.6%	-2.5%
3. 남부 연방관구	13,324	14,060	13,851	14,004	9.7%	5.1%	-0.4%
4. 북캅카스 연방관구	7,373	8,702	9,439	9,659	6.7%	31.0%	11.0%
5. 불가 연방관구	31,764	31,532	29,880	29,715	20.6%	-6.5%	-5.8%
6. 우랄 연방관구	12,725	12,471	12,087	12,276	8.5%	-3.5%	-1.6%
7. 시베리아 연방관구	21,106	20,333	19,252	19,312	13.4%	-8.5%	-5.0%
8. 극동 연방관구	8,045	6,832	6,285	6,211	4.3%	-22.8%	-9.1%

자료: 러시아 통계청.

결국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 경제 발전은 상수이고, 이외에도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 및 증가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루스키 섬을 들 수 있다.

‘루스키’ 혁신과학기술센터(RUSSKY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RUSSKY ISTC)(이하 루스키 센터 또는 ISTC)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아태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지역 기술 허브로서, 산업·기술 기반이 약한 극동러 연해주 지역의 첨단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조성하는 특별 구역이다. 블라디보스톡 남쪽에 위치한 루스키섬에 약 250ha 규모로 2030년까지 단계별 조성할 예정이며 2020년 11월 8일 정부 결의안 No.1868 ‘루스키 혁신과학기술센터 설립에 관하여’ 제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아태 지역의 우수한 첨단 기술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비즈니스 시설 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여가 시설, 주거 및 숙박 시설, 의료 시설 등의 종합적 구축도 계획되고 있다. 루스키 섬 개발에 있어서 민관학 주체를 살펴보면, 학의 경우 극동연방대학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극동연방대학교는 캠퍼스 운영 경험을 통해 루스키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이 갖춘 연구 인프라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7)

<그림3> 루스키 센터 민,관,학 협력 개념도



7) <https://smartcity.go.kr/2022/03/30/%EA%B7%B9%EB%8F%99%EB%9F%AC%EC%8B%9C%EC%95%84-%EC%B2%A8%EB%8B%A8%EA%B8%B0%EC%88%A0%EC%9D%98-%EC%A4%91%EC%8B%AC%EC%A7%80%EB%A1%9C-%EB%B3%80%EB%AA%A8%ED%95%A0-%EB%A3%A8%EC%8A%A4%ED%82%A4%EC%84%AC/>

#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제정 이후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일본 보고서 권고사항에 관한 연구

— 제7차 보고서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金有廷(국회입법조사처)

## 1. 서론

2022년 11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는 에티오피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니카라과, 필리핀, 러시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sup>1)</sup>

이 조사 결과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행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주요 우려와 권고사항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자 하였다.

일본에 관한 조사결과 요지를 보면, 유엔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설립에 대해 일본이 제공한 모호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순위로 일본에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갖춘 국가인권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아동, 수감자 인권 등에 대해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누릴 것을 일본에 요구함과 동시에 특히 이민자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별개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관하여 그 이행 보장장치로서 이행감시기구를 설립하여 협약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협약의 준수를 점검하고 있다.

그 이행감시기구로서 설치된 유엔인권위가 발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에 대한 제7차 일본 조사결과보고서(CCPR/C/JPN/CO/72)는 2014년 제6차 일본 조사결과보고서 이후 6년 만에 채택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위원회(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는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1) UNHRC(최종검색일: 2023. 1.25.),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1/un-human-rights-committee-issues-findings-ethiopia-japan-kyrgyzstan>>.

2) 2022년 10월 10일~ 11월 4일 개최된 제136차 회의 최종결과보고서로, 2022년 11월 30일 배포됨. UNHRC(최종검색일: 2023. 7.25.), <<https://www.ohchr.org/en/news/2022/11/human-rights-committee-concludes-one-hundred-and-thirty-sixth-session-after-ad-opting>>.

이 글에서는 2014년 제6차 보고서 발표 이후 2016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제7차 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 철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유엔인권위원회 일본 조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2.1 제6차 보고서 심의 결과 및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제정

유엔인권위는 2014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일본의 제6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2014년 7월 24일 동 심의에 대한 최종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 CCPR/C/JPN/CO/6)를 채택하고 2014년 8월 공개한 바 있다.<sup>3)</sup>

2014년 제6차 일본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 관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일본 여당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여타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유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할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3)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의 공개 (4) 교과서 수록 등 이 문제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 대중들에게 교육 실시 (5) 공식적인 사과와 공식적인 책임 인정 (6)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규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혐오표현과 인종차별(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에 관해서는 한국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표현, 극단적인 집회, 괴롭힘,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 인종적 우월성을 옹호하고 차별, 적대 및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선전 및 시위 금지 (2)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충분한 자원 배분 및 혐오와 인종주의적 범죄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집행 인력에 대한 훈련 강화 (3) 인종주의적 공격 예방, 관련자 조사 및 기소, 유죄 판결에 대한 적절한 처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일본은 1978년 5월 30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1979년 6월 21일 비준하였다.<sup>4)</sup> 그러나 일본에서 혐오표현과 인종차별 등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2016년 일명,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제6차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도 관련 법률은 미비하였으며, 이후 2015년 민주당, 사민당 등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인종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人種等を理由とする差別の撤廃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이 먼저 제안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6년 4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

3) 제6차 일본보고서 채택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14/07/human-rights-committee-considers-report-japan>>. 결과보고서 원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4/142/49/PDF/G1414249.pdf?OpenElement>>.

4) “Status of Treaties CHAPTER IV HUMAN RIGHTS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근절을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을 일본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16년 5월 24일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3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국의 출신자(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이념과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상담체제 정비·교육 강화, 계몽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였다.

## 2.2 제7차 보고서 심의 결과

2022년 11월 4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에 대한 제7차 일본 조사결과 최종의견서(CCPR/C/JPN/CO/7)를 채택하였다. 이는 2022년 10월 10일~11월 4일 개최된 제136차 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을 정리한 결과보고서이며, 2022년 11월 30일 배포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재일한국인에 관한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 2.2.1 혐오표현과 증오범죄(Hate speech and hate crime)

일본은 2016년 「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근절을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일명, 헤이트스피치 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 및 「부락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部落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일명, 「부락차별해소법」) 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왔지만, 인권위는 다음의 사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1) 소수민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적 담론이 지속됨. 특히 한국인과 한국계 일본인에 대해 조직, 정치단체 및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차별을 선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위, 선거운동 명목하에 정치연설에서도 차별행위를 실행함. (2) 일본 당국은 혐오표현, 증오범죄, 차별선동 등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인종차별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근거로 정의만 되어있을 뿐임. (3) 현행 법률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였다.

첫째,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의 적용범위를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적 언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

둘째, 형법개정을 고려하여 증오범죄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금지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행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할 것.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증오범죄, 혐오표현에 관한 보고를 장려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관련 범죄가 식별되고 등록되도록 할 것.

셋째, 특히 법 집행 공무원, 검사 및 사법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감성을 촉진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소수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편협함,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근절하고, 일반 대중 속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할 것.

넷째, 사법당국 공무원의 증오범죄 및 혐오표현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사건이 체계적으로 조사되도록 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2.2 성 평등(Gender equality)

유엔인권위는 일본에서 2018년 정치분야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0년 제5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에 주목하면서도 여성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직과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여성을 포함한 소수민족 여성의 참여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2.2.3 소수자 권리(Rights of minorities)

유엔인권위는 일본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사회보장제도 및 정치적 권리의 행사로부터 배제되어 온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보고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지원 프로그램과 연금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2.2.4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인권위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된 2014년 권고와 관련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인권규약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를 다뤄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부족하고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과 완전한 보상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권고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첫째, 전시 중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저지른 모든 인권침해 혐의를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 가해자를 기소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것.

둘째, 다른 국가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법적 수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할 것.

셋째, 교과서, 문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교육할 것.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위안부 사건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할 것.

## 3.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의 효력 및 일본 국내 법률의 한계

유엔인권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의 해당국은 사법, 입법, 행정 분야에서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및 비정부 기구,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조사결과와 권고 사항을 널리 보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제7차 보고서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증오범죄를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등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유엔인권위 보고서에서 특히 한국인과 한국계 일본인에 대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혐오표현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은 현행 법률에 엄격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7차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 영주하는 한국인과 그 후손 등 일본 내 외국인 지방참정권(선거권)을 허용하도록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가 일본의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보고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일본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sup>5)</sup>

일본 국회에서 유엔인권위 지적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5) 김유정,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036호(2022.12.29.), 국회입법조사처, 2022.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에 관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조할 것.

# 간토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에 대한 문인들의 기억과 기록

金麗眞(高麗大)

## 1. 들어가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간토대지진은 일본 근대사에서 유례없는 천재(天災)이자 인재(人災)였다. 도쿄를 비롯하여 미나미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M7.9의 대지진과 곧이어 도심을 뒤덮은 대화재는 약 10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약 45억 엔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을 기록하는 등 일대 재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천재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 중국인 등의 학살로 이어진 인재는 명백한 제노사이드(genocide) 사건이었다.<sup>1)</sup> 흔히 세계사 속 제노사이드 사건이라고 하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나 르완다 집단학살을 떠올리는데 간토대학살이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제노사이드 사건으로서 연구되는 것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간토대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사후처리 과정을 성찰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왜냐하면 희생당한 ‘집단’이란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섬멸해야 하는 ‘적(敵)’—이를테면 ‘불령선인(不逞鮮人)’,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집단’의 ‘절멸’을 피하여 미필적(혹은 확정적이었을) 고의를 가지고 진재 다음 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경을 동원하고, 민중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관민이 일체 되어 학살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재난을 겪고 학살의 현장을 목격한 문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문학적으로 기록했는지를 훑어보고자 한다. 로저 스미스의 말처럼 제노사이드 희생자를 위한 국가의 후원이나 대변자가 없다면 희생자의 목소리는 무관심하고 여념이 없는 세계의 장벽 너머로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주장처럼 기억은 과거를 환기하는 ‘기념물’ 즉 공공 기념물, 과거를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 문학이나 예술이 있어야 한다.<sup>2)</sup> 이러한 기억과 기록이 그 자체로 학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간토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역사 수정과 부정에 대항하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 2. 재난과 학살의 기억

### 2.1 피해 경험이 남긴 것

- ① 무너져 내린 사물 소리와 사람 외치는 소리 슬프구나 대지는 끝없이 흔들리고  
(くづれ落つるものの音人の叫ぶ声かなし大地はゆれ / \ てやまず)<sup>3)</sup>

1) 대량학살(mass murder)과 달리 제노사이드는 국민, 민족, 종족,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위로서, 가해자의 ‘의도’와 행위의 목적이 특정 피해자 ‘집단’의 ‘절멸’에 있음을 골자로 한다. 간토대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김강신(2023)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본 관동대학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강효숙(2018)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민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 전북사학회를 참고

2) 허버트 허시 저·강성현 역(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p.66.

- ② 아버지의 지옥 규환의 지옥이라 그림은 보고 말로는 들어봤지 실마 목격하다니  
(阿鼻地獄叫喚地獄画には見つ言には聞きつまさ目にむかふ)<sup>4)</sup>

대지진과 화재의 경험은 사람들의 심상에 슬픔과 무상감, 두려움 같은 부의 감정을 강렬하게 새겼다. ①은 재색을 겸비하여 다이쇼 3대 미인으로 일컬어진 구조 다케코(九条武子)가 남긴 재난 경험 단카(短歌) 중 한 수다. ‘슬픔’의 감정을 담아 재해로 인해 혼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②는 수많은 가인을 육성하고 歌誌 『마음의 꽃(心の花)』을 창간한 사사키 노부쓰나(佐々信綱)의 단카로 재해가 휩쓸고 간 모습을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라 칭하며 생지옥을 목격한 사람의 허탈함과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다.

(…) 사람들은 픽픽 쓰러진다. 뒷사람들은 / 시체를 짓밟고 파고 들어온다.  
“오빠, 불 타 죽기는 싫어요, 소매에 불이 붙으면 이 끈으로 목 졸라 죽여주세요!”  
쓰러져도, 쓰러져도, 지독한 사람이다, / 불타도, 불타도 지독한 불이다,  
“소매에 붙으면, 목 졸라 죽여주세요” (….) “목 졸라 죽여……” (….)<sup>5)</sup>

극한 상황이 가져온 절망에 휴머니티를 상실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상기 인용한 시인이자 영문학자 사토 기요시(佐藤清)의 시 「사람, 불, 지진(人、火、地震)」은 그 일면을 서늘하고 끔찍하게 보여준다. “지독한 사람”, “불”, “경계 없는 지진”은 사람이 사람의 죽음에 무더지게 만들고, 앞사람의 “시체를 짓밟”게 만들었다. 화자의 여동생은 지독한 화마에 소사(燒死)하는 것이 두려워 “오빠”에게 자신을 목 졸라 죽여달라고 정신병적으로 반복해서 간청하기에 이른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지옥 규환의 지옥”인 것이다. 한편 죽음에의 극복의지(地)나 인간과 자연의 재생, 생명력(力)을 표현한 작품들도 존재하지만, 진재 경험으로 인해 새겨진 공포와 두려움, 휴머니티의 상실은 학살의 심리로 이어지게 되었다.

## 2.2 학살의 현장에서

기차가 아라카와 철교를 거의 다 건너려고 했을 때였다. 모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백 미터 남짓한 상류를, 강변 가까이, 무언가 하얀 가느다랗고 긴 것이 흘러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 처음에는 그 하얀 것이 뭘지, 조금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눈두렁의 풀숲 위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하얀 것을 뒤쫓듯이 줄줄이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게다가 모두 손과 손에 죽창이니 갈고랑이(鷹口)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데다가, 하얀 것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 “이야 ××[鮮人]. ××[鮮人]” “뭐? ××[鮮人]이다. 어디, 어디” “저걸 봐. 저걸” 이런 외침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가 했더니, 차내에는 금세 광기 어린 함성이 충만했다.<sup>8)</sup>

3) 엄인경·김보경 편역(2017) 『시가로 읽는 간토대지진』, 역락, p.72.

4) 전개서, 엄인경·김보경 편역(2017), p.90.

5) 전개서, 엄인경·김보경 편역(2017), pp.27-29.

6) 김여진(2021) 「간토대지진을 제재로 한 한일 문인의 시가 비교연구: ‘죽음’과 ‘삶’을 키워드로」 『일어일문학』 89, 대한일어일문학회, pp.184-187 참고.

7) 엄인경(2017) 「일본의 재난시가에 관한 연구: 간토대지진에 있어서의 진재영의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41,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26-329 참고.

에구치 간(江口渙)의 단편 「차 안에서의 일(車中の出来事)」은 1923년 12월 11-12일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 학예란에 게재된 것으로 조선인 학살의 현장을 목격한 자의 생생한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 에구치 간은 일본사회주의동맹과 NAPF 등에 참여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는데, 당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학살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sup>9)</sup>나 에마 슈(江馬修)<sup>10)</sup>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열 작가들이었다. 프로 계열 문인들은 계급 투쟁을 위해 정부를 비판하고 천황제를 반대하는 등 인류 해방의 기치 아래 조선인과의 연대를 꾀해왔고, 개개의 차이는 있겠으나 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학살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인용문의 배경이 되는 아카바네(赤羽) 아라카와(荒川) 철교는 대표적인 조선인 학살 장소 중 하나이다. 가토 나오키(加藤直樹)의 논픽션 『9월, 도쿄의 거리에서』는 9월 4일 아라카와 철교에서 학살을 목격하고 그 자신도 폭행당한 조선인 여행객 신창범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3일 밤 아라카와 제방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미 피난민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심야에 무장한 자경단 무리가 피난민 중 조선인이 있는지 한 사람씩 확인하여 아라카와 제방공사 인부였던 임선일을 비롯한 수 명의 조선인을 일본도로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자신 또한 인용문에서도 나오는 갈고랑이(鶯口)에 온몸이 찍혀 무수한 흉터가 남게 되었다.<sup>11)</sup> 야마다 쇼지의 조사에 의하면 아카바네 아라카와에서 학살된 조선인 수는 300명<sup>12)</sup>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이 아라카와 부근에서 학살되었다.

「차 안에서의 일」 후반부에서는 30대 중반의 재향군인 차림의 남자와 마흔 전후의 “하얀 셔츠 하얀 바지에 어깨에 물통을 걸친” 남자가 서로 싸우다 재향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하얀 상하의를 입은 남자를 조선인으로 몰아가자 사람들이 기차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하얀 옷(白衣)은 조선인의 대표적인 표상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얀 옷의 남자는 그가 실제로 조선인이었든 아니었든 조선인으로 의심받자마자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에구치 간은 이러한 행태를 보고 “무방어의 소수자를 다수가 무기와 힘으로 득의양양하게 학살한 용감하고도 충실한 ‘야마토다마시(大和魂)’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모멸과 증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 우매함과 비열함과 무절제에 대해서”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글을 끝맺는다. 일본 민족 고유의 정신으로서 강조된 관념인 ‘야마토다마시’는 일본인 정신론에서 특히 메이지 천황제 국가 아래서는 내셔널리즘의 핵심 요소로서 중시되었고, 전시기에는 대외 확장을 미화하고 군인의 사기를 고양하는 슬로건으로 이용<sup>13)</sup>되기도 했다. 에구치 간은 힘없는 소수, 자신과 다른 타자를 향한 다수의 폭력이 천황제 아래 배외주의적 내셔널리즘에 의해 정당화되는 심리와 그 과정을 이 작품을 통해 진심으로 모멸감과 분노를 드러내며 비판했다.

8) 琴秉洞 編(1996) 『朝鮮人虐殺に関する知識人の反応2』, 緑陰書房, p.84-85.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 ] 안은 편자 주.

9) 1883-1962. 극작가, 시인, 동화 작가, 소설가, 사회운동가로 활동. 간토대지진을 천견론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제국 일본과 간토대학살을 비판하는 시 「죽음의 도시(死の都)」(『文章俱樂部』, 1923년 10월 특대호)와 불령선인 유언비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조선인 학살을 비판하는 희곡 「해골의 무도(骸骨の舞踏)」(『演劇新潮』, 1924년 4월호)를 발표했다.

10) 1889-1975. 소설가. 『전기(戰旗)』 계열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선인 학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소설 두 편, 『양이 분노할 때(羊か怒る時)』(聚芳閣, 1925)와 『피의 9월』(在日本朝鮮民主青年同盟岐阜県飛騨支部, 1947.9)을 발표했다.

11) 가토 나오키 저·서울리다리티 역(2015) 『9월, 도쿄의 거리에서』, 갈무리, pp.88-91.

12) 야마다 쇼지 저·이진희 역(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p.199.

13) <大和魂>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word/%E5%A4%A7%E5%92%8C%E9%AD%82-144215> (2023.07.31. 열람)

### 3. 절멸의 언어—‘불령선인’ 유언비어와 학살의 정당화

이렇듯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와 다른 타자는 기꺼이 내집단에서 배제하는 행위, 즉 제노사이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원인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는 여러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또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허버트 허시의 “절멸의 언어” 이론을 대입해보고자 한다.<sup>14)</sup> 그에 따르면 언어는 잠재적인 문화적·정치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나치는 유대인 절멸을 위한 프로파간다로써 유대인을 더러운 존재, 기존의 종교와 국가에 파괴적인 존재, 고리대금업자, 공산주의자, 우물에 독을 풀고 다른 종교들에 대해 적대적인 존재 등으로 표상하여 비난, 그들을 비인간화하고 유대인 절멸을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 이러한 ‘상상적 범죄’에 대해 강제 개종, 신분증 달기, 계토 격리, 유대인 학살 등 다양한 사회적 조치를 통해 배제와 절멸을 꾀했는데 이러한 절멸의 수단과 과정은 간토대학살의 그것과 일부 오버랩되어 보인다.

특히 희생자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기능으로써 인종주의적 용어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간토대지진 발생 당일부터 퍼진 각종 ‘불령선인’ 유언비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대표적인 유언비어로는 ‘선인습격(鮮人襲來)’설, 불량선인이 조선독립을 위한 음모를 꾸민다, 일본 사회주의자와 내통해서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 조선인 비밀결사가 비밀리에 행동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들어와 아라카와, 타마가와 등지에서 토공으로 일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몇백 명이나 있다, 조선 노동자는 굉장히 난폭하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강간·약탈·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 등이 있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아리아인 신화’(=아리아인 우월주의)를 이용한 것처럼, 간토대학살 때는 천황에 충성하는 순수한 야마토 민족과 그 외의 외부 집단—독립을 꾀하는 ‘불령선인’, 계급제도의 타파를 주장하고 지배계층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자’, 때로는 ‘우리’와 다른 특성을 가진 ‘장애인’이나 ‘약자’, ‘소수자’들로 정의되는—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외부 집단을 절멸시키는 데에 일종의 ‘야마토 민족 신화’ 혹은 ‘불령선인’ 담론과 ‘사회주의자 사회 전복 시도’ 등의 신화가 이용된 것이다.

### 4. 나가기

한일 근대사에서 유례없는 제노사이드 사건인 간토대학살은 미해결의 영역이 크게 존재한다. 왜곡과 은폐에 의한 역사수정과 부정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교훈을 위해서라도 간토대학살의 기억과 기록을 들여다봐야 한다. 재난의 경험은 부의 감정과 휴머니티의 상실을 가져왔고 이는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에구치 간의 「차 안에서의 일」을 가져와 학살의 현장을 엿보았다. 제노사이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절멸의 언어’ 이론을 통해 간토대학살이 가능해진 경위를 설명하고자 했다. 간토대학살이 백 주년을 맞이했으나 진상규명과 한일 간 깊어진 혐오의 골을 메우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차별과 혐오의 연쇄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14) 전게서, 허버트 허시 저·강성현 역(2009), pp.158-178.

# 동일본대지진과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정치적 상상력

—날조되는 총구 ‘후방’의 국민작가—

곽동곤(고려대)

## 1. 서론

본 발표에서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3부에 걸쳐 매해 12월에 대하드라마 시간대에 방영되었던 NHK 스페셜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을 전후 최대의 ‘국민작가’라고 불리는 시바 료타로의 원작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은 원작 소설과 드라마의 판본에서 각각 일본근대문학의 ‘국민작가’ 나쓰메 소세키를 어떻게 등장시키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나아가 이 드라마의 3부가 같은 해의 3월에 동일본대지진과 연이은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의 연쇄적인 폭발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던 2011년의 12월에 방영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위기 상황을 이 드라마가 어떻게 서사적으로 봉합하고자 했는지 그 정치적 상상력을 본 발표에서는 묻고자 한다.

## 2. 원작 소설 『언덕 위의 구름』에서의 시키의 죽음과 시바의 역사기술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은 1968년 4월 22일부터 1972년 8월 4일까지 『산케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신문소설이다. 이 소설이 연재되기 시작한 1968년은 베트남전쟁이 가장 치열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베평련을 시작으로 한 반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전쟁에서의 원초적 축적에서 출발하여 베트남전쟁 특수를 구가할 수 있다는 외적인 요인에도 기인하여 고도성장경제를 구가하던 일본사회는 신좌익에 의한 전공투 운동이라는 내적인 반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문에 연재된 이 소설은 15년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사상하고 국민국가의 형성기로서의 메이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독자의 기억과 망각을 정치학적으로 조작하는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시바 료타로를 ‘전후 최대의 국민작가’로 불리게 만든 문학 작품이다. 이 소설은 국가와 자신의 동일성을 상상하며 국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주체로서 형성된 국민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 위기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조국방위전쟁”으로서 러일전쟁을 그려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설이 일본의 “전쟁”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자기언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이쿠개량운동과 사생문의 창시자로서 일본근대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마사오카 시키는 육군과 해군에 들어가 각각 여단장과 작전참모로서 러일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군인으로서의 두 주인공 아키야마 요시후루와 사네유키와 함께 마쓰야마에서 태어나 메이지 국가라는 공적인 영역으

로 나아간 고향친구로서 이 소설의 세 명의 주인공 중 하나가 된다. 여기서 사네유키는 시키 그리고 소세키와 함께 대학예비문에서 문학을 지향했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군인이 된 후에도 사네유키는 군대의 일본어를 창시하고 있으며 문학자의 길을 끝까지 걸은 시키는 청일전쟁에 종군하고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은 시키와 아키야마 형제를 통해 ‘문학’과 ‘전쟁’을 각각 국민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주요한 계기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키야마 형제와 시키라는 세 명의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춘 이 소설의 초반은 ‘문학’과 ‘전쟁(=군인)’이라는 테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인생의 궤적이 엇갈리면서 소설적 다성성 역시 돋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 러일전쟁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면서 이 소설은 소설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폴리포니로서의 다성성을 상당 부분 잃어가기 시작한다. 아키야마 형제와 시키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에서 전개되던 초반의 서사는 아키야마 형제가 러일전쟁에 출정하는 중반 이후 만주의 전장으로 그 공간적인 배경을 옮겨버린다. 이후 소설은 아키야마 형제 이외에도 정치가와 지휘관의 내면을 화자가 꿰뚫어 보고 있는 초월적인 시점에서의 전략과 전술에서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역사 기술처럼 전개된다. 각각 기병여단장과 해군 참모가 된 아키야마 형제의 시점에서도 전쟁은 그려지지만, 여성 차별을 통해 총구 후방의 세계를 배제함으로써 공적인 세계로서의 전쟁에 일체화되는 그들이 화자의 역사 기술을 상대화하는 일은 없다.

한편 이처럼 원작 소설이 중반 이후에 소설적 다성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이요 마쓰야마에서 출발한 세 명의 인물 중 하나인 마사오카 시키의 죽음을 들 수 있다. 시키는 결핵과 그 척추 전이로 1901년에 서거하며 그 죽음은 소설의 3분의 1 정도의 지점에서 그려진다. 그리고 이 죽음을 계기로 작가는 “러일전쟁 그 자체를 그리”기에 “소설”이 결코 “편리”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주인공으로부터 떠나”서 소설의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코 그럴 수 없는 러일전쟁이라는 “국면에서의 운전자 중의 한 사람”인 “니콜라이 2세”의 전쟁책임을 묻기 시작한다. 시키의 죽음으로 작가는 역사가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아니면 역사가라는 일종의 신과 같은 시점에서 러일전쟁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작가를 추동했을 때 마침 시키의 죽음이라는 좋은 핑계가 있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시키의 죽음을 계기로 화자의 시점이 아키야마 형제들을 “떠나”는 중반 이후의 『언덕 위의 구름』에서의 역사 기술은 제각각의 등장인물에 의한 다성적 상대화라는 소설로서의 ‘굴레’를 폐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시키의 죽음이 소설에 초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 러일전쟁에 출정한 아키야마 형제는 오로지 공적인 영역과 혼연일치된 일종의 광적인 모습으로만 묘사되기 때문에 두 형제가 남겨두고 온 사적인 세계는 그려지지 않는다. 사적인 세계란 요컨대 러일전쟁의 총구 후방의 일본 국내 사회이다. 나리타 류이치는 “아키야마 형제를 주인공으로 하여 군인을 축으로 하면서 시정(市井)을 대표하는 역할을 시키에게 부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sup> 요컨대 『일본』의 기자로서 청일전쟁에 종군한 적도 있는 시키는 병석에 누웠어도 신문을 통해서 전장의 속보를 전해오는 신문을 읽는 독자이자 문학자로서 총구 후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요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시키로부터 소세키로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일찍 죽은 시키를 계승하는 등장인물이라는 형태로 소세키를 『언덕 위의 구름』의 주요한 등장인물로 앞둔다는 구상이 반드시 있었을 터”이며

1) 成田龍一(2009)『戦後思想家としての司馬遼太郎』148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미완성”이라는 관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sup>2)</sup>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작 소설은 마사오카 시키와 나쓰메 소세키라는 문학사적으로도 유명한 희유의 우정을 군인이자 동향의 친구인 아키야마 사네유키에 의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키의 뒤를 이어 충구 후방의 사회 분위기를 그리는 역할을 떠맡기에 충분할 정도로 국어 교과서의 단골 작가 소세키는 소설의 초반에 종종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키의 죽음과 함께 소세키는 이 소설 속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작가 시바 료타로의 역사기술은 러일전쟁이 한창일 1905년 1월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제1편을 시키가 만들었고 그 동료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었던 잡지 『호토토기스』에 게재하면서 등장한 소세키의 목소리에 의한 상대화를 억압하면서 성립하고 있었다고 여기서 가정해 두기로 하자. 사네유키가 문학을 버리고 군인이 된 것처럼 시바는 ‘소설’이라는 ‘문학’을 포기하고 역사기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을 검토한 후에 상세히 고찰하도록 하자.

### 3.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의 제작배경

이 드라마는 ‘전후 일본 최대의 국민작가’라고도 불리는 시바 료타로(1923년~1996년)가 『산케이 신문』에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연재한 대하역사소설 『언덕 위의 구름』을 영상화한 것이다. 살아생전의 시바는 이 소설의 영상화를 꺼려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려야 하는 대상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영상화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며 둘째, 러일전쟁을 그리고 있는 이 대하소설이 영상화되면 군국주의를 북돋우게 될 거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바가 1996년에 타개한 후 1999년에 시바 료타로 기념재단이 영상화를 허락했고 저작권자인 부인 후쿠다 미도리의 허락을 얻어 2006년부터 「21세기 스페셜 대하 드라마」로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sup>3)</sup>. 그러나 NHK 내부의 불상사가 겹쳐 제작이 지연된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 하인 2009년부터 「프로젝트 재팬」의 일부로서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12월마다 NHK 채널에서 방영되게 된다.

여기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이 방송될 예정이라고 발표된 것이 2003년이라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듬해인 2004년은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던 1904년으로부터 10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각종 미디어는 100주년 특집을 기획하여 러일전쟁을 회고했다. 예컨대 『문예춘추』에서는 10월에 러일전쟁 특집<sup>4)</sup>을 마련했으며 『중앙공론』에서는 2월에 『러일전쟁 100년과 시바 료타로』<sup>5)</sup> 그리고 6월에 『무사도와 러일전쟁』이라는 두 번의 특집을 마련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잡지 미디어가 “시바 료타로”라는 작가의 고유명을 통해서 러일전쟁이라는 100년 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20세기에 쓰여진 책 중에서 후세에 남겨야 할 작품은 어느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이 1위를 차지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소설이 NHK주년을 맞이한 러일전쟁에 대한 회고 붐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바 료타로를 경유한 러일전쟁에 대한 회고 붐의 내용은 무엇

2) 片山杜秀・佐藤優(202103)「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大講義③夏目漱石と正岡子規」『文芸春秋』

3) 「司馬さんが描いたよき人、よき日本人の話をドラマ化することで、このいやな国になってしまった日本が、もう一度よき日本になってもらいたい」(福田みどり)

4) 文芸春秋(2003.4)pp.262~283.

5) 中央公論(2004.2)「特集日露戦争100年と司馬遼太郎」



일까. 『중앙공론』의 특집 「러일전쟁 100주년과 시바 료타로」에 게재된 후쿠이 유조의 글은 “전후 수십 년 만에 걸쳐서 일본의 사회를 지배해 온 자학사관적인 사고로부터 국민을 해방한 점에 그의 작품이 미친 힘”이 크다는 점을 시바 료타로의 “큰 공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후쿠이는 그 이후인 2012년 니시오 간지 등과 함께 『스스로의 역사를 폄훼하는 일본인』의 공저자가 된다. 시바 료타로의 작품들이 1990년대 이후의 후지오카 노부가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운동이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신화적인 텍스트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새삼스럽게도 재확인되는 것이다.

#### 4. 동일본대진재와 『언덕 위의 구름』 그리고 소세키

스페셜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은 시바 료타로의 원작 소설과는 달리 총구 후방의 일본 국내 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이는 여성 혐오적인 레토릭으로 여성들(아키야마 형제의 홀어머니와 아내들)을 중심으로 한 총구 후방의 사회를 소설의 전개에서 배제하고 있는 원작 소설에 비해 높이 평가할만한 점인지도 모른다. 드라마는 원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시키의 여동생 마사오카 리쓰가 시키암을 지키면서 『호토토기스』의 동인들과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아내와도 교류하면서 전선에 있는 사네유키를 걱정하며 서로 위로한다는 설정을 통해서 총구 후방의 사회를 숨씨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2011년을 현재로 하여 러일전쟁이 그려지는 비일상적 장면을 보고 있는 현대의 시청자들이 드라마 영상 속에서 자기를 동일화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소를 만들어 낸다. 2011년의 시청자들은 총구 후방의 사회에서 신문의 호의를 통해 전장의 소식을 알고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를 염려하는 마사오카 리쓰의 자리에 자기를 동일화하면서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의 전장을 시청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은 시청자에게 자신이 속한 국민국가가 전쟁 중인 총구 후방의 사회를 추체험하게 하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1904년의 리쓰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읽고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대하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 역시 텔레비전이나 신문잡지를 통해서 매일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 독자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러일전쟁을 재현하고 있었던 『언덕 위의 구름』의 3부는 2011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여기서 일상적인 장소로서의 총구 후방과 겹치는 텔레비전 시청자의 장소로서의 각 가정의 안방극장에서 시청자가 바라보는 폐허의 스펙터클로서의 조선과 만주의 전장은 쓰나미의 습격을 받은 도호쿠 연안지역과 연이은 폭발로 간신히 제어되고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매일매일 상연되고 있는 스펙터클과 중첩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은 쓰나미에 의한 대량의 사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1호기, 3호기, 2호기, 4호기에서 잇따른 폭발을 일으켜 누출된 방사능물질은 동북에서 관동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토지를 오염시켰다.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 도호쿠전력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관할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 사고를 일으킨 원자력발전소가 도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때 도쿄 시민의 뇌리에 아마도 거의 처음으로 아로새겨졌다. 그리고 원전 사고로 인한 전력부족으로 대규모 정전의 위험이 제기되고 지역별 계획정전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예고와는 달리 계획정전이 실제로 실시되는 일은 없었고 수도 도쿄의 시민적 일상은 식료품에 대한 다소간의 불안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영위되었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는 간토 지방의 공업지구와 수도 도쿄의 소비사회로 이루어진 일본의 고도경

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지어졌어야 할 이 원자력발전소가 후쿠시마에 지어진 것은 만에 하나의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도쿄와 수도권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일으키자 후쿠시마라는 국가의 변방이 입은 피해는 궤멸적인 데 반해 국가의 중심으로서의 도쿄에는 도시의 밤거리가 제법 어두워진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요컨대 후쿠시마 원전은 건설 처음부터 국가의 중심이 변방에 그 잠재적인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로 지어졌고 그 위험은 동일본대진재를 통해 현실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고도성장경제를 지탱하면서도 그 위험을 주변부에 전가하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 상징되는 전후 일본의 기획은 역설적이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은 하나”와 “후쿠시마 힘내자”라는 두 개의 문구가 하나로 결합하여 사회 곳곳에서 캐치프레이즈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연대나 우애를 나타내는 ‘기즈나(絆)’라는 말이 2011년을 나타내는 올해의 한자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크게 유행했다. 물론 이러한 언어표현들이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나 원조와 성금을 촉구한다는 레벨에서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난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되돌아갈 고향이 없으며 혹은 피난하고 싶어도 갈 곳 없는 후쿠시마의 주민들에게 “일본은 하나”이니까 “후쿠시마 힘내자”, 우리 국민 공동체는 “기즈나”로 묶여있다는 이 선전 레벨에서의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후쿠시마”를 상실하고 가설주택에 수용된 주민들에게 “힘내자”고 말한다. 안전한 ‘후방’으로부터 “후쿠시마”를 “일본”과 “기즈나”로 묶어 “하나”라고 외치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주민들이 사실상 돌아갈 곳은 물론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허구이다. 오히려 “힘내”고 싶어도 “힘낼” 곳이 없는 “후쿠시마”는 “일본은 하나”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과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상의 시대’로 ‘상상’되는 메이지 시대와 ‘조국방위전쟁’으로서의 러일전쟁의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안방극장의 시청자는 “후쿠시마”의 안전한 ‘후방’에서 “하나”가 아닌 “후쿠시마”를 망각하거나 안전한 ‘후방’의 일상을 계속 영위하고 싶다는 욕망을 통해 부인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시바의 원작 소설이 문학사적으로 시키를 계승한 소세키를 배제하고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마사오카 리쓰에게 시키의 시점을 계승하게 한 드라마는 유사 역사에 대한 기술로 치우친 원작의 단점을 잘 보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드라마의 작가가 시키에 대한 소세키의 계승이라는 원작의 잠재적 가능성을 눈치채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안방극장의 시청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의 마지막 회의 한 장면으로 되돌아 가 보자. 네기시의 시키암에서 “준짱” 즉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있는 한 도쿄 헤이하치로의 연합함대가 발틱함대에 질 리가 없다면서 전쟁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호토토기스』의 편집회의에 참여한 야마카이(山会)의 동인들이다. 이때 “이 집에도 야마토혼(大和魂)이 우글거리고 있군”이라는 한 마디로 충구 후방의 전승열에 찬물을 끼얹으며 등장한 것은 나쓰메 소세키이다. 그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연재 7회의 원고를 편집회의에 들고 온 참이다. 이어 고양이에 대해 할퀴었다며 요오도징키가 없냐는 소세키에게 그 정도로 엄살을 부리면 전장의 병사들에게 비웃음을 살 거라고 빈정거리는 것은 시청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시점인물 리쓰이다. 그러자 소세키는 “이 몸에게는 야마토 혼이 결여되어 있어서 말이지요”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7회에 나오는 몇 구절을 암송한다.

“누구도 입에 담지 않는 자는 없지만 누구도 본 자는 없다. 누구나 들은 적은 있지만 누구도 만난 적은 없다”, “야마토 혼이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야마토 혼이지, 라고 대답하고 지나간다. 대어섯 길을 가더니 에헴 하고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7회)

여기까지 말하자 리쓰가 소세키를 제지한다. “웬지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준상과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라고 리쓰는 말한다. 그러자 소세키는 사과한다. “문학사라고는 해도 정작 위급할 때에는 군인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문의 가치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무력함이 분합니다. 마사오카가 살아있다면 같은 것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소세키는 “만약 발틱 함대에게 지면 일본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다”면서 “무섭다”고 말한다. 필시 일본의 문화와 문학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러일전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때 문학을 그만두었던 아키야마라는 것이다. 이어서 소세키가 리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듭 사과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된다.

리쓰에게 제지당한 후의 소세키의 발언들이 모두 시바의 원작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 작가에 의한 “날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드라마 작가는 원작자의 심중을 제법 살피고 있다. “만약 발틱 함대에게 지면 일본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러일전쟁은 “조국방위전쟁”이라는 것이 시바 사관의 뼈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바의 소설에서 시키의 사후에 소세키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세키가 시바사관이 욕망하는 언동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드라마 작가는 이른바 시바사관을 통해 조감된 시바가 욕망하는 바대로 소세키를 날조한다. 『호토토기스』의 동인들이 모여서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있는 한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함대에게 질 리가 없다면 전쟁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네기시의 시키암에 들어온 것은 나쓰메 소세키이다. 실은 소세키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연재 7회의 원고를 편집회의에 들고 온 참이다. 소세키는 고양이에게 할취었다며 리쓰에게 요오도징키를 달라고 하자 리쓰는 그 정도로 엄살을 부리면 전장의 병사들에게 비웃음을 살 거라며 빈정거린다. 그러자 소세키는 “이 몸에게는 야마토 혼이 결여되어 있어서 말이지요”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7회에 나오는 몇 구절을 낭송한다.

“누구도 입에 담지 않는 자는 없지만 누구도 본 자는 없다. 누구나 들은 적은 있지만 누구도 만난 적은 없다”, “야마토 혼이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야마토 혼이지, 라고 대답하고 지나간다. 대어섯 길을 가더니 에헴 하고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7회)

여기까지 말하자 리쓰가 소세키를 제지한다. “웬지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준상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라고 리쓰는 말한다. 그러나 소세키는 사과한다. “문학사라고는 해도 정작 위급할 때에는 군인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문의 가치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무력함이 분합니다. 마사오카가 살아있다면 같은 것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소세키는 “만약 발틱 함대에게 지면 일본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다”면서 “무섭다”고 말한다. 필시 일본의 문화와 문학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러일전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때 문학을 그만두었던 아키야마라는 것이다. ‘문학’을 사상하고 ‘전쟁’에 대한 역사기술로 치우친 원작

6) 시바는 아키야마 “형제가 없었으면 어찌면 일본열도는 조선반도를 포함해서 러시아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창한 상상을 못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없었더라도 이 시대의 다른 평균적인 시대인이 그 자리를 채웠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쓰고 있다. (司馬遼太郎(1999) 「あとがき1」 『坂の上の雲 八』 文春文庫, p.113).

소설을 반복하는 형태로 드라마는 “야마토혼”으로 일체화된 충구 후방의 국민공동체를 향해서 이익을 제기하는 소세키의 “문학”을 억압하는 것이다.

### 3. 결론

시바 료타로의 소설 텍스트는 잡지의 좌담회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수정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바 사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여기서는 우연하게도 3.11이라는 국면에서 드라마화된 『언덕 위의 구름』을 고찰함으로써 동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서사적으로 봉합하고자 한 이 드라마의 분열하는 지점을 찾아보았다. 거듭해서 강조하자면 여기서 충구 후방의 국민공동체는 “후쿠시마”의 안전한 ‘후방’의 안방극장이기도 하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이외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충구 ‘후방’의 “야마토혼”을 표상하는 리쓰에게 사죄하는 소세키를 보는 ‘후방’에 위치한 시청자의 시선은 그와 동시에 “힘낼” 곳을 잃어버리고 “하나”가 아닌 “일본”이 된 “후쿠시마”로부터의 응시를 부인하고 있다.

# 일본 전통 시가의 재난에 대한 대응과 역할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金寶賢(忠南大)

하이쿠(俳句), 단카(短歌), 센류(川柳)와 같은 일본 전통 시가 장르는 일명 ‘좌(座)의 문학’으로 불린다. 하이카이(俳諧) 성립을 ‘좌의 문학’ 개념으로 접근한 오모리 아야코(大森文子)는 좌를 “공시적, 공간적인 좌와 통시적, 역사적인 좌”<sup>1)</sup>로 나누고, 이를 물리적 장소를 뛰어넘은 정신적 연대의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일본 전통 시가는 고대부터 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접촉과 문학적 교감 속에서 창작되어왔다. 그런데 2019년, ‘좌의 문학’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최초 감염이 보고된 급성 호흡기 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발병이었다. 비말, 공기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일본 전통 시가의 근본을 뒤흔들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된 3밀(밀접, 밀폐, 밀집) 정책으로 다수의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자, 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본 전통 시가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는 일본 전통 시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과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 콜레라, 결핵, 스페인 독감,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질병 때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일본 전통 시가에 창작 환경의 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통 시가는 신속하게 오프라인 좌를 웹 플랫폼 Zoom, Slack, Skype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온라인 좌로 전환시켰다, 또한 일본 전통 시가는 다른 어떠한 문학 장르보다도 빠르게 코로나19에 빠르게 반응하였고(아사히 하이단과 가단에 서 코로나 관련 하이쿠와 단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각각 2020년 2월 16일, 2020년 2월 23일이다.)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다양한 단행본들도 출간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일본 전통 시가의 재난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 전통 시가가 그 정체성인 좌를 위협받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재난 문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 전통 시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른 문학 장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학의 재난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으로 재난 문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일본에서 발간된 코로나19 관련 구집(句集), 가집(歌集)의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2023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구집은 각각 8권씩으로 확인된다). 일본 전통 시가의 창작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창작층의 유입을 불러왔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를 아래 표에 작성한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증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작품들이 코로나19 시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大森文子(1997), 「間テクスト性への感性を磨く尾形ゆい」, 『座の文学 連衆心と俳諧の成立』講談社学術文庫, p.212.

# 일본 환경재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가형(삼육대)

## 1. 서론

근대문명의 고도화가 심화하면서 각종 재난의 빈도와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각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후 이상, 과학의 전문화와 사회의 감독 기능의 한계(원전사고, 황우석 사태), 신자유주의적 기업 활동과 환경 파괴(독일 배출가스 조작, 가습기살균제 참사), 경제격차에 따른 국내외 분쟁의 격화와 테러의 일상화, 사람과 물류의 전 지구적 이동과 도시의 메트로폴리스화 등은 ‘현대적 재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현대적 재난의 성격은 매우 복합적이며 특히 환경재난의 경우 인재(人災)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동시에 ‘오염’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자연재난과는 구별되는 지점을 보유한다. 현대적 재난에서 환경재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우도 “유력한 발생원인 중 하나로 무선통신기술과 인공위성으로 인한 지구 전자기장 교란이 거론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환경재난으로 불리게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박석순, 2020).

일본은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4대 공해병이라 불리는 미나마타병, 니가타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옷카이치 사건을 비롯해 사회 전반을 뒤흔들 정도의 여러 환경재난을 겪었다. 일본의 환경재난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환경재난의 위협을 알리는 계기가 된 큰 비극이었다.

지형적 특성상 예전부터 지진이 잦았던 일본은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난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감내해왔다. 또한 그런 경험들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표현되었는데, 환경재난 관련 서사 역시 일본의 문학적 토대 위에서 여러 형태로 창작되었다.

## 2. 본론

이렇듯 환경재난 관련 작품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일본 재난서사 연구는 주로 1923년에 발생한 간토대지진(關東大震災)이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 위주로 이뤄져왔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건 이후 재난 및 일본 재난 서사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이 증폭하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난서사 관련 연구가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화제성 혹은 재난 발생 시기 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안들과 연동되는 재난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취사선택 되어왔으며 지진, 쓰나미, 홍수 등의 자연재난 관련 서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일본 재난서사 연구가 자연재난 서사 위주였기에 환경재난 서사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환경재난을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논자에 따라 공해문학, 환경문학, 생태문학, 등의 각기 다른 용어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어 기본적인 개념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가 이뤄졌다.

환경재난서사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특정 작가와 작품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많은 선행연구가 미나마타병에 관한 소설,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의 『고해정토(苦海浄土)』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계를 묻는 문학적 실천: 이시무레 미치코 『고해정토』로부터」(심정명, 2015) 「고도성장기의 반근대적 상상력 -이시무레 미치코의 『고해정토』를 중심으로-」(오미정, 2019) 「이시무레 미치코 문학에 그려진 恨」(김경인, 2012) 등의 연구는 모두 『고해정토』를 다룬 연구들이다.

『고해정토』는 『슬픈 미나마타』(2007)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도 번역 출간되어 있으며 환경재난을 다룬 소설들 중 가장 많이 읽히고 알려진 작품으로 꼽힌다. 작품의 내용과 메시지 자체가 지닌 힘에 화제성까지 더해져 연구대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설인 것은 틀림없으나, 환경재난 서사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유독 이시무레 미치코의 소설을 논하는 데만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 경향은 연구 범위의 주제가 좁고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환경재난 서사 관련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에 나온 김경인의 박사논문 「일본의 공해사건을 서사한 문학연구」이다. 박사 논문을 비롯해 김경인이 집필한 논문들은 일본의 공해사건 즉 환경재난과 관련된 문학을 고찰하고 있다. 치밀한 분석과 함께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논문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이 ‘아시오 광독 사건’, ‘미나마타병’, ‘후쿠시마원전사고’ 세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김경인이 논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다룬 소설들은 다른 환경재난 관련 소설들과 다른 양상을 띤다. 방사능, 피폭 관련 문학은 기존 연구에서 ‘원전문학(原発文学)’, ‘원폭문학(原爆文学)’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원전사건 관련 서사를 여타의 환경재난 서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고찰하는 작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환경재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어져왔으나 사회학, 역사학, 법학 등의 영역에서 축적되어 온 성과들에 비하면 관련 서사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시무레 미치코의 저작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 외의 환경재난 관련 문학 연구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다.

### 3. 결론

환경재난 서사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서사가 사실적인 증언과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재난 서사는 실제와 픽션의 경계를 쉬지 않고 넘나든다. 그러한 지점을 살피는 작업은 결국 환경재난 서사에서 문학적 상상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학적 상상력이 환경재난의 어떤 부분을 소환했는가 혹은 소거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환경재난 서사가 재난을 다루고 있는 방식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 1950년 6.25전쟁의 동원과 접경성

: 속초와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이세진(호서대)

## 1. 머리말

속초, 양양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속초, 양양지역으로 철마가 지나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었다. 여기서 철마는 철도를 의미한다. 일제는 1937년 동해북부선의 일환으로 강원도 북부 안변부터 양양지역까지 철도를 건설하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다. 6.25전쟁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우려의 현실화에 그치지 않는다. 6.25전쟁은 한반도의 내셔널한 차원, 동아시아의 리저널한 차원, 세계의 글로벌한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전쟁의 발생 원인은 분명히 2차대전 이후 패전국에 대한 전후 처리문제 때문이었다.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에 의해 분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반도 분할에 미국, 소련, 영국은 깊이 관여했지만 일본도 교묘하게 개입되었다. 한반도 분할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은 38선 분할이 불가피한 문제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소련은 38선 분할, 신탁통치를 이용해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신생독립국으로 혼란한 상황에 맞닥뜨린 한반도는 미,소의 대결의 장이 되었다.

냉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반도의 6.25전쟁은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을 계획적으로 의도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남한의 학계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이 먼저 38선을 넘었다고 다분히 의도된 전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남한의 이승만 정부가 먼저 38선을 넘어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정된 전쟁이었던 것은 논외로 하고 적어도 이 전쟁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전쟁이었다.

계획된 의도는 최고권력자들의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실제로 일반 주민들에게도 잘 드러난다. 특히 38선 접경지대의 주민들은 전쟁이전부터 접경지대 전투 혹은 경계임무에 동원되었다. 마을 청년동맹, 농민동맹 등을 통한 38선 주변의 비상연락망, 경계, 전투 준비, 노력동원 등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자원입대를 강요받았다. 자원입대는 심지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요구되었다. 자원입대한 학생들은 군사훈련도 없이 전쟁터로 내몰렸다. 이들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일반농민들도 인민군, 노력동원 등을 강요받았다. 전쟁을 전후한 시기 접경지대에서 나타난 주민의 동원과 징집을 살펴보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의 발발을 전후한 시기 주민의 동원과 징집에 주목하면서 38선 접경지대의 주민들 동원 기초적 관계뿐만 아니라 과정의 폭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쟁은 거시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냉전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미시적으로는 냉전이 38선 접경지역인 속초, 양양을 중심으로 넓



계는 인제 지역까지의 주민들 동원수립과 폭력성을 밝히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6.25전쟁은 우발적 요인보다 계획적 요인이 더 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 2. 해방을 전후한 시기 38선의 형성 배경

본 장에서는 해방 이후 6.25전쟁의 기원이 되었던 두 가지 문제인 최초 신탁통치안의 배경과 38선 획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최초 신탁통치안을 고찰해보겠다. 한반도 38선으로 나뉘는 분단은 2차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합국과 미국의 전시정책으로부터 부산물로 생겨났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sup>1)</sup> 한반도의 분단은 해방 이전부터 미국이 거론해왔던 신탁통치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제창한 인물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였다. 루즈벨트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미국 제국주의의 도덕적 정당성 노선의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와 미국 고립주의 여론을 무마하면서 국제적 참여를 주창한 우드로 윌슨(Woodrow Willson)이었다. 루즈벨트의 신탁통치에 대한 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독일 등 패전국의 식민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윌슨시대의 위임통치의 정치적 유산들이 이어 받은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루즈벨트 행정부는 전쟁 수행의 전략과 전후 신질서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전시, 전후 기획에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군부와 재계는 물론 민간의 두뇌집단까지도 광범하게 동원되었다. 특히 신탁통치와 관련된 전후 정책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는 국무부의 극동국(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이었다. 전쟁 초기 국무부 극동국이 한국문제에 관해 취한 첫 조치는 연합국 공동접근 방식이었다. 국무부는 한국문제에 관해 독자적 입장을 취하기 전에 중국과 영국의 태도를 타진하려 했다.

1941년 8월 주경주재 고스(Clarence E. Gauss) 대사에게 중국정부를 상대로 비밀리에 상해 임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음해 2월에는 런던의 미국 대사관에 상해 임정과 한국문제에 관한 영국정부의 견해를 타진하면서 미국에서 한국독립 및 임정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임정 승인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나 한국민의 일제의 압제를 종결 짓는데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일반선언을 공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국무부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과 영국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중경의 고스 대사와 런던의 외무성은 2월 말 미국으로 보내는 회신에서 영국정부의 입장을 9가지<sup>2)</sup>로 정리하여 전달했다. 결론은 현단계에서 한국의

1) 그동안 국내외 학계 특히 정치학계와 한국현대사 전공자들 조순승, 이호재, 심지연, 최상룡, 이우진, 이완범, 이동현, 이재도, 차상철, 매트레이(James I. Matray), 커밍스(Bruce Cumings) 사이에 신탁통치 구상과 한국분단의 책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참고, 이주천, 「루즈벨트 행정부의 신탁통치 구상과 대한정책(對韓政策)」, 『미국사연구』, 한국미국사학회, 1998, p.222); 이에 대해 좀 더 분철하면 다음과 같다. 38선 획정에 논쟁은 이승만이 만들어낸 1940-1950년대 ‘알타밀약설(1945.2)’, 트루먼의 군사적 편의설, 알타회담의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자 ‘포츠담밀약설(1945.7)’, ‘알타-포츠담 혼합설’,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38선 획정 했다는 ‘정치적 의도설’, 일본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일본요인설’, 일본요인설에는 다시 일본자전권 구획이 38선을 유발했다는 ‘일본유도설’과 일본의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한반도를 소련에 양보했다는 견해와 일본 점령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를 반을 미국에 내어주었다는 ‘세력균형설’이 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의도설’과 ‘군사적 편의설’이 주요하게 대립하고 있다(참고, 이완범, 「미국의 38선 획정과 그 정치적 의도:1945년 8월 10-15일」,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5, pp.149-151)

독립은 시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도 영국의 견해가 미국과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중국과 영국이 보여준 기존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sup>3)</sup>

사실 루즈벨트는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에 영국을 배제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루즈벨트는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열강이 식민지제국의 해체를 반대하는 데 대해 점진적으로 유럽열강들이 전쟁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sup>4)</sup>

1942년 2월 20일 미국 국무부 극동국의 한국문제 전문가 윌리엄 랭던이 제출한 <한국문제에 관한 주요 메모>는 루즈벨트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신탁통치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으며 향후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문맹 상태이고 가난하며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40여 년간 일본의 지배시대를 겪으면서 단지 노년층만이 자유가 무엇인지 기억할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이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강대국에 의해 보호되고 지배를 받으며 근대국가의 지위를 갖도록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만주의 해외독립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명목상의 조직체(shadow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성급한 승인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보장한다는 식의 약속조차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해가 될 뿐이며, 나아가서 아시아 민족의 독립을 약속하면 우리의 우방-영국과 같은 식민지 문제를 안고 있는-들을 애태우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랭던은 결론적으로 미 행정부가 중국과 소련과의 협의를 거친 뒤에 한국에 관한 명백한 정책을 구상할 것을 건의했다. 이런 견해는 루즈벨트 뿐만 아니라 국무부 관리들의 한국에 대한 기본 인식이었다.<sup>5)</sup>

해방 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러한 태도만 견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무성-전쟁성-해군성 삼성조정위원회(SWNCC,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일사상을 가진 한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육군부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한국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군사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OSS(전략사무국, 혹은 특무대, Office of Strategic Service, 1947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현 CIA가 되었다)가 1945년 5월 31일 납코계획을 세웠지만 미 합참은 6월 19일 승인했다. 합참의 승인에도 불구하고하고 납코계획(NAPKO)<sup>6)</sup>은 수행되지 못했다. 그

2) 영국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내 한국 독립단체들 간에 분열이 심하다. 둘째, 중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은 이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한국인의 반일활동은 중국과 만주에서 가능하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전세가 일본에 유리하므로 현단계에서 한국독립의 승인을 의미가 없으므로, 여섯째, 전세가 유리해질 때까지 미루자. 일곱째, 현단계에서는 한국의 독립열망에 대한 동정을 표히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여덟째,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협조적 행동이 필요하다. 아홉째, 영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한다(이주천, 같은 글, p.226); 영국은 한국의 타치 참여했지만 막상 정책결정과정에서 영국정부는 한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외무성은 한국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외무성 조사국에 지시했고 이 임무는 토인비(Arnold K. Toynbee)교수에게 부과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은 국민대표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한 경험도 없고 고위행정임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 2)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는 독립된 국가의 합법적 정부로 승인받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외의 한국인 집단이 통치능력이나 민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입증할 수가 없다. 3) 한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일본이 멸망한 후에 표면화될 지하단체들은 외국의 도움이 없이도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해방시켜준 중요 강대 국가의 동의가 없이 어느 한 국가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제분쟁을 유발할 것이다. 4) 다만 한국인에게 기회와 경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정 시간 안에 근대국가의 관리능력을 갖추 수 없으리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난날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복룡, 『한국신탁통치연구: 미국의 구도와 변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4, p.37).

3) 이주천, 같은 글, pp. 223-227.

4) 신복룡, 같은 책, p.37.

5) 이주천, 같은 글, pp. 223-227.

이유는 너무 늦게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현지사령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7)</sup> 워싱턴 정가에서 지지했던 납코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랭턴의 인식은 워싱턴 정가의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워싱턴 정가의 인식은 한반도에서 현실이 되었다.

다음으로 38선의 획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해방 이후 38선의 획정되면서 분단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분단 상황은 한반도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그렇기에 38선 획정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8선 획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외인론, 내인론, 복합론이 있지만 복합론이 대체적이다. 복합론은 첫째 내인과 외인의 비중을 거의 동등하게 보는 복합론, 둘째 외인의 우세를 인정하는 복합론, 셋째 내인의 우세를 인정하는 복합론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입장은 강만길, 정영훈 등이다. 두 번째의 입장은 이완범, 김학준 등이다. 세 번째의 입장은 신복룡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다수의 연구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복룡의 입장과 이완범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외인 우세의 복합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미국은 대공산권 방어가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동아시아의 책임자를 일본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당의 패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공산권방어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켜 일본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운명은 미소의 냉전의 칼날을 빗겨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태평양 전쟁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감지한 조선총독부는 송진우, 여운형, 안재홍등과 만남을 타진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항복을 접수할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1945년 8월 20일 마닐라에서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위에서도 언급한 ‘일반명령 제1호’를 교부받았다. 일본 정부는 8월 22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38선으로 무장해제 담당구역이 나뉜다는 예고전보를 보냈다. 이때까지는 총독부나 일반 대중 누구도 분할점령 소식을 몰랐다. 단지 함경북도 지방에 소련군이 진공하였으므로 소련군이 서울을 물론 전 조선을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미군의 진주가 확인된 상황에서 건준에 대한 기존의 지원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지배자 미군과의 접촉을 시도했다.<sup>9)</sup>

사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점령 계획은 1944년부터 국무부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미국은 1945년에 들어와서 한반도 점령을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만약 소련이 참전한다면 분할 점령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한반도 분할의 문제는 1945년 7월 25일 포츠담에서의 38선 분할정책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sup>10)</sup>

6) OSS가 1945년 5월 31일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의 이름을 납코계획이라고 붙인 것이다. 한국육군부대창설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체로 찬성이었지만 중국전선을 맡고 있었던 웨드마이어 장군이 반대하였다. 당시 워싱턴 정가는 현지사령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웨드마이어와 부대창설을 지지했던 전쟁성 차관보 매클로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납코계획이 만들어졌다. 납코계획은 미국에서 훈련받은 한국인 특공대를 잠수함으로 한반도와 궁극적으로 일본까지 비밀리에 침투시키는 작전계획이었다. 침투목적은 첫째, 한반도 내에 정보망을 조직하고, 둘째 한반도에 추락하는 전투기에 탑승했던 미 공군조종사를 구출하고, 셋째 한반도 내에 레시스탕스, 사보타주, 게릴라 활동을 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납코(NAPKO)의 무엇의 약자였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참고,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 갈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28)

7) 김계동, 같은 책, pp.26-29.

8) 양동안,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 『정신문화연구』 제30권 4호(통권 109호), 2007, p.145.

9) 유명익 외,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114.

10) 이완범,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p.39.

이완범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결정에 동의한 소련과 38선 분할 이후 분열을 노정했던 한국의 정치세력들에게도 분단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분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만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중요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견해에 따라서는 분단의 시초-고착을 구분하여 시초를 미-소 양국이 마련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문제는 그 시초가 분단이 고착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이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완범은 한반도의 단초를 연 38선 분할 결정을 미국이 정치적으로 계획 주도하고 집했으며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침입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결정에 동의한 소련과 38선 분할 이후 분열을 노정했던 한국 정치세력들에게도 분단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분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게만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요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sup>11)</sup>

둘째, 내인 우세의 복합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복룡은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트루먼은 원폭 실험의 성공과 투하를 통해서 극동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극동전쟁에 참전하고 일본의 패망과 종전이 확실해질 무렵, 미국의 수뇌부들은 소련이 일의 분할 점령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했다. 실제로 트루먼이 <일반 명령 제1호><sup>12)</sup>를 스탈린에게 전달했을 때 그는 홋카이도의 북부를 소련에 할양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점령'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은 미국의 대(對)극동정책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분할 점령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양보함으로써 일본을 지키려 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이토록 호의적이었던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소련의 남진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의 공산화가 일본 방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sup>13)</sup>

신복룡은 그의 주저 『한국분사연구』의 2부에서 비극의 잉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신탁통치파동, 해방정국에서 우익의 갈등, 해방정국에서 좌익의 갈등, 해방정국에서 중도파의 좌절을 주요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신복룡은 미-소의 분할 점령 자체가 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분단이 주로 한민족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민적 정서가 혁명적 정서(Jacobin mentality)<sup>14)</sup>라고 할 수 있었다. 좌익과 우익의 적과 동지의 이분법,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분파주의, 자주독립에 대한 조급한 기대감은 해방 정국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 상황이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김구, 여운형,

11) 이완범, 『삼팔선 회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p. 301.

12) 일반명령 제1호의 내용 가운데 이 글과 관련한 몇 가지만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만주, 북위 38도 이북(以北)의 한국, 가라후토 및 구릴열도 내에 있는 고위 일본 지휘관과 모든 육, 해, 공군 및 그 부속군은 소련군 극동사령관에 항복한다. 둘째, 일본 본토 및 그 부속 소도, 북위 38도선 이남(以南)의 한국, 류큐 및 필리핀에 있는 제국총사령부, 그 고위 지휘관과 모든 육, 해, 공군 및 그 부속군은 미국 육군 태평양 총사령관에게 항복한다(참고, 이완범, 『한국해방3년사』, 태학사, 2007, p.41)

13) 신복룡, 「군정기 미국의 대한반도 점령 정책 1945-194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p.9.

14) 혁명적 격정이란 완전 자주독립에 대한 조급한 기대감, 이성의 마비와 이로 인한 전략의 부재, 억압된 잠재의식의 폭발, 속도 조절의 실패,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인간관계, 지난날의 비극에 대한 추궁과 복수심, 신분 상승에 대한 강한 욕구, 영웅심리, 격렬한 몸짓과 운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반환욕구 이러한 현상의 총화로 나타난 분파주의 등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제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신복룡, 같은 글, p.12).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 등은 국제적 감각과 타협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신복룡은 국내세력의 갈등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한반도 내부의 국내세력간 분열이 미소 양국의 분할 정책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명은 분단의 가장 큰 책임을 한민족 내부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세력 다툼도 미소분할점령 이후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잘 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모든 정파를 어우르는 대타협을 이루었다면 미소의 밀월이 끝나고 냉전으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미소가 서로 양보하여 우리의 뜻대로 통일 국가 건설을 뒷받침해주었을까?<sup>15)</sup>

38선 획정은 간단히 말할 수 없지만 내인과 외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분명하다. 38선획정에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과 소련의 있었다. 이에 우리 내부의 국내세력과 정치적 리더들의 분열이 더해지고 대공산권방어의 미국과 공동목표를 가진 일본도 간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38선의 획정은 단순히 선을 그어 놓은 현상이 아니었다. 38선은 영토, 사람, 분노, 적대감, 사상의 분단을 초래했다. 특히 접경지대의 주민들에게는 뼈속까지 분노, 적대, 사상, 영토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접경지대의 주민들은 불길만 그어지면 언제든 폭발상태로 갈 수 있었다.

### 3. 38선 접경의 갈등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깊은 좌우갈등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글로벌(global)한 차원에서 미소의 냉전 갈등, 러저널(regional)한 동북아에서의 미일 대소련공산권방어, 네이션(national)한 차원의 좌우갈등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구체적 산물은 38선이라는 분할로 드러났다.

모든 생명체는 분열을 한다. 우리의 세포가 보여주듯이 세포분열은 막을 형성하여 분리된다. 새롭게 형성된 세포는 다른 세포와 생명의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개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생명 연장으로서의 분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38선은 생명연장이 아닌 닫힌 분할이었다. 전쟁의 불씨는 분할과 동시에 배태되어 있었다.

이 38선은 강원도 속초 양양 지역을 지나갔다. 38선은 더 이상 조용한 분할선이 아니었다. 38선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집중되어 작은 규모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미소군의 38선 접경지역 주둔은 남북 간 충돌 수위의 조절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련군이 1948년 말 철수하고 난 뒤 남북한 간 갈등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sup>16)</sup>

참고로,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소련이 남한의 적화를 기도할 수도 있다는 미국 측의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빛나간 오판이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군사적 수단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동적인 남조선 군대가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미군의 철수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의중을 읽는데 실패한 미국은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sup>17)</sup>

15) 김영명, 「현대사 연구의 역작들」,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02, p.330-331.

16) 김재용,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p. 257.

17) 신복룡, 위의 자료, p.18.

양측의 갈등 심화는 1948년부터 시작되어 1949년에는 전쟁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남북한 간의 갈등이 심화된 배경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좌우대립, 냉전적 분위기가 투영된 한반도에서의 미소갈등,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948년 5월 14일 북한의 송전중단, 1948년 12월 소련군 철수, 1949년 초 북한의 국토완정론<sup>18)</sup>, 1949년 6월 미군철수 이후 등장한 남한의 북진통일론 등이다. 미시적으로 속초, 양양, 인제 접경지대에서의 갈등도 있었다. 남한특수부대는 북침하여 잔혹하게 접경지대 주민의 인명을 살상하였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북측도 38선 이남에 대한 전투를 벌였다.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의 규모는 전쟁을 방물케 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가야 할 점은 북한이 1949년 8월부터 38선 접경지대에서의 전투에 대한 수동적 자세에서 전투적 자세로 태도를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점은 북한의 개전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우선, 충돌이 38선 접경지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한내에서는 비록 정규군은 아니지만 북한과 연결된 공산 유격대들이 지리산 등에서 활동했다. 1948년 제주 4.3사건, 1948년 여수·순천 군반란사건의 여파는 유격대 활동으로 이어져 남한은 38선과 내부에서 무장충돌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6.25전쟁은 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남쪽과 북쪽 이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제를 정착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에서는 자본주의가, 북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있었다.<sup>19)</sup>

이에 대해 양영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무렵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직후 실지회복<sup>20)</sup>의 입장에서 유엔의 한국정부승인, 여순사건 등의 진압,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경제협조처) 계획의 확대<sup>21)</sup>, 소련군 철수 발표 등으로 대내외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되자, 김석원(1949년 제1보병사단장), 채병덕(1949년 육군참모총장) 등 일부 군부에서 곧바로 무력통일에 의한 실지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게 된다. 고위 군지휘관들이 이러한 인식은 1949년 초 미군으로부터 38선 초선을 인수하여 초소와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던 군경에게도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따라서 접경에서 완충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자 그 이전까지 잠재되고 있었던 분쟁의 가능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22)</sup>

FRUS자료에 의하면 1949년 상황을 무초가 미국무부에 보내는 전보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군사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은 적당한 내적 안정성의 유지하고 있고, 북측으로부터의 은밀한 침입

18) 국토완정론에 대해 부연하면 중국혁명이 성공하자 김일성, 박헌영이 1949년 말부터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고, 온 북한사회가 국토완정 의지에 불타오르며, 1950년 초에는 중국혁명이 성공한 이상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아시아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 그들로서는 근거 없는 전환은 아니었던 셈이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더 시급한 것은 조선의 통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결정과 반발』, 나남출판, 2003, p.250.)

19) 김성보, 『북한의 역사: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2019, p.142.

20) 1948-50년 이승만의 통일방식은 ‘실지회복’론이었다. 그는 당시 현실성과는 관련 없이 통일방안을 평화적이든 무력적이든 모두 실지회복의 입장에서 채택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무력통일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승만이 국내 정세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며 평화통일(실지회복의 입장)과 무력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참고, 양영조, 「38선 충돌과 이승만정권의 대응」,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8, p.55).

21) 한국 정치 단체 및 지도자 간의 정치적 단결을 위한 노력, 미숙련 한국 공무원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미국 고문관 정부 행정, 인사 관리, 교육, 재정 등을 모집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잘려나간 한국에서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석탄 및 전력 생산량 증가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ECA 구호-재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 Muccio ) to the Secretary of State top secret”, FRU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UME VII, PART 2, January 27, 1949.

22) 양영조, 같은 글, pp. 55-56.

에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군의 공개적인 침략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남한의 군사력이 만주에서 잘 훈련 군사력을 활용한다면 북한군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엔이 지속적으로 남한을 돕는 것이 남한정부의 생존을 가능하는 결정적인 몇 개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23)</sup>

남한의 이승만정권이 자신감을 얻었던 요인은 북한에서 소련군의 철수, 유엔의 ECA 계획확대이었다. 반면 남한의 정치상황이 일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위기 타개책이 필요했다. 이승만 정권은 위기타개책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에 실지회복 의지를 표명하며 호전적인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적극적 자세로 태도가 변한 것은 남한 내의 혼란 상황에 대해 북한 측 권력 엘리트들이 무력통일의 기회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 이유는 1949년 5-6월 38선상의 군사충돌이 고조된 이면에 남한 내부에서 고조된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였다. 그리고 중국대륙에서 중국 국민당이 패배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강화와 안보 위기가 조성되었다. 북한은 남한 내부를 전복을 위한 계렬라를 파견하는 한편 조국전선을 결성하여 평화통일 공세의 화전 양면전술을 펼쳤다. 나아가 북한은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농지개혁을 비난하면서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를 조직했다. 북한의 선전공세는 1949년 5-6월 고조되고 있었다.<sup>24)</sup>

둘째 이유는 북한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국토완정론과 민족통일을 주장했다. 이런 점이 무력통일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근본적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점에 대해 김성보는 국토완정론이 곧 정규전에 의한 무력통일을 의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다.<sup>25)</sup>

셋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1949년 마오쩌둥의 중국혁명 성공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국공내전에 참가했던 한인 부대원들이 귀국하면서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sup>26)</sup> 또 한 가지는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성공이다. 김일성은 공산권에 주축인 소련과 중국이 혁명과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넷째, 조선인민군이 38선에서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1949년 6월에 북한의 내무상의 지시로 각 시, 군, 내무서장에게 보낸 긴급지시는 “이남 춘천 주둔 괴뢰 국방군 192부대에서 파견하는 특별공작대 130명이 북한에 침입해 폭탄, 독약 등으로 파괴, 암살, 인명살해를 목적으로 북장은 사복으로 가장하고 있다”라고 대비책을 경고하고 있다. 남한특수부대인 호림부대<sup>27)</sup>의 침투에 따

23)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 Muccio ) to the Secretary of State top secret”, FRU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UME VII, PART 2, January 27, 1949.

24) 정병욱, 『삼팔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18, p.363.

25) 김성보, 같은 책, p. 142.

26) 김성보, 같은 책, p. 143.

27) 호림부대는 남한의 특수부대 양성소인 경기도 수원 수색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훈련 종료 후인 1949년 2월 26일부터 부대장 한왕룡(韓王龍)의 지휘 하에 거제도과 경상북도에서 반군 토벌에 참가해 대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실전훈련을 쌓았다. 5월 25일 이들은 서울로 귀환해 이범석 국무총리와 사회, 법무, 농림부장관 등이 임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사열을 받았다. 이범석은 호림부대를 찬양했으며, 신문은 이들이 국방부 제2국 소속 호림부대(서북청년단 출신의 대한청년단원)이며, 단원은 55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채병덕-정보국장 백선엽-정보국 5과장 한왕룡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놓여 있었다. 미 군사고문단과 미 대사관 역시 호림부대의 존재 및 활동을 알고 있었다. 이들 역시 정기적으로 호림부대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호림부대가 원산까지 침투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호림부대가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은 적의 일선 배치 병력을 분산케 하기 위하여 아측도 무장유격대를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시켜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1949년 1월 19일 해주의거가 소수의 특수공작원을 동원한 공작계획이었다고 한다면, 6월의 호림부대는 당시 북한이 남파하던 계렬라들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계렬라였다. 또한 보급 장비 면에서 정규군에 버금갔다. 호림부대는 정보학교에서 유격전에 필요한 필수 단기교육을 해줄 것, 무기, 복장, 수송의 제공, 전사자 대우 및 유가족 생계보조, 생환자의 군간부 특채 등을 요구했고 육군본부는 이에 동의했다(정병준, 위의 책, pp.371-2.

라 1949년 7월 북한 지역 강원도 인제군은 당, 정, 군 모두 초비상 상태였다. 북한관계사료집에 따르면 해당 지역 북한 당, 정권기관들은 전투, 자위, 반간첩사업, 전투사업협조 등 완전한 전시상태에 돌입했다.<sup>28)</sup>

남·북한의 태도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 양측과 전투력은 1949년 1월부터 7월까지 비교적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양측을 비교해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화력면에서 엇비슷했지만 남한이 미미한 정도 앞서는 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49년 3월 5일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스탈린 북과 남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냐는 질문에 김일성은 북쪽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남침의 의도가 있었던 답변이라고 보여진다. 1949년 7월까지 38선 주변에서의 전투에 북한은 소극적으로 응전하였다. 194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소규모 병력이 충돌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의 연대급 전투도 발생했다. 1949년 1월 15일 시작된 남의 초기 공격은 당시 방한한 유엔한국위원단과 세계 앞에서 북한의 호전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며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장비 보급을 유지 확대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주한미군 정보당국은 평가했다. 1949년 3-4월 공격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다. 그렇지만 남이 대북전면전을 구상했을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이승만의 공격을 제어했기 때문이다. 한편 1949년 3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스탈린에게 남침 의사를 직접표명했으나 스탈린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남침을 허가하지 않았다. 허가는 없었지만 무력공격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협의에 따라 소련이 1949년 6월부터 대남공격용 무장원조를 본격화하였다. 1949년 6월 미군철수로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소련과 북한의 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949년 7월 남의 대북공격설이 유포되었고 북은 남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 7월공세와 9월공세라는 대규모 무장유격전을 전개했다.

NSC48/2 시리즈에 의해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의 대강(일본 중심, 대륙 포기)를 간파한 스탈린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라인에 의해 NSC48/2의 지침이 공식화되고 더 구체화되자 1949년 북의 남침 승인 불가에서 1950년 남침승인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sup>29)</sup>

1949년 38선 접경지역인 속초, 양양, 인제에서 발생했던 접경 갈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9년 7월 15일 전시동원과 지원조직인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한 북한은 군기금 헌납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했다.<sup>30)</sup> 북한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기헌납운동, 북권구입운동을 일으켰다. 1949년 10월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행기, 탱크, 함선 등 군기헌납운동이 시작되었다.<sup>31)</sup>

사변 전에 내가 금강리 인민위원장할 때 면사무소에서 뭐 비행기, 탱크, 헌납금 같은 거 받아 가지고 나오면, 그날 지역아르(저녁, 양양사투리) 마을 동회에 붙여 가지구 유지들(과거 유지들) 마카 모이라구. 자, 내가 이렇게 면사무소에 나갔다 와서 이러한 지시를 받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소, 해주시오, 하문(하면) 말 듣거덩 안 할 수 없잖어.<sup>32)</sup>

이 운동은 6.25가 일어난 이후에도 재정동원을 위해 확대 발전되었다. 북한의 각 사회단체와 공장을

28) 정병욱, 같은 책, p.363.

29)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p.398-399, 428.

30)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57호, 2006, pp. 239-240.

31) 김성보, 위의 책, P.160.

32) 구술자 최형근(당시 인민위원장), 2010년 2월 2일, 양양 자택.



중심으로 <민청호>, <대학생호>, <소년호> 등의 이름을 가진 비행기, 탱크, 함선 등의 헌납결의 쫓기 대회가 진행되었다.<sup>33)</sup> 북한의 1949년 동원체계 수립은 38선에서의 남북한 충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8선 주변에서 충돌이 잦아지고 호림부대 등이 침입하자 북한은 긴급지시로 각 시, 군에 국방군과 특별공작대가 북한으로 침입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북한은 38선에서 남한과 극한 충돌이 발생하면서부터 정교하게 대응하였다. 즉 당단체를 중심으로 청년들과 농민들을 조국보위후원회, 노동력, 자위대, 군사훈련, 사상제고 등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초비상 상태였다. 먼저 속초 양양 지역에서 있었던 주민동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쟁 전에 물자 나르고 그 기 몇 년 아메(아마) 한 2년인가 됐어요. 삼팔선에서 거기 밤에 전호 파구, 전호 땅굴 파구 이리다 보문(보문) 따경소리(총소리)만 나면 숨지. 그래서 00 큰아버지가 거서(38선) 낮에 전호 파러 갔다가 따경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 [...] 청곡리 기차역에서 식량 뭐 이런 거 지게에다가 등집지고 나는(정관화 씨) 38선까지 안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38선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사변 전에 여기 이북에서 청년들 조국보위훈련 이라구 그래서는 훈련시키는데 낮으로 일하구 밤으로 했어요. 밤으로 저 저 또 삼팔선 여기 가서 토치가 파구 뭐 하는 거 전부 밤으로 하구 농사군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 이북에 공장에 가구, 인민군딜 가구 전부 여기 사람들 많이 공장으로 가는 거야. 아, 이런 낮에 농사일하구 밤으로 그렇게 나가서 일하구는 새벽에 들어오니 날이 흰해서 들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조국보위훈련 삼팔선 거기서 토치가 파구, 전호파구, 뭐, 참호파구 다 해 놓고 나니 그 답에는 양양 여기 먼창리 하구 대미소 라는데 거기 산대에다가 토치가 파구 토치가 땀 글었어요.<sup>34)</sup>

속초, 양양지역 주민들은 38선 전호 파는 곳으로 동원되었다. 양양과 속초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속초에서는 38선이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은 트럭을 이용해 이동했다. 전호를 파기 위해 동원된 주민들은 고추장, 마늘, 고추 등과 쌀을 준비해서 며칠씩 취사를 해가면서 전호를 팠다. 여름철에 동원된 사람들은 며칠 전호를 파는 동안 방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흙지만 밖에서 잠을 잤다.

작업장 여러 곳에 인민군대들이 따발총을 매고 배치되어 있었다. 전호를 판 곳에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고, 특수하게 나무토막을 잘라 전시사용 목적으로 목책 같은 것을 설치하기도 했다. 동원된 주민들은 “자! 이렇게 꺼정 하나 말이야 남쪽에서 어떻게 하구있느냐, 남쪽 사정은 몰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북측은 전쟁에 임박해서는 열차로 화차에다 대포, 야포, 총알 같은 무기를 나르기 시작했다. 무기를 보관하던 곳이 동해북부선의 마지막 역인 청곡리 내려놓았다. 기차에서 내려놓은 군수물자를 일정한 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온전히 주민의 몫이었다. 특히 양양 일대의 주민들은 밤에 나가서 지게로 나를 수 있는 군수물자를 날랐다.<sup>35)</sup>

다음으로 38선 교전 과정에서 벌어졌던 북측의 대응태세와 동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북한관계사료

33) 박영자, 위의 자료, p. 248.

34) 구술자 정관화, 2008년 3월 23일, 양양 자택.

35) 구술자 박영식, 2009년 5월 3일, 속초 자택.

집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제군 자료에 의하면 38선 주변에서 교전이 격화되면서 북측에서는 당원, 세포, 청년들을 공세적인 사상으로 무장시켜나갔다. 북측의 대응태세는 1949년에만 집중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48년에도 인제군은 관급공사에 대한 노력동원은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군의 북침대비 경계태세도 늦추지 않고 있다.

1948년 인제군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완수 사업의 일환으로 남면 관계관리공사에 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들의 동원계획을 세웠다. 인제군은 이 사업이 노력동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리별로 측량하여 도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 리에서는 인민반 단위로 상호 검열을 실시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인민 단위로 경쟁적인 동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사회단체는 돌격운동으로 자기조직을 통해 의무적 동원을 군농맹, 군민청, 군여맹, 군단위 당조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매개 당원은 각 면당 및 세포위원장이사출선수범하여 1일 이상 동원할 것을 책임지었다.

또한 동원된 주민들의 숙박장소 준비와 로무동원을 제 때 동원시킬 책임을 군인위당조 각 면당 및 세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농맹, 민청, 여맹 당조는 자기조직을 통하여 제 때 발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제군에서는 이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남조선 반동분자들은 파괴공작으로 공사에 틈을 보고 침입할 우려가 있음으로 수시로 반동분자들의 대한 경비망을 강화하여 검열 실천할 책임을 남면 분주소장 이광희(당원) 동무에게 위임하고 있다.

1948년도에 남면관계관리공사를 통해 북측의 노력동원은 상당히 당조직과 사회단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군인민위원회에서는 도급제를 실시하고 동원된 인원들의 숙박문제까지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중에 남측의 침입에 대비하여 자위대의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sup>36)</sup>

1949년도의 대응태세는 1948년도의 그것보다는 훨씬 긴장도가 높았으며 더 조직화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9년 38선 경계선 지역에서 남북한 충돌이 높아지면서 북측의 대응태세를 전쟁준비에 가까울 만큼 조직화되었다.

#### 4. 6.25전쟁의 발발과 지역사회에서의 징집과 동원

김일성은 1949년부터 38선 주변의 경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민군과 무기를 집중시켰다. 동해 북부선의 마지막 역인 양양 청곡리는 군 무기들이 집산되었다. 사람들이 등짐을 져서 나를 수 있는 것들은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여 나르게 하였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전쟁을 기정 사실화했다.

한편 남한 측에서는 6.25전쟁의 발발을 앞두고 1949년 말부터 190년 6.26전쟁 전까지 탱크, 야포, 자주포 등 소련무기의 도입, 중공군 내 한인출신 병사들의 북한입국 및 병력 증강, 교량, 도로의 보수 및 신축, 병력의 38선지역으로의 집중 배치 등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1946년 주한미군사령관이던 하지 중장이 북한 소재 소련군 40만이 남침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내놓은 이래, 북한 곧 침략을 시작할 것처럼 느껴졌다. 1949년 말에는 탱크부대의 38선 인근으로 이동, 수천 명의 인민군들의 38선 주변 이동 등 서울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과 도쿄의 맥아더사령부의

36) 『북한관계사료집』 II, 회의록 2호, pp.17-19.

정보보고서에는 이런 유형의 정보, 첩보들이 넘쳐났다.

미국 정보 당국이 접수한 북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소스에 근거한 것이었다. 첫째, 월남민, 상인 등이 전하는 간접적인 전문증거들로 대부분 F-6 등급의 평가를 받는 것들이었다. 이런 첩보들은 대부분 한국경찰 당국에 의해 작성되어 주한미군사고문단, OSI 등을 통해 도쿄와 워싱턴의 군사정보 당국에 전해진다. 둘째, 맥아더사령부 즉 미국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 FEC)가 운영한, 켈로라는 약칭의 미국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 Korea Liaison Office)는 대규모 공작원들을 북한에 침투시켰다.

현재 비밀해제된 KLO 정보보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KLO#498-C호 첩보(1950.3.15.)인데, 이는 내무성 경비국에서 개최(1950.3.10.-15)된 38경비대 대대장급 이상 정치, 군사 지휘관 360명의 회의였다. 김일성은 한국군이 공격형이기보다는 방어형이며, 공격해와도 쉽게 격퇴가 가능하다. 1949년에는 북한이 방어에 그쳤으나 올해는 완전통일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8선에서 충돌을 일으켜 남한군의 관심을 끌리게 한 뒤 유격대가 후방에서 공격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연설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연설은 정규전과 남한 빨치산 봉기의 결합이라는 북한의 전쟁관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가치가 높다.<sup>37)</sup>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개시한 북한정권은 이승만 세력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내전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6월 26일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시작으로 전시체제 돌입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6.25전쟁의 성격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 해방전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전쟁이라고 밝히며,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 비칠 것을 호소하였다.<sup>38)</sup>

1950년 6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해 국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북한 내 주권은 군사위원회에 집중되었고, 전체 공민들과 일체 주권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 결정, 지시에 복종하였다. 같은 날 군사위원장 김일성은 모든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 전쟁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자와 기술자, 사무원들은 생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민들에게는 군대에 제공되는 식량과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게 했다. 후방 전시체제는 물자와 인원을 끌어모아 전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 때문에 사회는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군사위원회는 7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전시총동원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14년부터 1932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주민이 동원 대상자가 되었다. 군동원 실무는 군사위원회 동원국에서 담당하였다. 18세 이상 되는 공민증 교부자는 군사등록에 따르면, 전시동원은 북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체의 공민과 동원대상이 되는 소유기관 및 관리기관(국가소유 및 개인소유)에 적용하였다. 동원대상에 대한 통계와 명단은 군에서 도 군사동원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근거해 도 군사동원부는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에는 동원되는 인원이 정해져 시, 군으로 하달되었다. 동원대상자로서 군 입대에 합격한 인원이 명령서에 기재된 수에 비해 부족할 경우 소정된 시간 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여 동원은 사실상 위로부터 직접적이며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다.

37) 정병욱, 위의책, p.653-658.

38)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238.

동원대상자 심사방법은 내각 지시 제94호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면, 리 단위에서 대상자에 대한 초보심사를 하여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시, 군에 보내고, 시, 군에서는 이들을 엄격히 심사해 도에는 확신이 있는 자만 보냈다.<sup>39)</sup>

중앙정부의 징집고 동원계획은 말단 행정의 끝자락인 마을까지 내려왔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속초 양양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도 못 살으니까 저녁으로 뭘 많이 해 먹었다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추렴한다 그랬지. 아주 못 사는데 국수를 누루자면 뽕쌀을 한두 되 거두어야 하잖아, 뽕쌀을 거두어서 어느 일정한 집에서 국수 놀러 먹었던 말이야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뽕쌀을 안줬다는 말이여, 없는데 무슨 국수냐고. 뽕쌀을 안 주니까 그리니 군인을 내뺐어요. 우리 형이 나하고 한방을 썼는데 나는 초등학교 학생이고 형은 나보다 8년 위니까 군대 가면서 내가 군대를 갈테니까 4일 동안 절대 부모한테 얘기 하지말라구. 나도 부님께 형 군대 갔다고 얘기 안 했지. 4일이면 원산(강원도 도청)까지 도착한다. 내가 원산에 도착하면 부모님들이 날 찾으러 안 온다 이거지, 찾으러 올까 봐. 그때 인민군도 떨어질까 봐 무척 애썼어요.

그때 인민군이 몇 년도 창설됐냐면 1947년 그때 인민군이 창설되었어요. 모두 인민군대 갈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6.25나기 전에 약 1년 전부터 그러니까 49년 부터 여기 경비대가 38선을 전부 주둔했어요. 이제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원산이었거든요. 원산에 경비대 본부가 있었는데 6.25사변을 일으키기 위해 38선에 전부 배치 되었거든요. 기마병들이 양양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다가 6.25사변이 일어났지요. [...] 나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니까, 군대를 갔는데 인민군 초창기에 갔어요.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몰래 내빼갔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키가 작으니까 우리 집안에 인민위원장이 있었어 그 뺨으로 갔어. 그때도 뺨은 있었어. 사관학교 제 삼사관학교 군인생활 하다가 장교가 되고 싶으면 삼사관학교를 가요. 삼사관학교 나오면 장교가 되는데 학교 땡기다가 6.25사변이 나니까 그냥 장교계급장 달어서 내보내 전투에 참여하고.

그때 중학생도 3년은 학도병으로 나갔고, 고등학생은 6.25 사변 나고는 다 나갔어요. 중학교 3학년은 굵은 학생은 뽑어 가고 총을 뿔 때 총이 바닥에 안 끌리면 나갔지요. 나중에 사변 나고 말이 많았어요. 고등학생들 훈련도 안 받은 거 내 보내서 많이 죽었다고, 고등학생 여기 그때 학도병으로 나갔다 들어 완기(살아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그땐 무조건 나가야 하니까 6.25사변 때 의용군을 뽑어 갔잖아요. 말하자면 군인 안 간 사람 젊은 사람은 군인이고, 의용군 나이 좀 먹은 사람은 37세까지였어요. 의용군은 전쟁도 하고 그랬어. 의용군 나간 사람도 다 죽었지 뭐. 등짐 지러 다 나갔지 안 나간 사람 있나요. 다 탄약 질머지고 나갔다 오고 그렇게 했어요.<sup>40)</sup>

나(최형근, 리인민위원장) 인민군 그거 나온 거를 빼내느라구 고생했다니, 그것도 나온 거를 어떻게 빼나 순농가로 돼서 안 갈라구.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냐 하면 부락의 인민위원장 일 봤단 말 이어.<sup>41)</sup>

39)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11, p. 241-244.

40) 구술자 이종학, 2008년 9월 6일, 속초시 조양동 자택.

41) 구술자 최형근, 2010년 2월 2일, 양양 자택.

조국보위훈련에서도 명령만 떨어지면(전쟁 명령만) 일주일내 해결 된다 그랬어. 우리가 무엇이든 우세해야 된다는 기여. 인민군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남은 우습다 하루아침 해상까지도 안 되는 것처럼 말을 막 했는데 뭐. [...] 인민군은 잘 먹어요. 국군처럼 군인들 먹을 것 띠먹지(띠먹지) 않거덩. 사변전에 그때 조국보위훈련에서 인민군으로 자원입대한 사람들 많았지요. 다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시키거든, 너 가가라, 침(압력)을 놓거덩, 침을 노니 안 갈 수도 없어, 국가를 위해서 나가라. 어떤 사람은 콩기를 먹는다고 배고픈 시절에 인민군은 잘 먹이거든, 인민군은 허연 이밥 먹으려고 인민군대 갔어요. [...] 나(정관하)는 무릎에 혼디가 나서 걸음을 못 걸어서 못 갔어, 위장병이고, 폐병이고 걸음 제대로 걷는 놈은 다 끌려 갔으니깐. 그래 난 걸음을 못 걸어서 못 갔거덩. 아버지가 내 무릎에 혼디를 이렇게 보더니 “그 안됐다 ” 이 양반이 낫는 약은 안 쓰고 자꾸 더 악화되는 약을 사다 준거여.<sup>42)</sup>

6.25나던 그날 새벽(새벽)이지, 새벽(새벽) 4시 쯤 됐는데 뭐이 파광 파광 그때 조용했으니까 정막이 흐를 때여, 그 뭐 뭐 기계가 뭐 발달 되가지고 밤에 움직 그리는 것도 없구, 하여튼 조용할 텐데 멀리서 대포 소리가 떨어지는 야 저기 뭐 소리여, 저기 대포소리 맞지요. 지금 뭐 다이내마이트 터질리가 만문데(만무한데) 대포 소리가 맞아, 그럼 전쟁이 일어난기 아니요. 아, 6.25가 터져 가지고 남조선괴뢰군이 디래 올래 미는(침략) 바람에 이 짝에서 반격작전으로 디래됐다(감행했다) 그기여. '이승만 괴뢰도당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인민 우리 쇠뿔같은(강철같은) 인민군인데 지가(자기가) 배게 나갔습니까(버티지 못한다). 저 간나새끼들이 말이여, 우리 힘을 몰르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기여. 참, 기가 맥힌 일이지 즈가(자기네가) 그 6.25를 갖다 내 치는 이유가 그 핑계를 그렇게 대는 기여, 핑계를... 야! 며 칠 만에 아예 작살나는데, 참! 큰 일 났더구만, 큰 일 날일이 또하나 생겼어, 우차 있는 사람은 우차 내놓고, 쇠있는 사람은 쇠 내놓라 이기여, 탄알 실러 나가야된다 이기여. 우리 이웃에 사는 양반이 하나이 우리랑 친분이 있는데, 여보게 내가 쇠는 있구 우차는 저 세포 사무실에서 우차를 끌구 가라 그러더군. 거기다 쇠를 기래(그래) 가지구 자네가 좀 갖다 오게. 나는 잘 걸지를 못해가지구 안 되겠네, 자! 지기(제기랄), 이런 날(나에게) 갖다 오라(와라) 이기여, 그래 인제 허는(하는) 수 없이 나갔지.[...] 니미 대포알 큰 긴데, 그 무기는 뭐 국군이나 하여간 미군이나 말짱 상자에다 넣어 가지구 바우래기(밭줄) 그랜기 엮구(엮어)이래, 쥐게(잡게) 맨들구 그랬던 구만, 그래 그걸 널쿠는 데(내려놓는데) 난 무기 춤 다루기는 기 무서워서 살살 널쿠는데, 막 널코봐도(내려봐도) 되요.[...] '동무 고무신을 어디서 그랬소', 내비랜(내버린) 거 주어왔습니다. 그래요, 거 널코(내려) 놓으시오, 수고들 했수, 야! 이런, 씨발! 지미, 아!, 그래도 군수물자 실어 날르민선(나르면서) 밥이래도 주든가<sup>43)</sup>

이전부터 항상 포소리가 퐁퐁하고 우리집까지 나거덩. 포소리가 6월 25날도 팡, 팡 소리가 새벽에 나더라구. 한 점심때 12시쯤 되니까 인민군이 (남한으로)내려 갔다구 그리더라구. 나는 양양고 급중학교 합격은 했는데 거기는 9월 1일부터 개학이거덩. 전쟁 나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지나서 낙산사로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모이라구 그런 소리가 있더라구 거기서 몇몇 학생이 주동이 돼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 나서야지 않겠느냐며 전쟁에 나갔다고 하더라구. 난 그때 안 갔어.<sup>44)</sup>

42) 정관하, 김사철, 2008년 3월 23일, 양양 자택.

43) 구술자 박영식, 2009년 5월 3일, 속초 자택.

44) 구술자 이규호, 2008년 7월 19일, 춘천 자택.

한국전쟁 초기 김일성은 방송연설에서 인민군 자원병이 50여 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식자료를 이용한 소련군사고단장 자주바예에 따르면 군사행중 기간 중 징집자는 60만 여명에 달했다. 군무자로 동원된 형식은 다르지만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군입대 탄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선타원운동은 대규모로 전개되어 개전 4-5일 만에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 수만 명이 전선에 나갈 것을 탄원했다. 그리고 전쟁발발 3주 만에 청년 84만 9천여 명이 전선동원에 동참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동원된 인민군 60만 여명은 전쟁이 끝나는 1953년 중반 28만 여명의 인민군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주민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다.<sup>45)</sup>

6.25전쟁은 북한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38선 접경지대에 살았던 주민들은 야간 노력동원 과정에서 전쟁물자를 날랐다. 북한 당국에 의해 전쟁을 할 것이라는 발표나 말은 없었지만 접경지대 주민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징집은 중학교 학생에게도 이루어졌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지로 내몰았다. 어린나이에 전쟁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대부분은 못 돌아왔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국보위대원들에게는 인민군에 자원입대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일반농민은 소, 우차, 맨몸으로 전쟁물자를 나르는 일에 강제동원되었다. 북한 당국이 속초 양양지역의 여성들에게 군인들이 전투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마른 고사리 등을 요구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38선의 형성, 접경지역의 갈등, 6.25의 발발과 속초, 양양 지역의 징집과 동원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38선의 형성은 간단히 말할 수 없지만 내인과 외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분명하다. 38선획정에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과 소련의 있었다. 이에 우리 내부의 국내세력과 정치적 리더들의 분열이 더해지고 대공산권방어의 미국과 공동목표를 가진 일본도 간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접경지대에서 양측의 갈등은 1948년부터 시작되어 1949년에는 전쟁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남북한 간의 갈등이 심화된 배경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좌우대립, 냉전적 분위가 투영된 한반도에서의 미소갈등,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948년 5월 14일 북한의 송전중단, 1948년 12월 소련군 철수, 1949년 초 북한의 국토완정론, 1949년 6월 미군철수 이후 등장한 남한의 북진통일론 등이다. 미시적으로 속초, 양양, 인제 접경지대에서의 갈등도 있었다. 남한 특수부대는 북침하여 잔혹하게 접경지대 주민의 인명을 살상하였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북측도 38선 이남에 대한 전투를 벌였다.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의 규모는 전쟁을 방물케 하는 수준이었다.

38선 교전 과정에서 벌어졌던 북측의 대응태세와 동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북한관계자료집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제군 자료에 의하면 38선 주변에서 교전이 격화되면서 북측에서는 당원, 세포, 청년들을 공세적인 사상으로 무장시켜나갔다. 북측의 대응태세는 1949년에만 집중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48년에도 인제군은 관공공사에 대한 노력동원은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군의 북침대비 경계태세도 늦추지 않고 있다.

1949년도의 대응태세는 1948년도의 그것보다는 훨씬 긴장도가 높았으며 더 조직화된 형태가 나타

45)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11, p. 241-244.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9년 38선 경계선 지역에서 남북한 충돌이 높아지면서 북측의 대응태세를 전쟁준비에 가까울 만큼 조직화되었다.

6.25전쟁은 북한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38선 접경지대에 살았던 주민들은 야간 노력동원 과정에서 전쟁물자를 날랐다. 북한 당국에 의해 전쟁을 할 것이라는 발표나 말은 없었지만 접경지대 주민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징집은 중학교 학생에 계도 이루어졌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지로 내몰았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대부분은 못 돌아왔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국보위대원들에게는 인민군에 자원입대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일반농민은 소, 우차, 맨몸으로 전쟁물자를 나르는 일에 강제동원되었다.

냉전이 한반도의 끝자락인 접경지대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끝자락에 와 닿은 냉전은 38선으로, 서로에게 죽음으로 다가왔다. 어느 구술자의 표현대로 냉전은 “야! 이런, 씨발! 지미, 아!, ”가 아닌가 싶다.

# 18세기 사상사에서 보는 소라이학과 반소라이학\*

— 우노가의 반소라이학의 전향 —

이기원(강원대)

## 머리말

18세기 일본 사상계는 (荻生徂徠, 1666-1728)의 유행과 쇠퇴, 절충학적 경향의 성장, ‘관정이학의 금(禁)’에 의한 주자학의 부활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소라이학의 쇠퇴는 ‘반소라이학(反徂徠學)’을 주장하는 유자들의 출현을 가져왔다. ‘반소라이학’은 주자학, 양명학, 진사이학, 소라이학의 장점만을 취사선택하는 ‘절충학적 경향’으로 분파되고 풍속의 교화를 모색하는 ‘정학과 주자학’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sup>

교토에서의 소라이학 유행은 오규 소라이 사후의 일로 1736-1751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소라이학의 유행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교토에서도 ‘반소라이학’을 주장하는 유자들이 출현했다.

18세기 교토에서 최초로 소라이학을 강학한 유자는 우노 메이카(宇野明霞, 1698-1745)와 그 동생 우노 시로(宇野士朗, 1701-1732), 이른바 ‘우노가(宇野家)’ 형제들이다. 그런데 이들 우노가 형제는 ‘반소라이학’으로 전향하여 소라이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노가’에 의해 형성된 교토의 ‘반소라이학’은 우노 메이카의 문인 가타야마 훗카이(片山北海, 1723-1790)에 의해 오사카로 확대된다. 가타야마 훗카이는 교토에서 오사카로 거처를 옮겨 1764년 무렵 ‘혼돈시사(混沌詩社, 곤돈시사)’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오사카의 ‘반소라이학’을 견인해 갔다. 이처럼 ‘우노가’에 의해 시작된 교토의 ‘반소라이학’은 교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사카의 사상계로 까지 확대되었다.<sup>2)</sup>

따라서 교토, 오사카 등 서일본 지역에서의 ‘반소라이학’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노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노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때문에 교토의 ‘반소라이학’의 전모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상사 연구에서 ‘우노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우노 메이카의 저서 중에서 소라이 고문사학을 비판한 『논어고』, 훈독과 문장론이 제시된 『시어해』, 『문어해』, 『메이카선생유고』 등을 고찰의 대상으로 했다. 본고는 우노 메이카의 저서를 바탕으로 ‘우노가’가 소라이에 입문하게 되는 경위와 입장, ‘우노가’의 사상적 경향, 후에 이들이 ‘반소라이학’으로 전향하게 되는 중심 문제를 고찰하여 18세기 서일본의 교토에서 전개된 ‘반소라이학’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1044613)

1) 이기원, 「소라이학에서 고증학으로-가타야마 겐잔의 고증학적 방법」, 『일본사상』 19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0년 참조.

2) 나카노 미쓰토시는 처음으로 반소라이학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교토와 오사카의 학예계라고 하면서 교토의 우노 메이카 문인들에 의한 소라이 비판, 오사카 ‘혼돈시사’ 문인들의 소라이 비판을 제시한다(中野三敏, 『18世紀の江戸文芸—雅と俗の成熟』, 岩波書店, 1999. 29-30쪽).



## 1. ‘소라이학’에서 ‘반소라이학’으로

‘우노가’가 활동하기 이전의 교토는 대체적으로 진사이학과 안사이학이 유행했다. 하지만 진사이와 안사이가 세상을 떠난 후의 교토는 이들의 학문을 계승하는 자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진사이의 경우 그의 장남 이토 토가이(伊藤東涯, 1670-1736)가 계승했지만 토가이는 진사이학의 발전 면에서는 큰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다. 안사이는 만년에 스이가 신도를 주창했기 때문에 안사이학 역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나바 로도(那波魯堂, 1727-1789)는 『학문원류』에서 에도를 비롯한 일본 전국에서 벌어진 소라이학의 유행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소라이학은 향보의 초년에는 오로지 에도에서만 행해지고 (……) 교토에는 토가이의 학설이 성하여 소라이의 학은 신기한 설이라 하는 자는 있어도 배우려는 자는 아주 적었다. (……) 소라이의 설은 향보의 중기 이후는 참으로 일세를 풍미했다. 그러나 교토에 이르러서 성행한 것은 소라이가 죽은 이후의 일로 원문(元文)의 초년에서 연향(延享), 관연(寬延) 무렵까지 12~3년 간은 아주 대단했다. 세상 사람들 그 학설을 기뻐 배우기를 참으로 미친 듯했다.<sup>3)</sup>

향보기(享保期)는 1716-1736년으로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1684-1751)의 치세기에 해당한다. 1716년은 소라이 51세로 이미 소라이의 주요 저서들이 탈고되었으며 소라이와 그 문인들이 사상적 세력을 확대해 가던 시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설’은 소라이의 혼독을 배제한 음독 중심의 경서 해석을 주장한 고문사학적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향보 중기인 1725년 무렵부터는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세를 풍미’해 갔다.

한편 서일본의 교토에서 소라이학이 유행하게 되는 시기는 위에서 보듯이 소라이 사후 원문(元文, 1736-1741)의 초년에서 정향(延享, 1744-1748), 관연(寬延, 1748-1751)기, 즉 1736-1751년 무렵이다. 『학문원류』에서 보듯이 진사이학, 안사이학의 쇠퇴와 함께 ‘지적 공백’을 메워줄 고문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서일본의 학자들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교토에서 소라이학이 광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소라이학을 배워 강화했다는 기술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에서 최초로 소라이학이 시작되는 계기에 대해 에무라 훗카이의 『일본시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먼저 부쓰(物) 소라이가 동도에서 고문사를 창도했다. 우시신(우노 메이카)은 그 설을 기뻐하였으나 다병(多病)하여 에도로 유학갈 수 없었다. 이에 동생 우노 시로를 보내 학문을 배우게 했다. 교토에서 소라이학을 강의했는데 우시신이 처음 시작했다. 이후 의견이 점점 맞지 않아 사사건건 소라이에 반격했다.<sup>4)</sup>

우노 시로가 소라이에 입문한 시기는 1724년 무렵이다. 우노가는 이리에 자쿠수이를 매개로 소라이학을 접할 수 있었다.

3) 那波魯堂, 『學問源流』, 23-24쪽(『小年必讀日本文庫』第6編, 博文館, 1891).

4) 江村北海, 『日本詩史』卷3, 平安書林, 1771년(関儀一郎編, 『日本儒林叢書』卷3, 東洋圖書刊行會, 1928)

우노 시로는 1725년 교토로 돌아오는데 우노 메이카도 같은 시기에 소라이학을 배웠다. 『학문원류』에서는 교토에서 소라이학이 유행하던 시기가 1736년부터 라고 했는데 우노가는 교토에서 소라이학이 유행하기 10년 전부터 소라이학을 배우고 강학했다. 이후 우노가는 ‘반소라이학’으로 전향하여 소라이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소라이학이 ‘광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의 교토는 우노가에 의해 ‘반소라이학’이 전개되고 있었다.

교토로 돌아온 우노 시로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이후 우노가는 에무라 훗카이가 진술한 것처럼 소라이에 ‘사사건건 반격’하였으며 결국 반소라이학으로 돌아섰다. 우노 메이카는 『논어고』에서 소라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이에 군서들을 상고하여 별도로 일설을 만들었기에 『논어고』라 한다. 주씨가 얻고 잃은 것은 무엇이고, 부쓰씨가 진실로 그것을 논했는데 물씨가 반박한 바는 또 득실이 있다. (……) 이토의 『논어고의』는 진실로 논하기에 부족하고 또 부쓰씨는 이미 그것을 변증했다. 부쓰씨의 설은 그 얻은 바는 선유들보다 뛰어나지만 제자들보다 잃은 것은 심하다. 이것은 논하지 않을 수 없다.<sup>5)</sup>

여기에서 보듯이 우노 메이카가 『논어고』를 저술한 것은 주희나 진사이, 소라이 등 선유들의 경서 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희의 『논어』 주해를 비판하는 소라이에 대해서는 ‘선유들보다 뛰어나지만 잃은 것은 더 심하다’고 혹평한다. 그렇다면 우노가가 말하는 소라이가 선유들보다 더 심하게 잃은 것은 무엇인가? 우노가의 소라이 비판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소라이학에 대한 우노가의 의문은 경술, 정사, 문사라는 측면에서 제기된다. 경술과 정사는 경서 해석에 기초한 정치의 문제이며 문사는 문장과 관련된다.

## 2. 문장과 혼독의 문제

우노 시로는 “나와 내 형이 처음 배울 때 부쓰 선생의 『문계』를 언어 이것을 읽고 얻는 것이 있었다.”<sup>6)</sup>고 했다. 소라이의 『문계』는 소라이의 문장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라이의 고문사학에 매료된 우노가였지만 이들은 소라이와는 다른 형태의 한문 혼독법을 보였다. 에무라 훗카이는 우노 메이카의 혼독을 ‘신기한 혼역’이라 했다. 이것은 당시 소라이의 학설을 ‘신기한 설’이라 비판하는 것과 유사한 비판으로 이해된다.

소라이는 한문을 고어(古語)와 아어(雅語)로 혼독하고 속어로 이해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노 메이카는 일본어의 속어로 혼독했다. 혼독을 번역으로 이해한 것은 우노 메이카가 소라이에 배운 것이지만 어떠한 일본어로 혼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노 메이카와 소라이는 상이했다.

우노 메이카의 언어 이해와 혼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우노 메이카의 언어 이해를 알 수 있는 저작에 『시어해』(상하 2권)와 『문어해』(5권)가 있다. 『시어해』와 『문어해』는 한자와 이에 관련된 단어에 대한 일본어 발음과 의미를 자세하게 기술했다. 예를 들어 『시어해』에는 ‘자(自)’자에 자시(自是), 자유(自有), 각자(各自), 독자(獨自), 자재(自在) 등 단어 스물네 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

5) 宇野明霞, 『論語考』<考論語引>, 1쪽(『論語考』 1-3卷, 平安書肆田原勘兵衛, 京大大學圖書館所藏本),

6) 宇野明霞, <題彈金華稿刪後>, 『名公四序評』,

『문어해』는 ‘유(有)’, ‘혹(或)’, ‘재(在)’, ‘존(存)’, ‘저(著)’를 시작으로 한자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有’자에 대해서는 “あり, たもつ, 無의 반대 (……) 단 何有로 사용할 때는 쉽다는 뜻과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논어』와 『좌전』에 용례가 많다”<sup>7)</sup>고 설명한다.

『문어해』의 <범례>를 쓴 다이텐 겐조는 우노 메이카의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어에 맞지 않는 문자가 있고 문자에 맞지 않는 왜어가 있다. 이것은 중국과 왜 전체의 어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뜻에 달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문자에 어느 번역을 맞추어 이해하려 한다면 끝내 문자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것이다<sup>8)</sup>

‘문자’ 즉 한자마다 해당하는 일본어의 ‘역(譯)’이 있다면 같은 의미를 갖는 ‘역’에 해당하는 한자도 많다. 그 예로 『문어해』에는 ‘(有)’, ‘혹(或)’, ‘재(在)’, ‘존(存)’, ‘저(著)’ 자를 모두 ‘あり’라고 혼독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한자는 다르지만 일본어로는 같은 발음과 의미를 갖는 것이 많다. 우노 메이카는 이것을 ‘중국어와 일본어의 어맥의 차이’로 설명한다.

고대는 화음(華音)으로 서책을 읽고 왜어로 역해(譯解)했다. 중고 이래 음독이 쇠퇴하여 곧 왜독으로 읽고 차제에 와전(訛傳)하여 별도의 한 종류의 독서 언어가 되었다. 옛날 역법(譯法)을 읽고 또 옛날의 오코토텐에 따라 가나를 혼점이라 했는데 번역이라는 뜻을 모르는 자 많다. 단지 고대의 서적에 남아있는 역어가 있으니 상고하여 알아야 한다.<sup>9)</sup>

여기서 보듯이 일본의 고대에는 한문을 ‘화음(華音)’, 즉 중국 음으로 음독하고 일본어로 역해(혼독)하여 이해했다. 하지만 이후 음독이 사라지고 ‘왜독’이 중심이 되면서 독서의 한 방법으로 변해 버렸다. 우노 메이카는 고대의 서책에 남아있는 한문을 혼독한 고대 일본어, 즉 ‘역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노 메이카는 중국 음에 정통해야 일본어의 의미도 명확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노 메이카는 『시어해』에서 ‘음’과 ‘소리’, ‘자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물(物)에는 형태가 있으며 마음이 있는 후에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는 후에 음이 생겼다. 음이 생긴 후에 의(義)가 이루어졌다. 의가 이루어진 후에 문자가 형태로 드러났다. 문자는 사람이며 음은 하늘이다. 그러므로 자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음을 근본으로 삼는다.<sup>10)</sup>

여기에서 보면 ‘문자’는 ‘형태’와 ‘음’으로 구성되며 ‘형태’와 ‘음’을 명확히 이해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우노 메이카는 ‘자형(字形)’보다는 ‘성음’을 중시했다. 한편 우노 시로는 “독서의 법은 눈에 마음에 처하고 입은 문자를 견계 한다. 힘을 쓰는 것은 눈에 있고 배우는 바는 입에 있다. 그런 후에 중화의 온전한 것을 얻게 된다”<sup>11)</sup>고 했다. 우노 시로의 이 주장은 소라이가 『역문전제』에서 제기한 ‘심목’에 의한 독서법이다.

7) 宇野明霞, 『文語解』卷1(大谷津速堂, 早稲田大学図書館所蔵本, 간행연도미상),

8) 宇野明霞, 『文語解』<凡例>1쪽,

9) 宇野明霞, 『文語解』<凡例>, 2쪽,

10) 宇野明霞, 『詩語解』<題引>, 4쪽(須原屋伊八, 간행연도미상, 早稲田大学図書館所蔵本),

11) 宇野士朗, 『字士朗遺稿』卷4, 高橋博巳, 앞의 논문, 45쪽에서 재인용.

소라이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중화의 서책을 입으로 읽는 것, 즉 중국 음으로 읽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눈과 마음으로 읽으면 중화인과 다를 바 없이 독서의 진면목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노 시로는 ‘배우는 바는 입에 있다’고 하여 일본인의 발음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한 우노 메이카도 한자의 ‘자형’ 보다는 일본인의 ‘성음’을 중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우노가의 독서법은 소라이의 기본적인 견해를 따르면서도 중국의 ‘화음’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성음과 속어를 찾는 것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라이에 의하면 한문은 고어와 아어로 읽고 속어로 이해해야 한다. 일본어의 속어로 혼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 우노 메이카는 일본어의 속어에 의한 혼독으로도 한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3. 고문사의 ‘모의표절’과 ‘모의변화’

소라이에 의하면 문장에는 ‘달의’(達意)와 ‘수사’(修辭)가 있다. 고대 중국의 하은주 시대는 ‘달의’와 ‘수사’가 분열하지 않았는데 후한 때부터 두 파의 분열이 현저해지면서 문장이 쇠퇴하게 되었다.

소라이는 문장의 도를 ‘사(辭)’와 ‘사(事)’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sup>12)</sup> 여기서 ‘사(事)’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소라이의 『변도』에는 “선왕의 가르침은 물(物)로 하는 것이지 리로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데 물로 한다는 것은 일(事)로 일(事)삼는다는 것”<sup>13)</sup>이라는 기술이 있다. 여기서 소라이가 말하는 ‘물’이나 ‘일을 일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事)’을 기술한 것이 ‘수사’이다.

고대의 구체적 사실인 ‘수사’로 된 ‘문장’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 소라이는 고대의 문장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반용과 왕세정의 문장을 표절모의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소라이는 “그러므로 장차 처음 배울 때에는 이것을 표절모의라 하는데 또한 옳다. 오래도록 하여 여기에 변화되고 습관이 천성처럼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해도 나와 하나가 된다. (……) 모의하는 것을 병이라 여기는 것은 배움의 도를 모르는 것”<sup>14)</sup>이라고 말한다. 소라이는 이반용과 왕세정의 문장을 모방하면서 체득하면 고대 성인 시대의 문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노 메이카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무릇 수사가 높이는 것은 고(古)에 있으며 고인 스스로 그 의(意)를 기술한다. 달의(達意)는 나에게 있으며 후세는 수사를 짓지 못한다. 옛날에 힘써야 한 것은 수사인데 후세는 수사가 없다. (……) 지금 오로지 하는 것은 의(意)이다. 사람은 각기 의가 있는데 또한 고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수사를 모르면 즉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모른다.<sup>15)</sup>

우노 메이카는 고대의 문장인 ‘수사’를 알아야 한다는 소라이와 같은 인식위에서 있다. 후세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수사’이지만 ‘수사’의 문장을 짓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후세 사람들이

12) 荻生徂徠, 『徂徠集』卷27, 「答屈景山」第一書.

13) 荻生徂徠, 『弁道』16, 205쪽.

14) 荻生徂徠, 『徂徠集』卷27, 「答屈景山」第一書.

15) 宇野明霞, <送林君實序>, 『明霞先生遺稿』卷6, 5-6쪽(平安書林集古館, 京都大学図書館所藏本, 1748).

‘수사’를 모르기 때문에 고대에서 전해 온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우노 메이카도 소라이처럼 ‘고’와 ‘금’의 언어적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우노 메이카는 ‘의는 고와 다르지 않다’는 것, ‘고’와 ‘금’은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다. 고대 선왕 시대의 ‘수사’가 사라진 현재 선왕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노 메이카의 고민이 있다.

의(意)는 나에게 있지 않음이 없으며 수사는 고가 아님이 없지만 고인과 아주 멀다. (……) 변화는 모의하지 않음이 없고 모의는 변화하지 않음이 없다. (……) 고대의 수사는 끝이 있지만 나의 의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르다면 막힌다. 수사는 끝이 있지만 법은 즉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른 후에 고문은 막히지 않는다.(宇野明霞, <送林君實序>, 『明霞先生遺稿』卷6)

‘수사’는 나에게 없지만 ‘의미(意)’는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 우노 메이카는 문장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모의변화’의 파악에 유념한다. 고대의 문장이 현재 나에게 통용되려면 나에게 있는 ‘의’로 ‘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고문’은 막힘없이 후세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 우노 메이카는 나의 ‘의’로 고대의 ‘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정불변’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문장을 파악하는데 ‘모의표절’보다는 ‘모의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노 메이카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우노 메이카는 ‘모의변화’에 중점을 두어 시대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한다. 우노 메이카는 현재 자신의 ‘의’로 고대의 ‘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우노 메이카가 일본어의 ‘속어’로 한문을 혼독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우노 메이카가 『시어해』와 『문어해』에서 문장법과 함께 일본어의 속어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고에서 고찰한 것처럼 서일본의 교토에서 소라이학이 ‘광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1736-1751년 시기 보다 10년이나 먼저 소라이학을 강학했으며 이후 ‘반소라이학’으로 전향한 유자가 우노가 형제들이었다. 우노가가 소라이학에 입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문사를 바탕으로 해석된 고문사학이라는 새로운 경서 해석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노가가 소라이학을 비판하게 되는 것도 경술, 정사, 문사의 세 측면, 즉 고문사학적 방법에 위화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사는 ‘고언’이나 ‘고어’ 등 이른바 ‘고문사’와 관련되는 문장법, 경술은 경서의 해석 방법, 정사는 경서의 해석을 통해 확립되는 ‘도’의 내용과 관련된다.

소라이의 고문사학적 방법은 고언, 고어에 의한 고문사의 체득을 통해 고대 성인 시대에 확립되는 성인의 도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라이는 한문의 음독을 주장하면서도 일본인이 처한 언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종의 ‘전제(筌蹄)’로 혼독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고대 일본어의 ‘아어’로 혼독하고 속어로 이해해야 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혼독은 ‘번역’이었고 방편이었다. 우노 메이카 역시 한문의 혼독을 ‘번역’로 이해하면서도 일본어의 속어로 혼독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소라이와 결

이 다른 주장을 했다. 우노 메이카가 중국 음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속어 찾는 것에 집중한 이유이다. 우노 메이카가 중국 음에 정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중국 음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속어를 면밀하게 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일본인의 언어 사정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노가는 ‘한문의 번역’적 측면보다는 ‘한문의 혼독적 이해’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소라이에 의하면 고대의 문장은 ‘수사’로 되어 있으며 ‘수사’를 알기 위해서는 ‘모의표절’을 통해 체득하면 된다. 하지만 우노 메이카는 ‘모의표절’ 보다는 ‘모의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와 ‘금’의 언어적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노 메이카는 당대인의 관점으로 고대 문체인 ‘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이해했다. 여기서 문장을 짓는 문장법이 중요해진다. 우노 메이카는 고대 경서를 읽는 현재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소라이는 고문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우노 메이카의 주장이 제기된다.

# 17~19세기 나고야(名古屋) 지역민의 조선인식

— 나고야에서 유통된 조선관련 서적(書籍)<sup>1)</sup>을 중심으로 —

허지은(서강대)

##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17~19세기 나고야(名古屋) 지역에서 유통된 서적(書籍)을 통해 당시 나고야 지역민들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나고야는 에도(江戸)시대에 오와리번(尾張藩)의 조카마치(城下町)였다. 오와리번은 오와리국(尾張國) 전역과 미노국(美濃國), 미카와국(三河國), 시나노국(信濃國)의 일부 지역을 지배했던 번이다. 번주 가문은 도쿠가와 고산케(御三家)의 필두격이었던 오와리 도쿠가와가(尾張徳川家)로, 여러 다이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계(家格)를 보유했다. 영지 규모도 고산케 중에서 가장 컸으며, 오와리국의 나고야성을 거성으로 삼았다.

한편 나고야는 조선에서 에도막부에 파견한 사행단이 왕복 길에 지나가는 여러 지역 가운데 한 곳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사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일본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그 관심은 조선 관련 서적의 집필과 유통으로 이어졌다. 나고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고야 지역에서는 어떤 조선 관련 서적이 유통되었을까. 그리고 나고야 지역민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문자 해독 능력을 바탕으로 조선 관련 서적을 읽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떠한 조선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의 답을 기존 연구성과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에도시대 단군신화가 수록된 출판물을 고찰하여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밝히거나<sup>2)</sup>, 조선사행과 직접 교류했던 일본 유학자들의 조선 인식<sup>3)</sup> 등을 다루기는 했지만, 나고야라는 특정 지역민들의 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오와리 지역 문인들이 간행한 조선인과 나는 필담 창화집에 수록된 창화시에 드러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연구<sup>4)</sup>가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나고야 지역의 데나라이주쿠(手習塾)와 오라이모노(往來物)의 보급 상황과 나고야 지역민의 교육실태를 통해 서적에 대한 수요와 서적 유통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나고야의 대표적 문고라고 할 수 있는 호사문고(蓬左文庫)의 장서를 중심으로 나고야에서 어떤 조선 관련 서적이 유통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나고야 지역에서 유통된 조선 관련 서적 가운데 <鸚鵡籠中記>와 <異國往來并漂流年表 二編> 등의 내용분석

1) 기록, 정보의 보존·전달,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문자, 회화, 도안, 사진 등을 인쇄 또는 필사한 낱장을 읽기 쉽도록 순서대로 엮어 표지로 감싼 것이다. (日本大百科全書)

2) 김영주·이시준, 「에도시대 출판물 속 단군신화」, 『외국문학연구』 63, 2016.

3) 정순일,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조선 인식과 『本朝通鑑』 신라·발해 관계기사의 특징」, 『역사학연구』 76, 2019.

4) 조영심, 「18세기 후반 오와리(尾張) 지역 일본인과 조선·류큐인의 필담창화 - 『표해영화(表海英華)』와 『평수기상(萍水奇賞)』을 중심으로 -」, 『연민학자』 26, 2016.

을 통해 나고야 지역민들의 조선인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나고야 지역민의 교육과 교재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가정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했다. 그러다 점차 문서주의가 확산되고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문자를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설 교육시설인 데나라이주쿠(手習塾)<sup>5)</sup>가 발전하고, 그곳에서는 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데나라이주쿠는 대략 16세기 중반에 성립되어 17세기 중엽에는 에도·교토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조카마치(城下町)에도 설치·운영되었고, 18~19세기에는 데나라이주쿠에서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sup>6)</sup>

데나라이주쿠의 총수는 1883년 文部省의 지시로 전국 府縣에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日本教育史資料」에는 일본 전국에 15,512개, 오와리지역에 519개, 나고야에는 60개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반면, 1931~2년 아이치교육회가 현재의 소학교에 의뢰한 ‘데라코야 및 사숙(私塾)에 관한 조사’ 결과와 郡市町村史 등을 비롯한 관계 출판물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愛知県教育史』에는 오와리 지역에 1,836개, 나고야에 88개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sup>7)</sup> 조사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어 향후 보다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나라이주쿠 운영자는 주로 승려, 평민, 의사, 무사, 신관(神官) 등이었는데, 나고야에 있었던 88개의 데나라이주쿠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1>

신분	승려	평민	의사	무사	신관	기타	불명
인원수	2	21		42	1		22
백분율	2.3%	23.9%		47.7%	1.1%		25%

\* 愛知県教育委員会, 『愛知県教育史』 第二卷, 愛知県教育委員会, p.39의 표26, 28을 참조하여 작성

『愛知県教育史』에 의하면 나고야 지역에서는 읽기와 쓰기만 가르친 곳이 58.3%, 읽기·쓰기에 산술을 추가하여 가르친 곳이 13.5%, 읽기·쓰기 또는 읽기·쓰기·산술에 문과적 교과(예의범절) 등을 추가하거나 和漢學 중심으로 또는 讀書算 외에 실과(재봉 등)를 추가하여 가르친 곳이 28%였다. 읽기와 쓰기를 주로 교육한 데나라이주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나고야 지역은 조카마치라는 특성상 무사가 운영하는 데나라이주쿠가 많았고, 주로 읽기·쓰기를 위

5) 데나라이주쿠는 일반적으로 데라코야(寺子屋)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 최근 학계에서는 데라코야가 사원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사원교육에서 자립한 서민의 학습활동 위에서 성립한 문자학습의 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데나라이주쿠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梶井 一暁, 「近世僧侶の庶民教育へのかかわり : 伊予国の手習塾を中心に」 宗教研究 85, 2011이기원, 「유교적 사회의 성립과 유교 프락시스(1)」 일본학연구 48, 2016) 본고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데나라이주쿠를 사용하기로 한다.

6) 허지은, 「17~19세기 조선 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의 제작·유통과 일본 서민의 조선 인식」 『동양사연구』 160, 2022, pp. 286~288.

7) 愛知県教育委員会, 앞의 책(1972), p. 2, pp. 12~14.

8) 愛知県教育委員会, 앞의 책(1972), pp. 62~68.



주로 교육했다. 또한 지역출판의 거점으로 많은 오라이모가 출판되었다. 나고야 지역민들은 아동기에 데나라이주쿠에서의 교육을 통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나고야 지역민들은 성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문자 문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도시대 나고야 지역에서는 어떤 책들이 제작·유통·보존되었을까.

### 3. 나고야에서 유통된 조선관련 서적

<표2>

문고명	창립 연도	주요인물	문고의 성격	비고
호사문고(蓬左文庫)	1617년	도쿠가와 요시나오 (徳川義直)	오와리번 官庫 역대번주의 수집 서적	
오스문고(大須文庫)	1350년 경	가이산 노신 (開山能信)	宝生院 眞福寺의 불경 중세에 書寫된 佛書 중심	
요시미문고(吉見文庫)	1756년	요시미 유키카즈 (吉見幸和)	神官 吉見의 문고 神道書가 중심	거의 소실
吏隱亭書庫	에도 중기	마쓰다이아 군잔 (松平君山)	書物奉行 군잔의 개인문고 地誌기록 다수	
분카이 서고(文會書庫)	1773년	가와무라 히데네 (河村秀頼)	藩士 가와무라 집안문고 역사서 중심	거의 소실
히라이문고(平出文庫)	에도 말기	히라데 준에키 (平出順益)	藩醫 히라데 집안문고 문화, 예능, 사회관련 중심	산일
이치요문고(一葉文庫)	에도 말기	오카다 게 (岡田啓)	조닌 게의 개인문고 珍本 다수 (1만권)	산일

\* 愛知県教育委員会, 앞의 책(1972), p. 513. <表 61> 近世尾三の主要文庫一覽을 참조하여 작성

에도시대 나고야에는 번주나 절과 신사에서 수집한 서적을 보관했던 호사문고(蓬左文庫), 오스문고(大須文庫), 요시미문고(吉見文庫), 개인이 서적을 수집하여 보관했던 吏隱亭서고, 분카이서고(文會書庫), 히라이문고(平出文庫), 이치요문고(一葉文庫) 등이 있었다. 이곳 중에서 호사문고와의 장서 중에는 조선관련 서적이 다수 있다. 나고야 지역이 조선에서 파견된 사행이 에도까지 갈 때 지나가는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나고야에서 조선사행에 대한 접대가 이루어지면서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고야 지역민들이 조선과 조선사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많은 조선관련 서적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 4. 나고야 지역민의 조선인식

대표적으로 나고야에서 제작·출판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인 『각국산물오라이(各国産物往来)』, 나고야 무사 아사히분자에몬이 남긴 일기인 『오무로추키(鸚鵡籠中記)』, 나고야에서 유통되었던 『異国往来并漂流年表 二編』은 나고야 지역민들이 어떤 조선관련 지식을 얻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서적들이다. 특히 『異国往来并漂流年表 二編』은 관견으로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 또한 류큐,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일본의 대외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산물오라이』는 1873년 스즈키 요시베(鈴木吉兵衛)가 나고야에서 출판한 서적으로 秋紅 스즈키 요시베가 原撰, 戴星 日比野綱雄 刪補했고, 삽화 없이 당시 무역품을 각 나라 별로 소개한 오라이 모노다. 상권에는 아세아주(일본·중국·조선·만주·몽고 등)·아프리카주(이집트·누비아·아비시니아·모로코 등), 하권에는 유럽주(영국·프랑스·프로시아·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 등), 아메리카주(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리카 등의 세 가지로 구분. 미국·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브라질 등)·태양주(아시아 남해 군도·동북해 제도 및 서남양 제도의 물산을 적었다. 각 국가의 이름과 지역 이름과 함께 무역품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도·사냥법 등 상세한 설명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조선은 나라 이름 다음에 산물로 인삼, 주석(錫), 철, 쌀이 열거되어 있다. 9)

아동 시기에 얻은 지식, 이미지,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의 근저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고야 지역민들이 아동시기 테나라이주쿠에서 오라이모노를 통해 배운 조선관련 내용은 이후 그들의 조선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편, 아사히분자에몬이 남긴 일기 『오무로추키(鸚鵡籠中記)』에는 통신사행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반 접대상황, 통신사행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나고야 지역민들과 인근 지역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sup>10)</sup>

아사히분자에몬은 통신사행이 도착하기 하루 전인 10월 4일의 나고야의 모습을 “혼마치(本町)의 길을 비롯하여 길목에 있는 상가들은 문을 열고 실내에 화려한 병풍을 세워놓았고, 거리는 하루 종일 구경하는 남녀로 넘쳐나고 있었다. 마치 祭禮 같다.”라고 기록했다. 도착 당일인 10월 5일에는 아사히분자에몬의 어머니와 통신사행을 구경하기 위해 친정에 들른 여동생 곤(こん)를 비롯한 가족들이 아침 일찍 하바시타(幅下)로 구경하러 나갔다고 기록했다. 한편, 아사히분자에몬은 통신사행이 나고야에 체류하는 동안 삼사의 숙소인 쇼코인 경비를 담당했는데, 통신사행의 귀국길이던 1711년 11월 29일 일본인들의 요구로 통신사 일행 중 寫字官과 畫員이 새벽녘까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사히분자에몬도 밤새 기다리는 노력 끝에 네 장의 그림을 얻었다고 기록했다.<sup>11)</sup> 조선사행에 대한 큰 관심은 무사도 무사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아사히분자에몬의 『오무로추키(鸚鵡籠中記)』의 刊本은 오와리 도쿠가와가에 소장되었던 문헌 자료를 보존·공개하고 있는 徳川林政史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사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 抄本으로는 아이치현 이와쿠라시(愛知県岩倉市)도서관소장본, 일본국회도서관본 등이 있다.<sup>12)</sup> 나고야 지역민의 한 사람이었던 무사 아사히분자에몬의 일기에 담긴 조선관련 내용은 이후 이 일기를 읽었을 나고야 지역민에게 조선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호사문고에는 『이국왕래 및 표류 연표(異国往来并漂流年表) 2編(文永至嘉永)』라는 조선관련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저자는 이시즈카 호카이시(石塚豊芥子, 1799~1862)로 에도 출신의 고증가(考証

9) 『往來物大系』62, 『日本教科書大系・往來編』10, 日本国立国会図書館 디지털콜렉션에서 원문 제공(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jpsearch.go.jp/en/item/dignl-801243>)

10) 『오무로추키』는 1691년 6월 13일부터 1717년 12월 29일까지 27년간의 일기이다. 무사가 개인적으로 남긴 일기로 당시 무사의 일상과 나고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다. 辛基秀, 『朝鮮通信使の旅日記』, PHP研究所, 2002; 溝口常俊, 『鸚鵡籠中記』にみる尾張藩士の食文化『名古屋市中区誌』 376~387, 2010; 『尾張藩士朝日文左衛門の描く妻』『近世名古屋亭元繪巻の世界』清文堂出版(林董一編), 2007; 平沢 康男, 『鸚鵡籠中記』に記録された天文現象—元祿時代の名古屋城お豊奉行の日記より』, 『天界』 79, 1998.

11) 朝日重章 著 塚本 學 編注, 『(摘録) 鸚鵡籠中記 : 元祿武士の日記 . 上・下』, 岩波文庫, 1995.

12) 日本古典文学大辞典編集委員会, 『日本古典文学大辞典』 1, 岩波書店, 1983, pp. 412~413, 일본국회도서관, 레ファレンス協同データベース([https://crd.ndl.go.jp/reference/modules/d3ndlcrdentry/index.php?page=ref\\_view&id=1000065696](https://crd.ndl.go.jp/reference/modules/d3ndlcrdentry/index.php?page=ref_view&id=1000065696)) 참조,

家)이자 잡학자이다.

본문은 ‘文永 龜山院 八十九代’ 로 시작되는데, 가메야마인(龜山院)은 가메야마 천황으로 일본의 90代 천황이다. 가메야마 천황 이외에도 천황의 代數에 현재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어서 1267(文永4)년 몽고가 송나라를 공격하여 나라이름을 ‘大元’으로 부르고 사자를 고려로 보내고, 일본에도 서한을 보내 몽고에 공물을 바치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100代 後圓融院 때는 ‘1377년에 조선의 사자 정몽주가 내조(來朝)하여 규슈(九州) 탐제(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 신라, 고려, 백제의 삼한(三韓)을 합쳐서 조선국이라고 부른다<sup>13)</sup>’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말의 성리학자이자 관료였던 정몽주가 137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마가와 료순을 만나고 1377년에 왜구들에게 끌려갔던 고려인 포로들을 고려로 데리고 돌아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삼한을 ‘신라, 고려, 백제’라고 해서 고구려가 아닌 고려로 되어 있는 부분, 조선이 건국된 해는 1392년인데, 1377년의 시점에 조선국이라는 국명을 언급하는 등 내용상에 오류가 보인다. 이 부분에서 저자 이시즈카 호카이시의 조선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이시즈카 호카이시의 인식은 이 서적을 읽는 나고야 지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맺음말

나고야 지역은 조카마치라는 특성상 무사가 운영하는 데나라이주쿠가 많았고, 주로 읽기·쓰기를 위주로 교육했다. 또한 지역출판의 거점으로 많은 오라이모가 출판되었다는 점. 나고야 지역민들은 아동기에 데나라이주쿠에서의 교육을 통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나고야 지역민들은 성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문자 문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에도시대 나고야에는 번주나 절과 신사에서 수집한 서적을 보관했던 호사문고(蓬左文庫), 오스문고(大須文庫), 요시미문고(吉見文庫), 개인이 서적을 수집하여 보관했던 吏隱亭서고, 분카이서고(文會書庫), 히라이문고(平出文庫), 이치요문고(一葉文庫) 등이 있었다. 이곳 중에서 호사문고와의 장서 중에는 조선관련 서적이 다수 있다. 나고야 지역이 조선에서 파견된 사행이 에도까지 갈 때 지나가는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나고야에서 조선사행에 대한 접대가 이루어지면서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고야 지역민들이 조선과 조선사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많은 조선관련 서적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나고야에서 제작·출판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인 『각국산물오라이(各國産物往來)』, 나고야 무사 아사히분자에몬이 남긴 일기인 『오무로츠키(鸚鵡籠中記)』, 나고야에서 유통되었던 『異国往來并漂流年表 二編』은 나고야 지역민들이 어떤 조선관련 지식을 얻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서적들이다. 특히 『異国往來并漂流年表 二編』은 관견으로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 또한 류큐,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일본의 대외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밀한 내용분석을 통한 에도시대 조선, 류큐, 서양 국가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비교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13) 『異国往來并漂流年表 二編』(호사문고 소장본) “同三丁巳 朝鮮國の使鄭夢周來朝九州の探題今川了俊見えて歸國す是新羅高麗百濟の三韓を合て朝鮮國と號す”

# 日韓医師の疾患状態の伝達戦略に関する対照研究

— 楽観的・悲観的な疾患状態の観点から —

孫朱彦(高麗大)

## 1. はじめに

我々が病院を訪れ自分の状態を正確に知るようになることは、本格的な医療行為を受けることの始まりであり、疾患状態の伝達目的でもある。これはこの先の診療段階および治療内容を決定するのに大事な意味を持たせる。よって、医師は疾患状態の種類によってその伝達に様々な言語戦略を用いると思われる。特に困った状態や悪いニュースのほど、後続する医療行為の成功的な達成や患者への理解、関係形成などに影響を与えられることが推測できる。そこで、本研究では日本と韓国の医師は疾患状態の種類によってどのような伝達戦略を用いるのかを調べる。これによって日本と韓国の医療談話における疾患状態の伝達戦略の類型的特点を明らかにし、日韓相互の言語文化的理解を深めることを研究目的とする。

## 2. 先行研究及び本稿の立場

言語学的な観点から疾患ニュースを伝える研究には多数の研究があるが、ここでは박용익(パク・ヨンイク、2007)、岡田他(2009)、ペラキュラ(2015)、D.メイナード他(2015)を紹介する。

박용익(2007)は理論的な研究として診断会話を通報的会話と見なしたうえで、その原型を探ろうとし、そこには六つの段階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そして岡田他(2009)は実証例を用いて納得を得る告げ方には証拠ありと無しとで異なる展開が必要であること、診断時にオンライン・コメントが患者の参加を促すことについて述べた。また、ペラキュラ(2015)は100以上の実証例から医師の権威が診断の伝達にどのように作用するのかを探り、医師の権威は診断の場に必要のものであり、むしろ、医師が自分の推論を明かすことで患者の参加が誘われることを指摘した。最後に、D.メイナード他(2015)はプライマリ・ケア場면을対象に診断のニュースを伝える際はニュースの良き悪きを問わず、心理的な要素が必要であり、患者側に伝えられた内容と医師の発した内容との一致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以上の先行研究から分かるように疾患の伝達に関する研究は悪いニュースを伝えるものが多くを占めている。だが、良いニュースもそれに伴う不確実性(D.メイナード他、2015: 339)によって心理的なプロセスなどが必要にな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上の方法を工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こで本研究では談話分析の観点から疾患状態を伝達する戦略を疾患状態の種類別に分けて調べることにする。

---

1) ラポールともいう。

### 3. 研究方法

#### 3.1 分析資料

最近は韓国と日本とで医療ドラマを用い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授業を模索するなどの医療系におけるドラマの使い道はどんどん広がっている。この立場から本研究では日韓の総合病院を背景とする医療ドラマを資料とする。分析対象となるのは日本12本、韓国8本の医療ドラマから抽出された日本126、韓国148、計274件の資料である。

#### 3.2 分析方法

本研究における疾患状態伝達の範囲は上記の박용익(2007:258)の段階<sup>2)</sup>のうち、③疾患確認段階に限る。そして、疾患状態の種類は「楽観的状态」と「悲観的状态」とに分ける。「楽観的状态」とは内容を聞いた患者側の反応が肯定的である、身体の変化が良い方向に向かっている場合のことを指す。「悲観的状态」とは内容を聞いた患者側の反応が悲観的な感情を帯びる、身体の変化が良くない方向に向かう、疾患が発見される、治療効果が確認できない、一般的な観点から重病であると思われる場合のものを指す。また、ストラテジーの認定単位は発話ターン単位にする。発話途中、患者側の相づち的な発話<sup>3)</sup>が挟まれた場合は連続した一つのターンとして見なす。最後に、医師の伝達ストラテジーはRoter & Larsonの相互作用分析システム<sup>4)</sup>を参照する。RIASの内容を修正・加筆する際にはCole & Bird医学面談3機能(2002:27-76)と박용익(パク・ヨンイク、2008:120-122)の「病名通報対話の格率」を参考にした。これによって設けられた分析枠組みは以下のようである。

<医師の疾患状態伝達のストラテジー分類><sup>5)</sup>

- A. 専門家型: 医師が専門的医学情報を構成し、患者側に正確に伝達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A-1.方向設定\*」から、「A-6.治療経過確認\*。」まで詳細種類あり。
- B. 援助者型: 患者側の医療内容への理解を深め、自主的参加を導き、医者と患者の同僚意識を強調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B-1.視聴覚資料利用\*」から、「B-8.相手に対する非同意・批判。」まで詳細種類あり。
- C. 相談家型: 患者との距離を縮めたり、医師との会話に良い感情を持たせたり、尊重してあげたりして良い関係を保とうと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C-1.個人的コメント・社交会話」から、「C-9.励まし・楽観的な言葉。」まで詳細種類あり。

以上のような分析枠組みで日韓の医師の疾患状態の伝達ストラテジーを疾患の状態別に分けて探る。

2) ①始まり段階②予備段階③疾患確認段階④対処法論議段階⑤今後の対処論議段階⑥終了段階

3) ポリー・ザトラウスキー(1993)『日本語談話の構造分析』、くろしお出版、p.64参照。

4) 以下、RIASと表記する。

5) 項目のうち、' \* '表記のものは、本研究のため筆者が考案したものである。

## 4. 結果及び考察

### 4.1 楽観的状態の伝達

楽観的なニュースを聞くことは医療現場において医師も患者側も望んでいることであろう。よって、伝達には対した負担はないと思われる。しかし、この場においても誤解が生まれる恐れはある。情報自体を誤解してしまうことあれば、医師の接し方で気分を損ずる場合もあり得る。こういったことから患者の楽観的な状態を伝える際にも医師の判断の元で適宜なストラテジーの使用は重要になってくる。楽観的な状態を伝える際に用いられるストラテジーを調べた結果を以下の<表1>に示す。

<表1> 楽観的状態の伝達ストラテジー使用

単位:%(件)

	専門家型	援助者型	相談家型	計
日本	27.27(6)	4.55(1)	<b>68.18(15)</b>	100.00(22)
韓国	42.86(9)	4.76(1)	<b>52.38(11)</b>	100.00(21)

楽観的状態の伝達においては両国は使用パターンは類似した様子を見せた。ただし、日本のほうが相談家型に多少片寄っている姿が窺えた。一方、韓国は専門家型の使用も少なくないことが分かった。以下でストラテジー類型別により詳しく見ていく。

まず、専門家型ストラテジーを用いて楽観的な状態を伝える際、日本では「A-2.事実伝達・確認」最も多く使われ(66.66%)、韓国では「A-1.方向設定」の使用(44.45%)が目立った。日本では「A-1.方向設定」が1件も見られなかったのに照らしてみると、韓国のこのような使用は特徴的なものと言えよう。韓国では「A-2.事実伝達・確認」の使用が見られてはいるものの、22.22%でそれほど多く使わ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これをみて、日本では良いニュースを伝えること自体に集中し、韓国は早くから次の段階へと踏み込もうとする傾向があると推測できる。これは日本より韓国のほうで診療時間が短い可能性を推測させる。次に、楽観的な状態を伝える際の援助者型の使用が両国とも1件ずつ見られた。日本では「病理診断の結果ですが、」と言ってこれからの告知に関心を寄せる「B-4.注目要請」が使用された。一方、韓国では病所の絵を描いてこれまで心配だったのが実は問題ないと判明した内容を伝えている「B-1.視聴覚資料利用」が用いられたことが分かった。最後に、相談家型のストラテジーを使用して患者側に楽観的な状態を告げる場面では、日韓共に「C-8.安心させ」が最も多く用いられた。だが、日本の占め率は73.33%となっており「C-8.安心させ」への偏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一方、韓国における「C-8.安心させ」は54.55%で、日本よりはその程度が高くなかった。また、韓国では「잘 회복되실 거예요.」のような「C-9.励まし・楽観的な言葉」の使用(27.27%)も少なからず確認できた。日韓のこのような結果から楽観的な状態を告げる際、日本には現時点での問題解決に集中するような意識、韓国ではより先のことを考える前向きな意識が強いのかのように思われる。

### 4.2 悲観的状態の伝達

患者に悲観的な状態を伝えるのは大変遠慮深い作業である。悲観的な状態を告げることは患者側にとっては自分の人生がその以前と以後とに分かれるほど意味深いためである。よって、医師の繊細なストラテジー使用が

要求されると考えられる。資料分析の結果、日本と韓国とでの戦略別の使用様相の際立つ違いは見られなかった。この結果を<表2>に示す。

<表2> 悲観的状態の伝達戦略使用

単位:%(件)

	専門家型	援助者型	相談家型	計
日本	<b>59.62(62)</b>	19.23(20)	21.15(22)	100.00(104)
韓国	<b>63.78(81)</b>	19.68(25)	16.54(21)	100.00(127)

結果をみると両国間の大きな違いはみられないが、専門家型において韓国のほうが微妙に使用率が高いこと、相談型において日本の方での使用が若干高いことが分かった。以上の結果からはこれといった違いがみられなかったため、各々の戦略類型別に分けてその使用様相を探ることにする。

まず、悲観的状態を伝達する際の専門家型の戦略の使用をみると、日本では「A-2.事実伝達・確認」が一番多く用いられているが(45.16%)、韓国では「A-4.医学的予測」が最も多く用いられた(45.68%)ことが確認できる。これは日本の医師が韓国のほうより事実を伝えることに重点をおいているようなイメージを持たせる。これは状態伝達の後に続く検査や治療などの対処に向け、患者を準備させようとする(Bucka-Lassen,2005/ウ・サンス訳,2009:116)医師の業務的な心構えが働いた結果と考えられる。一方、韓国は医師が自分の専門知識を活用して予測したものを患者側<sup>6)</sup>に伝える姿を多く見せており、医師の意見が日本より相対的に強く作用するような印象を与える。2番目に多く用いられたのは日本が「A-4.医学的予測(38.71%)」、韓国が「A-2.事実伝達・確認(38.27%)」であった。この結果からすると悲観的な状態を伝える際の専門家型戦略の使用は日韓において類似した使用パターンを見せたと言える。悲観的な情報は患者側にとって大変敏感な内容である。それだけに、客観的な情報や根拠に基づいた内容や専門的な推論から出た内容は患者の協調的な反応を誘い、これからの治療などの過程における患者側の参加を促す効果がある(岡田他, 2009:94-96)ので、このような使用パターンを見せたと考えられる。次に、悲観的な状態を援助者型の戦略を用いて伝達した場面では、両国において「B-2.理解しやすい言葉に変えて話す」が最も多く見られた(日:70.00%、韓:56.00%)。これは医療メッセージは正しく受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受信者つまり患者側が受容可能なシグナルに変える必要があるからである(Bucka-Lassen2005,우상수:ウ・サンス訳,2009:50-51)。これに続き日本は患者の会話への参加を促す「B-4.注目要請(20.00%)」の使用、韓国は資料を用いて患者側の病状への理解を助ける「B-1.視聴覚資料利用(28.00%)」の使用が見られた。この結果から両国共に医師が患者を医療会話へ積極的に誘っている姿が窺えた。最後に相談家型戦略を使用して悲観的な状態を伝える際の結果を見ると、日本は「C-8.安心させ」が圧倒的に多く用いられた(68.18%)のに対し、韓国では医師が自分の経験や感情を話す「C-7.自己開示」と「C-8.安心させ」が各々28.57%ずつ使用され日本に比べ偏りが強くない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相談家型の戦略使用において韓国では7種類のものが用いられ、日本より多様な方法で患者と向き合っているように考えられる。韓国のこのような使用傾向に関して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韓国医科大学・医学専門大学院院長協会,2012:179)では、患者の感情を扱うことが悪いニュースの伝達において一番難しい部分であると述べた。また、日本では「C-9.励まし・楽観的な言葉」の方が22.72%使用されたが、韓国ではたった4.76%しか用いられず、使用パターンの違いが見とれた。もう一つ特徴として韓国の「C-4.

6) 本研究では患者と保護者を合わせて「患者側」と表記する。

謝罪・関係修復」の使用がある(19.05%)。これは日本ではわずか4.55%現れた。以上の結果から韓国は日本に比べて患者側と人間対人間としての関係を結ぼうとする傾向があるように見られる。

## 5. まとめ

以上、日本と韓国医師の疾患状態の伝達戦略を探った結果、日本と韓国の共通点は医療の専門的な情報の伝達が楽観的な状態であっても悲観的な状態であっても重要視されることや患者側を積極的に医療会話を誘っている姿が窺えたことである。両国の違いを見ると、日本は韓国より多少事務的な態度で患者と接していること、韓国は日本に比べより親密な関係を結ぶことに興味を持っているような姿が窺えたことである。本研究では、両国の戦略使用を量的な面から考察した。今後、表現の面からも使用詳細を探り、より具体的に日韓の医師の戦略使用様相を探っていきたい。

### <参考文献>

- 岡田光宏・樫田美雄・平英美(2009)「会話分析から見た医療コミュニケーション」、『医療コミュニケーション』篠原出版新社、p.94-100.  
ダグラス・メイナード・リチャード・M・フランケル(樫田美雄訳、2015)「診断的合理性について―悪いニュース、良いニュース、および残った徴候―」、『診療場面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勁草書房、p.305-345.  
アンシ・ベラキュラ(岡田光弘訳、2015)「診断につい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ことと応答すること―」、『診療場面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勁草書房、p.265-304.  
박용익(2007)「위중한 병명 통보대화」, 텍스트언어학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255-302.  
Steven A.Cole & Julian Bird(2002/김대현 외) 『의학면담』, 학지사, p.21-282.

(以下の参考文献は、紙面上割愛させていただく)



# 직장인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응용에 관한 사례

— 성격유형 및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

서유리(고려대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학습자 중심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이후 벌써 50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학습자의 다양화와 개별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장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익히려는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 내 외국어 교육은 공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교육장과 달리 학습자의 연령, 직업, 학습수준, 학습목적 등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이 복잡하다. 동일한 수업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참여하기를 선호하는 학습자,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혼자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 등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수업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사 내 직장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급 일본어 수업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 특성 중 하나인 ‘성격유형’과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학습 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수업개요

최근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확대된 미래의 교육 방향과 과제 중 하나로 '개인화된 학습(Personalized Learning)'<sup>1)</sup>과 같이 학습자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 수업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격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과 달리 자기개발과 같은 학습목표를 가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그룹 수업에서는 수업에 대한 흥미가 곧바로 수업참여로 이어진다. 즉 학습을 이끄는 주체가 학습자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적인 수업참여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교수자가 섬세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徐그리, 2022:296).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 중에서 ‘성격유형’과 ‘자기주도성’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들의 실제 학습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수업 설

1) 개인화된 학습이란 학습자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학습자의 흥미와 경험, 선호학습 방법 등 학습에서 다양한 요인에 맞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선영(2018:51)과 NTLS 인재육성 웹(<https://hr.ntls.co.jp/column/knowledge/step3/detail-06.html>, 검색일:2021.11.23)을 참조하였다.

계란 교수자가 수업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어떻게 운용하고 실행할지 준비하며 평가에 대해 고민하는 등 교수자에게는 수업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 학습자에게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에서 배울 내용이나 학습 자료,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특히 COVID-19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체계적인 수업설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박혜진, 2021:174-175). 회사 내 외국어교육 특성상, 교수방법에 따라 학습자들이 단순히 수업을 듣기만 할 수도 있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제별 수업에 대한 설계를 구성하였다.(\*발표시 첨부)

수업활동의 구성으로는 田中(2011:6)를 참고하여 ‘내용소화형’과 ‘활동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용소화형’은 교사가 내용을 제시하면 이를 학습자가 소화하는 유형을 말한다. 교사가 질문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가 대답하는 유형은 교사주도의 활동으로 T(Teacher)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돕고 심화하여 학습하기 위한 영상을 시청하는 수업활동으로 문화와 관련한 내용은 C(Culture), 드라마 일부 시청은 D(Drama), 영화의 일부 시청은 M(Movie), 학습용으로 제작된 영상은 L(Learning)로 표기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활동형’은 수업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회화연습 외에 학습자들 간의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遣り取り, interaction)으로서 2~3명을 짝을 짓거나 학습자 전원이 번갈아가며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은 회사 내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중 기초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교재 내용<sup>2)</sup>을 토대로 운영하였으며, 수업마다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유수연(2019:14)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표1> 기초 일본어 수업반 구성 및 특성

	A반		B반		C반	
수업기간	2022.3.3.~2022.8.30		2022.8.1.~2023.1.27		2023.3.6.~2023.7.31	
수업시간	주 2회/51시간		주 2회/54시간		주 3회/59시간	
학습자 인원	11명		9명		13명	
	남 5	여 6	남 3	여 6	남 4	여 9
학습일지	1)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무엇인가요? 2) 오늘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3) 수업 외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다음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보다 더 알고 싶나요? 4) 오늘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 오늘 수업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습평가	월말 테스트 40% + 학습일지 참여도 10% + 출석 50% = 100점 환산					

### 3. 연구방법

먼저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검사도구로 한국에서도 10년 이상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진로나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격유형 검사 중 하나인 MBTI성격유형을

2) 서유리·장은화·박은숙·김귀자·김순하(2020) 『New The 바른 일본어 Step1』, ECK북스, p.152  
 서유리·박은숙·김귀자·김순하(2020) 『New The 바른 일본어 Step2』, ECK북스, p.175

활용하여 FormM 검사를 진행하였다.3). MBTI성격유형은 16가지이지만 실제 수업에서 16가지 유형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교수자의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성격유형을 가진 학습자가 모두 고르게 구성되어 반이 모집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선호지표별4)로 그룹을 나누어 학습자도 교수자도 최대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수업 전에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검사도구로는 성인교육이나 사회연구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uglielmino(1977)의 ‘SDLRS(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자기주도학습능력 검사)’를 활용하였다.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는데 활용한 임난영(2017)과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윤경(2013)를 토대로, 기존의 SDLRS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구성요인을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한 배을규·이민영(2010)을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5). 사전에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파악한 후, 실제 학습일지 작성을 통해 어떻게 학습을 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 4. 연구방법

### 4.1 외향(I)-내향(I)의 학습운동(\*학습일지 내용은 발표자료에 추가 예정)

에너지의 방향이 주로 외부세계의 사람이나 대상에게 향하는 외향형과 에너지의 방향이 주로 내부세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향하는 내향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업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내향형의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동료들과 일본어로 보다 더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으며, 학습일지에 작성한 내용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되기보다는 교사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내향형은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업활동에서 처음보다는 중간이나 마지막에 함께 할 때 이해가 더 잘 된 수업이라 느끼고 있었다. 그 외에도 수업의 속도에 대해서도 내향형인 학습자가 천천히 진행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이에 수업시간 배운 내용 외에 일본어를 접하는 방법에 있어 내향형은 외향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재 내용을 위주로 단어를 적거나 예문을 적어보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외향형은 수업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학습일지를 작성하는지를 보며 많은 자극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업무상 결석을 하게 되는 학습자가 있을 때, 외향형 학습자가 본 수업 전에 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날 수업에서의 감정이나 테스트 후의 자기평가를 솔직하게 표현하여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다.

### 4.2 감각(S)-직관(N)의 학습운동(\*학습일지 내용은 발표자료에 추가 예정)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감을 활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 정보를 인지하려는 감각

3) Myers & McCaully(1985), 김종철(2006), 신은정(2017), 최영임(2017)

4) ①에너지방향: 외향(E)-내향(I) ②인식기능: 감각(S)-직관(N) ③판단기능: 사고(T)-감정(F) ④생활양식: 판단-인식(P)

5) 인지적 영역: 학습계획 및 과정수립, 학습결과 평가.

정의적 영역: 학습동기, 자아개념·학습자적 신념.

행동적 영역: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

형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면에 숨은 의미 등을 통해 인지하려는 직관형의 차이는 교수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선호지표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있어 노래,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수업활동에서도 일부 활용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감각형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배운 표현이 들린 것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변에 보이는 일본어를 보고 읽거나(지하철 역명, 이자카야 메뉴, 영화 포스터), 일상생활 표현을 익히기 위해 인스타를 팔로우 하거나(쇼핑, 아이스크림) 어플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였고, 가족의 부탁으로 일본용품 홈페이지에서 가타카나를 찾아보고, 기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나 직장인의 애환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등을 찾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기 쉬운 실용적인 정보를 통해 일본어를 접하려 하고 있었다. 반면에 직관형은 배운 표현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본의 속담이나 사자성어, 히라가나의 역사, 일본의 학문명 등에 대해 찾아보는 등 새로운 탐험적인 정보들에 관심을 보였다. 또,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가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의 장면에서 나왔던 게 생각이 나서 단어를 기억하기 쉬웠다거나, J-pop의 가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표현이 많아 난이도가 있음에도 몇 문장씩 의미를 찾아보며 익히는 점을 보면 직관형 학습자들은 그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과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 4.3 사고(I)-감정(F)의 학습운동(\*학습일지 내용은 발표자료에 추가 예정)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척도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사고형과 사람 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감정형은 외향형과 내향형 외에 수업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호지표이다. 학습일지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익히는 과정을 보면 사고형은 배운 예문을 어휘, 조사, 문형 등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며 습득하고 있었다. 사고형 학습자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학습내용과 수업활동을 선호하고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내리기를 선호하는 것이 학습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감정형은 함께 듣는 동료와의 친밀감이나 교사와의 정서적 교류 등 학습서포터의 존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다. 사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동료들과 그룹을 이루어 사내 동호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 기초과정이 수료된 후에 회화레벨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권유표현’(まじょう(か)/ませんか)을 활용하여 약속을 잡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한다. 수업활동에서 연습했던 내용임에도 다수의 감정형 학습자들 모두 처음 접하는 테스트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 ‘왜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잡아야하나?’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점이 사고형 학습자들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었다. 그러나 감정형 중에서도 내향형 학습자가 수업에서 다른 학습자나 교사와의 친밀감을 느끼는지 등은 교수자가 단기간에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보통의 입문 수준의 사내 일본어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약 1년여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반기는 감정형-내향형 학습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면서도 특히 내향형 학습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조금해하지 않는 인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4 판단(J)-인식(P)의 학습운동(\*학습일지 내용은 발표자료에 추가 예정)

분명한 계획을 통해 구조화하는 것을 통해 목표와 결과 획득에 초점을 두는 판단형과 감각이나 직

관을 통해 과정과 지속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는 인식형은 자기주도성 검사 결과 표면적으로 판단형 학습자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이병임·정순례, 2003; 최정희, 2011; 한수정, 2013; 서갑주, 2015)에서 계획을 세워 이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판단형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한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흥미를 느끼며 신선한 방법을 선호하는 인식형의 학습운용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환경에서도 동일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일지를 통해 살펴본 인식형 학습자의 경우 실제로 배운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기보다 스스로 관심있는 주제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양이 먹이, 인테리어, 역사, 문방용품, 낚시 등). 다만,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꾸준히 유지하지는 않았으며, 학습일지를 제출할 때에도 판단형 학습자들보다 미루었다가 몰아서 할 때가 많았다. 그 외에도 수업활동에서 주로 게임이나 노래를 통해 익혔을 때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꼽을 때가 많았다. 판단형이 즐거운 수업활동은 수단으로 학습내용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과는 달리, 인식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교수자가 당황해 하거나, 스스로의 예상과 다른 수업활동을 했을 때 오히려 학습내용이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 5. 나오며

본 연구는 사내 일본어 교육을 수강하는 직장인 학습자들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까지 어떠한 활동이나 과정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일지를 활용하였으며 성격유형 선호지표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을 두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1) 외향형(E)-내향형(I): 수업 초기에는 외향형 학습자 위주로 수업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학습 분위기 형성을 한다. 또한, 업무상 결석 시에는 외향형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간략히 구두로 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내향형 학습자에게는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발표와 같은 활동은 뒤에 배치되도록 한다. 학습일지를 통해 관심사를 파악하여 라포를 형성하며 교사의 질문에 반추할 시간을 주어 학습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감각형(S)-직관형(N): 감각형 학습자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에 더 흥미를 가지는 만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어도 혹은 난이도가 있어도, 실제 일본인들의 생활 영상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어휘나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직관형 학습자의 경우에는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퀴즈(예:연상 단어)나 게임(범인 찾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또 새로운 학습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 활용하거나, 스스로가 선호하는 주제에 대해 다른 감각형 학습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사고형(T)-감정형(F): 사고형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는 문형이나 표현을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비슷한 활용끼리 비교하는 교수법을 추천한다. 또는 학습자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도록 과제로 대체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겠다. 감정형 학습자는 교수자 외에 동료와의 라포가 충분히 형성시킬 필요가 있으나, 내향형의 감정형인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4) 판단형(J)-인식형(P): 판단형이 학습계획을 세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방향성을 제안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해진 주제에 따른 과제수행을 선호하는 만큼, 명확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식형은 과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교수자는 적극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격유형 선호지표별로 학습일지의 내용을 개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개인적 특성인 성격이 실제 수업을 통해 일본어 학습자가 학습운용을 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운용 사례와 같은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생각한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포괄적인 학습운용능력이 성격유형 선호지표별 학습몰입이나 학업성취도 등의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田中茂範(2011)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英語教育における発問力」『ARCLE REVIEW NO.5(研究紀要第5号)』ベネッセ教育総合研究所, pp.6-16.
- 김선영(2018) 「학습자 주도적 맞춤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의 개념과 성격: 미국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 36(3), 한국교육과정학회, p.49-70.
- 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2003) 『MBTI 개발과 활용』 Myers, I. B, & McCaully, M.H. (1985) *Theory, Psychometrics, Application*.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종철(2006) 「한국 고등학생/국내 고등학생의 프랑스어 학습전략-MBTI성격유형과 Keirsey의 4기질을 중심으로-」『프랑스어문 교육』 23,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pp.53-80.
- 박혜진(2021) 「비대면 환경에서 실시간과 비실시간 수업 운영 사례 연구-교직 수업을 중심으로-」『문화와 융합』 43(4), 한국문화융합학회, p.173-192.
- 배을규·이민영(2010) HRD기업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HRD연구 한국인력개발학회 12(3), pp.1-26.
- 서갑주(2015) 『MBTI 성격유형과 U&I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탐색적 분석』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 徐ユリ(2022) 「社会人学習者における日本語授業の実践報告—MBTI性格類型別好む授業方法と満足度を中心にして—」『일본문화학보』 93,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5-313.
- 신은정(2017) 「학습자의 심리유형과 선호하는 학습형태에 관한 일고찰-한국인 일본어 전공자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 3(2)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35-49.
- 유수연(2019) 「학습일지를 통한 독일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연구」『외국어로서의 독일어』 44, 한국독일어학회, pp.5-32.
- 이병임·정순례(2003) 「전문대 여학생의 MBTI 성격 유형 및 Holland 직업선호도 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교육심리연구』 17(2), 한국교육심리학회, pp.127-145.
- 임난영(2017) 『중학생 어휘학습 전략 요인이 영어 독해 능력에 미치는 연구: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영임(2017)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영어 말하기 활동 차이 분석」『한국심리유형학회지: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8(2) 한국심리유형학회, pp.27-48.
- 최윤경(2013) 「중국어 기초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전략의 관계」『중국언어연구』 46, 한국중국어학회, pp.125-149.
- 최정희(2011)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전략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日本語教育』 56,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73-95.
- 한수정(2013)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별 학과만족도와 학업성취도」『한국성인간호학회』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 p.96

# 일본어 유의어의 사용구분에 대한 연구

— 「健康な/健やか/ヘルシー」의 공기명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

박윤선(고려대)

## 1. 들어가며

일본어는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크게 3종류로 분류되며, ‘健康/健やか/ヘルシー’와 같이 어종은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유사한 어휘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이 어종이 다른 유의어를 일본어 모어화자는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언어가 지닌 이미지나 뉘앙스 등을 통해 유의어가 가진 미묘한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周,2014; 高,2016),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파악과 더불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장을 검토하고, 유의어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健康/健やか/ヘルシ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健やか/ヘルシー’의 의미에 ‘健康’가 기본 의미로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으며, ‘ヘルシー’의 경우에는, ‘健康的なさま/健康に関するさま’라고 설명이 되어있어 여기서 제시하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전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각 유의어가 지닌 특징이나 사용 구분에 대해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사용되는 실제 문장 속에서 공기하는 단어를 검토하여 어종별 단어에 대한 사용양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健康/健やか/ヘルシー’가 나형용사 형태를 보일 경우에 공기하는 명사를 추출하여, 그 특징을 바탕으로 어종에 따른 사용구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健康/健やか/ヘルシー’에 대한 모어화자의 인식 조사

유의어 관련 연구는, 모어화자 대상의 유의단어에 대한 인식조사 및 각 어종에 따른 뉘앙스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를 시작으로, ‘新しい/新た/新鮮/フレッシュ’ 나 ‘幸福な/幸せな/ハッピーな’ 등, 특정 유의어의 용례를 조사하여 사용상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高, 2016; 高草木, 2019).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健康/健やか/ヘルシー’과 관련한 인식조사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周,2014).

周(2014)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健康/健やか/ヘルシー’에 대해 어떠한 뉘앙스를 느끼는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健康’는 ‘俗っぽい・生活感がある(37.62%)’ ‘硬い(28.71%)’ ‘親しみやすい(16.83%)’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健やか’에 대해서는 ‘柔らかい(26.73%)’ ‘古い(17.82%)’ ‘温かい

(16.83%)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외래어인 ‘ヘルシー’에 대해서는 ‘おしゃれ(42.57%)’ ‘新しい(21.78%)’ ‘軽い(13.86%)’ 라고 대답한 비율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장면에 따른 사용구분과 관련해서는, ‘健康’의 경우, ‘일상회화(90.1%)’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健やか’는 ‘일상회화’에서의 사용이 28.71%, ‘공적인 장면’에서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49.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ヘルシー’는 ‘일상회화(84.16%)’ ‘공적인 장면(17.82%)’ 순으로 나타나, 외래어가 주로 일상회화에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周(2014)의 조사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어중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유의한 자료라 할 수 있지만, 일본인 모어화자가 실제 문장에서 어중에 따라 어떠한 단어와 결합하며, 어떻게 변별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용례를 통해 유의어간의 사용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2 사전적 의미

본 연구에 앞서, ‘健康/健やか/ヘルシ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각 단어의 의미 정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1> ‘健康/健やか/ヘルシー’의 사전적 의미

	広辞苑(第6版)	明鏡国語辞典(第3版)
健康	(health)身体に悪いところがなく心身がすこやかなこと。達者。丈夫。壮健。また、病気の有無に関する、体の状態。	①体の状態。 ②(病気や怪我などがなく)心身ともにすこやかで、元気なこと。 ③考え方などにかたよりがなく、健全であること。
健やか	病気をせず、からだの丈夫なさま。健康。すくやか。すくよか。	体が丈夫であるさま。心身が健全であるさま。
ヘルシー	健康的なさま。また、体によいこと。	健康に関するさま。健康によいさま。

사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서 제시된 의미기술을 살펴보면, ‘健康’ ‘体’ ‘心身’와 같은 특정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의 설명을 통해 모든 단어가 ‘무언가가 건강하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단어의 반복적인 의미기술로 인해 ‘건강하다’는 대상이 주로 사람이나 신체와 관련된 대상에만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에, 각 단어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의미하는 것인지 결합하는 공기어의 검토를 통해 자세하게 ‘健康/健やか/ヘルシー’의 사용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健康/健やか/ヘルシー’의 경우, 기본형은 명사지만, 사전의 의미기술에 健康な/健やかな/ヘルシーな와 같이 주로 형용사화된 예시가 기술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단어의 ‘나형용사



형+명사' 패턴에 주목하여 명사 공기어를 추출하여, 각 단어의 사용상의 차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Webデータに基づく形容詞用例データベース'(이하, 형용사 web DB)를 활용한다. 본 형용사 web DB는 국립 국어연구소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형용사 연구용 언어 데이터로, web상에 나타나는 용례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어의 형태별 공기어와 용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데이터 검색을 통해 수식 대상에 대한 공기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코퍼스를 사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3.2 분석방법

'健康な/健やかな/ヘルシーな'와 공기하는 명사의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어휘표(2004)'를 참고하여, <표1>과 같이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표2> 공기명사의 특징에 따른 의미분류

의미분류		
人間活動の主体	사람	사람이나 특정한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 예) 人, 男性, 成人, 人間, 社会
人間活動	심리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과 관련된 명사 예) 心, 感じ, 気分
	행위	인간의 행동/활동과 관련된 명사 예) 眠り, 暮らし, 生活
抽象的關係	시간	시간과 관련된 명사 예) 毎日, 年, 未来
	사항	추상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명사 예) 状態, こと
自然物及び自然現象	신체 및 생물	사람의 신체나 생물과 관련된 명사 예) 体, 皮膚, 毛, 動物, 植物
	신체 및 생물의 현상	생물 등의 특정 현상과 관련된 명사 예) 発育, 成長
生産物および用具	물질/사물	구체적인 특정 개체/물건을 나타내는 명사 예) 料理, 食品, 鍋

## 4. 결과 및 고찰

'健康な/健やかな/ヘルシーな'와 공기하는 명사를 통해 사용양상 및 의미분류에 따른 출현빈도를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나타났다.

<표3> 어종별 공기명사의 특징에 따른 의미분류와 출현빈도(괄호는 비율)

의미분류		健康	健やか	ヘルシー
人間活動主体	사람	<b>137(30.1%)</b>	13(3.0%)	8(2.5%)
人間活動精神及び行為	심리	9(2.0%)	29(6.6%)	17(5.3%)
	행위	60(13.2%)	56(12.7%)	45(14.0%)
抽象的關係	시간	15(3.3%)	35(8.0%)	3(0.9%)
	사항	82(18.0%)	37(8.4%)	33(10.3%)
自然物及び自然現象	신체 및 생물	<b>126(27.7%)</b>	<b>70(16.0%)</b>	18(5.7%)
	신체 및 생물의 현상	26(5.7%)	<b>199(45.3%)</b>	0
生産物および用具	물질/사물	0	0	<b>196(61.3%)</b>
합계		455(37.6%)	439(36.1%)	320(26.3%)

#### 4.1 ‘健康な’의 특징

‘健康な’와 결합하는 공기 명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와 공기하는 경향을 가장 많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며(30.1%), ‘健康な人’ ‘健康な子供’ ‘健康な者’ ‘健康な男性’ ‘健康な赤ちゃん’ 과 같이 인물을 나타내는 단어와의 공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健康な歯’ ‘健康な髪’ ‘健康な身体’ ‘健康な猫’ 등, 사람의 ‘신체 및 생물’과 관련된 명사와의 공기가 27.7% 로 나타났다. ‘健康’의 경우, 주로 사람 및 생물의 신체적 상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보이는 한편,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와 공기하는 경우는 ‘健康な心’의 뿐이었다.

이를 통해 ‘気分’ ‘氣’와 같이 사람의 기분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에는 ‘健康な’와 결합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본 연구에서는 ‘健康な食品’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물건과 공기하는 용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를 통해 ‘健康な’의 경우, 무생물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거의 공기할 수 없으며, 주로 유생물과의 관련된 단어의 공기가 기반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4.2 ‘健やかな’의 특징

‘健やかな’와 공기하는 명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健やかな成長’ ‘健やかな発達’ ‘健やかな 育ち’와 같이, 사람이나 생물의 특정 현상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45.3%). ‘健康な’와 동일하게 ‘健やかな体’ ‘健やかな肌’ ‘健やかな髪’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16.0%), ‘肌’나 ‘足’ 등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된 단어에 공기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무생물과는 거의 공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健康な’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3 ‘ヘルシーな’의 특징

‘ヘルシーな’와 공기하는 명사의 특징으로는 ‘ヘルシーな料理’ ‘ヘルシーな食事’ ‘ヘルシーな 食品’과 같이 음식과 관련된 단어와의 공기어가 대부분이며(61.3%), ‘健康な/健やかな’가 무생물을 나타내는 단어와는 거의 공기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ヘルシーな’의 경우 ‘人間’이나 ‘身体’와 같이 유생물과 관련된 단어보다 주로 ‘菓子’ ‘ドーナツ’ 등 무생물 단어와 공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成長’ ‘發育’과 같이 생물이나 사람과 관련된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와의 공기도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확인 할 수 없었다.

본래 영어의 Healty의 의미를 확인해보면, ‘건강한-’ ‘건강에 좋은-’ ‘건강함을 보여주는-’ 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ヘルシな’로 사용되는 경우, 본래 영어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건강에 좋은-’ 의 의미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용례가 대부분이다. 彭(2003)는,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의 경우, 영어의 본 의미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의 의미만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소위 ‘의미축소’ 현상이 일어나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ヘルシーな’의 경우, 이러한 의미축소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 5. 마치며

본 연구에서는 ‘健康な/健やかな/ヘルシーな’를 대상으로 코퍼스를 활용하여 각 단어와 공기하는 명사를 기반으로 어종에 따른 사용양상의 차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健康な’의 경우, 주로 ‘健康な体’ ‘健康な身体’와 같이 사람이나 생물의 신체적 상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보이는 한편, ‘健やかな’는 ‘健やかな成長’ ‘健やかな育成’과 같이, 사람이나 생물의 특정 현상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ヘルシーな’의 경우, ‘食品’ ‘食べ物’ 같이 음식과 관련된 단어와의 공기어가 대부분으로, 주로 무생물의 성격을 지닌 단어와의 공기가 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健康な/健やかな’의 경우, ‘年’ ‘暮らし’ 등의, 공통된 공기어가 존재하는 용례를 확인하였는데, 이후에는 어종별 문장에서의 사용 분석을 통해, 명사의 의미분류를 기준으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高恩淑(2016) 「일본어 형용사 유의어의 사전 의미 기술과 공기어 분석을 통한 의미 변별 연구」 『日本語教育研究』 第35輯, 韓国日語教育学会, pp.59-77.
- 国立国語研究所(2004) 「国立国語研究所資料集14 『分類語彙表-増補改訂版』」
- 周慶玲(2014) 「語種による類義語使用の特徴-大学生に対する調査に基づいて」 『静岡産業大学情報学部研究紀要』 第16集、静岡産業大学情報学部、pp.33-44.
- 高草木美奈(2019) 「幸福な/幸せな/ハッピーな」の一考察 -被修飾語のうちモノ名詞を中心に- 『日本語教育研究』 第47輯、韓国日語教育学会、pp.89-106.
- 彭 飛(2003) 『外国人を悩ませる日本語から見た日本語の特徴-漢字と外来語編』, 凡人社.

## <자료>

- 国立国語研究所 「Webデータに基づく形容詞用例データベース」(<https://csd.ninjal.ac.jp/adj/index.php>) (검색일: 2023.05.25.)
- 北原保雄(編)(2020) 『明鏡国語辞典』 第3版、大修館書店
- 新村 出(編)(2008) 『広辞苑』 第6版、岩波書店.

#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화제전환에 관한 연구\*

森田佳子(高麗大)

## 1. 서론

대화는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다. 대화는 다양한 화제들이 모여 전개되는데 이때 화제전환은 대화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화제 전환 시에는 선행화제가 점차적으로 종료되고 새로운 화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행동이 사용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급 수준의 일본어 학습자가 적절한 문법 사용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화제전환 표현을 사용하거나(木暮2002), 일본어 모어화자와 학습자 간의 화제전환 방식(스타일)의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다(楊2005, 蔡2011). 한편 화제전환은 대화 진행 중에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蔡2011)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는 대부분 화제 종료부와 개시부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대화 참가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화제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인접화제의 내용적 관련성에 따른 화제전환 유형의 연계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화제전환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가 화제전환 시 어떠한 행동과 표현을 주고받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화 참가자 간 상호작용 관점과 화제 내용적 관점에 따른 화제 전환 유형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화제전환 행동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어 학습자가 수준 높은 담화 운용 능력을 갖추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입장

### 2.1 선행연구

화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화제전환 유형에 관한 연구며, 이는 다시 대화 참가자 간 상호작용적 관점(楊2005, 佐々木2006)과 화제 내용적 관점(村上·熊取谷1995, 南1981)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화제전환 행동(1)에 주목한 연구이다(메이너드1993, 中井2003).

楊(2005b)는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접촉 장면을 대상으로 대화 참가자 간 상호작용 관점에서 화제 종료부에 주목하여 화제전환의 유형을 밝혔다. 분석 결과, (1)협동적 전환, (2)일

\* 본 요지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1) 본 연구에서는 '화제전환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선행연구마다 쓰이는 용어가 다르다.村上·熊取谷(1995)는 '화제 결속성 표지행동(話題における結束表示行動)', 메이너드(1993)는 '전환 전략(転換ストラテジー)', 中井(2003)는 '언어적 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방적 전환, (3)무표지 전환, (4)돌발적 전환의 네 가지 유형이 관찰되었다.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서로 종료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화제가 도입되는 협동적 전환의 사용 비율이 75%였다. 반면에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화제 종료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村上·熊取谷(1995)는 일상대화의 자유대화를 대상으로 담화 내용적으로 인접화제 간의 연결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나타나는 결속성 표지행동(2)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파생형(派生型), (2)신출형(新出型), (3)재생형(再生型)의 세 가지의 유형을 밝히고 있다. 유형마다 결속성의 강도에 차이가 있으며<sup>3)</sup> 이에 따른 결속성 표지행동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본어 및 영어 모어장면을 대조 연구한 메이너드(1993)는 화제전환 시 사용되는 언어 및 비언어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어 모어장면에서는 (1)대화 중의 일시정지, (2)마무리 및 평가표현, (3)한정된 반응<sup>4)</sup>, (4)문장부사(메타언어표현), 접속부사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中井(2003)는 일본어 모어화자의 첫 대면 대화를 대상으로 화제 개시부 및 종료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요소를 5단계 20항목으로 정리하였다. 中井(2003)는 대화의 두 참가자 역할을 ‘정보제공자’와 ‘정보협력자’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역할에서 사용된 언어적 요소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특징을 밝혔다. 특히 화제 종료부에서는 제공자 및 협력자 모두가 평가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평가표현은 화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화제가 고조됨에 따라 화제종결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2 본 연구의 입장

화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진 유형 연구와 화제전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화제 종료부와 개시부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화제전환은 선행화제의 종료부에서 새로운 화제가 도입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화제전환 연구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대화 참가자들은 하나의 화제를 종료할 때 서로 어떠한 행동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지, 이때 도입하는 화제 유형에 따라 화제전환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화제전환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1) 화제전환을 상호작용적 유형과 내용적 유형을 연계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화제 종료행동 및 개시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 2) 각 유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화제전환의 특징을 밝힌다.

## 3. 분석 자료 및 방법

### 3.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BTSJ日本語自然会話コーパス(トランスクリプト・音声)2021年3月版(이하, BTSJ코퍼스)』

- 
- 2) ‘결속성 표지행동(結束性表示行動)’은 선행화제의 종료부와 후속화제의 개시부 간에 나타나는 언어 혹은 비언어행동을 말하며, 이는 화제 간 결속성의 강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村上·熊取谷:1995).
  - 3) 결속성의 강약을 부등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신출형<재생형<파생형(村上·熊取谷1995).
  - 4) ‘한정된 반응(限られた反応, minimal response)’은 맞장구, 반복, 웃음 등이 포함된다(메이너드1993:143).

중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友人同士雑談」 총 30건의 대화 자료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친한 사이의 여성 간 1대1의 자유대화이다.

### 3.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어 모어화자 다섯 명이 화제 구분 조사를 실시한 후, 세 명 이상의 표시가 일치한 부분을 화제전환으로 인정한다.
- 2) 화제 종료부의 종료행동을 추출한 후, 참가자 간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유형을 분류, 유형별 종료행동의 사용빈도를 산출한다.
- 3) 화제 내용적 유형으로 분류한 후, 첫 도입 발화에 나타난 화제 개시행동을 추출하고 사용빈도를 산출한다.
- 4) 앞서 분류한 상호작용적 화제 종료 유형(네 가지)과 화제 내용적 유형(세 가지)을 연계한 화제전환 유형에서 화제 종료행동과 개시행동을 추출하고 분석한다.

#### 3.2.1 화제 종료부

##### (1) 화제 종료행동의 종류

화제 종료부에 나타나는 언어행동은 中井(2003)를 참고로 ①맞장구, ②반복, ③평가/마무리 표현을, 비언어행동은 메인어드(1993)와 村上·熊取谷(1995)를 참고로 ④침묵, ⑤웃음, ⑥성량의 변화, 총 여섯 가지를 고려한다.

##### (2)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 화제 종료 유형의 분류

대화 참가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화제를 종료시키는지 상호작용 관점에서 분석한다. 상호작용적 화제전환 분류는 앞서 추출한 화제 종료행동의 유무로 분류한다. 楊(2005)를 참고로 ①협동적 종료, ②일방적 종료, ③암묵적 종료, ④돌발적 종료로 나눈다.

<표1> 상호작용적 화제 종료 유형

유형	정의
① 협동적 종료 (協働的終了)	각 대화 참가자가 최소 한 번 이상 언어, 비언어행동을 교환하며 협동적으로 화제를 종료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화제 종료에 동의)
② 일방적 종료 (一方的終了)	대화 참가자 중 한 명만 언어, 비언어행동을 사용하여 화제를 종료하고 해당 화자가 후속 화제를 도입하는 경우(한 사람만 화제 종료에 동의)
③ 암묵적 종료 (暗黙的終了)	대화 참가자 중 한 명만 언어, 비언어행동을 사용하여 화제를 종료하고 다른 화자가 후속 화제를 도입하는 경우(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화제 종료에 동의)
④ 돌발적 종료 (突発的終了)	대화 참가자 모두 언어, 비언어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화제가 도입되는 경우(두 사람 모두 화제 종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3.2.2 화제 개시부

(1) 인접화제 간 내용적 관련성에 따른 화제전환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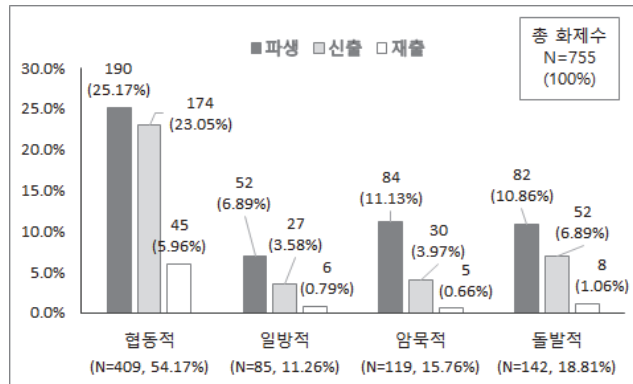
村上・熊取谷(1995)를 참고로 화제와 화제의 내용적 관련성에 따라 ①파생형 화제, ②신출형 화제, ③재출형 화제 세 가지로 분류한다.

(2) 화제 첫 도입 발화의 화제 개시행동.

화제 첫 도입 발화에 나타나는 개시행동은 楊(2009:46)를 참고로 ①인식변화를 나타내는 표현<sup>5)</sup>, ② 열거/인용표현<sup>6)</sup>, ③머뭇거림<sup>7)</sup>, ④접속표현, ⑤메타언어표현<sup>8)</sup>, ⑥호칭 ⑦침묵을 고려한다.

## 4.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총 화제수 755건 중 협동적 전환이 409건(54.1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돌발적 전환 142건(18.18%), 암목적 전환 119건(15.76%), 일방적 전환 85건(11.26%)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협동적 파생형이 190건(25.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동적 신출형이 174건(23.05%)으로 많이 나타났다. 즉,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는 협동적 전환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전체 화제 수에서 각 화제전환 유형의 사용빈도

화제전환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협동적 파생형 화제전환에서는 맞장구나 평가표현 등 다양한 화제전환 행동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협동적 신출형 화제전환에서는 개시행동으로 침묵과 메타언어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일방적 신출형 화제전환에서는 침묵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침묵이 많이 사용되는 신출형 화제라도 대화 참가자들이 선행화제를 어

5) 화자의 내부정보를 처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田窪・金水1997). 예)「あっ、そいえば、この前」

6) 도입하는 화제 뒤에 붙어서 화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 예)「面接とか」、「テストって、」

7)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하는 표현(つなぎ言葉). 예)「私、なんか」

8) 자신이나 타인(他者)이 말한 말 혹은 이제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표현(西條1999). 예)「ってい  
うか、あの子」、「話変わるんだけど」

떻게 종료하느냐에 따라 개시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방적 전환과 돌발적 전환은 그 유형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고 강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방과 관련된 화제 혹은 공유된 화제를 선택하여 상대방에게 친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화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생형과 신출형 화제에서 나타난 개시행동은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 화제전환 유형에 따라서 화제전환 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재출형 화제의 경우 사용빈도가 매우 적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 여성 모어화자의 자유대화를 대상으로 화제전환 시 어떠한 행동 및 표현을 주고받는지 상호작용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친소관계나 성별, 사회적 속성에 따른 화제전환 비교연구도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화제전환 시 사용되는 표현형식과 그 기능, 신체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행동에 중점을 둔 화제전환 연구 또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木暮律子(2002) 「日本語母語話者と日本語学習者の話題転換表現の使用について」『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 5, 凡人社, pp.5-23.
- 蔡諒福(2011) 「初対面会話における話題転換構造に関する一考察:日中社会人のデータをもとに」『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23, 神田外語大学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pp.1-19.
- 中井陽子(2003) 「初対面日本語会話の話題開始部/終了部において用いられる言語的要素」『早稲田大学日本語研究教育センター紀要』 16, 早稲田大学日本語研究教育センター, pp.71-95.
- 村上恵・熊取谷哲夫(1995) 「談話トピックの結束性と展開構造」『表現研究』 62, 表現学会, pp.101-111.
- メイナード・泉子・K(1993) 『会話分析』くろしお出版.
- 楊虹(2005) 「日中接触場面の話題転換-中国語母語話者に注目して-」『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30, お茶の水女子大学日本言語文化学研究会, pp.31-40.
- \_\_\_\_\_(2009) 『中日接触場面における話題転換の研究』(Doctoral dissertation未公刊)お茶の水大学, 博士論文.



# 일문지의 접사 고찰

— 『조선시보』의 ‘用’과 ‘向’을 중심으로 —

제옥경(부산대)

##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근대 초기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조선시보』<sup>1)</sup>의 기사와 광고 안의 접사적 용법 ‘用’과 ‘向’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어방식의 하나인 파생어를 구성하는 漢語系의 접사적 용법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점이 많다. 예로 ‘용도’를 나타내는 ‘~用’의 경우도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漢語系와는 달리 일본어에는 漢語系와 和語系의 유사한 용법이 있고 그 사용은 한국과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用’을 중심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向’과 비교, 기사와 광고의 제목, 부제목을 중심으로 양적 조사 후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범위는 『조선시보』의 DB자료<sup>2)</sup>를 중심으로 일본어 접사 ‘用’과 ‘向’의 출현기사와 광고를 통해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 2. 본론

### 2.1 ‘用’과 ‘向’의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용도’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용’이며 한자 ‘用’이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용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무용, 숙녀용, 신사용이 있다.<sup>3)</sup> 같은 표현으로 일본어 표현은 크게 한자어는 한국어와 동일하나 유사한 용법으로 일본어의 동사 ‘向く’와 ‘向ける’에서 활용한 표현 ‘向き’와 ‘向け’가 있다. 두 한자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접사적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用’은 어떠한 대상이 사용하거나 대상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를 나타낸다. 한편 ‘向’은 첫 번째로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 방향, 두 번째로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어울리거나, 적합한 것에 해당 마지

1) 『조선시보』는 1881년 12월, 책자 형태인 『朝鮮新報』를 시작으로, 1892년 12월 『釜山商況』으로 재발행, 『동아무역신문東亞貿易新聞』으로 명칭 변경, 휴간을 거쳐, 1894년 『조선시보』로 부산에서 재창간된 상업일간지이다. 『조선시보』는 일본의 구마모토현(熊本縣)에서 결성된 구마모토 국권당(國權黨)이 조선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국권당의 아다치 겐조(安達謙藏)가 창간, 사원을 비롯 주필 등의 간부 등이 거의 구마모토현 지역출신이었으며, 1941년 5월 조선총독부의 언론통폐합 방침으로 인해 『부산일보』에 통합, 폐간되었다. 하지만 초창기 1910년대에는 『부산일보』보다 조선과 일본에서 더 많이 배포되었고, 근대 초기 개항장이었던 부산의 다양한 사회·문화가 투영되어있는 중요한 신문자료이다. 채백(2012) 『부산언론사연구』산지니, pp.92-215

2) 자료 이용은 2017년부터 수행된 연구과제(NRF-2017S1A5B4055721) 조선시보의 DB의 한국어 번역으로 1914.11월부터 1940년 8월까지(결지)까지 입력이 진행되었고, 2023.7.15일자로 입력기사의 분량은 267,368건, 광고는 147,216건이 검색되었다.  
[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news](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news)  
[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ads](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ads)(검색일 2023.7.15.)

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국립국어원> (2023.7.15.검색)

막으로 어떤 대상, 혹은 행선지 또는 목적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상민(1990)은 접사 ‘用’의 경우는 어휘적 첨가의 의미의 ‘형태성’에 해당, 명사와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고, 向ける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장소로 보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예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서술한 것으로, 두 용례 모두 목적과 관련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한섭(2014)의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에서 ‘목적’은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뜻하며,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그 대상을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sup>4)</sup>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이한섭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用’과 ‘向’의 사전적 예시를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よう【用】’의 경우에는 「実験用」, 「学校用」, 「生徒用」은 「실험용」, 「학생용」, 「생도용」으로 한자음 그대로 번역이 가능하다. 의미로는 대상이기도 하며 목적이 되기도 한다. 반면 ‘むけ【向】’의 경우에는 「少年向けの本」, 「アメリカ向けの輸出品」은 「소년대상의 책, 소년용 책」 「미국행<sup>5)</sup> 수출품, 미국용 수출품?」으로 좀 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하겠다.

## 2.2 『조선시보』 기사의 ‘用’과 ‘向’

기사 속의 ‘用’과 ‘向’의 자료는 구축된 DB자료를 기본으로 이용하였으며, ‘用’의 용례를 모두 검색, 제목과 부제목을 중심으로 용례를 살펴보았다. 자료 중에서 어기의 자수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전에서 검색되는 명사화된 단어는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범위로 하여 부록으로 작성, 참고하였다.

### (1) 『조선시보』 기사의 ‘用’

기사에서 ‘用’을 사용한 기사는 3,434건으로 그중 접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182건으로 검색되었다. 그중 가장 많았던 형태는 2자 어기 + ‘用’으로 어기의 형태는 명사성 어기가 가장 많았다.

### (2) 『조선시보』 기사의 ‘向’

자료를 통해 해당 한자의 출현과 접사적 용법으로 분류한 총계를 <표1>로 정리하였다. 기사에서 ‘向’을 사용한 기사는 1,395건으로 그중 접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124건으로 검색되었다. 그중 가장 많았던 형태는 2자 어기 + ‘向’으로 어기의 형태는 명사성 어기가 가장 많았으나 ‘用’과 비교해 본다면 1자 어기부터 4자 어기까지 그 결합이 좀 더 다양하였다. 대신 ‘和語系’의 접사는 ‘漢語係’보다 생산력이 낮고 용례 수도 적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고찰에서도 ‘向’의 용례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 연대별 해당 한자의 분포/접사 건수

연대	기사		광고	
	用	向	用	向
1910	265	113	943	136
1920	1272	476	2430	162
1930	1783	748	1188	108
1940	114	58	130	3
총계	3434/182	1395/124	4691/705	409/61

4)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p.312

5) 자료의 向, 向き, 向キ, 向ける 표기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광고의 지면을 참고하기로 한다. 한편 向ける 사전적 의미는 행선지나 목적지로 볼 수 있는데 ‘~行’과의 논의는 본고에서 하지 않기로 한다.

‘向’의 시기별 용례를 살펴본 결과 2자 어기와 결합한 명사성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의미의 첨가는 ‘向키’ 첫째, 방향을 나타내고 둘째, 사용하는데 있어 알맞은 대상, 셋째는 ‘向키’의 사전상 의미인 대상, 사용을 위해 보내는 곳, 향하는 곳으로 의미가 첨가되었다. 그러나 표기에 있어서는 ‘向’의 한자어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과도기 신문지면상의 사정으로 추측된다. 다만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하면 ‘用’과 같이 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정용’, ‘여름용’, ‘도시락용’ 등으로 같은 의미의 첨가로 볼 수 있겠다.

### 2.3 『조선시보』 광고의 ‘用’과 ‘向’

#### (1) 『조선시보』 광고의 ‘用’

광고에서 ‘用’의 용례는 4,691건으로 그중 접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705건으로 검색되었다.<sup>6)</sup> 기사와 마찬가지로 형태는 2자 어기 + ‘用’으로 어기의 형태는 명사성 어기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의 특성상 부인용, 소아용, 미발용, 도시락용(辨當用), 여행용, 신사용, 학생용, 가정용 등의 단어들 이 반복 출현하였다.

#### (2) 『조선시보』 광고의 ‘向’

광고에서 ‘向’의 경우는 409건으로 그중 접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61건으로 검색되었다. 광고에서는 형태성이나 의미 첨가도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1930년대 출현한 ‘實用向革靴大安賣’의 광고는 단 1건이었으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경성일보와 조선신문에서 유사한 광고가 존재하였다. 광고 전문을 참고한 결과 접사 ‘~的’에 해당되었다.<sup>7)</sup>

## 3. 나가며

이상으로 살펴본 ‘用’과 ‘向’의 용례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2자 어기와 결합한 형태가 많았으며, 용례로는 명사 ‘家庭’과 ‘紳士’는 ‘用’과 ‘向’이 공통으로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930년대의 용례에서는 ‘應召’는 ‘用’과 결합, ‘應召者’는 ‘向’와 결합, 같은 어기의 단어도 다른 결합을 나타냈다. 나머지 비슷한 용례로는 ‘飲食物’은 ‘用’과 일본고유어인 お辯當는 ‘向키’와 결합을 보였다.

다음으로 기사 내용에서의 ‘用’과 ‘向’의 차이점은 ‘向’에서만 나타나는 결합의 용례이다. ‘~用’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국가나 도시와 같은 공간적인 명사와는 ‘向’이 결합하였으며, 대상이 넓어지는 경우처럼 滿洲國人, 大衆, 外人 등과도 ‘向’이 결합, 그 외에 시간을 나타내는 夏, 時節, 季節 등도 ‘向’과 결합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용도, 목적, 적합한 대상 등을 나타내더라도 ‘用’의 경우보다 ‘向’은 범위를 정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시간, 대상 등에 사용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표기상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向, 向키, 向키’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었다.

6) 기사와는 달리 광고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에 지속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록의 내용은 단발성을 제외하고는 그 빈도수를 표시하고 하나의 자료만 제시하였다.

7)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2023.7.15.검색\)](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2023.7.15.검색))

## <참고문헌>

『外国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事典』(第二版) (1975)文化庁

『日本国語大辞典』(1981) 小学館

『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編 第八刷)(1991)三省堂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채백(2012) 『부산언론사 연구』산지니

이상민(1990) 「日本語 接尾辭의 添加意味에 대한 研究」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터넷 검색】

[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news](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news)

[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ads](http://chosunsibo.kr/wp-admin/edit.php?post_type=ads)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npjs>

[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https://nl.go.kr/newspaper/keyword_search.do)

# 기시 야마지 「마의 보관 魔の寶冠」論

— 1930년대 『조선시보 朝鮮時報』의 연재소설 고찰 —

趙美玉(釜山大)

## 1. 서론

신문 『조선시보』는 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이다. 한일병탄 이전인 1892년 상업 및 경제 소식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상황』으로 창간되어, 1894년 아다치 겐조(安達謙造)에 의해 『조선시보』로 재창간되었다. 『조선시보』는 이른 시기에 발행된 만큼, 일본 도쿄, 중국 안둥 지부 등의 국외 지부와 조선 전국에 13개 지국을 둘 만큼의 전국적인 보급망을 갖추었다.<sup>2)</sup> 또한, 출판사업에도 적극적이어서 1876년에는 『도한자필휴渡韓者必携』<sup>3)</sup>라는 책을 발간한다. 이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건너 와서 생활하는데 편리는 도모하고, 1915년 조선시보사는 경상남도 공진회의 주관신문사로서 『제1회 경상남도공진회사무보고』를 발행하고<sup>4)</sup> 『경상남도 안내서』<sup>5)</sup>를 발간하는 등, 부산의 최고 신문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지지도와 발행 부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던 『조선시보』는 1941년 총독부의 언론 통제 정책에 따라 후발 신문인 『부산일보』(1907년 창간)에 통합되었다.

상업신문으로 출발한 『조선시보』의 지면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문예란이 많다는 것이다. 삽화가 곁들여진 연재소설과 강담 소설이 꾸준히 연재되었으며,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독자 투고란과 같이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코너가 있어서 독자가 직접 쓴 소설과 와카를 게재하였으며, 유명작가의 와카, 센류, 하이쿠 등의 전통시가도 꾸준히 실렸다. 극장의 발달과 함께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와 극장 광고도 매일 게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신문이 폐간되는 1940년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시보』의 문예물에 관한 연구는, 부산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극장과 연극의 실체를 중심으로 『조선시보』와 『부산일보』의 문예란을 비교하는 논문<sup>6)</sup>과 메이지 작가 오구리 후요(小栗風葉)를 중심으로 연재소설 작가를 연구한 논문<sup>7)</sup>, 운문 문예물을 중심으로 한 논문<sup>8)</sup>과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부산의

\* 부산대학교 박사 수료후 연구생

1) 정치가(1864~1948). 1928년 한성신보 사장. 같은 해 민비시해사건에 가담하여 구속된다. 이후 구마모토국권당 상무위원, 35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 이후 14회 연속당선. 이후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 1917년 7월 1일 지면에는 지국 소재지가 나타나 있다. 대구, 마산, 통영, 울산, 김천, 진주, 대전, 구포, 목포, 포항, 여수, 진해, 경성, 안동, 도쿄 등이다.

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대 한일외교자료 <https://db.history.go.kr/>(검색일: 2023.07.30.)

4) 김유경(2018), 「일제 강점기 부산 발행 일본어 신문에 대하여- 『조선시보』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pp. 385-403

5)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본인이 발견한 서적으로 부산대 도서관에서 책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6) 홍선영(2003), 「일본어신문 『조선시보朝鮮時報』와 『부산일보釜山日報』의 문예란 연구-1914년~1916년-」,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pp. 543-552

7) 이지현(2019), 「식민지신문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연재소설 작가 연구 -메이지 유행작가 오구리 후요(小栗風葉)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회연구』 110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 321-339

문화적 양상을 고찰하는 논문<sup>9)</sup> 등 많지 않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그치고 있어, 1930년대 『조선시보』 연재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는 『조선시보』와 『부산일보』를 비교한 논문으로 『조선시보』 연재소설에 관한 단독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1930년대 『조선시보』의 연재소설을 고찰하고(2장),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로서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기사 야마지 貴司山治 (1899~1973)<sup>10)</sup>의 작품 「마의 보관」(1931.9.1~1932.2.2)을 고찰(3장)하여 작가 기사 야마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프롤레타리아 사상의 한 틀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1930년대 『조선시보』의 연재소설 고찰

1930년대의 연재소설은 1면에서는 <신소설><신작소설><청춘소설><스포츠소설><괴기탐정소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15편의 대중소설이 실렸다. 4면(6면)에는 <강담> <신강담> 등의 강담물과 제목만 있는 역사물이 고정적으로 연재되어 16편의 작품이 실렸다. 연평균 소설 2편과 강담 소설 2편, 평균 연재일 180일로 매일 소설과 강담 소설이 연재되었다.

대중소설은 「거리의 해일街の海嘯<sup>11)</sup>」이 300회로 가장 긴 작품이다. 역시 나카가와와 작품으로 연재가 완결된 「사랑하는 자의 죄愛する者の罪<sup>12)</sup>」도 연재 기간이 긴 소설이다. 「녹색의 지옥緑の地獄<sup>13)</sup>」「태양에의 거리太陽への道<sup>14)</sup>」등이 연재 횟수가 200회가 넘는 소설들이다. 작품 전체가 보존된 유일한 작품은 「청춘환상곡青春幻想曲<sup>15)</sup>」(이쿠타 야오이生田葵)이다. 스포츠 소설<sup>16)</sup>과 괴기 탐정소설<sup>17)</sup>도 각 1편씩 있다. 강담 소설은 200회 넘게 연재된 소설이 6편이나 된다.

작가를 살펴보면, 나카노 아메노스케의 경우, 「사랑하는 자의 죄(1932)」와 「거리의 해일(1935)」을, 강담소설은 「젊은 주군 도보 여행기若殿膝栗毛(1939)」 등 3편을 집필하였다. 또한, 1925년에도 「검은 나비의 춤黒蝶の舞<sup>18)</sup>」을 연재하고 있다. 구니토모 유키치國友雄吉의 경우, 소설 「일본 만주 비곡 야수의 양식日滿悲曲 野獸の糧<sup>19)</sup>」과 강담소설 「선악도중기善惡道中記<sup>20)</sup>」 등 두 장르 모두 연재한 작가이다.

유일하게 전작이 남아 있는 「청춘환상곡」의 작가 이쿠타 아오이生田葵(1876~1945)<sup>21)</sup>는 구니키다 돗포, 나가이 가후 등과 함께 작품활동을 시작한 메이지기의 유명작가로 소화기에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간 작가이다. 「사랑을 좀 먹다愛を舐む<sup>22)</sup>」를 연재한 요시이 이사무吉井勇<sup>23)</sup>(1886~1960) 역시 이시카와

8) 나승희(2020) 「식민지 시기의 문학 담론과 일본어 신문의 전통시가 -1910~1920년대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운문 문예물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85권, 대한일어일문학회, pp. 117-132

9) 나승희(2019) 「1910~20년대 부산지역 일본어 신문에 대한 고찰-『조선시보』 「부산일보」소재 연재소설과 근대 초기 부산의 문화적 양상-」, 『일본어교육』 제89집,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pp. 141-152

10)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소설가. 극작가. 이후 기사라 함.

11) 「거리의 해일」:1931/7/1일(52회)~8/31(300회), 9월~10월 지면유실. 작가: 나카가와 아메노스케中川雨之助

12) 「사랑하는 자의 죄」:1932/2/3(1회)~ 9/23(234회), 5월~7월 지면유실.

13) 「녹색의 지옥」:1934/5/1일(96회)~8/31(213회),

14) 「태양에의 거리」:(1939/9/1(50회)~1940/2/29(215회).

15) 「청춘환상곡」:1935/12/3(1회)~1936/6/30(191회).

16) 「청춘에 채찍질하다說青春に鞭つ」(1933/7/1(11회)~12/30(178))

17) 「지하실地下室(1937/3/1(2회)~8/21(151회))

18) 「검은 나비의 꿈」:1925/5/1~7/17.

19) 「일본만주 비곡 야수의 양식」:1934/9/1(1회)~1935/2/28(170).

20) 「선악도중기」:1933/7/1(3회)~12/30(170회).

21) 일본의 소설가. 近代文獻人名辭典 <https://lit.kosho.or.jp>(검색일:2023.08.13)

다쿠보쿠石川啄木 와 함께 『스바루』 창간에 참여하는 등 소설가로서 가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유명작가였다. 이처럼, 30년대에 이르러 메이지의 유명작가와 무명작가의 작품이 연재되는 것은 1920년대와 변함이 없지만, 1930년대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이 연재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중, 기시 야마지의 존재는 특별하다.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문학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의 작품이 식민지 부산의 신문에 연재된 것은 흥미롭다. 다음 장에서는 작가 기시 야마지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겠다.

### 3. 기시 야마지의 『마의 보관』 고찰

#### 3.1 기시 야마지는 누구인가?

기시 야마지貴司山治(1899~1973)<sup>24)</sup>는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작가이다. 도쿠시마현德島県 나루토시鳴門市 다카시마高島출생으로, 다카시마는 일본 유수의 염전이 있는 섬으로 많은 염전 노동자들이 있어서 해마다 임금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이 극심하여 마을 전체의 싸움이 연례행사와 같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시 자신도 부친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혹독한 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친구를 도와 노동조합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들 노동조합과는 작가가 된 후에도 노동조합에 자금을 대는 등 관계를 유지한다.

스무 살 무렵 『오사카시사신보』의 연재소설 현상모집에 당선되고, 이를 계기로 기자로서 근무한다. 이후, 1927년 아사히신문사의 현상영화소설에 당선되어, 이듬해 1928년 1월 1일부터 「영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신문에 연재되며 도쿄로 이동하여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8년 8월부터 1929년 4월까지 『도쿄마이유신문東京毎夕新聞』에 「고 스톱ゴーストップ」을 연재하여 대중의 큰 인기를 끌었다.

「고 스톱」은 작가 자신이 3.15사건<sup>25)</sup> 후 조직이 와해하여 사분오열 사태를 맞고 있는 노동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대중소설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도쿄 고토지구江東地区 유리공장의 동맹파업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노동쟁의와 조직 활동에 전념하는 노동활동가들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그렸다. 작품은 대중의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노동자들이 작품을 외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 개인적인 영웅주의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점과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는 맞지 않는다고 극심하게 비판하였다..<sup>26)</sup>

기시는 프롤레타리아 작가 동맹(ナルプ)에 가입하고 있던 시기인, 1929년 5월경 아사히신문에 ‘지금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재미가 없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중요하다’라고 하며, 자신은 오직 ‘노동자 대중의 오락적인’ 소설을 쓸 것을 다짐,<sup>27)</sup>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의 프롤레타리아 진영 문학자들과 <예술 대중화 논쟁<sup>28)</sup>>에 휘말렸다.

22) 「사랑을 좀 먹다」:1931/1/1(17회)~2/28(71).

23) 일본백과사전<https://kotobank.jp/>(검색일:2023.08.13.)

24)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소설가. 극작가. 이후 기시라 함.

25) 1928년 3월 15일 일본 공산당 대 탄압사건. 공산당원 약 1600명을 검거. 이듬해인 1929년의 4·16사건과 함께 공산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26) 中川成美(1981) 「芸術大衆化論争の行方(上)―一九三〇年代文学試論―」, 『昭和文学研究』 30권 2호, 昭和文学会, pp. 21~27

27) 貴司山治net資料館<http://ito-jun.readymade.jp/> 伊藤純「ゴーストップ」書版発禁版書き起こし・解題凡例 (검색일:2020.07.29.)

28) 일반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고립 또는 고고孤高함에 대하여 예술과 대중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창출하기를 주장. 특히, 1920년에서 35년의 일본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의 기본 목적의 하나로 여겼다. 28년에는 이를 둘러싸고 <예술대중화논쟁>이

1931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사의 잡지 『戰旗』에 「버스차장 700명バス車掌七百人」을 연재하여 많은 인기를 얻는다.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검거와 출옥을 반복하던 기사는 1934년 전향성명서를 발표하지만, 노동자 문학을 지향하는 잡지 『문학안내(1935년 5월 창간, 1937년 4월 폐간)』를 창간하는 등 프로 문학 활동을 이어간다. 193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세 번째 검거되어 1년간 구류, 이후 기사는 완전전향하고, 이후 절필을 선언 교토의 농촌 개벽農村開闢에 종사하던 중 패전을 맞는다. 이때의 경험은 조선인 가족의 모습 등, 패전 후 약자에의 무한한 공감과 인간 희구<sup>29)</sup>를 추구하는 『단파아리랑丹波アリラン』 등에 그리고 있다.

이처럼 기사 야마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로서, 일하는 노동자 민중, 피 식민국민인 조선인 등, 약자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대중소설을 지향한 작가이다. 하지만, 대중문학을 지향한 기사는 일본 문학사에서 ‘잊혀진 작가<sup>30)</sup>’이다. 1987년 신일본출판사에서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学全集30 細田民樹 貴司山治集』이 출판되고, 그의 아들인 이토 준伊藤純이 소설을 복각하고 평전을 정비하여 온라인 자료관을 만들어서 작가의 부활에 도전하였다. 2011년 기사야마지 연구회가 꾸려지고 연구서를 출판하는 등 연구도 시작되었다. 2016년 6월에는 도쿠시마문학도서관에서 「貴司山治と小林多喜二」 전시회가 열리는 등 연구에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자 또한 예비하라 유타카海老原豊<sup>31)</sup>가 유일하다.

### 3.2 사민 평등은 가능한가?

소설 「마의 보관」은, 1931년 9월 1일(45회)부터 1932년 2월 2일(187회)까지 『조선시보』에 연재되었다. 소설은 연재가 종료된 완결 작품이다. 만약, 작품이 1회부터 연재되었다고 한다면, 『조선시보』가 평균 1개월에 2회 휴간한다고 가정했을 때, 1931년 7월 15일경에 작품 연재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에도 준 의 자료에 의하면, 작가 자신이 「마의 보관」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으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32)</sup> 기사는 동료의 권유로 「보관宝冠」을 집필하여 호평을 받은 후, 「마의 보관魔の宝冠」을 다시 연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44회까지는 『도쿄마이유신문東京毎夕新聞』에 연재되어 인기를 끌었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중단이 되어 『조선시보』에 연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설은, 도쿄 대지진 발발 후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다. 사가라백작의 아들 도시오는 부친의 사망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당대의 벼락부자인 아다치 시게조에게 저택을 넘기게 된다. 아다치의 딸 사카에와는 과거 어떠한 애정 관계를 맺은 듯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헤어져 원수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도시오의 아내 치카코는 급성 패렴에 걸려 도쿄대지진이 있기 전, 저택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던 중, 도시오의 품에 안긴 채 자동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대지진의 혼란으로 허탈한 도시오는 백작 가문의 모든 특권을 봉환하기로 한다. 하인을 내보내고 작은 집으

그 운동의 주요 잡지의 하나인 《전기戰旗》에서 약 반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6월호에 <いはゆる芸術の大衆化論の誤りについて>를 써서 통속화 영합 물타기 등의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 예술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것을 극심하게 논박하며 예술가의 굳은 자세로 대중의 진실에 다가가기로 요구했다.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https://kotobank.jp/worid/>(검색:2023.07.29.)

29) 貴司山治net資料館刊行物などのご紹介. 14)의 홈페이지(검색일:2023.07.29)

30) 池田浩士(2011) [書評] 貴司山治研究会・編『貴司山治研究』, 不二出版.

31) 「일제 강점기 한국 작가의 일러작품 재고-『文学案内』지「朝鮮現代作家特輯」을 중심으로(2009)」, 「貴司山治と徳永直から見た「芸術大衆化論争」とナルブ解散(2010)」, 「『文学案内』誌 研究-行動主義文学論議を中心に-(2011)」, 「『文学案内』誌 研究2- 實録文學と田村榮太郎の大衆文學のよみかた-(2012)」의 4편이다

32) 「私の文学史」,14)의 홈페이지 인용. (검색일:2023.07.29)



로 이사하여 탐정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 그러는 도시오 앞에 아다치 철공소에서 동맹파업 참가 이후 도망하는 처지가 된 청년이 나타나고 그 청년을 도시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사실은 공산주의자 청년이었다.

한편, 사카에는 아버지 아다치 시게조의 후원하에 정치인으로 유명한 58세의 백작과 결혼한다. 아다치는 딸의 결혼 축하 선물로 마리앙트와네트의 보관을 사 준다. 하지만 사카에는 대 지진으로 혼란한 시기에 보관을 잃어버리고 사설 탐정소에 수사 의뢰를 한다

연재의 시작(1931년 9월 1일, 44회) 은 마리 앙트와네트의 보관이 일본에 수입된 경위와 이를 둘러싼 사회의 비난을 소개하고 사카에의 결혼 소식과 도시오의 아내의 병과 이사를 앞둔 도시오의 상황을 간결한 문체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연재소설이라서 가능한 것으로 1회분에 소재목을 달고 등장인물을 모두 소개하고 중심 사건을 일제히 소개하여, 중간에 연재가 시작되었지만, 독자의 관심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사카에와 도시오의 연애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내의 빠른 죽음(9/1일 연재분에서 환자로 등장하여 9/9일 연재분에서 죽음을 맞는다)은 작품의 풍성한 플롯과 국면 전환에 훌륭한 서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만나게 될 두 사람의 이야기와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도시오의 내면의 갈등, 공산주의자 청년, 그리고 나타나게 될 조선인의 모습,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도시오의 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작가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읽히는 소설을 쓰기로 다짐하는 기시 야마지의 문학 세계가 전개된다

### 3. 결론

1930년대 『조선시보』의 연재소설은 대중소설과 강담 및 역사물이 꾸준히 연재되었다. 작가는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무명작가의 작품도 실렸지만, 당대의 유명작가,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와 작품이 다수 연재되어 있음을 보았다. 요시이 이사무, 이쿠타 아요이, 기시야마지 등이다.

기시야마지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대중소설을 지향한 1930년대 초반의 인기 있는 작가이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조직에도 전념한 작가이다. 그의 시선은 몰락 귀족, 노동자, 공산당원, 조선인 등, 혼란기의 흔들리는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관동대지진 이후의 혼란한 사회를 배경으로 이들 흔들리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절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프랑스 유학파요 법학을 전공한 사설탐정 도시오는 끝내 자신이 꿈꾸던 사민평등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만다. 값비싼 보관은 근대의 화려한 유산계급의 상징으로, 그것을 사고 잃고 찾는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과 당시의 사회상을 읽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유경(2018), 「일제 강점기 부산 발행 일본어 신문에 대하여-『조선시보』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5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pp. 385-403
- 나승희(2019), 「1910-20년대 부산지역 일본어 신문에 대한 고찰-『조선시보』 「부산일보」소재 연재소설과 근대 초기 부산의 문화적 양상-」, 『일본어교육』 제89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41-152
- 나승희(2020), 「식민지 시기의 문학 담론과 일본어 신문의 전통시가 -1910~1920년대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운문 문예물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85권, 대한일어일문학회, pp.117-132

- 에비하라 유타카(2011), 「『文学案内』誌研究-行動主義文学論議を中心に-」, 『동북아문화연구』 2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 513-533.
- 이지현(2019), 「식민지신문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연재소설 작가 연구 -메이지 유행작가 오구리후요小栗風葉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0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 321-339
- 홍선영(2003), 「일본어신문 『조선시보朝鮮時報』와 『부산일보釜山日報』의 문예란연구-1914년~1916년-」,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pp. 543-552
- 中川成美(1981), 「芸術大衆化論争の行方(上)-一九三〇年代文学試論-」, 『昭和文学研究』 30권 2호, 昭和文学会, pp.21-27
- 『プロレタリア文集30 細田民樹, 貴司山治』, 新日本出版社, 1987
- 貴司山治研究会編, 『貴司山治研究』, 不二出版, 2011
- 貴司山治net資料館, <http://ito-jun.readymade.jp/>(검색일:2023.07.2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검색일:2023.07.29)

# <朝鮮時報>에 보이는 전쟁관련 기사의 고찰

— 연재기사를 중심으로 —

金娜瑩(釜山大)

## 1. 서론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개항된 세 도시, 부산·원산·인천을 통해 조선으로 도항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 정착하면서 거류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거류민들에게 조선의 정보를 공유하고 본국의 문화 및 소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다양한 일본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이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청일전쟁<sup>2)</sup>, 러일전쟁<sup>3)</sup>을 일으켰으며, 이 두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요동반도 및 사할린 남부지방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대륙진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신문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보(朝鮮時報)><sup>4)</sup>는 1892년에 창간된 일본어 신문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경제 정보 전문지였다. 이후 시사지의 성격도 갖게 되면서 청일전쟁을 비롯하여 근대기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발발된 여러 전쟁<sup>5)</sup>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상황에 대한 보도를 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조선 최대의 미곡항이자 문화의 거점인 식민 근대 도시 부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문으로서의 <조선시보>는 당시 부산지역의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조선시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선시보>를 대상으로 한 어휘, 문학, 민속, 스포츠, 광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기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에서 전쟁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전쟁 상황의 흐름에 따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조선시보>에 보이는 여러 전쟁 관련 기사 중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1)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경성(현재의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통감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1906년 창간)를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36여종의 신문을 발행하였다고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보(朝鮮時報) 해제:

[https://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npjs.html](https://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npjs.html)(검색일:2023.07.30.)

2) 청일전쟁은 1894년~1895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이다.

3) 러일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일어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양국의 쟁탈전이었다.

4) <조선시보(朝鮮時報)>는 1892년 12월 5일 창간된 부산상항(釜山商況)을 1894년 11월 21일에 재창간한 일간지다. 부산상항은 경제 정보를 보도할 목적으로 창간하였으며 1894년 7월 동아무역신문(東亞貿易新聞)으로 제호를 바꿨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으로 휴간했다. 아다치 겐조(安達謙藏)가 이를 인수하여 1894년 11월 조선시보를 발간한다. 1938년 1월과 1940년 2월의 연속된 화재로 사세가 점점 기울며 고전을 면치 못하던 조선시보는 결국 1941년 5월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방침에 따라 부산일보에 통합되면서 폐간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신문해제/조선시보 <https://nl.go.kr/newspaper/index.do> (검색일 : 2023.07.29.)

5) 전쟁은 인류 역사상 선사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으며,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중에 있다. 근현대기의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있으며, 이들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으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연재기사를 중심으로 각 전쟁들의 진행 양상에 따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조선시보>에 보이는 전쟁관련 기사 양상

<조선시보>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당시의 전쟁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 「戰爭と人道(전쟁과 인간의 도리)」 「人口問題と戰爭(인구문제와 전쟁)」(1914.11.02./1면)과 같은 단편의 인터뷰 기사뿐만 아니라 「日獨戰報 無線電信所建設中止(<일독전보>무선전신소 건설 중지)」 「日獨戰報 英義勇兵出發(<일독전보>영국 의용병 출발)」 「日獨戰報 獨宣教師の使嗾(<일독전보>독일선교사의 사주)」(1914.11.02./1면) 그리고 「歐洲戰報 塙軍師團全滅(<유럽전보>오스트리아군 사단 전멸)」 「歐洲戰報 獨軍の大本營(<유럽전보>독일군대大本營)」 「歐洲戰報 塙軍窮地に陥る(<유럽전보>오스트리아군 궁지에 빠지다)」(1914.11.02./1면)와 같이 「日獨戰報(일독전보)」 「歐洲戰報(유럽전보)」 등의 소제목 아래에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유럽전쟁이 끝날 즈음인 1917년에는 「戰後國民の覺悟(一)~(十一)(전후 국민의 각오(1)~(11))」(1917.08.16./1면~1917.08.27./1면)와 같은 연재기사로서 심층있게 보도하고 있다.

### 2.2 전쟁관련 연재기사

<조선시보><sup>6)</sup>에는 전쟁 관련 연재기사가 총 10건이 확인되었다. 간행된 날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조선시보>에 게재된 전쟁관련 연재기사

번호	유형	신문날짜	면/단	제목	
				원문	한국어
(1)	기획 기사 <sup>7)</sup>	1917-08-16	1/3	戰後國民の覺悟(一)	전후 국민의 각오(1)
		1917-08-17	1/4	戰後國民の覺悟(二)	전후 국민의 각오(2)
		1917-08-18	1/2	戰後國民の覺悟(三)	전후 국민의 각오(3)
		1917-08-19	1/3	戰後國民の覺悟(四)	전후 국민의 각오(4)
		1917-08-20	1/2	戰後國民の覺悟(五)	전후 국민의 각오(5)
		1917-08-21	1/2	戰後國民の覺悟(六)	전후 국민의 각오(6)
		1917-08-22	1/3	戰後國民の覺悟(七)	전후 국민의 각오(7)
		1917-08-23	1/4	戰後國民の覺悟(八)	전후 국민의 각오(8)
		1917-08-24	1/3	戰後國民の覺悟(九)	전후 국민의 각오(9)
		1917-08-26	1/3	戰後國民の覺悟(十)	전후 국민의 각오(10)
1917-08-27	1/3	戰後國民の覺悟(十一)	전후 국민의 각오(11)		

6) 조선시보는 일제 침략 시기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으로 《朝鮮時報》 1914년 11월 2일부터 1940년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전산화한 것이다. 원본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수집되어 있다.

(2)	인터뷰 기사 <sup>8)</sup>	1917-10-06	91/3	戦争は何時終る乎 其勝敗は如何 (一) 某軍事通談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그 승패는 어떠 한가(1) 모 군사 통신담
		1917-10-07	91/3	戦争は何時終る乎 其勝敗は如何 (二) 某軍事通談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그 승패는 어떠 한가(2) 모 군사 통신담
		1917-10-08	91/1	戦争は何時終る乎 其勝敗は如何 (三) 某軍事通談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그 승패는 어떠 한가(3) 모 군사 통신담
		1917-10-09	91/3	戦争は何時終る乎 其勝敗は如何 (三) 某軍事通談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그 승패는 어떠 한가(3) 모 군사 통신담
		1917-10-10	91/3	戦争は何時終る乎 其勝敗は如何 (四) 某軍事通談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그 승패는 어떠 한가(4) 모 군사 통신담
(3)	기획 기사	1918-03-12	91/6	浦鹽近信	블라디보스토크 최근 소식
		1918-03-14	1/4	浦鹽近信(下)	블라디보스토크 최근 소식(하)
(4)	인터뷰 기사	1918-08-03	1/2	歐戰と日本の將來(一)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1)
		1918-08-04	1/2	歐戰と日本の將來(二)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2)
		1918-08-05	1/2	歐戰と日本の將來(二)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2)
		1918-08-08	1/2	歐戰と日本の將來(四)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4)
		1918-08-09	1/2	歐戰と日本の將來(五)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5)
		1918-08-10	1/2	歐戰と日本の將來(六)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6)
		1918-08-12	1/2	歐戰と日本の將來(六)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6)
		1918-08-13	1/2	歐戰と日本の將來(七)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7)
		1918-08-14	1/2	歐戰と日本の將來(七)	유럽전쟁과 일본의 장래(7)
(5)	인터뷰 기사	1924-09-27	1/1	對支所感(上)	중국에 대한 소감(상)
		1924-09-28	1/2	對支所感(上)	중국에 대한 소감(상)
(6)	인터뷰 기사	1924-09-10	3/5	動亂の支那と渦中の人物 (一) 前途の豫想は不可能	동란의 중국과 소용돌이 속의 인물(1) 전도 예상은 불가능
		1924-09-11	3/5	動亂の支那と渦中の人物 (二) 前途の豫想は不可能	동란의 중국과 소용돌이 속의 인물(2) 전도 예상은 불가능
(7)	기획 기사	1928-03-10	3/5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戰役を顧みて (一) 早や春秋二十二年は經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1)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 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1	3/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戰役を顧みて(二) 早や春秋二十二年は經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1)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 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2	3/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戰役を顧みて(三) 早や春秋二十二年は經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3)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 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4	1/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戰役を顧みて(四) 早や春秋二十二年は經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4)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 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5	1/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戰役を顧みて(五) 早や春秋二十二年は經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5)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 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6	1/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戰役を顧みて(六) 早や春秋二十二年は經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6)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 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7	1/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戦役を顧みて(七) 早や春秋二十二年は経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7)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18	1/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戦役を顧みて(八) 早や春秋二十二年は経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8)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좌 다카기 요시에다
		1928-03-20	1/2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戦役を顧みて(九) 早や春秋二十二年は経過 憲兵少佐 高木義枝	피와 살의 결정 일본 러시아 전쟁을 돌아 보며(9) 벌써 춘추 22년은 경과 헌병 소좌 다카기 요시에다
(8)	기획 기사	1937-09-07	1/4	支那事變日誌 盧溝橋事件に端を發して(一)	<중국사변 일지> 루거우차오사건에서 발단하여(1)
		1937-09-08	1/5	支那事變日誌 盧溝橋事件に端を發して(二)	<중국사변 일지> 루거우차오사건에서 발단하여(2)
		1937-09-09	1/6	支那事變日誌 盧溝橋事件に端を發して(三)	<중국사변 일지> 루거우차오사건에서 발단하여(3)
		1937-09-10	1/5	支那事變日誌 盧溝橋事件に端を發して(四)	<중국사변 일지> 루거우차오사건에서 발단하여(4)
(9)	기획 기사	1937-09-17	3/6	大同府の占據と山西、綏遠兩省に就て(一)	다툽부 점거와 산시성, 쓰이위안성에 대하여(1)
		1937-09-19	4/2	大同府の占據と山西、綏遠兩省に就て(二)	다툽부 점거와 산시성, 쓰이위안성에 대하여(2)
(10)	기획 기사	1939-04-29	1/8	英佛艦隊と獨伊空軍の爭覇 地中海制海權はいづれへ? 英佛獨伊開戦の場合(上)	영국 프랑스 함대와 독일 이탈리아 공군의 쟁패 지중해 제해권은 어디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개전의 경우(상)
		1939-04-30	1/2	英佛艦隊と獨伊空軍の爭覇 地中海制海權はいづれへ? 英佛獨伊開戦の場合(上)	영국 프랑스 함대와 독일 이탈리아 공군의 쟁패 지중해 제해권은 어디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개전의 경우(상)

### 3. 결론

본 발표에서는 <조선시보>에 보이는 여러 전쟁 관련 기사 중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재 기사를 중심으로 각 전쟁들의 진행 양상에 따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910년대에는 「戰後國民の覺悟」(1917), 「戰爭は何時終る乎其勝敗は如何 某軍事通談」(1918), 「浦鹽近信」(1918), 「歐戰と日本の將來」(1918)의 기사가 게재되어 당시의 유럽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는 「對支所感」(1924), 「動亂の支那と渦中の人物 前途の豫想は不可能」(1924), 「血と肉との結晶日露戦役を顧みて 早や春秋二十二年は経過 憲兵少佐 高木義枝」(1928)의 기사가 게재되어 중국동

7) 기획 기사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심층보도 형태의 기사로 일반적으로 기획/시리즈/특집/집중점검 등으로 구분된다.

8) 인터뷰 기사란 기자와 취재원이 접촉하는 여러 가지 대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대담과는 달리 대상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능동적인 취재 활동이다.

란 및 일러전쟁의 회고담과 관련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는 「支那事變日誌 盧溝橋事件に端を發して」(1937), 「大同府の占據と山西、綏遠兩省に就て」(1937), 「英佛艦隊と獨伊空軍の爭覇 地中海制海權はいづれへ? 英佛獨伊開戰の場合」(1939)의 기사가 게재되어 이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변에 대해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시점과 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과 여성노동자의 의식 변용

— 『우애부인』을 중심으로 —

김경옥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 1. 들어가기

본고는 전전 일본 최초의 여성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우애회 부인부가 발행한 『우애부인』을 통해서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과 이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의식 변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애회는 일본노동자의 향상과 산업 발달을 위해 1912년 8월 1일, 스즈키 분지(鈴木文治)와 15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노동자 자치단체이다.<sup>1)</sup> 당초 우애회는 일본 전국의 노동자를 정회원으로 하였지만, 여성노동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sup>2)</sup>

여성노동자가 우애회에 입회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야마지부의 역할이 크다. 고야마지부는 여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지가스(富士瓦斯)방적 고야마공장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우애회 부인부는 여성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1916년 6월 우애회 내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우애회 부인부에서는 부인부 서기에 취임한 이나바 아이코(稲葉あい子)를 기자로 해서 『우애부인』을 1916년 8월 발간했다. 『우애부인』을 발행한 것은 과반수가 10대였던 당시의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심상소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채 졸업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기초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우애회에서 발행하던 『노동및산업』은 그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sup>

우애회 부인부에 관한 연구는 일본 최초의 여성노동조합이라는 이름과 달리 연구성과는 오직 부인부의 성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sup>4)</sup> 그것은 『우애부인』이 1916년 8월부터 1918년 6월까지 단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행된 잡지라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로서 여성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야마노우치 미나(山内みな, 1990~1990) 등이 1914년 우애회에 입회하여 이후 우애회 부인부로서 『우애부인』의 독자소식란에 자신의 글을 투고하였다는 사실은 『우애부인』이 야마노우치 미나와 같은 여성노동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애부인』은 매월 발행되는 월간지로 권두언, 강화(講話), 공장방문, 소설, 우애문예, 요리와 재봉, 독자

1) 우애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공공의 이상에 따라, 식견의 개발과 덕성의 함양, 기술의 진보를 도모할 것을 기한다. 2. 우리는 공동의 힘으로 착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위 개선을 도모할 것을 기한다. 3. 우리는 서로 친목하고 일치 협력해서 상에 부조의 목적을 관철할 것을 기한다....정준회원은 회비 1개월 10전, 찬조회원은 20전의 회비를 납입하면 『노동 및 산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각종 편의 특권을 가진다", 『勞働及産業』通卷第39号, 1914년 11월.

2) 鈴木裕子, 「解題—友愛會婦人部の設立とその活動」, 法政大学, 『日本社会運動史料/機関紙誌篇 友愛婦人(3)』, 1980年, 451頁.

3) 『友愛新報』第34号, 1914年 8月 15日. "우리나라의 여공은 총수 50만 명이 있다고 한다. 50만이라는 것은 우리 상비육군의 약 2배이다. 여공문제는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여공 중 13~14세부터 20세 전후까지 한창 발육할 때의 여자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매일 12시간 이상으로 남자와 함께 일하고 야업도 한다. 심야업도 한다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우애회 부인부에 관한 연구는 棚井冽子, 「友愛會婦人部の活動について(上)」, 『歴史評論』, 1973年 9月: 「友愛會婦人部の活動について(下)」, 『歴史評論』, 1973年 10月: 鈴木裕子, 「解題—友愛會婦人部の設立とその活動」, 『日本社会運動史料/機関紙誌篇 友愛婦人(3)』, 法政大学, 1980年이 있다. 이 외에는 스즈키 분지와 우애회,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권두언과 강화는 우애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회장 스즈키 분지를 비롯해 교육부장, 고문, 그 외에도 의사, 공장장 등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우애문예는 여성노동자가 투고한 외카, 단문, 하이쿠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록 짧은 글이지만 진솔하게 그들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외에도 『우애부인』의 기자인 이나바와 히라자와 등이 우애회 부인부의 여성노동자가 다니고 있는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소개와 복리후생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 최초의 노동조합 부인부로서 여성노동자의 최초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우애회 부인부가 발행한 『우애부인』의 권두언과 강화 등을 통해서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독자소식이나 우애문예를 통해서 『우애부인』을 읽는 독자, 즉, 우애회 부인부의 회원인 여성노동자의 반응과 그들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용과 전복이라는 의식의 변용 속에 나타나는 여성노동자의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이토(靑鞆)』와 같이 중상류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월간지는 존재했지만, 여공과 같은 거의 무학에 가까운 공장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읽을거리가 없던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애부인』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 2. 우애회 부인부의 성립과 활동

1916년 우애회 부인부의 설립은 그 시기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 보다 넓은 층의 여성노동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제1차대전 이후 유럽 각국에서 전선의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이 노동자로서 대거 진출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여성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와 연소자를 ‘보호직공’으로 규정한 공장법이 1911년 제정되었다. 이후 1916년 공장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정책, 사회사업, 인구문제 등과 함께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sup>5)</sup>

이러한 정세와 더불어 우애회 회장인 스즈키 분지는 “남자 노동자를 교육 지도하고 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 전국의 많은 부인노동자의 향상과 발전을 획책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했다.<sup>6)</sup> 여성노동자의 ‘향상과 발전’은 우애회의 ‘급무’로 인식될 만큼 긴급한 문제였고 그것은 여성노동자의 ‘수양’을 목표로 하였다. 우애회 부인부의 설립 목적은 『우애부인』에 게재된 ‘우애 부인부 취의’와 ‘우애회 부인부 규칙’에 잘 나타나 있다.

‘우애 부인부 취의’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반반으로 구성되어 세상이 유지되어 가는 것을 우선 언급하고 우애회의 설립 목적이 ‘노동의 품위를 높이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남자를 위해 일해왔지만, 이제는 우애회 부인부를 설립하면서 공장이나 가정 안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할 것을 밝힌다. 우애회 부인부에서 실시한 사업은 ‘우애회 부인부 규칙’ 제3조에 잘 나타나 있다.

5) 棚井冽子, 「友愛會婦人部の活動について(上)」, 『歴史評論』, 1973년 9월, 64頁.

6) 스즈키 유코는 부인부 설립의 직접적 계기를 스즈키 분지의 발의에서 찾고 있다. 『우애회 창립 5주년사』의 “스즈키 회장은 남자 노동자를 교육 지도하고 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 전국 많은 부인노동자의 향상과 발전을 획책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하고 1916년 6월에 우애회 본부에 부인부를 만들고 8월 1일에 이르러 부인부의 기관지로서 『우애부인』을 발행한 것이다.”鈴木裕子, 「解題-友愛會婦人部の設立とその活動」, 『日本社会運動史料/機関紙誌篇 友愛婦人(3)』, 1980년, 458頁.

우애회 부인부에서 실시한 사업은 부인부가 어떠한 단체인지 그 추구하는 성격을 잘 보여준다. 출판부, 강연부, 인사상담부, 표창부, 내직장려부로 구성된 우애회 부인부는 회원을 독자로 해서 『우애부인』을 매월 발행하고 그 외 유익한 서적을 출판하고 더불어 매년 2회의 강연을 열어 회원의 '수양'을 주 사업으로 하였다. 표창부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취한 여성노동자에게 상금과 표창을 주고 사진 게재 등을 통해 미담으로 알리고 있었다. 또한, 여흥과 오락은 인형극이나 와카, 하이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편지와 면회 등으로 상담에 응하고 우애회 회원, 즉 남성노동자의 아내로 가정 내에 있는 자를 위해 별도로 내직장려부를 마련하여 내직을 가르치기도 장려하기도 하였다.

### 3.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

여기서는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우애부인』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우애회 회장 스즈키 분지가 『우애부인』에 쓴 글을 보자. 스즈키 분지는 우애회 부인부를 설립한 우애회 회장으로, 그의 글을 살펴보는 것은 스즈키 분지가 여성노동자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우애부인』을 통해 어떠한 여성상을 지향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스즈키 분지는 약 2년간 발간된 『우애부인』에서 총 14번의 권두언을 쓰고 있다.

스즈키 분지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 즉, 정직, 내조, 인내, 검약 등을 중심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는 세상이 남과 여로 되어 있고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가 상호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남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서술하고, “여자가 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충분한 성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주 자기 아내를 내조자라 하고 또는 내조의 공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여성의 내조를 강조한다.<sup>7)</sup> 여성의 역할을 남편의 내조자에서 찾는 것은 양처현모와도 관계가 있다. 그는 “아내로서는 남편을 격려하고 엄마로서는 자식을 훈계하고 그 외 남매로서 자매로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기에 힘과 용기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처현모를 비롯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위로자이며 격려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구하고 있다.<sup>8)</sup>

그렇다고 해서 스즈키 분지가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성의 ‘직업과 독립’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남녀평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sup>9)</sup> 그는 유럽의 여성들이 제1차대전을 계기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훌륭한 것으로, 의식주를 남자에게 의지하는 여성은 ‘남자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여성이 남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일가와 나라의 번영으로 보면서 남녀차별은 없다고 단언하고 그럼에도 여성이 억눌려 온 것은 여성 스스로가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일본 여성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부양 능력이 없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가의 번창과 나라의 번영을 남자와 함께 여성의 노동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나라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은 불가결하고 그것을 다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鈴木文治, 「真の女の踏み行く道」, 『友愛婦人』 第1号, 1916年 8月, 2頁.

8) 鈴木文治, 「真の女の踏み行く道」, 『友愛婦人』 第1号, 1916年 8月, 3-4頁.

9) 棚井冽子, 「友愛会婦人部の活動について(上)」, 『歴史評論』, 1973年9月, 62頁.

그러면서도 그는 여성의 사명을 남성의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로 칭하고 "그 지혜, 그 마음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남자를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여성의 순결을 강조한다.<sup>10)</sup>

#### 4. 여성노동자의 의식 변용

우애회가 수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이고 스키 분지를 포함한 우애회 지도자들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노동자에게 양치현모를 기본으로 한 인내, 정조, 절약, 근면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우애부인』의 애독자이자, 우애회 부인부의 여성회원들, 즉 여성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애부인』에서 보이는 여성노동자의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애부인』의 애독자로서 쓸쓸함과 적적함을 달래주는 친구로서의 소비하는 반응이다. 두 번째는 우애회의 지도자들이 지향하는 여성상, 즉 현모양처를 기본으로 한 인내, 검약, 정조, 정직, 근면 등을 그대로 수용하고 '훌륭한 부인'이 되고자 하는 반응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계급적 자각을 저지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부장제적 봉건적 사상 하에서 전통적 양치현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sup>11)</sup>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노동을 국가의 발전으로까지 확대하여 이를 미덕으로 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수양에서 그치지 않고 『우애부인』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로 하이쿠나 와카 등을 투고하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녀라고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노동자로서 힘을 다해 일치단결할 것을 외치고 주체적 움직임을 통한 자각을 넘어 전복을 향하는 반응이다.

#### 5. 나오기

본고는 일본 최초의 노동조합 부인부로서 여성노동자의 최초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우애회 부인부가 발행한 『우애부인』의 권두언과 강화 등을 통해서 우애회 지도자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독자소식란을 통해서 『우애부인』을 읽는 독자, 즉, 여성노동자의 반응과 그들의 의식의 흐름도 살펴보았다.

여성노동자의 주체적 자각은 1917년 4월 5주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3명의 부인 대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회에서 '남녀노동자로서 본회의 주의 강령 및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자'가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여 준회원에 머물렀던 부인회원은 비로소 정회원이 되었다.<sup>12)</sup>

10) 鈴木文治, 「世間的の知識を広めること」, 『友愛婦人』 第2号, 1916年 9月, 2~5頁.

11) 이와 관련하여 아베 이소오(安部磯雄)는 1916년 8월 『우애부인』 제1호에 '여자는 어떠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남녀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처는 우두머리인 남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 안을 즐겁게 하는 것을 여자의 책무로 돌리고 여자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安部磯雄, 「女はどんな務めをすべきか」, 『友愛婦人』 第1号, 1916年 8月, 7頁.

12) 棚井冽子, 「友愛會婦人部の活動について(下)」, 『歴史評論』, 1973年10月, 98頁.

# 재일한국인 구명운동이 촉발한 히가시오사카의 국제화

김용기\*

## 1. 들어가며

1970-80년대에 걸쳐 재일한국인<sup>1)</sup>양심수 또는 재일한국인정치범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간첩으로 날조되어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을 위한 구명운동을 벌인 것은 재일코리안<sup>2)</sup>과 일본 시민들이었다. 이 구명운동이 일본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었는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는 그 사례로 오사카시 외곽에 위치하는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를 사례로 논의해 볼 것이다.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이므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나, 본고에서는 연구 방향성의 윤곽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지역사회에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이 진입하는 의의

1948년 해방 직후부터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약 600개에 달하는 조선인 학교 중 대부분이 조선인학교폐쇄령과 비상사태령에 내려진 가운데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다. 조선인 측은 이에 거세게 항의하여 특히 오사카(大阪)와 효고(兵庫)에서는 한신교육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 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조선인 측의 항의를 이기지 못한 각 지자체 지사는 공립소학교 안에 조선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각서를 조선인 측과 교환했다.

오사카부에서는 33개 민족학급이 공립소학교 안에 개설되어 36명의 민족강사가 고용되었다. 히가시오사카에서는 타이헤이지소학교(太平寺小学校)를 들 수 있다. 이 학교의 학구는 후에 야간중학교를 다니는 재일코리안 1세 여성들의 교육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타이헤이지중학교의 학구와 일치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교육권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높아 활발하게 권익운동이 전개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3)</sup> 타이헤이지소학교에는 조선인 교원 한 명을 위의 각서를 근거로 정규직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교수

1) 한국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 날조로 인해 옥에 갇힌 일본 태생의 한민족을 지칭하는 호칭으로는 '재일한국인'양심수/정치범을 사용할 것이다. 다양한 정치성향을 아우르는 용어로서의 '재일코리안'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1970-80년대까지 재일코리안의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국적 소지가 필수였다.

2)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민족을 가리키는 총칭으로 「재일코리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양함과 동시에 갈등적인 정치적 속성들을 아우르는 데 있어 최선(best)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최상<most>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때 「재일조선인」은 하부 영역 중 한 집단을 뜻하게 된다. 「재일조선인」이 역사적 존재, 즉 일제강점의 결과 일본으로 이주, 정착하게 된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분단이 엄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지지라는 함의를 내포하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재일코리안」은 일본사회에서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북(조선) 때리기」를 회피하기 위해 총련계 인사들 스스로가 사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재일조선인」을 총칭으로 사용할 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전전 시기 및 총련 출범 이전 시기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본고에서도 「조선인」을 사용할 것이다.

3) 이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徐阿貴(2012),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 참조.

신분으로 고용하여 1950년부터 ‘조선어학급’<sup>4)</sup>이라는 명칭으로 학교 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 1, 2시간의 수업이 개설되었다.

여타 재외동포와는 달리 ‘무권리의 외국인’으로 거주국에서 살아가는 재일코리안의 권익운동에서 빼놓은 없는 것은 일본 주류사회의 이해와 협조며,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인 교사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별도 논고<sup>5)</sup>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서일본에서 중소, 영세규모 공장이 가장 많은 히가시오사카는 전통적으로 혁신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교원노조 즉 일교조(日教組) 또한 막강한 지역이다. 일교조 안에 ‘재일조선인교육연구부’가 구성된 것을 시작으로 각 학교 안에 ‘조선인교육부’가 설치되어, 일본인 교사가 보직을 맡았다. 이들 조직은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위원회 측과의 협상이나 교실 활동에서 재일코리안 학생과 ‘조선어교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학부모를 조선어학급에 보낼 것을 권유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지원자가 되었다.<sup>6)</sup>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당시 일교조뿐만 아니라, 당시 막강한 정치력을 가졌던 부락해방동맹을 비롯한 부락해방운동과의 공조가 있었던 점 또한 중요하다. 민족교육이 단순히 언어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이라는 인권을 기초로 하는 그것으로 발전해나가는 일을 지탱했기 때문이다.

### 3. 정체성을 회복하고 모국을 찾다가 정치범이 되다

타이헤이지소학교의 사례를 보듯이 히가시오사카시 각 공립소학교 안에 조선인교육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일본 공교육에서 조선인 문제 즉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경위나 차별 문제를 무마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민족교육 문제가 ‘가시화(可視化)’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파급효과로 조선어교실을 설치하는 소학교의 수적 증가와 중학교에의 확대, 고등학교에서 학생서클로서의 민족클럽 활동 등으로 확산했다.

이는 오사카로 국한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초중고 중 어느 한 곳에서 민족교육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재일코리안 중 적어도 80% 이상이 민족학교가 아니라 일본 학교에 다니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회는 여간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을 접한 것이 이들의 모국 대한민국에서 화근이 되어 정치범으로 날조되는 일들이 유신정권 이후 군사독재 상황에서 일어났다.

히가시오사카 출신의 이동석 씨는 타이헤이지중학교와 역시 히가시오사카 소재 후세(布施)고등학교에 다니며 조선어학급과 민족서클에서 ‘민족’을 만났다. “민족을 만나다”의 함의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의 경우,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본명(민족명)을 되찾아 또래 동포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된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것을 결심하게 되어 한국외국어대학으로 입학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북한 간첩’으로서의 누명으로 인한 징역형이었다.

4) 흔히 오사카 공립학교 내 민족교육 기회를 ‘민족학급’으로 부르지만, 히가시오사카에서는 이처럼 ‘조선어학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이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5) 김용기(2021). 「『계간 삼천리』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교육에 대한 일본인 교사의 인식과 실천」, 『일본학보』, 제127집, 317-334쪽.

6) 岡野克子(2001.8.30), 「東大阪市立太平寺小学校の朝鮮語学級・朝鮮人教育」, 『むくげ』 166號.

1971년 그는 한국으로 떠나 서울대학교 부속 재외국민연구소로 입학하여 한국어를 배운 후, 1973년 한국외국어대학 불어과에 입학했다. 그러다가 1975년 이른바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11·22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여 명 중 17명(2차 구속자 포함)이 재일한국인이었으며, 이동석 씨는 당시 24세로 2차 구속자 중 한 명이었다.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되어 고문으로 북한 간첩임을 허위자백한 그는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로 수감된 후, 4년 9개월 후에 속방되었다. 그 사이 일본 거주권의 근거인 협정영주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1981년 신규입국자로 일본으로 입국했다. 이후 2017년까지 공장노동자, 장애인 도움이 등으로 일하는 한편, 2011년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하여 네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동석 씨를 비롯한 재일한국인정치범 중 대부분이 모국수학(母國修學)제도를 활용하여 국내로 들어온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2세대들이었다. 모국수학제도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200개를 웃도는 조선학교를 거점으로 민족교육체계를 갖춘 조총련/북한보다 열세였던 민단/한국 측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국과 재일한국인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재일한국인사회의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촉망받은 이들이었다.

### 3. 고다 목사의 역할

재일한국인정치범 각기를 구명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이들의 경우, 일본 여러 곳에서 지역 모임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동석 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대학을 다니지 않고 바로 국내로 들어와서인지 그의 출신지역인 히가시오사카에서 구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이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시민운동을 벌여온 고다 사토루(合田悟) 일본메소지스트(감리)교단 목사(1932-2008)이었다.

고다 목사는 1962년 히가시오사카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각종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야스쿠니신사 국유화 반대운동이나 입국관리법개정반대운동 등 식민지 지배와 재일 코리안을 둘러싼 운동에 관여했으며, 후자가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在日外國人の人權を守る會)’으로 발전되면서 재일외국인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게 된다.

1962년 고다 목사는 히가시오사카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각종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야스쿠니신사 국유화 반대운동이나 입국관리법개정반대운동 등 식민지 지배와 재일 코리안을 둘러싼 운동에 관여했으며, 후자가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在日外國人の人權を守る會)’으로 발전되면서 재일외국인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11·22사건이 일어나자 고다 목사는 후세고등학교 관계자나 지역주민에게 이동석 씨 구원회를 결성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1976년 6월 히가시오사카시의회에서 ‘이동석 씨의 조속한 석방에 관한 요망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sup>7)</sup> 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당시 재일한국인정치범의 속방을 촉구하는 여러 지자체 의회의 결의가 잇따랐다. 지면의 제약 상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들 실천의 연장선상에 히가시오사카가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7) 福本拓(2013), 市民運動データベース化の意義と課題: 東大阪市・「合田文書」の韓国への移管を事例に, 『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第18號, 202-203頁.

다. 1976년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재일한국인정치범 속방운동은 고다 목사의 주도 아래 노조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이후 재일외국인문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고다 목사가 호소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히가시오사카국제교류페스티벌’ (1996년 제1회 개최)는 재일한국인정치범 구명운동이라는 재일외국인의 인권문제가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행사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 4.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이러한 운동의 전개와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히가시오사카의 지역성이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일본에서도 유수의 재일코리안 집주지역 중 하나임과 동시에 피차별부락문제나 노동문제 등 가시화된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부락해방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원래 활발한데다가 혁신 세력이 강한 정치의 영향까지 겹쳐 시민운동 또한 활발하다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외국인문제 또한 지역 주민의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남북한 국민국가의 경합 논리는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히가시오사카국제교류페스티벌’에는 민단과 조총련이 초기부터 계속 함께 참가한다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 5. 나가며

본고는 지면의 관계상 그리고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직 충분히 논의를 심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필자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정치범 구원운동과 히가시오사카의 지역성, 구체적으로는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민운동과 차별화된 국제화 도시를 형성케 하는 요인 등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 향후 많은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로 도출된 주제를 향후 과제로 삼아 보다 심화된 논의를 해나가자 한다.

#### <참고문헌>

김용기(2021). 「『계간 삼천리』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교육에 대한 일본인 교사의 인식과 실천」, 『일본학보』, 제127집, 317-334쪽.

岡野克子(2001.8.30), 「東大阪市立太平寺小学校の朝鮮語学級・朝鮮人教育」, 『むくげ』 166號.

徐阿貴(2012),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

福本拓(2013), 「市民運動データベース化の意義と課題: 東大阪市・「合田文書」の韓国への移管を事例に」, 『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第18號, 199-220頁.

#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조선 통치에 대한 반성’

— ‘동화정책’의 ‘창씨개명’을 중심으로 —

김현아 (한림대)

## 1. 머리말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는 1935년부터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교수로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총독부의 경제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1927년 3월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28년 4월 동경제국대학 법문학부 전임강사가 되었으며, 5월에 조교수가 되었다. 그는 1933년 이후 2년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에서 연구한 뒤, 1935년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경성제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임시조선미곡조사위원회 위원(1940), 조선총독부 농업계획위원회 위원(1943), 조선전력평가심의위원회 위원(1943), 조선총독부 기업정리위원회 위원(1943) 등 조선총독부의 각종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했다.<sup>1)</sup>

그는 경성제국대학에 근무하면서 『朝鮮金融論十講』(1940), 『朝鮮の經濟』(1942), 『朝鮮經濟の新構想』(1942), 『朝鮮の經濟』(1942)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는 경제학 가운데에서도 재정·금융 쪽이 주전공이었는데, 조선에 와서는 그 분야 외에도 총독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글을 썼다.<sup>2)</sup>

그는 해방 이후 일본에 돌아가 1946년에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서 비밀리에 수행한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라는 프로젝트의 조선, 만주, 대만편 가운데 조선편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대장성이 장차 구 식민지 및 지배 지역에서의 배상 및 보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의 지배정책을 옹호하고 일본인이 그 지역에서 형성·축적한 자산을 조사한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sup>3)</sup>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가운데 조선편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제10권은 부록으로 「朝鮮統治の性格と實績」과 「獨立朝鮮經濟の將來」로 구성되었는데 스즈키 다케오가 집필하였다.<sup>4)</sup>

1949년에 무사시대학(武蔵大学) 교수·경제학부장, 1957년에 도쿄대학(東京大学) 경제학부 교수가 되었다.

이 발표는 스즈키 다케오(이하, 스즈키)가 1946년 5월에 『世界(세카이)』에 게재한 논설 「조선통치에 대한 반성(朝鮮統治への反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선통치에 대한 반성」은 스즈키가 전후에 대외적으로 조선 통치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저술이라<sup>5)</sup> 점에서 어떠한 논조를 띠고 있는지에 주목하

1) 송병권, 「1940년대 스즈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민족문화연구』 37, 2002.12, 435-436쪽; 박찬승,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식민지조선근대화론」, 『韓國史學史學報』 30, 2012.12, 211쪽에서 재인용.

2) 위의 책, 「1940년대 스즈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433-434쪽; 위의 책,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식민지조선근대화론」, 211쪽에서 재인용.

3) 並木眞人,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井村哲郎編, 『1940年代の東アジア:文獻解題』,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97, 302쪽; 위의 책,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식민지조선근대화론」, 211~212쪽에서 재인용.

4) 위의 책,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식민지조선근대화론」, 212쪽.

5) 송병권, 「스즈키 다케오의 조선통치론, 전전과 전후적 맥락」, 『대구사학』 115, 2014.5, 4쪽.



고자 했다.

스즈키는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조선이 36년간의 일본 통치권에서 벗어난 것은 일본 전체영토에서 차지하고 있던 조선의 비중이 컸던 만큼 심각한 손실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의 영토적 분리를 단순히 대손실로 여기는 것은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일 두 민족의 진정한 결속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지배였다. 영토적 지배로 인해 일본인의 우월감이 배태되었고 조선인의 피압박 민족감이 배양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의 있는 정책도 시설도 언론도 일본의 조선 지배라는 대전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한 조선 민족의 진정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스즈키는 강조한다.

스즈키는 정치적 지배,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의 유대를 가지려고 한 것이 오히려 두 민족의 근저에 존재하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장래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밝게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 36년간 일본의 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에 대한 일본 측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2. ‘동화정책’에 대한 반성

스즈키는 일본의 조선 통치에 대한 근본 방침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이며 ‘내선일체(內鮮一體)’인데, 말하자면 ‘동화정책’이고 모국연장주의(母國延長主義)라고 한다. 조선 통치 근본 방침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조선의 정치적 지배를 만족할 때까지 완전히 확보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의 영유라는 대전제 범주 내에서 소위 식민지적 지배의 관계를 지양(止揚)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즉 전자의 경우는 독립이든 타국에 예속되든 조선이 분리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일본의 입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인데, 이는 청일·러일 두 전쟁에서 한국의 보호 국가, 이어서 한일병합으로 발전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장이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방’이라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통치방침은 점점 동화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중일전쟁 이후 ‘일신동인’ ‘내선일체’가 특히 강조되면서 조선과 일본의 유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대부분이 정신적 운동으로 전락했다.

스즈키는 일본의 반성이 필요한 것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내선일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일련의 ‘황민화(皇民化)’ 운동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민족으로서의 존재를 쉽게 부정하려는 지나친 동화정책의 강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형식적으로 총독의 지적을 보여주는 지표로 말단당국이 공연히 숫자상에서의 성공에만 광분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특히 전쟁 말기에 신권주의적 국체 이념이 추진되기에 이르러 그 폐해는 극에 달했다.

스즈키는 일시동인의 황은(皇恩)이 평등하게 조선인에게도 미친다는 의미에서 조선인의 ‘황민화’를 말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황민화’로서 조선 민족이 조선 민족임을 그만두고 야마토민족(大和民族) 민족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성급한 요구라고 말한다. 스즈키는 동화정책의 궁극적인 이상은 민족의 융합에 있다고 해도 조선의 현 단계에서 일련의 시책들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안이했는데, 안이한 판단에 빠진 이유는 조선인이 만주사변 특히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과의 운명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면서 애국심의 고양에 현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인들의 민족의식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민족의식은 점점 더 강하게 각성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조선 민족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는 일본 국민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운명공동체적 의식에 도달한 것뿐인데, 조선 민족이 야마토민족화에 근접했다고 속단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스즈키는 설명한다. 이러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조선인의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의 민족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운동이었다. 게다가 황민화운동은 형식주의로 전락하여 신사에 참배하고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の誓詞)’를 제창하는 것이 황민화운동이 되어버려 지도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때에는 징병과 징용, 공출 희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짐에 따라 황민화는 조선인에게 민족의 고난만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조선 통치의 근본 방침인 ‘일시동인’ 또는 ‘내선일체’의 두 번째 측면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완전히 평등하게 하고 일본인의 우월적 차별대우 혹은 차별감정을 극복하여 소위 식민지 관계를 지양하려고 한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과 반항이 있고, 한일병합의 대전제는 뒤집을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아시아인 이상 문명인이야만인을 지배하는 종래의 공식적 식민지체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동포애적인 새로운 외령통치(外領統治)의 이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선일체 운동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일시동인적 동화정책은 전면적 실패로 끝났다. 스즈키는 일시동인적 동화정책의 전형적인 실패의 사례로 창씨개명제도(創氏改名制度)의 실시를 들고 있다.

### 3. 실패한 동화정책: 창씨개명

스즈키는 조선에는 종래 부계 혈통을 표시하는 성(姓)은 존재했으나 家을 나타내는 씨(氏)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교의 영향으로 부계 혈통과 그 혈통단체를 사회구성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불가변(姓不可變), 동성불혼(同姓不婚), 이성부양(異姓不養)이 신분법상 철칙이었다. 그 결과 姓의 수는 한정되어 현재의 성은 326종에 불과했고, 게다가 김(金) 姓은 85만 가구, 이(李) 姓은 57만 가구, 박(朴) 姓은 30만 가구로 제한된 소수의 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창씨제도는 姓만을 가진 조선인에게 가(家)를 나타내는 氏를 창설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이성양자(異姓養子), 서양자(婿養子) 제도를 가능하게 하고 창씨(創氏)할 때 일본인식 씨명(氏名)을 칭하도록 인정한 제도라고 말한다.

스즈키는 조선의 姓제도가 본관(本貫)의 제도와 함께 명백히 원시적인 혈연공동체적 사회관계의 잔재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이 여전히 사회적 관행 및 정신생활상에 보존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상 사회적 생산과정에서는 가장 단순한 유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사회관계는 이미 부모를 중심으로 소혈연단체(小血緣團體) 즉 ‘家’의 관계로 분과되어 있고, 또 김·이·박 등 여러 종류의 성을 자칭하는 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상태에서 인구증가, 세태의 복잡화, 거래의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근대사회에서는 이미 개인 식별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家’를 단위로 하는 氏제도의 창설은 근대사회 관계에 적응하는 전진적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조선인 사회의 오랜 전통을 파괴할 것을 우려하여 창씨제도에 의해 재래의 姓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창씨제도는 일본인식 성명을 칭하는 것을 조선인에게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식적 황민화운동에 이용되었고, 마침내 창씨제도 본래의 의의는 몰각되어 단순히 황민화의 외형적 지표로서 일본인식 성명을 자칭하는 것이 창씨제도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것이 말단 행정당국에 의해 자신의 황민화 행정 성적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강제됨에 따라 조선인들의 반감을 사는 결과가 되었다고 스즈키는 언급한다. 일본인식 이름을 자칭하도록 허락한 것도 조선인의 자발적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법령의 원칙이었다. 즉 일본인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호적상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인정된다는 지극히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시책이었다고 설명한다.

스즈키는 일본 도쿠가와(徳川) 봉건시대 서민은 이름만 있고 소위 姓氏는 없으며, 무사와 마찬가지로 묘지타이토(苗字帶刀)를 허용받은 자는 나누시(名主)와 같이 그들 중 특별한 소수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사민평등정책은 모든 서민에게 姓을 취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선의 창씨제도(창씨)는 바로 이에 비교할 만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지각없는 말단당국에 의해 창씨개명의 강제가 행해져 창씨제도 본래의 의의가 몰각되고, 단순히 일본식 성명을 자칭하는 강제에 대한 조선인 측의 외견적·소극적 순응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내선일체정책이 양심적인 전진성의 일면을 가지면서도 황민화운동이라는 다른 측면 때문에 전혀 정반대의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전쟁기억’에 관한 일고찰\*

—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

이미애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 들어가며

전후 일본 박물관에서의 ‘전쟁기억’은 원폭의 피해를 전하는 두 시설, 1955년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과 나가사키의 <원폭자료전시실>이 설립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진 시민들의 공습기록운동은 1980년대 각지의 시민운동과 평화운동으로 전개된 <평화를 위한 전쟁전(戦争展)>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의 전쟁피해를 조사하여 매년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전쟁전>이 전국 각지로 확산·개최되면서, 점차 전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침략과 가해에 관한 내용도 전시되어 갔다.

시민의 공습기록운동과 <전쟁전>의 성과에 더불어 1980년대 중반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자체의 비핵평화도시선언은, 일시적으로 개최되고 있던 <전쟁전>의 상설전시화와 평화박물관 설립에 자극을 주었고 그 결과 1990년대를 절정으로 근대기 전쟁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평화박물관이 전국에 속속 세워졌다. 일본의 전쟁피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이나 가해에 대한 역사인식이 진전되는 가운데, 가해에 관한 전시를 둘러싸고 이를 부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된다. 가해전시를 둘러싼 이견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전국적인 ‘반일자료관’ 공격과 전시방해 활동으로 나타나 공립박물관들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 역사수정주의<sup>1)</sup>가 박물관 전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국공립의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 1. 가해역사 지우기 - 1990년대 이후 전쟁전시를 둘러싼 논쟁

### 1.1 <나가사키원폭자료관>의 가해전시

평화박물관의 가해전시에의 공격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시작됐다. 1955년 나가사키국제문화회관 5층에 개관한 원폭자료전시실이 1996년 4월 현재의 <나가사키

\* 본 발표문은 필자가 도쿄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博物館における「負の歴史」との取り組み—日本とドイツの地域の歴史系博物館を中心に(박물관에서 “부의 역사”— 일본과 독일의 지역 역사계박물관을 중심으로)』(2023)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역사수정주의’는 역사적 사실의 전면적인 부정이나 의도적인 왜소화 혹은 특정 측면만을 과장,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고쳐쓰는 행위 등을 가리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학살(홀로코스트)은 조작",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은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역사수정주의자(revisionism)라고 자칭하여 활동한 것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는 야스쿠니 신사 등의 역사관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전쟁범죄 등의 가해행위, 특히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며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高橋哲哉, 『歴史／修正主義』, 岩波書店, 2001年. 武井彩佳, 『歴史修正主義 ヒトラー賛美、ホロコースト否定論から法規制まで』, 中公新書, 2021年.

원폭자료관>으로 재개관하기 위해 1992년 7월 발족된 ‘나가사키국제문화회관 재건축검토위원회’는 당시 모토시마 히토시(本島等) 시장 등의 강력한 의향에 따라 일본 침략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시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구 일본군의 가해행위를 나타내는 설명문과 사진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1월 아사히신문에 가해전시를 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보수파 의원들과 우익단체들은 가해전시 철거를 요구했고, 그 결과 나가사키시는 일부 사진의 철거하고 교체하였다<sup>2)</sup>. 그러나 여전히 연표의 ‘난징점령, 대학살사건 일어나다’ 표기를 둘러싸고 수정을 호소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 1.2 평화박물관에 대한 공격

보수파의 평화박물관 공격은 나가사키에서의 성과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1996년 6월 24일,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당시 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수뇌 회의에서 전국 각지의 평화박물관에 전시 중인 사진의 진위를 조사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참의원자민당은 8곳의 박물관을 조사한 결과를 『전국의 전쟁박물관에 관한 조사보고서』(이하 『전쟁박물관보고서』)로 공표하였다. 조사된 평화박물관 모두 “난징사건과 조선인강제연행이 다뤄지는 등” “문제전시”가 있다며 “(참의원자민당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되었고, 이 조사 등을 소재로 하여 우파 시민을 끌어들이는 운동, 협박, 보수 저널리즘의 캠페인, 의회에서의 질의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피스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수세력으로부터의 비판은 침략이나 가해를 전시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쟁 중의 일본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3)</sup>

## 1.3 가해전시 지우기 - <피스 오사카>의 리뉴얼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출자하는 재단에 의해 1991년 개관한 <피스 오사카>(정식명 <오사카국제평화센터>)는 오사카 대공습의 참상을 비롯한 전쟁피해에 관한 전시와 함께 동아시아 각국, 식민지에 대한 가해를 전면으로 다루며 가해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새로운 노력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전쟁박물관보고서』가 나온 뒤 보수파의 공격은 <피스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7년 3월 결성된 <전쟁자료의 편향전시를 바로 세우는 모임>은 가해전시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피스 오사카>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2월, 극우성향의 오사카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의 등장으로 <피스 오사카>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하시모토 지사는 오사카부 재정재건을 위한 부 시설 재검토의 전형으로 <피스 오사카>를 거론하며 2009년도의 보조금을 60% 가까이 삭감하였고, 이어 2011년 오사카유신회는 <피스 오사카> 프로젝트팀을 꾸려 가해전시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오사카 시의회와 부의회에서 유신회와 자민당 의원들이 「편향전시를 통한 반일교육, 역사를 조작한 책임은 무겁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피스 오사카>를 서쪽의 유슈칸(遊就館)으로 만

2) 나가사키원폭자료관의 ‘가해전시’ 둘러싸고 나가사키시와 우익단체들 사이에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나가사키평화연구소 가마타 사다오(鎌田定夫, 1929-2002) 소장의 이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鎌田定夫, 「原爆資料館で何を学ぶか 長崎原爆資料館の加害展示論争から」(『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編, 1997年), 「長崎原爆資料館の加害展示論争 侵略加害と原爆被害をめぐって」(『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編, 1996年), 「長崎原爆資料館の加害展示問題」(『戦争責任研究』, 14号,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1996年) 등.

3) 山辺昌彦, 「平和博物館の侵略・加害展示に対する攻撃」, 『南京事件をどうみるか』, 青木書店, 1998年, 166~169p.

들기 위해 가해전시가 집중되어 있는 「전시실 B(15년 전쟁)」의 폐지를 요구했다.<sup>4)</sup> 그 결과 2015년 4월 30일 리뉴얼 오픈한 <피스 오사카>는 오사카 대공습의 피해를 중심으로 한 전시로 탈바꿈 하였다.

1994년 7월 개관한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자료관>은 일제의 침략과 가해를 다룬 코너에서 조선·중국·동남아시아 등 각 방면에서 일본군의 살육과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실태를 나타내는 사진 자료를 비롯해 생체해부에 사용한 실험용구의 파편, 일본군 독가스 포탄 등 30점의 실물을 전시하고 있었으나 1996년 『전쟁박물관보고서』에 의해 반일자료관으로 낙인찍혔고, 2006년 4월 리뉴얼 오픈한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자료관은 기존의 일본의 침략과 가해 코너를 통째로 삭제했다.<sup>5)</sup>

기존 박물관의 가해 전시가 축소되는 반면 새로 생기는 박물관은 전시기획 단계에서 공격을 받고 가해전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1998년 개관한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가나가와 플라자> 국제평화전시실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시 하의 생활, 가나가와현의 공습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애당초 국제평화전시실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전시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국에서 우익의 선전차가 연일 몰려와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전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sup>6)</sup>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은 1984년 처음 개최된 ‘평화를 위한 사이타마 전쟁전’ 등 평화를 바라는 현민들의 운동을 배경으로 1993년 8월 개관한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현립의 평화자료관이다. 자료관 입구의 벽면에 설치된 길이 약 6m 정도의 「쇼와사 연표」에는 ‘1937년 난징대학살’, ‘1991년 중군위안부문제 등 일본의 전쟁책임논의 다수 발생’ 등이 적혀 있었으나, 2006년 6월 27일 사이타마현 의회에서 당시 우에다 기요시(上田清司) 지사가 “동서고금 위안부는 있어도 중군위안부는 없었다, 자학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진정한 사실, 일본의 정확한 입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의 「쇼와사 연표」에 대해서도 ‘1991년 중군위안부문제 등 일본의 전쟁책임논의 다수 발생’이라는 대목을 들어 이런 잘못된 기술은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2013년 10월 20일, 리뉴얼 오픈한 자료관의 「쇼와사 연표」는 전면적으로 축소·교체되며 난징대학살, 위안부 문제 등의 기술이 사라졌다.

## 2. 일본인의 ‘노고’ 기억하기 - 국립의 평화박물관 건립

명칭	昭和館 쇼와칸	平和祈念展示資料館 평화기념전시자료관	しょうけい館(戦傷病者史料館) 쇼케이칸(전상병자자료관)
영어명칭	National Showa Memorial Museum	Memorial Museum for Soldiers, Detainees in Siberia, and Postwar Repatriates	Shokei-kan
테마	전중 · 전후 생활의 여러 노고	병사, 전후 강제이류자, 해외로부터의 인양자의 세 가지 노고	전상병자와 그 가족의 전중·전후에 체험한 다양한 노고
설립연도	1999년 3월	2000년 11월	2006년 3월
설립주체	후생노동성(당시 후생성)	내각부(당시의 총리부)	후생노동성
운영주체	일반재단법인 일본유족회(후생노동성 위탁)	독립행정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2013년 해산). 2010년부터 일본정부(총무성 위탁)	재단법인 일본상이군인회 해산(2013년) 후는 후생노동성
위치	도쿄도 구단시타(야스쿠니 신사 부근)	도쿄도 신주쿠구 스미토모 빌딩	도쿄도 구단시타(야스쿠니 신사 부근)

4) 伊賀正浩, 「加害展示の撤去をねらうピースおおさか「展示リニューアル構想」に反対の声を!」(2013), <http://www.7b.biglobe.ne.jp/~hotline-osaka/pisu.pdf>

5) 君塚仁彦, 「東北アジア・「歴史を逆なでする」博物館」⑩「在満少国民」・草の根の思い-旧平和人権子どもセンター・教科書資料館(現・教科書総合研究所), 『季刊前夜』第12号, 影書房, 2007年.

6) 本間昇, 「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国際平和展示室」, 『増補平和博物館戦争資料館ガイドブック』, 青木書店, 2004年, 143p.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쇼와칸’, ‘평화기념전시자료관’, ‘쇼케이칸’, 이들 세 국립 박물관은 전쟁으로 인한 일본인의 ‘노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설도 그 ‘노고’를 낳은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일본인들의 ‘노고’를 전쟁을 모르는 전후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예평론가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패전으로부터 50주년이 되던 1995년에 「패전후론敗戰後論」<sup>7)</sup>를 통해, 아시아의 2천만의 희생자들보다 자국의 3백만의 희생자를, 특히 병사를 먼저 애도함으로써 일본에서 진정한 사죄의 주체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8)</sup> 가토의 주장 속에는 일본의 전쟁기억에서 타자의 배제가 일관되고 있는데, 바로 「쇼와칸」, 「평화기념 전시 자료관」, 「쇼케이칸」의 전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보인다. 전후 일관되게 “최대 희생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의 눈초리를 인식하지 않고, 또는 가해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기회를 거의 갖지 않고 경제부흥과 그에 따른 고도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있게 된”<sup>9)</sup>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아시아의 타자와의 관계를 배제한 채 희생자로서의 일본인의 ‘노고’를 당당하게 말하게 된 것이다.

### 3. 반쪽 과거의 긍정과 합리화

2020년 3월,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한 총무성 제2청사 내에 개관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나가사키의 하시마(군함도) 등의 등재대상 시설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강제노동시켰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비판을 계기로 하여, 일본 정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로 개설되었으나, 전시는 군함도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일본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이는 좋았다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군함도 출신의 가이드의 설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선행연구와 조사 중에는 차별과 가혹한 노동에 관한 증언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역사수정주의자의 역사왜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일반 대중에게 자국의 영토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영토·주권전시관>은 2020년 확장·이전하면서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해석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나가며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의 주장은 보수정권 하에서 박물관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하였다.<sup>10)</sup> 하지만, 가해 역사를 지우고 일본인의 ‘노고’만을 기억하고, 자의적으로 선별한 반쪽의 과거를 긍정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역사수정주의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이 전국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7) 『群像』 1995년 1월호에 게재. 1997년에 논고를 정리하여 가필·정정 후 『敗戰後論』(講談社)을 간행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창작과 비평사)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8) 加藤典洋, 『敗戰後論』, 講談社, 1997年, 86p

9)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1995年, 232p.

10)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져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오키나와현에서 일어난, 이른바 「집단지결」의 일본군의 강제성을 둘러싼 새로운 현립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개편(改変)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쟁의 비참함을 둘러싸고 본토와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오키나와의 박물관 전시에 관하여는 다른 지면을 통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제2부]

**기조강연 및  
기획학술심포지엄**



# 100주년에 다시 검토하는 일본 간토(關東)대지진사 한인 대학살 사건

김광열 (광운대 명예교수)

## 1. 1923년 9월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의 간토(關東)지방에서 일어난 매그니튜드 7.9 규모에 해당하는 거대 지진. 대지진 피해를 도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48만 3천 세대 중에서 30만 924세대가 완전히 불탔으며, 인적 피해도 사망 91,344명, 행방불명 13,275명, 중경상 52,084명에 이를 정도로 막심했다.<sup>1)</sup> 또한 대지진에 의한 충격으로 전기, 수도, 도로, 철도 등의 라이프 라인도 파괴되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

\* 막대한 자연재해 직후에 지진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에서 “조선인들이 방화, 폭동, 약탈, 우물에 투독”을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됨. 그 유언비어를 기정 사실화하여 선포된 계엄령 체제 하에서 군대와 경찰 및 민간 자경단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주한 한인 6천여 명을 학살하는 대참사(이하 ‘간토한인대학살’)가 일어남.

\* 간토한인대학살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 가능함.<sup>2)</sup> 한인대학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검토하면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100주년이 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 학살사건에 대해 반성하거나 진상조사를 한 적이 없다.

→ 이하에서는 간토한인대학살 사건 100주기를 맞이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 기관(치안행정 당국, 군대, 경찰)의 행위를 재조명하고, 그에 내포된 문제점 및 사후처리 과정의 모순점 등을 검토한 후, 현재의 재일 코리안의 상황과 연결하여 100년 전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 2. 간토 한인대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 기관의 책임

### 2.1 내무성의 행위

\*9월 2일 저녁, 일본제국 정부는 도쿄시(東京市)와 주변 5개 군에 계엄령을 선포. 그 9월 2일 오후,

---

1) 内務省社会局, 『大正震災志』上, 1926年. 도쿄부의 군 지역과 요코하마(横浜)시를 비롯한 가나가와(神奈川)현의 피해는 별도로 산정해야 함.  
2) 姜徳相,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歴史学研究』 278号, 1963年9月. 좌동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数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 37号, 1963年7月; 松尾尊允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上,下), 『思想』 471号 1963年, 476号 1964年; 姜徳相, 『關東大震災』, 中央公論社, 1975;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03年; 좌동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11年. 이외에도 다수 있으나, 1923년 9월 당시 도쿄 각지의 학살 사실을 1100명의 증언으로 묘사한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의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録: 東京地区別1100の証言』(現代書館, 2020)은 주목할 만하다.

경찰행정 최상위 기관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의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국장은 기마 전령을 통해 아래 내용을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의 해군 무선전신송신소에서 9월 3일 오전 8시 15분에 일본제국 전체의 지방 행정기관 앞으로 송신함.

“도쿄(東京) 부근에서 지진재해를 틈타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불령한 목적을 수행하고, 실제로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부어 방화하는 자 있다. 이미 도쿄부(東京府)의 일부에는 계엄령을 시행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도 충분히 주도면밀한 시찰을 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엄밀하게 단속하도록 하라”<sup>3)</sup>

→ 전문의 핵심은 계엄령의 시행과 그 이유로서 한인 관련의 유언비어에 두고 있음.

### 2.1.1 계엄령 선포와 그 이유

\* 고토 경보국장 : “... (치안)당국자의 판단이 보통과 같은 경비로서는 민심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것 ... 지진 직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비상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sup>4)</sup>

\* 아카이케 아츠시(赤池濃) 경시총감 : “...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력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응급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위수 총독에게 출병을 요구함과 동시에, 고토 경보국장에게 간언하여 내무대신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도록 했다.”<sup>5)</sup>

→ 그 결과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의 주도하에 일본정부는 9월 2일에 메이지헌법 제14조(天皇は戒嚴を宣告できる、戒嚴の要件及び効力は法律をもって定める)에 의거한 칙령 398호 “일정한 지역에 계엄령(明治15年太政官布告第36号) 중에서 필요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을 공포함과 동시에 칙령 399호 “계엄령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공포함. 즉 행정권을 군대에 넘기는 ‘행정계엄’(평시 계엄).

\* 이미 1905년의 ‘히비야(日比谷) 소동’ 때에도 “혼란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 ‘평시 계엄(행정 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으나, 간토대지진이란 자연재해 직후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필요.

→ 그 이유로서 아카이케 경시총감이 상상한 “매우 크고 매우 안좋은 상황 또는 불상사”가 가장 유력함. 불과 1년 전(1922년 5월)까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으로 근무했던 경험에서 “조선인이 방화, 불령한 목적 수행” 등의 ‘유언비어’를 구실삼음<sup>6)</sup>.

→ 결과: 9월 3일 오전 8시 후나바시 해군무선송신소에서 전국으로 타전된 내무성 경보국장의 전신문의 내용(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를 강조).

### 2.1.2 사이타마(埼玉)현의 사례

내무성 경보국장의 지시가 실제로 지방행정 기관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사이타마현의 사례를 통

3) 원자료는 琴秉東 편집 및 해설,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関係史料—朝鮮人虐殺関連官庁史料』, 緑陰書房, 1991년, 158쪽. 앞의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에서 재인용.

4) 後藤文夫 「震災当時の追想およびその教訓の一端」, 『自警』 大正12年11月.

5) 赤池濃 「大震災当時における所感—参内から戒嚴令發布の建言まで」, 『自警』 大正12年11月.

6) 앞의 姜徳相, 『関東大震災』, 中央公論社.

해 확인할 수 있음.

\* 9월 2일 오후 5시 사이타마(埼玉)현의 내무부장은 산하 행정기관인 군정촌(郡町村)에 전화나 전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함.

“이번 진재 시에 도쿄에서 불령선인의 망동이 있었고...(중략)... 이 참에 정촌의 당국자는 재향군인회, 소방대, 청년단 등을 일치 협력시켜서 그 경계에 임하게 하고, 유사시의 경우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매우 급하게 수배를 해주시기 바람.”<sup>7)</sup>

→ 사이타마현 당국은 산하의 행정기관에게 급히 자경단을 구성해서 경계에 임하게 했고. 특히 ‘유사시’에 “신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함.

▶ 이 사이타마현 사례는 당시 간토지방의 기타 현들도 유사했다고 추측됨. 그 결과, 간토지방 각지에서 군대와 경찰 및 민간 자경단에 의한 한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따라서 내무성 경보국장이 한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해 엄격한 조치를 담은 전문을 군용 전신망을 통해 일본 전국의 행정기관에게 보낸 책임은 막중하다.

## 2.2 군대와 경찰의 행위

### 2.2.1 군대에 의한 학살의 배경

\* 9월 2일 오후, 일본정부는 도쿄시와 인접 근지역에 계엄령 선포, 도쿄위수(東京衛戍)사령관인 모리오카 모리시게(森岡守成) 고노에(近衛)사단장에게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부여함. 모리오카는 이동중에 한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들었고, 당일 오후 4시에 산하 군부대에게 ‘일반 관민’의 구호를 지시하면서, “재해에 편승하여 만행을 하고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이를 제지하되, 응하지 않는 경우는 경고 후에 병기를 사용”하라고 조건부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하달함.<sup>8)</sup>

→ 9월 3일, 계엄령 적용 지역을 도쿄부 전체와 가나가와(神奈川)현까지 확대하고, 한층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고자 상급 기관인 간토 계엄사령부를 설치, 사령관에 후쿠다 마사타로(福田雅太郎)대장 임명.<sup>9)</sup>

→ 하지만 이미 9월 2일의 전임 계엄사령관이 하달한 ‘조건부 무기사용’ 지시가 도쿄시와 주변 지역에 배치된 계엄군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계엄군이 한인 및 중국인들을 학살하는 원인이 됨.

### 2.2.2 군대에 의한 학살 행위

<표1> 간토대지진시 일본 군대에 의한 학살 사례

	月日	場 所	概 要
①	9/1	東京府月島4丁目付近	外泊休暇中の兵士が朝鮮人1名を撲殺(資料第3の1)
②	9/3	東京府兩國橋西詰付近	1兵士が朝鮮人1名を射殺(資料第3の1)

7) 원자료는 吉野作造, 「朝鮮人虐殺事件」, 『圧迫と虐殺』 1924年. 앞의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83쪽.  
 8) 위의 『災害教訓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1923 関東大震災』, 「第9章 第2節軍隊の対応, 3.戒厳令試行と警備態勢の確立」.  
 9) アジ歴グロサリー, 「関東戒厳司令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③	9/3	東京府下谷区三輪町45番地電車道路上	1兵士が朝鮮人1名を刺殺 (資料第3の1)
④	9/3	東京府大島町3丁目付近	3名の兵士が朝鮮人を銃把で殴打したことがきっかけで群衆・警察官と闘争がおこり、朝鮮人200名が殺害 (資料第3の1)
⑤	9/3	東京府永代橋付近	兵士3名が朝鮮人17名を射殺 (資料第3の1)
⑥	9/3	東京府大島丸八橋付近	兵士6名が朝鮮人6名を射殺 (資料第3の1)
⑦	9/3	東京府亀戸駅構内	兵士1名が朝鮮人1名を射殺 (資料第3の1)
⑧	9/2	千葉県南行徳村下江戸川橋際	騎兵15連隊の2名の兵士が朝鮮人1名を射殺 (資料第3の1)
⑨	9/3	千葉県浦安町役場前	兵士1名が朝鮮人3名を射殺 (資料第3の1、2)
⑩	9/4	千葉県松戸地先葛飾橋上	1将校が1兵士に命じて朝鮮人1名を射殺 (資料第3の1、2)
⑪	9/4	千葉県南行徳村下江戸川橋北詰	1軍曹が兵士2名に命じて朝鮮人2名を射殺 (資料第3の1、2)
⑫	9/4	千葉県南行徳村下江戸川橋北詰	1軍曹が兵士2名に命じて朝鮮人5名を射殺 (資料第3の1、2)

※出典: 日本弁護士連合会、『関東大震災人権救済申立事件調査報告書』、2003年8月。

原典: 『関東戒嚴司令部詳報第三卷』所収「第四章 行政及司法業務」の「第三節付録」付表「震災警備の為兵器を使用せる事件調査表」(「資料第3の1」) 외。

\* 계엄령으로 출동한 군대가 유언비어와 세트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례: 츠노다 고레시게(津野田是重: 육군 소장,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

… 내 집 부근에서도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문밖에 나가보니까 무장한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대장 같은 자가 “적은 지금 하타가야(幡ヶ谷) 방면에 나타났다” 운운의 호령을 하므로 내가 그 장교를 붙잡고 “적이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자 “적은 조선인이다”라고 대답하였고, 내가 다시 “조선인이 왜 적인가”라고 묻자 “상관의 명령이니까 모른다”고 답했다… 10)

\* 1923년 9월 2일, 지바(千葉)현 이치카와(市川)시에서 도쿄 에도가와(江戸川)구 고마츠가와로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야전중포병 제1연대 제6중대 병사 구보노 시게지(久保野茂次)가 일기에 기록한 학살 상황.

진재지의 경비 임무를 띠고 가서, 고마츠가와에서 무저항으로 온순하게 있는 조선인 노동자 2백여 명도 병사들을 지휘하여 잔학을 일삼았다. 여자는 다리를 당겨 가랑이를 찢고, 철사로 목을 묶어 연못에 빠트려 괴롭히면서 죽이거나, 헤아릴 수 없이 학살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친 비상식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다… 11)

\* 그 외에도 군대가 도쿄 내에서 가메이도(亀戸)경찰서에서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학살, 아라카와(荒川)제방의 조선인 집단학살, 오시마(大島)정의 중국인 집단 학살 등에 개입한 것이 확인됨. → 대지진 직후 계엄사령관에 의해 지시된 ‘조건부 무기사용 허가’ 등이 원인.

### 2.2.3 경찰에 의한 유언비어 확산 행위

\* 물리학자 데라다 토라히코(寺田寅彦) 「震災日記より」 9月2日

“... 어제 밤은 우에노(上野)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순사가 와서 조선인이 방화하러 배회하니

10) 『読売新聞』 1923年10月22日.

11) 「一兵士の手記」, 関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実行委員会・調査委員会 『歴史の 眞実—関東大震災と朝鮮人』 (現代史出版会、1975年). 앞의 姜徳相, 『関東大震災』.

까 주의하라 했다.”<sup>12)</sup>

\* 『호치(報知)신문』 1923年10月22日夕刊 ‘鮮人襲來を巡查が触れ回る’

「당시 경시청 및 각 경찰이 그 헛소문이 허둥지둥하여 큰 소동을 연출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2일 밤부터 3일 오후에 걸쳐 아사쿠사(淺草), 스가모(巢鴨), 요도바시(淀橋) 방면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경관과 재향군인이 “조선인이 쳐들어오니 여자와 어린이는 안전지대로 피난시키고, 장정들은 ...” 라며 돌아다녀서 인심의 불안을 극에 달하게 하였다....」

\*나카하라 무라(中原村: 지금의 가와사키川崎市)의 청년단(青年団) 및 재향군인회 회원인 코바야시 히데오(小林英男)의 9월 2일 일기:

「금일 오후 경찰로부터 “케이힌(京浜)방면의 조선인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 출동하라”라는 통달이 있어서, 재향군인, 청년단, 소방단 등 마을에서 혈기왕성한 남자는 각자 무기를 들고 모여서 이치노다 이라(市之坪)의 경계까지 진군하였다.»<sup>13)</sup>

→ 정부 당국, 군대, 경찰 등 당시 일본정부 기관 모두가 한인 관련 의 유연비어를 신뢰하고 계엄령 하에서 학살을 주도한 공통의 책임이 있음.

### 2.3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던 대량 인명살상 금지

1923년 당시 일본 정부는 대량 인명살상 사건에 관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전혀 다른 2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 종결후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서 열린 ‘전쟁 조작자의 책임과 형벌 집행에 관한 위원회’(이하, ‘전쟁책임형벌위원회’)는 대전 중에 참전국이 했던 행위를 검토하여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 32개를 정함. 그 중 첫 번째가 “살인과 대량 학살, 조직적인 테러”였고, 마지막 32번째가 “우물에 독약 투입”이었다.<sup>14)</sup>

→ 그 항목들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금기시해야 한다고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들은 인정하였고, 강화회의 최고이사회 5개국 대표(일본 포함)는 상기 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정이 담긴 회의록에 서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1919년 5월 국제적십자연맹 창설, 1920년 1월 국제연맹 창설이 있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발생 직후에 정치안정을 우선하여 유연비어를 근거로 ‘계엄령’을 실행하고 군대와 경찰 및 민간 자경단들로 하여금 수천 명의 민족 마이너리티(한인과 중국인들)를 학살하도록 조장하였다. 즉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파렴치한 행위를 태연히 하는 더블 스탠다드의 국가였다.

12) 금병동 編・解説, 『朝鮮人虐殺に関する知識人の反応(全2巻)』(緑蔭書房)1996年.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에서 재인용.

13)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川崎市役所, 『川崎市史』, 1968.

14) “Commi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of the War and on Enforcement of Penalties -Report presented to the preliminary peace conference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 No. 1/2 (Jan. - Apr., 1920).

### 3. 한인 대학살 사건의 애매한 사후처리

\* 1923년 대지진 직후 각지에서 일어난 잔혹한 학살 사실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그해 10월부터 경찰 당국은 각지에서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지의 자경단 및 그 옹호 세력들은 치안 당국의 학살자 처벌 방침에 대해 항의를 전개했다. 그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이후 간토지방 각 재판소에서 내려진 학살범에 대한 판결은 매우 “기묘한”<sup>15)</sup> 형태로 나타남.

<표2> 간토대지진 직후 각지의 학살범들에 대한 제1심 판결 상황

사건 유형		경찰서 습격, 한인 학살	한인 학살	일본인 학살
사건 수		5건	17건	16건
실형	징역 5년 이상	2명		2명
	징역 4년 이상	5명		1명
	징역 3년 이상	6명	2명	12명
	징역 2년 이상	15명	5명	30명
	징역 1년 이상	17명	9명	9명
	징역 반년 이상	3명		
소 계(A)		48명	16명	54명
집행유예(B)		54명	81명	37명
무죄		4명		
A+B		102명	97명	91명
실형 비율		47.1%	16.5%	59.3%

※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 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에서 인용.

\* 판결의 특징: 경찰서 습격과 한인학살이 겹친 사건(예: 후지오카, 요리이 사건)이나 일본인 살해 사건(예: 후쿠다마을 사건)의 경우가 한인들만 학살한 사건(예: 구마가이 사건)보다 중형을 받은 확률이 높았다.

→ 더욱이 항소 과정을 거칠수록 피고 수와 형량이 감소되었다. 최종심까지 남은 피고수와 실형을 보면, 후지오카 사건은 9명 징역 3년, 구마가이 사건은 1명 징역 2년, 후쿠다마을 사건은 7명 징역 10년이었다.<sup>16)</sup> 그 이유는 당시 간토지방 각지에서 학살 가해 자경단원들에 대한 동정론과 경찰 책임론이 고조되었기 때문.

→ 당시의 일본 형법(메이지 40년 법 45호) ‘제199조 살인죄’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됨. 즉 살인죄의 최소 형량이 3년이었으나 한인 학살범에 대한 실제 판결의 형량은 너무 낮았다. 학살당한 수많은 한인들은 정의와 법치주의에서 소외당함.

### 4. 당해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의 과제

\* 1923년 간토대지진시 일본정부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권 지역이 혼란에 빠지자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를 우선시 했다. 그 근거로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이용한

15) 姜徳相, 『関東大震災』의 「奇妙な裁判」.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 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2011)의 「第2章 第3節 見せかけの裁判による朝鮮人虐殺の国家責任の回避」.

16) 김광열,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시 학살당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동북아역사논총』 제48호, 2015.

“폭동, 방화”라는 유언비어에 두었는데, 결과는 간토지방 각지에서 일어난 한인 대학살 사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국제사회에서 대량 인명살상을 금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본 강연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당해 주제에 관련된 주요 사안들 모두는 검토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1923년 9월 직전까지 도쿄 등의 대도시에서 전개되었던 일본거주 한인의 사회운동과 그에 대한 치안 당국의 태도라든지, 간토지방 각지의 학살 실태라고 할 수 있다. 향후의 과제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에서 활용하고자 함.

\* 일본 정부는 100년 전의 학살사건의 사후처리나 진상규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일본 사회에는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직후에 재일 코리안에 관한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거나 배외주의적 헤이트스피치가 일어나곤 한다.

→ 특히 2013년 전후에 일본의 각 대도시에서 진행되었던 배외주의 헤이트 데모는 너무 과격한 형태여서 사회문제시 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2016년에 일본 정부는 「일본이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生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배외주의 우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별칙 조항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지방 선거에서 우파 인사가 당선된 곳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옹호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특히 현재 도쿄도(東京都)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17년부터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희생자 추도식’의 추도문 송부를 거부했다. 종래 도쿄도는 매년 그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냈음. 코이케의 추도문 송부거부로 인해 종래에 없던 우익들의 추도식 방해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요카제(そよ風)라는 극우 단체가 공식 추도식장인 도쿄 요코야미쵸(横網町)공원 바로 옆에서 하는 방해 위령제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간토대지진 시에 ‘조선인 폭동’은 있었고, ‘조선인 학살’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 즉 아직도 일본사회는 “약자 괴롭힘(弱い者いじめ)”이 횡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우익들의 방해 행위가 횡행하는 원인은 일본정부가 1923년 간토대학살 사건에 대해 반성은 커녕 사실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도 일본에서 특별영주 자격으로 거주하는 재일 코리안들은 100년 전에 쓴 억울한 누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현실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 내의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들의 주장과 행동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재일 코리안의 모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야 한다. 특히 모국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재일코리안에 대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헤이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보편적 인권 옹호’의 차원에서 100년 전과 같은 잔혹한 사건이 재발되면 안된다는 의사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

(강연문의 무단 전제를 금함)

# 전쟁경험과 관동대지진

—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트라우마 —

金炳辰(檀國大 HK教授)

## 1. 들어가며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관동지방 남부에 대지진이 발생, 규모 7.9, 진원지는 사가미(相模)만 서북부(동경 139.3도, 북위 35.2도)로 측정되었다. 지진은 오다와라(小田原), 네후가와(根府川) 방면이 가장 심각했지만, 도쿄, 요코하마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더해져 큰 피해를 낳았다. 도쿄는 3일 새벽까지 불길이 이어져 도심 일대에서 야마노테 일부에 걸쳐 전 시가지의 3분의 2가 소실되었다. 본조(本所)의 피복창터에서는 38,000명이 한꺼번에 소실되었다. 요코하마에서는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이 무너져 많은 압사자가 발생했고, 시가지는 거의 전소 또는 반파되어 4일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피해는 사망자 99,331명, 부상자 10,373명, 실종자 4,374명, 전소 가옥 128,266채, 반파 가옥 21,623채, 소실 가옥 4,478채, 유실 가옥 868채, 이재민은 약 340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거대 자연재해와 도시 파괴, 인명 손실에 대해 오늘날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진재’와도 관련해 재건과 부흥, 앞으로 예상되는 수도직하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의 참고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관동대지진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되었고<sup>1)</sup>, 가메이도(亀戸)사건·오스기(大杉)사건으로 불리는 일본인 사회주의자, 노동·청년운동의 지도자 총 12명이 살해된 인재(人災)로 기억에 깊게 남아있다. 특히 조선인, 중국인 학살은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믿고 자경단을 조직한 일본의 민중들이 군대, 경찰과 함께 벌였다. 사건은 도쿄, 요코하마만이 아니라 사이타마, 지바, 이바라키현에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일본학계에서는 ‘3대 테러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2)</sup> 그러나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강덕상은 조선인학살사건은 관민일체형 국제범죄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자민족 내의 계급 문제이기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병렬적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론을 펼쳤고, 이후의 저작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더욱 진전시켜 왔다<sup>3)</sup>. 강덕상은 나아가 관현의 희생양이 된 당시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조선인학살의 직접적인 주범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가메이도 사건의 피해자나 오스기 사카에 등도 자경단에 참여하였던 점과 진재 후 사회주

- 1) 왕시티엔(王希天)사건 등 중국인을 비롯해, 오키나와 사람들까지 희생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도 “조선인 사냥”을 핑계로 이루어진 사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광열(2015. 6)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 조치」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참조
- 2) 관동대지진 40주년을 맞이해 『勞動運動史研究』 37호(1963. 7)에서 이 사건들에 관해 塩田庄兵衛가 「はじめに」에서 ‘扼殺三大事件’으로 정의하고 今井清一가 권두 논문 「大震災下の緒事件の位置づけ」에서 3사건을 ‘백색테러’ 사건으로 다루면서 구체화되었다. 犬丸義一은 이러한 견해를 『歴史の眞実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現代史出版会, 1975)에서 ‘3대 테러사건’으로 정리한다.
- 3) 姜徳相(1978. 10) 「関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歴史評論』, 그리고 강덕상(2005), 김동수·박수철 역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역사비평사)에서도 이러한 논지를 이어간다.



의자와 노동조합은 가메이도사건과 오스기사건에 대해서만 항의했지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대 학살사건’은 전후의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기묘한 연대 이미지일뿐이라 비판했다.<sup>4)</sup> 이에 대해 가메이도사건의 희생자들은 조선인을 돕기 위해 자경단에 참가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sup>5)</sup> 또한 오스기 사가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도 회동하며 재일조선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온 인물로 전후에 만들어진 연대의 이미지라고는 볼수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치안당국이 ‘조선인폭동’ 등의 오보를 유포했으며, 계엄령 하에 군대와 경찰은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은 물론 계엄령의 근거로 내세웠던 ‘조선인폭동’ 등이 사실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었다.<sup>6)</sup> 물론 군부와 경찰의 주도적 역할이 밝혀졌다고 해서 당시 일본 민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일반 민중들이 국가주의와 쇼비니즘에 매몰되어 조선인학살에 참여한 것은 역시나 무거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동대지진 당시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학살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유언비어였다. 혼란과 굶주림, 지진에 대한 공포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유언비어 중에서도 유독 조선인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쉽게 전파되어 갔다. 그런데 유언비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논자들에게 따라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사이토 히데오(齋藤秀夫)와 강덕상은 경우 유언비어의 발생은 일본인 일반이 아니라 조선인을 감시하거나 단속을 전문으로 하던 프로들, 즉 헌병과 경찰 등의 치안당국의 ‘예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관현설을 제기하였다.<sup>7)</sup> 이에 대해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兎)의 경우 관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민중의 마음 깊은 곳에 일반화되어 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관이 이상사태에 직면하면서 유언비어로 분출했다는 것이다.<sup>8)</sup> 이에 대해 또한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관현들이 조선인폭동을 날조하고 이로 인해 유언비어가 유포되었고 여기에 민중들이 가담한 ‘국가책임’과 ‘민중책임’을 강조하고 있다.<sup>9)</sup>

하지만 유언비어는 그것이 퍼질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 치안당국의 예단이 일반인들에게 잠재해 있던 차별관을 부추겨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행동에 옮기게 만들었다. 유언비어는 조선인을 적대시하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관현들의 ‘예단’이 뿌리 깊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단은 3.1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만주나 시베리아 항일투쟁의 양양, 그 투쟁과 러시아혁명·중국혁명의 연대 강화 등에 비례해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높여간 일본 당국의 준비태세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관동대지진 당시의 계엄사령부의 책임 있는 군인과 관료들의 다수가 조선·만주·시베리아 등지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자들이었다.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내상이나 아카이케 아키치(赤池濃) 경시총감은, 3·1운동 때 각각 총독부 정무총감과 경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정부 당국이라는 권위에 기인했다고는 해도 유언비어가 일선의 군경과 민중에게

4) 姜徳相 『關東大震災』 196-201쪽

5) 亀戸事件建碑実行委員会編『亀戸事件の記録』亀戸事件建碑実行委員会, 1971, 18-44쪽

6)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姜徳相(2003) 『新版 關東大震災: 虐殺の記憶』青丘文化社(김동수·박수철 역(2005))『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山田昭次(2003)『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創史社(이진희 역(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와 민중의 책임』논형; 松尾章一(2003)『關東大震災と戒嚴令』吉川弘文館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과 한국학계에서의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노주은의 일련의 연구사 정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노주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學林』 29집; 노주은(2013)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 『역사비평』 104호 참조

7) 齋藤秀夫『關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ざ: 三十五年によせて』『歴史評論』, 1958年10月

8) 松尾尊兎『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上・下, 『思想』1963年9月, 1964年2月

9) 강덕상·야마다 쇼지 외(2013)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pp.11-81 참조

쉽게 전파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 발표에서는 정부당국의 예단이 퍼지게 된 배경에는 피식민지민에 대한 편견, 차별, 멸시라는 감정으로는 풀수 없는 ‘공포→과잉대응’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공포심이 정부 당국에서부터 일반 민중에게로 전이된 배경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3대 테러사건’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게 만드는 요인임을 고찰해 보겠다.

## 2. 계엄령과 자경단

관동대진재의 발생과 동시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계엄령은 내란 혹은 전쟁의 경우에 발령되며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상정되어야 한다. 당시의 내상 미즈노와 경보국장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키치는 1일 밤에 임시 진재구 호사무국 관제 및 비상징발령과 계엄에 관한 칙령을 기안하고 2일 오전 각의 결정 및 섭정(攝政)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게 된다. 칙령을 기안할 당시 이미 조선인이 각지에서 불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탄, 방화를 이용한 ‘반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sup>10)</sup> 정부의 계엄령 발포 움직임과 맞물려 ‘불령선인’의 방화·폭탄 관련 유언비어가 2일부터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에 의한 학살의 시작과 자경단에 의한 증폭이 이어졌다. 내무성 경보국장과 사이타마현 내무부장이 조선인 체포지령을 내리는 등 민중들로 하여금 조선인 관련 유언비에 확신성을 부여하였다.<sup>11)</sup> 재향군인, 청년단원, 소방단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자경단 등이 각지에서 조선인을 감시하고 검속해 갔다. 이들 자경단은 군복무를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계엄을 담당하는 군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일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가운데 불온을 꾀하는 자 있으니 저들에게 빈틈을 엿볼 기회를 주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은 군대·경찰과 협력하여 충분히 경계”<sup>12)</sup>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렇게 관헌이 조선인들을 강제 수용시키자 그것을 지켜보던 민중들도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sup>13)</sup> 이런 식으로 ‘조선인 폭동’설은 기정사실화되었다.

9월 1일에 유포된 유언비어에는 사회주의자의 음모,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의 방화 등 관헌이 만들어 낸 듯한 유언비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와 관련된 내용은 유언비어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사라진다. ‘사회주의자의 방화’는 일반 시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 시민의 잠재심리를 자극해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반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조선인의 방화’였다.

이렇듯 민중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위험성이나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의 관련성에 무관심해 있었을 때, 군부는 계엄령을 법률적인 형식없이 사회주의자를 말살할 호기로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하는 경찰관에 비해 헌병의 자유 재량권은 컸다. 도쿄헌병대장 고이즈미 로쿠이치(小泉六一) 소장은 “불령선인 등에 관한 불온한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에 계엄령에 반하는 자는(사회)주의자이건 아니건 가차 없이 처리하라”<sup>14)</sup>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도쿄헌병대 내에서는 어떤 분대가 공산당원의 검거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으며, 오스기사건 때도 고지마치(麹町) 헌병분대

10) 姜徳相 「一國史を超えて：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Vol.668, 2014

11) 강덕상·야마다 쇼지 외(2013) 『관동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pp.52-56

12) 田崎公司他 編(1997) 『関東大震災 陸軍関係史料』第2巻, p160

13) 강덕상, 김동수·박수철 역(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진』, 역사비평사, pp.126-130

14) 角田房子(1975) 『甘粕大尉』, 中央公論, p.53

장이었던 아마카스 마사히코는 다른 헌병분대장과 오스기 체포에 관해 내기까지 하면서 ‘공로 다툼’을 했다고 한다.<sup>15)</sup> 당시 경시청 관방주사였던 쇼리키 마쓰타로(正力松太郎)에 의하면 이때 육군에서 지목한 인물이 오스기 사카에 이외에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등 3명이 있었다고 한다.<sup>16)</sup> 그리고 지진이 3주일이나 지난 16일에 오스기 일행은 아마카스가 이끄는 헌병대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고마치 헌병사령부 구내에서 살해당한다. 행방불명된 일행을 걱정한 오스기의 동료들의 노력과 목격자들의 증언 등으로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군부는 9월 20일 경에 아마카스 등 4명의 헌병을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오스기 일행의 살해 동기에 대해 아마카스는 지진의 곤란을 틈타 무정부주의자가 조선인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키려 하는 소문을 믿었다고 한다. 오스기 다음으론 사회주의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후쿠다 교지(福田狂二) 죽일 예정이었다고 한다.<sup>17)</sup> 결국 군법회의에서 아마카스는 사건의 주모자로서 징역 10년을 언도받는다. 그러나 3년도 채우지 않고선 석방되어 관비로 프랑스 유학하고서 만주로 건너가 만주사변에 참여한 후, 만주영화협회(滿影)의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 3. 의병전쟁, 시베리아 출병의 경험과 공포의 전파

치안당국의 예단이 일반인들에게 잠재해 있던 차별관을 부추겨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행동에 옮기게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대참사는 식민지 지배에서 오는 조선인 차별관이 그 배경이 되었을 터이지만, 1919년의 3·1운동과 이후 한반도, 중국동북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투사들의 의혈투쟁에 관한 언론보도가 일본민중들에게 과잉된 방어의를 부여했음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언론에서 조선은 경술국치 직후 갖가지 조선통치론으로 많이 다루어졌지만 차츰 그 빈도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와 반비례로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해마다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보다 중국이야말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3·1운동이었다. ‘병합’이래 조선 문제를 국민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기존의 무단적 동화정책을 추진했던 총독 정치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일본인과의 ‘일시동인’을 목표로 한 ‘문화’적 동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이 점차 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은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実)가 헌병정치의 폐지와 ‘문화주의’에 기초한 동화정책을 발표하자 대대적인 환영 기조로 바뀌게 된다. 반면 문화정치를 따르지 않는 독립운동을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짓으로 규정하고 이전보다 더욱 적대적인 시각을 유포하면서 일본 민중들 사이에 조선인 멸시와 독립운동 공포감을 조성했다.<sup>18)</sup> 이러한 논조는 ‘조선인폭동’설과 같은 유언비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유언비어는 조선인을 적대시하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관헌들의 ‘예단’이 뿌리 깊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단은 3.1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만주나 시베리아 항일투쟁의 양양, 그 투쟁과 러시아혁명·중국혁명의 연대 강화 등에 비례해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높여간 일본 당국의 준비태세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계기로 독립운동에서

15) 宮崎清隆(1952)『憲兵』, 東京ライフ社, pp.239-246

16) 安成二郎(1950)「大杉榮虐殺に関するメモ」『自由思想』, 審美社, pp.174-176

17) 高田義一郎(1932)「大杉榮、伊藤野枝及び少年橘宗一」『兇器乱舞の文化: 明治・大正・昭和暗殺史』 先進社, p.293

18) 마쓰오 다카요시, 오석철 역(2011) 『다이쇼테모크라시』, 소명출판, pp.287-302

사회주의 노선이 급격히 고조되고, 1920년의 간도사변과 청산리전투, 시베리아 출병에서 격돌한 조선 인계릴라부대 등 항일무장투쟁과 조우하면서 그 배후로 소비에트러시아를 지목하게 된다. 이처럼 1918~1920년 사이 식민지전쟁의 일선에 있던 이들 수뇌부가 지진의 재앙 속에서 보인 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관에는, 감시와 통제를 주로 하는 관현적 시각에 대결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신념이 덧붙여 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1차세계대전 이후 불경기 속에서 각종 노동조합의 결성과 공장단위의 쟁위행위를 넘어선 전국적 조직체를 구성하려는 경향마저 보이면서 그들의 우려감도 더해 갔을 것이다. 여기에 제일조선 인들도 메이데이 행사의 선두에 서기도 하는 등 일본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의 조합은 치안당국의 과도한 방어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쿄의 괴멸적인 피해를 앞에 둔 치안당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재앙에 흥분하고 불안해진 민중들의 반정부폭동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갖게 된다. 여기에는 적화된 러시아의 ‘과격파’ 정부가 ‘불령 조선인’과 ‘적화 일본인’을 통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편집증적인 판단도 녹아 있었다. 9월 1일 지진 직후에 나온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에 의한 방화가 많다”는 유언비어는 당국의 이런 발상이 반영된 것이다.

#### 4. 나가며

1923년 9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과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진재’는,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천재(天災)에 더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조선인, 사회주의자 학살이라는 인재(人災)까지 겹쳐진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두 진재 이후 일반 대중들의 소비니즘적 행동이 집단적으로 가시적 공간에 등장한 점도 역사적 아이러니를 느끼게 만들기 에 충분할 듯하다. 90여년전에 발생한 일반 대중의 극단적 소비니즘 행위도 이러한 프로세스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치안당국의 ‘조선인’과 ‘사회주의’, 특히 당시 러시아에 등장한 적화정권과 관련지는 표상에 따른 예단이 일반 민중들을 소비니즘적 행위로 유도해 갔었다. 하지만 유언비어는 그것이 퍼질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 치안당국의 예단이 일반인들에게 잠재해 있던 공포감을 부추겨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행동에 옮기게 만들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한반도와 중국동북부,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한인계릴라들과 조우하면서 품게 된 치안당국의 ‘조선인’=‘적화 폭력’=‘사회주의’라는 표상과는 달리,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일반 대중들은 ‘조선인’=‘폭력성’이라는 점만 부각되었다. 이것은 치안당국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에 의한 사회주의자학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치안당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내부의 예단에 의해 발생한 유언비어가 그대로 관현의 증추부에 보고된 후에 다시 환원됨으로써 관현들에게 ‘이미 실재적 사실’이라는 악순환적 구조를 재생산하며 희생양을 찾게 된다. 여기에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코민테른과의 조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두 차례에 걸쳐 국외 잠입을 성공시킨 오스기 사카에나 전투적 노동조합 구성원들은 그들이 찾고자 하는 표상에 가장 적절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 언어적 차별로 살펴보는 관동대지진

양민호 (부경대)

## 1. 들어가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는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대 규모의 피해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에게 조선인 학살이라는 이야기로 관동대지진은 더 유명해졌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조선인 학살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대지진과 같은 재해나 재난 시에 발생하는 언어적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자(小數者)의 불합리적 대우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언어적 차별의 입장에 관동대지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는 다르지 않으나 언어에 기인하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나가고자 한다.

## 2. 언어적 차이로 차별 짓게 하는 관동대지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관동대지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더 참담한 사건이 존재한다. 관동대지진 직후 약 3-4주에 걸친 혼란기를 틈타 당시 조선인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일본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긴박한 재해와 재난의 상황 속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제노사이드(genocide)<sup>1)</sup>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 자경단이 당시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하였다. 방법으로는 이미 알려진대로 여러 가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납작한 두상을 가졌거나,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크거나, 긴머리를 가진 외모의 인물은 조선인으로 간주하기 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외모적 식별법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언어적 요소를 바탕으로 구별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조선인을 구별하는 방법 중 어떻게 보면 쉽고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언어적 차이 즉 발음을 시켜봄으로써 구별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이 하기 힘든 발음, 다시 말해 일본인만 할 수 있는 발음을 시켜서 가려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식별법에는 큰 오류가 있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관동대지진 직후 이러한 식별 과정에서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도 다수 포함되어 함께 살해되었다고 전해져 온다. 관동대지진이라는 혼란기를 틈타 인종의 일부를 말살하고자 했던 이러한 낯선 공격들은 창씨개명(創氏改名)이나 화(禍)를 피해 일본식 이름과 복장으로 위장한 조선인들까지 잡고야 말겠다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일본어 발음, 즉 한국어에 없는 어두(語頭) 유성음(有聲音)이나 장단(長短) 구별이 쉽지 않은 장음(長音), 그리고 특수음(特殊

1)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가 합쳐진 말이다. '집단학살'이라고도 불린다. 이 말은 특정 집단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로, 보통 종교나 인종, 민족, 이념 등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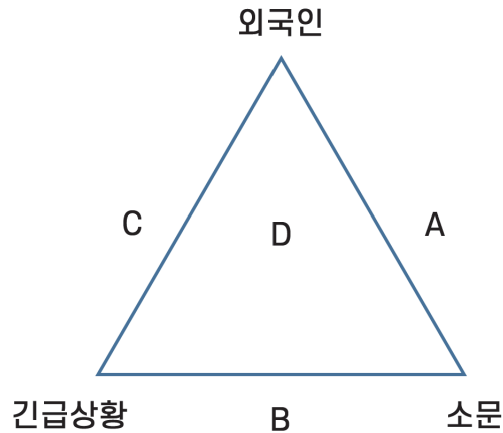
音)으로 구성된 발음(發音)과 같은 조합의 단어를 골라 발음하게 하였다. 이로서 十五円五十銭(じゅうごえんごじっせん)의 발음을 시켜보거나 大根(だいこん) 또는 十円(じゅうえん) 등의 어휘까지 찾아 말하게 해서 발음이 어색한 경우에 살해하였다. 어떻게 보면 고대 십볼렛(Shibboleth)<sup>2)</sup>에 언급된 발음을 통해 외부인(내부인도 포함)을 살해하는 종교적 악습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관동대지진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자행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해 모국어인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를 이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일본 지방 출신들의 언어적 차이는 간과한 채 함께 자행된 만행이었다. 이러한 언어적 식별법 때문에 지역의 사투리(도호쿠벤(東北弁)과 류큐벤(琉球弁)) 화자인 일본인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특히 도호쿠 지방은 일본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무성 악센트 지역이며, 일본어 사투리 중에서도 유독 알아듣기 힘들어 즈즈벤(ズーズー弁)이라 일컫는 발음을 한다. 어찌보면 일본 내에서도 사투리가 어눌하게 들린다고 평가되 도호쿠 방언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쪽 지역 출신 중에 성(姓)이 金(カネ, コン, コンノ 등으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이면서 도호쿠 지역인 사람, 강제로 외자 성으로 개명한 아마미(奄美) 제도(諸島) 출신자들, 그리고 부락주민(部落民)<sup>3)</sup> 등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나 최빈층이 반체제적 사회주의자나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어적 차이는 비단 조선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발음 차이가 언어적 차별을 일으켜 이 참극을 만들어 낸 꼴이 되었다.

### 3. 소문과 유언비어 생산의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관동대지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외국인이 소문(噂)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앞서 언급한 관동대지진일 것이다. 관동대지진 직후 퍼진 소문 ‘조선인들이 습격해 우물에 독을 넣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소문은 후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로 판명되었으나, 이 소문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인을 색출하고자하는 일련의 차별적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천 명의 조선인(및 조선인으로 오해받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살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실 일본어로 선동 또는 악선전인 데마(デマ)와 유언비어인 流言을 동의어로 인정하는 학자는 많다. 하지만 언어사회학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선동과 유언비어는 엄밀히 구별된다. 선동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정보이며, 유언비어나 소문은 의도적이지 않은 정보로 반드시 거짓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관동대지진이라는 긴급상황 속 약자의 언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약자라는 범주에는 당연히 조선인이라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또 이 약자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본다면 ‘일본이라는 국적을 가졌지만 소수자(마이너리티)로 취급받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동대지진과 같이 이러한 긴급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류에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외부인을 구별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문구를 의미한다.

3) 피차별부락주민(被差別部落民)이라고도 불리는 불리는 부락주민은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에서 최하층에 위치했던 천민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당대 가장 불결하고 금기시되던 곳인 ‘부락(部落)’에 거주하였던 집단이며,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그 후손들을 현재에도 차별하고 비하하는 증오발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 그림은 다니엘 룡(1998)이 위의 3가지 개념을 조합해서 그린 것이다. 소문과 외국인과 긴급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깊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통해 4개의 접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첫째, 외국인과 소문(A), 둘째, 소문과 긴급상황(관동대지진)(B), 셋째, 긴급상황(관동대지진)과 외국인(C),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합친 외국인과 소문과 긴급상황(관동대지진)(D)이 겹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동대지진과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 시에는 정보의 요청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높아지는 요구나 요청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터문이 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정보는 진공 상태가 되고,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주위 사람들은 억측이나 상상을 통해 소문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언어적으로 불편함을 지닌 외국인이나 소수자가 주로 타깃이 되며 많은 피해를 끼친다. 결국, 소문이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흘러보낸 결과물이다. 소문이라고 불리는 이 발화는 처음에 단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해 낸 추측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억측을 타인에게 발설하게 되면 그것은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되어, 한층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되어 전해지기 시작한다. 물론 이러한 소문 가운데 사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유포된 거짓말(루머)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한번 돌았던 유언비어는 단순한 소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소문을 전달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또한 가해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수록 소문이 더 빨리 확산되어 간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고, 다음날인 9월 2일에는 관동 지방 각 지역에서 조선인에 대한 여러 악의적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물에 독을 넣었다, 도둑질하러 다닌다, 조선인의 방화 폭동이 시작되었다 등과 같은 다양한 소문이 유포되면서 결과적으로 7천 명 이상의 조선인 및 소수자가 학살되었다. 사실 현대 사회처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작동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급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언어의 장애물로 인해 ‘정보약자’의 지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100년 전 관동대지진의 긴급상황 속에서는 어떠한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재난과 긴급상황 시에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고스라니 받았던 외국인으로서 처우의 취약성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다.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에는 여러 재난과 재해 피해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95년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地震)과 2011년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地震)에서는 다행이도 2차 피해를

낳는 언어적 차별에 대한 소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언어적 편견이었으며 이러한 언어적 차이가 차별을 부추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관동대지진이라는 100년 전에 발생한 긴급상황 속에서 신뢰가 가는 최신 정보의 입수는 조선인을 포함한 소수자에게까지 도달되어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악조건이었다. 무성한 소문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만 하고, 생사의 갈림길이 처해 있는 매우 견디기 힘든 긴급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관동대지진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언어 차이를 통해 가려내어 민족을 차별하고자 했던 차별적 갈등 의식이 발현된 결과 소문은 만들어졌다. 사실 사회언어학적 연구 분야 중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미확인 정보를 소문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 지금까지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문도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테마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나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도 집단(민족이나 국가)의 언어행동과 언어의식, 그리고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언어행동을 연구하는 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이제는 다루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소수자의 차별을 막는 대책으로써 언어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며

이상 본 발표에서는 언어적 차이로 사람을 차별 짓게 만들고, 소문과 유언비어의 메커니즘을 통해 관동대지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긴박한 상황일수록 언어적 차별은 국적을 불문한다는 점이다. 관동대지진 직후 확산된 악의적 소문은 언어적 차이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여 하였다. 그렇게 차별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는 물론 조선인이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의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해 소수자이면서 지역 출신자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인에 관한 악의적 소문으로 인해 일본의 표준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도 화를 입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언어적 갈등과 차별은 긴급 재난 시에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상황 속에서 살펴본 관동대지진과 언어적 차별 문제, 또 100년 사이에 발생했던 수많은 재난들,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마이너리티, 에스니시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각한 차별과 피해를 당해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100년 전 불행했던 차별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공생(共生),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하여 만들어가라는 공창(共創)의 메시지는 지금 세대에게 관동대지진의 언어적 차별의 기억이 전하는 교훈이자 역사적 사실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한위건과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일본에서의 활동 보기

김인덕 (청암대)

## 1. 서: 박경식을 통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오늘날 논의되는 재일조선인사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자는 박경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역할은 한국사와 일본사, 재일조선인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연구는 강덕상에 대한 시무적 교시와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up>1)</sup>

박경식은 『8.15해방 전 재일조선인운동사』(삼일서방, 1979.)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서술했다.

“1923년은 재일조선인에게 관동대진재 때에 학살사건의 희생을 입은 중요한 해이다. 이 사건은 여기에서 논급할 필요도 없는 조선 독립운동과 일본의 혁명운동에 공포를 느낀 일본 관헌 당국이 진재의 혼란을 이용하여 ‘조선인 내습’의 선동을 날조하여 지방장관에게 통달을 보내 일어난 사건이다.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지에 사는 죄 없는 조선인 약 6천 명이 군대와 경찰, 거기에 경찰 관헌 당국에 교사당한 자경단에 의해 학살되었다. 일본 정부당국은 이 학살사건에 자경단원의 일부를 체포하여 재판할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하여 지금까지 그 진상을 분명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149-150쪽)

그리고 박경식은 재일조선인은 투쟁에 나섰던 사실을 기록했다. 9월 말 백무, 변희용, 한위건, 박사직 등 북성회,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간부가 발기인이 되어 조선인박해사실조사회를 조직해서 많은 방해와 곤란을 극복하여 조사를 하고 같은 해 12월 말에는 일화일선청년회관에서 재도쿄조선인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조선총독부, 『재경조선인상황』(1924)) 그리고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야마자키 케사야(山崎今朝弥) 등의 일본법조단과 일본노동총동맹 등에서는 조선인학살에 대해 일본 정부당국에 항의하고 또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가네코 요분(金子洋文), 에구치 칸(江口渙) 등은 집필활동으로, 다부치 토요키치(田淵豊吉),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요코야마 카쓰타로(横山勝太郎) 등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했다. 많은 일본인은 조선인학살에 대해 동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항의운동에까지 나가지 않았다. 또한 학자, 문화인 등의 많은 인테리는 학살사건을 문제시하지 않고, 신문 등의 매스컴은 대대적으로 ‘조선인 내습’, 다른 왜곡된 선전을 보도하였으나, 그 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sup>2)</sup>

박경식에 따르면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를 비롯한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학살사건은 당시 큰 사회문제로 취급되었으나 대량의 조선인학살사건은 흐지부지되는 민족차별이 일본 사회를 감싸고 있

1) 김인덕, 「재일조선인사 연구의 선구자 박경식」, 『근현대 지식인과 한일 역사화해』, 동북아역사재단, 2021. 12, 참조.  
2) 박경식, 『8.15해방 전 재일조선인운동사』, 삼일서방, 1979, 150쪽.

었다.<sup>3)</sup>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해서는 금병동과 강덕상 그리고 박경식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는 도쿄의 조선대학이 편한 책이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sup>4)</sup> 이런 선학의 연구에 기초하여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정면에서 싸운 활동가 한위건의 단상을 살펴본다.

## 2. 한위건에 대한 선행 연구 보기

### 2.1 김승태의 한위건론

필자의 한위건에 대해서는 그의 뚜렷한 활동 이력에 비해서 사회적 인지도나 학계의 관심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sup>5)</sup> 물론 그렇다고 학술적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조명은 국외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최규진과 하세가와 사오리는 1982년 생애 후반기 중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요녕인민출판사(책임편집 김보민, 특약편집 김형직)에서 한위건의 삶을 선구적으로 정리했다.<sup>6)</sup> 이어서 1983년 심양의 료녕인민출판사에서 나온 『조선혁명열사전』 제1집과 1984년 청구문고에서 편집 발행한 『조선민족운동사연구』 제1집<sup>7)</sup>을 통해 한위건의 기초적인 연보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국외 선행 연구들이 정리한 생애를 재검토하며 한위건의 이론가로서의 면모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했다. 이후 한동안 한위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승태가 한위건의 생애 전반과 3.1운동에서의 활약을 자세히 정리했다.<sup>8)</sup> 이런 한위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896년 함경남도 흥원군 용원면 동촌리에서 태어나 고향에 있던 사립 중성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1914년 서울 오성중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3월 졸업하고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경성의전 2학년을 마칠 무렵인 1919년 1월 27일 당시 기독교청년회(YMCA) 간사를 맡고 있던 박희도의 초청으로 중국음식점 대관원에서 각 전문학교 유력 학생들이 모일 때 참여하여 학생단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강기덕, 김원벽과 함께 각 학교 대표자를 선임하고, 2월 20일 승동교회에서 제1회 학생단 간부회를 개최하였다. 2월 22일 박희도의 제안으로 김원벽, 강기덕과 협의하여 학생단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기독교 천도교 연합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 하숙집, 관북학생친목회 등에서 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3) 박경식, 『8.15해방 전 재일조선인운동사』, 삼일서방, 1979, 150쪽.

4) 朝鮮大學校,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實態 朝鮮に關する研究資料』 第9集, 1963.

5) 최규진·하세가와 사오리, 「한위건의 초기 생애와 3·1 독립운동 참여 과정 톺아보기—생애 초기 규명과 경성의학전문학교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5, 2020. 7, 참조. 그에 대한 주요 글은 다음과 같다. 김점숙,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해방운동론 이론」, 『진보평론』, 1994, 전명혁, 「철부(鐵夫)노선의 주창자, 한위건과 사회주의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22, 1994, 권영숙,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최고 이론가 한위건」, 『발굴한 현대사인물』 2, 한겨레신문사, 1992,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水野直樹, 「韓偉健(追補)」, 『朝鮮民族運動研究』 3, 靑丘文庫, 1986, 水野直樹, 「韓偉健」, 『朝鮮民族運動研究』 1, 靑丘文庫, 1984.

6) 최규진에 따르면, 『不屈的戰士—紀念李鉄夫同志』의 특약 편집을 맡았던 김형직은 『조선혁명열사전』 1 (1983)과 『조선족 백년사화』 2 (1985)에서 각각 리철부(1901~1937), 불굴의 투사 이철부와 관련한 장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온 이 글에는 전거가 나와 있지 않다.

7) 한위건에 대한 부분은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가 집필하였다.

8)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참조.

3월 1일에는 경성의전 학생들을 이끌고 파고다공원에 가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김원벽, 강기덕과 함께 3월 5일 남대문역 앞 학생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 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내무부위원, 임시의정원 함경도 의원으로 참여했고, 임시정부의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1919년 10월경 국내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활약하였고, 상하이로 돌아가서는 신채호를 도와 『신대한』 발간에도 참여하였다. 상하이 교포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약을 하다가 1920년 3월 임시의정원 의원직을 사임하였다. — 1924년 가을 귀국하여 10월 시대일보 이사로 활동하였고, 이듬해 3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1928년 2월까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맡았다. 동아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1925년 늦가을 동경여자의학전문 출신 이덕요와 결혼하고, 1926년 9월경 조선공산당에 가입했다. — 1928년 2월 27일 조선공산당 3차당대회에 준비위원 대표로 참석하여, 검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가을 일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투신하였다. 그 후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에 가서 1931년 4월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에 가입했다. 1932년 베이징에서 부인 이덕요와 사별하고, 1933년 5월 중국 관헌에게 체포되어 난징 헌병대로 이송되었으나, 동포들의 교섭으로 석방되었다. 그 해 텐진에 돌아와 중국공산당 하북성위원회 선전부장을 맡고, 중국공산당원 장수압과 재혼했다. 이 때부터 ‘좌경모험주의’를 비판하는 ‘철부노선’을 주장하다가 1934년 3월 하북성위원회에 이 주장을 편지로 보냈다가, 5월 오히려 하북성위원회로부터 ‘우경취소주의’ ‘철부노선’이라고 하여 부인과 함께 출당조치를 당하였다. 1936년 봄 부인과 함께 복권되어 하북성위원회 서기 겸 텐진시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1937년 4월 서북당대표회의와 백색구역공작회의에 참석차 연안에 가서 머물던 중 지병인 폐결핵과 장티푸스로 1937년 7월 10일 별세했다. 1940년 중국공산당에서 ‘철부노선’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1945년 4월 한위건의 묘비를 세워주었다.<sup>9)</sup>

한위건이라는 활동가의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대응의 양태를 통해 재난에 대응하는 전선에 선 활동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제운동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 2.2 선행 연구 속 1923년 관동대지진과 한위건의 일본에서의 활동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에서 1923년 그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1)</sup>

- 1920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했다. 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 가입하여 위원, 총무의 직책을 맡았다. 그 무렵 조선기독교청년회 이사를 지냈고, 독립군자금 모집 사건에 관련되어 한때 검거된 적도 있었다.
-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주익(朱翼)과 함께 조선인유학생학우회 주최로 만세 시위운동을 시도했다.
- 1923년 여름 조선인유학생학우회 강연대의 일원으로 귀국하여 각지를 순회하면서 강연했다.
- 1923년 9월 순회 강연 도중 일본 간토대지진이 발생하자 서울에서 일본유학생대회를 개최하고, 도쿄지방조선인이재민구제회 발기인 및 위원으로 활동했다.
- 1923년 10월 도쿄로 가서 조선인이재민위문반 간부로서 조선인학살사건을 조사했다. 한편, 피살된 조선인 동포 추도회에 참가했다.

9)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참조.

10) 최근 박종린, 윤덕영선생님의 현장 답사로 그의 묘가 확인되었다.

11)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526쪽.

일본에서의 한위건을 보자. 그는 1920년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 이론에도 관심을 가져 1920년 10월 김세연, 하필원, 박낙중 등과 함께 공산주의연구회를 조직하였다.<sup>12)</sup>

이런 그는 1921년 6월경 “홍원군자금모집사건” 연루 혐의로 함흥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여 도쿄에서 구인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sup>13)</sup>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것 같다. 김승태의 연구에 따르면 「김신근 외 3인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1. 6. 6)을 통해 정리하는데, 이 사건은 1919년 7~8월경 자신이 간도군정서 군자금모집 특파원이라고 소개한 박용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군자금 모금 송금을 부탁받고, 모금 송금한 혐의로 김신근, 한원철, 강협구, 안억환 등이 함흥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921년 4월 21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경성복심법원에서 1921년 6월 6일 기각한 사건이라고 한다.<sup>14)</sup>

이런 한위건은 일본에 가서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에 가입하여 평의원으로 활동했다.<sup>15)</sup> 그리고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에서도 이사를 맡았다.<sup>16)</sup>

그는 학우회 간부로서 1923년 1월 초 교육시찰차 3주간 예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정주 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 선생을 기독교청년회 총무 백남훈, 학우회장 민태원과 함께 발기하여 1월 18일 일반유지를 망라한 성대한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유학생 사회에서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1923년 7월 유학생학우회에서 1920년 여름부터 해마다 실시하던 제3회 하기 순회강연단의 강사로 건너와 전국 각지를 돌며 강연했다.<sup>17)</sup>

단순히 김승태의 연구에서 그의 1923년 관동대지진 시기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서의 모습이다.

“한위건은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국내에 있었다. 그는 관동대지진의 비보를 듣고 곧바로 9월 6일 서울 천도교회당에서 재경 일본유학생 100여명을 소집하여 '동경유학생위문구원회'를 조직하여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9월 8일에 같은 장소에서 모인 ‘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에도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이재동포 구제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제 당국의 모금 금지와 방해로 9월 하순경 그동안 수합된 동정금 2천원을 동아일보 특파원 이상협과 동경기독교연합교회 목사 오기선에게 맡겨 구제사무를 위탁하고, 구제회는 해산하였지만, 9월 말까지 兪星濬, 李鈺, 韓偉健을 유입시켜 나머지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sup>18)</sup>

1923년 10월 이후 그는 도쿄에서 활동했다.

“1923년 10월 한위건은 이재동포들을 구제하고, 조선인 학살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가

12) 水野直樹, 「韓偉健(追補)」 『朝鮮民族運動研究』 3, 靑丘文庫, 1986, 242쪽.

13) “동경에 유학 중이던 韓偉健씨는 제작년 삼월사건으로 만주지방에 피신하여 지내다가 당국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동경으로 가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더니 그의 고향인 洪原軍資金募集事件의 관계로 함흥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을 발하여 함흥으로 압송되었는데 사건의 내용은 아직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불원간에 또 경성으로 압송된다 하더라(함흥)”(『동경에서 함흥에 압송된 한위건 다시 경성으로』, 『동아일보』 1921. 6. 30.)

14) 김승태, 279쪽.

15) 「현재임원」 『學之光』 제21호, 1921. 1, 82쪽.

16)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 재일본한국인민족운동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4쪽.

17)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12, 281쪽.

18)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12, 282쪽.

자신이 이사로 있던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간부들과 동경천도교청년회 간부들의 발기로 在日本關東地方罹災朝鮮同胞慰問班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 위문반의 간부는 한위건을 비롯한 白武, 卞熙璫, 李東濟, 朴思稷, 李根茂 등이었다. 이 위문반은 표면적으로는 동아일보사에서 위탁한 2천 만원을 관리하며 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이면적으로는 ‘조선인 학살사건 조사회’를 꾸려 학살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25일 日華日鮮青年會館에서 경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약 200여명이 모인 경과보고회에서는 “위문반이 활동한 경과와 회계에 관한 보고와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 등을 하고, 곧바로 대회 명칭을 在日本東京朝鮮人大會로 개칭한 다음 조선인 대회 명의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당일로 위문반을 해산하고, 그후 일체의 사업을 조선인대회가 계승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성명서와 위문반에서 작성한 ‘조선동포위문실황서’ 등의 문서는 인쇄하여 국내외에 널리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일제당국의 제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일제 당국도 다만 사적통신으로 이 문서들이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2월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천여명이 모여 조선인대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피살동포추도회를 열었다.<sup>19)</sup>

이런 내용에 기초해 그의 행적 관련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국내외 재일조선인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3.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한위건의 일본 활동 보기

#### 3.1 재경유학생대회와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일본에서 한위건 보기는 먼저 1923년 그와 관련하여 재경유학생대회를 보자.

1923년 관동대지진 재일조선인 학살은 10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동아일보』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재일조선인 학살은 9월 2일 계엄령이 내린 이후인 9월 4일을 전후해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진 것은 9월 6일 천도교당에서 개최한 재경유학생대회였다고 보인다.<sup>20)</sup>

이날 대회는 일본 경찰의 통제외 지정자 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sup>21)</sup> 대회에서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정창욱, 김낙영, 강훈 등 3명을 대지진이 일어난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연락사무소를 개벽사에 두고, 한위건, 임정호, 김창진, 홍승로, 이옥 등을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여 유학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했다.<sup>22)</sup> 그러나 이 대회에서 재일조선인 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1923년 9월 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유성준 이하 21명이 모임을 갖고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발족시킬 것을 결의했다.<sup>24)</sup>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언론계, 천도교와 보천교, 기독교의 종교계, 청년연합회의 청년계, 조선인상조회 등의 사회단체, 휘문학교, 변호사 등

19)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1, 2019. 12, 282-283쪽.

20) 김인택 외,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지역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38쪽.

21) 「유학생대회는 금일」, 『동아일보』 1923년 9월 6일.

22) 「위선 특파원을 일본유학생대회에서 특파원 7일 밤 출발」, 『동아일보』 1923년 9월 7일.

23) 만약 알려졌다면 하더라도 언론통제로 인하여 보도되지 못할 수 있었다.

24) 국내의 움직임은 성주현의 연구에 기초한다.(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선인, 2020.)

이 참여하였다. 임시발기회는 21명이 참여했다. 발기인당 4, 5명의 발기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다음날 8일에는 발기인이 92명으로 늘어났다. 조선인구제회는 사무실을 경운동 천도교중앙총부에 두는 한편 9월 말까지 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신문에 꾸준히 광고를 했다.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가 9월 8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발족, 위원장으로 유성준이 선정되었다.<sup>25)</sup> 이외 임원은 집행위원에 고원훈, 이범승, 박승빈, 장우식, 홍태현, 김병희, 조남준, 이윤재, 이인, 송진우, 상임위원에 신태악 최린 임정호, 회계에 방두식 등이 선정되었다. 참여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 : 金圭源 외 91명

위원장 : 兪星濬

위 원 : 高元勳 李範昇 朴勝彬 張友植 洪泰賢 金炳喜 趙南駿 李潤載 李仁 宋鎮禹

상무위원 : 辛泰嶽 崔麟 任政鎬

회 계 : 張斗鉉<sup>26)</sup>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는 발기인회에서 선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갔다. 이들 중 유성준은 안동교회를 설립한 인물로 조선물산장려회, 민립대학설립기성회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고원훈은 보성전문학교장, 조선체육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는 중이었고, 박승빈과 이인은 변호사였다.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 최린은 천도교 중진으로 활동하는 등 저명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였다.

이렇게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의 발기인은 당시 경성 유지급 인사를 포함하여 종교단체, 사회사업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전술한 주요 인물 이외의 인사로는 기독교계의 이상재를 비롯하여 이대위, 유성준 등, 천도교계는 최린을 비롯하여 이종린, 김옥빈, 김기전, 방정환 등이,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등이 참여하였다. 법조계에서는 이인, 박승빈 등이 이름을 걸었다.

특히 유학생으로는 한위건을 비롯하여 이옥 등, 사회주의계로는 김철수, 허헌, 여운홍 등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한상룡, 민대식, 원덕상 등도 참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인구제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세력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일세력까지도 참여한 범사회적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가 조직되자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광고했다.<sup>27)</sup>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는 9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서 활동 중인 한위건과 이옥을 위원으로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날부터 의연금 모금을 착수하였다. 한위건과 이옥을 추가 선정한 것은 이들이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일은 모금문제도 있다.<sup>28)</sup> 이 단체

25) 「참화에 죽어가는 동포를 위하여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성립」, 『동아일보』 1923년 9월 10일.

26) 「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開催ノ件」, 1923년 9월 8일; 「참화에 죽어가는 동포를 위하여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성립」, 『동아일보』 1923년 9월 10일; 「구제회의 구체적 조직」, 『조선일보』 1923년 9월 10일.

27) “最善의 勞力을 다하여 滿天下 同胞의 期待에 不負할 것을 確信하노라. — 또 一萬有餘의 罹災同胞에 대하여 僅히 二千五百圓의 物資로서는 到底히 應急의 處置에도 酬應키 難할 것은 勿論이로다. — 今番의 東京在留朝鮮人同胞救濟會가 發起케 되어 廣히 義捐의 募集에 着手케 되었으니, 赴急救難의 同胞感에 鑑하여 翕然한 同情과 集中이 되기”(「동경지방이재동포구제회 발기-구급의 의연모집」, 『동아일보』 1923년 9월 10일.)

는 이재동포를 위해 일차적으로 모금한 의연금 4천 원은 도쿄, 3백 원은 부산으로 각각 전달했다. 문제는 조선총독부가 종로경찰서를 통해 조선인만을 구제하기 위한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의 활동을 방해했다. 이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제활동을 하는 의연금조성회 때문이었다. 의연금조성회가 이재민 구제를 내세워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구제회는 이재조선인 구제활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은연 중에 고취시킨다고 보아서 구제회의 의연금 모금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산까지 종용하였다.<sup>29)</sup>

일제의 방해가 있자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는 우선 유성준, 박승빈, 이범승 3인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여 종로경찰서 당국과 교섭하기로 했다.<sup>30)</sup> 그 결과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기부원은 취하하고 동정금만 받기로 했다.<sup>31)</sup> 즉 “기부금 신청은 중지하기로 함, 발기인 간에 동정금을 진력 출연하여 금월 20일 내로 수집할 것, 수익금의 다소를 불구하고 최초의 목적을 실행하기로 함” 등 3 개항을 결의하였다.<sup>32)</sup>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의연금을 모금할 수 없고, 발기인끼리만 의연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발적인 기부금은 모금할 수 있어 자발적 의연금은 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구제회는 답지되는 의연금을 『동아일보』에 게재하여 자발적 의연을 유도했다.

조선총독부는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구제 활동에서도 조선인을 위한 구제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였다. 이는 일본에서의 조선인학살에 대한 예민한 반응과 구제의연금 모금을 통해 민족의식을 다시 고양시키는 것을 최대한 막하고자 하였다. 이는 4년 전에 전개되었던 범민족적 3·1운동과 같은 대규모의 시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sup>33)</sup> 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 구제활동을 통해 ‘관민일치’를 통해 일선융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에 대해 당시 종로경찰서는 조선인들이 도쿄지역에서 학대받고 가혹한 조사를 받은 증거를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 당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실정 사찰에 노력할 것으로 보고, 요주의 단체와 인물이라고 경성지방법원 검사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3.1운동과 같은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적지 않게 우려하였다. 이로 인해 각지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진력했다고 보인다.

28) 의연금 모금과 관련하여 도쿄진재의연금모금조성회(東京震災義捐金募助成會)가 1923년 9월 8일 오후 2시 종로기독교청년회관에서 박영효, 한상룡, 민대식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기독교의 이상재 등 1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도쿄진재의연금모금조성회는 경성 시내 중산층 이상의 인사들에게 의연금 모금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통지서를 보내 9월 말일까지 의연금을 모아 경성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동포를 위하여 시내유지 분기」, 『동아일보』 1923년 9월 8일; 「동경진재에 대하여 의연금 모금조성회, 시내 유지의 발기로 성립」, 『동아일보』 1923년 9월 10일.) 도쿄진재의연금모금조성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은 없지만 9월 20일까지 9,363원 10전을 모금한 바 있다. 의연금조성회 발기인은 윤치호 외 62명이었다. 위원장은 이상재, 위원은 한상룡, 유성준, 민대식, 신광목, 채기두, 방지훈, 이진호, 김한규, 이상필, 최진, 어윤적, 예종석, 원진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발기인 또는 위원 중에는 이상재 등 민족주의계도 있지만 이완용, 예종석 등 친일인사도 적지 않게 참여했다.

29) 「조선인구제회는 해산? 조선인 구제를 따로 함이 불가타고」, 『조선일보』 1923년 9월 14일자. 당시 『조선일보』는 동경진재의연금모금조성회를 후원하였고, 『동아일보』는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각각 후원하였다. 그래서 조성회의 의연금은 『조선일보』에, 구제회의 의연금 모금 상황은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

30) 「구제회의 급후 방침」, 『조선일보』 1923년 9월 15일.

31) 「이재조선인구제회」, 『조선일보』 1923년 9월 17일.

32) 「동경지방진재동포구제회는」, 『동아일보』 1923년 8월 18일.

33) 조선총독부 경무국, 「震災關係警戒取締に關する重要通牒」, 『朝鮮の反應』, 8쪽.

### 3.2 이재조선동포위문반과 재일본도쿄조선인대회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도쿄의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괴가 되었지만 재일조선인 관련하여 남아 있는 곳이 천도교 도쿄총리원 건물이었다.<sup>34)</sup> 1923년 학살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재일조선인은 당시 소실을 면한 사무실에 모였다. 유학생과 천도교, 기독교의 주요 인물인 한위건, 김은송, 이동제, 최승만, 박사직, 이근무 등은 관동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조선인 구제 활동과 조선인 학살 진상 조사에 대해 논의했다.<sup>35)</sup>

당시 도쿄의 천도교 조직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이후 사후 처리에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천도교청년회 도쿄지회와 기독교 조직에 연계된 재일조선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주목했다.

1923년 10월 한위건은 이재동포들을 구제하고, 조선인학살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자신이 이사로 있던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 간부들과 천도교청년회 도쿄지회 간부들의 발기로 이재조선동포위문반(在日本關東地方罹災朝鮮同胞慰問班)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10월 3일 도쿄 고이시가와구(小石川區) 오츠카시모마치(大塚下町)에서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중요 간부는 한위건을 비롯한 백무, 변희용, 이동제, 박사직, 이근무 등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동아일보사에서 위탁한 2천만 원을 관리하며 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이면적으로는 ‘조선인 학살 사건 조사회’를 꾸려서 조선인학살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동제가 위원이 되어 식민지 조선과 도쿄 간의 편지 연락과 구호에 진력했다.<sup>36)</sup>

원래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은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내지 ‘재일조선동포피학살진상조사회’라고 하려고 했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 경시청으로부터 ‘학살’이라는 명칭은 불온하다는 이유로 허가 받지 못하고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재조선동포위안반’으로 개칭했다.<sup>37)</sup> 내용적으로 중심은 도쿄 조선유학생학우회였고, 여기에 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등이 참가한 형식으로 보인다.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은 1923년 12월 25일 일화일선청년회관(日華日鮮青年會館)에서 경과 보고회를 열었다. 약 200 여명이 모인 경과 보고회에서는 “위문반이 활동한 경과와 회계에 관한 보고와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 등을 했다. 곧바로 대회 명칭을 재일본도쿄조선인대회(在日本東京朝鮮人大會)를 열었다. 사실 개칭한 이 대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8)</sup>

1. 피학살 조선인은 2,611명이다.(11월말까지 조사)
2. 진재 당시 조선인 범죄 사실은 전연 없다.
3. 유언비어의 출처는 일본 정부 당국이다.
4. 유언비어의 동기는 일본 인민의 동요를 막고 일선무산계급의 분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이다.
5. 유언비어의 전파자 역시 일본 정부 당국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이 발생한 이후 9월 말에 한위건은 백무, 변희용, 박사직 등과 조선인

34) 유동식, 『재일본한국기독교청년회사 1909-1990』, 재일본한국기독교청년회, 1990, 190쪽.

35) 『조선일보』 1923년 10월 8일.

36)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 -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11, 100쪽.

37)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11, 99-100쪽.

38)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員, 「在京朝鮮人狀況」(1924년 5월), 81-84쪽.



학살 조사와 구제사업에 헌신했다. 12월 25일 당일 이재조선동포위문반에서 작성한 ‘조선동포위문실황서’ 등의 문서는 인쇄하여 국내외에 널리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제 당국의 제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일제 당국도 다만 사적 통신으로 이 문서들이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9)</sup>

한편 12월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000 여명이 모여 조선인대회가 주관하는 대구모 피살동포추도회를 열었다.<sup>40)</sup> 1923년 조선인학살에 주목한 재일조선인의 운동은 지속되었다.

#### 4. 결: 이념이 아닌 현실에 주목한 한위건 보기

본고는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한위건의 일본 활동 보기를 시도하여, 재경유학생대회와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이재조선동포위문반과 재일본도쿄조선인대회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한위건은 ‘좌경모험주의’를 비판하는 ‘철부노선’을 주장했다. 그리고 1934년 3월 하북성위원회에 이 주장을 편지로 보냈다가, 5월 오히려 하북성위원회로부터 ‘우경취소주의’ ‘철부노선’이라고 하여 부인과 함께 출당조치를 당했던 사람으로 주목된다. 전술했듯이 그는 1936년 봄 부인과 함께 복권되어 하북성위원회 서기 겸 톈진시위원회 서기로 임명, 1937년 4월 서북당대표회의와 백색구역공작회의에 참석차 연안에 가서 머물던 중 지병인 폐결핵과 장티푸스로 1937년 7월 10일 별세했다. 1940년 중국공산당에서 ‘철부노선’의 정당성을 승인했다.

필자는 이념이 아닌 현실을 살다간 그의 또 다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후세를 사는 사람의 한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해 그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다시 생각하면서 조선인학살에 대해 심고해 본다.

---

39) “최근 북경에서 金健의 이름으로 배포한 책자 虐殺의 원고 같은 것도 수뇌자 韓偉健이 비밀리에 그 실황조사서를 발췌하여 송달한 것으로 인정된다.”(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員, 『在京朝鮮人狀況』(1924년 5월), 83쪽.)

40) 「暗淚의 嗚咽하는 被殺同胞追悼會」, 『동아일보』 1924년 1월 6일.



**[제3부]**  
**학술발표**

# 일본 티칭어시스턴트(TA)제도개혁의 실천적 과제

— 일본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鄭漢模 (三重大)

## 1. 서론

본 발표의 목적은 일본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티칭어시스턴트(이하, TA)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 국립지방대학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과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 대학이 TA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매우 다양하다(세谷, 2012). 하지만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TA제도의 개선과 개혁에 소극적인 대학이 존재한다. 대학에 따라 TA제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정부에 의해 TA에 대한 연수(이하, TA연수)가 의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계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 중소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TA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드러난 실천적 과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 2. TA제도의 도입과 정착

### 2.1 도입시행기 (1968~1990)

본 발표에서는 일본에 있어 TA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교육현장에 TA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도입시행기, 제도화정착기, 제도 강화기의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도입시행기이다. 본 시기의 특징으로는 각 대학이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이념이나 필요에 따라 TA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각각 1968년 국제기독교대학에서 ‘비상근조수’ 제도, 1969년 도카이대학에서 ‘교육보조학생’ 제도를 운영한 기록이 남아 있다(北野, 2006).

### 2.2 제도화정착기 (1991~2018)

본 시기에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TA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TA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TA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임시교육심의회(1984~1987)의 제2차 답신에 있어 ‘연수적인 고용의 장’을 통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언급된 점에서 나타난다(北野, 2006). 또한, 1991년 ‘고등교육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해서(답신)’에서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TA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라는 기대와, 도입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장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大学審議會, 1991). 이에 정부는 1년뒤인 1992년에는 TA경비를 포함하는 고도화추진특별비를 도입하고 예산배분을 시작하고, 1995년에는 TA제도의 목적, TA의 직무내용, 임용방법, 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티칭 어시스턴트 실시 요강’을 발표하였다(文部省, 1995). 2004년에는 정

부에 의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TA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수는 조사 대상 709교 중 424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의 수도 73,9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3년 조사 당시 16,063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6배 늘어난 결과였다.

### 2.3 제도 강화기 (2019~현재)

본 시기의 특징으로는, 정부가 단순히 TA제도의 도입과 TA를 활용한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준비교육을 위해 TA연수에 대한 의무적인 도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8월에 대학원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식을 교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각대학의 노력의무로 삼았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이른바 ‘Pre FD’의 제공을 의미함을 명기하였는데, ‘Pre FD’(「プレFD」)란 ‘전(前)의’, ‘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Pre’에 ‘교원연수’를 의미하는 FD(Faculty Development)를 접목시킨 일본식 조어이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수로서, 대상은 다르나 내용은 우리나라의 ‘신임교원연수’의 그것과 유사하다. 2019년 이후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Pre FD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수강한 대학원생은 기존 TA보다 더 높은 차원의 TA로서 고용되어, 단독 수업과 같은 대학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를 허용하고, 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였다. 이후,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대학설치기준을 개정하여 TA에 대한 연수를 모든 대학에 의무화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실제사례 및 실천적 과제

### 3.1 일본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

본 발표에서 다루는 모 대학은 일본 중부지방과 키키지방의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이다. 5개 학부, 6개 대학원 연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5월 현재 학생 수는 7,101명으로 이 중 대학원생 수는 1,217명이다.

TA연수는 2007년 1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본래 대면으로 실시되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2020년 11월 이후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까지 온라인 실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온라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인적 자원의 한계이다. 과거에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 의한 선택적인 수강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10월 대학설치기준 개정 이후, TA로 고용 예정인 모든 대학원생들이 수강하게 됨으로써 수강대상자가 수십 명 단위에서 수백 명 단위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렇듯 수강대상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TA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수가 줄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교원 2~3명이 담당하였던 것에 반해, 현재 단 한 명의 교원이 모든 수강대상자에 대한 연수를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2020년 이후 온라인 체제에도 제1기와 제2기가 존재한다. 제1기(2020~2022)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텍스트 방식의 연수가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되었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수강자가 주제문과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각 임무를 수행한 뒤, 다음 임무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퀘스트1: 베테랑 TA로서 신입TA에게 조언하기, 퀘스트2: 퀘스트1에서 적절한 조언이 가능하였는지 자기성찰 및 자기평가하기, 퀘스트3: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읽고 코멘트를 남기기, 퀘스트4: TA업무에 대한 이해도 확인 테스트 (10문). 2020년 1학기 수강자 179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퀘스트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퀘스트1: 63.13%, 퀘스트2: 87.71%, 퀘스트3: 82.12%, 퀘스트4: 93.30%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宮下, 和氣, 2021)

제2기(2023년 현재)에는 연수 영상을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텍스트방식에서 영상으로, 임무 수행에서 단순 영상 시청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폭넓은 수강대상자에게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을 주 목적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1기에서 자원하여 수업을 희망하는 수강자들에게 폭넓은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에는 동기 예측이 어려운 모든 TA 고용 예정자들에게 본 대학에서 TA 활동에 임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가능한 많은 수강자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전문 성우와 유사한 AI 음성을 채용하였으며, 교원은 연수 내용의 선별과 AI 음성에게 읽히기 위한 스크립트를 제작하였다. 2023년 최초 시행 결과, 595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응답률 88.2%),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95.8%, 수강방법에 대해서는 94.5%, TA연수가 실제 TA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6.2%의 응답자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3.2 실천적 과제

상술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제2기 온라인 체제에 있어서 제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이다. AI를 통해 음성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연수 영상과 합치는 과정은 교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성과 영상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또, 다언어(영어) 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217명 중, 유학생 수는 약 11%에 해당하는 116명이다. 유학생 중 대부분은 이공계 연구과에 재학 중으로,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과거 TA연수는 의무적으로 수강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유학생들의 수강이 적었고, 다언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TA연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언어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구체적인 TA업무에 대해 다루어주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 제공중인 연수에는 ‘기본과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는 모든 수강생이 보편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TA업무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향후 ‘심화과정’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TA업무에 대해서도 다루어나갈 예정이다.

## 4. 결론

일본에 있어서 TA제도의 도입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연수 제공에 대한 노력의무화 혹은 의무화에 있어서 만큼은, 대학의 규모나 자원에 따라서 대응 체제를 달리 하여 왔다. 본 발표에서 제시한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는,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대응을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이후 도입된 제2기 온라인 연수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내용 측면, 방법 측면, 실용성 측면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 점은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가 하나의 모델로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다른 중소규모 대학에 있어서도 도

입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荻谷剛彦(2012). *アメリカの大学・ニッポンの大学: TA、シラバス、授業評価*. 中央公論新社.
- 北野秋男(2006). *日本のティーチング・アシスタント制度: 大学教育の改善と人的資源の活用*. 東信堂.
- 大学審議会(1991). *大学院の整備充実について(答申)*.
- 宮下伊吉・和氣尚美(2021). *ゲーミフィケーションによるオンデマンドTA研修の試行*. 教育システム情報学会研究会報告, 35(5), 13-18.
- 文部省(1995). *ティーチング・アシスタント実施要領*.

# 미우라 아야코 ‘원죄 문학’의 기원

— 『빙점』을 중심으로 —

朴宣映 (國民大)

## 1. 들어가며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와 그녀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녀의 기독교 신앙과 작품 활동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그녀의 데뷔작 『빙점(氷点)』(1964)에 관한 연구에서 그와 같은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빙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작가 미우라의 전쟁 체험(혹은 戰前의 생애)과 그에 바탕한 사회 의식의 형성이라 생각된다. 데뷔 당시 ‘(아마추어) 주부 작가’로 불렸던 그녀가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원죄”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작품의 내용과 메시지의 사실성 - 일본 역사와의 상관성 - 이 너무나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신론적이며 현세 중심주의적 신도문화가 지배적인 일본의 풍토 속에서 절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기독교 “원죄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문맥을 좀더 사회과학적으로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그녀의 작품 세계가 오로지 초월적 기독교 신앙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보는 환원론 내지는 일반적인 종교 문학으로 치부해 버리려는 관습적 이해에서 벗어나, 그녀가 일본 근현대사의 한 주체로서 겪은 삶의 체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사회의식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어우러져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녀의 대표작 『빙점』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소설 『빙점』 해독을 위한 두 개의 시점

### 2.1 미우라 아야코 생애의 분기점이 된 1945-1946년

미우라 아야코는 ‘패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교사직을 스스로 그만둔다. “잘못된 전쟁”에 교사로서 가담했다는 죄책감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그녀에게는 제국주의 전쟁이 불러온 약탈과 살육 행위에 자신이 애써 키운 학생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죄의식이 상당했다. ‘사회분위기(風向き)’가 바뀌면 자신의 태도도 그에 맞추어 바꾸는 것을 딱히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 일본 문화에서 미우라 처럼 자신의 경력을 통렬히 죄악시켰다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사례이다. 우선 그녀의 이 자각 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만으로 『빙점』과 같은 작품이 탄생하리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즉, 미우라 아야코의 전쟁 체험과 사회 의식이 기독교 신앙을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가 바로 그녀의 문학일 것이다.

미우라는 그렇게 1946년 3월에 돌연 교사직을 사임한 직후인 동년 6월, 폐결핵이 발병하여, 장장 13년에 걸친 요양 생활을 견뎌내야 했다.(그 13년 중 7년간은 꿈쩍도 할 수 없는 깎스 침대 생활이었



다.) 그녀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소꿉친구이자 연인 마에가와 타다시(前川正)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소개받고 차츰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화되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그녀의 나이 30세 때인 1952년이다. 그로부터 2년 후 마에가와와의 죽음을 겪고, 자신은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어 5년간 자신의 회복을 기다려 준 또 다른 독실한 기독교 신자 미우라 미츠요(三浦光世)와 결혼에 이른 것은 아야코가 37세 때인 1959년이다. 결혼 후 잡화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던 아야코는 1963년 1월 아사히신문이 오사카 본사 창간 85주년 기념 1000만엔 현상 소설에 『빙점(氷点)』으로 응모하여, 이듬해 7월에 1등 입상으로 이어진다.

『빙점』의 스토리는 1946년 7월 21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46년 7월은 미우라 아야코의 전전(戰前)의 삶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 ‘패전’(1945년 8월 15일)으로부터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자, 그녀가 천직(天職)이라 여긴 초등 교사직을 사임한 46년 3월로부터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형식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이지만, 사실상 그 상흔이 전혀 가시지 않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 자신에게 있어 1946년은 전전의 ‘군국 교사’였던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부정확한 해이며, 교사직을 그만둔 후 이중 혼약, 자살 미수 등, 1949년 마에가와와의 재회를 통해 기독교의 ‘신(神)’을 서서히 알아 가게 되기까지 아직 작가 자신이 극도의 정신적인 방황과 일탈 - 이는 “원죄”의 자각이 없는 혼돈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을 거듭하던 때에 해당한다.

## 2.2 미우라 아야코 ‘원죄문학’의 탄생과 1963-1964년

한편, 미우라가 아사히 신문 현상 공고를 보고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한 1963년을 전후한 일본 사회는 어떠한가? 1950-53년의 한국 전쟁 특수로 인해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재기한 일본은 곧이어 고도경제성장의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미 50년대 말에 “더이상 전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할 만큼 급속히 경기를 회복한 일본 사회는, 1959년 ‘테니스 코트의 사랑’, ‘평민 출신 프린세스의 탄생’이라는 봄을 일으킨 아키히토 황태자와 미치코 비의 ‘황실 결혼’을 계기로 전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축제 분위기를 만끽한다.

1960년 안보조약개정 문제로 발생한 정치적 분규는 기시 내각의 사퇴로 봉합되었고, 55년 체제 아래 경제 발전에 주력하기 시작한 일본 사회는 ‘소득 배증’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그 가지적 성과로서 1964년의 신칸센 개통, 65년의 도쿄 올림픽 개최로 또다시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된다. 국민들의 열광 속에서 받아들여진 평민 출신 황태자비와 나루히토 황세손의 탄생, 천황가에 대한 국민적 호의와 열광은 ‘상징천황제’의 “안착” 혹은 천황제 자체의 “건재”를 상징하는 듯 했고, 중산층의 확대와 물질적 삶의 가시적인 개선은 일본 사회에서 전전과의 ‘결별’이 상당히 진전(사실상 완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의 추이와는 반대로, 교사를 사직한 후 사회생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13년간이나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해야 했던 미우라에게는, 패전 이후의 삶이 오히려 ‘홀로 전전의 과오를 반추하는’ 시간으로 쓰이게 된다. 그녀는 이 고독한 투병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전반생(前半生)에 대한 절망과 회한으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녀를 아끼는 지인들의 인도로 기독교에 입신하게 된다. 52년의 세례 이후 약 10년간의 신앙생활이 첫 소설 집필 직전까지의 미우라 아야코의 정신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셈이다. 따라서 미우라가 『빙점』을 쓰기 시작한 1963년이라는 시점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고도성장의 혜택을 실감하면서 더 이상은 불행했던 전전을 되돌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임에도, 미우라 자신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동시대인들과는 달리 전 전이라는 과거를 거듭 반추하며 그 과오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홀로 모색한 후 이제 막 일상으로 복귀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투병 생활이 계기가 되어 미우라 아야코 홀로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서 참된 신은 무엇이며,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즉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탐구하려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태동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3. 소설 『빙점』은 어떤 의미에서 ‘원죄 문학’인가?

#### 3.1 주인공 ‘요코’라는 존재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요코(陽子)는 어떤 존재인가? 츠지구치가 (辻口家)의 딸 루리코를 살해한 불운한 살인범 사이시(佐石?)의 딸로 등장하는 요코는 자신이 살인범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의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자신의 이름과 같이 태양처럼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려 애썼던 요코였으나,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한마디 말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게 된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인지(認知)’를 전후로 한 요코의 상반된 모습은, 마치 전쟁 중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동들을 지도하는 데에서 생의 보람을 만끽하던 교사 미우라 아야코가 패전 이후 자신의 전전의 이력은 물론 존재 자체에까지 회의를 품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다. 딱히 루리코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닌 채, 불운이 겹친 자기 삶에 지치고 지친 사이시가 마치 마(魔)가 끼어든 듯 우연히 루리코 살해에 이른 것과, 전쟁 중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보통의 선량한 일본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당연시 되던 전쟁에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가담하게 된 것도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너무나 불운했기에 연민마저 자아내는 무기력한 살인범 사이시의 딸 요코는 전전 일본이 국가로서 저지른 죄악과 죄성(罪性)을 이어받은 전후의 일본인을 의미함과 동시에, 죄의식에 눈을 뜨게 된 미우라 아야코 자신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 전전, 천황의 적자(赤子)로 불린 일본인들은 이른바 “전후”가 시작되자 그들의 조상, 그들의 혈육이 천황의 이름으로 약탈과 살육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먼 과거의 일로 흘려보내 버리려 하지는 않았는가? 미우라의 경우, 그녀는 패전 후 줄곧 자신이 그런 천황의 적자를 길러내는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렸고, 사랑해 마지 않았던 교사직을 미련없이 내려놓을 정도로 죄책감을 느꼈다는 점에서, 자신의 첫 소설의 주인공을 “죄의식에 눈을 뜬 요코”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선택으로 보인다.<sup>3)</sup> 또한 요코가 입양되어 자라나는 츠지구치는, 츠지구치(辻口)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 모양을 한 입구”(=즉 구원으로 가는 길)를 뜻한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직접적으로는 예수 자신을 살해

1) 이와 관련하여, 김주영(2008)은 이 작품이 “패전 직후에 시작되는 서사를 1960년대 안정이 구축된 시기에 읽게 됨으로써 ‘패전’에 따른 ‘전후’ 의식이 매듭짓게 되는 작용”(43쪽)을 한다고 하였으나, 필자는 이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2) 사이시의 작중 이름은 사이시 츠치오(佐石土雄)이며, 그는 관동대지진으로 양친을 잃고 홋카이도의 타코방(夕コ部屋)에 팔려가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전쟁 때는 1941년경 중국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종전 직전에 홋카이도로 돌아온다는 설정이다. 그의 이름 츠치오(土雄)는 작가가 성서 속 최초의 인간 Adam - 신이 흙으로 빚은 -을 의식하고 지은 이름이다.  
 3) 작중 사이시의 아내 코토가 딸을 낳은 것도, 요코가 태어난 것도 1946년 6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의 미우라 아야코에게 폐결핵이 발병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의 가정에 들어온 것처럼, 요코 또한 게이조(啓造)와 나츠에(夏江)의 자식이 아니지만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사랑과 용서를 아는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 3.2 기독교의 원죄 개념과 ‘요코’의 죄의식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원죄는 그리스적 어원대로라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的外れ)’; 즉 ‘과녁(목적)을 벗어난 삶’ 라는 뜻이다. 생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에 등을 돌리고, 그 본래의 과녁을 벗어나 죄로 향하려는 성질, 경향성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살인자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을 (자신이 행한 말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혈통의 관점에서 책망하는 요코를, “원죄를 자각한 인물”로 그린다는 것은 본래의 원죄 관념과는 합치하지 않는 발상이다.

생물학적 관계에 바탕한 살인범의 딸이라는 점, 즉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피가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요코는 아버지 사이시를 대신하여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고뇌에 빠져 괴로워한다. 이것은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개념에 부합하는 원죄 이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마치 전전의 천황제가 주장해 온 천황 권위의 유래로서의 ‘만세일제’ 즉 천황가가 자신들의 지배의 정통성과 권위의 근거로 내세우는 ‘(천황가의) 피의 일관되고 흐트러짐 없는 생물학적, 계통적 흐름’이라는 발상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죄의 본래적 의미를 모를 리 없는 작가이기(에4), 작가가 살인범의 자식 요코를 그려한 “계통적 발상”을 하는 캐릭터로 조형(造形)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즉 요코라는 캐릭터를 통해 기독교 교리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일본 사회, 불과 몇 년전에 참혹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희생을 낳고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지도 추궁하지도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원죄’라는 어려운 화두를 알기 쉽게 변형하여 던져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작중인물 가운데 유일 (실제로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죄의식에 눈 뜬 요코의 ‘참회’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그녀가 틈틈이 피력해 온 전쟁관과 사회사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 4. 미우라 아야코의 사회사상과 『빙점』

### 4.1 미우라의 사회사상 관련 발언들

#### 4.1.1 천황제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성찰

“전쟁 중,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 이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군국주의에 몰던 교사였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인간의 첫 번째 해야할 일로 가르쳤다. 전국의 교사가 가르친 것처럼, 열심히 가르쳤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国を愛する心』, 10쪽)

4)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원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원죄 : 종교 용어인데 원어는 ‘영동하다’라는 말이라고 들었다. 인간은 원래 하느님을 섬겨야만 하는데 자기만을 보고 있으니 영동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인 것이다.”(『빛 속에서』, 41쪽)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 희희낙락하며 따르는 것일까요? ‘침략이 아니었다. 진출이었다’라고 정부가 말하면 ‘그래, 그렇다’라고 끄덕이는 걸까요? (중략) 전쟁 중 20대였던 나는 당시의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를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남성은 물론, 나같은 여성들도 더없는 명예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리하여 승리를 빌러 신사를 참배했고, 위문품을 전장에 보냈고, 식량난에 대해서도 불평한 마디 하지 않았습다. 아노, 식량 정도가 아니라, 외동 아들이 전사를 해도, 일생의 반려인 남편을 전장에서 잃어도 ‘나라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 슬픔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 국민은 전쟁을 위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위의 책, 16-17쪽)

“그날, 나는 자전거를 타고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근무처인 아사히가와와의 계명소학교로 천황의 방송을 들으러 갔습니다. 23세의 ‘군국소녀’였습니다. 나는 동포를, 내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37년 전은 그 순수함을 이용당해 전쟁에 차출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도 동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함을 이용당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선(善)이라 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성을 잃는 것입니다.”(위의 책, 20쪽)

“패전! 저 8월 15일까지 나는 당시의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현인신(現人神)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우스꽝스럽게도 일본인에게 성전(聖戰)이었고, 결코 질 리 없는 전쟁이었다. 교육의 목표는 각 교실에 걸린 포스터 - ‘황국민의 연성(鍊成)’ - 에 집약되었죠. 황국민이라함은, 즉 천황에게 충성스러운 국민을 가리킨다. 당시 소학교 교사였던 나는 오로지 그 황국민의 연성을 위해 내 청춘의 정열을 불태웠지요. (중략) 사실 나는 거지가 되고 싶을 정도였어요. 신이 아닌 천황을 신이라 가르치고, 인간의 죄악의 극한과도 같은 침략전쟁을 성전이라 불렀고, 그 성전에 협력할 것을 가르친 교사는 거지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중략) 천황을 신이라 세뇌받아온 나는 더 이상 신앙한다는 것 일체를 거부하려 했다.”(위의 책, 28-29쪽)

“자신을 십자가형에 처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깊은 사랑의 말이 가슴을 울렸을 때, 나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왔다. 신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사랑 그 자체였다. 적이라면 그 일체를 말살해도 모자라다 여겼던 군국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 이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었다.”(위의 책, 30쪽)

“천황은 어디까지나 천황제 속에 있는 천황이지요.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여 많은 과오를 일본은 저질렀습니다. (중략) 일본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대화를 빼앗긴 자가 천황이라 생각합니다. 천황제와 분리하여 천황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위의 책, 36-37쪽)

“전쟁 중, 여학생이었던 나는, 병대가 사단 길을 지나 전쟁에 나갈 때 ‘이גיע요!’라고 외치며 전송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녀시대였다. 검을 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한다.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 이처럼 바보 같은 일도 없을 것이다.”(위의 책, 80쪽)

“16, 17세 소녀 선생에 불과했던 나는 철저히 군국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오로지 천황의 적자(赤子)를 키워 전지(戰地)에 내보내는 것을 최대의 교육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행할 도(道)와는 거리가 먼 교육이었다. (중략) 전쟁 중의 나에게는 아무런 토대도 없이, 기델 규범도 모른 채, 부덕(不德)한 채로 어린 영혼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위의 책, 139쪽)

“확실히 일본에는 아직 명확한 신 개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중엔 천황이 신이었다. 또한 전사한 사람이 제단에 올라 신이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극히 유치하고 애매한 신 개념을 가진 나라에서 자란 나도 마찬가지로 신에 대해 애매한 관념 밖에 갖고 있지 못했다.”(『빛 속에서』, 114쪽)

#### 4.1.2 평화에 대한 신념

이 『들어라, 바다의 소리』에는 낡은 노트에 쓴 젊은 학도들의 유서와 일기가 실려 있다. 그 당시 젊은이들 대부분은 전쟁을 비판하고 완강히 부정하였다. (중략) 이들의 글에는 철저한 전쟁 비판과 전쟁을 부정하는 강력한 항변이 없었다. 몸을 희생해서라도 전쟁을 거부하려는 즐기찬 힘이 없었다. 그때 나는 학문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심히 무력함을 깨달았고, 그 학문의 한계가 가진 허탈함과 쓸쓸함을 절실히 느꼈다. (중략) 이 책을 읽고 항쟁이 없는 평화로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의 잔학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이는 역시 신 밖에 없다. (『나에게 길은 있었네』, 153-154쪽)

아무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들어라, 바다의 소리』를 읽었어도 전쟁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에,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이 일본인 대부분은 전쟁 때문에 부모와 가족, 친구를 잃고 집도 폐허가 되고 자신의 운명도 바뀌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 전쟁의 희생자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자는 누구냐고 추궁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고 다짐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인간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둔감한가? (『나에게 길은 있었네』, 154쪽)

“천국에 적을 두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몸(肉)은 일본에 국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결코 다른 이들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본이 또다시 군국 일본이 되는 것, 신국(神國) 일본이 되는 것, 전쟁을 찬미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国を愛する心』, 40쪽)

“나의 오빠도 육군대위로 전병사(戰病死)하여 야스쿠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만일 무언가를 맹세할 것이 있다 한다면, ‘두번 다시 전쟁은 일으키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위의 책, 44쪽)

“PKO법안, 자위대의 해외파병 움직임 등 홋카이도에 있으면서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말 평화는 소중한데요. 그를 위해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평화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보조약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존재로 인해 일본의 주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국제공헌이라 말하지만, 무엇을 위한 공헌인가요. 핵도 군대도 기지도 모두 없애는 것이 최고의 국제공헌이라 생

각해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핵도 무기도 군대도 세계 어디에서건 없어도 좋겠습니다.**”(위의 책, 65쪽)

“이라크 전쟁 때 ‘어른들은 어린이보다 나쁘다’고 초등학생이 말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검(劍)을 잡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의 공헌은 전쟁에 대한 협력을 일절 물리치고, 오로지 대화에 의한 화평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위의 책, 74쪽)

“국민들은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있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비롯하여 도시라는 도시는 모두 불타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유독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새까만 허허 벌판이었다. 여기서는 갓난애도, 산모도, 환자도, 늙은이도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모두 무차별하게 죽어갔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일본은 살육을 계속했다. 그런 뒤의 **허탈한 패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희망은 평화헌법에 의한 국가 확립이었다.**”(『인생의 계절』, 65쪽)

#### 4.2 “성서적” 관점에서 본 일본 사회 비판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전쟁 체험을 불행한 개인사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철저히 성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교사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전전의 자신의 과오는 물론 일본 사회의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기독교 신자로 거듭난 그녀는 자신의 후반생을 소설가로 살아내면서 자신이 소설을 쓰는 이유를 기독교 신앙의 전파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특히 『빙점』은 그녀가 전반생을 살며 겪은 전쟁과 천황제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빚어낸 ‘죄악들’과 그 죄악상(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 ‘사랑’이라는 절대적 계명에 등을 돌린 행위들이다)에 교사로서 적극 가담한 자신의 과오를 기독교 교의를 통해 성찰해 낸 사유의 결정체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

앞서 미우라 아야코의 발언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은 복수형의 ‘살인’일 뿐 어떠한 전쟁도 성전(聖戰)일 수 없고, 신이 아닌 천황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에 불과했고, 타국에 대한 ‘중요’를 부추기는 것은 진정한 “애국”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전 일본의 모습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하나가 모두 절대자의 계명에 반(反)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선다면, 『빙점』이 그리고 있는 츠지구치가는 전전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무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절대자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은 이들에게는 애초에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남편 몰래 다른 남성에게 연심을 품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남편은 아내 몰래 자기 아이를 살해한 살인범의 아이를 양녀로 들인다. 남편의 그러한 악의와 양녀의 정체를 모두 알게 된 아내는 양녀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 괴롭힘 속에서도 인간의 선의를 믿고 깨끗함을 잃지 않았던 양녀가 자신이 살인범의 피를 이어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츠지구치가의 인간들이 빚어내는 이 슬픈 “불행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성서적 삶의 표본인 예수의 ‘성가정’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마리아가 혼인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도 성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감싸 안고 그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키워낸다. 츠지구치가의 게이조·나츠에 부부와 대극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예수가 훗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대속(代贖)’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흘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이 성가정과 구세주 예수의 모티브를 작가는 츠지구치가와 살인범의 딸 요코의 모습에 투영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편적 사랑에 바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계율에 지극히 배치되는 모든 국가 행위의 시발점이 된 ‘천황가’는 어떠한가? 전전의 일본 사회는 국민들에게 천황을 “신”이라 가르치고 그를 숭배케 했다. 그의 명령이라면 일면식도 없는 타국인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을 수 있고, 가망없는 전투에서도 자신의 목숨 또한 초개같이 버릴 수 있는 천황의 적자(赤子)를 요구했다. 일본의 아동들을 그런 행동이 가능한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 의심치 않았던 전전의 ‘군국교사’ 미우라 아야코. 기독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그 전반생이 과오였음을, 자신의 삶이 “죄”로 물들어 있었음을 깨달았던 데에서 그녀의 후반생과 문학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사이시라는 살인범의 행동은, 사랑의 계율에 반하는 대량 살인을 명령하고 총지휘한 전전 일본이라는 국가의 원수(천황)와 본질에 있어서 같지만, 그의 불우한 환경을 감안할 때 만인 위에 군림한 천황에 비해 오히려 그 죄가 덜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요코가 사이시라는 (不本意な) 살인범의 자식인 것은, 전쟁 중 복수(複數)의 살인을 명령받았던 천황의 적자(赤子)들 혹은 그들의 후손들과 그 입장이 다를 바 없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요코의 입장은 곧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에 가담한 일본인(특히 전후의 일본인) 모두와 등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전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전후 일본인”이라는 미우라의, 사회로 확장된 참회 의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사이시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여 괴로워할 줄 알았던 요코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죄’를 자각하였기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간 사흘을 거쳐 ‘재생(구원)’ 즉, 되살아남을 얻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원죄 의식을 가졌기에 고통받았으나 바로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을 얻는 요코는 기독교를 통해 거듭난 작가 자신이자, “원죄”를 모르는 동포 일본인들에게 작가가 “전후” 일본인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사표(師表)로 제시하는 “참된 삶=성서적 삶”의 모델이 아닐까.

## 5. 나오며

일찍이 공식적인 문화교류 이전부터 한국에서 수많은 팬을 확보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녀의 대표작 『빙점』은 다양한 일본 소설이 쏟아져 들어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본 소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높은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에 비해, 그녀의 문학 세계는 오로지 기독교 신앙과의 관련 속에서만 이해되어 온 경향이 짙어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그 신앙이 전전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이라는 그녀의 실제 역사적 체험에 대한 성찰과 철저한 참회 속에서 굳건해져 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원죄 문학’이라 불리는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은 초월적 기독교 교리에 앞서 그녀가 뼈아프게 성찰한 일본의 구체적인 ‘원죄’가 무엇이었던지와 관련된 속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미우라 아야코 ‘원죄 문학’의 기원을 소설 『빙점』의 주제의식과 그녀의 생애와의 관련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김주영, 「기독교 문학으로서의 『빙점』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본 텍스트 고찰-」, 『문학과 종교』, Vol.13 No.3, 2008.

미우라 아야코 저 임종삼 역, 『인생의 계절』, 문지사, 2019.

미우라 아야코 저 황필연 역, 『빛 속에서』, 가톨릭출판사, 2005.

미우라 아야코 저, 임종삼 역, 『나에게 길은 있었네 - 미우라 아야코와의 삶의 여행』, 문지사, 2023.

조규만, 『원죄론 - 인류의 연대성, 죄의 보편성』,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최순욱,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 문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초상 -작가정신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vol.53, 2020.

岡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勉誠出版, 2005.

小田島本有, 『三浦綾子論-その現代的意義』, 柏艸舎, 2022.

三浦綾子, 『氷点』, 角川文庫, 1982.

三浦綾子, 『(続)氷点』, 角川文庫, 1982.

三浦綾子, 『国を愛する心』, 小学館, 2016.

森下辰衛, 『『氷点』解凍』 小学館, 2014.



# 영화로 재현된 다니자키 준이치로 『치인의 사랑(痴人の愛)』속 젠더

— 1949년, 1960년 작품 속 나오미의 재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

諸錦淑(東國大)

## 1. 서론

패전 후 GHQ 지배하에서는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과거와의 절연 조치가 단행되었고 그 영향은 즉시 영화계에도 파급되었다. 대중문화에 있어서 만큼은 일본정부를 배제한 채 직접적으로 관할하였다. 영화의 경우 대중매체이자 대중오락·예술로서 가장 핵심적인 관리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후 최초로 다니자키의 대표적인 소설인 『치인의 사랑』(1949)이 영화화된다. 그전에도 1920년 「아마추어 클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니자키 작품이 영화화 된 것은 총 60여 편<sup>1)</sup>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작품이 영화화되었는데 주로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이며 다양한 히로인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여러 번 영화로 리메이크 되어진 소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시세이(刺青)』, 『순긴쇼(春琴抄)』, 『지진노아이(痴人の愛)』, 『만지(卍)』를 들 수 있는데 모두 강인한 여성상을 그린 작품으로 다니자키의 여성상으로 대변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집단적 동시 향유물이어서, 종이책보다 문학작품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향유는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관습, 대중적 기호를 잘 고려할 때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의 영화화에 있어 배우의 선정과 줄거리의 각색 작업은 그 시대 사회의 대중적 요구를 반영한 집단적 독해이며, 상업에 기반한 것이다.<sup>2)</sup> 따라서 다니자키 원작소설로 여러 감독에 의해 이야기되었던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같은 감독이 시기를 두고 두 차례 영화화한 『치인의 사랑』<sup>3)</sup>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고는 다니자키의 원작소설 『치인의 사랑』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무라 게이고(木村恵吾) 감독의 두 편의 영화에 주목하여, 점령기 여주인공 나오미의 재현 양상이 전후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고찰하려 한다. 기존에 연구는 다니자키 작품 속에서 영화적 요소를 찾는 연구가 주류였다면 이러한 작업은 전후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영화를 매개체로 형상화된 젠더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본론

### 2.1 점령기 여성해방과 영화의 관련성

여기에서 1949년 영화 『치인의 사랑』시기가 특수했던 만큼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

1) 유미선, 「창조적 스토리텔링의 방안모색-『문신(刺青)』을 중심으로-」, 2018, p.360 <표1>을 참조.

2) 『영화속 문학이야기』, 도서출판 동인, p.74-75.

3) 본고에서 다룬 두 편의 영화이외에도 영화 『치인의 사랑』은 1967년 마스무라 야스조(増村保造)감독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 다카하시 요오이치(高林陽一) 감독의 「나오미(ナオミ)」로 상영된 바 있다.

을 것이다. 일본 역사상 미국에 의한 점령 시기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성해방은 전술한 대로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사상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GHQ는 여러 미디어를 동원하는데 문화적 선전에 도구로서 우수성이 주목되었던 영화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영화계에 여성해방, 남녀동권 등을 테마로 하는 영화제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근대화의 재가동에 있어 근대가 품고 있었던 남성우위의 사상은 패전이란 오명 하에 여성에게 체면을 구기고 말았으며 이는 남성에 대한 불신과 기만으로 이어져가기 충분하였다. 전후 일본사회는 남성의 봉건적인 성향은 ‘가정’에서 배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정’의 혁신을 끄집어내며 여성의 시점에서의 민주주의를 희망하고 남성 주도의 변혁에 비판하는 전후의 젠더 편성에 쐐기를 박았다.<sup>4)</sup> 전후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아마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법률적인 남녀평등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생활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실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 가사와 직업의 병행이라는 문제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점령기 일본에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여성의 삶은 다이쇼기 대표적 모던 걸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던 『치인의 사랑』의 나오미를 소환하기에 충분하였다.

## 2.2 영화 「치인의 사랑」의 서사 구조

소설과 영화가 모두 대중문화의 일부이며 소설을 기초로 한 영화, 영화화된 소설이 거두는 성공은 두 장르간의 상호친화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sup>5)</sup> 소설을 기초로 영화화한 다는 것은 주인공을 둘러싼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메시지 전달의 가장 적합한 플롯의 재구성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영화의 도구적인 기능을 사용하여 원작의 서술을 압축함과 동시에 더욱 선명한 재현을 구현해 내야 할 것이다. 결국 『치인의 사랑』을 소설로 분석할 때에도, 이 영상적 특징을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백하게 하기 위해 시나리오 구성의 수법을 도입시켜 분석하는 것이 유효하다. 하나의 작품을 시나리오화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나리오의 골격을 시퀀스(sequence)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작품에서 그려지는 장소, 시간, 인물성격, 행위, 인물설정이나 소도구에 관해 부분의 묘사를 정리한다면 작품의 줄거리와 구성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으며, 영상이 얼마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총 28장으로 구성된 장편소설을 영화적 요소의 28 시퀀스로 설정하고 그 시퀀스 안에 플롯을 기초로 한 여러 장면(scene)을 삽입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결과로 『치인의 사랑』을 처음 읽는 독자도 읽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소설구성이 각각의 시퀀스, 시퀀스로 이루어져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본문에서 다루는 두 편의 영화도 이러한 과정으로 리메이크 되었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에 따라 소설이 28 시퀀스<sup>7)</sup>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형태라면 영화는 12시퀀스로 각색되었다고 결론지었다.

4) 나리타 류이치 외, 정실비 외역, 『감정·기억·전쟁』, 소명출판, 2014, p.60-61.

5) 최만산, 『소설과 영화』, 신아출판사, 2005, pp.9-10.

6) 蔡宣靜, 「『痴人の愛』論 - シナリオの構成について -」, 『現代社會文化研究(No.25)』, 2002, pp. 8-10. 참조.

7) 영화는 대체로 시퀀스(Sequence), 씬(Scene), 쇼트(shot)로 이루어 진다. 시퀀스는 한편의 영화를 여러 이야기들의 집합으로 볼 때 그 중 한부분이 되는, 연극의 ‘장’과 같은 것이다. 또한 시퀀스는 영화 속 배경과 장소, 시간을 기준으로 씬으로 나뉘고 이 씬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담아내는 최소단위인 쇼트로 나뉘고 쇼트의 분절마디가 컷(Cut)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퀀스는 기,승,전,결이 포함되는 단위인 셈이다.

### 2.3 1949년 영화 속의 나오미의 재현

영화는 나오미역의 교 마치코(京マチ子)와 조지역인 우노 시게요시(宇野重吉)가 주연하였고 1949년 10월 16일 개봉하였다. 사진18)의 장면에서는 나오미의 영어공부에 대한 실패가 조지의 말 태우기로 굴복 당한다. 나오미의 육체적 매력이 조지를 굴복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진2)에서의 장면은 결말 부분으로 나오미가 오히려 조지를 말 태우는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된다. 말 태우기를 사과와 더불어 관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한 부분은 소설의 결말 부분과 같으나 정반대의 결말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처럼 소설과 다른 전개양상을 시대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민법 개정은 1947년 11월 점령기에 실행되었는데 그동안 아내에게만 간통죄를 적용하던 형법도 폐지되었다. 민법전논쟁은 1890년 이후를 시작으로 50년 이상 지속되었다. 따라서 GHQ에 의한 성급한 여성해방의 움직임은 때로는 여성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내몰았고 사상적으로도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지만 전후 일본여성들이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남성들의 좌절이나 패배의식과 거리를 두고 여성으로의 자각에 입각해 여성해방, 남녀평등의 진전을 낙관만하고 있었을 리 없다.<sup>9)</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나오미라는 첨단적 여성상에서 시대성에 맞춰진 새로운 나오미를 재탄생 시켰다. 영화 속에서 조지는 나오미를 대신한 가사노동이나 경제적인 면에서의 현신으로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오미를 가정의 굴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안목있는 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외조를 충실히 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인물로부터 비난 받는 나오미는 패전 후 조급한 여성해방 정책이 빚어낸 결과물로 형상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학적 구도에서의 나오미 또한 서양이라는 악녀의 대상으로 기무라 감독은 영상을 통해 패전 후의 일본(조지)에게 굴복시키는 구도로 결말지며 향후 일본의 방향성을 구축하고 진정한 남녀평등에 근거한 부부의 존재방식을 창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색에 있어 다니자키는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저번 영화 「치인의 사랑」은 전쟁 직후였고, 원작과 상당히 다르더군요. 교 마치코(1949년 나오미역)가 했던 것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작품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새로 만들어져서 말이지요. 완전 달라져 있어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은 나를 재미있었네요.”<sup>10)</sup> 패전 직후의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역사성이 보이는 인터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1952년 영화 세계사(映畫世界社)에서 발행하는 『영화의 벗(映畫の友)』<sup>11)</sup>지의 인터뷰에서는 “「치인의 사랑」(1949년)은 스토리가 달라져 정말 싫었다.”라고 직언한 적도 있다.

### 2.4 1960년대의 나오미의 재현

1949년 영화에서의 재현과 다르게 원작을 바탕으로 나오미를 말 태우며 굴복하는 조지를 그리고 있다. 주연은 나오미역에 카노 준코(叶順子), 조지역에 후나고시 에이지(船越英二)가 출현 하였다. 원작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지금의 나는(조지) 영어로도 도저히 그녀(나오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양인을 만나면서 자연히 늘었겠지만, 밤 모임 좌석에

8) 지면상 설명으로 대치한다.

9) 이은경, 『근대일본여성분투기』, 한울, 2021, pp.310-311. 참조.

10) 小谷野敦, 細江光, 『谷崎潤一郎 對談集- 藝能編』, 中央公論新社, 2014, p.177. (「猫のような魅惑」叶順子, 谷崎潤一郎『若い女性』1960(昭和35) 10월에 수록됨)

11) 1968년 폐간되었으며 淀川長治라는 기자가 인터뷰 하였다.

서 부인이나 신사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그녀가 거침없이 지껄이고 있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여하튼 발음은 옛날부터 능숙했었기 때문에 이상스럽게 서양인과 비슷했고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가 많았습니다.”<sup>12)</sup> 라는 부분처럼 나오미의 육체적, 정신적 지배를 암시하듯 말타기를 연출하여 굴복하는 조지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문학 독서행위가 독자의 개별적, 자율적 체험을 제공한다면 영화는 집단적, 동시적 체험을 마련한다. 광범위하고 불특정적인 다수의 대중들을 이야기 수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영화는 대중 일반의 보편적 정서나 성향을 의식하게 되고 또한 의도하게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소설의 영상으로의 각색 과정에는 대중적 취향과 기호에 부응하는 극적요소들의 첨가 현상이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난다.<sup>13)</sup> 짧은 시간 내에 메시지 완성을 위해 말 태우기의 차용은 극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 탁월하였고 보인다. 소설에서 말 태우기는 나오미와 조지의 순수한 동거생활시작에서의 놀이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영화에서의 차용은 점차 관계회복을 위해 굴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됨이 영화적 요소로 탁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말타기는 네 번 등장하는데 남녀의 단순한 놀이로 시작하여 나오미의 남자관계에 대한 결백주장에 애뜻했던 처음의 관계회복에 사용된다. 또한 쫓아 낸 나오미를 회상하면서 조지가 혼자서 흥내 내며 슬퍼한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계략에 굴복하는 조지의 심경을 표현하면서 말이 되기를 원하였다. 이처럼 영화에서 희화적인 말 태우기의 장면을 소도구로 반복 사용하면서 원작의 서술을 압축함과 동시에 선명한 젠더 표상을 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결론

이상과 같이 동일한 감독의 시대를 달리하는 두 편의 영화에서, 나오미라는 캐릭터의 재현양상을 고찰하였다. 다니자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스크린을 통하여 구현되는 과정에서 나오미의 이미지에 대한 작가의 인터뷰 또한 역사성을 감지하기에 충분하였다. 소설『치인의 사랑』은 관동대지진 직후 다니자키가 관서로 이주하여 집필한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대지진 전 다니자키가 직접 도쿄와 요코하마를 무대로 모던한 삶을 지향하였던 이야기를 히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생생하게 그린 작품인 것이다. 나오미가 자신의 육체적 매력을 자각하면서 요부로 변신하여 조지에게 발각되는 과정에서 두 편의 영화는 사뭇 다른 결말로 이어진다. 첫 번째 영화(1949)에서는 나오미의 사과로 둘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 영화(1960)는 원작과 동일하게 나오미의 계략에 굴복하는 조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일본이 근대의 시작부터 줄곧 모방하고 동경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은 전후 미국 주둔 하에서 구체화 되어간다. 여성의 가사노동으로 부터의 해방과 참정권 획득 등 전후 성급한 여성해방의 움직임이 때로는 여성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내몰거나 사상적으로도 혼란을 야기 시켰다.<sup>14)</sup> 나오미의 일탈을 이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 기무라 게이코 감독은 스크린을 통해 재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말타기를 젠더의 위상을 표하는 영화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오미를 굴복시켰다. 패전 후 조급한 여성해방 정책이 빚어낸 결과물로서의 설정인 것이다. 이는 패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본(남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발전적 일본의 모습을 찾으려는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다 하겠다. 전술한 대로 다니

12) 김춘미 옮김, 『치인의 사랑』, 민음사, 2018, p.394

13) 『영화속 문학이야기』, 도서출판 동인, p.24.

14) 이은경, 『근대일본여성분투기』, 한울, 2021, pp.310-312.

자키의 1949년 영화 각색에 대한 불쾌감 표시는 동시에 일본 당국에 대한 것임을 인터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후의 여성정책에 따라 제작된 1949년 영화의 나오미와 달리 1960년 영화에서는 탐미주의적 원작을 토대로 원작에 가깝게 묘사된 나오미로서 부활한다.

# 일본 온천지 식(食)문화의 변화

— 자취식(自炊食)을 중심으로 —

李德求 (혜전대)

## 1. 머리말

최근 관광이나 여행에 있어서 식사는 중요한 관심사이며 빼놓을 수 없는 체크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엔데믹 이후의 온천지에는 일본 국내 여행객은 물론이지만,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방일 전부터 일본의 먹거리(食)와 온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고, 체재 후 그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sup>1)</sup> 이에 일본의 온천지에는 어떠한 먹거리(食)가 있으며, 또 여기에는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온천지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숙박시설이 ‘1박 2식(1泊2食付)’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여행객은 저녁과 아침 식사를 숙박시설에서 먹었다. 따라서 온천식(溫泉食)<sup>2)</sup>이라 하면 숙박시설의 요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행객의 니즈가 다양화하고 체재 형태가 다채로워지면서 숙식분리(宿食分離)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취식(自炊食)이나 외식(食堂食)도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온천식(溫泉食) 중 먼저 자취식(自炊食)의 역사적인 형태와 역할, 그리고 오늘날 그 역할과 형태는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와 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2. 온천지(溫泉地) 자취식(自炊食)의 역사적 변천

에도시대의 온천은 병의 치료가 본질이며, 탕치자는 요양을 위해 장기간 머물면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자취생활이었다.<sup>3)</sup>

온천지에는 다양한 등급의 숙소가 있었으며, 식사는 자취와 급식을 받는 이른바 하숙을 선택할 수 있었고, 온천지에서는 다양한 음식 재료의 구매와 탕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이 가능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온천지에 따라 그 지역에서만 때맞추어 생산되는 식품과 독특한 조리법이 있어서 지역을 맛보는 즐거움이 온천지에는 존재하였다.<sup>4)</sup>

- 1) 일본 관광청의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 결과 및 분석(2018년)에 따르면 방일 외국인은 방일 전에 일본의 먹거리(日本の食)를 먹는 것(70.7% 1위), 쇼핑 (54.4% 2위), 자연 경승지관광(46.5% 3위) 순으로 관심과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재 후 먹거리(食)에 대한 만족도(92.7%)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mlit.go.jp/common/001285944.pdf>)
- 2) 온천식(溫泉食)이란 온천시설이 있는 온천지에서의 식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자취식(自炊食), 온천가(溫泉街) 식당에서의 외식(外食), 숙박시설(旅館)의 여관식(旅館食)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이 논문에서의 온천식(溫泉食)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 3) 伊藤克己(2010)「江戸時代の温泉と「癩病」-適應・禁忌と泉質・湯性-」日本温泉文化研究会編『湯治文化誌-温泉2』岩田書院, p.7
- 4) 内田彩(2017)「温泉地滞在における食の役割とその変容:近世から近代にかけて」『温泉地域研究』29号, 日本温泉地域学会,

탕치를 가능하게 받쳐주는 역할과 탕치객 상호 간 그리고 지역민과의 교류를 넓히며, 지역의 매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3. 관광 지향의 변화와 온천관광

지금까지의 좋은 명소를 찾아 바쁘게 돌아다니며 누구나 느끼는 감동(感動) 지향의 관광에서 한곳에 머무르며 여유롭게 지내면서 색다르고 독특한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심(感心) 지향의 관광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기 있는 명소에 놀라기보다 개인과의 연결(관계)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교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일상을 형성하는 ‘의·식·주’의 3요소 중에서 무엇보다 지역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식(食)과 식문화(食文化)가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인들의 중요한 관광 행동의 일부가 되었다.

온천관광에서도 추구하는 지향에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스타일(New Tourism)의 온천관광에서는 심신의 치유를 위한 자연과 정서(감성) 지향으로 수요 형태가 이행되어 여행객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체험과 교류 중심의 온천관광이 진행되고 있다.

### 4. 지역을 맛보는 자취식(自炊食)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커플, 젊은 여성, 가족(어린이, 노약자) 동반 등이 중심이 되는 근래의 새로운 지향(New Tourism)의 온천관광에서는 전통적인 탕치장과 함께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좋아 휴양이나 힐링에 최적인 한적한 온천지(이른바 秘湯)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되살아나는 탕치와 이에 따른 자취식(自炊食)의 양상과 역할도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먼저, 숙박 공유서비스를(Airbnb)<sup>5)</sup> 이용한 숙소에서 가족, 혹은 소그룹 단위로 장기간 지내면서 주변의 온천지를 대상으로 주로 미용 목적의 탕치와 관광의 거점으로 삼는 형태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사가현(佐賀県) 가시마시(鹿島市)의 주택에서 1박을 하면서 도보 가능한 거리의 목욕 전용온천(日帰り温泉)인 유토쿠온천(祐徳温泉)과 자동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인 우레시노온천(嬉野温泉)을 이용하면서 지역의 음식을 온천가 식당에서 맛보았다. 특히 우레시노온천(嬉野温泉)의 유도후(湯どうふ)는 온천수를 이용하여 만든 온천두부로서 우레시노 온천수(温泉水)의 독특한 성분이 작용하여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며 국물도 단맛이 돌며 자양(滋養)에 좋아 예부터 건강식품으로 탕치 객에게 인기가 있었던 유명한 특산품이다. 온천가(嬉野温泉街)에서 온천두부(湯どうふ)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湯豆腐カレー, 湯豆腐もち, 湯豆腐油揚げ, 湯豆腐味噌汁, 湯豆腐鍋, 湯豆腐丼 등)의 레시피 세트를 구매하여 맛볼 수 있다.

온천두부(湯どうふ)는 현재 우레시노온천(嬉野温泉)의 각 여관이 제공하는 식사 메뉴의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우레시노온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성장해 있다. 여기에는 지역 사업자 간의 기술을 공유하며 관광 상품화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우레시노 탕두부 진흥협의회(湯どうふ振興協

pp.2-7

5) 필자의 첫 1박자로서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예약한 숙소이다. 6명까지 숙박 가능한 아파트 형태의 2층 주택(2층 이용)으로서 1박 요금이 숙박 인원과 관계없이 3,500엔 정도로 저렴하고, 침대 방 2개와 거실 취사도구가 일체 갖추어진 주방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용품이 잘 갖춰져 있었다.

議會)가 설립되어 여관 음식점을 중심으로 66의 사업자가 회원이 되어 두부의 제조기술 판매망을 확립하고 가공, 상품개발, 재료공급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9년에는 지역의 대두를 100% 사용한 ‘우레시노온천유도후(嬉野温泉湯どうふ)’라는 브랜드마크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레시노온천지 여관 대부분과 호텔, 음식점에서 온천두부(湯どうふ) 요리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음으로써 온천지 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알려졌다.<sup>6)</sup>

다음으로, 온천지의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만 자는 숙박(素泊まり)을 하면서 식사는 지역의 특산물 생산지나 농장을 직접 방문 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요리체험 교실에 참가하는 방법(自炊食)도 가능하다.

오이타현(大分県) 유후인온천(湯布院温泉)<sup>7)</sup>과 결합한 유후시(由布市)의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 주최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는 계절에 맞는 수확 체험(죽순, 산채, 버섯, 차, 벌꿀, 알밤, 딸기, 블루베리 수확 등)과 직접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로 오이타현(大分県)의 향토 요리(鶏飯作り, やせうま作り)와 가정요리(薬味, 漬物作り, 石窯で焼きたてピザとパン作り)를 전통 시골 방식(田舎料理作り)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요리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농가의 이로리(囲炉裏)에서 향토 요리인 단고지루(団子汁), 근처의 강에서 잡은 메기(鮎)와 게(沢蟹), 갯 수확한 제철 채소의 튀김, 지역에서 생산된 밀가루로 만든 피자를 구워 먹는 등의 농가 체험 민박(民泊)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 체험비(体験費)는 계절과 농산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00엔에서 2,500엔 내외로 여관식(旅館食)과 비교하면 역시 경제적이며, 또한 민박 체험에 참여하는 농가(農家)는 음식점업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sup>8)</sup>가 많아 요리와 식사는 반드시 집주인(家主)인 프로그램 제공자와 참여자인 손님이 함께해야 하기에 더욱 가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며 교육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박(民泊) 체험은 거주(家主)의 주업(농업, 어업, 산림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 맛뿐 아니라 지역에 대하여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자연이랑 문화에도 접하며 원주민들과의 교류도 즐기는 지역의 참맛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전통 탕치숙(湯治宿)을 이용하면서 자취하는 과거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자취식이 있다.

벳푸시(別府市) 간나와(鉄輪)의 후타바소(双葉荘)<sup>9)</sup>는 1941년 개업 이래 낡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탕치숙(湯治宿)이다. 보통 탕치숙(湯治宿)은 자취를 위한 공동 취사장과 공용 화장실을 구비하고, 각 객실(個室)에는 이부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공동 취사장에는 가스시설 등 취사도구가 일절 준비되어 있어서 근처에 있는 농가 직판의 상점과 슈퍼, 편의점 등에서 음식 재료를 구매하여 각자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서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형태가 전통 탕치숙(湯治宿)의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간나와(鉄輪)의 탕치숙(湯治宿)에는 여기에 지고쿠가마(地獄釜)<sup>10)</sup>라는

6) 다니구찌기요미(2012)「日本温泉観光における観光客の志向変化と観光地再生への方策-日本佐賀県嬉野温泉の事例」『관광컨벤션 연구』 제4권 제2호 P.78 참조.

7) 필자는 유후시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농촌체험 프로그램에는 체험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숙박을 할 수 있는 민박 프로그램이 있고, 민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農家)가 2023년 현재 49여 곳이며, 대부분 1박 2식에 체험비를 포함하여 12,300엔으로 설정되어있다. 가까운 온천의 공동욕장을 이용하며 요금은 별도다. 주로 초, 중, 고의 학생 그룹과 초등학교생이 포함된 가족 단위의 참가가 많고, 아메리카 및 유럽계 외국인의 참여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체험 후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했다.

8) 민숙(民宿)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유상의 방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관업법상 간이숙소 영업허가가 필요하지만, 민박(民泊)은 일반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 무상과 관계없지만, 일시적이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https://www.mhlw.go.jp/index.html> 참조).

9) 후타바소(双葉荘)는 외국인의 예약은 받지 않기에 필자는 가까운 온천여관(御宿温泉閣)에서 1박 하면서 온천여관(温泉閣)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통적인 탕치숙(湯治宿)인 후타바소(双葉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특별한 조리 장치가 있어서 온천 증기(地獄蒸し)를 이용한 각종 요리(温泉卵, ご飯, カニ, 栗, 筍 등)도 가능하여 자취 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전통 탕치숙의 또 다른 사례로서 아오모리현(青森県)의 객사(客舎)도 있다. 아오모리현의 일부 지역에서는 탕치숙을 객사(客舎)라 부른다. 온천콩나물(温泉もやし)은 아오모리현(青森県)의 오와니(大鰐町)에서 약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 채소로서 ‘오와니온천콩나물(大鰐温泉もやし)’에는 굵은 콩(大豆)으로 만든 콩나물과 메밀(そば)로 만드는 메밀 콩나물의 2종류가 있다. 오와니온천(大鰐温泉)의 열을 이용해, 지온을 높여 재배하며, 온천수를 사용하여 키우며, 세정이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의 물도 모두 온천수를 사용한다. 길이가 30cm에 이르는 온천 콩나물은 아삭아삭한 씹는 맛과 씹을 때마다 더해지는 향이 매력이며, 전통을 지키려 수작업으로 깊으로 묶어 판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sup>11)</sup>

이밖에도 이시카와현(石川県) 가타야마쓰온천(片山津泉)의 ‘손(手作り)두부 만들기, 시즈오카현(静岡県) 이나토리온천(稲取温泉)의 ‘계잡이’와 ‘갯벌 놀이’, ‘된장국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특색 있는 자취식(自炊食)을 가능하게 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근대 이후 온천지의 활락 화와 함께 거의 모습을 감추었던 자취식은 오늘날 미용, 관광, 체험, 교육 등으로 다양해진 목적의 탕치 문화 부활에 따라 식료를 구매하여 숙소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자취식에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에의 참가를 통한 체험적인 자취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되살아났다.

되살아난 자취식이 과거(江戸時代)와는 달리 찾아온 생산자로부터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탕치객이 생산지(현지 농장이나 요리 교실)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지역민과 탕치객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는 역할과 함께 지역의 시공간을 구석구석 맛보는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여전히 여관식과 비교해 경제적이며 교육적 측면으로도 평가받는 자취식(自炊食)은 온천지에서의 장기체재를 유도하는 개성 있는 비 일상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온천지 체류 방식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온천지의 식문화(食文化)를 선도하는 측면도 있다.

---

10) 지고쿠가마(地獄釜)란 온천 지열 요리의 일종으로 大分県 別府市の 鉄輪温泉 주변에서 지옥(고온의 온천)으로부터 분출하는 증기를 이용한 가열 조리 장치로서, 이를 이용하여 식재를 찌는 요리법을 지고쿠무시(地獄蒸し)라고 한다(フリー百科事典 참조).

11) ‘오와니온천콩나물(大鰐温泉もやし)’은 2012년에는 지역 단체 상표에 등록되어 브랜드화에 성공하였으며, 도쿄(東京)의 오프라인 판매점 3곳(千代田区, 新宿区, 中央区)을 비롯하여, 전국에 온라인 통신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음식점에서는 라면(温泉もやしラーメン), 소바(温泉もやしそば), 각종 덮밥(丼物), 정식(温泉もやし定食) 등 다양한 메뉴에 사용되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식재료의 위치를 굳혔다. 2018년부터는 후계자 육성 플랜과 증산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역의 특산품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http://www.town.owani.lg.jp/index.cfm/1,html>)참조.

# 에도시대 과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김학순 (충남대)

## 1. 들어가며

에도시대 3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시대 막부(幕府)는 외국과의 교류를 중국과 네덜란드에 한정시켜 서양 서적의 유입도 금지했다. 이러한 막부의 쇄국체제, 봉건적인 주종관계, 고착된 신분제도, 이동 제한 등으로 에도시대 과학 발전은 정체되었다. 에도시대 중기에 이르러 크리스토프 관계 이외의 외국 서적 유입은 해금되어 이것을 계기로 난학(蘭學)이 융성했다. 하지만 과학적인 지식은 한정적이었으며 학자 간의 교류나 상호비판도 없었다.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은 일반적으로 전파되지 못했고 일부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한 학자들 중, 난학자들은 물리, 화학, 생물학, 공학 기술 등, 다양한 근대 서양의 기술을 흡수했다. 그들은 서적에 의한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실험기구와 측량기구를 사용하여 실험, 관측하며 항상 실전적인 이해를 추구했다.

에도의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난학자나 양학자들이 중심이었다. 그들이 이론과 실험을 병행한 점은 현재의 과학자들과도 상통하는 면이다. 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많았다. 현대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명확하고 그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정통하다. 그에 반해 에도 과학자들은 관심 분야가 넓어 물리, 화학, 생물학, 천문, 지질학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호기심은 문학과 예술 분야까지 이르렀다. 본 발표에서는 그중에서도 에도시대 과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라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라쿠리를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 등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에도시대 과학 기술 발전

에도 과학 기술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 번의 중요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3대 쇼군 이에미쓰 시대에 확립한 쇄국 정책하에서 토목산업 기술이 발달하여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증가한 전기 17세기, (2)요시무네(吉宗)의 교호(享保)개혁(1716~1745)에 의한 네덜란드어와 난학을 통한 서양 지식과 기술의 유입된 중기 18세기, (3)러시아를 시작으로 한 서양제국의 일본접근 하세어 네덜란드어 이외의 여러 외국어를 배우며 군사 및 의학을 중심으로 양학이 발달한 후기 19세기로 구분할 수 있다.

### ■ 에도초기 토목산업 테크놀로지

17세기 생산력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업 기술의 진화이다. 개착(開削)기술의 발전으로 저수지나 용수로 등이 정비되거나, 축제(築堤)기술 발달로 대하천이나 해안부에 대규모의 새로 일군 밭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기반을 이룬 것이 전국(戰國)시대의 축성, 광산기술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은 산림 고갈, 홍수 발생 등, 환경파괴를 일으켜 농업은 1650년경을 기점으로 경작지 확대로부터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를 목표로 한 정농법(精農法)으로 전환했다. 광산기술

도 채굴, 배수, 정동(精鍊) 등을 개량하여 세계적인 금은 생산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산업의 발달에 의해 생산력이 상승하고 에도사회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

### ■ 에도중기 난학의 발달

18세기는 17세기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요시무네의 교호개혁으로 서양의 지식과 기술이 유입되어 보급된 시기이다. 요시무네는 한문 번역의 서양 서적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아오키 곤요(青木昆陽)와 노로 겐조(野呂元丈)에게 네덜란드어를 배우게 했다. 이것을 계기로 네덜란드어를 통해 서양의 지식과 기술이 도입되어 난학이 발달했다. 실용학문인 난학은 천문학, 역학(曆學), 지리학, 의학, 박물학 등의 분야에서 발달했다. 곤요에게 네덜란드어를 배운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와 스키타 겐과쿠(杉田元白)가 『해부도보(解剖圖譜, Anatomische Tabellen, 1722)』를 번역하여 『해체신서(解体新書, 1774)』를 간행했다. 이러한 난학의 발달 배경에는 에도시대의 합리주의적이면서 실증주의적인 인식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 에도후기 양학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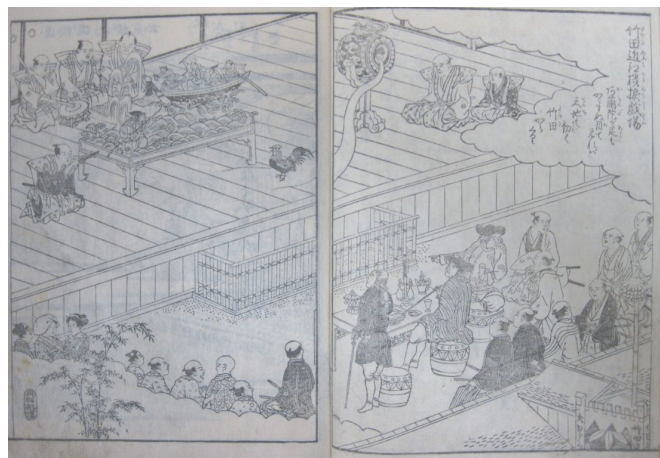
19세기는 서양 열강의 접근과 함께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을 배워 군사나 의학을 중심으로 난학은 양학으로 발달했다. 무사 계급은 물론 서민들도 양학을 배우며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 보급되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장인들의 자부심과 노력으로 전통공예와 전통문화가 발전했다. 일본 재래 셈법(和算), 도자기, 칠기, 가라쿠리(からくり), 우키요에(浮世絵), 직물 분야의 기술이 발달했다.

## 3. 가라쿠리(からくり)

<가라쿠리>는 기계장치를 의미하며 한자로는 <絡繰>, <機械>, <機関>, <機巧>로 표기한다. 1796년 고치현(高知県) 출신의 호소카와 한조(細川半蔵)가 가라쿠리를 해설한 희귀본 『기코즈이(機巧図彙)』를 출판했다. 서양으로부터 기계 시계의 도래가 가라쿠리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계 시계는 태엽, 톱니바퀴, 조속기 등을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을 응용하여 에도의 장인들이 독자적인 가라쿠리를 고안했다.



<그림1> 「가라쿠리인형 연극 (からくり人形芝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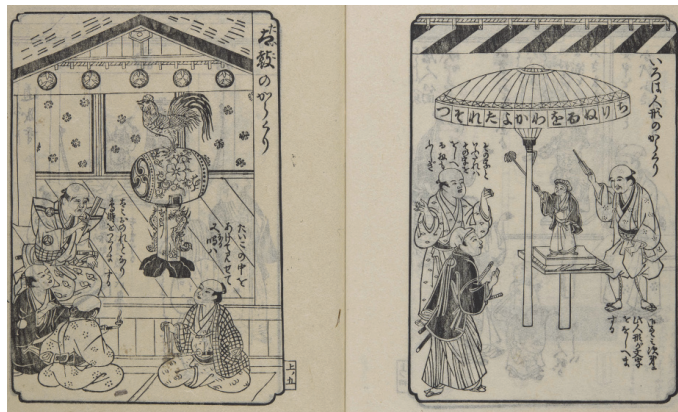


<그림2> 『셋쓰메이쇼즈에(撰津名所図会)』 제 4권 하(第四卷下) (세쓰난대학 도서관<撰南大学図書館> 디지털 아카이브)

가라쿠리는 <가라쿠리 시계>와 <가라쿠리 인형>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1662년 오사카(大阪) 도톤보리(道頓堀)에서 <가라쿠리 인형>을 사용한 <가라쿠리 무대(芝居)> 다케다 오미(竹田近江)가 유명하며 태엽을 사용한 가라쿠리에 능했다. <다케다 가라쿠리 무대>는 가라쿠리 가라쿠리 인형에 대한 놀라움과 기대는 점차 스토리가 중심인 가부키(歌舞伎)와 분라쿠(文楽)로 대체되었다.

■ 『가라쿠리킨모가카미구사(機訓蒙鑑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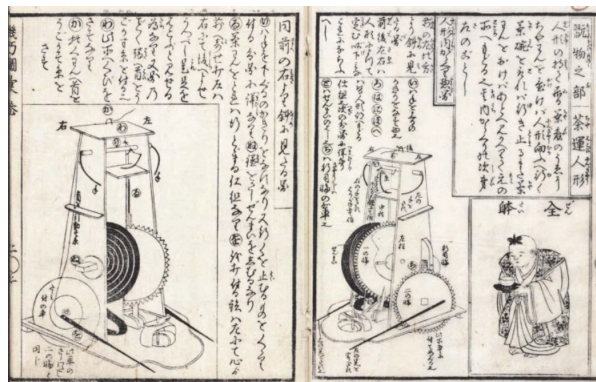
에도초기의 가라쿠리 해설서로 1730년 다가야 간추센이 간행했다. 당시 대표적인 가라쿠리 28종을 그림과 함께 각각의 해설과 증명이 되는 서적을 첨부했다. 도르레나 지렛대를 이용한 실이 사용된 가라쿠리가 9종, 펌프, 스프링, 톱니바퀴, 수운을 이용한 것이 각 1종, 그 외는 마술과 비슷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유치한 것도 있다.



<그림3> 『가라쿠리킨모가카미구사(機訓蒙鑑草)』 <가라쿠리> 장치

■ 『가라쿠리즈이(機巧図彙)』

호소카와 한조(細川半蔵)가 1796년에 일본식 시계(和時計)와 가라쿠리에 관한 지식을 기록한 서적이다. 이 서적으로 많은 가라쿠리 인형이 복원되었다. 일본식 시계와 그것에 사용되던 태엽 장치나 탈진기 등의 기구를 응용한 가라쿠리에 관한 것들을 적었다. 일본 고전 기구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책으로 서구 이외에 저술된 공학 관련 서적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차를 나르는 인형은 등속 제어 기구나 입출력 응답 등, 자동 제어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4> 『가라쿠리즈이(機巧図彙)』 <차 나르는 인형(茶運び人形)>

■ 『가라쿠리즈이』 상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차 나르는 인형(茶運び人形)> 이 대표적이다. 인형이 들고 있는 쟁반에 차가 들어있는 찻잔을 자동적으로 손님 앞으로 나른다. 손님이 인형이 들고 온 차를 들면 인형은 멈춘다. 손님이 찻잔을 인형의 쟁반에 돌려주면 인형은 방향을 바꾸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 다나카 히사시게(田中 久重, 1799-1881)

구루메(久留米)시 출신으로 에도시대 후기부터 메이지에 걸친 발명가이다. 일본 최초의 민간 기계 공장인 시바우라(芝浦) 제작소(도시바의 증기, 전자 부문 전신)의 창업자이다. 청년 시절부터 다양하고 정교한 가라쿠리 인형과 일본식 시계의 최고 걸작인 <만년초명종(万年自鳴鐘)>을 비롯한 시계 등의 제작으로 <가라쿠리 기에문(からくり儀右衛門)>으로 불렸다. 그 후에는 증기기관이나 대포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 임하는 한편, 생활에 편리하고 다양한 기계를 발명하는 등, 일본의 근대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림5> <만년초명종(万年自鳴鐘)>

#### 4. 나오며

# <합신전대 메칸더 로보> 小考

— 종말론과 미소우주경쟁을 중심으로 —

李文鎬 (高麗大)

## 1. 들어가며

<합신전대 메칸더 로보(合身戦隊メカンダーロボ), 이하 메칸더>는 신생 와코프로(和光プロ)가 제작하고 1977년 3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쿄12채널(현 텔레비도쿄)에서 전 35화로 방영된 거대로봇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서는 1987년과 88년 <메칸더V>라는 제목으로 MBC에서 방영되었다. <메칸더>는 한국에서의 인지도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스폰서 기업(ブルマック)의 도산으로 종반부 제작이 파행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흥행에 참패하여 존재감이 크지 않다. 그런 이유로 <메칸더>는 1970년대를 수놓았던 거대로봇 애니메이션 중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메칸더>는 애니메이션 평론가 히카와 류스케(氷川竜介)가 “거의 재방송도 되지 않고 비디오 화도 되지 않은 채 반 전설화 된 마이너 애니메이션 군단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시되어 버리기엔 아까운 매력으로 가득한 작품”<sup>1)</sup>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흥미로운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히카와는 <메칸더>가 와코프로의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SF애니메이션 제작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다쓰노코 프로(タツノコプロ) 출신 스태프들의 활약이 돋보인 작품임을 지적하며 “역시 어딘가 다쓰노코 같은 작품(やはりどこことなくタツノコっぽい作風)”<sup>2)</sup>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메칸더>의 스토리는 <과학닌자대갓차맨>(1972)의 총감독이었던 도리우미 히사유키(鳥海久幸)가 가이도 기요히코(海堂清彦)라는 필명으로 주요 에피소드의 각본을 맡고 나머지를 같은 다쓰노코프로 출신의 스야마 사토시(陶山智)가 나누어 담당하였다. <건담>의 아버지 도미노 요시유키(富野由悠季)도 제9화 [최후의 전선 남지나해]의 연출로 참가하였다. 다쓰노코프로의 작품이란 외계인침략, 우주개발, 로봇과 같은 SF취향의 세계관에 방사능, 핵물질, 로켓, 공해문제 등 현실적인 테마를 적절히 혼합한 것으로<sup>3)</sup>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애니메이션에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히카와는 구체적으로 <메칸더>의 어떤 내용에서 ‘다쓰노코 같은 작품’을 느낀 것일까?

다쓰노코에서 <개산>을 비롯한 수많은 SF액션의 연출을 다룬 도미노 요시유키도, 이 작품에 각화 연출로 참가. 보급부대의 에피소드 등 전쟁 영화의 분위기를 풍기는 성인 취향으로 연출하고 있다. 마이너 작품이기 때문에 작화의 마무리가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작품이나 그만큼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메이저 작품에서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도미노가 총감독을 맡은 같은 해의 「무적초인 점보트3」나 「기동전사 건담」에서, 마이너한 작품 제작 속에서 설정을 리얼하게 해 전기(戦記)처럼 그리려고 한 루트는, 의외로 <메칸더로보>일지도 모른다<sup>3)</sup>

1) [http://hikawa.cocolog-nifty.com/hyoron/2006/12/post\\_fd5a.html](http://hikawa.cocolog-nifty.com/hyoron/2006/12/post_fd5a.html)

2) 야마구치 야스오(2005) 김기민, 황소연 옮김 『일본애니메이션의 역사』, 미술문화, p.119.

3) [http://hikawa.cocolog-nifty.com/hyoron/2006/12/post\\_fd5a.html](http://hikawa.cocolog-nifty.com/hyoron/2006/12/post_fd5a.html)

위 인용에서 히카와는 <메칸더>의 군사물로서의 설정의 리얼함과 종래의 작품과는 다른 ‘도전’(타임 리미트, 양산형 메카의 등장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다쓰노코 풍의 테마나 세계관이 1977년의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발표는 197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종말론과 미·소우주전쟁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가며 <메칸더>의 내용을 훑아보기로 한다.

## 2. 종말론의 유행과 고토 벤의 ‘공포의 대왕’

1970년대 전반 일본에서 붐을 일으켰던 종말론의 배경에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불황과 일본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그리고 냉전의 격화라는 국제정세가 있었다. 한편 종말론 유행의 배경으로 일본 내 시대적 풍조에 주목한 엔도 도시아키는 1960년대 후반에 융성했던 학생운동이 내세운 사회변혁의 이상과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주장한 인류의 진보와 조화가 그린 밝은 미래상에 대한 반동(비판)이 종말론 붐을 형성한 것으로도 보았다.<sup>4)</sup> 고도경제성장이 끝나갈 무렵인 1972년 연합적군과 사건을 계기로 전후사회를 비판했던 좌익계 학생운동이 퇴조하고, 1970년에 개최된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테마로 세계각국의 과학 산업의 첨단성과를 모아 밝은 미래상을 제시했지만 인류의 조화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분쟁은 계속되었으며 기술의 진보는 공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sup>5)</sup>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문화적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고마쓰 사쿄(小松佐京)의 『일본 침몰』(1973)과 고토 벤(五島勉)의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1973)이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은 고토의 해석을 바탕으로 1999년 7월경 지구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주장하였다. ‘공포의 대왕’에 관하여 고토는 복수(複數)의 설을 제기했는데, ①대공습, ②ICBM(대륙간탄도미사일), ③인공위성, ④혜성충돌, ⑤외계인침공, ⑥초광학스모그가 그것이다.<sup>6)</sup> 고토의 ‘공포의 대왕’ 설은 냉전과 공해를 의식한 다소 ‘뻘한’ 해석이었지만 시대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묵시록적 세계관으로 이듬해 영화로 제작되는 등 세간의 유행을 반영하며 계속해서 재생산되었다.<sup>7)</sup> 흥미로운 것은 <메칸더>에도 이런 고토의 묵시록적 세계관이 수용되어 ‘공포의 대왕’을 과학력으로 극복한다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이해를 위해 <메칸더>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진 오리온성운에 속한 가니메테별의 오염된 바다에서 어느 날 고도의 지능을 가진 공해생물 헤도론(ヘドロン)이 출현한다. 가니메테별 주민을 모두 사이보그로 만들어 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된 헤도론은 역시 자신이 만든 오즈멜 대장군과 정예 쿵기스타 군단을 앞세워 ‘공해에 오염되지 않은 별 지구’를 침략한다. 쿵기스타 군단은 정지위성(静止衛星)과 오메가미사일을 이용하여 지구의 모든 핵 시설과 핵무기를 추적 파괴하여 지구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쿵기스타원반(円盤)으로 불리는 폭격기를 동원해 대공습을 펼쳐 일본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초토화시킨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지구방위연합군은 아사마

4) 円堂都司昭(2015) 『戦後サブカル年代記 日本人が愛した「週末」と「再生」』 青土社, p.32-33.

5) 실제로 이 시기 베트남 전쟁과 중동전쟁이 진행중이었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오사카박람회를 ‘비축된’ 원자력발전마저 공해의 문맥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모토 아키히로에 따르면 1970년대 초두에 이미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을 공해라는 말로 이해하는 인식은 원전에도 응용되어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山本昭宏(2015) 『『核と日本人』』 中央公論新社, pp.122-123.

6) 円堂都司昭(2015)의 위의 책, p.31.

7) 前田亮一(2016) 『今を生き抜くための70年代オカルト』 光文社, p.206.

산(淺間山) 산록 지하에 자리를 잡고 미스터X로 불리는 시키지마박사가 개발한 메칸더1, 2, 3호기(메칸더맥스)와 메칸더로보의 도움을 받아 콩기스타 군단에 대항하여 결국 승리한다.

## 2. <메칸더>속 ‘공포의 대왕’

<메칸더>속 ‘공포의 대왕’을 살펴보자. 먼저 ①대공습과 관련, 콩기스타 군단의 화력은 공습 및 공중전을 수행하는 콩기스타원반과 메칸더로보를 상대하는 괴수메카, 그리고 정지위성에서 발사되는 오메가미사일로 나눌 수 있는데 콩기스타원반에 의한 대공습장면은 제1화부터 최종화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콩기스타원반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결국 출격기지이자 콩기스타군단의 거점인 공중요새를 파괴해야 하는데 <메칸더>의 전반부가 오메가 미사일 파괴라면 후반부는 공중요새의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제34화 [대장군 오즈멜의 최후]에서 공중요새를 파괴함으로써 대공습은 멈추고 비로소 지구가 승리하게 된다.

<메칸더>에서 서스펜스와 카타르시스를 자아내는 가장 중요한 플롯은 바로 메칸더로보의 동력인 핵융합원자료를 감지하여 오메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지위성의 존재와 그 정지위성의 파괴이다. 여기서 정지위성은 군사정찰위성으로, 이름처럼 모든 것을 끝장낼 원·수폭으로 묘사되는 오메가 미사일과 더불어 지구의 핵의 군사적 이용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정지위성과 우주공간에서 지구로 발사되는 오메가 미사일은 우주를 거쳐 지구 전역으로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는 ②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③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제8화 [부쉬라! 오메가 미사일]과 제17화 [오메가 미사일을 격멸하라!]에서는 오메가 미사일에 대한 공포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메칸더2의 파일럿인 고지로는 오메가 미사일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메칸더의 설계자인 시키지마 박사를 찾아가 “박사,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메가미사일이 무서워.”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오메가 미사일을 박살낼 방법은 없는 거야?”라고 따진다. 고지로의 행동은 원폭에 대한 일본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 시키지마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국제물리비밀연구소의 연구 결과, 콩기스타의 정지위성 7개가 지구를 에워싸고 있으며 이 정지위성들을 쏘아 떨어뜨리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대형로켓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한 위성요격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로켓을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국’(NASA)이 전멸된 상태여서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다. 콩기스타 군단의 공격을 우려하여 운전을 멈추고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와 그 부속장치가 거의 동시각에 누군가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원전으로 향하던 고지로는 오메가 미사일의 환영을 보게 되고,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만 고지로는 메칸더2를 오메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정지위성으로 몰고 가 위성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나 메칸더2로는 정지위성까지 도달할 수 없었고 정지위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고지로에게 되레 오메가 미사일이 발사되자 이성을 되찾은 고지로는 동력을 끄고 요격을 피한다. 그러나 정지위성을 파괴하지 않고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시키지마 박사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도달 고도를 우주공간까지 높인 메칸더 1, 2, 3호기를 개발하게 된다. 결국 1, 2, 3호기가 합체한 메칸더맥스가 우주공간의 정지위성이 있는 위치까지 진출해 근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정지위성을 모조리 파괴한 뒤 오메가 미사일의 공포에서 해방된다. 그런데 이런 <메칸더>의 플롯은 실제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이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벌인 위성요격 기술경쟁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냉전기 인공위성이 공공연하게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자 미국과 소련은 상호 견제를 위해 대위성



요격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인공위성은 통신, 적 공격에 대한 경보, 일반적인 감시, 군사활동에 대한 지원, 심지어는 전투용으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소 양국은 유사시에 상대의 인공위성을 최우선적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ASAT(Anti SATellite Weapons)로 불리는 위성공격무기는 지상이나 전투기에서 미사일, 레이저 등을 발사해 지구궤도상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특히 정찰위성을 주공격 목표로 삼았다. 소련은 미사일을 장착한 킬러위성을 적 위성체에 접근시켜 파괴하는 시스템을 추구한 반면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에 의한 위성파괴를 연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1967년 우주 조약에 의해 대기권 밖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요격은 포기하였다. <메칸더>가 묘사한 메칸더맥스에 의한 위성 파괴 시퀀스는 실제 현실에서는 1982년 미국이 F-15기를 이용해 성층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위성파괴 실험에 성공하면서 실현되었다.<sup>8)</sup>

다음으로 ④혜성충돌에 관해서는 제24화[결사의 우주전쟁]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의 파편인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발상이 등장한다. 토성 부근을 대운석군(大隕石群)이 초고속으로 통과하던 시카콩기스타 군단은 콩기스타원반으로 지구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과 지상에 남은 천문대를 모조리 파괴하여 지구가 우주를 보는 눈을 잃게 만든다. 대운석으로 위장한 콩기스타의 운석메카가 지구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주를 지켜보는 눈’이 필요하게 되자 시키지마 박사는 메칸더로보가 대기권 밖에서 우주정찰을 실시하도록 한다. 대운석 충돌에 의한 지구 멸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콩기스타군단의 작전을 간파한 시키지마 박사는 메칸더로보를 급히 화성으로 향하게 하여 대운석군을 발견토록 한다. 콩기스타원반과 괴수메카의 방해공격을 물리치고 대운석군을 발견한 메칸더로보는 그것이 우주공간 입자를 흡수하여 연료로 삼는 콩기스타의 운석메카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를 파괴하려고 다가가자 강렬한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폭풍이 일어나 운석메카가 모두 소멸해 버린다. 그러나 메칸더로보는 살아남으며 외계인의 과학력을 뛰어 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⑥초광학스모그와 관련하여 제3화 [결사의 파워인]에서는 괴수로봇에 의한 인위적인 광학스모그 생성을 묘사한다. 일본 최대의 게이힌 공업지대에 발생한 수상한 구름 속에서 낙뢰가 떨어져 석유 콤비나트를 파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 보자 구름 속에서 콩기스타군단의 작렬 메카괴수 방전 렌자(放電レンザ)가 모습을 드러낸다. 방전 렌자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중유(重油)에 고온의 광선을 쬐어 화학반응을 일으키자 해수와 함께 일순간 기화하여 유독가스가 생성되었고 이 유독가스는 도시의 주민을 학살한다. 질소 산화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고온의 대기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아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생물에 유해한 화합물이 만들어져서 형성되는 광학스모그를 SF적 발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메칸더로보는 방전 렌자의 고온 광선에 걸려 위기를 겪지만 결국 방전 렌자를 파괴하고 도시는 평화를 되찾는다.

8) 野木恵一(2007)『中国と米ソの衛星迎撃実験』『軍事研究』軍事研究、42(5)、p.71.

# 기상소설(奇想小説)과 일본 SF의 성립배경

류정훈 (고려대)

한국과 일본에서 ‘과학소설’, ‘공상과학소설’로도 불리는 SF소설은 “과학적 지식과 공상적 모험담을 결합시킨 허구적 서사양식”<sup>1)</sup>으로 정의된다. 혹은 “미래의 과학적 발견에서 생기는 인간의 드라마, 전쟁, 모험을 다룬 소설”이라는 종래의 정의와는 별개로 사고실험의 문학(Speculative Fiction)이라는 요소가 짙어져 최근에는 환상문학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sup>2)</sup> 웹소설 등에서 자주 보이는 이세계물 소설도 이런 맥락에서는 SF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F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소 변화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 SF의 시작을 어느 지점으로 보아야할 지는 매우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야노 류케이(矢野龍溪)의 『우키시로 이야기(浮城物語)』(1890)와 같이 모험을 다룬 소설을 일본 SF의 원류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키시로』 이전에도 도카이 산시의 『가인의 기우』처럼 모험이나 전쟁을 다룬 소설은 존재했으나 모험과 전쟁을 과학기술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우키시로』는 일본 최초의 공상과학물의 위치를 차지한다.<sup>3)</sup> 『우키시로』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된 것은 SF라는 용어에 ‘과학’이라는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사이언스 픽션(Science Fiction)이 아니라 스펙큘라티브 픽션(Speculative Fiction)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이야기도 가능하다.

SF소설 작가이면서 연구가이기도 한 요코타 준야(横田順彌)는 『근대일본기상소설사 메이지편(近代日本奇想小説史 明治篇)』(2011)에서 일본 SF의 시작을 이와가키 겐슈(巖垣月洲)의 『서정쾌심편(西征快心編)』(1857)로 보았다. 요코타에 의하면 겐슈는 어린 시절부터 유학자인 아버지에게 공부를 배우면서 다양한 서적을 탐독했고 그 중에서 조루리본에 심취했다고 전해진다. 허례허식에 속박되지 않았고 명예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겐슈의 『서정쾌심편』의 내용은 아시아 침략을 획책하는 영국인들을 물리치는 우국지사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우국지사 8천명이 배를 타고 나가 서양을 정벌한다는 설정은 황당무계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이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 이루어진 성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요코타가 이 소설을 과학소설, 즉 SF로 보았을 때 근대일본SF 제 1호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요코타는 “분명 스토리에는 구체적 과학기구나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해 말하지만 집필 당시의 일본국내상황을 생각하면 저자 이와가키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9593&cid=60657&categoryId=60657>

2) 日本近代文学館(1984) 『日本近代文学大事典』 講談社

<https://japanknowledge.com/psnl/display/?lid=522102000000020>

サイエンス・フィクションの略称として、昭和四十年代初期までは「科学小説」あるいは「空想科学小説」と呼ばれてきた。「未来の科学的発見から生じる人間のドラマ、闘争、冒険をあつかった小説」(『エンサイクロペディア・ブリタニカ』)というのが従来の定義だったが、ジャンルの発展につれてだいたいスペキュレイティヴ・フィクション(思考実験の文学)としての要素が濃くなり、それとともに幻想文学への傾斜が目だっている。

3) “등장인물에 의해 고안된 각종 최신 무기와 기구, 이국적인 동남아시아의 지리학적 지식은 작품의 재미를 배가시켰고, 이러한 자연과학적 요소가 『우키시로』를 일본 최초의 공상 과학물로 위치 지워준다” 표세만(2005) 「명치 소설에서 현대 애니메이션과 만화까지 - 공상과학(SF)물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5, p.285

겻슈의 과학적 사고를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사고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서정쾌심편』을 근대일본 SF소설의 시작으로 보았다.

한편 나가야마 야스오(長山靖生)는 고이카와 하루마치(恋川春町)의 『요로코부히이키노에조시(悦巖眞蝦夷押領)』(1788)를 일본 SF의 맨앞에 두었다.<sup>4)</sup> 『요로코부히이키노에조시』는 상상 속 요시쓰네의 후일담을 고쳐 쓴 것이다. 요시쓰네가 형 요리토모와의 불화 속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요리토모와 사이가 좋았고 예조로 건너가 예조의 왕이 되어 그곳을 일본처럼 풍요롭게 한 다음 일본으로 금의환향한다는 내용이다. 과학적 지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보기 힘든 역사개변물(歷史改變物)이다. 대체역사(alternate history)가 SF의 하위장르로 인식되는 현재의 시각에서는 이 작품을 일본 SF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나가키 로분(仮名垣魯文)의 『서양 도추히자쿠리계(西洋道中膝栗毛)』(1870)는 어떠한가. 시키테이 산바의 『도카이도추히자쿠리계』의 패러디 성격이 강한 『서양 도추히자쿠리계』는 야지키타가 런던 박람회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과 모험을 골격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이란 가나가키 로분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공상으로 꾸며낸 것에 가깝다.

이상에서 예를 든 세 작품, 『서정쾌심편』, 『요로코부히이키노에조시』, 『서양 도추히자쿠리계』는 모두 계사쿠의 전통 위에 놓여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겻슈의 『서정쾌심편』은 중국을 시작으로 한 쾌심편(快心編) 서사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요로코부히이키노에조시』는 기보시라는 장르적 특성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양 도추히자쿠리계』는 말할 것도 없이 골계본이 형성한 전통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일본 SF의 시작은 근대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지식의 산물로 시작되었다기보다 에도 시대 계사쿠의 전통을 답습하면서 상상 속 외부 세계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코타가 제시한 “근대일본기상소설사”라는 체제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근대문학사의 흐름과는 별개로 하나의 지류를 형성한 일본 SF의 흐름을 요코타는 기상소설사로 규정한다.

---

4) 長山靖生(2018) 『日本SF精神史』 河出書房新社

# 일본 SF가 그리는 국가와 미래

— 고마쓰 사쿄 『일본침몰』 —

李佳呖 (高麗大)

## 1. 고마쓰 사쿄와 일본 SF소설 『일본침몰』

SF3대 거장이라 불린만큼 고마쓰 사쿄와 SF의 관계는 깊다. 사쿄가 SF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1959년 12월 하야카와 쇼보가 창간한 『SF매거진』 창간호에 실린 로버트 웨클리의 「위험의 보수」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미국식 사이언스 픽션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집필에 도전한 끝에 1961년 하야카와 쇼보 주최의 제1회 공상과학 소설 콘테스트에서 노력상에 입선한다. 1963년에는 일본 SF 작가 클럽 창설에 참가를 하고 1970년에는 국제 SF심포지엄을 주재하며 1980년 일본 SF작가 클럽회장으로서 일본 SF대상을 창설한다. 또한, 직접 제작사를 차리고 젊은 작가들을 모아 대형 SF영화를 제작하며 라이트노벨 작가와 애니메이터 등 차세대 크리에이터 육성에 힘썼다. 일본 SF계를 대표하는 SF 작가일 뿐 아니라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였던 고마쓰 사쿄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을 겪고 얼마지 않아 사망한다.

사쿄의 작품을 보기 전에 잠시 SF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거의 모든 과학소설에 통용될 수 있는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학소설은 **있을 법한 미래의 사건들을 현실감 있게 사색**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실제 세계, 과거, 현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든든한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과학적 방법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기초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거의 대부분이란 범주 대신 100% 모든 과학소설에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래’라는 단어 하나로 밖에 집약할 수 없다.<sup>1)</sup>

위의 정의에서 지적하듯이 SF는 미래의 사건을 다루지만, 있을 법한, 즉 과학에 근거하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그린다. 고마쓰 사쿄의 1973년 작품 『일본침몰』의 설정은 197X년으로 집필 당시부터 근미래로 설정이 된다. 『일본침몰』에서 그려진 설정 중 실현된 미래에 대한 묘사는 신도쿄 국제공항 즉, 나리타 국제공항의 건설, 세이카 터널, 간사이 국제공항의 건설과 대형 컴퓨터의 LSI(대규모 집적 회로화) 등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은 미래 묘사는 수심 1만m 잠수정, 초음속 수송기 등이고, 픽셔널한 묘사로는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는 과학 설정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겪은 과거의 경험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일본 SF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Robert A. Heinlein, “Science Fiction: Its Nature, Faults and Virtues”, in The Science Fiction Novel, Advent, Chicago : 1969.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p.56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에 의함.

## 2. 일본의 ‘영토’ 사상

『일본침몰』의 내용은 일본 영토가 자연재해(지진)에 의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겨우 살아남은 일본인들이 난민이 되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일본 영토가 침몰되는 과정은 197X년 여름, 오가사와라제도의 작은 섬이 소멸되어 지구물리학자 다도코로 유스케 박사가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며 해저의 균열과 난도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때 이즈반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이어 교토대 지진, 제2차 관동대지진 발생 후 후지산대가 폭발하며 시코쿠침하가 시작되고, 긴키지방의 초광역진원 지진발생, 서일본이 침몰한 후 다카쓰마산의 폭발에 이어 간토와 홋카이도 침몰하며 막을 내린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에서 주권을 갖은 국민들의 공동체’로 정의된다. 일본의 영토는 태평양의 네 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37만 7973km<sup>2</sup>인데, 『일본침몰』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없어졌을 때 일본인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상상하고 있다. 『일본침몰』에 그려지는 국토를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쿄……1천2백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는 도시, 이 도쿄가——좁고, 멋있고, 놀기 좋아하는 이 남녀들이 사는——거대한 도시가 마침내…….**

비록 작지만 **길이가 2천 킬로미터요, 면적이 37만 평방킬로미터**나 된다. 3천 미터가 넘는 거봉이 여러 개 있고, 산과 숲, 들과 강, 1억 1천만의 인간과 그들의 생활 터전인 도시, 공장, 주택, 도로가 자리잡고 있다.

이 섬, 이 땅, 이 역사적 축적 위에 꽃핀 한 사회 안에서 1억 1천만이나 되는 인간들이 품고 있는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2)

위와 같은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침몰』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없어졌을 때 일본인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상상하고 있다. 『일본침몰』에서 발생한 주요 지각변동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상권에서 발생한 주요 지각 변동

2) 고마쓰 사료 『일본침몰』 이정희역, 미래사, 1992, 상권 pp.192-193.

상권에서 발생한 지각변동의 시작점이 1번 도시리마 부근 무인도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다. 먼저 이와 관련된 서술을 아래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사실 그 섬은 4, 5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영토권의 확정도 3년 전에 행해졌을 뿐입니다. 정식 명칭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섬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암초 같은 것은 일부 어민에게 알려졌겠지만 이 경우는 **항로**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주의해서 보지 않았습시다. 5, 6년 전 일본의 기상관측선이 발견했을 때, 남북1.5킬로미터, 동서 8백 미터, 최정상부높이 80미터 정도의 자그마한 섬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만 그 섬은 **총리실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영토권이 확정되고 나서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기상청과 수산청에서 이 섬을 이용해 보자는 얘기도 겨우 1년 6개월 전에야 나왔습니다. 이 곳을 무엇에 이용하든지 모르지만 주둔 미군이 이 섬을 폭격연습에 쓰게 해달라고 청원해왔고 미국 정부에서도 가능하다면 매수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sup>3)</sup>

여기에서 일본의 영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1)도쿄에서 오사카, 교토까지를 포괄하는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규슈(九州)와 몇 개의 섬을 포괄하는 범위인 소일본, (2) 메이지 유신 후 일본 땅에 강제로 편입된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지방까지를 포괄하는 중일본, (3) 괴뢰국 ‘만주국’을 건설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장,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는 대일본, (4) 패전 후 오키나와, 홋카이도 지방까지인 중일본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일본침몰』의 침몰 지역——이는 위에서 살펴본 작품 속 지각변동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다——은 대일본을 상정하는 지역에서부터 침몰이 시작되어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가 남은 중일본으로 일본의 영토는 한정된다. 이 때의 일본 영토에서는 후지산이 일본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북쪽을 향해 이어진 불길한 검은 연기 바로 그 앞에, 아랫부분은 구름에 덮이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하늘로 솟은 후지 산의 아름다운 자태**가 보였다. 온 산이 새하얀 눈으로 덮인 수려한 그 산은 아름답고 해맑은 겨울 하늘에 걸려 있었다. **지상의 무엇도, 아무리 거대한 힘도 그 자태를 더럽힐 수는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검은 연기는 일직선으로 북쪽을 향해, 그 아름답고 기개 높은 산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천길 바다 밑에 숨어 있는 불뿔은 해상으로 봐 연기와 증기와 재를 뿜어내면서 몸을 도사리고 **일본의 상징인 빼어난 산봉우리** 아래로 시시각각으로 다가갔다.<sup>4)</sup>

고마쓰는 『일본침몰』의 집필동기를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전쟁 → 본토결전(本土決戰), 일억육쇄(一億玉碎)로 **일본은 멸망했어야 하나 종전(終戰)으로 구원받았다**. 그 후 불과 20년 만에 부흥을 이뤄, 올림픽을 개최하고, 고도경제성장의 단계를 뛰어올라 엑스포. 일본은 선진국이 되었다. (중략) 일본인은 고도경제성장에 취해, 신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전쟁으로 국토를 잃고, 모두 죽을 각오를 했을 텐데, 그 비장한 기분을 잊고**, (중략) 태평하게 들뜬 **일본인을** 허구 속에서라도 **나라를 잃는 위기에 직면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쓰기 시작했다.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일본이란 무엇인가.**<sup>5)</sup>

3) 『일본침몰』 상권 p.35.

4) 고마쓰 사코 『일본침몰』 이정희역, 미래사, 1992, 하권 p.56.

나라와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인용처럼 국토의 소실이 곧 일본인의 멸망으로 그려진다.

**일본은…… 이 네 개의 섬, 자연, 산과 내, 숲과 풀과 생물, 읍과 촌, 선조가 살다 남긴 유적과 일체인 것입니다. 일본인과 일본 알프스 후지 산, 도네 강, 아시즈리꽃은 곧 일본입니다. 이 미묘한 자연이, 섬이…… 파괴되고 소실되어 버리면 이미 일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sup>6)</sup>

이러한 인용을 통해 일본이 곧 일본인을 의미하며 국토의 손실은 국가의 소멸이며 국민의 상실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인류세계와 미래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이 침몰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D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일본 열도의 지질적 대변동의 가능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D-1, 그리고 D-2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일본 민족과 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먼저 일본이라는 국가를 ‘가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 전 또는 적어도 명치까지의 일본 사회에서는 가문과 세상이라는 것이 사회의 기본단위였다. 남자는 성인이 되면 가문을 대표해 세상과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 후에는 그런 관계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중략) 지금 일본 사회 자체가 통틀어서 마이홍화되고 말았다. (중략) 일본사회가 모든 의미에서 포화화, 가정화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상은 이제 일본의 외부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예전의 가문이 되고 세계가 예전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sup>7)</sup>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가족’공동체를 인식하여 일본이라는 국가는 곧 일본인을 의미하였지만, 인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작가 고마쓰가 계획한 일본인의 이민을 정당화하는 듯한 서술로 일본 침몰을 계기로 국가가 곧 일본인이라는 공식은 깨트려 일본인을 침몰하는 일본 외부로, 세계 공동체의 일부로 편승시켜야 함을 추측케 한다. 먼저, 일본의 침몰이 개인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이하에서 확인한다.

자기 마음 속에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육친에 대한 애고이즘**이 숨어 있음을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중략) 형과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골육의 정’이란 것이 뜻밖에도 **강렬히 마음 속에 살아 있음을** 깨달았다. (중략) 한 마디, 단 한마디라도 알려줄까. ‘피해, 형! 일본은 이제 틀러’라고.<sup>8)</sup>

5) 小松左京 『小松左京自伝—実存を求めて』 日本経済 新聞出版社, 2008, pp.76-77.

6) 『일본침몰』 하권 pp.270-271.

7) 『일본침몰』 상권 pp.169-170.

8) 『일본침몰』 하권 pp.90-91.

일본침몰은 또한 개인을 국가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답이라는 표현을 듣고 유키나가는 빙긋이 웃었다. 그런 사고방식이 꼭 **전후 태생 청년**다웠다.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나라와 겨레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어둡고 끈끈한 숙명적인 유대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혜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감정 역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무한정한 책임이나 운명 공동체라는 숙명적인 유대감을 갖는다는 표현은 아니다. 그것은 극히 **드라이하고 경우가 밝아 신세만 같으면 언제라도 자유로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

이러한 예문을 통해 일본침몰은 국가 공동체라는 인식이 소멸되는 계기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은 피부 색깔이나 용모의 차이와 같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개인차나 집단차 정도로 의식한다. 이들은 일본이 아니면 살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 어디를 가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살아간다는 것이 특정 사회에서의 입신출세라는 아집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기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실패나 낙오로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비참해지는 일이 없다. (중략) 새로운 유형의 인간”**10)으로 그려지며 앞에서 살펴본 국토관에 기초한 국토=국민, 즉 일본=일본인의 공식을 벗어나 개인의 존재가 강조되며 이러한 개인의 ‘가족’ 공동체의식이 국가와 직결되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

---

9) 위의 책, p.126.

10) 위의 책, p.127.



# ‘이토 게이카쿠 이후’와 SF패러디

— 토비 히로타카 『자생의 꿈』 —

이상혁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1. 서론

일본의 SF잡지 『SF매거진』의 2011년 7월호는 ‘이토 게이카쿠 이후’라는 특집을 다룬다. 이토 게이카쿠는 『학살기관』, 『하모니』 등을 남긴 채 2009년 3월 요절한 작가로 유작 『하모니』는 2010년도 필립 K. 딕 상을 수상한다. 이에 대해 오카와다 아키라는 일본 SF사상 처음으로 해외, 영어권의 유명한 SF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설명하며 “현대SF의 새로운 출발점”(『SF매거진』 2011년 7월호, 27쪽)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라고 절찬한다.

오카와다가 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란 무엇일까. 이는 ‘주체’로서, ‘근대적 자아’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이자, 오카와다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시대의 ‘실존’”(앞의 책, 28쪽)에 대한 모색이다. 그렇다면 이 ‘실존’의 조건은 무엇인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본 발표에서는 ‘패러디’와 ‘문자’에 초점을 맞춰 토비 히로타카(飛浩陸)의 「자생의 꿈(自生の夢)」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간행되어 동명의 단편집 『자생의 꿈』은 제38회 일본SF대상 수상작이고, 표제작인 「자생의 꿈」은 2009년말에 발표되어 제41회 성운상 일본단편부분을 수상, 영역되어 2013년 Science Fiction and Fantasy Translation Awards의 Short Form 부분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토비 히로타카 스스로 이 작품을 2010년대의 간판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품의 수상 내역이 아니라, 이 작품이 몇몇 작품으로부터 모티프를 얻고 있는 동시에 더 나아가 패러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토 게이카쿠에 대한 패러디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발표에서는 토비 히로타카의 「자생의 꿈」에서 보이는 이토 게이카쿠에 대한 패러디 혹은 그 패러디로서의 ‘문자’에 대해 분석하며, ‘이토 게이카쿠 이후’의 ‘실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이토 게이카쿠에 대한 패러디

토비 히로타카는 성운상 수상 소감에서 미즈미 료의 『마인드 이터』, 빅토르 에리세의 영화 『꿀벌들의 속삭임』, 그리고 이토 게이카쿠의 『하모니』로부터 착상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더불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마지카(忌字禍)’라는 단어(이자 일종의 AI)를 보면, 나카지마 아쓰시의 『모지카(文字禍)』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 렌이 지적하듯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골든베르그 변주곡은 엔조 도의 「Goldberg Invariant」를, 연쇄살인범 주인공인 마미야 준도(間宮潤堂)를 인터뷰하는 내용 전개는 『양들의 침묵』을 연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빅토르 에리세의 영화와도 직접적으

로 겹치지만 동시에 이토 게이카쿠·엔조 도의 『죽은 자의 제국』을 연상시키고, 마미야 준도의 자살 장면은 미시마 유키오의 자살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말·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토 게이카쿠의 작품들은 (이전 논문에서 분석했듯이) 주체가 성립할 수 없는, 문자와 문학이 성립할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다시 주체와 문자와 문학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학적 고민 및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비 히로타카의 「자생의 꿈」은 그 착상이나 모티프를 어디서 따왔는가를 넘어, 여러 작품들의 패러디를 통해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결국 ‘패러디’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소설의 방법』에서 오에 겐자부로도 다양한 패러디의 시도가 독자의 상상력을 계속 활성화시켜 기본적인 틀이 고정화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종의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패러디는 이 정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물론 여전히 이 설명은 유효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작품들(기호들!)이 차용되어 오는 것에서는 오에가 말하는 ‘낯설게 하기’의 효과보다는 그 자체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기호들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1세기의 패러디는 ‘차연’이라는 개념과 겹쳐지고, 아즈마 히로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그 작품들은 공통적 데이터(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 이용되고 소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으로서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실존’적 조건이다.

### 3. 내부/외부, 내용/말(언어, 형식), 혹은 ‘고유명사’

이 이야기는 -원래 이것이 이야기인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접어두고- 저명한 작가이자 살인자였던 마미야 준도와와 긴 인터뷰 기록이다. 그 전문을 올리지 못한다는 점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인터뷰는 정연한 문자를 늘어세우는 방법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이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인터뷰가 아니었다. 인터뷰이-마미야 준도는 대화가 30년도 넘은 이전에 사라졌고, 인터뷰어 즉 ‘나(ぼく)’와 ‘저(わたし)’도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이 아니다. (151쪽)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와 ‘저’는 ‘일인칭의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에 임시적으로 할당된 고유명사라는 의미에 가깝다. ‘나’를 주어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일인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라는 글자 위의 고유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염두해두기를 바란다. / 무의식 중에 일인칭으로 읽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별 지장은 없다. ‘나’에게는 남성의 목소리를, ‘저’에게는 여성의 목소리를 붙여도 상관없다. 그것도 예상했던 범위 내이다. (151-152쪽)

이 인용에서는 문자와 언어가 내용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마미야 준도와의 인터뷰는 문자를 통해 기록할 수 없는 것이자, ‘이야기’라고 했지만 애초부터 이것이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나’와 ‘저’라는 단어는 일인칭 주어로서 사용되지만 그것이 ‘나’라는 존

1) 두 단어의 성별적 차이를 한국어로 표현하기 힘들어 일단 각각 ‘나’와 ‘저’로 기술했다. 인터뷰어가 주어의 차이에 의해 존댓말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한다는 점에서 일단 이렇게 번역하였다.

재를 보증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나’라는 글자 위의 고유명사>일 뿐이다. ‘나’라는 글자-언어는 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고유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라는 글자-언어를 고유명(사)으로 여기고 ‘나’에게 남성을, ‘저’에게 여성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고유명으로서의 주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말-언어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 주어에 어떤 “목소리를 붙여도 상관없”고, 이미 그건 “예상했던 범위 내”의 것이다.

말-언어라는 형식(외부적인 것)이 그 내용(내부적인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 내에서 ‘스크린’을 통해 바깥 현실과 스크린 안의 가상-픽션이라는 경계선을 언급하고, 그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언급과 연결되며, 이는 다시 현실/가상의 경계선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자-언어라는 형식과 그 내용의 경계선,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사라진 시대. 이미 죽어버린 마미야 준도는 이마지카라는 AI에 의해 ‘쓰여진’ 가상세계를 통해 부활하지만, 마미야 준도는 자신마저 만들어낸 그 세계를 뒤집는다. 이 소설은 일종의 ‘호접지몽’과 같은 형식 속에서 억압적 세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요지문에서는 이 정도의 간단한 언급만 해두고, 발표를 통해 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繋創」つながり、つくる日本語教育

— J-POPを通じた日本語教育の一例 —

検校裕朗(極東大)

## 1. はじめに

新しい日本語教育の更なる発展が望まれ、それを研究面からも深めていく必要性から、筆者は2021年9月の韓国日本語学会国際学術大会の時に「AIと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研究会(AI-CL)」を創立し、同時に韓国日本語学会ともMOUを締結した。

本発表では、学会会長経験者として安住するのではなく、単なる日本語教育の一実践者として、初心を忘れず、挑戦した筆者の一つの実践を報告し、謙虚に先生方の教を乞いたい。

## 2. 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

筆者が目指す『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は、2019年に日本で出版された『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創造社会の学びと教育』(慶應義塾大学出版会)の編著者である慶應義塾大学総合政策学部教授・井庭崇氏による新しい教育概念の影響を大きく受けている。井庭氏は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全体を提唱しており、外国語教育に応用する試みについて具体的な言及はないが、筆者は2020年の「日本語教育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主題: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日本語教育)でのパネリストとしての参加を契機に、井庭氏とやり取りし「外国語(日本語)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ことにした。2021年「AIと日本語教育国際シンポジウム」(主題: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AIと日本語教育)で、筆者が行った講演「韓国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AIと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と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を通して、この分野の研究の必要性和重要性を更に痛感した。

井庭氏は、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創造的な学び)とは、「つくることで学ぶ」という新しい学びのスタイルであるとする。「自ら知識を構成する」学習観は、「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や「プロジェクト型学習」「探究学習」のように、学び手自身による活動がベースとなるが、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は、何かを「つくる」ことをより一層重視する。そして、これからの学校は、創造的に学ぶための「つくる」経験を積む場となり、教師は、生徒が「つくる」ことを支援するだけでなく、一緒に問題に挑戦し、一緒につくることに取り組む仲間である「ジェネレーター」となる必要が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

「序章 構成主義の学びと創造—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入門」では、「デューイの「経験の連続性」と「経験の再構成」等について述べられている。プラグマティズムの教育哲学者であるジョン・デューイは「教育者は他のどのような職業人よりも、遠い将来を見定めることにかかわっている」と述べた。

筆者の学部時代の恩師は、日本イギリス理想主義学会会長、日本道德教育学会会長代行、日本デューイ学会常任理事等を歴任した行安茂氏である。行安茂(2018)『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理論と実践』では、

デューイが「なすことによって学ぶこと」(Learning by Doing)の主張者であったことを想起しながら、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先駆者であ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とし、デューイの哲学から現代の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に通じる理論を読み解いている。

井庭氏は、教わる時代から、話す時代、そして、創る時代になり、今後さらに創ることを通して学ぶ時代になると主張する。それはまさに「Learning by Creating」であり、「Learning through Creating」であり、つくることは変わること、学ぶこと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そこでは、学生が「無我の創造」の経験をするのが大切であり、パターンランゲージの活用が重要であり、創造的読書(クリエイティブ・リーディング)の推進も求められ、創造社会における人々の創造実践の支援が肝要になってくるとしている。

更に、井庭氏は、創造社会について、ヴィゴツキーの言説を引用しながら、次のようにまとめている。

「想像は詩に求められるのと同じように幾何学にも求められる。現実の創造的改造を求めるすべてのものに、新しいものの発明や建設に関わるすべてのものに、常に空想の参加が不可欠である。」「人間の生活は、絶えざる創造である。」「食事と睡眠、愛と遊び、労働と政治、すべての感情、すべての思想が、創造の対象である。今日、狭い芸術分野で行われていることが、将来は全生活に浸透し、生活が創造的労働となる。」とのヴィゴツキーの言葉の様に、創造社会とは、このように、あらゆる領域・活動で「創造」が起きるのであり、ちょうどそれは、情報社会においてあらゆる領域・活動で「情報化」が行われたのと同様である。

### 3. 創造の7つの原理

創造の第一の原理は、つくり手の意図・作為によるコントロールを手放す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ような創造では、いまつくりつつあるものに固有の内的な論理によってかたちづくられるのであり、つくり手は自由にそのかたちを決めているわけではない。つくり手は、つくりつつあるものの内的な論理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この感覚について、実際に、様々な分野の作家や芸術家が語っている。例えば、村上春樹は、自らの創作について、次のように語っている。

「本を書き始めるとき、僕の中には何のプランもありません。ただ物語がやってくるのをじっと待ち受けているだけです。それがどのような物語であるのか、そこで何が起ころうとしているのか、僕が意図して選択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物語が何を求めているのかを聴き取るのが僕の仕事です。」

日常的な感覚では、「つくる」ということは、つくり手が「こうしたい」という思いや、「こうしよう」という頭のなかの青写真や設計図にもとづいて、手を動かし、それを外部に表現することだと捉えられることが多い。しかし、ここで語られている創造は、つくり手の作為によるのではなく、作品に引っ張られて進んでいくようなつくり手像である。

このように、意識的な意図や作為によるコントロールを手放し、無我(egoless)な状態で「つくる」ということを、井庭氏は「無我の創造」(egoless creation)と呼ぶ。以下、7つの原理は、2. 生成と分化(植物が絶えず一つの全体として育つように、つくっているものが育つことを支援する。)3. 内側から感じる(つくっている対象になりきって感じる。)4. 冒険的創造(先が見えないなかで探索的に進んでいく。)5. あるべきかたち(創造の制約・ルールを手掛かりに、パズルのピースをはめてつめていく。)6. 発掘したものを磨き上げる(深く埋もれていた状態から掘り起こしたものの良さが出るように、徹底的に手直しをして美しい状態に整える。)7. つくることで生きる(つくるのが生きることそのものに重なり、生きることの本質となるように、自分の人生を生きる。)となっており、こ

の7つの原理が重要である。〈井庭崇(2019)〉

AIと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という新しい概念を導入した外国語教育の1つである日本語教育を創造することは大変興味深い。日本語母語話者ではない外国の文化的背景を持っている学生たちが、日本語を通して新しいものを創造していく時に、既成のものとは違う新しい価値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

筆者は、外国語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と日本語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提唱して、努力している。〈検校裕朗(2020)〉

## 4. J-POPを通じた日本語教育

内容中心の日本語教育が行われ、歌やJ-POPを使った日本語教育は多くの現場で行われて来た。筆者の所属学科もコンテンツ学科に改編したことから、一層、コンテンツ重視の方向に動いている。筆者自身の過去の実践は検校裕朗(2012,2014)にまとめられているが、歌が好きだという個人的な趣向と共に、大学時代の全日本学生クラシックギターコンクール団体優勝やEBS日本語進行者としての6か月間の全国放送での歌唱などの経験が後押し、音楽、歌を使った日本語教育に再挑戦することにした。

## 5. 繋創

筆者は、韓国日語教育学会第11代会長時代、一貫して「繋がりの日本語教育」を標榜したが、任期が終わり、一会員に戻った後も、「繋がり」を基盤に据えた研究会を創立した。21世紀のキー漢字は「繋」の文字だと主張し、研究会の内外では一連の「繋がる活動、繋げる活動」を「繋活(つなかつ)」と呼び、マッチング等を通して交流学習の拡大に貢献している。小さな次元に留まらず、個人から社会、世界に至るまで「繋活」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いる。

一方、いっしょに創ることを「共創」と表し、意識は共有しているが、それを更に深めた概念を意識しており、数学のベクトルの様に、始点と終点、方向と大きさ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る。日本語教育で言えば、誰が誰に発信し、受信し、どういう意図で、どの程度の強弱で意思の疎通が行われているか、更に、2者間を超えて、3者以上の場合には様相が異なってくる。このように主体と対象と様相等を意識することで、「関係性の構築」という目標がより明確に意識化されてくる。それを筆者は「繋創」という言葉で表している。

## 6. 実践の一例

### 6.1. クリエイティブ・リモート合唱動画制作プロジェクト

教養科目「歌で学ぶ日本語」

日本の歌を通して、日本語を学ぶことだけに留まらず、日本人の文化、情緒、意識、日本の社会、歴史、政治、経済など日本を学ぶ総合科目とした。

教師の生歌とギターでの弾き語り(感動して涙する学生)も含め、発音指導、歌唱指導も行った。最後に、全

員でリモート合唱動画制作プロジェクトを行い、発表会后、共有。

## 7. おわりに

外国語教育における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日本語教育における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もまだ、草創期の段階にあり、更なる実践と研究が望まれるところである。

「つくることによる学び」(Learning by Creating)、「つくるなかでの学び」(Learning through Creating)を軸とした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の世界では、学校は創造を体験する機会を提供する「つくる」場となり、教師は創造実践をともに行う「ジェネレーター」(生成者)という創造実践を共にを行い、援助する新しい教師像が求められる。「つくる」対象は、社会のありとあらゆるものであり、自分の未来も自身でつくるものである。これらの延長上にあるのが「創造社会」である。これからは、様々な問題や未来をクリティカルに読み解き、各人が創造的に思考・行動することを通して、多様な形態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作る行動実践を通して、課題を解決し、未来を創っていく時代になることが求められるのである。

更に、筆者が提示した「繋創」という概念も「独創」や「共創」を超えて、「繋がって創る」「繋げて創る」という関係性の構築を目標に据えた外国語教育の更なる発展を視野に含んでいる。

今後も、外国語教育と日本語教育への応用・発展につながることを切に願い、一步一步、模索しながら実践と研究を推進していきたい。

## <参考文献>

- 井庭崇(2019)『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創造社会の学びと教育』慶應義塾大学出版会
- \_\_\_\_\_(2021)「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創造社会の学びと教育」『韓国日本語学会 第43・44回国際学術発表大会論文集』韓国日本語学会, pp.166-171
- 檢校裕朗(2012)「EBSラジオ教育放送を通じた日本語教育—2007-2012放送出演における日本語講座を中心にして—」『韓国日本語学会 第25回 国際学術発表会 論文集』韓国日本語学会
- \_\_\_\_\_(2014)「EBS教育放送を通じた日本語教育—2007-2012放送進行を中心にして—」『2014年度 第20回 韓日言語日文学会 定期学術発表大会 論文集』韓日言語日文学会
- \_\_\_\_\_(2020)「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日本語教育について」『2020年度台湾日本語教育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日本語教育』台湾日本語教育学会
- \_\_\_\_\_(2021a)「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成果と今後の展望—韓国日語教育学会(KAJE)(20周年期:2019~20年)における会長経験者のナラティブ分析をもとに—」『日本語教育研究』第54輯、韓国日語教育学会, pp.39-56
- \_\_\_\_\_(2021b)「韓国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AIと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2021年 AIと日本語教育 国際シンポジウム—クリエイティブ・ラーニングを目指す AIと日本語教育—』招待講演、台湾日本語教育学会, pp.35-44
- 見崎鉄(2018)『尾崎豊の歌詞論』アルファベータブックス
- 行安茂(2018)『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理論と実践』北樹出版
- ZARD(2020)『ZARD 坂井泉水 ~forever you~』ミュージックフリークマガジン

# 機械翻訳にみられる日本語の誤用

齊藤明美(翰林大)・齊藤良子(国士舘大学)

## 1. はじめに

日本語作文を書く際に日本語学習歴の長短、有無に関わらず、多くの学生が翻訳アプリを使用していることが齊藤明美・齊藤良子(2023)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た。しかし、翻訳アプリ使用による課題への影響については言及できなかった。そこで本発表では、機械翻訳を用いることによって生じる日本語作文の誤用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齊藤明美・齊藤良子(2023)と同一の調査対象者が書いた日本語作文にみられる誤用例を抽出し、その誤用が多くの学生が用いている機械翻訳にもみられるかどうかをみていく。本研究は、小田(2019)にある「機械翻訳と共存する語学教育」の実践をしていくうえでも役に立つと思われる。

## 2. 先行研究

齊藤明美・齊藤良子(2023)は、韓国の大学生の日本語学習歴と翻訳アプリについて学会で発表した<sup>2)</sup>ものであり、発表の内容は韓国のA大学で2022年に遠隔授業の形式で実施された教養科目の課題として300字程度の韓国語と日本語の両言語で大学生が書いた「私の日本語学習歴と翻訳アプリ使用について」という題目の日本語作文をもとに、学生が日本語の作文を書く際に、どの程度翻訳アプリを使用しているのか、また、翻訳アプリ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るのか、といった点についてまとめたものである。調査の結果、「学生の日本語学習歴の長短、有無に関わらず、作文に翻訳アプリの使用に関する記述がみられた学生全員が翻訳アプリを使用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して、「日本語学習歴の長短、有無に関わらず、使用法を工夫している学生が少なからずいた」こともわかった。さらに、「日本語関連学科専攻者のように日本語に対する知識がある程度ある学生ほど翻訳アプリ使用に関して、具体的な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把握したうえで使用方法を検討し意識的に自らの日本語能力の向上に役立てようとしている」ことも指摘している。また、関口(2022)は、「ビジネス中国語講読ⅠⅡ」の授業において、授業の前に学生に中国語の翻訳文を提出させ、翻訳文の中に見られる共通した誤訳が次第に増加したことによって、誤訳の原因は学生が使用している翻訳ソフトにあると考えて翻訳ソフトの誤訳と学生の誤訳を比較しようとした研究である。そして、小田(2019)は、「日本の外国語教育に対する機械翻訳の影響に関するこれまでの動向を調査すると同時に、機械翻訳と共存する外国語学習活動の具体案を提示した」ものであり、「機械翻訳と共存できる学習活動とは何かを多くの外国語教員が具体的に考え始めるべき時期である」という提言をしている。また、李朱利愛(2023)は、韓日機械翻訳における翻訳テクニックに関する現状について分析し報告している。

以上の先行研究により、多くの韓国の大学生が日本語学習歴に関わらず翻訳アプリを使用しており、使用の

1) ここでは「翻訳アプリ」としたが、アプリだけでなく翻訳サイトや翻訳ソフトも含む機械翻訳を指す。

2) 齊藤明美・齊藤良子(2023)「韓国の大学生の日本語学習歴と翻訳アプリ使用について」韓国日本語文化学会2023年度春季韓中日国際学術大会



仕方や翻訳アプリに対する認識の仕方は学習歴と何らかの関連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また、中国語学習者が翻訳アプリ使用による誤訳をそのまま課題として提出したり、機械翻訳使用の現状を語学教員も理解し、機械翻訳をすることを前提とした教育を進めていく重要性についても考慮すべき時期にきていることも明らかにされた。さらに、韓日機械翻訳における翻訳テクニックの現状についても分析され、今後のポストエディットや翻訳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の研究も進んでいる。

### 3. 調査の概要と調査方法

#### 3.1 調査の概要

ここでは本研究で実施した調査に関する、調査対象授業、授業形式、調査対象者数、調査対象者の所属と人数について述べる。

第一に、調査の対象とした授業は、2022年9月から12月に韓国のA大学で開講された科目であり、母語である韓国語および目標言語である日本語による「レポートの書き方」と就職に役立つ「ビジネス文書の書き方」「ビジネスメールの書き方」等について学習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科目であった。本授業の形式は、担当教員が対面で1週間に50分授業を3回実施する代わりに、大学の教育支援サイトに50分間かけて学習する動画を3つあげ、学生は決められた期間内に動画を視聴しながら学習し、課題を大学の教育支援サイトに提出するものであった。担当教員は日本語母語話者であったが、動画は韓国語母語話者と共同で作成したものであったため、日本語に自信のない学生も受講することができた。

第二に調査対象とした授業の受講者数は107名であったが、調査対象とした課題の未提出者12名、留学生4名を除く91名を調査対象者とした。なお、本科目は教養科目であったため、学生の所属は表1からもわかるように多岐に渡っている。

<表1> 調査対象者の所属と人数

( )内の数字は人数を示す。受講生の多い順に記述し、同数の場合は順不同である。

経営学部(12)	看護学科(9)	日本学科(8)	社会福祉学科(6)	デジタルメディアコンテンツ(5)	スマートIoT専攻(5)
医学部(4)	法学科(4)	ソフトウェア学部(4)	中国学科(4)	ビッグデータ専攻(3)	金融財務学科(3)
食品栄養学科(3)	英語英文学科(2)	社会学科(2)	政治行政学科(2)	広告宣伝学科(2)	言語聴覚学部(2)
人文学部(1)	化学科(1)	生命科学科(1)	メディアスクール(1)	体育学科(1)	聴覚学専攻(1)
AIロボット融合専攻(1)	データサイエンス学科(1)	データテク専攻(1)	バイオメディカル学科(1)	放送融合メディア(1)	

#### 3.2 調査対象とした課題と調査方法

本研究では、「将来の夢」というテーマで、母語である韓国語と目標言語である日本語の両言語で300字程度ずつ同じ内容で作文を書き、動画が公開された11月28日から課題の締め切りである12月4日の間に大学の教育支援サイトに提出するように指示した。

調査を実施した授業では、本課題に限らず翻訳アプリの使用の禁止または許容については言及しなかつ

た。そのため翻訳アプリの使用は学生自身の判断に委ねられるものであった。

## 4. 調査結果

ここでは学生の作文にみられた誤用例を示す。なお、韓国語の用例を(韓)とし、日本語の誤用例を含む例文を(誤)とし、修正した日本語の例文を(正)とした。そして、誤用部分と修正した部分に下線を引いた。なお、ここでは、学生が書いた日本語作文にみられる誤用例を調査し、作文を作成した時点でA大学の多くの学生が使用していたPapago<sup>3)</sup>(以下P翻訳と表記する)、Google翻訳<sup>4)</sup>(以下G翻訳と表記する)等の翻訳アプリも確認しながら学生の日本語作文の誤用に与えた影響の有無についても言及する。このようにすることによって、学生の作文にみられる誤用例が翻訳アプリの影響を受けているか否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からである。なお、韓国語の誤用例の末尾にある(1-2)のような数字は作文の整理番号を示している。

### 助詞に「の」に関する誤用例

#### ①韓国語「장래희망」の日本語訳について

(韓) 저의 장래희망은 식품 회사 “농심”에 입사하여 마케팅부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4)

(誤) 私の将来希望は食品会社「農心」に入社してマーケティング部署に入ることです。

(正) 私の将来の希望は食品会社「農心」に入社してマーケティング部署に入ることです。

これは、韓国語には「의」はないが、日本語では格助詞の「の」が必要な場合の誤用例であるが、韓国語では、「장래희망」といえるが、日本語では、「将来の希望」というように、助詞「の」を入れた方が自然な日本語になると思われる<sup>5)</sup>。

また、韓国語の用例全体をP翻訳とG翻訳で検索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P) 私の将来希望は食品会社「農心」に入社してマーケティング部署に入ることです。

(G) 私の将来の希望は、食品会社「農心」に入社してマーケティング部門に入ることです。

これをみるとP翻訳では「将来希望」とあり、G翻訳では「将来の希望」とあることがわかる。G翻訳では「の」があり、自然な日本語訳になっている。これにより、学生が書いた日本語作文の誤用例は、韓国語の「장래희망」を日本語に直訳したために起きた誤用であるか、あるいはP翻訳を参考にしたために誤用が生じた可能性もあると思われる。なお、ここにあげた誤用例と同じ誤用が他10名にもみられた。ただし、日本語関連学科の学生が書いた作文にはみられなかった。これは日本語関連学科の学生は「将来」と「希望」の間に、助詞「の」が必要

3) Papagoは、韓国のネイバーが提供している翻訳サイトおよび翻訳アプリのことである。A大学の学生の多くが使用している。

4) Google翻訳はGoogleが提供する翻訳サイト、翻訳アプリのことである。Papago同様にA大学の学生の多くが使用している。

5) 日本語の格助詞「の」は前の語句の内容を後の体言に付け加え、その体言の内容を限定する。その場合、「場所を示す。時を示す。位置、方角を示す。向かっていく時・所を示す。対象を示す。所有者を示す。所属を示す。同格の関係であることを示す。原料、材料を示す。資格や置かれた状態、状況を示す。固有名詞による限定。思い浮かぶものを示す。体言・形容詞語幹・副詞・句などの属性を持つことを示す。形式名詞に先立ってその実質・内容を示す。比喩を示す。」場合がある。(広辞苑)この場合は、「将来」という向かっていく時を示す「の」であると思われる。

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いたためであると思われる。

次に同じく「の」が無いために不自然な日本語になっている誤用例をあげておく。

②韓国語「현재 학과」の日本語訳について

(韓) 기계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현재 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6-5)

(誤) 機械をデザインして作る職業に持ちたくて(ママ)、現在学科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正) 機械をデザインして作る職業に就きたくて現在の学科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P) 機械をデザインして作る職業が欲しかったので、現在学科に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

(G) 機械をデザインして作る職業に就きたくて現在学科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こにあげた用例をみると、学生が書いた作文では「現在学科」となっており、やはり不自然に感じられる日本語になっている。「現在の学科」というように、助詞「の」があった方が自然な日本語になると思われるが、P翻訳においてもG翻訳においても「現在学科」と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以上により、どちらの翻訳アプリの日本語も正しいとは言いがたい。

なお、ここまでにあげた用例以外の誤用例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みられた。

<表2> 日本語の助詞「の」を省略したために生じた誤用例

整理番号	韓国語	誤用例	修正例	P翻訳	G翻訳
③ 7-5	회화 실력	会話実力	会話の実力	会話の実力	絵画のスキル
④ 8-2	과학 선생님	科学先生	科学の先生	科学の先生	科学の先生
⑤10-1	전공 공부	専攻勉強	専攻の勉強	専攻勉強	専攻勉強

表2<sup>6)</sup>をみると、③の韓国語「회화 실력」に関しては、P翻訳では「会話の実力」となっており、助詞「の」が記述されていた。一方、G翻訳では「絵画のスキル」となっており、助詞「の」は書かれていたが、「회화」が「絵画」となっていた。これは、「회화」には「会話」と「絵画」の両方の意味があるために生じた違いであるといえる。次に④の韓国語「과학 선생님」に関しては、P翻訳もG翻訳も「科学の先生」としており、どちらも自然な日本語訳であった。また、⑤の韓国語「전공 공부」に関しては、P翻訳もG翻訳もともに「専攻勉強」と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以上のように、もともと韓国語に「의」が記述されていない状態で韓国語の日本語訳をするので翻訳アプリによって日本語訳が異なっても仕方のないことだとも思われる。しかし、韓国語と日本語の「의」と「の」の使い方の違いについて学習者が正しく理解していれば誤用は生じないと思われる。

## 5. まとめ

本発表は、機械翻訳にみられる日本語の誤用に関する研究である。ここでは紙幅の都合上、日本語の助詞「の」を省略したために不自然な日本語になってしまった誤用例5例について言及したが、大学生がよく使用し

6) 表1の③～⑤のP翻訳とG翻訳に関しては2023年7月31日に検索した結果を示している。

ているP翻訳とG翻訳の翻訳アプリで検索したところ、日本語の助詞「の」を入れて翻訳している場合と入れないで翻訳している場合があり、必ずしも正しく翻訳されていない場合も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翻訳アプリには、助詞「の」の有無以外の問題もあることもわかった。

そして、韓国の大学生が書いた作文には、「の」以外の日本語の助詞にみられる誤用例や名詞、形容詞、動詞、形容動詞、副詞、文体の統一、文の呼応等に関する多くの誤用例がみられたがここでは紙幅の都合上触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さらに、日本語学習者の学習歴と誤用例の関連についても今後詳細な調査を続け、明らかに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る。

## <参考文献>

李朱利愛(2023)「韓日機械翻訳における翻訳テクニック」『韓国日本語文化学会2023年度春季韓中日国際学術大会発表論文集』 pp.38-41

小田登志子(2019)「機会翻訳と共存する外国語学習活動とは」『人文自然科学論集』145東京経済大学人文自然科学研究会 pp.3-27

関口美幸(2022)「2021年度前期における中文日訳授業での翻訳ソフトの誤訳と学生の誤訳の比較」

『Takushoku language studies 146』pp.273-305

齊藤明美・齊藤良子(2023)「韓国の大学生の日本語学習歴と翻訳アプリ使用について」『韓国日本語文化学会2023年度 春季韓中日国際学術大会発表論文集』 pp.19-23

Google. (n.d.). Google 翻訳. <https://translate.google.com/?hl=ja> (閲覧日: 2023年7月30日)

NAVER. (n.d.). Papago. <https://papago.naver.com/> (閲覧日: 2023年7月30日)

# 근대 일본 교과서 고찰

— 독본과 이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

高有眞 (祥明大 韓日文化研究所 研究員)

## 1. 일본의 근대교육과 독본의 탄생

일본에 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처음으로 문부성이 설치된 1871년 이전에는 학교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문부성이 설치되고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의 근대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872년에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한 학제<sup>1)</sup>가 공포됨에 따라 전국에 소, 중, 대학교로 분류되는 교육기관이 설치되었으나, 그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적당한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초등교육 교재인 ‘Willson’s Reader’를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79년에 학제 폐지와 더불어 ‘교육령’이 공포되면서 지방의 교육권한이 강화되었고, 기존에 학제에 따른 구도에도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파장으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듬해인 1880년에 ‘개정교육령’이 반포되기에 이른다.<sup>2)</sup> 1886년 제 1차 소학교령의 공포 이후로 소학교의 구조는 다시금 변화를 맞이한다. 소학교를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나누어, 각각 4년씩 총 8년 과정의 초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시기에 문부성에서 발간한 공식 교과서는 독본(読本)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 2. 일본의 근대 교과 속 이과(理科)의 출현

과학교육은 1872년에 공포된 학제하의 소학교칙(小學校則)중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거기에는 과학과 관계된 교과명으로 궁리(窮理)학 윤강(輪講)<sup>3)</sup>, ‘박물(博物)’ ‘화학(化学)’ ‘생리(生理)’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1886년에 발표된 소학교령(小學校令) 하의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小學校の学科及 びその程度) 중에 ‘이과(理科)’라는 새로운 교과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세분화되고 학문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던 교과명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또한 교과명의 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업시수도 대폭 감소한다.

1) 이에 따라 8대학구로 나누고 각 대학구를 32중학구, 각 중학구를 310소학구로 나누어 각각의 대중소학구에 하나의 대중소학교를 두고, 전국에 대학교 8, 중학교 256, 소학교 53,670 교를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인구 600명당 소학교 1개교, 인구 13만 당 중학교 1개교를 두는 셈으로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성윤아(2016)

2) 성윤아 외 『고등소학독본』, 서울: 경진출판, 2015, pp.4-5.

3) 궁리(窮理)학은 물리(物理)학과 동일개념으로 쓰임. 윤강(輪講)은 하나의 서적을 여러명이 순번을 정해 강의하는 방식이다.

〈표 1〉 ‘소학교칙’ 하 ‘소학교 교칙강령’의 자연과학 관련 과목(물리, 화학)과 ‘소학교령’하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에 제시된 이과교육내용 비교

소학교 교칙강령(1881) <sup>4)</sup>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1886) <sup>5)</sup>
<p><b>물리</b> : 중등과정부터 배우고 물성(物性), 중량 등에서 시작해 점차 물, 공기, 열, 소리, 빛, 전기, 자기의 기초를 거쳐 범용적 물리를 수강하려면 단일 기계 및 근접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그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p>	<p><b>이과</b> : 과실, 곡물, 채소, 초목, 인체, 사육, 벌레, 물고기, 금, 은, 동, 철 등, 인생에 가장 근접한 관계가 있는 것. 해와 달, 별, 공기, 온도, 수증기(증략) 증기기계, 안경, 색, 무지개, 천칭, 자석, 전신기 등 일상 아동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의 물건</p>

이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다음에 제시한 1891년에 제정된 ‘소학교 교칙대강(小學校教則大綱)’중 제 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학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자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과는 통상의 자연물 및 현상의 관찰을 정밀하게 하고, 그 상호 및 인생에 대한 관계의 대강을 이해시키며, 더불어 자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

처음에는 주로 학교재의 지방에 있는 식물, 동물, 광물 및 자연의 현상에 대해 아동이 목격할 수 있는 사실을 수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식물, 동물의 형상, 구조 및 생활, 발육의 상태를 관찰하게 하고, 그 대요를 이해시키고, 또한 학교의 수업 연한에 따라서 더욱 식물, 동물의 상호 및 인생에 대한 관계, 통상의 물리상, 화학상의 현상, 통상 아동이 목격할 수 있는 기계, 구조, 작용 등을 이해시키고, 더불어 인체의 생리 및 위생의 대요를 수업하도록 한다.

이과에 있어서는 농업, 공업, 그 밖의 인민의 생활상에 적절한 사항을 수업하고, 특히 식물, 동물 등을 수업할 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인공물의 제법·효용 등의 개략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과를 수업하려면 실지의 관찰을 바탕으로, 혹은 표본, 모형, 도화 등을 통해 또는 간단한 시험을 실시하여 명료하게 이해시키도록 한다.

이 요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일단 과학 내지는 자연의 본연적 지식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신 생활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자연을 생활상의 공존체로서 인지하는 태도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과의 요지에서 지식적인 면이 제외된 것은 당시의 이과교육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중점을 두도록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갑자기 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1891년에 ‘소학교 교칙대강’의 ‘이과’항목 편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이르게 된다. 관보에 따르면 1891년 1월 14일에 문부성은 ‘신 법령 시행법안 심사위원’으로 4명의 위원<sup>6)</sup>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각각 문부성에서 사범학과 조사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 유학을 명받은 적이 있는 인물들로, 이중에 독일에 유학했던 무라오카 한이치(村岡範為馳)가 가져온 독일 이과교육사상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으로는 1886년 ‘소학교령’과 함께 ‘이과’가 개설되었을 무렵부터 문부성의 기본방침이 독일 모방으로 전환되며 독일식 교육학의 보급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던 상황의 영향도

4) 원문 : <https://ja.wikisource.org/wiki/小學校教則綱領>

5) 원문 : <https://ja.wikisource.org/wiki/小學校ノ学科及其程度>

6) 고등사범학교의 필두교수인 다카미네 히데오 高嶺秀夫(1854-)와 동교 교수인 노지리 세이이치(野尻精一, 1860-) 및 여자고등사범학교의 필두교수인 무라오카(1853-)와 동교 교수인 시노다 토시이에(篠田利英, 1857-)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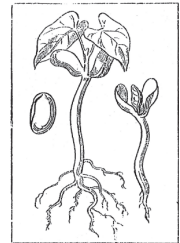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독본 속의 이과교육 제재

사실 소학교령을 바탕으로 하는 이과 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독서’과, 즉 일반적으로 ‘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교과에서 사용하는 ‘독본’에도 이과 제재가 다뤄지도록 하고 있었다. 문부성이 편찬하고 출판한 대표적인 독본은 ‘심상소학독본’과 ‘고등소학독본’이 있으며, 이 독본들은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886년 ‘소학교령’에서는 ‘이과’가 심상소학에는 개설되지 않고 고등소학이 되어야 개설되었다. 따라서 심상소학에서는 ‘독서’과의 수업으로서 이과적 제재를 통해 저학년을 위한 이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과’가 교과로서 독립 개설되어있는 고등소학교에서까지 ‘독서’과의 교재인 ‘고등소학독본’에도 상당수의 이과제재가 다뤄지고 있는 것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고등소학독본 검정판 기준 1~7과에서의 이과 관련 제재의 비율은 1권 총 37개과 중 9개(24%), 2권 총 34개 과 중 14개(41%), 3권 총 36개 과 중 13개(36%), 4권 총 36개 과 중 11개(30%), 5권 총 35개 과 중 10개(28%), 6권 총 37개 과 중 9개(24%), 7권 총 36개 과 중 8개(22%)로 평균 29%<sup>7)</sup>에 달하고 있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지 않다. 이과 제재의 종류는 식물, 동물, 광물, 생리, 자연, 천문, 물리 교과로 분류되어 나름의 세분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술방식 또한 다른 제재의 내용에 비해 ‘이과’제재만의 관찰·설명적 특징이 있다. 고등소학독본의 1권 중 24과의 ‘까치콩(菜豆)’의 일부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전략) 지금 까치콩의 씨앗에 대해 재미있는 하나의 실험을 해 보려고 한다. 여기에 하나의 접시를 두고 그 안에 젖은 이끼 또는 솜을 채운다. 그리고 거기에 까치콩의 씨앗을 뿌리고 4-5일이 지나면 그 씨앗이 처음 싹 틔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략) 그 두꺼운 것이 떨어지기 전에 까치콩은 그 뿌리를 땅에 옮겨 심어야 한다. 이것을 옮겨 심은 후 며칠이 지나면 이윽고 그 뿌리에서 머리카락과 같은 잔뿌리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작은 잎은 비로소 두 장으로 나뉘어 햇빛을 받아 점차 성장한다. 이것이 까치콩과 같은 식물의 성장 순서이다.<sup>8)</sup>



까치콩의 씨앗과 싹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독본’에 실린 내용이지만 문학적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학적인 내용의 서술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대놓고 ‘실험을 해 보려고 한다’는 서술마저 보이고 있는 점에서 ‘독본’이 문학적인 ‘국어’과의 교과서로만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과학교육은 이과 책을 읽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도입부 같은 곳에는 약간의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인물간의 대화 방식을 채용하여 읽을거리를 제공한 형태도 있으나, 주된 내용은 설명적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럼 다시 앞서 제시했던 의문점이었던 고등소학교에서는 ‘이과’라는 교과와 그에 대응하는 교재가

7)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과학자의 일화를 다룬 내용도 이과적 제재에 포함된 케이스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순수하게 과학적 관찰이나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만을 이과적 제재로 간주하였다.

8) 성윤아 외 (2015) 『고등소학독본』 1권, 경진출판, pp.85-96.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과 교재인 독본에서까지 과학관련 테마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기 위해 고등소학독본의 ‘서언’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과의 사항은 초목(草木), 조수(鳥獸) 등의 특성 및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므로, 물리, 화학의 대체를 해설한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힘, 모든 기계가 발명된 전말, 발명자의 전기 등을 기술하여 아동이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힘썼다. 또한 이과의 사항 중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 대화체로 나타냈으며, 권말에 덧붙여 기술하였다. 이는 아동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더불어 변론술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sup>9)</sup>

여기서 ‘초목(草木), 조수(鳥獸) 등의 특성 및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므로, 물리, 화학의 대체를 해설’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 외의 과학적인 내용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4. 독본과 이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독본은 ‘독서’라는 교과를 위한 교재로 ‘이과’와는 다른 과목임에도 독본의 내용에는 ‘이과’적 제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소학독본’의 이과제재를 통한 과학교육과 ‘이과’ 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독서’과는 ‘소학교령’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1886)에 따라 이전의 ‘교육령’ ‘소학교 교칙강령’(1881)에도 개설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읽는법과 작문, 즉 국어과에 가까운 성질로 인식되어 특별히 과학에 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에서는 독서과에도 이과적 제재를 포함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두 과의 경계는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과와 독서과의 차이점이라면, 독서과가 ‘이과적 제재’를 상당히 조직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이과는 독서와는 다른 영역의 과학을 다룬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이과’ 교육은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과학적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체험 및 관찰하며 과학적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와 ‘이과’의 과목이 분리된 것은 ‘이과’ 과목에 있어 오로지 실물을 바탕으로 하는 실험 및 관찰을 행하는 교과적 성격을 부여하게 되면서 경직화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과’라는 교과 탄생 그 자체보다는 ‘독서’과에서 ‘독본’을 통해 읽을거리로서 과학적인 제재를 다루게 되었다는 교육방법 면에서의 변화가 일본 근대의 과학교육사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大高泉(2001), 「明治の理科教科書と「理科」の出現」, 『筑波大学附属図書館報』, pp.4-5.

小林昭三(2011), 「明治中期「理科」教育の新実相」, 『大学の物理教育』 17, pp.20-24.

성운아(2016), 「근대 일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고찰-문부성 검정교과서 『고등소학독본』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8, pp.219-236.

甲斐雄一郎(2008), 『国語科の成立』 『東洋館出版社』, pp.166-185.

板倉聖宣(1968), 『日本理科教育史』 『仮説社』, pp.177-253.

9) 고등소학독본 1권 pp.25-27 서문에서 발췌.



辻善之助(1930), 『増訂海外交通史話』, 内外書籍株式会社, p.757.  
田中彰(2006), 『메이지 유신과 서양 문명-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81-90.  
성윤아(2015), 「해제」, 『고등소학독본』, 서울: 경진출판, pp.4-22.  
小学校則 <http://www.simoyokote.sakura.ne.jp/komonzyodokkai/syougakukyousai/syougakukyousai.html>  
小学校教則大綱 <https://ja.wikisource.org/wiki/小学校教則大綱>  
小学校ノ学科及其程度 <https://ja.wikisource.org/wiki/小学校ノ学科及其程度>  
新撰理科書 1下 訂2版 <https://dl.ndl.go.jp/pid/825935/1/1>  
近代書誌・近代画像データベース <https://base1.nijl.ac.jp/~kindai/>

# 동경대지진 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후 서울대학교가 되고 현재까지 입시지옥의 블랙홀이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가?

洪顯吉 (嘉泉大)

##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 10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으로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3개의 사립전문학교를 최초의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sup>1)</sup>,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 서울대학교보다 먼저 개교한다. 그러자 국립 서울대학교를 최고로 다음은 3개의 사립대학이라는 서열이 만들어진다. 또한 정부는 1971년 과학계열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를 만들며 포항제철은 1986년 과학계열의 최고의 사립대학인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을 설립한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서울대학교를 최고로 한 선두그룹에 합류한다.

이렇게 되자 고등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최고의 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최고의 명문고가 되는 기준이 생기고 대학입시중심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 되며 서울대학교에 가는 목적이 최고로 출세하기 위한 것이 된다. 고등학교의 이런 변화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도 영향을 주어 시험성적중심의 교육을 하게 된다.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가장 많이 들어간 학교는 경기고등학교이며 최고의 명문고가 되고 서울고와 경북고가 뒤를 잇는다. 여자의 경우도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최고가 되며 이화여고와 숙명여고가 뒤를 잇는다. 또한 사설 입시학원이 난립하게 된다. 그러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입시평준화가 시행되고 경기고를 선두로 한 고등학교 서열화는 무너진다. 대신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 많이 들어가려는 출세와 입시중심교육 및 명문고기준은 변함없이 명문고는 특수목적고로 옮긴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헌법을 기반으로 한 교육기본법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이며 입시중심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전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창의력 계발교육을 하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실제의 학교교육과 교육기본법의 학교교육이 라는 이중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중구조의 어느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를 파악하여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본연구의 의도가 있으며 본 주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근대식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 1946년 설립시 연희대학교였으나 세브란스와 통합하여 1957년 연세대학교로 바뀌어 현재에 이름.

## 2. 본 론

### 2.1 일본제국의 근대식 학교와 제국대학의 운영 및 출세를 위한 입시중심교육

1853년 7월8일 동경만 근처 우라가 만에 미국의 페리제독이 이끄는 4척의 철로 만든 검은 군함이 나타난다. 당시 목선만을 만드는 일본은 철선을 보고 서양의 과학문명이 조선이나 중국보다 앞선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조선 중심의 아시아를 벗어나 미국과 유럽의 과학문명을 받아드리기로 한다. 이를 계기로 1868년 122대 명치천황이 등극하며 서양의 과학문명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시도하는 명치유신이 시작된다. 명치천황은 무엇보다도 1872년 서양의 근대식 학교를 받아드려 학교제도를 반포하고 1889년 흥정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을 반포하며 천황이 대대로 일본제국을 통치하는 신성불가침의 신(神)임을 헌법으로 명확히 한다. 1890 교육칙어<sup>2)</sup>를 반포하여 천황 조상이 말하는 나라 통치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 부모에게 효도, 형제자매의 우애, 부부의 화목, 친구와의 믿음, 신중한 언행,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학문에 열심, 직업에 전념, 사회에 공헌, 법과 질서의 존중, 비상사태에는 용기로 진심을 다해 나라 구하기이다. 일본은 천황신이 다스리는 신의 나라, 천황부부를 어버이로 한 가족국가, 천황은 머리 국민은 몸이라는 국체사상이 확립된다. 이미 1901년 초등학교의 취학률이 91.58%<sup>3)</sup> 달한 일본 제국은 학교교육을 통해 서양의 과학지식과 천황중심의 국체사상을 확고히 세우는 화혼양재(和魂洋才)를 달성한다. 또한 천황은 1886년 국립 동경대학을 일본 최고의 국립 제국대학으로 개편하며 일본 영재의 출세 길을 만든다. 이렇게 되자 고등학교의 제국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중심교육이 시작된다. 이에 입시교육의 완화와 인재의 좀 더 넓은 등용의 길로 1897년 교토제국대학, 1907년 도후쿠제국대학, 1910년 큐슈제국대학, 1918년 홋카이도제국대학, 1931년 오사카제국대학, 1939년 나고야제국대학을 세워 확대한다. 식민지 나라인 조선의 서울에도 1924년 경성제국대학, 대만의 서울인 대북에 1929년 대북제국대학을 세워 식민지의 영재들을 흡수한다.

### 2.2 조선의 경성제국대학과 출세를 위한 입시중심교육 및 중학교의 서열화

일본제국은 처음에는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기운을 꺾어 일본인화 시키기 쉽게 하고자 무단통치<sup>4)</sup>를 단행하여 군의 헌병경찰제도로 조선인들을 억압하며 학교에서도 선생이 칼을 차고 가르친다. 조선총독부는 「전문30조 조선교육령」을 반포하고 당시 1천3백13만인의 조선인들의 수준을 일본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제의 6년제 소학교대신 3-4년제의 보통학교를 전국에 355개교를 만든다. 5년제 중학교 대신 4년제 고등보통학교 3개교, 4년제 고등여학교 대신 3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 3개교를 만든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에서 진학하는 3-4년제 전문학교 1개교 등을 만든다. 결국 조선은 일제의 이러한 차별과 억압에 항거하여 1919년 3월1일 전국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한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조선인의 대중문화 정도를 인정하며 일제와 같은 학교제도를 시행 무단통치를 바꾼다. 1922년 2월 전면 개편한 2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며, 일제처럼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한다. 실업학교도 2-4년이 되며 사범학교와 대학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문화를 심기 위해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며 무궁화나무를 없애고 사쿠라나무(벚꽃 나

2) 가토쓰치미, 나카노신노스케, 교육칙어를 읽음, 삼수사, 1984, pp.208-218.

3) 우미하라토오루, 일본사소백과15, 학교, 긴토출판사, 1979, p.32.

4)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pp.229-374 제2편 민족동화 수단으로서의 교육, 참조

무)를 심으며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의 공학을 원칙으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시도한다. 특히 조선인과 일본인은 조상이 같다는 동근동조(同根同祖)론<sup>5)</sup>을 내세운다. 동경대지진 다음해인 1924년 서울에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설립한다. 경성제국대학은 일제가 세운 9개의 제국대학 중 6번째이며 조선에는 오직 하나인 최고대학이다. 예과란 조선에는 제국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고등학교가 없어 고등보통학교 5년을 졸업한 후 예과에 들어가 2년간 공부한 후 본과에 들어가는 제도이다. 2년제 예과는 후에 3년제로 바뀐다.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세워져 1939년까지의 16년간의 합격생을 보면 입학생 전체가 2,496명, 그 가운데 66.03%인 1,648명이 일본인 학생이며 우리나라 학생은 33.97%인 848명이 된다.<sup>6)</sup> 이 통계로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에 체류 중인 일본인을 위해 만든 학교이며, 조선인은 들어가기 힘들어 입시중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 수 있다. 조선인 학생 848인을 보면 경기중학이 216인으로 압도적 1위이며 경북중학이 95인, 평양중학교이 62인, 경북중학교가 46인으로 당시 조선의 중학교들의 서열이 만들어진다. 결국 출세를 위해 경성제국대학에 가며, 그러기 위해 입시중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경성제국대학에 많이 들어간 학교가 명문중학교가 되는 기준이 형성된다.

### 2.3 미군정이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에 국공립 전문학교를 합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처럼 되고 만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9월부터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미국 군인이 3년간 통치하며, 이를 미군정이라고 한다. 미군정은 일제가 운영한 초·중학교에서 말과 글 및 역사 지리 도덕 등을 우리 교과로 바꾸고 교사를 보충하며 나머지는 일제 그대로 9월부터 운영한다. 그리고 미군정 학무국은 관리에 큰 문제였던 국공립 전문학교 9개교와 국립 경성제국대학을 통합하여 거대한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며 설치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이상 하는 신국가에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고자 힘써 왔다. 이상과 새 구상아래 우리 국가의 전 학계를 대표할만한 거대한 종합대학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sup>7)</sup> 이와 같은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계획안을 줄여 국대안이라 부르며 당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국대안은 일본 교수들이 물리가 부족한 교수를 서로 도울 수 있고 막대한 재정을 절약 할 수 있는 계획이기에 적극 추진 1946년 10월 국립 서울대학교를 개교한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10개의 단과대학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문리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문과계통과 이공학부의 이과 계통의 통합 /법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법과계통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통합 /공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공과계통과 경성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의 통합 /의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 /농과대학은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개편/상과대학은 경성경제전문학교의 개편/ 치과대학은 경성치의학전문학교의 개편 /사범대학은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 /예술대학은 미술부와 음악부의 신설 /약학대학은 경성약학전문학교의 1950년 9월 개편.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거대한 서울대학교를 만들어 놓음으로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에 많이 들어간 경기중학교를 최고로 한 중학교의 서열이 서울대학교로 옮겨 경기고등학교를 최고로 한 고등학교 서열이 형성된다. 결국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출세를 위

5) 1)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p.239. 2)하타다 다카시의 일본인의 한국관(이기동번역 1983년 일조각, pp.132-134

6)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pp.91-101

7)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1992, p.368.

해 서울대학교에 가며 입학시험중심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 되고 서울대학교에 많이 들어가면 명문고가 되는 기준이 일제 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의 현상과 똑같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지속된다.

### 3. 결 론

우리나라 현재의 고등학교교육은 실제로는 출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자 입시중심교육을 하면서 교육기본법에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전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창의력계발이라는 학교교육을 규정하여 실제와 교육기본법이 다른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연구 결과 조선의 영재들이 출세를 위해 입시중심교육을 하여 최고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 간 것처럼 지금의 영재들이 서울대학교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최고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 국공립 전문학교를 합쳐 우리나라 최고의 유일한 서울대학교를 만들어 경성제국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경기중학이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기고등학교가 된 현상이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일제강점기에 출세하기 위해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경성제국대학에 간 것처럼 77년간 서울대학에 그대로 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해방 후 현재까지 78년을 우리나라는 교육부재의 학교교육을 해왔다고 하겠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3300여명의 학생은 평생 우월감에 살며 대부분의 수십만 학생들은 평생 열등감에 사는 차별 교육이 78년을 이어 왔다고 하겠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입시지옥의 블랙홀이 되어 모든 학생을 빨아드려 소수의 3천3백여의 학생만 토하는 것 같은 현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에는 정직과 역지사지에 의한 배려와 협력이 부족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성욕, 재물욕, 명예욕 등의 본능이 조절 안 되다 보니 많은 범죄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처리나 교통질서 약자에 대한 폭행 등 법률을 무시한 현상은 사회를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교육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알게 된 교육부재를 교육기본법의 교육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연구의 금후의 과제라 하겠다.

#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鄭榮根 (韓國教育課程評價院)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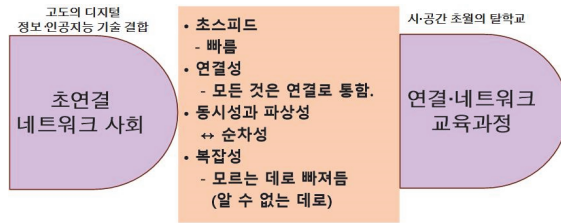
향후 미래 사회는 초현실적 변화 속도와 다차원적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필연적으로 사회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은 디지털 정보와 인공지능, 즉 지능정보 기술이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 지능정보 기술은 모든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쳐 사회 질서 재편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변화가 학교 교육과정 변화의 중요한 동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미래 사회 질서 재편은 미래 학교 교육과정 변화 및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능정보 기술을 선두로 하는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탈 인간중심의 현상이 광범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탈 인간중심화는 경계의 융합 또는 탈 경계를 촉진시켜, 인간과 인공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되며, 기술세계에서의 전통적 학문 간의 화학적 결합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정영근 외, 2021: 493). 탈 인간중심화에 따른 탈 경계와 경계의 융합화는 미래 학교지식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식 입수 경로나 지식 생성 활동의 주 무대는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와 지능화된 인공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정영근 외, 2021: 494).

이 발표는 미래 초연결 네트워크 및 인공 지능물 시대, 지능정보 사회 변화에 대응한 학교 교육과정 체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동향을 비교 탐색하여 양국의 특징과 함께 향후 학교 교육과정 체제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교육과정 체제 전망

[그림 1]과 같이 미래 사회는 고도의 디지털 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초연결·네트워크 사회가 구축되어 미래 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하여 연결·네트워크 교육과정 특성 및 이미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래 학교 교육과정은 초연결·네트워크 사회에 나타나는 특성과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그 교육과정은 대단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과정 주체들과 연결되어 동시에 파상적으로 퍼져나가 공유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림1] 미래 초연결·네트워크 사회 특성과 교육과정  
(출처. 정영근 외 2022 : 303)

미래의 초연결·네트워크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각기 나뉠대로 대인은 물론 무수한 공식·비공식 기관 및 단체, 조직과 네트워크 연결을 하게 된다. 미래 학생들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네트워크 사회에 익숙할 것이고 연결·네트워크 교육과정의 강력한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연결·네트워크 교육과정은 적어도 종래의 중앙 집중형의 교육과정 체제와 다른 체제를 요구하게 된다.

## 2.2 한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 2.2.1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2022)

첫째, 다양한 수준의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국민들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와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셋째, 디지털 인재양성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22~25		25~
정보 교육	초·중 학교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초등5~6학년: 17시간	AI 교육 선도학교 확대	방학 중(방과 후) SW· AI 캠프 운영 등 디지 털 교육 활성화	초·중학교 정보교과 시수 확대 초등: 34시간 이상/중: 68시간 이상 학교 자율 정보시수 증배 기제 마련
	고등 학교	SW·AI 선택과목 신설 AI 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SW·AI 선택과목 확대
교원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도입 (석사학위)	현직교원 역량 강화 지원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정보교육 담당 교원 배치	

### 2.2.2 교육부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지금까지는 대개 정보 및 정보화였는데, 이들 용어보다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지능정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용어에서 보자면 제3차 산업혁명기에서 제창되었던 정보화에서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된 인공지능이 고도의 디지털 및 디지털 정보 기술과 결합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한 용어인 디지털 및 인공지능, 지능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및 디지털 (기초)소양, 디지털 플랫폼 등과 같이 디지털에 대한 지침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중요한 의미 및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첫째, 디지털은 미래 학교 교육의 모든 측면, 즉 교육환경 및 공간을 비롯하여 교수, (학생 맞춤

형) 학습, 수업(교수·학습), 평가, 교과(학습) 등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인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초)소양이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과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 기초 영역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디지털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교육의 기초·기본을 이루는 교육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3. 일본의 디지털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 2.3.1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におけるデジタル化推進プラン」(2020)

사업	주요 내용
GIGA 스쿨 구상 등에 따른 1인 1대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의 초·중학교에서 2020년도 내 배치 완료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자체에 지원이나 사업자에 대한 압력 등을 통해 대치를 가속화하고 2021년도부터 본격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함.</li> <li>신 JIS 규격의 교실용 책상 정비에 대해 지방재정 조치를 요청.</li> <li>고등학교 단계의 저소득 세대 등 학생이 사용하는 ICT 단말의 정비를 지원함.</li> </ul>
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IGA 스쿨 구상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단말기 환경에 걸맞은 고속 대용량 통신 네트워크와의 일체적 정비를 추진하여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의 ICT 활용을 촉진함.</li> </ul>
학교의 디지털화·클라우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직원에 의한 학교·학급 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아동 학생 상황의 일원 관리·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형 교무 지원 시스템에 대해 2022년도의 100% 정비를 목표로 지방 재정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의 도입을 계속 촉진함</li> <li>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클라우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에서의 ICT 활용을 촉진함.</li> </ul>
원격·온라인 교육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학생 1인당 1대 단말기와 고속 대용량의 통신 네트워크와의 일체적인 정비에 의해 원격 수업이나 온 디맨드 동영상 교재 등을 도입해 발달 단계에 따라 대면 지도와 원격·온라인 교육을 능숙하게 구사(하이브리드화)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 최적의 배움과 협동적인 배움의 실현을 목표로 함.</li> <li>누구도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학생(병요양, 등교거부 등)에 대한 원격 온라인 교육의 활용을 촉진함.</li> </ul>
학습자용 디지털 교과서 보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용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2021년도 본격적인 도입을 목표로 향후의 방향에 대해 유식자회의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2020년도 내에 중간정리, 내년여름경 최종정리를 실시한다.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각 교과 등 수업시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하는 기준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0년 중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함.</li> <li>디지털교과서 보급촉진과 관련된 실증사업이나 클라우드 전송에 관한 피지빌리티 검증, 효과·영향 등에 관한 실증연구에 대해 2021년도 예산(안)에서 계상.</li> </ul>
첨단기술의 효과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교육에서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도 내를 목표로 가이드북을 작성하는 동시에 실증연구를 실시.</li> </ul>
1인 1대 단말기의 효과적 이용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1대 단말의 효과적인 활용 촉진을 위해 'GIGA STuDX 추진팀'을 설치하고 전국의 교육위원회·학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함.</li> </ul>
학교의 ICT 활용 등에 따른 배움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지원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교육위원회 등에 대해 ICT 환경정비나 활용방법 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지원을 실시한다. ICT활용교육어드바이저, GIGA 스쿨 구상에 의한 각 학교의 환경 정비 초기 대응을 실시하는 GIGA 스쿨 서포터, 학교에서 일상적인 교사의 ICT 활용을 지원하는 ICT 지원원, 등의 배치를 촉진하고, ICT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나 교사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ICT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함.</li> </ul>
교사의 ICT 활용 지도력 향상, ICT 활용 방법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의 ICT 활용 지도력 향상을 위해 독립행정법인 교직원 지원기구에서 실시하는 각 지역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지도자 양성 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한다.</li> <li>아울러 문부과학성에서는 각 교과 등의 지도에 있어서 ICT의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참고 자료나 해설 동영상의 작성·공표를 실시하는 동시에 ICT 활용에 관한 조언이나 연수 지원 등을 실시.</li> </ul>
교과과정의 ICT 활용에 관한 내용 이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과정에서 ICT를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나 아이들의 정보모델 포함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21년도 내를 목표로 제도개정(성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부회에서 검토하고 2022년4월부터 배우는 학생이 ICT 활용에 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과목 개설을 목표로 함.</li> </ul>

#### 2.3.2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令和の日本型学校教育の構築を目指して」(2021)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ICT 활용



- 커리큘럼 매니지먼트를 충실하게 해, 각 교과 등에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질·능력 등을 파악한 후 ICT를 「주체적·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의 실현을 향한 수업 개선에 활용하는 동시에, 종래에는 늘릴 수 없었던 자질·능력의 육성이나,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학습 활동의 실시, 가정 등 학교 밖에서의 배움의 충실
- 단말의 활용을 '당연'으로 하고, 아동 학생 자신이 ICT를 자유로운 발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 수업 디자인
- ICT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등교거부나 질병요양 등에 의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생에 대한 세심한 지원, 개별 재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고도의 배움의 기회 제공 등
- ICT의 활용과 소규모 인원에 의한 섬세한 지도체계 정비를 양론으로 한 개별 최적의 배움과 협동적인 배움의 실현
- o ICT 활용을 위한 교사의 자질·능력 향상
  - 양성·연수 전체를 통해서 교사가 필요한 자질·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는 환경의 실현
  - 양성 단계에서 학생의 1인 1대 단말기를 전제로 한 교육을 실현하면서 ICT활용 지도력 양성과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내실화
  -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도 노하우의 신속한 수집·분석,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교원 양성 모델 구축 등 교원 양성 대학·학부, 교직 대학원의 리더십 Society 5.0 시대 교원 양성 실현
  - 국가에 의한 콘텐츠 제공이나 도도부현 등에서의 연수 내실화 등을 통한 현직 교사의 ICT 활용 지도력 향상, 수업 개선에 힘쓰는 교사 네트워크화
- o ICT 환경정비
  - GIGA 스쿨 구상에 의해 배치되는 1인 1대의 단말기는 클라우드 활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교육정보 보안정책 등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활용을 촉진
  - 의무교육 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1인 1대 단말 환경을 실현하는 동시에 단말 갱신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
  - 각 학교 단계에서 단말기의 가정으로의 테이크 아웃을 가능하게 함.
  - 디지털 교과서·교재 등의 보급 촉진이나 교육 데이터를 축적·분석·이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ICT 인재 확보, ICT에 의한 교무 효율화

### 3. 논의 및 시사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교육 확충에 미친 직접적인 배경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후 지능정보 기술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교육과 관련하여 양국은 크게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환경 측면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의 디지털 소양과 이를 위한 지원, 교사 측면에서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이를 위한 연수 및 교직과정, 환경 측면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기기 및 플랫폼, 전문가 양성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상당히 반영되었지만 일본의 경우

2017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지 않아 학습지도요령에 반영되는 사례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3년 정도 후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 때 그동안의 디지털 교육 정책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면 국가교육과정상에서 지금까지는 정보교육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져 왔지만, 한국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및 인공지능, 지능정보가 급격히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차기 학습지도요령에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의 공생기반 진로교육 현황과 시사점

申賢貞 (中部大)

## 1. 서론

일본 특수지원교육의 이념은 “장애를 가진 유아, 어린이,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에 맞추어 주체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유아, 어린이,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갖가지 능력을 키워 일상생활과 학습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中央教育審議會答申, 2005)”이다. 이러한 일본의 특수지원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공생사회’란 “누구도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지원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존재 방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전원 참여형 사회(特別支援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委員会, 2012)”이다. 이러한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2년 이후 공생사회 형성을 위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일반 학교의 같은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완전통합교육 시스템 구축 추진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인클루시브 교육(Inclusive Education) 체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장애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4조에 따르면, ‘인클루시브 교육 시스템(inclusive education system, 서명 당시 임시 번역: 포용하는 교육 제도)’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애자가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아래, 장애가 있는 자와 장애가 없는 자가 함께 배우는 구조를 의미하며, 장애가 있는 자가 ‘일반 교육 시스템(general education system, 서명 당시 임시 번역: 교육제도 일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배려’가 제공되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文部科学省, 2012)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클루시브 교육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주체 중 하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 측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 측이다. 특히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 측의 장애를 가진 학생 측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인클루시브 교육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는 ‘장애를 가진 유아, 어린이,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등에서는 ‘교류 및 공동 학습’을 통한 장애 이해 교육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인클루시브 교육 현황과도 매우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을 근거로 한 장애인 통합교육, 즉 인클루시브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정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매우 광범위한 교육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클루시브 교육은 단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까지를 고려한 것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인클루시브 교육은 기존의 모든 교육 체제 안에서 모든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며 교사, 학부

모, 전문가, 지역사회 등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상호종종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본의 진로교육(이하 커리어교육으로 징합)의 방향성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규정하는 진로교육은 ‘커리어 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기존의 진로지도 중심의 진로교육과는 다른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커리어교육이 깊은 자기 이해와 지속적인 사회와의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립을 모색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인클루시브 교육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생기반 인클루시브 교육과 일본 커리어교육 관련성과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공생기반 인클루시브 교육과 진로교육

과거 일본에서의 진로교육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 체험이나 진학지도의 틀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소자화(少子化) 등의 인구학적인 측면의 변화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와 같은 급속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미래사회에서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도되고 있다. 이에 일본 문부성은 커리어교육을 “개개인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향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통해 커리어 발전을 촉진하는 교육(中央教育審議會答申, 2011)”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커리어교육의 목표가 개개인의 자립에 필요한 역량 배양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리어 발달”이라는 용어는 “자신의 지적,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특징을 개개인의 삶의 방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大内 進, 2020년 10월 26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사회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인 인클루시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커리어 발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2 일본 커리어교육의 방향

일본 커리어교육의 방향성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요지로 정리할 수 있다.(출처: 「キャリア教育実践の手引き」(広島県教育委員会)参照)

- ① 조직적·계획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위치시키고, 관련 활동을 체계화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진행한다.
- ② 체계적·발전적으로  
유아 및 어린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커리어 발달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진행의 적시성과 체계성, 발전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③ 개별적으로  
유아 및 어린이 학생 개인의 커리어 발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개인차에 주의하여 진행한다.
- ④ 연계·협력하여  
가정, 지역사회, 기업, 관련 기관 등의 이해를 얻고,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한다.
- ⑤ 실천적·체험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일하는 것과의 접점을 넓히고, 경제사회, 직업 및 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깊이 있게 진행한다.

## 3. 결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의 공생기반 커리어교육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커리어교육 추진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커리어교육이란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을 넘어선,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며,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교와 교사는 커리어교육을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는 부분을 오해하여 기존의 진로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용어 자체를 ‘커리어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다. 단순히 직업체험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초·중·고의 학교단계를 거치는 동안 생각하고 습득하게 될 학생 자신의 커리어발달에 관련된 능력과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각 학교가 커리어교육 전체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초중고의 연계를 위해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커리어 패스포트’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초·중·고에 걸쳐 작성하게 한다는 점이다. 한 해 동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년 간은 물론 학교급 간에 이러한 교육활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동 활동이나 커리어 패스포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커리어 패스포트는 학생이 자기평가를 통해 내다보고 돌아보기를 반복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의 독창성이나 자율성의 인정(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표지에 사용하는 종이재질부터 양식과 기재내용 등), 활용방안과 같은 세부 사항은 이러한 것이 학교간이나 지역 간의 다양한 차이로 나타날 것인지 격차로 드러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어 패스포트’와 같은 일본의 커리어교육은 일본의 교육기관, 정부 기관, 교육 전문가, 산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학교 교과과정 차원의 진로교육을 넘어 거국적인 사회교육시스템으로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행 교과과정의 전 영역을 커리어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거시적이고 전 생애적인 통합 커리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진로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참고문헌>

中央教育審議會答申(2008). 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

文部科学省(2011). 学校が社会と協働して一日も早くすべての児童生徒に充実したキャリア教育を行うために.

\_\_\_\_\_ (2017). 高校生の頃にしてしまかったキャリア教育って何? ~卒業後に振り返って思うキャリア教育の意義~.

\_\_\_\_\_ (2018). キャリア教育における外部人材活用等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中間取りまとめ.

\_\_\_\_\_ (2012). 中学校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_\_\_\_\_ (2012). 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_\_\_\_\_ (2023). 中学校・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

# 한국과 일본의 상호배타적 사회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인공지능(GPT) 활용 포용적 수업 방법과 내용 모색

— 독도를 중심으로 —

曹圭福 (韓國教育學術情報院)

## 1. 서론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역사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특히 갈등과 마찰 등의 부정적인 양국간 역사는 더욱 크다. 이번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의 주제인 동경대지진의 재일조선인 희생도 그러하고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독도 영위권 문제’도 그러하다. 이러한 역사 인식 차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연구자와 교사는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1990년 정부터의 한국의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의 ‘역사교육연구회’는 ‘역사 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을 발간하고, 2001년 정부터의 한국의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일본 히로시마교직원조합으로 결성된 ‘한일공통역사교재제작팀’은 ‘배우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근현대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서 우호로’라는 부교재를 출간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한국의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에서 ‘한일 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대에 ‘마주 보는 한일사’ 3권(I, II, III)을 발간하였다. 2005년 KBS 인터뷰에 한일공통역사교재제작팀의 회원 전교조 대구지부 강태원 교사가 언급한 ‘양국간 어떠한 역사 인식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통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추진’이 지금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추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위권 주장과 그 근거를 비교 정리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양국의 독도 관련 국가교육과정 내용과 양국 정부의 독도 영위권 주장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와 포용적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한국과 일본의 국가교육과정에서의 독도

한국의 4회(2007년, 2009년, 2015년, 2022년)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독도가 언급된 내용을 추렸고, 일본은 최근의 개정 국가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추린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주로 사회 교과에서 한정되어 있고, 지리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언급되었고, 2007년 2회, 2009년 18회, 2015년 11회, 2023년 6회로 2009년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리적 측면으로는 ‘독도의 지리적 특성과 독도에 대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영토로서

독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역사적 측면으로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특히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파악한다.’와 같은 내용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국가교육과정 또한 주로 사회 교과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고, 지리적 역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제법 관점에서 영위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2018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대표적인 독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일본)에서도 본래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영토 문제의 발생에서 현재까지의 경과, 그리고 여행이나 어업, 해양 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의 체포, 선원의 억류가 이루어지는 등,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일본 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 점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국가 주권,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2.2 한국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위권 주장과 그 근거

한국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위권 주장에 대한 자료는 한국의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에서 2014년 발간한 ‘마주 보는 한일사 III한일 근현대사’의 마지막 챕터 ‘독도와 다케시마’를 참고하였다. 사료가 남아 있는 5가지 역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비교 정리하였다. 5가지 역사 내용과 사료는 아래와 같다.

- 조선시대 지리서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서의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 기록
- 1696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범한 일본 어민들에 대한 항의로 ‘조울양도(朝鬱兩島)’라는 표지를 들고 일본에 건너가 항의 후 에도막부는 울릉도 출어 금지를 결정함
- 1877년, 일본 시마네현이 행정구역을 획정하기 위해 ‘울릉도 외 또 다른 한 섬’을 시마네현에 포함할지를 일본 정부에 물었음, 이때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다이조칸(太政官)에서 ‘울릉도 외 또 다른 섬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보냈음.
-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내려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함.
- 1905년,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정식 이름을 붙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 소관으로 함.
- 1946년 연합국 총사령관 각서에 독도 포함, 제677호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 미포함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조선시대의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우산국의 섬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주장은 확실치 않다고 반론하며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절차가 국제법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3 GPT 활용 포용적 역사 수업 모색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국가교육과정 내용과 양국 정부의 독도 영위권 주장 및 관련 근거를 엑셀 시트에 정리한 후 GPT에 업로드하고, 그 내용의 개요와 주장의 타당성 등에 물었다. 올린 파일의 개요



에 대해 응답하였고, 양국의 독도 영위권 주장의 타당성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 이유로 3가지(역사적 증거의 다양성, 증거 해석의 다양성, 국제법의 복잡성)를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관한 주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교육의 목적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독도를 통한 포용적 역사 수업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주장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학생들이 그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독도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수업에서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제시하기’, ‘토론을 통한 이해 깊이 높이기’,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 개발’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국가교육과정 내용이 그 독도의 영위권과 관계없이 포용적 역사 교육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물었고, 5가지 보완사항을 응답했다.

-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도록 확장: 교육과정에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주장과 국제법의 관점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판적 사고력 강조: 학생들이 제시된 정보를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주장의 근거와 가정, 그리고 가능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 평화적 해결 방법 교육: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한 학습: 독도와 같은 실제 사례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제적 협력 강조: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깊이 있는 포용적 역사 수업을 구상해 보기 위해서 小川(2023)의 6가지 역사 실천 단계(역사 실증, 역사해석, 역사비평, 역사 서술, 역사 대화, 역사 창조)를 고려하여 독도에 대한 포용적 중학교 역사 수업지도안을 생성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p>수업 이름: 독도 역사를 통한 이해와 토론</p> <p>수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해</li> <li>사료를 통한 실증적 사실 탐구</li> <li>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평적 분석</li> <li>편견을 줄이고 포용적 관점을 가지는 능력 개발</li> <li>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고 이를 검증</li> <li>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 계획 수립</li> </ul> <p>수업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실증 (15분):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설정합니다. 학생들에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의 사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분석하며 사실 탐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li> </ul>
---

- 역사 해석 (15분): 사실 간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와 연관성에 대해 학생들이 가설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그룹별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주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봅니다.
- 역사 비평 (15분): 각 그룹은 자신들의 해석에 대해 비평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석이 현대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합니다.
- 역사 서술 (15분): 각 그룹은 자신들의 해석과 비평을 논리적 요약문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클래스 내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 역사 대화 (30분): 학생들은 다른 그룹의 서술을 바탕으로 사실 입각성과 논리 정합성에 대해 검증합니다. 각 그룹은 다른 그룹의 의견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역사 창조 (20분):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 보충 자료: 독도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의견,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육 자료

### 3. 결론

이상의 GPT라는 텍스트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독도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한 포용적 역사 수업을 구상해 보았다. 교사가 소속 학급과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학생 학습 활동 등의 조건을 추가하며 대화를 거듭한다면 좀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수업디자인이 생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정도 수준의 수업구상 만으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특징적인 점과 고찰이 필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GPT가 어느 정도 교육학적 전문지식(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다. 역사 교육은 그 주장의 진위 및 더 타당성이 높은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애매하고 민감한 소재를 바탕으로 실증하며 고민하는 것이라고 조언하는 부분과 포용 관점에서 역사 교육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 이론과 관점 및 키워드 등을 신속히 반영해서 수업지도안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점이다. 대화식으로 추가 및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보다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치 판단을 하지 않거나 절제하는 점이다. 이 점은 역사 교육의 보조교사 혹은 AI 튜터로 활용하는데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충분하지만 발견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맥락을 고려하여 유추하는 것도 역사 교육에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GPT가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더욱 면밀하게 접근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GPT를 통해 교사가 상반되는 양쪽의 주장과 근거 및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역사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은 그 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비교 검증 및 유추하는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도와 같은 국가 간 민감한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력 등의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위에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역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GPT를 활용하고, 어떠한 교수학습 변화를 유도할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편견과 선입견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관련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교육부(2007)(2009)(2015)(2022). 사회과 국가교육과정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 일본 역사교육연구회(2000). 역사 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한국 전국역사교사모임,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일본(2014). 마주 보는 한일사Ⅲ 한일 근대사. 사계절

小川幸司(2023). 世界史とは何か「歴史実践」のために. 岩波書店

文部科学省(2000)(2017). 学習指導要領

SBS 뉴스(2015. 3. 20 ) 한일 교사, '역사 왜곡'에 공동대응 공동 역사교과서 부교재 내달 발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31985](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31985)

# 한국드라마의 일본어 자막과 더빙번역 비교연구

—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을 중심으로 —

柳俊熙 (梨花女大)

## 1. 서론

“명료함에 치우치는 더빙번역은 자막번역 표현에 악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일본어를 죽이고 있다.” 2020년 도쿄신문<sup>1)</sup>과의 인터뷰에서 자막번역가 도다 나쓰코(戸田奈津子)는 이처럼 말하였다. 도다(戸田 1994, 2009)는 일본은 세계에서도 드문 ‘자막 대국’이라며 영상번역 중 자막번역이 정착한 이유의 하나로 ‘높은 식자율’을 꼽았고 인기가 많은 성우나 아이돌을 캐스팅하는 더빙에는 “배급회사가 언어를 우습게 안다”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1931년에 자막이 입혀진 미국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되었고 그 당시 더빙으로도 외화가 몇 편 상영되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자막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篠原 2012). 2010년에 영화관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 328편 중 자막판은 289편, 더빙판은 8편, 선택할 수 있는 작품은 31편이었다(篠原 ibidi). Danmee<sup>2)</sup>가 2023년 4월 26일에서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응한 112명 중 자막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약 95%를 차지하였다. 2023년 7월 현재 일본 간토(關東) 지상파 7개 및 BS(위생방송) 11개 방송국에서 방영 중인 한국드라마 39편 중 더빙판이 제공되는 것은 9편에 불과하다<sup>3)</sup>.

한편 더빙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알기 쉽게 하는 ‘문화 번역’<sup>4)</sup>이라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DVD나 OTT 서비스 등의 보급에 따라 시청자들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자막’ 혹은 ‘더빙’을 쉽게 선택하여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스타채널(株式会社スターチャンネル<sup>5)</sup>)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20대에서 60대 남녀 1,000명 중 약 59%가 주로 더빙으로 외화를 본다고 했으며 아울러 약 86%가 집에서 영상 시청 시 더빙으로 본다고 답하였다. Netflix 등 OTT 서비스의 보급으로 일본 내에서는 더빙의 수요가 높아졌다. 또 3D 상영 같은 경우에는 더빙이 인기가 많은 모양이다<sup>6)</sup>. Netflix가 제작하는 영화나 해외드라마는 다언어화 중시의 방침에서 원칙상 일본어 더빙을 제공한다<sup>7)</sup>.

번역가가 번역 시 외국 문화와 언어뿐 아니라 자국 문화와 언어와도 마주 본다는 것을 도다의 지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자막번역이든 더빙번역이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기 위한 작업이다. 눈으로 읽고 정보를 얻는 자막번역과 귀로 듣고 정보를 얻는 더빙번역에

1) <https://www.tokyo-np.co.jp/article/45795>

2) K-POP과 한국 연예계 뉴스 및 최신 정보를 일본에서 발신하는 기업

3) <https://www.isoji.jp/korea/onairtable.html>

4) <https://www.oricon.co.jp/news/2263924/full/>

5) 일본 영화 전문 채널 스타채널(スターチャンネル)을 운영하는 방송기업

6) <https://www.chugoku-np.co.jp/articles/-/281873>

7) <https://www.nikkei.com/article/DGXKZO49298110S9A900C1BE0P00/>

2023년 현재 Netflix가 일본에서 제공하는 시청 가능한 Netflix 오리지널 작품의 한국드라마 110편 중 36%인 40편에서 더빙을 제공한다(연구자 조사).

는 각각 어떤 특징이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데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의 자막번역과 더빙번역의 양상을 파악하겠다. 한국드라마 세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어떻게 효과의 등가가 구현되는지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2. 이론적배경

### 2.1 번역의 정의와 유형

언어학자 야콥슨(Jackobson, R)은 번역에는 세 종류 있다고 정의하였다(鳥飼 2013, Munday 2016).

- ① 언어내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 동일 언어 체계 내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
- ② 언어간 번역(interlinguistic translation): 한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
- ③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 언어체계를 다른 기호체계로 해석하는 것.

일반적으로 ‘번역’이라고 할 경우 ②언어간 번역을 가리킬 경우가 많은데 영상번역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더빙번역은 오리지널 발화를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다른 언어로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언어간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막번역은 발화를 문자로 옮겨 시각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③기호간 번역에 해당한다.

### 2.2 영상번역

영상번역은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서 소통이나 대화를 촉진 시키는 수단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Diaz-Cintas 2010). 영상번역이라고 하면 더빙과 자막이 일반적이며(Gambier 2003) 이 외에도 음성자막, 영화제에서의 동시통역, 해설, 청각장애인용 자막, 시각장애인용 음성해설, 팬서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Chaume 2013).

#### 2.2.1 자막번역

고틀리브(Gottlieb 2004)는 자막번역에 대해 영상매체에서 목표언어와 다른 언어로 제시되는 음성 메시지를 번역하여 1-2줄의 글이라는 형태로 오리지널 음성과 일치시켜 화면상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iaz-Cintas and Remael 2007: 8-9)은 자막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대화나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 배경음악에 포함되는 정보를 재현하여 화면 하단에 제시하는 텍스트라고 정의한다. 즉 자막번역은 음성언어에서 서기언어로 변환되는 것이며 자막에는 오리지널 음성정보뿐 아니라 다른 코드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음성, 음향, 영상에 드러나는 원천텍스트가 유지된 상태로 제시된다.

#### 2.2.2 더빙번역

더빙번역이란 외국어 대사에 목표언어권 언어를 덧씌우는 것을 가리킨다. Chaume(2012)에 따르면

더빙언어는 구어적 특성과 문어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구어 담화 형식인데 실제와 가까운 즉흥성을 모방하도록 사전에 조작된 언어라고 한다. 더빙은 말하는 속도와 입 모양 등 화면상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동작이 일치해야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로맨틱코미디 작가 김은숙의 작품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을 분석한다. 분석 범위는 각 작품 DVD에 수록된 자막과 더빙번역으로 하되 극 중에 삽입되는 노래 가사 번역은 제외한다. 일본 지상파 혹은 BS에서 최소 두 번 이상 방영이 된 작품들이며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OTT 서비스 U-NEXT와 HULU에서 자막 및 더빙 버전의 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일본 국내에서 제공되는 OTT 서비스 시청이 어려운 관계로 수집이 가능한 DVD 및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던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표1> 분석 대상 작품 정보

작품명	방송국 및 방영 연도(한국)	DVD 발행처 및 발행 연도(일본)	번역가/日本語版製作スタッフ
파리의 연인 パリの恋人	SBS 2004년	株式会社バップ 2005년	翻訳: 根本理恵 外3名
시크릿 가든 シークレットガーデン	SBS 2010년	NHKエンタープライズ 2016년	翻訳: 尹春江、字幕: 嶋田美樹吹き替え 台本: 因愛子
신사의 품격 紳士の品格	SBS 2012년	ポニーキャニオン 2013년	不明

#### 3.2 연구방법

일본 영상번역아카데미(2018)가 제시한 5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분석하겠다. 여러 학자가 다양한 영상번역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생략, 축소, 압축, 삭제, 전체 삭제와 같은 전략이 학자마다 다른 가운데 분석하는데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5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완역: 전체를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완역한다
- ② 생략: 요약하거나 생략한다
- ③ 바꾸어 말하기: 다른 말로 표현한다
- ④ 부가: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한다
- ⑤ 창조: 원문을 무사해서 내용을 변경한다

###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추후 보완)

## <참고문헌>

- 篠原有子 (2012). 映画字幕は視聴者の期待にどう応えるか. 通訳翻訳研究. 12. 209-228.
- 戸田奈津子 (1997). 字幕の中に人生. 東京:白水社.
- 戸田奈津子 (2009). 字幕の花園. 東京:集英社.
- 鳥飼久美子 (2013). よくわかる通訳翻訳学. 京都:ミネルヴァ書房.
- 日本映像翻訳アカデミー (2018). 字幕翻訳とは何か:1枚の字幕に込められた技能と理論.
- Chaume, F. (2012). *Audiovisual Translation: Dubbing*. Manchester: St. Jerome.
- Chaume, F. (2013). The Turn of Audiovisual Translation. *New Audiences and New Technologies*. *Translation Spaces* 2. 107-125.
- Diaz-Cintas, J. (2010). Subtitling, in Gambier, Y. and L. V. Doors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44-349.
- Gambier, Y. (2003). Screen Transadaptaion: Perception and Reception. *The Translator*, 9:2, 171-189.
- Gottlieb, H. (2004). Language-Political Implications of Subtitling, in Pilar Orero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83-100.
- Munday, J.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CAT 툴을 활용한 한일 번역 수업 사례연구

: 통번역대학원 전문번역 과목을 중심으로

李奈暻 (韓國外大)

## 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은 도태될 것이고 많은 직업군이 기계에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교육계에서도 디지털 문해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력 융복합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어 번역의 경우 AI 기반 인공지능경망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이 등장함에 따라 기계번역의 품질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번역사는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계번역의 품질은 아직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불안한 수준이나 번역 처리 속도에서는 인간 번역사를 크게 능가한다. 번역 처리 속도는 수주할 수 있는 번역물의 양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번역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컴퓨터 보조번역(Computer Assisted Translation, CAT)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보조번역은 번역 효율성을 높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간이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 형태를 말한다. 컴퓨터 보조번역 프로그램(CAT Tool)은 번역사가 번역한 문장 쌍 또는 어휘 쌍을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두었다가 원문에서 비슷한 문장 또는 어휘가 나오면 번역된 문장을 띄워주어 효율적으로 번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번역사의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계번역과는 차이가 있다. 컴퓨터 보조번역은 문장 또는 어휘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다.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단순한 언어 치환 작업이기 때문에 번역사의 도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요구되는 번역 능력도 변화하면서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서 로컬라이제이션과 컴퓨터 보조번역에 대한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영어권 시장과는 달리 로컬라이제이션 수요가 많지 않아 CAT 툴 사용 경험이 풍부한 교수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졸업 후 CAT 툴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수강을 원하는 학습자가 제한적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는 2018년부터 'CAT 번역' 과목이 개설되었으나 한일과에서는 상기 이유 등으로 인해 실제 개설로는 이어지지 못하다가 2023년 1학기에 CAT 툴을 활용한 전문번역 수업이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AT 툴 활용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한일 번역 분야에서 CAT 툴을 접목해 번역 수업을 운영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CAT 툴의 장단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교육적 함의 및 수업 운영의 개선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CAT 툴을 활용한 번역 수업 사례

### 2.1 대상 과목 및 수강생 개요

본 연구의 대상 과목인 ‘전문번역’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3학기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졸업 후 실제 번역 시장에서 수주하게 될 전문적인 고난도 텍스트 번역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검색 능력 함양, 텍스트 유형 및 번역 목적을 고려한 번역 전략 수립 훈련을 목표로 한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경우 전문 분야 번역 과목으로 ‘산업경제 번역’, ‘정치법률 번역’, ‘과학기술 번역’이 개설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함양 및 번역 훈련이 이루어지며 석사학위 청구 종합시험(졸업시험) 중 번역 시험은 이들 분야에서 출제된다.

이에 비해 ‘전문번역’은 졸업시험 대상 과목이 아니며 교수자가 자유롭게 주제의 선택 및 수업 구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CAT 툴을 소개하고 활용하기에 적절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문번역’에서는 실제로 교수자가 수주했던 텍스트나 번역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텍스트들이 사용되는 만큼 수강생들로서는 낮은 CAT 툴을 배워가면서 난도 높은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보조번역이 로컬라이제이션 분야에 특화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번역’ 과목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한일 번역의 경우 애초에 로컬라이제이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특정 사용 목적을 염두에 둔 교육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번역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2023년 1학기 수강생은 총 10명이었으며 전원 모두 CAT 툴 사용 경험은 없는 상태였다. 1주 차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강생들은 모두 ‘CA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CAT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다루고 싶은 CAT 툴에 대해서는 수강생 대부분이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고 응답했다.

### 2.2 수업에 활용한 CAT 툴의 선택 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번역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CAT 툴로는 Trados, MemoQ, Wordfast, Memsource, Smartcat 등이 존재하며 이 중 교육용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Trados와 MemoQ를 수업에 활용할 툴 후보로 고려하였다. 점유율에서는 Trados가 전 세계적으로 1위지만 Trados의 경우 수업용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복잡한 데다가 프로그램 가동에 PC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MemoQ는 점유율 자체는 Trados보다 낮지만, 교수자와 수강생 전원에게 1년 동안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해주며 필요할 경우 1달 동안 서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연습도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게임 번역의 경우 MemoQ 사용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툴 사용법을 익혀 두는 것이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3 전문번역 수업 내용

본 수업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CAT 툴을 활용하는 수업이기는 하나, 과목 자체가 ‘CAT 번역’이 아니라 ‘전문번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AT 툴 실습과 번역 실습의 비중을 3:7로 설정하여 강의안을 구성했다. 실제로 진행된 수업 과정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2023년 1학기 전문번역 수업 일정

주차	내용	주차	내용
1	오리엔테이션	9	1:1 면담
2	MemoQ: 사용자 인터페이스	10	번역 실습 및 토론
3	MemoQ: TM, TB 구축하기	11	MemoQ: 서버 이용 번역 방법
4	번역 실습 및 토론	12	프로젝트 번역
5	번역 실습 및 토론	13	프로젝트 번역
6	번역 실습 및 토론	14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활용 기계번역
7	번역 실습 및 토론	15	기말시험
8	중간시험		

3주 차까지는 컴퓨터 보조번역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 MemoQ의 기본 메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익히기 위해 교수자가 시연하면서 수강생들이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첫 실습 시간에는 몇몇 수강생들이 노트북 환경 설정 오류 등으로 인해 실습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 해결 방법을 설명한 후 수강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필요할 때마다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기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수강생 전원에게 제공했다.

4주 차부터 10주 차까지는 MemoQ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여 번역과제를 수행한 후 수업 시간에 번역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번역 텍스트는 생명과학, 의료, 식품 가공, 인공지능망, 환경, 치의학, 제약, 파이낸싱 등 전문적인 주제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계약서, 보도자료, PPT, 웹 소셜, 서한, 논문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으로 구성했다.

수강생들에게는 가능한 한 CAT 툴을 사용하여 번역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고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번역물을 완성하였으나 1명은 노트북 환경 문제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7주 차까지는 CAT 툴을 사용하지 못했다. 교수자는 모든 수강생의 번역물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9주 차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하면서 CAT 툴 사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는 학기가 종료한 후 한 번 더 진행되었다. 11주 차에는 MemoQ 서버를 이용하여 2인 1조로 번역을 수행하는 협업 롤플레이밍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알아보고 사용법을 실습했다.

협업 롤플레이밍은 교수자가 PM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를 할당하고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총 5조가 각각 번역물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12주 차에는 번역자와 감수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2인 1조로 하나의 번역물을 완성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13주 차에는 2명이 하나의 텍스트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앞부분과 뒷부분의 번역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협업을 유도했다. 14주 차에는 기계번역과 컴퓨터 보조번역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도록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영상번역을 수행하도록 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당초에는 모두 MemoQ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8주 차까지는 아직 사용이 미숙한 수강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시험은 수기로 진행하였고 기말시험의 경우에는 서버를 통해 시험 텍스트를 할당받아 번역을 수행한 후 서버상에서 납품하도록 했다.

## 2.4 CAT 툴 사용에 대한 수강생 의견

수강생들은 CAT 툴의 장점으로 용어집(TB)을 활용하여 어휘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문장 누락에 대한 불안이 없다는 점, 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과제 협업의 경우 특히 어휘 통일이 용이하여 편리하다는 점, 앞으로 번역메모리(TM)와 용어집을 잘 구축해 놓으면 번역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들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확인되었다. MS 워드로 번역을 수행하는 것과 속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처음에 어휘 등록을 잘못 해 놓으면 텍스트 내의 해당 어휘가 모두 잘못 번역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한 수강생들이 있었으며 CAT 툴을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맥북, 아이맥 등 MacOS 기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Parallels 등의 유료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부담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 3. 결론

한일 번역 분야에서는 CAT 툴 사용이 아직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급격한 품질향상으로 인해 인간 번역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중요한 번역 역량으로 거론되던 검색 능력 대신 이제는 ChatGPT 등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순식간에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번역해 내는 기계번역과 경쟁하기 위해 번역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제는 로컬라이제이션 분야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도 CAT 툴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에서 번역 수업에 CAT 툴을 도입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업 내용과 CAT 툴 사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수강생 의견을 통해 CAT 툴의 사용이 번역 효율성 향상과 어휘 통일성 확보, 일정 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용법 숙지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의 수업만으로는 능숙하게 CAT 툴을 다루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파악되었다. 1학년 시기에도 CAT 툴에 접해볼 기회가 제공된 후 2학년 때 본격적으로 CAT 툴을 활용한 번역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AT 툴 사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데에는 번역 텍스트의 길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CAT 툴의 경우 반복되는 문장과 어휘가 많을수록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모든 수강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2시간 이내에 해당 번역물에 대한 토론이 끝날 수 있는 분량을 고려하여 약 900자~1,000자 정도 길이의 텍스트를 다뤘으나 CAT 툴의 유용성을 수강생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길이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 CAT 툴을 활용하여 번역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기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총 10명의 소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연구인 만큼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CAT 툴을 번역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학습자의 번역 역량 함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쟁기 제노사이드 연구와 번역의 역할

— 군사용어 ‘疎開’를 중심으로 —

宋信愛 (韓國外大)

##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제노사이드(Genocide)연구에서<sup>1)</sup> 번역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언어와 번역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번역(tranlation)에 대한 익숙한 정의 가운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미를 옮기는 것<sup>2)</sup>’이라는 설명은 자명해 보이나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의 역사는 그 단어의 실제 의미에 대하여 그리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Bellos, 2011:44, 발표자 강조). 특히 역사적 뿌리가 다른 단어일 경우 원천 문화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언제 어떠한 계기로 번역되어 목표 언어·문화권에 정착했는지, 그 후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시 역사적 연구와의 접점이 관찰되면 분석 대상으로서의 번역이 아닌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은 전선이 한반도 상하를 오가며 3년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에서도 한국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은 전쟁초기부터<sup>3)</sup> 각 지역별 ‘보도연맹사건’<sup>4)</sup>, ‘형무소재소자학살사건’ 등이 주요 학살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양민피살자신고서’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sup>5)</sup>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피살경위를 알 수 없거나 ‘피난을 가지 못하여 학살된 사례(이강수, 2008:11)’와 같이 기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적지 않다<sup>6)</sup>. 이러한 사례들은 분석 연구에서 종종 ‘기타’로 분류되거나 기존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살 사례들을 재분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1) 제노사이드(Genocide)란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를 합친 것으로 '집단학살'을 뜻한다. 특히 인종, 민족, 종족,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여 절멸시키려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조).

2) 관련 논의는 Munday(2022)의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를 참조함.

3) 한국전쟁의 시기구분은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 나는 연구자(강정구,2003; 엄찬호, 2013)의 분류와 전선이 형성되어 전쟁을 단계별로 나누는 분류(국가기록원)가 있는데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8군사령부(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EUSAK) 사령관 워커(Walton Harris Walker)가 국군과 미군에게 1950년 8월 1일까지 낙동강 남안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한 시기를 고려하여 대략 1950년 9월까지 시기를 한국전쟁 초기로 보았다.

4)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 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5) 한국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현재 2기 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6) 김동춘(2000)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형을 전쟁 발발 전 ‘작전으로서의 학살’, 한국전쟁 개전 이후 ‘처형으로서의 학살’, ‘보복으로서의 학살’로 나눈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범주를 세분화하여 다각적인 역사 서술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역사 기록을 언어와 의미의 이동 및 변화, 즉 번역의 관점에서 미세하게 관찰할 때 새로운 접근법이 개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군사용어인 일본어‘疎開(そかい)’는 본래 공습, 화재 등 전쟁이나 재난·재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때 국가가 보호의 명목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 인재, 자산 등을 타 지역으로 옮겨 분산시키는 것인데 이 군사용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후 한국전쟁기 민간인의 ‘소개’로 쓰일 때에는 원천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달리 제도사이드와 관련성을 보인다. 즉 일본어 ‘疎開’가 한국어 ‘소개’로 옮겨지면서 그 의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두 용어는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것이 한국전쟁기 제도사이드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기록과 보고서, 당시 ‘주한미8군사령부(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EUSAK)’가 생산한 문서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sup>7)</sup>.

## 2. 본론

### 2.1 일본의 군사용어 ‘疎開<sup>8)</sup>’

일본의 군사용어인 ‘疎開’는 공습이나 화재에 대비하여 한곳에 모여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하는 조치를 말한다. 1943년 10월 ‘방공법(防空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疎開’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sup>9)</sup>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疎開’는 공습을 피하기 위해 관청, 군수공장, 민간기업, 주택 및 가옥, 민간인 등을 ‘피난시키는 일’을 의미했다. 이때 ‘疎開’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 권장에 의한 것, 명령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지며 세 번째 소개를 강제소개(強制疎開)라고 한다<sup>10)</sup>. 1944년 6월 30일 일본 내각은 ‘學童疎開促進要綱’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本州 도시부의 국민학교 3학년부부터 6학년 아동들은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연고가 있는 아동은 연고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내졌고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集團疎開 시설로 이송되어 생활하였는데 1945년 3월 전황이 악화되자 1,2학년 학생까지 소개시설로 이송되었다. 이 가운데 ‘疎開’ 조치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경험자가 겪은 상황에 대한 기록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보호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국의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였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 2.2 한국의 ‘소개’

한국전쟁 발발 이후 벌어진 제도사이드 실태 조사는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

7) 1960년 4대국회 ‘양민피학살자신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민간인학살결정서’ 및 보고서,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EUSAK’가 생산한 문서 등을 사용.

8)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기 제도사이드를 설명할 때에는‘소개’를 사용하고 일본의 군사용어임을 나타낼 때에는‘疎開’로 통일한다.

9) 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jp/shuhou/topics/topics03\\_03.html](https://www.jacar.go.jp/shuhou/topics/topics03_03.html)

10) kotobank. <https://kotobank.jp/word/%E7%96%8E%E9%96%8B-89800>

11) 전시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인만큼 疎開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장애 아동과 재일 조선인이 잔류아동에 해당한다는 조사 보고를 다룬 연구도 있다(佐々木剛, 2022:24).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적이 있다. 유가족 또는 그 외 신청자들<sup>12)</sup>이 작성한 신고서와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기에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활동 중이다. 한국의 '소개' 또한 군사용어로 '주로 적의 포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자, 전투 대형의 거리나 간격을 넓히는 일' 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람이나 시설 따위를 분산'시키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sup>13)</sup>. 일견 사전적으로는 일본어 '疎開'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데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실제 상황에 대한 기록을 통해 '소개'와 제노사이드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소개 이후 '피난을 가지 못한' 민간인의 피해 신고 내용과 시기, 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주를 새로 설정했을 때 그 특징이 나타난다.

요컨대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면서 해당 지역에 소개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 피난을 가지 못했거나 '소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피난을 가지 못한 민간인들이 피살된 지역이 전투 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등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고 피살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소개'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패와 다른 '보호'의 의미가 현존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마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처럼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기 제노사이드에서 관찰되는 '소개'는 일본어에서 그 의미가 번역을 통해 오롯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정의와 범주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번역의 문제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듯이 지적 탐구를 수반하는 어떤 전문 분야라도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한 용어를 창조한다(Bellos, 2021:43). 용어의 번역 문제는 번역 실무와 교육, 번역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법률이나 과학처럼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를 파악하고 적절한 번역어로 옮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어 문헌과 기록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언어와 번역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소개'의 사용 문제는 전쟁 당시 미군 사령부가 생산한 문서를 분석할 때에도 나타난다. 1950년 7월 25일 주한미대사관 1등 서기관 해럴드 노블(Harold J. Noble)의 주재 하에 열린 "피난민 이동과 통제에 대한 대책회의(Controlled Movement of All Refugees)"의 결정 내용에는 'evacuat-e'와 'clearing areas'가 동시에 사용된다<sup>14)</sup>. 이 두 용어는 한국어로 옮겨질 때 '소개'라는 표현이 선택되어도 개별 번역 단위 차원에서는 '오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clearing areas'의 명령권자와 행위 주체, 대상자는 'evacuate'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소개'로는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제노사이드 연구에서 군사용어는 의미의 차이를 맥락 속에서 세심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거나 만일 '소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때 연구자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2)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마을 이장, 이웃 주민들의 신고도 다수 존재한다.

13) 군사용어사전 참조. 현재 향토문화사전에서는 전쟁 전 군경의 토벌작전과 함께 '산간지역, 산간마을 소개'와 '초토화 작전'이라는 용어를 다루며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초기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4) 현재 네이버 인터넷 영어 사전에 'evacuate'의 의미는 위험지역에서 사람들을 대피, 소개(疎開)시킨다는 풀이가 나와있다.

## 4. 결론

Footitt & Kelly(2012)는 전쟁과 내전을 포함한 평화 협상, 정보 수집과 평가 그리고 작전 수행, 피난민 지원 등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문서, 기억, 지식은 기록의 형태로 존재한다(Hermans, 2022: VII).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던 한국전쟁기 제노사이드를 현재 기준에서 연구할 때 수집된 기록의 해석과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연구에서 ‘번역’은 특정 용어의 이동과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번역을 통해 드러난 의미 문제는 번역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사 연구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언어와 번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및 온라인 참고 자료>

- 김동춘(2006). 전쟁과 사회. 경기도: 돌베개.
- 엄찬호(201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분노와 치유. 인문과학연구, 36, pp.585-607.
- 이강수(2008). 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조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45, pp.169-200.
- Bellos, David(2021). 번역의 일. 서울: 메멘토.
- Footitt, H., & Kelly, M. (Eds.)(2012). *Languages and the military: Alliances, occupation and peace building*. Springer.
- Hermans, T.(2022). *Translation and history: A textbook*. Taylor & Francis.
- Munday, J., Pinto, S. R., & Blakesley, J.(202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 佐々木 剛,草野 篤子.(2022). 次世代に語り継ぐ生命及び人権尊重としての学童疎開, 日本世代間交流学会誌, 11卷, 2号, pp.21-30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제노사이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631&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보도연맹(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218&cid=46626&categoryId=4662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469>
- 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jp/shuhou/topics/topics03\\_03.html](https://www.jacar.go.jp/shuhou/topics/topics03_03.html)

# 일한 포스트 에디팅 연구

— AI 학습용 병렬 말뭉치 데이터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

南슬기 (韓國外大)

## 1. 서론

2022년 한국문학번역상 웹툰부문 신인상 수상자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일본인으로 한국어 원문을 네이버 파파고로 초벌 번역한 다음 일본어로 매끄럽게 의역하여 번역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번역업계에서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사후편집한 번역본이 인간의 순수 번역 결과물로 볼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한편 고도화된 기계번역과 인간이 어떻게 공진화(共進化)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계번역의 발전은 번역사의 직무 및 번역 과정의 질적, 양적 변화로도 이어진다. 상기의 수상자 사례와 같이 기계번역이 초벌 번역을 한 뒤 번역사가 이를 감수하고 편집(post-editing)하여 최종 번역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스트 에디팅(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MTPE)이라고 한다. 포스트 에디팅 과정은 AI 시대의 인간과 기계의 협업, 더 나아가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O'Brien 2012: 101)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10년간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도 기계번역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번역의 언어적 특징과 품질(지인영·김희동, 2020: 한승희, 2021: 이창수, 2020: 서보현·김순영, 2008), 기계번역 및 포스트에디팅의 오류 유형 분류와 평가(이지은·최효은, 2023: 김자경, 2021: 이선우·이상빈, 2021: 김순미, 신호섭 외, 2019: 광중철·한승희, 2018), 기계번역의 교육적 함의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법 모색(윤호숙, 2023: 마승혜, 2018),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석소영, 2023: 박진영, 2021: 이주리아, 2019),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수용자 및 학습자의 관점(박혜선·최진실, 2023: 임형재·자양관, 2020)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번역 분야 연구의 언어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영어이며 이어서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일본어 순이다. 영어 외의 언어는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윤호숙, 2023).

한국어-일본어 언어쌍에서의 기계번역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연구는 원문과 원문과 기계번역문 간 비교 대조를 통해 도출하는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 분석 및 평가이다(조남성, 2011: 이하자·안동미, 2011: 김중희, 2016: 이선화·권익호, 2011: 김한식, 2022: 이주리아, 2022: 최진희·육심분, 2023). 그 밖에 교육 현장에서의 포스트 에디팅의 적용을 시도한 연구(박혜경, 2008), 한-일 포스트 에디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이주리아, 2018/2019) 등이 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현재 한-일 언어쌍에서 기계번역 산출물과 포스트 에디팅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정확도가 높아진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감수 편집 작업은 기존의 인간번역에 대한 감수 작업과 유사한가? 더 나아가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은 순수한 인간번역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초벌 번역인 기계번역 산출물과 번역사가 포스트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변이(shift) 양상을 살펴보고 기계 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과정의 현주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Homles(1972)의 기술론적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에 속한다. 기존 연구와 같이 연구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 및 준비된 자료가 아닌 실제 통번역 시장에서 최종 납품이 이루어진 원문(Source Text, ST),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산출물, 포스트에디팅(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MTPE) 작업물로 이루어진 세 병렬 코퍼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계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ST-MT 간 변이 양상은?
2.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 작업에서 나타나는 MT-MTPE 간 변이 양상은?
3. 언어 방향에 따른 변이 양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본론

### 2.1 기술번역학과 코퍼스 번역학

1990년대 이후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방법론이 번역학과 만나게 된 것은 체계적인 기술론 번역학(DTS: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Baker, 1993).

Homles(1972)는 기존의 정적인 처방론적(prescriptive) 규범에서 벗어나 기존의 번역물을 이미 ‘등가(equivalence)’를 이룬 것으로 보고 번역의 변이(shift)를 기술하는 접근법을 도입했다. 연구자가 밝힐 것은 불변성과 변형 사이의 균형의 측면에서 등가성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즉, 검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경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텍스트군에서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규칙적인 패턴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Toury, 1995).

번역학에서 코퍼스는 과학적 탐구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로서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코퍼스 데이터의 빈도 및 대표성(representativeness)에 대한 고민과는 별개로 코퍼스는 각 개별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좀 더 일반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준다. 즉, 코퍼스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보다 신뢰가능하고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게 해준다.

최종 분석에서 코퍼스 번역학의 목적은 코퍼스 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이해하는 것이다. 코퍼스의 지향점은 해당 데이터를 대표하는 예시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역 및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 언어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질문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번역품질평가에서 코퍼스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예시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사례 연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해당 사례를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퍼스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의 연결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House, 2019).

본 연구에서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을 통한 최종번역물이라는 코퍼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기계번역 산출물과 포스트에디팅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 지능정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작된 ‘한-일 일상생활 말뭉치’를 대상으로 원문(ST, Source Text), 기계번역 결과물(MT, 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해서 번역사가 감수 및 편집한 포스트에디팅 결과물(MTPE, 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이(shift) 양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이썬의 자연어처리 모듈인 NLTK(Natural language Toolkit)를 활용하여 형태소를 추출한 다음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단어, 구 절 등 각 말뭉치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그간 기계번역이 인간번역보다 원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결과 고빈도 어휘를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동안 인간 번역물에 대하여 제기되어 왔던 ‘단순화’, ‘표준화’, ‘원문 간섭’ 등의 번역투의 특징이 기계번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이창수, 2020)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ST, MT, MTPE 말뭉치 간의 변이 양상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① 문장유사도: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에 탑재된 word2vec이라는 워드 임베딩(word imbedding)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벡터화하여 문장간의 유사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다.
- ② 어휘다양도(TTR, Type-Token Ratio) : 텍스트에서 사용된 고유한 단어의 수와 전체 단어 수의 비율을 말한다. 어떤 텍스트가 어휘 다양도가 낮다면, 해당 텍스트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어휘 다양도는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거나, 작성된 문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 ③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데이터의 패턴이나 군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 ④ 품사 분포 분석: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의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품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 3. 예비 연구 결과

### 3.1 일한 방향

총 585개 문장 중 550건(95%)에 대해 포스트에디팅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번역사가 사후편집하지 않은 문장은 35문장(5%)에 그쳤다. 대부분의 기계번역 산출물에 대해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 작업을 수행했다.

포스트에디팅의 작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장의 전체 음절수 대비 편집된 음절수(변경비)를 살펴본 결과 평균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경비 50%는 문장의 절반 이상을 사후편집한 경우인데 50% 이상이 29건(0.04%)이었다. 즉 번역사는 문장 속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기계번역 산출물에 대해서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MT산출물이 ‘잠가들게요’이고 MTPE결과물이 ‘열쇠를 잠귀 두겠습니다.’인 경우 MT산출물이 전체 삭제되고 MTPE과정으로 문장이 새롭게 생성된 사례인데 이 때 변경비는 200%이다.

### 3.2 한일 방향

총 585개 문장 중 574건(98%)에 대해 포스트에디팅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번역사가 사후편집하지 않은 문장은 11건(2%)였다. 일한 방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계번역 산출물에 대해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 작업을 수행했다.

포스트에디팅의 작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장의 전체 음절수 대비 편집된 음절수(변경비)를 살펴본 결과 평균 51%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번역 산출물의 98%의 문장에서 문장 내 절반 이상의 사후편집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일한 방향에 비해 한일 방향의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한일간 일본군위안부합의 쟁점과 상호인식

— 문재인 정부기 한일간 갈등관계의 변용 —

梁起豪 (聖公會大)

## 1. 문제의 소재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과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쟁점을 둘러싼 역사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 강제징용 쟁점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제3자 채무 인수후, 기금조성과 피해자에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노담화 30주년을 맞이한 2023년 8월 현재, 일본군위안부 쟁점은 일본정부에 배상책임을 확인한 사법부 판결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 어렵고, 양국간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기에 한일간 쟁점으로 떠오른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간 인식, 해결의 기준, 사법부 판결에 대한 해석차로 인하여 상호간 갈등구도가 고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기 한일 갈등 요인으로 대북정책의 격차나 국가 정체성의 차이 등을 지적한 연구물이 있지만, 위안부 쟁점은 문재인 임기 내내 지속된 양국 정부와 국민간 중대한 갈등 사안이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정치, 외교적 과정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으며, 사실과 주장을 담은 저서나 보고서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기에 한일 정부간 갈등 구도로 고착되어간 정치적 과정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목할 점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위안부 쟁점의 주요 주체가 일본 정부 vs 국내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구도에서 “한국정부 vs 일본정부” 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 vs 아베-스가 정부간에 일본군 위안부 쟁점이 극대화되고 상호 불신의 구도가 정착된 과정을 인식, 해법, 판결이라는 3개 변수를 설정하고, 정치적 과정과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 인식, 해법, 판결

### 2.1 인식의 차이

한일 양국간 결정적인 차이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었다. 2017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하 한일 위안부합의 과정을 검증한’ 「보고서」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절차나 내용면에서 흠결이 확인되었다. 국제사회의 보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이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를 반박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간 약속이며, 일본은 약속을 성의있게 이행하고 있다. 한국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관방장관은 합의 논란은 한국 내부의 문제이며,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측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즉 문제의 ‘시간적인’ 의미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방점을 두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해자로서 일본의 사죄나 보상은 끝났고, 한일간 외교쟁점으로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철거될 것이며, 한일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두 번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측이 인식한 ‘기대치에 가까운 약속’이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한일간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한일 외교당국간 합의파기나 재협상은 없지만, 위안부 합의에 의해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야 한다고 보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임을 상기”하지만, 국제규범과 보편인권의 원칙하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일간 논란이 커진 것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었다. 일본정부는 재단 해산이야말로 한국측의 약속 위반 증거라고 압박하였다. 일본 정계와 사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이미지가 확산되어 갔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대한 인식차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일본측은 “재단 설치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고 이것이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당시 일본측 발표문에는 ‘상기 1.(2) 재원 출연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되었고, 한국측 발표문은 ‘일본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함을 전제로’ 되어 있었다.

일본측은 10억엔을 내면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합의 발표 직후, 당시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일본기자 간담회에서 확인하였다.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에 집착한 일본정부’ vs ‘합의를 유지하되, 결함을 지적한 한국정부’간 갈등이 점차 커져만 갔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둘러싸고, 일본내 악의적인 ‘문재인 정부가 합의 파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한국내 일부 공유되면서 대립을 심화시켰다.

## 2.2 해결의 기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는 양국 외교장관의 구두 발표로 종료되었고, 각각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실린 것 외에 문서 자체는 없었다. 일본측 기사다 외상이 발표한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며”라는 표현은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 2016년 6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10억엔 제공과 소녀상 이전이 팩키지라고 주장하였다. 아베 총리 본인은 2016년 10월 국회에서 추가적인 감성 조치로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털끝만큼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측의 무성의한 발언과 행동은 국내 피해자와 지원단체,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위안부 합의 제1항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문구는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것으로 합의의 기본 전제에 해당한다. 제3항에서도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라고 반복하고 있다. 제2항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 되어 있다. 제3항에서 일본정부는 2항의 조치를 착실하게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위안부 합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세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세 개 모두가 합의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제1항에 나온 사죄와 반성, 제2항 일본정부 예산 출연과 재단 설립, 제3항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은 모두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아베 총리의 발언과 행적을 살펴보면, 한일 위안부합의의 결론은 제3항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 간주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에서는 당연히 외교협상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 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실시해야 할 업무 분담과 일정, 상호간 구속 내용 등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행동 계획도 전혀 없었다.

일본측은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 한일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는 커녕, 한국측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제법 위반, 약속 위반을 주장하였다.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10억엔을 출연할 경우, 한일외교 문제에서 한국 국내문제로 바뀌고 나중에 합의 불이행을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우파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본측은 한국에 위안부합의 재검증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반면, 한국은 투트랙 접근(two track approach)을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측에 설명하였다. 한국측은 피해자가 생존한 현재 상태에서 과거사 해결은 어렵고, 이와 별도로 사회문화,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일협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을 일본측에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2.3 사법부 판결과 대응

2021년 1월 사법부 판결 이후 일본군위안부 쟁점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본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내 법원이 피고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주권)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일본국 정부는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사법부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가토 관방장관은 판결이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간에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1)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2)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 3) 또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심 판결 확정을 크게 환영하였다.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됐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며,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위 세가지 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와 아베-스가 정권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수는 일본군위안부 쟁점이었다. 한일간 상호 인식과 국내 여론, 해결의 기준, 사법부 판결의 대립구도는 양국간 불신을 심화시킨 주요 변수이었다.

### 3. 요약과 결론

문재인 정부와 아베-스가 정권간 상호 불신의 근본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인식차에 내재되어 있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후 한일 양국은 북한핵과 미사일 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상호갈등을 봉합해 왔지만, 2018년 들어 과거사쟁점이 돌출하면서 잠복되어 있던 양국간 인식의 차이나 주장의 대치가 갈등구도로 굳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2017년 12월 검증「보고서」 발표,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간 갈등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인식, 과거사 쟁점 해결의 기준, 사법부 판결과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현재의 한일관계를 설명하는데 중대하고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당시 보수적인 일본내 분위기와 우파적인 아베 정권하에서 그 이상의 합의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지적도 많지만, 연구자로서 아쉬운 부분과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친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간 인식의 격차를 낳으면서 상호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해법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양자간 차이를 메꿀 수 없고, 사법부 판결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 과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꼭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계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쟁점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인식, 해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일간 외교협상에서 각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쌍방간 합의점을 찾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협상 매뉴얼에 해당한다. 협상 당시 상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방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후 발생한 갈등은 줄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해결 기준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의 참여가 불가결한 점은 당연하다.

일본군위안부 쟁점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 사법부 2021년 1월 승소 판결이 있는 이상, 사법부 결정을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측은 국내 사법부 판결을 전제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당국과 국내 피해자, 지원단체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일본측은 지금까지 표명해 온 사죄와 반성의 취지를 살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측의 사죄 반성과 한국측의 피해자 구제라는 원칙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日本の大学にみる日本学の現在

— 和歌山大学の実践と結びつけて —

安本博司 (和歌山大)

## 1. はじめに

従来の日本学研究は、日本においては、日本語による日本の視点での国内研究という限界が、また、欧米においては、英語中心による欧米の視点での日本の地域研究・日本語研究という限界があったことが示されている。また、「人文科学の研究者のあいだで、『紛争解決』や『持続可能性(サステナビリティ)』といった現代社会の課題を各自の研究領域の課題としてどのように引き受けるのか、という問題意識が確立されていない(中略)こうした反省に立ち、日本学国際共同大学院では、個々の学問領域を守り、その領域を深掘りする伝統的なあり方ではなく、分野や時代・地域を横断する横の関係の発見に軸足を置く。」(東北大学 日本学国際共同大学院HP)との研究の方向性が示された。他方、「これまでの日本研究では、日本の固有性や特異性がことさらに強調され、その特異性は、日本が近代化する過程で欧米やアジアとの対比において自己言及的に構築されてきたひとつの言説にすぎなかったという自覚に立って、一国的な研究枠組を踏み越えていくこと」(大阪大学 日本学研究室HP)、そして、「日本学専修は、日本を自明なものとして捉えるのではなく、歴史学、民俗学、人類学、文化研究、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研究、表象分析といった多様な方法と視点から日本にアプローチすること」(大阪大学HP)が新たな日本研究の可能性の模索につなが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両大学の日本学は、従来の日本研究とは異なる、日本学に新しい価値を創り出していこうとする姿勢がうかがえる。つまり、日本の中の「日本学」とは何か、という新たな定義、価値を創造するための過渡期にあるともいえる。日本の大学に「日本学」と冠を付けた学部、学科は非常に少ない。また「日本学」と付けたものの多くは「国際」を付け、「国際日本学」という名称を使用している。その理由は、前述の反省に基づき、日本学研究を進めていくうえで新しい価値を創り上げていこうとする姿勢があるからだろう。そこに見える共通のキーワードは、「国際」に関わるものとして、「グローバル」「異なる文化的背景をもつ」他者との協働」「(国内外の)課題解決」「共生」、文化の自明視を避けるためのものとして、「文化の捉えなおし」「海外日本研究の知見」などが挙げられる。また、他の「〇〇日本学」という冠をつけた大学は、日本学をどのように捉え、実践しているのだろうか。前述した両者の大学も含め、それらを分析することは、今後の日本学の方向性や発展の可能性に寄与するものと思われる。本発表では、それらを明らかにしながら、筆者が所属する和歌山大学の「わかやま日本学副専攻プログラム」の科目と結びつけながら、実践報告も兼ねて発表する。



## 2. ○○日本学/日本と名称のつく学部・学科

大学名 *抜粋	学部名	学科名	分野、コース *科目名一部記載
東京外国語大学	国際日本学部	国際日本学科	日本社会分野、日本文学・文化分野 日本語学分野、日本語教育分野
明治大学	国際日本学部	国際日本学部	ポップカルチャー研究領域、社会システム・メディア研究領域 グローバル共生社会研究領域、国際文化・思想研究領域 日本文化・思想研究領域、日本語研究領域 英語研究領域、総合教育科目、外国語科目、日本語科目(留学生対象)
神奈川大学	国際日本学部	国際文化交流学科 日本文化学科 歴史民俗学科	【国際文化交流学科】 多文化共生論、比較文化論、現代国際関係論 【観光文化コース】 観光文化論、観光交流論、English for the Tourism Industry A 【ことば・メディアコース】 メディア・リテラシー、ことばと文化、ことばと社会、 多文化社会と言語政策、 【国際日本学コース】 オリエンタリズム論、国際日本文化論(文化受容)
大手前大学	国際日本学部	国際日本学科	「歴史」「文化」「文学」「言語」関連科目
関西外国語大学	外国語学部	国際日本学科	日本と地域文化に関する科目群、日本と国際社会に関する科目群 言語に関する科目群、日本語教育に関する科目群 教養とキャリアに関する科目群
帝京大学	外国語学部	国際日本学科	国際日本学入門科目:日本の文化、日本の経済と経営、日本の法と政治、日本近現代史、日本の社会、世界の日本研究、世界の日本語教育
名古屋大学	世界教養学部	国際日本学科	【国際日本文化コース】 現代日本の成立、日本の伝統芸術、現代日本の文学、国際日本文化史、日本語の文体 【国際日本発信コース】 日本の国際イメージ、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日本語ジャーナリズム、論説・評論、日本観光英語
四天王寺大学	文学部	日本学科	「日本語・日本文学」「国語教育・日本語教育」「伝統文化・観光」「現代文化」関連科目
和歌山大学	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		【わかやま日本学副専攻プログラム】 日本学概論、日本学特論、日本学演習、日本事情、世界の中の日本語 外国語として学ぶ日本語、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わかやまを学ぶ、民族芸能論、国際協力論、グローバル社会論など

## 3. わかやま日本学副専攻プログラム

和歌山大学の「わかやま日本学副専攻プログラム」は、2023年度よりスタートしたばかりのプログラムである。主専攻として設置されている他の国際日本学に比べ、選択できる科目や内容は必ずしも十分とは言えないまでも、他の大学と問題意識は共有している。副専攻の目標として、「日本文化が集積する和歌山の地に根付く知恵や知識の学びと体験を通して、日本語とその背景にある日本文化を統合した日本学を修め、日本文化への深い理解力を培う。様々な国の学生と共に日本学を学ぶことで、日本及び世界の諸課題をグローバルな課題の中に位置づけながら、理解、表現する能力を涵養する。」ことを挙げている。また、具体的な学修目標とし

て、(1) <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では、日本語または英語・初修外国語科目を履修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基礎的な力を身につけること。(2) <理解と表現>では、紀伊半島を中心とした日本文化体験を通して、和歌山への深い理解力を培い、日本文化、日本社会への関心を高め、国内外の人々にその学びを発信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3) <俯瞰的な視野>では、「わかやま日本学副専攻」を通して学修・体験したことを国際的な視点や母国の視点から位置づけるとともに、多種多様な人々との交流・協働の経験を通じて異文化を理解する能力及び実践力を身につけることを挙げている。

以上の内容は、前述した他大学の国際日本学の概要、目的などから導き出されたキーワード、「国際」に関わる「グローバル」「異なる文化的背景をもつ他者との協働」「(国内外の)課題解決」「共生」とも重なるところが大きい。そういう意味では、わかやま日本学も、国際日本学と通じるものがあるが、ここに「わかやま」と名付けたところに独自性がある。これは、日本の「わかやま」での学びや、そこで見えてきた課題が、グローバルな課題とも関連し、世界の諸課題に繋げていこうとする、あるいは繋がっていることへの気づき、理解を目指していることにあるからだろう。この「グローバル」から「グローバル」へという視点は、クリストファー・グレイグ(2022)が歴史研究を例として挙げ、ローカルな地域研究がいくつかの点で世界に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示したことは、地域研究を、地域内で完結するのではなく、グローバルな視点、課題の中に位置づけていくという本学の日本学が目指す方向性を後押しするものでもある。

#### 4. まとめ

本発表では、他大学の日本学の概要、目的などを、より詳細に把握しながら、現在、求められている日本学とは何か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和歌山大学の「わかやま日本学副専攻プログラム」の実践についても紹介する。

#### <参考文献>

クリストファー・グレイグ(2022)「日本学のための歴史学的手法とその実践」伴野文亮・茂木謙之介(編)『日本学の教科書』文学通信

# 저출산고령화시대 일본의 규제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송정현 (동국대 일본학과)

## 1. 서론

- 일본 정부의 국토계획은 1962년에 책정된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수도권 일극 중심 현상의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국토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7월 제162회 통상 국회에서 「국토 종합 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수정하였음
- 일본에서 「국토형성계획」이 6차에 걸쳐 시행되었지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상이 지속, 이에 2014년 이후부터 지방창생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 개선과 함께 수도권 일극중심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에도 활력 넘치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12월 27일,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창생을 목표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과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6월 30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5」을 수립
  - 기시다 내각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을 발표하였고, 기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의 목표에 휴먼, 디지털, 그린을 추가하며 지방창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표1> 참조)

<표1> 아베 내각과 기시다 내각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의 주요 목표

아베 내각		+	기시다 내각
기본목표	횡단적인 목표		
지역 내 일자리 증가 (稼ぐ地域をつくとともに、安心して働けるようにする)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추진 (多様な人材の活躍を推進する)		휴먼
지방으로의 인구유입 증가 (地方とのつながりを築き、地方への新しいひとの流れをつくる)			디지털
결혼·출산·육아 지원 (結婚・出産・子育ての希望をかなえる)	시류의 변화를 활용 (新しい時代の流れを力にする)		그린
사람들이 모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ひとが集う、安心して暮らすことができる魅力的な地域をつくる)			

출처: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15),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5」,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1),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은 국가전략특구제도, 규제샌드박스, 지방분권개혁,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특구 및 규제특례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관한 대응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본론

- 현재 일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전략특구제도’ 및 ‘규제샌드박스제도’로 대표될 수 있음
- (국가전략특구제도)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3가지의 특구제도를 실행 중
  - 구조개혁특구: 특례로서 조치된 규제개혁사항이면,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종합특구: 특정 지역·테마와 관련된 규제의 특례 조치 및 재정 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
  - 국가전략특구: 완화된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암반규제개혁에 돌파구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

<표2> 특구제도의 분류

구조개혁특구(2022.12)	종합특구(2011.06.)	국가전략특구(2013.12.)
·완화된 규제는 (같은 조건이라면) 전국에서 활용 가능 ·정부 부처간 직접 조정 ·평가조사위가 전국화를 추진	·완화된 규제는 종합특구에서 활용 가능 ·국가와 지방의 협의회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	·완화된 규제는 13개 특구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 ·민간 지식인이 조정을 주도 ·특구 지역의 대응을 평가, 전국조치로의 확대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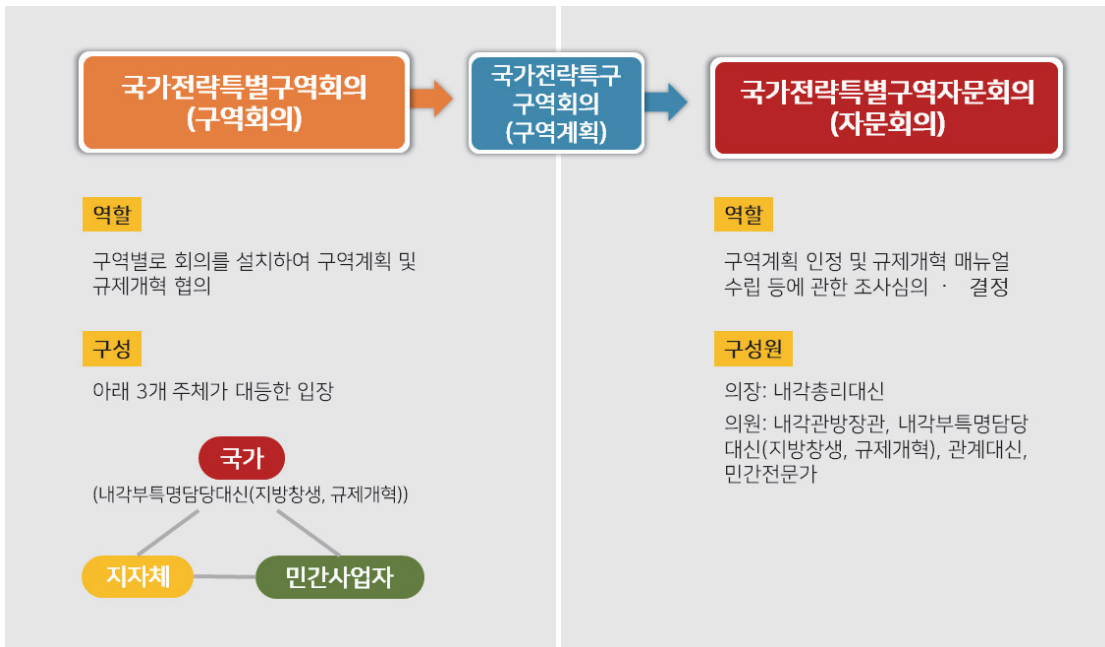
출처: 内閣府国家戦略特区. 制度概要. 의 그림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kokkasenryakutoc.html> (검색일: 2023.07.30.)>

- 특구제도 중 가장 최근의 제도인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성장전략 실현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경영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수립
  - 2013년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바탕으로 시행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은 신성장 분야의 집중 육성, 관련 규제개선을 특정 구역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함.
  - 국가전략특구의 3대 운용원칙은 ①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② 신속성, ③ PDCA(Plan-Do-Check-Act)에 근거한 평가
  - 국가전략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됨
  - 국가 지정 신성장분야의 집중 육성, 경제활동 거점화의 촉진 등은 기존 특구와 국가전략특구의 공통점이나,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 및 적용한다는 부분은 기존 특구와 국가

전략특별구역 간의 차이점으로 나타남

- 또한 기존 특구(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계획을 제안하는 상향식 규제개혁의 대처가 이루어졌으나, 국가전략특구는 국가가 대상지역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각 구역마다 놓여지는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에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구역 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짐)
- o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와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등의 두 조직이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담당함 (<그림1> 참고)

<그림1> 국가전략특구 운영 체계



□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례조치 창설’<sup>2)</sup>과 실현된 특례조치를 지자체나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사업인정’의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sup>3)</sup> (<그림2>참조)

- o 규제특례조치는 국가전략특구 지역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규제특례조치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개별사업인정’과정을 거쳐야 함
- o **특례조치 창설**
  - ① 지자체, 사업자 등 제안자로부터의 제안
  - ② 민간 지식인이 주도하는 특구 워킹그룹이 조사·검토
  - ③ 필요에 따라 특구자문회의가 심의하여 각 소관대신의 동의를 얻은 후 대응방침을 결정
  - ④ 특구법이나 관계법령 등의 개정 등을 통해 특례조치 실현

1) 首相官邸(2019.03.19.), 国家戦略特区.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검색일: 2023.07.30.)>

2) 특례조치 창설을 위한 규제 완화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있음.

3) 内閣府(2023), 「国家戦略特区の活用事例」

○ 개별사업인정

- ① 사업자를 공모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나 관계부처도 함께한 각 구역의 분과회를 개최
- ② 국가, 지자체 및 공모사업자로 구성된 구역회의가 구역계획안을 책정
- ③ 특구자문회의가 그 구역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총리가 인정
- ④ 인정 결과 규제 특례조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전략특구는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일본정부는 국가전략특구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sup>4)</sup>

○ 일반 국가전략특구(一般的な国家戦略特区)

- 1차 지정(2014년 5월): 도쿄권·간사이권, 니가타 시·요부 시, 후쿠오카 시·오키나와현
- 2차 지정(2015년 8월): 센보쿠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 3차 지정(2016년 1월): 치바시, 히로시마현 이마바리시, 기타큐슈시

○ 슈퍼시티형 국가전략특구(スーパーシティ型国家戦略特区)

- 2022년 4월 지정,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오사카부·오사카시

○ 혁신사업연계형 국가전략특구(革新的事業連携型国家戦略特区)

- 건강, 의료에 관한 과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임하는 자치단체를 복수 정리하여 디지털전원건강 특구(가칭)로 지정, (오카야마현) 기비추오쵸우, (나가노현) 지노시, (이시카와현) 가가시

□ (규제샌드박스제도) 일본의 규제샌드박스제도

- 규제샌드박스제도란 IoT, 블록체인,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나 플랫폼형 비즈니스, 세어링 이코노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시가 현행 규제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토대로 규제 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실증을 실시하고, 실증을 통해 얻은 정보나 데이터를 이용해 규제 재검토로 이어가는 제도임.<sup>5)</sup>
- 2018년 6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에 따라 제도가 창설됐고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이관·향구화됨

<표3> 규제샌드박스의 성립배경, 근거법률 및 목적

성립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IoT·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의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등장</li> <li>·국제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실용화를 조기에 실시하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함으로써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li> </ul>
근거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6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li> <li>·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새로운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신속한 실증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실증으로 얻은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화, 규제개혁을 추진</li> </ul>

출처: 内閣官房 新しい資本主義実現本部事務局 新技術等社会実装推進チーム(n.d.),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新技術等実証制度)について」 p.4.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4)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2.04.05.), 「国家戦略特区について」

5) 内閣官房.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 <<https://www.cas.go.jp/jp/seisaku/s-portal/regulatorysandbox.html> (검색일: 2023.07.30.)>

□ 규제샌드박스의 5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실증우선 원칙 (Try First): 새로운 사업 및 정책 집행에 우선권 부여
- ② 리스크 관리: 참가자 및 기간 제한, 참가자에 대한 동의 확보 등
- ③ 통합,일원 관리 체제: 관계 부처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④ 실무지원 및 사후 검증체계 수립: 환경정비 지원, 실증성과를 정책개선 등에 반영
- ⑤ 최고경영진의 관여: 최고경영진이 주도하는 혁신의 추진

<표4> 일본 규제샌드박스 5원칙

5원칙	주요 내용
I 실증우선주의 (実証優先主義)	기존 규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해보는(Try First)’ 것을 우선함
II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 (リスクの適切な管理)	실증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는 참가자와 기간을 한정하여 통보(실증내용과 리스크를 설명한 후 참가동의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행.
III 중앙정부 집중체제 (高いレイヤーでの政府一元的な体制)	규제샌드박스 관련 대응을 각 부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 간 효과적인 조정 권한을 발휘하여 사회전체의 성장전략을 부처 간 횡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앙집중식 체제를 구축.
IV 실습지원과 사후검증 (ハンズオン支援と事後的な検証)	실증 관련 유연한 대응체제, 실증 후 얻어지는 데이터 확보 등 실무지원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규제정비와 정책입안에 활용함. 특히 실증 실패 데이터도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
V 최고경영자의 관여 (トップマネジメントの関与)	혁신을 증시하는 관점의 일환으로, 각 부처의 담당부서의 규제집행 및 개선방침은 다른 부서와 연계성이 있는 상위직할부서가 책임관한을 지님.

출처: 内閣官房 日本経済再生総合事務局(2019),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について」

## <참고문헌 >

- 정우성, 송정현(2020), 규제혁신관점에서 본 한일 규제샌드박스제도 비교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1), 158-175.
- 内閣府(2023), 「国家戦略特区の活用事例」
-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15),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5」
-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1),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
-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2.04.05.), 「国家戦略特区について」
- 内閣官房 日本経済再生総合事務局(2019),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について」
- 内閣官房 新しい資本主義実現本部事務局 新技術等社会実装推進チーム(n.d.),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新技術等実証制度)について」
- 内閣官房.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 <<https://www.cas.go.jp/jp/seisaku/s-portal/regulatorysandbox.html> (검색일: 2023.07.30.)>
- 内閣府国家戦略特区. 制度概要.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kokkasenryakutoc.html> (검색일: 2023.07.30.)>
- 首相官邸(2019.03.19.), 国家戦略特区.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검색일: 2023.07.30.)>

# 지역의 음악 축제와 주민참가

: 센다이(仙台) 조젠지 스트리트 제즈 페스티벌

이영화 (토호쿠대 박사과정)

## 1. 서론

최근 일본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음악, 미술, 스포츠 이벤트 중심의 축제와는 달리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자연환경 특성이나 연계성을 활용한 문화 예술적 축제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클래식 페스티벌’, ‘제즈 페스티벌’, ‘스트리트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의 지역 축제가 매년 140개 이상 열리고 있다(각주). 일본 전역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보편성, 즐거움, 참여성 등이 주민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지역 차원에서 도입되는 시기는 대체로 1950년 이후이다. 1957년 가루이자와(輕井澤) 현대음악제, 1958년 오사카(大阪)국제음악제가 시초이다(山本 美紀 2002). 그리고 1961년 동경(東京)에서 동경세계음악제가 개최되었다. 이 당시 뮤직 페스티벌이 도입된 지역은 동경과 오사카지역과 같은 대도시이다. 가루이자와지역에서 열린 현대음악제는 유학과 신진 작곡가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가루이자와지역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별장지, 휴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악적 인적 자원이 존재하는 특정지역에서만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5년 유후인(湯布院) 음악제, 1978년 나고야(名古屋) 국제 뮤직 페스티벌, 1979년 후쿠오카(福岡) 규슈(九州) 현대 뮤직 페스티벌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접어들어 일본경제가 버블시대로 접어들면서 뮤직 페스티벌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 군마 쿠사츠(群馬 草津) 여름 국제 뮤직 아카데미, 가고시마지역에서 기리시마(霧島)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1985년 홋카이도 오타루(小樽) 국제 뮤직 페스티벌, 1986년 츠루오카(鶴岡) 뮤직 페스티벌, 1987년 동경 산토리 음악재단 여름 뮤직 페스티벌, 1985년 츠쿠바(筑波) 국제 뮤직 페스티벌, 1988년 나가노(長野)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1987년 후쿠이(福井) 하프 뮤직 페스티벌, 1989년 기후(岐阜) 국제 뮤직 페스티벌 시라가와(白川), 1987년 구라시키(倉敷) 뮤직 페스티벌 등이 개최되었다.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 도입된 뮤직 페스티벌의 대부분은 지역 자치단체 주도나 음악 연주시설 건립과 관련성이 깊다. 1958년 오사카국제음악제는 아시히신문 오사카 신사옥과 음악홀 준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61년에 개최된 동경세계음악제는 동경문화회관 준공을 기념하여 시작되었다. 1985년 츠쿠바 국제 뮤직 페스티벌, 1986년 돗토리(鳥取) 수확제 뮤직 페스티벌도 지역의 음악관 준공을 기념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음악관 건립을 계기로 시작하는 뮤직 페스티벌은 1990년 이후까지도 이어졌다. 1994년 교토(京都) 뮤직 페스티벌, 1993년 오사카 빈 뮤직 페스티벌, 1995년 오카야마(岡山)



뮤직 페스티벌 등도 지역의 음악관 건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연주 시설 건립 이외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국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명분으로 뮤직 페스티벌 개최가 증가한다(川口夏織 2010). 1988년 나가노 국제 뮤직 페스티벌(미국 콜로라도 아스펜(Aspen)시), 1992년 후쿠이 다케오(武雄) 국제 뮤직 페스티벌(핀란드 헬싱키), 1995년 기후 리스트음악원 뮤직 페스티벌(헝가리), 1997년 나라(武雄) 이탈리아 음악제(이탈리아 Ortona시) 등이다. 또한, 음악 악기 구매를 계기로 지역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되는 계기도 적지 않다. 1987년 돗토리지역은 스타인웨이 피아노 구입, 1989년 기후지역은 첼바로 구입을 기념하여 쿠라(藏)마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지역 뮤직 페스티벌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음악전문가, 음악협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특정 기업의 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건물이나 악기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古賀 弥生 2012). 그러나 1990년 이후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이러한 지역 뮤직 페스티벌 개최 양상은 전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뮤직 페스티벌 연구는 지역 문화의 향상이라는 문화적 관점, 사회적 관점(谷口 雅春 2005), 전문가 교육 및 학교 교육 지원이라는 교육적 관점(小泉元宏 2009), 경제적 관점(江藤滿正 2016; 일본경제신문 2018),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재생, 지역 진흥이라는 관점에서도 분석하는 논문들(古賀 弥生 2012; 三谷秀兵 2018)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뮤직 페스티벌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 2.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배경과 출범

1991년부터 「조젠지도오리 재즈 페스티벌(JOZENJI ST. JAZZ FESTIVAL IN SENDAI)」이라는 명칭으로 시민주도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출범하였다. 1991년 조젠지도오리 재즈 페스티벌이 정식출범하는 배경에는 센다이지역의 국제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1988년 센다이는 국제 컨벤션 시티로 지정되었다. 1989년 정령지정도시로 승격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센다이 국제공항이 준공되어 센다이-서울 아시아나가 출항하였다. 1982년 11월 개통된 토호쿠신칸센이 1991년 동경역까지 연결되었다. 그리고 1992년 센다이의 국제화를 상징하는 국제센터가 오픈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센다이지역의 내실 있는 국제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젠지도오리 재즈 페스티벌이 기획되었다.

1986년 조젠지 도로의 느티나무 가로수에 LED 전등을 부착하는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제안하였다. 조젠지 도로는 전전 시기 센다이를 상징하는 거리였다. 막부시대 다테마사무네(伊達政宗)번의 중심지였다. 특히, 조젠지 도로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조성된 오래된 가로수가 즐비하였다. 결국 조젠지 도로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민의 아이덴티티와 결부된 도로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군의 폭격으로 가로수가 불타고 도로는 폐허로 변하였다. 폐허가 된 도로의 원상복구문제는 센다이지역의 제일 우선적인 도시재생 과제였다.

동시에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이 조젠지 도로라는 야외에서 재탄생된 이면에는 지역의 자연자원으로서 조젠지 도로, 막부시대부터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유지되어 온 조젠지 도로, 그리고 지역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아 온 케야키(느티나무 가로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음악 또는 재즈에 대한 철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일본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지역 음악가인 사카키바라는 재즈는 야외에서 연주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재즈

뿐만 아니라 오페라도 야외공연이 일상적이며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1년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조젠지 도오리 마을만들기협의회 멤버, 지역 음악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1년에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었다. 1992년에는 21명으로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 멤버와 지역 음악가의 학연이나 지연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지역주민, 일반 시민의 참가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즐기는 축제를 본격적으로 표방하였다(菊地昭典 2004).

### 3.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의 전개과정

1991년 시작된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참여하는 음악 연주자가 5,000명 이상, 관객 수 8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음악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1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집행위원회는 행정이나 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참가 비용과 시민들의 지원에 의한 시민축제 운영을 천명하였다(八木良太, 2020). 1997년부터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연주자는 1인당 1,000엔을 운영비 형식으로 부과하였다. 당시 음악 축제 연주자에게 참가비를 부담시키는 사례는 거의 드물었다. 그리고 축제 운영을 위한 시민 자원봉사자 모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98년부터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당일에 진행되는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준비위원회에 일부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센다이시에서도 2000년부터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민 행사로 인정하고 시가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기업들의 협찬, 협력도 늘어났다. 그러나 센다이시의 지원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식행사로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9년 경우, 센다이시가 지원한 예산은 200만 엔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운영 예산의 3.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의 기부, 참가비, 물품 판매 등으로 충당한다. 1998년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참가하고, 음악 축제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간 중 프리마켓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시민 참여에 의한 일본 최대의 음악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19; 八木良太, 2020). 2019년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 자원봉사자 수는 841명이다. 이 중 일반 시민이 459명, 학생 자원봉사자가 382명이다. 시민들은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의 기획, 준비, 당일 운영, 기부금 모금, 관련 물품 판매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 예산 측면에서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시민이나 지역사회 기업이 기부금이나 협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이벤트의 기획단계부터 예산조달, 그리고 페스티벌 기간 중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도 시민들의 참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지역의 음악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시민, 페스티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 제공하는 역할로서 시민, 그리고 행사 자체를 운영자로서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밴드 수는 25개에서 710개로 28배 증가, 참가 연주자 수는 150명에서 5,131명으로 34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설치 무대 수는 9개에서 92개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대 수는 무한정으로 늘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제한하고 있다.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참여자 수가 2011년 2012년에는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

참가 밴드 747, 관객 수 7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참가 밴드 769, 참여 연주자 5,257명, 참여 관객 수가 84만 명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 4. 평가와 함의

샌다이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시민이,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지역 음악 축제라는 점을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도 일반 시민이다. 전문 연주자들은 어드바이저 형태로 참여한다. 페스티벌 기간 중 재즈 연주가 열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주로 시민이다. 시민광장, 지역의 공공 문화예술시설이나 지하철역, 대로변, 공원, 학교 이외에도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곳은 시내 전역이다. 실제로 시민광장, 문화예술시설 등에서는 대형 밴드의 공연이 진행된다. 소규모 밴드들은 실제로 시내의 상점이나 상점 앞 공간, 기업의 공지, 카페,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뿐만 아니라 음악 페스티벌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시민들이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매년 페스티벌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예산을 조달하는 역할도 역시 시민이 담당한다. 실제로 2019년 경우, 시민 개개인이 기부금 형식으로 모금한 금액이 745만 엔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금도 페스티벌 운영 예산에서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간 중 기념품이나 프로그램에 홍보비 형식으로 지역의 기업, 단체가 협찬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운영비용 대부분이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행사에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아이덴티티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의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 상호가 연결되고, 이해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은 시민들의 지역 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주민의 참여는 주민 간 상호 연대감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은 출범 초기부터 조젠지 스트리트가 가지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조젠지 도로는 막부시대 다테마사무네(伊達政宗)번의 중심지이자 메이지 시대부터 조성된 오래된 가로수가 준비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인식하였다(志賀野桂一 2005). 이러한 지역성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조젠지 도로 인근 상가나 지역민 중심으로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이 시작되었다. 더구나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 즉 「杜の都」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확장해가는 방법이다. 재즈 페스티벌은 지역의 과거를 미래로 연계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재즈 페스티벌 운영에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대거 참여하는 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古賀生 2004).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행사를 지원하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과 활동은 미래세대를 지역과 연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국, 지역은 사회화 과정의 교실로 작용하고 지역의 젊은 층과 기성세대가 심리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장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조젠지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이 가지는 지역 활성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활성화 효과는 매년 8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부족하다. 페스티벌이 지역주민의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 그리고 미래세대에 미치는 사회 교육적 영향은 지역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 <참고문헌>

- 江藤滿正, “ロックフェスティバルの経済波及効果比,” 『尚美学園大学芸術情報研究』 第25号、2016, pp.1-16.
- 菊地昭典 『人を呼ぶ市民の祭り運営術』 学陽書房, 2004.
- 小泉元宏. “市民社会との関わりから見た音楽祭研究に向けて,” 『音楽教育学』 第39巻2号, 2009.
- 志賀野桂一, “地域文化活動と自治体: 楽都・仙台を事例に,” 『地方自治職員研修』、第5号、2005, pp.40-42.
- 八木良太. 『それでも音楽はまちを救う』. イースト新書. 2020.

# 日本における地方議員のDC(デジタ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活用の論点

： 市区町村議会事務局調査および市区町村議意識調査から考える

河村和徳\*

## 1. 新型コロナ禍における日本の市区町村議会

COVID-19による世界的なパンデミックは、あらゆる分野でのDCの必要性を喚起した。その中で、日本は「デジタル技術が活用できない『デジタル敗戦』国」という現実が明らかとなった。日本において非常に遅れている地方議会のデジタル化を進めるにあたり、ポイントとなるのが、情報端末を利用したデジタ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以下、DC)である。

本報告では、筆者が座長を務めた全国都道府県議会議長会都道府県デジタル化専門委員会<sup>1)</sup>や第33回地方制度調査会の議論<sup>2)</sup>を意識し、筆者の研究チームが実施した市区町村議会軸局調査(以下、事務局調査<sup>3)</sup>)や市区町村議に対する意識調査(以下、議員調査<sup>4)</sup>)のデータを利用しながら、日本の地方議会におけるDC活用の意義などについて報告することとする。

## 2. 日本における議会事務局調査にみるデジタル化の課題

筆者の研究グループは2021年度末に全国の市区町村議会事務局を対象に実施した郵送調査を実施した。その結果、コロナ禍において市区町村議会の多くが、議場に入るときの手指の消毒などの対症療法的な方策は実施したが、オンライン委員会の環境整備といったDC活用策を採らなかった。

コロナ禍という教訓を経た市区町村議会事務局が議会のデジタル化を阻む壁と考えているのが「財源」と「議員間のデジタルディバイド」である(図)。デジタル技術を導入するイニシャルコストが気になる議会事務局は多く、それと同程度の議会事務局が、情報端末を使うことが不得手な議員の存在を気にしている。デジタルが苦手な彼らは、デジタル化を進めるにあたっての抵抗勢力になりうるからである。

\* 東北大学大学院情報科学研究科准教授, E-Mail: kwmr3@sp.is.tohoku.ac.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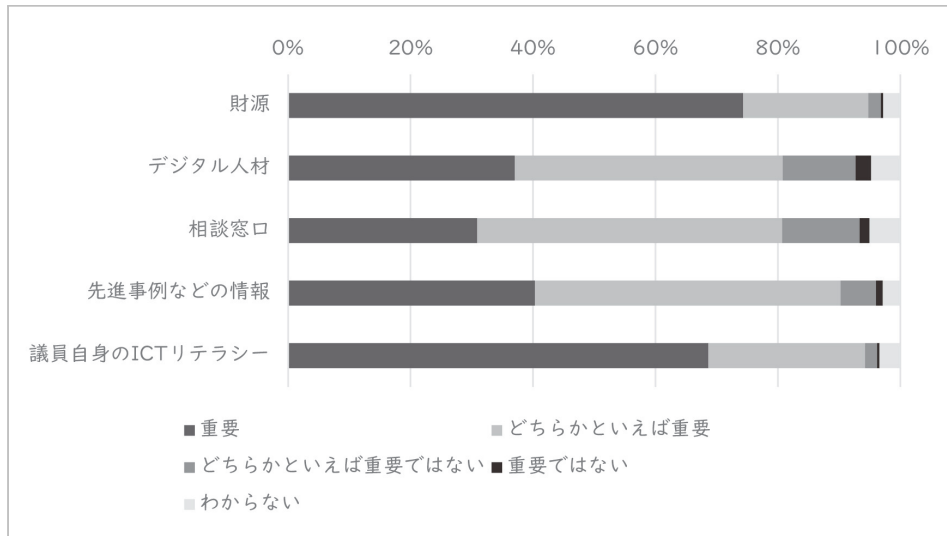
1) 全国都道府県議会議長会 <http://www.gichokai.gr.jp/kenkyu/index.html> (2023年6月11日閲覧)

2) 総務省 [https://www.soumu.go.jp/main\\_sosiki/singi/chihou\\_seido/singi.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singi/chihou_seido/singi.html) (2023年6月11日閲覧)

3) 事務局調査の回収率は87.0%である(市区96.2%、町83.0%、村70.1%)。この調査は、セコム科学技術振興財団及びSKDDI財団調査研究の助成で実施した。

4) 前出の議会事務局調査の後、筆者の研究グループは全国の市議会議員・特別区議会議員に対して悉皆郵送調査を実施した(回収率は40.6%)。また町村議員に対しては6県(宮城・福島・石川・福井・山梨・熊本)をサンプルとし郵送調査を実施した(回収率は46.1%)。これらの調査の実施にあたっては、KDDI財団の助成及び科研費(20H00059)を利用した。

<図> 議会事務局からみてデジタル化を進める上で重要な項目



\* 出典:筆者作成

将来、デジタルネイティブ世代が人口の多数派になるのだから、地方議会のデジタル化は時間が解決する、という考えることはできる。しかし、筆者は、この意見には反対である。理由は2つある。

第1の理由は、日本人は「喉元過ぎて熱さを忘れやすい」存在と思うからである。東日本大震災の教訓が活かされていないのが好例である。東日本大震災のとき、被災地の議会の中には、道路が不通になるなど議場に議員が参集できない状況が生じた。しかし、そうした教訓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被災地の議会のデジタルは進んでいない。

第二の理由は、コロナ禍を機に住民の多くがデジタルに触れる状況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議会が何もしないのは望ましくないからである。政治家は住民のために働く代理人である。雇い主である住民がデジタル活用し始めている一方で、代理人の議員たちはデジタルを活用しないという状況は、地方議会・議員に対する信頼を揺るがしかねない。住民の附託に応える観点から、地方議会のデジタル化は進められるべきである。

### 3. インターネット選挙運動と地方議会のデジタル化

地方議会のデジタル化の議論を進めるにあたり、日本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選挙運動の現状についても確認しておく。一般的に、選挙で支持を集めるには有権者との距離を縮めることが大事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日本の選挙運動は、後援会や支援団体といった組織をテコに支持を広める組織戦がいまだに中心である(表)。もちろん、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SNS)などを通じて有権者の支持を獲得するネット選挙運動は若い候補者を中心に有効となりつつあるが、若年層の低投票率もあり、サーバー空間だけしか選挙運動しないのでは郡部で当選することは厳しい。

<表> 直近の選挙で重視した集票手法

分類	内容	市区議	町村議
地上戦	支援団体・支援組織への挨拶回り	50.8	40.5
	集会をこなす	19.4	14.3
空中戦	パンフレットやリーフレットの配布	58.7	46.0
	街頭演説・辻立ち	52.4	30.9
	見栄えのよいポスターづくり	5.5	7.6
	電話による働きかけ	18.9	24.5
サイバー戦	ホームページ、ブログでの情報発信	12.6	4.1
	SNSの活用	21.7	8.6
その他	選挙公報の記述	9.9	15.1
	その他	2.4	3.3

\* 出典:筆者作成

なお、日本では、コンピュータの利用が一般的になり、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したのは1990年代であり、1990年代以降に政治的社会的な経験した世代とそれ以前の世代の間に境界があることがうかがえる。

#### 4. 日本における地方議会のデジタ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活用の論点

このような中で、日本では地方議会におけるDC活用は、どう考えられているか。日本では、議員・議会事務局間におけるDCと、外部有識者や住民など議会外との間のDCに大別して考える傾向にある。

##### 4.1 地方議員・議会事務局間でのDC活用の論点

日本で重視されているのは、DCによる危機に強い議会づくりである。日本は災害大国であり、危機下でも機能する議会という視点でDCを活用しようとしている。また、審議に参加したい議員をDC活用でできる限り減らすという「デジタルインクルージョン」的視点も有効とされている。

更に、日本の地方議会に財政的に厳しく、オンラインを活用し議会費を抑制するという視点もある。視察の旅費や参考人招致にかかるコストを抑制するという発想もある。

##### 4.2 DC活用による議会－住民関係の再構築

日本の地方議会の中には、議員が地域に出向き対面で住民説明会を行っているところがある。住民と顔を合わせることは議会に対する信頼を勝ちうる有効な手段であるが、参加者が高齢男性や当該案件に高い関心を持つ住民に固定されやすいという課題を抱えている。また、そのような会議において、若者や女性は遠慮がちである。そこで、住民の声を聞く環境をDCで再構築するという発想が生じつつある。

地方議会は住民の縮図になるべきである。もちろん今日の地方議会の議員の意見分布は自由選挙の結果を前提としているので、住民の属性分布と議員の属性分布は必ずしもイコールにはならない。しかし、日本の地方議会の多くは高齢男性に偏りすぎている。そして、前述のように対面の意見交換会では、声の大きい高齢男性の声ばかりが議員に届きやすい。それを克服しようとするのである。

## 5. 議会のデジタル化の第三段階を目指して

日本における地方議会のデジタル化を発展段階的に、ICTリテラシーが乏しい議員であってもデジタル化の意義を感じられる第一段階の「ふれる段階」がまずあり、その次に本稿で論じているDCを活用する段階、第二段階の「つながる段階」がある。デジタル活用で先頭を走っている日本の議会は第二段階にいと評価できるだろう。

しかし、韓国では、オープンデータやオープンドキュメントを利用して議会運営や政策形成に活用する第三段階の「つかう段階」に進もうとしている。そうした動きを参考にデジタル化の推進を図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 <謝辞>

本報告は、セコム科学技術振興財団及びKDDI財団調査研究の助成、ならびに科研費(20H00059)、日本学術振興会二国間交流事業(韓国研究財団との共同研究 JPJSBP120228801)の成果の一部である。



# ポスト・コロナにおける日本の地方選挙の現状と課題

堤英敬(香川大 法学部)

## 1. 問題関心

今日、日本の地方議会選挙に対しては、投票率の低下や候補者の属性の偏りなど様々な課題が指摘されているが、本報告ではそのうち、無投票当選の問題に焦点を当てる。日本の選挙制度では、議会選挙において候補者数が選挙区定数を超えなかった場合、投票を行わずに当選者を決定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つまり、無投票当選となった選挙では、有権者が代表者を選択する機会を持たないまま議会が構成されることになるが、こうした状態は、代議制民主主義の基本的な理念がなござりにされ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地方議会選挙の現状を見ると、市区や政令指定都市の議会選挙における無投票当選は少数にとどまっているものの、町村議会選挙や都道府県議会選挙では無投票当選者が増加する傾向にある(石上 2019)。このうち町村議選については、いわゆる議員の「なり手不足」問題として社会的な関心が高まっ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都道府県議選の無投票当選に対しては、必ずしも強い関心が向けられている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われる。また、選挙区が地理的にも人口的にも一定の規模を持ち、潜在的な候補者も一定数存在することが想定される都道府県議選における無投票当選は、「なり手不足」を背景とした町村議選における無投票当選(河村 2020)とは異なる問題として捉え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そこで本報告では、都道府県議選における無投票当選に焦点を当て、その発生メカニズムについて量的なデータを用いて検討していく。

## 2. 無投票当選が生じるメカニズム

地方議会選挙における無投票に関しては、これまで先行研究において様々な要因が検討されてきた。市区町村議選については、小規模で農村的な特性を持つ自治体や議員報酬が低い自治体、選挙区定数が小さい自治体の議会選が無投票になりやすい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小林 2015; 長野 2019)。これに対して都道府県議会選挙の場合、基本的に選挙区が市区や郡を単位として、あるいは市区と町村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設定されていることから、選挙区の都市化度は(特に町村単独の場合より)高くなる傾向があり、都道府県議会議員の報酬は、平均的な市町村議会議員より遙かに高額である。したがって、選挙区特性や議員報酬の影響は市区町村議選の場合より小さく、別の要因が重要だと考えられる。

都道府県議選の無投票当選に関しては、石上(2020)が、2019年時点で直近の都道府県議選におけるすべての選挙区を対象としたデータに基づいて、包括的な計量分析を行っている。石上(2020)によれば、選挙区定数が小さい選挙区や、選挙区の区域や選挙区定数の変更があった選挙区(茨木(2017)も参照)、現職が全員立候補している選挙区、国政選挙における共産党の得票率が低い選挙区などで無投票当選が起りやすいという。これらの要因の中で、(選挙区の人口規模を考慮しても)特に無投票当選と強く関連しているのが選挙区定数である。無投票当選が特に多かった2017~20年の時期で見ると、定数1の場合、半数を超える

54.3%の選挙区で、定数2の場合、37.6%の選挙区で無投票当選となっていたのに対し、定数4～5、定数6以上の選挙区で無投票当選となったのは、それぞれ13.6%、1.5%と、選挙区定数が小さいほど無投票当選が生じやすくなっている。

こうした先行研究からは、新たな候補が選挙戦に参入するハードルが高いとき、つまり、都道府県議選への出馬を検討している潜在的な候補者が、自身の当選可能性は小さいと判断しそうな状況において、無投票当選は生じやすいと考えられる。しかしながら、先行研究では、潜在的な候補者の当選可能性の低さが無投票当選に繋がるのが厳密に検証されてきたわけではない。例えば、現職の存在は潜在的な候補者に立候補を躊躇させる要因となるだろうが、選挙に強い現職と弱い現職がいることも確かである。また、首長選を対象とした研究では、現職の当選回数が多いほど無投票当選になりやすいが、4～5回を超えると無投票当選となる可能性は低下する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鷲見 2017)。そこで本報告では、新たな候補が選挙戦に参入するハードルが高い状況を特定し、それらと無投票当選との関係を分析していく。

### 3. 仮説と分析枠組み

都道府県議選に立候補を検討している人は、どのようなとき自身の当選可能性を低く見積もり、立候補を諦めてしまうだろうか。まず考えられるのは、現職候補の人数である。日本の都道府県議選では現職の再選率が高い(2009年以降の集計では87.9%)ことから、現職が全員立候補すると新人候補が割って入る余地は非常に小さくなるが、現職が少なくなれば新人候補の勝機は高まっていくだろう。また、仮に現職が全員立候補したとしても、前回選挙が接戦であれば、新人候補にとって参入のハードルは下が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自民党の党勢も無投票当選と関連することが想定できる。自民党が優位に立っている日本の地方議会の状況を踏まえれば、都道府県議選に新規参入を目指す人は非自民系であることが多いが、自民党の党勢が特に強い選挙区では非自民系候補の当選の可能性は低くなるだろうから、こうした人々は立候補を躊躇してしまうと考えられる。こうした議論を受け、本報告では以下のような仮説を検証していく。

仮説1 定数に対して多くの現職が立候補しているほど無投票当選になりやすい

仮説2 前回の選挙の競争度が低かった選挙区ほど無投票当選になりやす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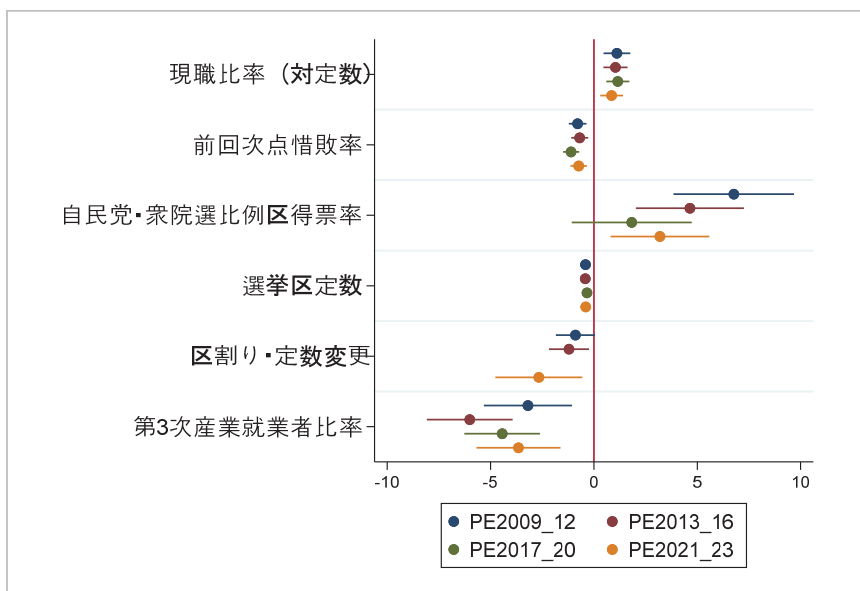
仮説3 自民党の党勢が強い選挙区ほど無投票当選になりやすい

以下、2009年以降に実施された都道府県議選のデータに基づき、統計的な手法を用いて、これらの仮説を検証していく。まず、分析の単位は各回の選挙における個々の選挙区で、従属変数は、各選挙区が無投票当選となったか否かを表すダミー変数である。従属変数が二値変数であることから、分析には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を用いる。独立変数は次の通りである。まず、仮説1を検証するために、選挙区定数に対する現職候補の割合を分析に投入する。仮説2の検証には、前回選挙における次点候補者の惜敗率(次点候補者の得票/最下位当選者の得票)を用いる。次点候補の惜敗率が高いほど、前回の選挙が接戦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なお、前回の選挙が無投票だと惜敗率は算出できないが、次点候補者が1票も獲得できなかったと考えて、0とすることにした。そして、仮説3の検証には、直近の衆議院選挙における自民党の比例区得票率を使用する。これらに加え、選挙区定数、及び茨木(2017)や石上(2020)の研究を踏まえて、選挙区の区域や選挙区定数の変更の有無を分析に投入した。なお、従属変数と独立変数(特に自民党の衆院選比例区得票率)は、ともに選挙

区の都市化度と相関していることから、その影響を統制する必要がある。そこで、都市化度を表す統制変数として、第三次産業就業者比率も分析に加えた。分析は、無投票当選の大半が定数3以下の選挙区で生じていることを踏まえて定数3以下の選挙区のみを対象とし、2009～12年、2013～16年、2017年～20年、2021年以降の4つの時期に分けて行う。

## 4. 分析結果

<図1> 無投票当選を従属変数とした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の結果



無投票当選を従属変数とした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の結果を図示したものが、図1である。●は推定された各変数の係数で、横棒は95%信頼区間を表している。ここからは、いずれの時期の都道府県議選においても、統計的に有意に、定数に対して現職が多く立候補しているほど、前回の選挙で接戦度が高かった選挙区ほど無投票当選になりにくいことが分かる。また、2017年から20年の時期は統計的に有意でないものの、他の時期においては、自民党が「強い」選挙区で無投票当選が生じやすいとの結果が得られた。仮説1～3はいずれも検証されたと言えるだろう。また、それ以外の変数については、定数3以下に絞った場合でも、選挙区定数が多いほど、選挙区割りや定数が変更された選挙区ほど、そして第三次産業就業者比率が高いほど、統計的に有意に無投票当選となりやすいことが分かった。

ところで、こうした新規参入を希望する人たちにとってハードルが高い状況は、特に定数1の選挙区で生じやすい。例えば、2009年以降の都道府県議選における定数に対する現職の割合の平均値は、定数1の場合、91.3%であるのに対し、定数4以上の選挙区では83.5%となっている。また、次点惜敗率の平均は、定数1の選挙区では69.5%であった一方、定数4以上では82.4%であった。さらに、自民党の比例区得票率は、定数1の選挙区が定数4以上の選挙区を2.5ポイント上回っている。つまり、定数1の選挙区では前回の選挙を圧勝してい

る現職が立候補して、自民党が「強い」ことが多いのである。

## 5. 結びに代えて

ここまでの分析結果から、都道府県議選では、新人候補者が選挙に参入するハードルが高い選挙区で無投票当選が発生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して、こうした状況は、特に定数1の選挙区で生じる傾向が確認された。定数1の選挙区は、当選のために幅広い有権者からの支持を獲得しなくてはならない点で、ただでさえ新規参入者にとってハードルが高いことに加え、強力な現職の得票を上回らなければ当選が難しい選挙区が多いという意味でも、新人候補の立候補を抑制してしま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都道府県選挙における無投票当選は、制度的な要因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有権者から選択の機会を奪ってしまう無投票当選の発生を防ぐには、選挙区定数を大きくすることが一つの方策になると考えられるが、岩手県では2022年に、すべての1人区を解消するための選挙区割りの再編が行われた(『朝日新聞』2022年7月6日)。新しい区割りの下での最初の岩手県議選は今年9月に実施されるが、実際に無投票当選を抑制することができるか、その成否を見守りたい。

### <参考文献>

- 茨木瞬(2017)「県議選1人区における無投票選挙区」『公共選択』67: 140-157.  
石上泰州(2019)「無投票当選に関する一考察」『政経研究』56(2): 173-195.  
石上泰州(2020)「無投票当選の計量分析:都道府県議会選挙の分析」『法学研究』93(1): 117-137.  
河村和徳(2020)「地方議員のなり手不足問題をどう考えるか」『選挙研究』36(2): 25-38.  
小林秀高(2015)「地方選挙における無投票当選と投票率低下の一分析」『海外事情』63(11): 65-84.  
鷺見英司(2017)「首長選挙における無投票当選の発生要因」『公共選択』67: 85-102.  
長野 基(2019)「議員報酬・定数等に関する調査結果の分析」町村議会議員の議員報酬等のあり方検討委員会『町村議会議員の議員報酬等のあり方 最終報告』11-37.

# 福島県会津若松市のスマートシティと住民参加

高選圭 (福島学院大)

## 1. 初めに

福島県の会津若松市は、行政情報化やスマートシティ構築が進んだ代表的な地域である。特に、スマートシティの構築は地域・地元企業・住民・大学が連携し、様々な住民サービスをオンラインで提供する基盤となっている。スマートシティの構築は、行政からの情報や申請を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に留まらず、住民の行政や地域参加もデジタル化している。更に、スマートシティ構想は、会津若松市が直面している地域社会の課題、地域が持つ資源・財源、地域経済の特性や持続可能性を活かした形で進行している。行政のデジタル化に伴って個人情報保護・プライバシー侵害という負の問題が議論されている中で、会津若松市の場合、住民の自発的同意による参加や個人情報提供という方式を取っている。会津若松市のスマートシティ事例は、構築の成果だけではなく、日本の自治体が抱えている課題解決の参考事例となる意味で注目する必要がある。本稿では、会津若松市がスマートシティ構築を進めて来た背景や地域社会の課題、スマートシティ構築の内容、それから住民の地域参加へ与えている影響について分析する。

## 2. 背景や地域社会の課題

会津若松市は、日本の典型的な地方都市である。2023年8月基準で人口115,000人程度、世帯数は49,100世帯である。福島県西部の会津盆地に位置し、磐梯山や猪苗代湖などの豊かな自然環境を持っている。歴史的に藩政時代には会津松平家の本拠地であった。現在でも市内中心部には歴史的な景観や街並みが残っている城下町である。地域の産業は観光産業や稲作・施設園芸を中心とした農業と酒造り・漆器などが地場産業である。2011年3.11以後、原発事故の影響で再生可能エネルギー産業が盛んである。会津若松地域は豊富な水資源など自然を生かした再生可能エネルギー生産・消費を地域内で循環させるエネルギーの地産地消でも有名な地域である。会津若松地域は、教育分野でも藩政時代、当時国内有数の教育機関であった日新館の伝統を継承する特色ある学校教育「あいづっこ宣言」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

会津若松市がスマートシティ構築を始めた背景には人口減少・少子高齢化・地域経済の衰退などの地域社会が直面している課題解決があった。会津若松市の人口は1995年、137,066人をピークに減少傾向に転じている。最近では年1,000人程度の人口が減少する傾向が続いている。特に、生産年齢人口(15歳-64歳)の減少率は大きい。例えば、2011年市の全体人口は126,000人、生産年齢人口は76,000人であった。これが2021年には全体人口118,000人、生産年齢人口が65,600人へ減少した。全体人口の減少率は6.3%であるが、生産年齢人口は13.7%も減っている。少子化の傾向で出生数も大きく減少する。

会津若松市の出生数を見ると、2010年1,028人、2015年941人、更に2019年には793人まで減少し、ここ9年間で23%が減っている。地域の高齢化率は全国平均を超えている。高齢化率は2010年25.6%から2019年31.0%へ増加した。高齢化の増加で要介護(支援)者数も増えている。2010年要介護者が6,024人であったが、2019年には7,463人へ増加している。

地域経済の側面では、1967年富士通半導体工場が設立されたことを契機にICT分野が地域の基幹産業の一つとなる。2007年会津若松市の工業統計調査によると、製造品出荷額等(2006年実績)3,239億円のうち、半導体を含む電子部品・デバイス産業は1,037億円を占め、構成比は32%であった。しかし、2008年にリーマン・ショックが発生し、その影響で富士通半導体工場は大打撃を受ける。以後、富士通は半導体工場を売却・譲渡し、人員削減・事業縮小方針を打ち出した。2009年には配置転換が行われ、800人が会津若松工場から離職することとなる。更に、2013年にも400人の従業員を減らし、規模を縮小した(経済東北、2023年7月)。このような経済状況は、地域を支える新しい経済基盤造成を要求することとなった。半導体の街であった会津若松には、1993年ICTに特化した会津大学が設立される。会津大学の設立は半導体関連企業が多く立地した地域経済の特性と関係が深い。

2011年東日本大震災が起り、地域社会の建て直しは余儀なくされる。3.11以後、電力不足の中で2012年電力の見える化システムが構築され、2013年から会津若松市がスマートシティ構想が本格化する。2017年2月、会津若松市第7次総合計画が策定され、まちづくりの基本コンセプト出来上がった。会津若松市は、「時代の変化を的確に読み取り、新たな考えを取り入れながら、将来にわたって、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出来るまち、魅力的で活力のある町をつくり、後世につないでいく」という方向性を定めている(津若松市第7次総合計画、2017)。この総合計画の中でスマートシティの全体構想を貫くコンセプトとして3つの視点を上げている。1つ目は、スマートシティ会津若松の構築である。2つ目は、仕事づくりであり、3つ目は、公共施設、行政サービスの最適化である。

### 3. スマートシティ構築の内容

「スマートシティ会津若松」の構築はICTを利活用し、市民生活に関わる様々な住民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会津若松市はデジタル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都市OS「会津若松+」を整備し、市民のモビリティ・決済・教育・ヘルスケア・エネルギー・農業・観光・防災・行政サービス・インフラなどの管理、サービス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市民にとって、都市OS「会津若松+」が窓口になり、生活に関わるサービスを利用するが、これは行政だけのデータやシステム構築では不可能である。会津若松市は、行政が保有しているデータを民間にも提供する「DATA for CITIZEN」という基盤システムを整備する。それから市民の個人情報オプトインによる方式でパーソナルデータをもとにパーソナライズされたサービス提供が行われる。スマートシティ構築では、行政データに加えて民間企業が保有する様々なデータを融合し、DB化している。

スマートシティ会津若松では、ICTの利活用で住民生活の利便性が高まり、快適で住みやすいまちづくりにも繋がる。行政データの利活用することで「まちの見える化」は、バス路線の最適化・避難経路の効率化などで安全・安心のまちづくりとなる。会津若松市はICTは教育・観光・防災・交通・住民生活の利便性を高める手段として認識する(津若松市、2022)。ICTはあくまで手段であり、目的でない。会津若松市は、ICTの利活用することで住民の健康・福祉・教育・防災・エネルギー・交通・環境などの最適化は地域

の人口減少対策や地域の活性化に繋がると認識し、スマートシティ計画を進めている。

スマートシティ計画を進める当初には市民の理解が低いため、その必要性や行政効率化に関する支持が高くなかった。会津若松市の経済が農業や観光・商業に頼っている部分が大きく、市民が実感出来る接点が少なかった。そもそも高齢者にはスマートシティそのものに対する理解が根付いていない。農業の方にもICTの導入に賛成が得られなかったのである。農業は長年の経験に基づいて営んでいる分野である認識が強く、スマートアグリシステムにお金をかけるという認識は少なかった。結局、会津若松市はそれぞれのシステムをスモールスタートし、とにかく使用・体験して行く中で理解を広める戦略を取って行かざるを得なかった。住民の理解を深めるため、スマートアグリシステムは、最初10割補助で農家に普及することとなった。その結果、農家の販売金額は4割以上増加し、労働時間も減るという効果となった。このような結果を体験することで普及が徐々に広がることとなった。

スマートシティ会津若松の推進において事業の推進体制は重要な要素である。スマートシティ会津若松の推進主体は「会津地域スマートシティ推進協議会」である。この協議会は市や会津大学、それから企業など25団体で構成されている。特に、地元拠点の団体を中心となって推進協議会が運営されている。会津若松市は会津地域スマートシティ推進協議会へ負担金を出している。それから会津地域スマートシティ推進協議会が提案する事業案に対して実施の可否、実施手法の検討、予算化を担当する役割である。市が推進協議会方式を採択しているのは、行政だけのアイデアではなく、地域の企業や団体が持つ専門的・先進的な知見から、事業を提案・実施する効率性を高めるためである。スマートシティ推進において地域の会津大学と提携は地域が必要とするICT人材育成や卒業生の地元企業への就職・創業を促す狙いでもある。市は会津大学と連携して、市民ニーズを起点とした地域課題を産学提携方式で解決するため「会津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会議」を2013年から1,880回実施している(会津若松市、2023)。

また、大学と連携し、社会人向けのICT人材育成、住民サービスの窓口である都市OS「会津若松+」に関連する研究も共同で進めている。スマートシティ構築において会津大学との提携は、地域資源の利活用が成功要因の一つ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どこの地方でも地域が保有する資源・財源の不足問題に直面しているが、地域の新たな資源を掘り起こし、資源の利活用方法をイノベーションすることで持続可能性を確保することとなる。

スマートシティ構築において行政内部の情報化・デジタル化は非常に重要な要素であろう。市は行政内部の情報化・デジタル化のため、様々な制度を考案・運用している。行政内部のICT人材育成は、庁内の横提携・情報共有を図る体制づくりにも繋がる。市はICT関連業務に対応出来る体制を強化するため、2003年から各課にITリーダーを配置する制度を導入している。このITリーダーは各部署で情報化の中心的な存在となり、ICT機器・ネットワークの維持管理・セキュリティ対策を担当する。2009年には全体職員を対象に「情報セキュリティ理解度チェック」制度を導入している。毎年1回、全体職員を対象に情報セキュリティ理解度チェックを実施する。その結果、理解度が50点未満の場合、補修教育が実施される。補修教育に未参加の職員は自分の業務用パソコンの利用が停止となる。更に2012年からは情報化人材登録制度を運用している。この制度は情報リテラシー、情報セキュリティ対策のスキルを備えた人材の登録制度である。情報化人材に登録には情報処理技術者試験の合格が必要であるが、この制度はICT活用による行政事務の高度化・効率化を目標と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ICTリテラシー制度は情報化人材育成だけではなく、ICTマネジメント能力を高めることに

貢献したと思われる。市のICTを担当する部署として「情報化統括推進委員会(CIO)」の直轄に「情報化政策検討チーム」を2013年から運営している。その検討チームの中には「統合GIS活用検討チーム」、「データ公開・利活用検討チーム」、「デジタルガバメント推進検討チーム」、「IoT推進検討チーム」が設置されている。それぞれの検討チームは、GIS・データの公開・利活用・業務効率化・市民サービスの利便性・IoTの利活用による問題解決や効率化を検討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

スマートシティの構築において市民が実感・体験可能とすることには住民サービスの窓口が必要である。この窓口に当たるのがデジタル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会津若松+」である。「会津若松+」が上手に機能するためには、市の行政データ・民間データ・個人データの連携が必要である。更に、個人認証基盤と「会津若松+」の連携も欠かせない。個人認証基盤は日本郵便「ゆうびんID」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システムと連携がとられている。「会津若松+」は、都市OSの横展開を前提としている。ほかの都市でも利活用することを前提で構築しているので、標準化は欠かせない作業である。即ち、標準化されたアーキテクチャにより、相互にアプリケーションを実装可能とする必要がある。

また、住民の個人情報に連携されるので、住民の個人情報漏洩・改ざんや自分の情報が自分も知らないところで勝手に利用される不安や疑問をクリアす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会津若松+」において個人情報は「オプトイン型」のデータ利活用が原則である。オプトイン型とは、自分のデータは自分の者であり、自分の意思(同意)によって、自分が使いたい時に、使いたい所で利用することで、自分の生活の利便性が高ま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牟田、2023)。行政が取得・利活用するデータの種類・利用目的・利用先などを明示し、事前に利用者の同意を取得し、利活用するやり方である。個人情報を保護するため、制度面・技術面での対策を取っている。まず、個人情報保護条例などの法令に基づき、個人情報を適切に管理・運用することである。また、通信・データの暗号化・データの匿名化など、適切なセキュリティ対策の実施も必要である。

#### 4. 構築の成果と住民参加

スマートシティの構築内容は、仕事づくりや住民へのオンラインサービス提供・住民生活の最適化の分野に注目して分析する。

「会津若松+」の利用者は年々増加している。2015年年間利用者は9,700人でID登録者は2,200人であった。これが2020年には年間利用者数が195,000人、ID登録者数は12,300人まで増加している。「除雪車ナビ」は除雪車にGPS端末を搭載し、除雪車の位置と稼働状況をお知らせするサービスである。「母子健康情報サービス」は、母子健康手帳の電子化であり、乳幼児健診、予防接種の受信データから身長・体重・発育曲線や予防接種予定日などの市が保有する情報を連携して表示するサービスである。「あいざっこプラス」では、学校情報の配信、学校だより、学年だより、学級情報、緊急のお知らせなどが閲覧可能なサービスである。

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Line」を利活用し、市民の問い合わせにAIがチャット形式で24時間365日答えるサービスが導入されている。このAIチャットサービスでは、休日当番医、ゴミ出し、除雪車の位置情報、担当窓口の案内、各種申請書の申請、利用方法の案内、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問い合わせなどが情報が提供され、住民生活の利便性向上を図っている。更に住民の健診データをもとに生活習慣病のリスク分析、活動量の見える化を通じ健康意識・健康行動の向上を図っている。このサービス利用者の95%



が健康意識の向上に役立つと答えている(会津若松市、2023)。会津若松市の場合、スマートシティ構築でオンライン診療が可能となっている。会津地域は医師少数区域であり、専門医数が少ない。高齢化率が高く、市域が広いことからパーキンソン病患者は通院するのが非常に困難である。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地域医療支援病院である竹田総合病院と提携し、オンライン診療を行っている。これは病院・薬局・介護施設が連携し、健診の結果が介護福祉士とも共有できるシステムを構築・運営している。

それからAI機能を活用する住民サービスも運用している。人口減少や高齢化で大衆交通の問題があり、高齢者の移動権利が地域の課題となっている。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会津若松市では、各世帯にあるテレビを活用し、「みなとチャンネル」を構築している。2017年10月から無料で運用した2019年には有料化して運用しているが、多くの世代が運用に参加している。「みなとチャンネル」から予約すると、従来のバス停ではなく、家の近くまでバスが迎えに来る。移動のルートも予約者の位置情報や目的地をもとにAIが自動設定し、運用する。行政や地域・住民の個人属性を連動してオープンデータを公開している。災害時の避難通路、路線バスの運行計画、スーパーの出店計画、要介護者のデータをもとにした災害対応策の策定である。会津若松市は、2022年からスーパーシティへ拡大している。

# 군가와 미학적 군국주의

—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 대중 음악 —

박진수 (가천대)

## I. 소개

1. 배경과 역사적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II. 1930년대와 1940년대 일본의 사회정치적 풍경

1. 군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대두
2. 정치적 사건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3. 음악 업계의 검열 및 관리

## III. 일본 대중 음악에서 군국주의의 미학

1. 군가의 주제와 상징성
2. 충성심과 애국심의 표현
3. 군사적 인물의 이상화

## IV. 군가의 보급에서 라디오와 선전의 역할

1.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부의 영향
2. 선전과 음악 프로그램
3. 청취자의 수용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

## V. 당시의 인기 아티스트와 작곡가

1. 일본 음악업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2. 선전과 전시중의 기부
3. 음악 스타일의 진화

## VI. 전시 중 상황이 음악 제작에 미친 영향

1. 창의성의 제한과 제한
2. 일본 음악에 서양 요소의 도입
3. 사회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가사 분석

## VII. 군가의 문화 도용과 변안

1. 지역적 차이와 민속의 영향
2. 군가와 전통 예술의 관계
3. 다른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 VIII. 미적 군국주의를 둘러싼 비판과 논쟁

1. 세상 인식과 비판
2. 음악 업계 내부의 반대
3. 전후 미학과 상징주의 재평가

## IX. 군가의 불후의 유산과 현대의 부활

1. 향수와 문화유산
2. 현대에의 변안과 상연
3. 새로운 세대에 의한 수용과 해석

## X. 결론

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2. 일본의 인기 음악에서 군가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3.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전망

## 참고문헌

1. 1차 정보원(아카이브, 송북, 녹음 등)
2. 2차 자료(서적, 논문, 학술 잡지 등)

## 부록

1. 이 기사에서 다른 군가 목록
2. 일본어 용어집과 그 번역

# 전장(戰場)에서의 자살과 생존

— 요시쓰네(義経) 최후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결말의 공존 —

박은희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1. 들어가기

2005년 방영된 NHK 대하드라마 《요시쓰네》는 일본인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웅 미나모토 노 요시쓰네(源義経)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이다.<sup>1)</sup> 주인공 요시쓰네 역할을 맡은 다키자와 히데아키(滝沢秀明)는 당시 대하드라마 사상 최연소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비주얼로 강하고 아름다운 요시쓰네의 이미지를 연기해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호간비이키(判官鼻眞)’라는 단어로 상징되듯 요시쓰네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는 그 역사가 깊다. 요시쓰네에 대한 각종 일화와 전설은 사후 바로 인구에 회자되며 노(能)나 고와카마이(幸若舞), 조루리(浄瑠璃), 가부키(歌舞伎)와 같은 중세, 근세 공연은 물론 각종 산문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요시쓰네를 주인공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호간모노(判官物)라고 하는데, 호간모노라는 용어가 따로 만들어질 만큼 중세와 근세 요시쓰네 관련 작품들은 대량으로 쏟아졌으며, 작품 속 요시쓰네는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 일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요시쓰네에게는 인기만큼이나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한다. 유년시절의 역경과 성장, 무예 습득담, 전투담, 형에게 쫓겨 여기저기 도망치는 이야기, 시즈카고젠(静御前)과의 사랑, 일당백 부하들과의 우정, 그리고 할복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최후와 생존설까지 실로 다양한 일화가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화 중에서 요시쓰네의 마지막, 즉 최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시쓰네의 최후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후를 통해 요시쓰네 인물조형의 특징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요시쓰네 최후에는 각 시대별 요시쓰네를 사랑하고 소비하는 방식과 시대적 욕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드라마 《요시쓰네》의 경우, 자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생존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이중적 결말로 끝이 나는데, 이와 같은 이중적 결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 발표에서는 할복자살과 예조치(蝦夷地)<sup>2)</sup> 도해설이라는 이질적인 결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요시쓰네의 행방 - 『아즈마카가미(吾妻鏡)』를 중심으로

요시쓰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이나 죽음과 관련된 기술이 풍부하지 않을 뿐더러 전투에서의 활약상 역시 『헤이케모노가타리』 『요시쓰네 이야기(義経

1) 대하드라마 《요시쓰네》의 평균 시청률은 19.5%, 최고 시청률은 26.9%이다.

2) 근세 마쓰마에 번(松前藩)의 일부 화인지(和人地)를 제외한 홋카이도, 사할린(樺太島), 치시마(千島) 열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의 총칭. 대부분 아이누 거주지였다. 1869년 홋카이도 명칭이 정해진 뒤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記)』와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각색된 부분이 많다. 요시쓰네의 죽음과 관련된 헤이안말, 중세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愚管抄』

ツイニミチノクノ康衡ガモトヘ逃トリテ行ニケル。ヲソロシキ事ナリト聞ヘシカドモ、ヤスヒラウチテコノ由頼朝ガリ言ケルヲバ、「ソレニモヨラジ、ワロキコシタリ」トゾカノ国ニモイヒケル。

② 『百鍊抄』 文治5년 6월 1일

六月一日、己丑義頭(年三十一)去んぬる四月晦日、奥州において追討の由言上す。

③ 『玉葉』 文治5년 5월 29일

今日、能保朝臣告げ送りて言ふ、九郎、泰衡のために誅滅せられをはんぬと云々。天下の喜び何事かこれに如かんや。実に神仏の助けなり。そもそもまた頼朝卿の運なり。言語の及ぶところに非ず。

④ 『吾妻鏡』 文治5년 閏4월 30일

陸奥において、泰衡源予州を襲ふ。これ且つは勅定に任せ、且つは二品の仰せによってなり。予州は民部少輔基成朝臣の衣河の館にあり。泰衡は兵数百騎を従へて、その所に馳せ至りて合戦す。予州は持仏堂に入り、まづ妻(二十二歳)、子(女子四歳)を害し、次いで自殺すと云々。

⑤ 『吾妻鏡』 文治5년 6월 13일

泰衡の使者新田冠者高平の首を腰越の浦に持参し、事の由を言上す。よって実検を加へんために、和田太郎義盛梶原平三景時等をかの所に遣わす。おのおのの甲冑の郎従二十騎を相具す。件の首は黒漆の櫃に納め、美酒に浸し、高平の僕従二人これを荷担す。

위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요시쓰네는 1189년 윤 4월 30일 후지와라노 야스히라(藤原泰衡)의 습격을 받아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 연구의 기본 사료라 할 수 있는 역사서 『아즈마카가마(吾妻鏡)』는 요시쓰네의 죽음에 이른 정황과 잘린 목을 확인하는 구비짓젠(首実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야스히라는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과 요리토모의 명령에 의거하여 요시쓰네를 습격했으며 요시쓰네는 지불당으로 들어가 부인과 딸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고 전하고 있다. 6월 13일 목을 확인하는 작업이 가마쿠라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고시고에(腰越)에서 이루어졌는데, 요시쓰네의 머리는 술에 담겨 있었다고 되어 있다. 특히 후지와라노 가네자네(藤原兼実)의 일기 『교쿠요(玉葉)』를 보면 요시쓰네 사망에 대해 천하의 기쁨, 신불의 가호, 요리토모의 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정의 요시쓰네에 대한 관점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 3.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 할복 - 『요시쓰네 이야기(義経記)』를 중심으로

이번 절은 『요시쓰네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시쓰네의 최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시쓰네 일대기를 그린 『요시쓰네 이야기』는 일대기라는 표현에 걸맞게 요시쓰네의 죽음을 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요시쓰네 이야기』는 허구가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유년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시쓰네와 관련된 주요 이야기들이 망라되어 있어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요시쓰네 수용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요시쓰네 이야기』 7권에 그려진 요시쓰네의 죽음, 즉 할복과 동반 자살을 중심으로 요시쓰네 최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①

“편지를 기쁘게 받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든 도망쳐야 하겠지만 **역적인 된 몸**으로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들어간들 일본에서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결을 준비하겠습니다. **화살 한 번 쏘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세에는 꼭 극락정토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②

“자결할 시각이 된 것 같구나. 자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교토에서 사토 병위가 했던 자결을 **사람들이 나중에까지 칭찬하였습니다.**”

가네후사가 답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구나. **상처가 큰 것이 좋다는 말이지.**”

③

“에마노 고시로 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소. 이즈(伊豆), 스루가(駿河)의 젊은 무사들이 의외로 난폭해 보이는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용맹한 병사가 할복하는 모습을 보시게나. 동국에서도 주군에게 충성심을 품었고 예상치 못한 재난에도 부딪혔지. 적에게 목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를 위한, 그야말로 후대에까지 모범이 될 결세. 요리토모 님께도 내가 자결하는 모습을 마지막 말과 함께 전해 주시게.”

①번 인용은 후지와라노 모토나리(藤原基成)가 요시쓰네에게 야스히라가 곧 습격할 것을 알리며 도망칠 것을 당부한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시쓰네의 반응이다. 인용에서 요시쓰네는 도망칠 생각이 없음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항전의 의지도 없고 나아가 자결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도망치라는 모토나리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요시쓰네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단어는 ‘역적’이라는 표현이다. 요시쓰네의 자살 선언은 천황가의 수장인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의 명령에 대한 존중, 왕권에 대한 인정이며 싸워야 할 명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요시쓰네의 결심이 할복을 통해 작품 속에 구현된다는 사실이다, ②번 인용에 보이는 사토 병위는 사토 다다노부(佐藤忠信)를 이르는데, 요시쓰네 사천왕 중 한 명이다. 요시쓰네와 합류하기 위해 교토로 잠입했다가 발각되어 부상을 입자 할복하였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은 다다노부의 할복을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표현과 할복의 ‘상처가 큰 것이 좋다’는 표현이다. 다다노부의 경우, 십자베기를 한 뒤 내장을 꺼내 쏜은 뒤 자신이 할복에 사용했던 단도를 배 안에 밀어 넣고 죽음을 위해 입에 긴 칼을 물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요시쓰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십자베기한 뒤 창자를 쏘아내 죽음을 기다렸다. 이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할복은 죽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할복의 경우 죽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위, 즉 스스로 경동맥이나 명치를 찌르거나, 뒤에서 목을 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할복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 즉 목격자, 소문 전파자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 전형적인 예를 ③번 인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다노부 할복의 증인은 적군들이며 특히 적장인 에마노 고시로는 다다노부의 죽음을 가마쿠라에 전할 전달자로 지명되고 있다.

『요시쓰네 이야기』에 그려진 다다노부와 요시쓰네의 할복은 지극히 명예롭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러지고 있지만 요시쓰네 당시 할복은 이례적인 행위로 일반적이지 않았다. 요시쓰네가 활약한 겐페이 전투를 그리고 있는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할복이 거의 없다.<sup>3)</sup> 요시쓰네의 할복은 역사적 사실 이라기보다는 『요시쓰네 이야기』가 쓰일 당시 무사에 대해 지니고 있는 통념,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요시쓰네 생존설 - 홋카이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거둔 인물이 죽음을 피하여 새로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창작의 세계에는 흔한 일이다. 요시쓰네 역시 근세를 배경으로 중세 특유의 비극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에조치(蝦夷地), 즉 홋카이도로 건너가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심지어 요시쓰네의 새 거주지는 홋카이도에서 금나라, 심지어 몽고로 바뀌면서 요시쓰네가 징기스칸이라는 이야기로 확장되기도 한다. 요시쓰네 생존설은 근세 이후 여러 사회적 이슈를 통해 만들어진 허구이다. 요시쓰네 생존설은 비록 개연성이 없는 허구이지만 근세 문학 작품 속 요시쓰네가 히라이즈미(平泉)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보다 생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시쓰네 에조치 도해설의 경우 순수한 문학적 상상력을 넘어 정치적 성격이 짙으며 제도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확산된 면이 크다.

근세 홋카이도는 마쓰마에(松前) 번에 편입, 관리되었다.<sup>4)</sup> 간분(寛文) 10년(1670) 전후로 샤쿠샤인에 의한 에미시 봉기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요시쓰네 에조치 입도설이 중앙에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겐로쿠(元禄)에서 교호(享保) 연간에 이르는 시기에 요시쓰네가 홋카이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sup>5)</sup> 오늘날 홋카이도에 전승되는 요시쓰네 관련 유적, 전설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겐로쿠 이후 중앙화, 전국화된 요시쓰네 전설이 역수입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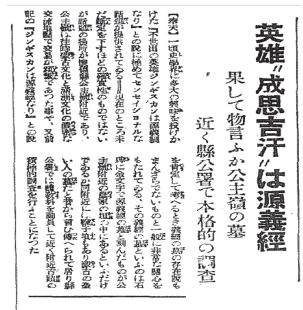
특히 간세이(寛政) 연간에 러시아 흑선이 남하하면서 막부는 본격적으로 에조치 경영에 돌입하게 되고 대규모 에조치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때 아이누 풍습을 일본풍으로 개량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 일환으로 아이누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을 일본신으로 바꾸는 종교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아이누의 영웅 오키쿠루미, 샤마이루를 요시쓰네와 벤케이와 연결시키고 요시쓰네 신사를 건립하기도 한다. 요시쓰네의 홋카이도 이주설은 이후 징기스칸설로 발전되는데, 특히 징기스칸설은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의 논문, 오야베 겐이치로(小谷部全一郎)의 책을 통해 제기된 요시쓰네 징기스칸 설은 학계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만주 침략의 선전선동에 이용되었다. 요시쓰네 생존설은 요시쓰네에 대한 순수한 동정에서 비롯된 창작이

3)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보이는 할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오에 도나리(大江遠成), 미나모토노 요리마사(源頼政), 교노 다키구치(鏡灌口), 에치고노추다이 이에미쓰(越後中太家光), 미나모토노 요시노리(源義憲), 다이라노 다메노리(平為教). 이들의 경우 배를 갈라 죽었다는 표현이 보이지만 내장을 꺼내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오에 도나리의 경우, 특히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상대편에게 전해달라는 표현이나 집에 불을 질렀다는 면에서 요시쓰네의 죽음과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할복은 관동지방 무사의 풍습으로 요시쓰네가 활약할 당시 관서 무사의 할복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에도 시대 초기에는 홋카이도 남서부, 오시마(渡島) 반도의 와진치(和人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아이누인들이 사는 에조치였다. 마쓰마에 번의 재정은 아이누와의 교역 독점으로 충당되었다.

5) 긴다이치 교노스케(金田一京之助)는 이를 요시쓰네 입도설 제2기로 규정하고, 2기의 특징을 전국적, 민족적 성격을 지닌 요시쓰네 입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문예 연극에서도 입도설이 영향을 미친다. 『요시쓰네 이야기』의 영향 아래 만들어지던 호간모노에서도 요시쓰네의 도해설이 유행하게 된다.

라기보다는 홋카이도, 혹은 만주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경성일본 1937년 12월 21일>



# ‘기억’의 시대에 전쟁을 이야기 한다는 것

— 애니메이션 <이 세상의 한 구석에(この世界の片隅に)>(2016)를 중심으로 —

任다함 (가천대)

## 1. 머리말

2016년 개봉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 세상의 한 구석에>(이후 <이 세상>)<sup>1)</sup>는 고노 후미요(こうの史代)의 동명만화<sup>2)</sup>를 원작으로 가타부치 스나오(片淵須直)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히로시마(広島)시 에바(江波)에서 자란 ‘우라노 스즈(浦野すず)’라는 여성이 구레(呉)의 호조(北條)가로 시집 온 이후 겪게 되는 일상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까지의 시기(1943~1945)를 중심으로 그려냈다. 개봉 당시에는 전국 60개 관 정도의 규모로 상영되기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400여 관으로 확대되어 누계 관객 수 210만 명을 기록하며 3년 이상 장기 상영되었다.<sup>3)</sup> 또한 제90회 키네마 준포(キネマ旬報) 베스트텐 일본 영화 1위, 제40회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제41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장편 부문 심사위원상 등등 굵직한 영화상을 휩쓸기도 했다.

이렇듯 <이 세상>이 예기치 못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일본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논의는 이 작품의 특징인 전시기 일본 서민의 일상에 대한 세밀한 묘사에 주목하여 <이 세상>을 태평양전쟁에 관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서 평가하거나<sup>4)</sup>, 전쟁과 공습으로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는 상실감을 그려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상실의 회복까지 그렸다는 점에서 『맨발의 겐(はだしのゲン)』(1973) 등 기존의 ‘반전(反戦)만화’와 다른 결의 반전만화로서 평가하고 있다.<sup>5)</sup>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논의들이 작품 속 전쟁 책임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세상>에 등장하는 서민들의 가해자로서의 전쟁 책임의 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는데, 전쟁고아의 비참한 죽음을 다룬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반딧불이의 묘(火垂るの墓)>가 공개되었던 1988년 당시에는 작품에 대한 논의가 전쟁 책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일본에서는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서 해석하고 있다.<sup>6)</sup>

한편 한국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까지는 산견될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개봉되기 전 원작 만화를 분석한 정근식 외(2015)의 연구<sup>7)</sup>, 애니메이션과 원작 만화를 비교 분석한 심수경(2022)의

1) <이 세상의 한 구석에>는 2016년 최초의 영화화 당시 삭제된 원작의 장면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30분 정도 긴 확장판 <이 세상의 (그리고 다른 세상의) 한 구석에(この世界の(さらにはつもの)片隅に)>를 2019년에 개봉했다.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장면이나 그 묘사 방법은 2016년판과 큰 차이가 없다. 본 발표에서는 2016년 공개된 버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こうの史代, 『この世界の片隅に』(双葉社, 2008).

3) 津堅信之, 『日本アニメ史』(中央公論新社, 2022), p.260.

4) 津堅信之, 위의 책, p.265.

5) 紙屋高雪, 『この世界の片隅に』は「反戦マンガか」, (『ユリイカ』 2016年11月号), p.103.

6) 津堅信之, 앞의 책, p.266.

7) 정근식·헬렌 리·김민환·정영신, 『포위된 평화, 굴절된 전쟁 기억-히로시마 만(滿)의 군항 도시 구레 연구』(제이앤씨, 2015).

연구<sup>8)</sup>를 찾아볼 수 있다. 정근식 외의 연구는 작품의 배경이 된 ‘구레’라는 장소와 이 지역에서 제작한 전함 ‘야마토’가 전후 신화화되어 가는 과정을 2005년 구레에 ‘야마토 박물관’이 개관하기까지 구체적으로 탐색한 뒤, 2007년부터 연재된 원작만화를 이러한 문화정치 속에서 탄생한 작품으로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심수경은 <이 세상>에 대한 평가 대부분이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그리며 전쟁 반대, 원폭 반대를 외쳐온 일본의 기존 반전문학과 비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9)</sup>

<이 세상>에 대한 한일의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각의 차이는, 일본 측이 이 작품을 전쟁 책임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려 노력한 작품으로 평가하는 데 비해, 한국 측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반전과 평화를 주장하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주류 예술에서 ‘태평양전쟁’이란 주제는 조용히 사라져갔지만, 서브컬처 작가들은 일본의 전시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그 주제를 기꺼이 채택해왔다.<sup>10)</sup> 그러나 일본의 대중문화 속에 내재하는 전쟁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은, 이미 언급한 <반딧불이의 묘>나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風立ちぬ)>(2013) 등이 개봉될 때마다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전쟁에 대한 기억의 재현 문제를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때 유효한 것은 역사학자 나리타 류이치(成田竜一)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 나리타는 전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서술되는 방식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방식의 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바로 ‘상황’의 시대(1931~1945), ‘체험’의 시대(1945~1965), ‘증언’의 시대(1965~1990), ‘기억’의 시대(1990~)이다.<sup>11)</sup> 이에 본 발표에서는 나리타의 시대 구분을 염두에 두고, 전후 ‘기억’의 시대에 전쟁 당시를 살아간 인간 군상을 그린 이 작품에서 전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이 세상의 한 구석에>의 전쟁 재현 방식

<이 세상>이 그려내는 전쟁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애초에 원작 자체도 면밀한 시대 고증을 거친 작품이지만, 영화는 더더욱 철저하게 당시의 거리 풍경이나 생활상을 고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작품의 배경이 된 전전 히로시마의 나카지마 혼마치(中島本町, 현 나카지마초)나 구레를 당시 상황에 맞게 리얼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사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지도와 대조해가며 당시 거리 풍경을 재현해냈고, 사진에 찍혀 있지 않은 부분은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현하고자 했다. 또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말투도 당시의 가족사진이나 수기(手記) 등을 참고하여 재현했다.

이러한 철저한 시대 고증의 이유에 대해 감독인 가타부치는 세계의 한 구석에서 살아간 스즈라는 인물에게 리얼리티를 느끼기 위해서는, 세계 그 자체가 리얼하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12)</sup> 이러한 우직한 제작 의도를 반영하여, 원작의 에피소드는 모두 몇 월 며칠에 일어난 일인

8) 심수경, 「고노 후미요 원작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 세상의 한구석에』론-전쟁 기억의 재현방식과 기억의 장소로서의 구레와 히로시마와 스즈의 신체성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93호, 2022).

9) 심수경, 위의 논문, p.140.

10) 정근식 외, 앞의 책, p.92.

11) 成田竜一, 『戦争経験の戦後史』(岩波書店, 2020).

12) 藤津亮太, 『アニメと戦争』(日本評論社, 2021), p.213.

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영화는 그날의 날씨와 기온까지 철저히 반영하여 묘사하고 있다.<sup>13)</sup> 나아가 히로시마와 구레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원폭 투하의 직접적 묘사가 없고, 투하 직후의 지옥도 상세히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에 1940년대 서민의 풍속이나 식생활이 전쟁 시국이 악화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양상을 애니메이션 특유의 생략과 응축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획득하였다.<sup>14)</sup>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 표현해야만 하는 것들을 한 화면에 응축함으로써 실사 영상보다도 밀도를 높여 현대의 관객들에게 전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다큐멘터리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5)</sup>

전시의 실상을 보다 리얼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독의 제작 태도는 원작자인 고노의 ‘전쟁 체험의 계승’이라는 문제의식과도 일치한다.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대한 원작자의 감상으로서, 고노는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30년 후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렸을 때까지도 상정하여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기쁩습니다.”<sup>16)</sup>라는 소감을 남기고 있다. 1968년생인 고노와 1960년생인 가타부치는 실제로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다. 이렇듯 전쟁을 전혀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현대에서는, 전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오히려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고증하게 하는 치밀함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sup>17)</sup>

이러한 제작 태도는 전쟁 체험의 당사자로서 창작 활동을 지속해온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虫, 1928~1989)나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 1922~2015)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1960~70년대 ‘반전’을 주제로 한 작품을 활발히 내놓았는데, 자신들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전제로, 그 비참함을 어떻게 묘사하여 전달할 지에 대해 보다 더 고민한 측면이 있다.<sup>18)</sup> 하지만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들 세대의 반전만화는 전쟁을 ‘알기 쉬운’ 형태로만 이야기 해온 부분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는 ‘불쌍함(かわいそう)’이라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이 ‘불쌍함’을 통해 전쟁 체험을 계승하려는 방법이 이미 ‘클리셰’가 되었다는 지적이다.<sup>19)</sup>

<이 세상>은 그간의 전쟁과 원폭을 다룬 만화들의 이러한 클리셰와 거리를 두고, 고노의 표현을 빌자면 ‘생활(개그)만화’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자 시도한 작품이다.<sup>20)</sup> 이 작품에서는 전쟁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고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전쟁을 통해 격변하는 과정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현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서민들 누구나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죄의식 없이도 간단히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대에 전달해야만 한다”<sup>21)</sup>고 여겼다. 당시 구레에는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박해나 차별이 작품 속에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노는 이러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13) 藤津亮太, 위의 책, p.215.

14) 津堅信之, 앞의 책, p.265.

15) 津堅信之, 앞의 책, p.265.

16) 「対談 こうの史代×西島大介―片隅より愛をこめて」, 『ユリイカ』 2016年11月号, p.47.

17) 紙屋高雪, 앞의 논문, p.104.

18) 紙屋高雪, 위의 논문, p.104.

19) 藤津亮太, 앞의 책, p.220.

20) 藤津亮太, 위의 책, p.220.

21) 藤津亮太, 위의 책, p.221.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신만이 그 사람들과 잘 지냈고 다른 이들은 괴롭혔으니 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시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 결국 면죄부라고 해야 할까, 현대인의 도피나 응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sup>22)</sup>

요컨대, 고노는 작가의 관점이라는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서민의 일상을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이, ‘기억’의 시대에 전쟁 체험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전쟁의 전체상을 전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이러한 서술 방식을 취했다고 각종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다루고 있음에도 이 작품이 견지하고 있는 전쟁 책임의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시각은,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 주인공 스즈가 가장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을 둘러싼 해석의 모호함을 낳게 되었다. 이 장면은 패전 직후 라디오를 통해 일왕의 옥음방송을 듣고 난 뒤 스즈의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원작 만화를 그대로 살려 내용에 큰 변경 없이 제작되었지만, 이 장면의 연출에서만은 차이를 보인다. 만화에서 패전 직전의 공습으로 오른손과 조카를 잃은 스즈는,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식한 직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게 아니었나? 아직 여기 다섯 명이나 남아 있는데! 아직 왼손도 두 다리도 남아 있는데! 나는 이런 거 납득 못 해!”라고 절규하고, 집 뒤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통곡한다. 원작과 애니메이션이 달라진 부분은 언덕에서의 독백 장면이다.

「사라져간다/이 나라에서 정의가 사라져간다/……아아/폭력을 따르라는 건가/아님 폭력에 굴복하라는 건가/이게 이 나라의 정체였나/나도 아무 것도 모른 채 죽었으면 좋았을 걸……」<sup>23)</sup>

위의 인용에서 ‘아아’라고 탄식하는 장면에는 울부짖는 스즈 너머로 멀리 보이는 민가에서 ‘태극기’가 나부끼는 것이 삽입되어 있다. 이 장면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스즈가 일본이 아시아 각지를 점령했다는 내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폭력으로 폭력에 대한 보복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sup>24)</sup> 지금껏 허구 위에 자신의 일상이 존재했다는 충격, ‘가해자’로서의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에 대한 깨달음이 스즈를 덮쳤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이 장면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태극기는 전쟁 ‘가해자’로서 일본의 입장을 은유하기 위한 묘사로 추정된다. 그러나 심수경은 태극기 하나로 스즈가 이 전쟁의 속성을 모두 이해했다는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역사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역사 인식의 안이함을 드러내는 장면으로서 비판하고 있다.<sup>25)</sup>

한편, 애니메이션은 이 독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사라져간다. 우리들의 지금까지가.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해온 것들이. 그러니, 참아내자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아, 바다 건너에서 온 쌀, 콩, 내 몸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 폭력에 굴복해야만 하는 건가. 아아,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청한 채로 죽고 싶었어……」<sup>26)</sup>

22) 藤津亮太, 앞의 책, p.219.

23) こうの史代, 『この世界の片隅に 下』(双葉社, 2009), pp.91-96.

24) 藤津亮太, 앞의 책, p.217.

25) 심수경, 앞의 논문, p.158.

26) 藤津亮太, 앞의 책, p.218.

여전히 ‘아아’라는 탄식의 장면에는 멀리 나부끼는 태극기가 삽입되어 있지만, 애니메이션의 독백에서 스즈는 폭력에 굴복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일본의 침략과 연결 짓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원작과 달리 연출한 데 대해, 감독은 지금까지 조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접적으로 목격할 적이 없는 스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봤자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기에, 자신들이 해온 행위를 먹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길 바랐다고 언급했다.<sup>27)</sup>

원작과 애니메이션 모두, 태극기를 보고 스즈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깨달았다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스즈가 말하는 ‘폭력’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의미한다는 것은 태극기와 스즈의 대사를 동시에 접한 ‘현재의 독자’만이 구체적으로 의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sup>28)</sup>

‘기억’의 시대에 있어서 전쟁 책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전쟁 당시를 살아간 인간을 현재의 가치관에 비추어 ‘올바르게’ 묘사하는 것이 타당한가”<sup>29)</sup>라는 문제는, 그동안 전쟁과 원폭을 다룬 여러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테마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의 경우, 개봉 이전부터 한일 양국에서 군국주의를 찬미하고 전쟁을 미화했다는 우익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야자키가 좌우 진영의 이념적 논란과 무관한 작품임을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전투기 ‘제로센(零戦)’을 설계한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郎)라는 실존 인물을 ‘긍정적인’ 모델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 3. 결론을 대신하여

본 발표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에 나타난 전쟁의 기억과 재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이 세상의 한 구석에>라는 작품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전시기 서민의 일상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해낸 다큐멘터리적 특성을 지닌 작품이었다. 원작자와 감독은 전쟁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이러한 기록문학적 ‘객관적’ 서술 방식을 통해, ‘현재의 독자’가 현재적인 시점과 윤리적 잣대로서 전쟁의 기억을 재단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인식을 결여한 이러한 모호한 서술 방식은, 오히려 작품 속 주요 장면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을 초래했다.

나리타가 지적했듯,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는 동세대 사람들이나 이후의 세대, 혹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같은 ‘타자’와의 관계가 개입하는 영역이다.<sup>30)</sup> 특히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세대가 점차 사라져가는 ‘기억’의 시대에,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떠한 기억을 전쟁의 기억으로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과거사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7) 藤津亮太, 위의 책, p.219.

28) 藤津亮太, 위의 책, p.217.

29) 藤津亮太, 위의 책, pp.211-212.

30) 成田竜一, 앞의 책, p.9.

# 일본 근대 화가들의 전쟁 표상과 예술의 ‘건전함’

신민정 (가천대)

##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일본 서양화가들에 의한 전쟁 표상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전쟁화를 둘러싼 다각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쟁기록화, 작전기록화 등으로 지칭되는 전쟁화는 말 그대로 전장(戰場)의 전투나 군사들의 출병 등 전쟁과 관련된 테마를 기록한 그림으로 전의 고양과 전쟁 프로파간다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서양 미술에서 “역사화의 역사는 전쟁화의 역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전쟁은 서양회화의 핵심적인 소재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일본의 경우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헤이케모노가타리 에마키(平家物語繪卷)나 메이지 시대에 유행한 니시키에(錦繪)에서 전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선례가 있지만, 미술사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적’인 전쟁 그림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간 중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대 최고 미술가들에 의해 제작된 전쟁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쟁화에 관해서는 198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미술사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소재와 표현 기법, 제작 경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과 고찰이 행해져 왔다. 그중에서도 전쟁화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이들의 제작과 전시가 갖는 의의에 대한 평가, 즉 이것을 ‘예술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쟁 프로파간다’로 간주할 것인지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술이라면 보호해야 하고 악질적인 프로파간다의 산물이라면 폐기해야 할 전쟁화를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이 일괄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화 및 그 제작 행위를 ‘예술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반증한다. 본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전쟁화 제작의 시대적·예술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예술과 선전(宣傳) 사이의 간극, 그리고 이러한 전쟁화를 둘러싼 논의가 내포한 불안정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발표에서는 재조선일본인 화가의 전쟁화 제작 활동을 함께 고려하며, 전쟁화 제작 및 전시가 지니는 의의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 2. 전쟁화 제작의 시대적·예술적 맥락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이 전면화되면서 일본은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였고, 이는 당시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38년 ‘대일본육군중군화가협회(大日本陸軍從軍画家協會. 이듬해 ‘육군미술협회’로 발전)가 결성되고 1939년에는 중군 화가가 약 200명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전쟁화 제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후지타 쓰구하루(藤田嗣治, 1886-1968), 나카무라 겐이치(中村研一, 1895-1967), 무카이 준키치(向井潤吉, 1901-1995), 고이소 료헤이(小磯良平, 1903-1988), 미야

모토 사부로(宮本三郎, 1905-1974) 등 당시 군부의 의뢰를 받아 전쟁화를 제작한 화가의 대부분은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고 프랑스에 유학한 당대 일류 화가들이었으며, 이들의 작품은 「성전미술전람회」(1939), 「대동아전쟁미술전람회」(1942), 「육군미술전」(1943) 등 수많은 전쟁미술 전람회에 전시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화가들에게 있어 전쟁화 제작은 일본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자 그들의 예술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일본 근대미술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화가들은 전쟁화의 제작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명하고 자신이 “대형 화면의 역사화를 무리 없이 그릴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더불어 그때까지 역사화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일본 서양화단에 미술의 최상위 위계를 자랑하는 역사화 장르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한편, 전쟁화의 적극적인 제작과 전시의 이면에는 그때까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심미성(만)을 추구하는 작업의 산물로 여겨졌던 회화의 “공공성의 획득”이라는 목적도 존재하고 있었다.<sup>1)</sup> 실제로 1938년에 개최된 「전쟁미술전」의 경우 일본의 대표적인 관설 공모전인 「문부성미술전람회」의 인기를 넘어서었다고 전해지며,<sup>2)</sup> 1930년대 중반까지 “전람회의 무기력, 무발전, 부진. (중략) 사회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희박함”<sup>3)</sup>이 지적되던 근대화단은 전쟁화 제작과 전시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풍요로운 예술의 전성기,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sup>4)</sup> 그러나 시바사키 신조가 지적하듯 조국애에 기인한 화가들의 이러한 진혼의 기록은 패전 후 일본의 ‘원죄(原罪)’를 낱낱이 고발하는 증거물로 둔갑하였고 이를 제작한 화가들에게는 전쟁책임의 멍에가 씌워졌다.<sup>5)</sup> 예술을 향한 화가들의 ‘순수한’ 애정과 열정은 전쟁 프로파간다라는 제작 의도와 분리될 수 없었고, 조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전쟁 범죄를 긍정하고 수행하는 행위와 연동되었던 것이다.

### 3. 재조선일본인 화가의 전쟁화 제작

한편 이 시기 조선에서 활동한 재조선일본인 화가의 경우, 전쟁화를 둘러싼 논의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이들의 전쟁화 제작은 식민지 조선의 화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및 그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작가들의 불안정한 자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 화가들은 근대미술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던 ‘문화의 오지’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의 중앙화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주변화된 조선화단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영원히 무명의 ‘변두리 화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식민지화단에서는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는 한편 일본화단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는 혼종적 정체성(hybrid identity)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sup>6)</sup>

1) 荒木夏実 「戦争画は芸術かプロパガンダか 日本人は鑑賞禁止の美術展、「再現」した藤井光の視点」『The Asahi Shinbun GLOBE+』2022. 8. 8. <https://globe.asahi.com/article/14686540>.

2) 「戦争美術展: 文展を越す人気」青木茂(監修), 吉田千鶴子(解説)『近代美術関係新聞記事資料集成 第1期』(ゆまに書房, 1991) p.7; 「戦争美術展: 渦巻く人の波」青木茂(監修), 吉田千鶴子(解説)『近代美術関係新聞記事資料集成 第1期』(ゆまに書房, 1991) p.7.

3) 一氏義良 『美術の現実を語る』(総合美術研究所, 1937)p.3; 강태웅, 「싸우는 미술(戰ふ美術)―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미술은 어떻게 싸웠는가」『일본학보』 제99집 (한국일본학회, 2014) pp.353-354에서 재인용.

4) 菊畑茂久馬 『菊畑茂久馬著作集1』(海鳥社, 1993)p.6; 강태웅, 「싸우는 미술(戰ふ美術)―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미술은 어떻게 싸웠는가」『일본학보』 제99집 (한국일본학회, 2014) p.354에서 재인용.

5) 柴崎信三 『繪筆のナショナルリズム―フジタと大觀の「戦争」』(幻戯書房, 2011)p.187.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1899-1991)는 재조선일본인 화가의 혼종적 정체성과 전쟁화 제작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조선의 서양화단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본과 조선의 화단을 매개하는 ‘브로커 아티스트’로 활약하였고, 전시기(戰時期)에 이르러서는 조선군 미술부의 미술반장으로 복무하며 조선의 예술가들에게 전쟁화 제작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브로커 아티스트’로서 일본화단과 꾸준히 교류했던 야마다가 전쟁화 제작에 가담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나, 동시에 유럽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주변부에 머물렀던 조선의 서양화가에게 있어 일본화단으로의 진출을 담보하는 전쟁화 제작 활동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이다. 그는 조선 내에서 전쟁화 제작을 전개하는 대가로 내지의 전람회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는 야마다가 더 이상 외지의 무명 화가가 아닌 일본화단의 당당한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야마다는 전쟁화 제작에 동조하고 협조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는 내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지의 화가들이 일본군의 전투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침략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는 작업에 집중했던 반면, 야마다는 전쟁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지원병이나 서양인 포로를 박해받는 예수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전쟁으로 희생된 외지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증언하는 일련의 그림들을 전쟁화의 명목으로 제작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외지의 화가로서 목격한 식민지의 참상과 이민족의 비극을 반영한 결과였으며, 소극적인 방식로나마 ‘가해국 국민’으로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연민과 부채감을 표명한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 4. 전쟁 표상과 예술의 ‘건전함’

본 발표에서는 이상의 사실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의 일본 화가들에게 있어 전쟁화의 제작과 전시가 지니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작품 및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예술의 자율성—미적 가치의 고유성—과 도덕적·윤리적 가치의 의미를 생각하고, 미술사 분야의 미결 과제로 남아있는 전쟁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태웅·김용철·한정선, 『싸우는 미술 :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일본미술』(아연출판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  
 강태웅, 「‘싸우는 미술(戰ふ美術)’—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미술은 어떻게 싸웠는가」 『일본학보』 제99집 (한국일본학회, 2014) pp.351-361.  
 김용철, 「중일전쟁기 일본의 전쟁화」 『일본역사연구』 제32집 (일본사학회, 2010) pp.187-212.  
 ———,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전쟁화의 전후 행방」 『일본비평』 제9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pp.234-253.  
 ———, 「총력전시기 재조선일본인 미술가의 역할과 위상」 『일본학보』 제100집 (한국일본학회, 2014) p.401-415.  
 ———,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전쟁화와 프로파간다」 『일본학보』 제109집 (한국일본학회, 2016) pp.197-215.  
 김주영, 『일제시대의 在朝鮮 일본인 화가 연구 : 朝鮮美術展覽會 입선작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최태만, 「일본 전쟁기록화와 1945년 전후의 후지타 쓰구하루(藤田嗣治)」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5) pp.7-34.  
 ———, 「패전 후 일본 전쟁기록화 처리와 미술가의 행보—일제강점기와 패전 후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1899-1991)의 조선

6) 재조선일본인 화가들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김주영, 『일제시대의 在朝鮮 일본인 화가 연구 : 朝鮮美術展覽會 입선작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참조.



에서의 활동』『기초조형학연구』 16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5) pp.495-507.

하라다 마사토시(原田正俊) 저, 김경연 역,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의 재조선 시대—해제 : 야마다 신이치의 「현실의 조선—조선 재방문」』『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8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4) pp.347-442.

青木茂(監修)、吉田千鶴子(解説)『近代美術関係新聞記事資料集成第1期』(ゆまに書房、1991)。

池田安里(著)、タウンソン真智子(訳)『ファシズムの日本美術』(青土社、2020)。

大谷省吾『いかに戦争は描かれたか BankART school』(BankART1929、2017)。

河田明久(編)『美術批評家著作選集 第20巻 戦争美術の証言(上)』(ゆまに書房、2017)。

菊畑茂久馬『絵描きと戦争』(海鳥社、1993)。

北村小夜『画家たちの戦争責任』(梨の木舎、2019)。

神坂次郎(他)編『画家たちの「戦争」』(新潮社、2010)。

榎木野衣・会田誠『戦争画とニッポン』(講談社、2015)。

柴崎信三『絵筆のナショナリズム—フジタと大観の「戦争」』(幻戯書房、2011)。

丹尾安典・河田明久『イメージのなかの戦争』(岩波書店、1996)。

針生一郎(他)編『戦争と美術 1937-1945』(国書刊行会、2016)。

藤田嗣治(著)、林洋子(編)『藤田嗣治 戦時下を書く:新聞・雑誌寄稿集 1935~1956年』(ミネルヴァ書房、2018)。

山田新一の著述・書簡・新聞および雑誌記事など [都城市立美術館所蔵]。

劉建輝(他)編『戦時下の大衆文化 統制・拡張・東アジア』(KADOKAWA、2022)。

# 198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 속의 마이너리티

— 『민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신재민 (동국대)

## 1. 들어가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는 조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사적 격변기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그간 조국과 민족에 천착해온 거시적 담론을 넘어 생활자로서의 재일조선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마이너리티 들의 문제 역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간의 논의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1980년대의 재일조선인 사회가 ‘문화’를 토대로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고, 일본사회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이렇듯 재일조선인 사회의 내·외적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당시의 담론 속에서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의 마이너리티를 조명하는 것은 곧, 재일조선인 스스로 재일조선인 사회의 내적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다는 지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이러한 흐름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영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외부영역의 구축과 더불어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 주목하여, 재일조선인 사회의 내부영역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움직임을 당시의 논의를 토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 2. 『민도』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여성’ 문제

재일조선인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담론의 장을 자처한 잡지 『민도』에서는 재일조선인 여성문제<sup>1)</sup>에 대한 관심을 물론, 노인<sup>2)</sup>, 수인<sup>3)</sup>, 장애인<sup>4)</sup>이나 빈곤층<sup>5)</sup> 등의 문제, 나아가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sup>6)</sup>에 대한 관심 역시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문제와 재일조선인 생활인, 노동자·자영업자 등에 관한 문제는 4호와 9호의 특집 좌담회를 마련하여 당사자들의 현실적 발언 속에서 논의

---

1) 재일조선인 1세대 여성의 문제를 다룬 2호의 「オモニの<工夫>は文学修業」, 4호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좌담회 「女性にとっての在日同胞社会」, 6호의 한국의 여성운동을 다룬 「分断時代の韓国女性運動」, 10호의 여성 노동자 문제를 다룬 「海を渡った韓国女性労働者たちの闘い」 등이 있다.  
2) 5호에 수록된 김찬정의 르포르타주 「同胞老人社会最前線」가 있다.  
3) 4호에 수록된 아라이 마리코의 르포르타주 「もうひとつの植民地」가 있다.  
4) 8호에 수록된 이누마 지로의 수기 「在日朝鮮・韓国人「障害者」と人権」가 있다.  
5) 4, 5호에 걸쳐 연재된 재일조선인 예술가의 실생활 문제를 다룬 임충혁의 「東京貧乏物語」시리즈가 있다.  
6) 9호에 기고된 야마다 쇼지의 「聞書に終りはない」, 9호의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문제를 다룬 『生き抜いた証に』에 대한 김근희의 서평 「消えてゆく歴史を取り戻す」 등이 있다.

를 전개해 나가고자 했다. 실제로 4호의 좌담회 「여성에게 있어서의 재일동포사회(女性にとっての在日同胞社会)」에는 재일조선인 2·3세대 기혼여성과 재일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좌담회에 참여하여 사회자의 개입 없이 개별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기존 좌담회가 편집위원을 포함한 재일조선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과는 변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9호의 특집 좌담회 「생활의 현장에서 동포사회를 생각한다(生活の現場から同胞社会を考え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좌담회 역시 사회의 개입 없이 그래픽 디자이너, 시나리오 작가, 영화 배급·선전업자, 주부, 학생, 카페 점주, 등과 같은 다양한 직종의 재일조선인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문화, 민족, 자녀교육, 차별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좌담회의 구성은 재일조선인 민중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잡지의 시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재일조선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재일조선인의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는 민족과 조국, 재일조선인 차별 등과 같은 거시적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일조선인의 담론의 공간을 재일조선인 사회의 내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차원에서 또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4호의 「여성에게 있어서의 재일동포사회」에서 송화미(宋和美)는 “재일동포는 결국 민족이 어찌니 저찌니 하는 그럴듯한 것만 말하는 인간이 자기 부인을 디딤돌로 삼고 있다<sup>7)</sup>.”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거시적 담론에 함몰되어 재일조선인 여성문제에 소홀한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좌담회는 단순히 재일조선인 여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재일조선인 간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일본인 여성과 재일조선인 남성 등과 같이 혼인의 형태에 따라 참여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의견에는 일정 부분 간극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그간 재일조선인 여성문제의 주된 논점으로 판단되어온 유교사상에 의한 가부장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들의 논의이다. 해당 좌담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여성들은 재일조선인 3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재일조선인 2세대들이 겪었던 유교적 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존재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본인들이 밝힌 바와 같이, 재일조선인 부모 아래서 성장하였어도 일본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인식하는 재일조선인의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틀은 더 이상 여성문제에 있어 유효한 담론이 아니었다. 물론 이들은 전반적으로 재일조선인 사회가 역사적으로, 혹은 여전히 유교적 틀 속에서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래의 재일조선인 부부가 구축해온 이러한 틀이 일본사회에서 역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폭력과 폭언으로 상징되는 재일조선인 사회와 그 세부적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일 뿐, 일본사회에서 역시 전반적인 여성의 입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의 주된 불만은 이러한 틀 속에서 성장한 자신들의 남편이 보이는 가사에 대한 무관심과<sup>8)</sup>, 이를 방조하는 시어머니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양상 자체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도 존재했던 만큼, 당시의 여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민족적 틀을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도, 이들의 논의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녀교육과 국적에 관한 문제와, 재일조선인 취직문제,

7) 원문은 「在日同胞は結局民族どうのこうのってカッコええ事言うよる人が自分の嫁さんを踏み台にしていますね。」 「女性にとっての在日同胞社会」 『民涛』 4号 (民涛社, 1988, 9) p. 233.

8) 해당 좌담회에서의 논의에서는 재일조선인 남편의 경우가 이러한 경향이 일본인 남편의 경우보다 심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전반적인 가사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비슷하다는 의견 역시 공통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본사회와의 교류에 관한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자녀교육과 국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이 여성임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의사를 중심으로 한 국적 및 호적의 결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흐름이 존재했다. 특히 당시는 1985년의 호적법 및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개정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에서의 논의가 1988년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녀의 국적과 이름 문제에 있어 이들이 기존의 부계 혈통주의에 따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자녀를 ‘사생아’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해당 좌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판단해볼 때, 개정 3년 뒤인 당시에조차 여전히 재일조선인의 결혼과 귀화, 출산 등의 문제에서 실질적 차별<sup>9)</sup>이 잔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던 만큼 자녀의 본명사용을 지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불안 역시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에서 비롯된 차별적 시선이 점차 완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드러내고 있다<sup>10)</sup>.

재일조선인의 취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좌담회에 참여한 이들 모두 당시의 남녀의 학력 격차에 대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당시의 차별 속에서 재일조선인 남성의 취직과 관련된 현실이 밝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일본의 취직차별에 더해 재일조선인 고학력 남성들의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재일조선인 여성은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직업이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취직이 용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재일조선인 사회와 일본 사회 간의 현실적, 생활적 레벨에서의 교류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의 노동이 재일조선인과 일본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넘어 상호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이 지점에서 찾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잡지의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차별에 관한 문제는 당시의 문화적, 정책적 차별의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속에서 자신들의 주도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지닌 가능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재일조선인 여성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종래의 ‘유교적’ 틀에서의 논의를 벗어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9) 이들은 모두 연애, 결혼 등의 문제에 부모의 반대를 겪은 인물들로, 이는 명확히 일본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연애와 결혼에 있어 ‘민족적 편견’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넘어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에 동의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0) 이 발언은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하타자와 아키에(畠沢明枝)의 발언으로, 당시의 도쿄지역에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자신의 의지로 자식의 본명사용을 주도, 지지하는 일본인 어머니의 모습 역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재일조선인 3세들의 모습과 더불어,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고자 하는 일본인 민중의 모습 또한 드러내고 있다.

# 재일코리안 집중거주 지역에서의 민족학급의 역할

정성희 (동국대)

## 1. 들어가며

이쿠노쿠(生野区)는 오래전부터 재일코리안<sup>1)</sup>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2년 3월말 현재 이쿠노쿠에는 125,16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 체류외국인은 총 26,256명이다. 국적별 체류외국인 인구는 한국 및 조선 19,619명, 베트남 2,711명, 중국 2,652명이며, 다른 국가의 외국인 국적자에 비해 한국·조선 국적자의 인구가 높게 나타난다.<sup>2)</sup>

이쿠노구에 재일코리안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다. 첫 째, 이쿠노구에 있는 히라노강(平野川)의 개수 공사에 종사하기 위해 왔던 조선인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며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둘째, 1922년 제주도 와 오사카 사이를 오가는 항로가 개설됐던 시기에 오사카로 건너온 제주도의 조선인들이 노동자로 일하며 이쿠노구에 그대로 정착했고, 해방 후 1947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도망쳐온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과 다양한 계기로 모인 조선인들이 살기 위한 터전으로 삼아 자연스레 이쿠노구에 모여 살게 되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한 재일코리안은 귀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아이들의 민족교육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고 1948년 한신교육투쟁(阪神教育闘争)으로 민족학급(民族學級)이 탄생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립학교 속의 민족학급에 주목하여 그 중에서도 재일코리안 집중 거주 지역에 있는 A초등학교의 민족학급에서 이루어진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학급의 선행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로써는 처음 민족학급이 시작한 나가히시초등학교(長橋小学校)에 대한 연구가 많은 상황이다. 민족학급 형성의 시기, 특징은 지역마다 즉 학교마다 다르며 민족학급의 의의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A초등학교의 민족학급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이쿠노라는 재일코리안 다수 거주 지역에서 민족학급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일본 공립학교 내 민족교육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겨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들의 생존을 위한

1)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다. 그들 중 광복을 맞은 1945년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 오지 않고, 일본에 남아 사는 이들을 ‘재일코리안’이라고 한다. 재일코리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또는 ‘자이니치(在日)’와 ‘올드커머(old comer)’ 등으로 다양하다. 재일코리안의 정의는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조선 국적자 중 특별영주자만을 가리키거나, 혹은 한국·북한계 일본인을 포함하기도 하는 등 그 한정 범위는 연구마다 차이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일본에 이주하여 정착한 한민족의 총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재일코리안’을 사용한다.

2) 大阪市, <https://www.city.osaka.lg.jp/shimin/page/0000006893.html>, 검색일 : 2023.07.31.

일본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해방을 맞이한 1945년, 이들은 귀국을 염두하고 있었기에 자녀들의 민족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재일코리안 1세대들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을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전국 곳곳에 자신들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1948년 1월, GHQ의 지령을 근거로 삼은 일본 정부가 ‘문부성학교교육국장통달(文部省学校教育局長通達)’을 공표하여 민족학교를 폐쇄 조치했다. 즉, 일본의 학교기본법이나 교육기본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코리안의 자녀들이 일본 학교에 통학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야마구치현(山口県)과 한신(阪神)지역에서 ‘4·24 한신 교육투쟁’이라는 저항을 담은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며, 6월 4일 오사카에서 재일코리안 대표와 오사카부지사 사이에서 공립학교의 과외활동으로 언어·역사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覚書)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현재 일본 공립학교에서 실시되는 민족학급이 설립된 것이다.

### 3. A초등학교 민족학급의 형성과 보호자·교사·지역 사람들의 역할

1985년 당시 ‘A초등학교’라고 하면 ‘외국인 재적률’이 72%로 일본 공립초등학교 중 가장 높았다. 이 학교는 1972년에 외국인 보호자회(外国人保護者会)를 발족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교장에게 민족학급의 개강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역대의 교장들은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필요하다, 반대하지는 않으나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민족학급 설치에 관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렵다는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교내에서는 외국인 교육 추진을 위해 타교에서의 실천 기록을 참고하면서 외국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정규의 시간인 클럽 활동으로서 외국 문화 클럽을 신설해, 조선반도의 노래나 조리 실습 등을 실시해, 클럽용의 교내 게시판을 마련하여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이러한 보호자·교사, 또 민족교육추진협의회(民族教育促進協議會)의 활동으로 인해 1989년 6월 20일 민족학급이 개강되었다.

A초등학교에 설치된 민족학급은 민족의 문화·전통을 학습하는 교실이라는 의미의 ‘민족학급’이라는 명칭으로, ①한국·조선인아동과 일본인아동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친선과 선린우호로 임한다 ②한국·조선인 아동의 “민족적 자각과 자량”을 높여, 본명을 부르고, 이름을 밝힐 수 있도록 육성한다 ③한국·조선의 자연이나 문화를 배워, 민족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육성한다 ④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그 형태는 민족학급에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 중 4·5·6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방과 후 1시간씩 개강한다는 형태였다. 민족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3명의 민족강사가 1991년까지 봉사활동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었다.

A초등학교에서 민족학급이 설치되자, A초등학교 외국인 보호자회는 1990년부터 ‘공비부담의 민족강사’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시작했고, 1991년에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大阪府教育委員会)에 외국인보호자회 및 학부모회 회원들이 서명한 ‘공비부담 민족강사의 배치를 요구하는 요망서(公費負担の民族講師の配置を求める要望書)’가, 또한 학교 내의 교직원으로부터도 ‘공비부담 민족강사 배치를 요구하는 요청서(公費負担の民族講師の配置を求める要望書)’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결과 1992년부터 공비 부담(시간강사의 자리매김)에 의한 민족강사 한 명의 배치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과외활동이지만

민족학급의 활동이 정식으로 A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이 되었고, 민족강사도 A초등학교의 직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92년부터는 학년 담임이 민족학급에 관여하는 것이 명확해져 민족강사·보호자·교사의 3자가 함께 민족학급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1995년에는 3학년의 민족학급이 개강되었고, 1997년부터는 비상근이었던 민족강사가 상근할 수 있게 되어, 대상 학년도 전학년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A초등학교에서의 민족학급의 설치, 또 민족강사가 상근화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진 것은 외국인 보호자회·교사·지역 사람들이 단결하고 있던 것이 크다. 특히 보호자들의 생각이 사람들을 단결시켰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보호자들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글이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한국·조선인에 대해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족학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배우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 발표회에서 감동시켜주세요.<sup>3)</sup>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본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다. 당시 재일코리안2세가 대부분인 부모들은 1세와 달리 본국에 대한 지식 등이 없고, 차별과 싸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온 세대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 온 경험을 자식에게 안 하게 해주고 싶었고, 또한 민족학급의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 다시 본국을 만나 본국에 대해 배우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998년에 발행된 A초등학교의 민족학급 10주년 기념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나 앞에 글 이외에도 기념지 곳곳에 보호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다. 즉 A초등학교에 경우 보호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민족학급의 설치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활동이 일본인 보호자, 교사 및 지역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것이다. 더불어 그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부모가 다수 있는 재일코리안 다수 거주 지역이었다는 것은 민족학급 설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하다.

---

3) 統一日報, 「公費補償民族講師迎え開講」, 1992年5月13日掲載.

# 국제규범을 통해 본 일본의 대북제재에 관한 일고찰

— 조선학교 무상화 운동의 전개와 한계를 중심으로 —

권연이 (동국대)

본 발표에서는 2013년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된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무상화 운동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한다.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동원하여 일본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 자료로서 조선학교 무상화 운동에 관여해온 시민단체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자료, 일본재판소 판결문, 일본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여 본 논문의 집필을 위해 활용하였다.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2012년 이후 조선학교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이하 ‘조선학교 무상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조선학교 관계자들은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소송, ‘금요행동’을 통한 배제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의 전개, 유엔 인권위 방문 등 로비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배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민족차별’을 주장하며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5곳에서 제기되었던 무상화 재판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으며,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의 감소, 조선학교 학생수의 급감 등 운동의 성과를 재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운동의 아젠다 설정의 어려움, 국내외 정치상황 등 한 정적 기회구조 하에서 향후 무상화 운동의 방향성은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인권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조선학교의 ‘학생들’이다. 보편적 인권규범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일본정부와 사회를 움직이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정권의 장기 지속 경향 속에서 정권 내 우호연합 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상화 운동은 국제규범의 동원과 우호적인 시민들의 지지 동원, 재판소송 등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일본정부에 이의제기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조선학교 관계자, 학생들, 학부모 및 일본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시위 및 집회를 해왔으며, 유엔에 로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가 수차례 내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는 일본사회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일본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었고, 재판을 통한 문제제기도 결과적으로 패소판결로 끝을 맺었다.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미사일 위기로 인해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강화되고 이와 동시에 일본사회 내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등의 혐오 데모, 보수우익 운동의 활성화, 보수언론의 프레이밍 속에서 무상화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아베 정권기는 특히 ‘경제안보’ 등의 개념이 중시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에 일본의 자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를 정당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외교 안보



에 대한 일본 여론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제도로부터의 배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조선학교 무상화 운동의 논의는 다른 측면에서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상화 운동 측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이라는 주장과 일본정부와의 대립각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조선학교의 ‘학생들’이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평등권을 불모로 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사회로부터 동등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성인이 되어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무상화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운동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서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한 초국가적 인권운동의 지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무상화 운동을 일본 국내에 국한시켜서 전개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적 인권운동과 연대하여 운동의 보편성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동원하여 일국의 정부가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정부행위자들의 활동에 의한 여론조성은 주요한 활동 방법이다. 일본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일본사회의 여론이며 지역사회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 한일 세대론의 비교고찰

金華榮 (水原科學大)

## 1. 서론

세대론은 사회학적인 이론 중 하나로, 각 세대들의 특징과 세대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세대론은 각 세대가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라며 공유하는 경험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론은 각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소통, 협력 등을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세대론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광고, 마케팅,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현대'의 한국과 일본에 일어나 세대론의 특징을 나라별로 살펴보고 각 나라의 세대론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세대론이란 무엇인가?

- 세대 개념은 어떤 특정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설명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과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갖는 공통점과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갖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집단들 간의 '경계'를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sup>1)</sup>
- 세대를 규정하는 4가지 방식<sup>2)</sup>
  - ①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각 세대는 일정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신세대는 1925년부터 194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 ② 공통된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세대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통 경험은 그들의 가치관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대를 구분하는 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베이비 붐 세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과 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
  - ③ 특정한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문화는 세대 간의 세대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다양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 ④ 세대들은 특정한 기술 사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인해

1) 최섯별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세대간의 문화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년, p.19

2) 최섯별, 전계서, pp.20-22

세대들 간의 기술 사용 패턴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점도 세대를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3. 한국의 세대론

#### ① 산업화세대

일반적으로 산업화세대(Industrialization Generation)란 산업화가 진행되고 발전한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세대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산업혁명과 산업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산업화는 기존의 수공업적 생산 방식에서 기계화와 기술 혁신에 의해 대규모 생산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농촌과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가 변화하여 도시화와 도시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산업화세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로, 산업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활 방식, 경제 활동, 사회적 가치 등이 크게 변화했다. 이 세대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체험하고, 도시로 이동하여 산업 일자리를 찾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한국의 산업화세대는 1944년에서 195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전쟁을 경험했으며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1990년에 퇴직을 한 세대를 말한다.

#### ② 베이붐세대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란, 제2차 세계 대전 후로부터 약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다른 서구 국가들에도 적용되었다. 이 세대는 극히 낮은 출산율이었던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인해 대량으로 태어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르키며 인구의 약 90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내에서는 민주화세대, 유신세대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불리기도 한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크며,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사회와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제 은퇴로 인해 노동시장과 사회 복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는 베이비 붐 세대가 점점 늙어가고 은퇴하면서, 이후 세대들과의 세대 간 갈등과 세대 교체 문제, 노인 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③ X세대

X세대는 대략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출생하고 1990년대초 대학에 들어간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X세대는 신세대, 오렌지족, 정보화세대, 탈정치세대, 인터넷세대, 넷세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X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의 후손으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어느 세대보다도 더 뚜렷한 세대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X세대는 디지털 혁명이 시작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에 친숙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쉬운 성격으로 정보화세대, 인터넷세대, 넷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 불안정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직장 이동성이 높은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 ④ 88만원세대

88만원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1979년에서 1988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1988년 세대 출생자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문제점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용어는 경제학자인 우석훈이 사회운동가인 박일권과 2007년에 함께 쓴 경제비평서 『88만원세대』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저서에서 쓴 것처럼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전체 소득 대비 20대의 평균적 소득 비율인 74%를 곱해서 나온 88만원이라는 금액을 20대가 처한 세대간 불평등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88만원 세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취업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산 구축과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정의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 ⑤ MZ세대

MZ세대는 주로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MZ세대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MZ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커지는 시대에서 자라면서 온라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MZ세대는 정보통신기술(IT)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즐기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주장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환경 문제, 노동 문제, 근무 시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 4. 일본의 세대론

### ① 단카이세대

일본 단카이세대는 일본 사회의 세대 구분 중 하나로서 団塊世帯라고 표기한다. 단카이세대는 대체로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이 세대는 일본의 재건과 경제 발전의 시기에 태어났으며, 일본 경제의 성장과 모던화에 큰 영향을 미친 세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일본이 전후 재건기에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단카이세대는 일본 경제가 안정적인 시기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누렸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의 기업 문화와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조직적인 문화에 익숙한 경향이 있다. 단카이세대는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을 지닌다.

현재 단카이세대는 장년층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세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세대 역시 일본 사회의 변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 ② 시라케세대

시라케세대는 앞선 단카이세대와 다르게 1950년에서 1964년에 태어나 고도성장과 학생운동이 지나간 직후 대학에 들어온 세대로 버블시대를 맞기 전에 성인이 되었다. 이들은 무관심, 무기력, 무감동의 3무 세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야마구치 야스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들을 신인류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관이 확고하여 서브컬처인 오타쿠 문화를 만들었다. 이들이 20대였던 80년대에는 고도경제성장기 속에서 취업이 어렵지 않아서 독신생활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서 독신귀족이라는 말도 만들어졌다.<sup>3)</sup>

## ③ 버블세대

버블세대(Bubble Generation)는 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일본의 버블경제기(Bubble Economy)라고 부르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1965년-1969년생)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일본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고용 기회와 경제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세대로 알려져 있다. 버블 경제는 부동산, 주식,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인들의 부와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하면서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버블세대가 일본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버블세대는 현재 중장년 세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안정성과 자산이 증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사회의 변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 ④ 단카이주니어세대

일본 단카이주니어 세대(日本団塊ジュニア世代)는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단카이주니어 세대는 일본에서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 단카이세대의 자녀로서 일본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을 겪은 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일본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정성을 경험한 세대이다. 국제화와 문화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다. 단카이주니어 세대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변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⑤ 포스트단카이주니어세대

포스트단카이주니어 세대는 1975년부터 198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데 단카이주니어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일본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도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제화와 글로벌 시대의 도래로 인해 늘어난 외국 교육 경험을 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취업과

3) 시사노 미사에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일본연구』 9제 72호) 2017년, p.46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인다. 이들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사회적 인 가치와 환경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 ⑥ 유토리세대

유토리세대는 1980년후반부터 1990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며 당시 일본의 교육정책이었던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엄격한 교육이나 시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을 유토리교육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토리교육으로 인한 학력저하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 ⑦ 탈유토리세대

“탈유토리세대”는 유토리세대의 반대 개념으로, 일본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탈유토리세대는 유토리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교육환경이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유토리는 일본어로 ‘여유(余裕)’을 의미하며, 탈유토리세대라는 용어는 이들 세대가 유토리세대보다도 더 근면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에 태어나서 더욱 노력해야 했다. 탈유토리세대는 그들이 자유로운 교육환경이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세대로서, 다소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기도 한다. 이들은 경쟁사회에서 뛰어난 실력과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⑧ Z세대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현재로서는 대부분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X세대와 Y세대의 다음 세대로서, 현재 일본 및 전 세계의 사회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Z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정보와 문화적 영향을 빠르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다. Z세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이전 세대들보다 더욱 개인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민주적이며, 사회적 정의와 다양성을 중요시하며, 환경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빈부격차가 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나 직업 선택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 5. 한국과 일본의 세대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 『BEASTARS』가 제시하는 공존 (불)가능성

朴秀淨 (聖潔大)

## 1. 서론

이타가키 파루(板垣巴留)의 『BEASTARS』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동물판 청춘 휴먼드라마’를 그린 만화로, 2016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잡지 『주간 소년 챔피언(週刊少年チャンピオン)』(秋田書店)에 전 196화가 연재된 소년만화이다. 이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2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누계 발행 부수는 750만 부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기작으로,<sup>1)</sup>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방영된 것은 물론 후속 애니메이션이 OTT 사이트 Netflix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sup>2)</sup> 또한, 스토리가 본격화된 2018년에는 제42회 고단샤 만화상(講談社漫画賞) 소년부문을 비롯해 제11회 만화대상(マンガ大賞) 대상, 제22회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手塚治虫文化賞) 신생상, 제21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文化庁メディア芸術祭) 만화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이 만화의 청신한 표현력과 주제의식 등이 호평받았다.

특히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는 『BEASTARS』에 대해 “실재하는 동물의 신체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매끄러운 터치로 때로는 코믹하게 동물들의 청춘 군상극을 그리고 인간 사회에도 가로놓인 공존의 문제까지 환기<sup>3)</sup>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는데, 『BEASTARS』가 그리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는 실로 시의성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본질주의에 기초한 『BEASTARS』의 세계관은 언뜻 집단 간의 공존 불가능성을 노출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융화와 화합이 지극적인 화두로 떠오른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BEASTARS』는 인종, 민족, 문화, 성별, 성적지향 등 현대 사회의 여러 카테고리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분열, 차별과 혐오에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으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퀴어스터디 등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BEASTARS』의 본질주의적 세계관이 일본의 다문화공생 패러다임을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비슷한 주제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Zootopia)』(2016)와 비교하면서 『BEASTARS』가 공존을 위해 제시한 대답이 다문화공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 작품이 추구하는 공존 뒤에 남겨진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상생의 진일보를 위해 『BEASTARS』가 제시한 해답을 보완해보고자 한다.

1) 작가 이타가키 파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BEASTARS』가 2021년 10월 시점에 누계 발행 부수 750만 부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https://twitter.com/itaparu99/status/1453275241170579457> (최종열람일: 2023.07.29.)

2) TV 애니메이션 1기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기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후지TV에서 방영되었다. 마지막 Final Season은 2024년에 Netflix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다.

3) <https://j-mediaarts.jp/award/single/beastars-2/> (최종열람일: 2023.07.29.)

## 2. 『BEASTARS』와 다문화공생 패러다임

『BEASTARS』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원 기숙사제 고등학교· 체리톤 학원을 무대로 한다. 주인공 레고시는 수컷 회색늑대로, 연극부에서 조명 담당을 맡고 있다. 어느 날 육식이 초식을 잡아먹는 식살(食殺) 사건이 벌어져 수컷 알파카 테무가 희생당한다. 육식과 초식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식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범죄로, 레고시는 친구인 테무를 식살한 범인을 쫓게 된다. 그런 와중에 그는 수컷 붉은 사슴 루이와 우정을 쌓고 암컷 흰 토끼 하루를 사랑하기도 하며, 초식의 신체가 밀매되는 암시장을 목격함으로써 표면상의 평화 이면에 숨겨진 사회의 어둠을 포착한다.

『BEASTARS』 세계에서 육식과 초식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육식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본능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의 음식점에서도 학교의 식당에서도 고기는 판매하지 않으며 육식은 계란과 유제품을 통해서만 단백질을 섭취한다. 후에 밝혀지는 식살 사건의 범인인 수컷 볼곰 리즈의 경우 평소 억제제를 복용해 근육을 축소 시키고 식욕 충동을 억눌러 왔지만 사건 당일 약을 먹지 않으면서 일이 발생하고 만다. 작중에서 육식은 “본능의 노예”(3권)로 일컬어지며, 식육과 수렵 등 육식 동물의 생득적 본능은 “문명”(7권)과 대치된다.

『BEASTARS』가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육식과 초식이라는 종족 카테고리리는 현실 세계의 인종, 민족, 문화, 성별 등의 ‘서로 다름’을 구분하는 개념들을 떠올리게 한다. 체리톤 학원의 카리스마적 리더 루이가 단상 위에 올라 언급한 “공존과 공영”(2권)은 육식과 초식이 어울려 살아가는 『BEASTARS』 사회의 슬로건으로, 물류·정보·인구 이동 등을 촉진한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주의를 연상시킨다. 국제적으로 이민이 증가하자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 사이에서 이문화 접촉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것이 다문화주의였다. 일본은 다문화주의를 베이스로 독자적인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이 이문화 이해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문화공생의 개념과 정책은 여러 층위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다문화공생이 문화본질주의에 입각해있다는 점이다. 2006년 3월 총무성이 발표한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공생이란 “국적과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sup>4)</sup>이다. 이러한 정의는 ‘국적’과 ‘민족’을 ‘문화’와 연결 지어 차이를 실체화하고 한 집단 내부에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함으로써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를 더욱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충분하다.<sup>5)</sup>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의 전제는 본질주의적 사고에서 기인하며 『BEASTARS』는 초식과 육식의 생물학적 차이를 통해 이와 같은 다문화공생의 패러다임을 재현한다.

무엇보다도 『BEASTARS』에서 “공존과 공영”을 위해 변화를 강요받는 것은 육식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육식은 식육을 금지당하고 채식하며 발톱을 숨기고 힘을 조절한다. 육식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 변화 요구는 사실 일본의 다문화공생이 은폐하고 있는 동화주의적 태도와 맞닿아있다. 다문화

4) 総務省(2006)「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総務省, p.5.

5) 戴エイカ(2003)「多文化共生」とその可能性『人権問題研究』3, 大阪市立大学人権問題研究会, p.44. 馬淵仁(2005)『異文化理解』のディスコース—文化本質主義の落とし穴』京都大学学術出版会, p.55. 原知章(2009)「多文化共生」を内破する実践：東京都新宿区・大久保地区の「共住懇」の事例より『文化人類学』74(1)日本文化人類学会, p.139. 이외에도 다문화공생 정책이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의 역학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대등한 관계를 주장한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김정희(2020)「일본 다문화공생 이념의 논리와 상생으로의 전환」『일본학연구』6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96.



공생은 일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우리’에 녹아들 것을 요구하는 동화(同化)와 다름없다.<sup>6)</sup> 다문화공생 정책은 대개 외국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때 주로 이뤄지는 일본어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변화와 적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이너리티이며,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것은 ‘일본인’의 ‘일본문화’다.

이렇듯 『BEASTARS』가 그리는 육식과 초식의 공존은 종족 사이의 본질적 차이라는 념을 수 없는 벽을 전제로 한쪽이 다른 쪽에 맞춤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사상누각으로, 다문화공생의 개념과 정책이 은폐하고 간과해온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렇다면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BEASTARS』는 결국 공존의 불가능을 주장하는 반(反)다문화주의일까?

### 3. 『BEASTARS』가 문제 제기하는 본질주의의 행방

『BEASTARS』가 종족 간의 본질적 차이를 말하면서도 공존의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담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BEASTARS』의 연재가 시작되기 몇 달 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Zootopia)』(2016)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공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주토피아』는 주인공 암컷 토끼 주디가 경찰이 되어 자아를 실현하고 어릴 적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늑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다.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주토피아는 육식과 초식이 한 데 어울려 살아가는 낙원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과거 포식자(육식)는 “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충동”으로 인해 피식자(초식)를 사냥했으나, 동물들이 “진화”함에 따라 “원시”와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화합”의 주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sup>7)</sup> 『주토피아』 또한 『BEASTARS』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결정론을 바탕으로 종족 간의 본질적 차이를 전제하고 육식의 본능을 ‘비(非)문명’으로 규정한다. “진화”를 통해 본능을 갈무리했다고 믿어왔던 육식이 초식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디는 여기에 “생물학적 요소”가 관련 있다고 발언한다. 육식이 “원시적인 야수”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주디의 언동은,<sup>8)</sup> 주토피아 사회에 내재하고 있던 육식에 대한 편견을 노정할 뿐 아니라 초식과 육식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견됐던 ‘미개’와 ‘문명’의 도식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육식에 대한 공포를 역이용하려는 초식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진실을 알게 된 주디는 사건을 해결한 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것”<sup>9)</sup>이라며 앞서 드러낸 편견을 반성하고 ‘타자’를 포섭하는 다문화주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주토피아』에서 “진화”를 통해 억제되었던 육

6) 나카무라 히로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마이너리티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토대로 차별에 대한 반대와 자기 문화의 습득을 권리로 인정하는 데에 반해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공생이라는 미명으로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中村廣司(2014)「日本の「多文化共生」概念の批判的考察」『일어일문학회연구』 91(2), 한국일어일문학회, pp.399-408. 아마네 도시히코 또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차별과 지배의 구조는 따져보지 않은 채 동화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고찰한다. 山根俊彦(2017)「「多文化共生」という言葉の生成と意味の変容—「多文化共生」を問い直す手がかりとして」『常盤台人間文化論叢』 3(1), 横浜国立大学都市イノベーション研究院, pp.137-140.

7) 영화『주토피아』, 00:01:00-00:03:13. 황진미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사회 문제를 녹여낸 『주토피아』가 육식과 초식의 본질적인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바탕을 둔 지독한 인종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황진미(2016)「『주토피아』가 ‘진짜로’ 말하는 것은?」『창비어린이』 14(3), 창비어린이, pp.210-211.

8) 영화『주토피아』, 01:10:37-01:12:00.

9) 영화『주토피아』, 01:33:27-01:34:04.

식의 본능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인 채로 “이해”와 “포용”이라는 얇은 실을 바늘에 꿰어 열기설기 봉합된다. 그리하여 『주토피아』는 종족 간의 본질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이 문제에 정치적 야욕을 개입시켜 논점을 흐린다.

한편 『BEASTARS』는 본질주의의 문제를 정면돌파 하려 한다. 테무를 식살한 범인이 리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레고시는 그를 멈추기 위해 결투를 벌인다. 이때 “종족의 벽을 부술 수 있는 건 포식뿐”이라고 외치는 리즈를 향해 레고시는 “종족의 벽을 부술 수 있는 건 사랑뿐”(10권)이라고 대답한다. 다소 순진한 발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랑”은, 『주토피아』가 말하는 “이해”와 “포용” 등의 관용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레고시가 “사랑”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이종결합을 통해 태어난 ‘혼종(hybrid)’, 즉 경계적 존재를 통한 이분법적인 종족 분류의 무효화로 이어진다.

작중 회색 늑대라고만 여겨졌던 레고시는 코모도 왕도마뱀을 할아버지로 둔 ‘쿼터’이다. 『BEASTARS』 세계에서는 10년 전부터 이종혼이 인정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동종혼을 상식으로 생각한다. 이종혼을 통해 태어난 혼혈은 “재앙”(12권)으로 표현되어, 이는 현실 사회의 혼혈 혐오를 방불케 한다. 식살 사건이 일단락된 뒤 레고시는 『BEASTARS』 세계의 영웅(비스타)인 수컷 말 야호야를 도와 음식에서 벌어지는 살육 사건 해결에 동참한다. 이 사건의 범인 멜론은 암컷 표범과 수컷 가젤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로, “육식과 초식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이물질 취급”(15권)하는 사회에 복수하고자 한다.

혼혈 캐릭터가 범죄자인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겠지만 멜론에 맞서는 레고시 또한 혼혈이며 그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지너리 키메라(상상의 합체 동물)’ 기술을 연마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싶다. 레고시는 자신(육식)과 하루(초식) 사이에서 태어날 혼혈 자식의 상상을 통해 강해지며, 자신(육식)과 루이(초식)의 피를 섞어 불붙인 햇불을 들고 멜론에 대적해 암시장을 없애고 사회를 안정시킨다. 『BEASTARS』가 분리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주목한 혼종성은 집단과 집단을 가르는 경계에 대한 물음이다. 표범의 이빨과 가젤의 뿔을 가진 멜론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이고 결합한 혼종으로, 육식 동물로도 초식 동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낯선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안의 동질성을 추구해온 이들은 혼종을 차별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고, 다문화공생 조차 혼종(혼혈)을 논의의 장 밖에 위치시켰다.<sup>10)</sup>

따라서 다문화공생을 포함한 다문화주의가 그 개념적,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 이 논의에서 등한시되었던 혼종성이다.<sup>11)</sup> 혼종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체계가 접목됨으로써 종래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계통이 창출”<sup>12)</sup>되기 때문이다. 혼종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기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병치시키는 양가성”<sup>13)</sup>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혼종은 다문화공생, 나아가 본질주의가 분류한 이분법적 카테고리를

10) 박이진(2023) 「일본사회의 외국인 ‘혐오’와 혼혈—‘국제아’, ‘더블’ 담론의 이분법과 ‘아시아계’ 혼혈」『일본문화연구』 86, 동아사이언스학회, pp.145-149.

11) 加藤麻由美(2003) 「多文化主義の限界(はい)かについて乗り越え可能か—戦略としてのハイブリディティとディアスポラ」『人間文化研究』 1, 名古屋市立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 pp.85-89.

12) 인체와 동물, 사물을 결합한 조형예술에 대해 하이브리드의 결합 원리를 토대로 분석한 윤순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는 개방성, 양가성, 환상성, 상동성에 의한 치환, 수사학적 비유의 다섯 가지 형식적 특성을 가진다. 이 중 이질적이고 낯선 것의 경계를 허무는 개방성과,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병치시키는 양가성은 『BEASTARS』의 혼종성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좌일 것이다. 윤순란(2015) 「경계에 존재하는 몸: 인체, 동물, 사물 간의 이종결합으로 구현되는 조형예술」 『기초조형학연구』 16(5), 한국기초조형학회, p.378.

13) 윤순란(2015) 전개논문, p.379.

해체한다. ‘타자’와 ‘타자’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계의 존재에 주목하는 『BEASTARS』는 본질적 차이를 상징 당한 집단 사이의 공존 불가능성을 전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 4. 『BEASTARS』가 남긴 과제

『BEASTARS』가 그리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인종, 민족, 문화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문제로도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작중에서는 많은 경우 포식자 육식이 수컷으로, 피식자 초식이 암컷으로 그려진다. 사자 조직에 납치된 하루가 고기의 품질을 검증받을 때 옷을 벗도록 강요당하거나(5권), 암컷 오카피 코스모가 암시장의 스트립쇼 극장에서 일하는 장면(8권)에서 알 수 있듯이 육식과 초식의 먹고 먹히는 관계는 현실의 비대칭적 젠더 관계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육식의 대체 단백질로 사용되는 계란을 낳는 암탉(3권), 우유를 생산하는 암소(12권), 접대 자리에서 희롱당하는 암컷 양(12권)의 일화는 대상화·객체화되는 암컷(여성)의 신체가 수컷(남성)에게 어떻게 착취되는지 보여주지만, 『BEASTARS』에서는 젠더 문제가 육식과 초식 사이의 문제로 치환·흡수됨에 따라 성별 갈등은 현재화하지 못한다.

『BEASTARS』의 스토리를 이루는 두 가지 축은 레고시가 식살 및 살육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담과 하루와의 연애담이라 할 수 있는데, 영웅담을 통해 이분법적 종족 카테고리의 해체를 시도한 것과 달리 연애담은 성별 카테고리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한다. 레고시에게 하루는 초식이기 이전에 암컷으로, 작중에서는 “암컷과 서로 이해하는 건 영원히 어려울 것 같다.”(9권), “구 씨는 암컷, 저는 수컷. 이러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훈련했으면 한다.”(19권) 등의 대사가 반복되어 종족의 벽을 넘어 공존을 모색한 뒤에도 성별의 벽은 확고하게 남아있다. 사실 이것은 레고시의 연애담이 수컷(주체)으로서의 자기승인 서사인 이상 암컷(객체), 즉 ‘구성적 외부’<sup>14)</sup>가 필수적인 만큼 해체될 수 없다.

나아가 레고시와 하루의 연애는 이성애적 주체로서 자기를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BEASTARS』 사회에서는 동족혼이든 이종족혼이든 기본적으로 암컷과 수컷의 교류를 전제로 한다. 도망친 멜론을 잡기 위해 레고시와 야호야는 비밀 파티 ‘가면야행회’에 잠입한다. 이곳에서는 육식이 고기를 마다하거나 같은 성별끼리 성적인 접촉을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암컷과 암컷의 성행위를 목격한 레고시는 이곳을 “무법지대”라고 부르고, 야호야는 “도덕도 윤리도 뒤틀린” 곳이라고 비난한다(15권). 종족과 성의 굴레에서 해방되려 하는 이들은 사회적 규칙을 일탈하는 존재로서 상대화되며 『BEASTARS』의 이성애 체제 사회가 배제하는 동성애는 현실의 동성애 혐오를 대변한다.

『BEASTARS』는 육식과 초식,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혼종을 통해 두 가지 카테고리가 길항하는 동시에 겹쳐지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카테고리 분류가 표상하는 인종, 민족,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적 구분의 무효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비대칭적 권력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언뜻 『BEASTARS』의 공존 논의에서 성별과 성적지향의 문제가 소외된 것처럼 보이게 하나 이것은 이 작품의 한계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만 하는 갈등과 혐오가 그만큼 다양하고 두텁게 산재해있으며, 성(性)의 문제는 특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BEASTARS』는 하루의 프리프즈에 레고시가 “당신과 평생 이종족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22권)라고 대답하며 끝을 맺는다. 이성(異性)이 이해 불가한 ‘타자’라고 느껴지더라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레고시의 각오는 남성

14) Judith Butler(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3.

과 여성의 상생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2016년 6월 일본에서는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며 외국인, 특히 재일 코리안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발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이나 실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지만,<sup>15)</sup>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을 눈감아왔던 일본 국회가 이런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 집단 간의 마찰이 심화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BEASTARS』의 연재가 시작되었다. 『BEASTARS』가 그리는 동물들의 고뇌와 갈등, 우정과 사랑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작품 나름의 해법 제안으로, 특히 혼종성의 전경화는 ‘공존 불가능성’ 위에 덧씌워진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다. 사실 『BEASTARS』가 묘사하는 동물의 몸은 동물과 사람의 하이브리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은 작위적이지도 괴기하지도 않고 조화로울 뿐이다. 『BEASTARS』에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남아있으나 이 작품이 말하는 공존은 분명 우리 사회의 수많은 대립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5) 이진원은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 법이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분위기 형성, 국민의 의식 향상 등을 통해 헤이트스피치가 진정되기를 기대하는 사후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재일 코리안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 근절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진원(2022)「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성격」『일본학』 56,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9-42.

# 조선후기의 왜관요(倭館窯) 연구

— 『제방어호지어소물 어주문추(諸方御好之御燒物御注文摺)』를 중심으로 —

趙容蘭 (中央大)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왜관요에서 만들어진 다도구에 관해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마도는 조선후기 조일간의 교역을 총괄한 곳으로 이에 관한 모든 기록이 『종가문서』이다. 『종가문서』는 대마번저(對馬藩邸)와 왜관, 그리고 에도번저(江戸藩邸)의 3곳에서 기록되었고, 일본의 나가사키현립 대마역사민속자료관, 규슈국립박물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게이오대학과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하고 있는 다도구주문서 『제방어호지어소물 어주문추(諸方御好之御燒物御注文摺)』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가문서』의 서지적 연구 및 왜관과 왜관요를 둘러싼 역사적 제도적인 연구, 왜관요와 주문다완 분석 및 일본에 끼친 조선 도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위 선행연구들에서는 역사적,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종가문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에도 무가문화의 이해 속에서 『종가문서』의 자료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끊어졌던 일본과의 교역을 교린의 측면에서 왜관에서만 허락했다.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통해 장군들이나 다이묘들이 조선에 다양한 물품을 주문했고, 대마번청에서 보낸 관수(館守)와 도공두(陶工頭)는 왜관에 상주하면서 일본의 주문품을 제작하여 조달했다. 일본이 조선에 다기를 주문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다도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에도시대는 안정된 사회 속에서 무가다도가 확립된 시기였으므로 일본의 지도층들은 기물을 보는 안목과 분별이 있었고, 좋아하는 취향도 확실했으므로 이에 관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주문추』를 통해 왜관요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규명하고, 그들의 다도구 취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 2. 다도구주문서 『제방어호지어소물 어주문추』

왜관요에서 도공두들이 만든 다완은 ‘고혼다완’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작성한 견본(手本)을 토대로 조선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냈다. 도공두들은 옛날 고려다완을 기초로 해서 고혼다치즈루(御本立鶴), 고혼운가쿠(御本雲鶴), 고혼미시마(御本三島), 고혼가타테(御本堅手), 에고혼(繪御本), 고혼한스(御本半使), 고혼고쇼마루(御本御所丸), 고혼긴카이(御本金海), 고혼고키(御本呉器), 스나고혼(砂御本) 등 다양한 종류의 기물의 제작을 주도했으며, 대마도 종가를 통해서 도쿠가와 가문과 각 번의 다이묘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겐로쿠년간(元祿:1688-1704)이 지나자, 조선 도공을 모으기가 어렵게 되어 1718년

(享保3)에 문을 닫는다.

『어주문추』는 1713년 이후, 왜관요 말기의 주문 양상을 알 수 있는 다도구주문서로 번청(藩庁) 서찰방(書札方)의 기록이다. 조선 도공과 도토의 제공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역사적 정황을 실무선에 잘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본 내 유력자들의 주문이 ‘조선도자주문(朝鮮燒物注文)’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문한 기물의 종류로는 다완, 꽃병, 향로, 물항아리(水指), 겐스이(建水), 술병, 술잔, 술주전자, 간나베(間鍋), 미즈쓰기(水次), 후타오키(蓋置), 약통(印籠) 등 다양하며 그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다완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밖에 연병(硯屏), 액자, 책, 붓과 붓통, 촛대, 선향꽃이 등의 문방구류도 주문하고 있다. 견본인 고흔도 조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린 경우가 있었으며, 주문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물은 다시 제작을 의뢰한 경우도 많았다.

『어주문추』에서는 그림으로 주문품의 기형을 확실히 정해주고 있다. 만일을 대비해 여분의 수량을 더 만들고 있었던 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중 조선도자주문(朝鮮燒注文)의 한 예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조선도자주문

#### 一능형 꽃병(菱形花入) 2

계사(己, 1713)년 12월11일 후나테(船手) 하치로베(八郎兵衛) 편에 올린다. 오사카에서 가치모치(歩行持)로 에도에 건넨 상세한 것은 에도 서장에 있다.

한 개는 청자 한 개는 감색 유약 (이 꽃병 둘, 또 다시 구워서 건네는 건 갑오년(午, 1714) 2월 오기야 이치베(扇彌一兵衛)편에 보낸다)

#### 一고마 시메키리형 둥근 원의 귀가 붙은 물항아리(古満形水指) 하나 위와 같다.

스나테(砂手) 靑葉 (이 물항아리 둘, 다시 구워서 건네는 건 갑오년(午, 1714) 2월 오기야 이치베 편에 보낸다)

#### 一능형 스나테 물항아리(菱形砂手水指) 1 위와 같다.

비젠야키(備前焼) 색 전체 몸통에 실선(糸目)가 있다. 단 붉은 흙

#### 一능형 접시(菱形皿) 10

가타미이로가와리(片身色替)(이 중에 접시 6개가 완성되어 위와 같이 보내고, 무거워서 다시 구운) (같은 11개가 완성되어서 갑오년 2월, 오기야 이치베편에 건네고, 오사카에서 가치모치로 에도에 보냄)

#### 一엽입 접시(葉入皿) 10

접시 11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갑오년 2월, 오기야 이치베편에 건네다

백색 유약 단 바깥의 테두리에 검은 줄 두 줄 가늘게

#### 一고마 시메키리형 술잔(古満形猪口) 10 위와 같다

감색 유약 소메쓰케(染付) 문양 다카라즈쿠시(宝尽く)

#### 一하타조리 술잔(端反り猪口) 10 위와 같다

백색 유약에 수(寿) 문자 소메쓰케 앞뒤로 2개

#### 가즈노오보에(數之覚)

술잔 2점 20, 접시 2점 20, 물항아리 2점 2, 꽃병 2

도합 44

이상

11월28일 쓰치야사가미노카미 내(土屋相模守内)

야마자키야에몬(山崎彌右衛門)

스기무라사부로자에몬 사마(杉村三郎左衛門様)

[泉澄一(1981) pp.2-3의 번각을 참조]

위와 같은 주문을 그림에 상세한 치수를 적어서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후나테(船手)’란 막부의 직명으로 막부의 배를 관리하는 후나부교(船奉行)를 의미한다. 에도 막부의 로주(老中), 쓰치야 사가미노카미의 신하인 야마자키야에몬이 대마도의 가신인 스기무라사부로자에몬에게 보내는 서장이다.

위 기록에서 살펴보면, 마름모꼴인 능형(菱形)을 선호했고, ‘하타조리(端反り)’라 하여 구연부가 약간 벌어진 모습의 술잔과 ‘스나테(砂手)’라 하여 모래의 느낌이 있는 재질의 물항아리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여분의 기물을 만들었고 ‘가치모치(歩行持)’라 하는 짐꾼을 통해 보내고 있었으며 다시 굽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굽는다’는 의미는 ‘재벌’로도 볼 수 있겠으나, ‘무거워서 다시 굽는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왜관의 도공두 등의 지시에 의해 다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닐까 생각된다. 문양은 ‘다카라즈쿠시(宝尽く)’와 ‘수(寿)’로 길상과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듯 에도 유력자들의 기호는 뚜렷해졌고 취향도 규격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량의 기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재정 위기와 왜관요 말기의 어지러운 실정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조선의 협조가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쓰다이라 무쓰노가미(松平陸奥守)의 주문에 많은 그림이 있다. 무쓰(陸奥)는 현재의 동북 지역인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마쓰다이라는 센다이(仙台) 5대 번주로 다테 요시무라(伊達吉村:1680-1751)라고 한다. 그의 다완 주문에는 세 가지 형태의 소형과 대형의 다완을 구경, 높이, 굽의 치수를 정해 별도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차이레(茶入)도 다양하게 주문하고 있다. (본 요지문에서 제시하는 다도구 그림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어주문추』의 사본 기록이다.)

<그림1>과 <그림2>에서 설명하듯이 세 가지 모양의 차이레 크기를 정해서 주문하고 있으며, 그의 다도구 취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림1> 차이레



각(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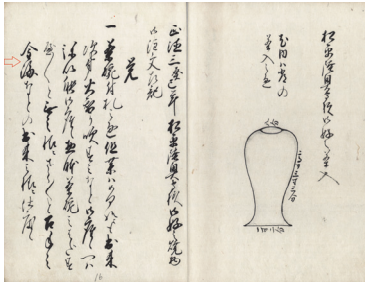
—다완에 붙은 표(札)대로 단 유약은 어떻게든 가능한 대로 요변과 취목(火替吹す)이 더 좋다. 대체로 다완은 내어서 여기저기 없도록 하고 거칠거칠하게 옛날의 김해와 같이 되도록 준비한다.

—차이레는 어떻게든 유약이 가능한 대로 두는 법이 있으므로 잘해라. 형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씩 소망이 있으시다. 이상

3월 이가리 초사쿠(猪狩長作)

다완에는 표식을 붙여두어 지정하였으며, 유약도 일률적이기 보다는 변화 있는 모양을 선호했다. 다완을 공개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김해 다완같이 거칠게 만들고 했다. 여기에서 ‘김해’는 김해의 지명을 지칭하기보다는 김해 다완으로 대표되는 고려다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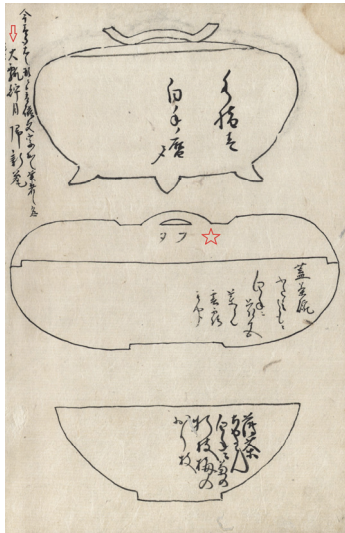
<그림2> 차이레와 다완 설명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고이차(濃茶)를 담은 차이레도 다양한 모양이며, 유약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을 선호했고, 이것도 여러 개의 수량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주문추』에서 특이한 부분은 뚜껑 있는 다완(蓋茶碗)의 출현이다. <그림3>의 주문자는 고주인(高壽院)으로 『어주문추』에서 주문이 많은 인물이다. 고주인은 3대 번주인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측실로 여기에서는 뚜껑 다완을 물항아리, 우스차 다완과 함께 주문하고 있다. 뚜껑 다완은 다른 그림에서는 굽이 약간 있는 것도 있으나, 이 그림처럼 굽이 전혀 없는 것도 있다. 다완을 포개서 사용했는지 그 쓰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림3> 뚜껑 다완



모두 흰 유약 바탕에 맨 위의 물항아리는 달력(曆), 뚜껑 다완은 꽃색 유약으로 운화 모양, 아래의 우스차 다완은 국화 가지와 매화의 접힌 가지 등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 위의 작은 글씨를 살펴보면, 하나의 형태에 청자 문자로 필자명을 적고, ‘大瓢貯月帰新甕’와 뒤쪽에 ‘小杓分江入夜瓶’을 적어 넣으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 문장은 소동파의 시 「汲江煎茶(강을 길어 차를 끓인다)」에 나오는 글이다. 다만, ‘大瓢貯月帰春甕’에서 春이 '新'으로 적혀 있다. 이는 새로운 물항아리를 주문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적은 것을 아닐까 짐작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다량의 다도구 주문은 주문자 자신의 애상품만이 아니라 어용으로도 진상되었다. ‘고요테(御用手)’라고 하여 별도의 항목도 있고, ‘어용으로도 말씀드리므로 삼 사십 개씩 가능하도록 말씀 전한다(右之分御用手ニも成可申候間、三四十計少出来候様ニ申遣す)’는 기록이 있으므로 현상이나 선물로도 많은 주문

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주문추』에는 번주의 부인, 승려, 다이묘들이 다양한 기물을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많은 그림과 함께 모양과 치수를 상세히 적어서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주문품의 제작은 단순한 제작이 아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교한 작도였다고 볼 수 있다.

### 3.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초, 일본의 주문다도구에 대해서 종가문서의 『어주문추』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 문헌은 왜관요 말기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다도구주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문헌에서 일본 주문자들이 선호한 기물과 취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 무가 사회의 의례에는 다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기물은 격식을 중시했으며 그 수도 상당량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구청을 모두 수용하기에 조선의 상황은 궁핍했고 어려웠으며, 일본 쪽의 기호와 요구에 충족한 제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18세기 초, 조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일관계의 도자기 교역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어주문추』를 통해 당시 일본 유력자들의 고도화된 취향 다도구에 대한 안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관요는 비록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일본과의 다도구 교역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중요한 가마였음은 틀림없다. 그 안에서 이름 없이 활동한 조선의 도공들의 고충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諸方御好之御燒物御注文摺 此外御詔物之控』  
泉澄一(1981) 「正徳・享保期の釜山窯と注文燒物 宗家史料 『諸方御好之御燒物御注文摺』をめぐって」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紀要』  
14 pp.1-86

# 한일 TV드라마 포맷 현지화의 의미와 서사분석

— <이태원 클라쓰>와 <룻폰기 클라쓰>의 사례를 중심으로 —

崔中洛 (中央大)

## 1. 서론

2022년 일본의 넷플릭스 TV 쇼 부문 인기 순위 10위 내에는 일본 드라마 1편과 미국 드라마 1편을 제외하면 8 편<sup>1)</sup>이 한국 작품으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체 2위를 차지한 <이태원 클라쓰>는 원작인 웹툰이 일본에서 출판되고, <룻폰기 클라쓰六本木クラス>라는 제목으로 2022년 드라마로 리메이크되어 인기를 끌었다. <룻폰기 클라쓰>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는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나 드라마 속의 명대사 등에서 교훈을 주는 방식이 시청자에게 공감을 얻었다<sup>2)</sup>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포맷(format)을 수입하여 자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하여 현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작업은 원작의 리메이크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자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로 역수출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팬데믹 영향으로 OTT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한류 4.0에 해당하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한국 드라마를 일본에서 현지화 작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미와 현지화 작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2016년 한국에서 웹툰으로 출시되고 2020년 1월부터 JTBC 드라마로 방송이 된 <이태원 클라쓰>와 tv asahi에서 2022년 7월부터 방송이 된 <룻폰기 클라쓰><sup>3)</sup>의 서사 분석을 통해 한일 드라마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처럼 유사한 포맷의 방송 프로그램을 국가 간 비교를 함으로써 제작환경과 제작 관행 등의 방송 시스템에 대한 비교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체계와 인간관계, 욕망 등을 비교하는 문화 연구의 텍스트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방법은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 분석<sup>4)</sup>을 기본 분석 틀로 채택했다. 채트먼은 서사물을 이야기(내용)와 담론(표현)으로 나누고, 이야기에 해당하는 요소인 ‘무엇’을 사물(존재물)적 요소와 사건적 요소로 구분한다. 사물적 요소는 등장인물과 배경이고, 사건적 요소는 행위와 돌발적인 사건을 말한

1) <https://flixpatrol.com/top10/netflix/japan/2022/>

2위 <이태원 클라쓰>, 3위 <사랑의 불시착>, 4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위 <환혼>, 6위 <사내 맞선>, 7위 <작은 아씨들>, 8위 <기상청 사람들>, 9위 <서른 아홉>이다. 나머지 두 작품은 1위에 일본 애니메이션 <SPY×FAMILY>, 10위 미국 드라마 <Stranger Things>이다.

2) <https://toyokeizai.net/articles-/355535>

長谷川朋子, 「ビジネス復讐劇『梨泰院クラス』がヒット独走中, 東洋経済ONLINE, 2020.6.12. (검색일 2023년 7월 26일)

3) 드라마 <룻폰기 클라쓰>는 한국의 원작 웹툰인 『이태원 클라쓰』를 원전으로 하고 있고,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제작한 JTBC로부터 판권을 획득하여 현지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일본 방송사가 리메이크 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였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tv asahi가 판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4) S.채트먼·한용환 역(2012)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사 p.29

다. 담론에 해당하는 요소인 ‘어떻게’는 카메라 시점이나 촬영 기법 등의 표현의 방법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방송 포맷의 현지화 과정의 분석틀에 대해 앨버트 모란은 분석틀로 다음의 다섯 가지<sup>5)</sup>를 언급한다. 첫째 번역자와 제작 자문 프로듀서 간의 관계에 관한 것, 둘째 포맷의 변용 과정에 관한 것, 셋째 포맷 변용의 ‘언어 코드’의 관계, 넷째 포맷 현지화의 ‘텍스트 상호작용 코드’, 다섯째 ‘문화 코드’ 관점에서 타협된 포맷의 변용으로 구분한다. 현지화 변용 코드와 변용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현지화 변용 모델 재구성(모란, 2012 재구성)

현지화 변용 코드	변용 요인 분석
언어 코드	시각적 스타일 - 촬영, 편집, 연출, OST, 음향, 배경, CG 등 인물의 이름, 언어의 차이 제작 매뉴얼 해석
텍스트 상호관계 코드	방송 제작 환경 - 제작비, 제작인력 및 장비, 편성 시간 등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의 변화 - 추가적 인물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소통 - 시청자 참여, 재미와 흥미 등
문화 코드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 - 언어, 민족, 역사, 종교, 지리 등 가족, 직장 내의 관계 묘사

채트먼의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모란의 현지화 변용 요인을 보완적으로 이용해 작품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 2장에서는 포맷의 정의와 한일 드라마의 현지화 작업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채트먼의 이야기 구성 요소 중 배경과 등장인물을 텍스트 상호관계 코드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 2. 포맷과 한일 드라마의 현지화 작업

### 2.1 포맷이란 무엇인가?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정의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포맷산업협회(FRAPA: The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는 “포맷이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조화하여 다양한 나라와 플랫폼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담은 문화 상품이자 지적재산물”<sup>6)</sup>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맷이 문화 상품이고 지적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확장성은 원작을 다른 국가에서 현지화하면 원작 콘텐츠(<이태원 클라쓰>)와 비교하려는 새로운 소비가 생기게 되는 동시에 현지화된 콘텐츠(<롯데기 클라쓰>)가 다른 국가에서 소비되거나 원작 콘텐츠를 생산한 국가로 역수출되는 부가가치 생산 효과<sup>7)</sup>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다양한 글로벌 OTT 플랫폼

5) 앨버트 모란 역음·정윤경 역음(2012) 『텔레비전 포맷의 세계』 커뮤니케이션북스 p.43

6) 윤재식 외(2022) 『한국 방송포맷(K-포맷)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pp.7-8 재인용

7) 2023년 현재 일본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이태원 클라쓰>가 꾸준히 스트리밍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국내 OTT 플랫폼인 티빙을 통해 <롯데기 클라쓰>가 스트리밍되고 있다.

품의 등장으로 기존의 실시간이나 녹화를 통한 방송 시청이 아니라 빈지뷰잉(Binge-viewing)<sup>8)</sup>이라 불리는 ‘몰아보기’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단순한 시청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은 원작과 현지화된 영상의 비교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제2차 창작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포맷의 유형은 크게 ‘대본이 있는 포맷(Scriptd Format)’과 ‘대본이 없는 포맷(Non-Scripted Format)’으로 구분된다. ‘대본이 있는 포맷’은 시트콤이나 드라마로 대본이나 리메이크 판권이 수출되는 경우이고, 포맷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본이 없는 포맷’의 경우에는 70~80%가 게임쇼나 리얼리티 포맷이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포맷이 수출되었고, 현재는 글로벌 포맷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 수출되는 한국의 방송 포맷은 드라마 포맷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포맷 유통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시아 국가 내에서 주요 포맷 수출 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포맷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 2.2 한일 드라마의 현지화 작업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으로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도 현지화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과 한국에서 TV 드라마로 현지화한 작품을 정리한 표이다.

<표1> 한국과 일본에서 현지화한 작품>(용례: 1990-2009 2010-2015 2016-현재 )

일본 → 한국		한국 → 일본	
101回目のプロポーズ(1991)	101번째 프로포즈(2009)	엽기적인 그녀(2001, 영화)	獵奇的な彼女(2008,TV 드라마)
星の金貨(1995)	보남(2005)	두사부일체(2001)	マイ☆ボス マイ☆ヒーロー(2006)
やまとなでしこ(2000)	요조숙녀(2003)	마왕(2007)	魔王(2008)
愛なんているらねえよ、夏(2002)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미남이시네요(2009)	イケメンですね(2011)
女王の教室(2005)	여왕의 교실(2013)	싸인(2011)	サイン(2019)
ドラゴン桜(2005)	공부의 신(2010)	굿닥터(2013)	グッドドクター(2018)
結婚できない男(2006)	결혼 못하는 남자(2009)	별에서 온 그녀(2013)	星から来たあなた(2022)
ハケンの品格(2007)	직장의 신(2013)	미생(2014)	HOPE-期待ゼロの新入社員-(2016)
심야식당(2009)	심야식당(2015)	그녀는 예뻤다(2015)	彼女はキレイだった(2021)
JIN-仁(2009)	닥터 진(2012)	기억(2016)	記憶(2018)
Mother(2010)	마더(2018)	시그널(2016)	シグナル 長期未解決事件捜査班(2018)
家政婦のミタ(2011)	수상한 가정부(2013)	청년경찰(2017, 영화)	未満警察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2020)
リッチマン、ブアーマン(2012)	리치맨(2018)	보이스(2017)	ボイス(2019)
リーガル・ハイ(2012)	리갈하이(2019)	아는 와이프(2018)	知っているワイフ(2021)
昼顔～平日午後3時の恋人たち～(2014)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2019)	이태원 클라쓰(2020)	六本木クラス(2022)

위의 표를 통해 일본의 작품을 한국에서 현지화한 경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작품이 대다수이고, 2010년대 초기 작품도 다수 눈에 띈다. 반대로 한국 작품을 일본에서 현지화한 경우는 2010년대 작품이 많고, 그 중에서도 2015년 이후 한국 작품을 일본에서 2015년 이후에 현지화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비교이기는 하지만, 한국 TV 드라마 포맷의 위상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폭음·폭식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빈지(Binge)’와 감상·텔레비전 보기라는 뜻을 가진 ‘뷰잉(viewing)’이 결합된 단어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TV 프로그램 전편을 몰아 시청하는 경향을 말한다.

### 3.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태원과 롯폰기

#### 3.1 헬러윈 축제와 여름 마쓰리

<이태원 클라쓰>는 한국에서 2020년 1월 31일에서 3월 21일까지 방송이 되었다. 배경이 된 곳은 2022년 10.29 참사가 일어나기 전의 이태원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축제는 헬러윈 축제로 1회에서 등장한다. 반면 <롯데월드 클라쓰>가 방송된 시기는 2022년 7월 7일부터 9월29일까지로 일본의 전통인 여름 마쓰리가 행사의 중심으로 1회에 등장한다. 이태원과 롯폰기, 그리고 헬러윈과 여름 축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클라쓰>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한가운데 용산. 또 그 안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이태원. 평균 권리금 2억 후반 서울 3위. 이 작은 거리에 세계가 보인다. 각자의 가치관으로 이 거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1회)

“여긴 매년 10월 31일엔 미국에서 온 축제를 즐겨.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축제라 나?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봐 사람들이 자신도 악령처럼 보이도록 기괴한 분장을 하곤 하거든. 이 날이 바로 헬러윈 데이야.”(2회)

<롯데월드 클라쓰>

“예전에 밤의 거리를 대표하던 도쿄 롯폰기. 지금은 롯폰기 힐스나 도쿄 미드타운 등의 대형 상업 시설과 오피스 타워가 즐비한 일과 유흥을 양립할 수 있는 거리로 변화했다. 수많은 음식점이 각축전을 벌이는 이 거리는 국제색이 뚜렷하고 자극적이다. 이 이야기는 이 롯폰기 거리에서 각자의 가치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1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롯폰기도 여름 축제 때문에 시끌벅적해. 이 거리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놀러 오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루하루가 자극적이야. 오랜만에 너랑 만나면 이 거리를 걸어 보고 싶다.”(2회)

이태원과 롯폰기라는 두 공간은 모두 한국과 일본에서 다국적 음식점이 즐비하고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모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공간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에는 값비싼 임대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와 생활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이태원과 비슷한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 롯폰기를 설정한 것은 단순히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만이 아니라 제작사인 tv asahi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다. 원작자가 리메이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롯폰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고, tv asahi가 위치한 곳이 롯폰기로 오랫동안 만들어 온 지역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현지화 과정에서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sup>9)</sup>

9) <https://www.oricon.co.jp/special/59638/> (검색일 : 2023년 7월 28일)

<롯데월드 클라쓰>의 제작 프로듀서인 오에 다쓰키(大江達樹)씨의 인터뷰에서 tv asahi가 리메이크 판권을 획득하게 된 경위와 제작 과정에서 원작자 조광진 작가와 <이태원 클라쓰>의 연출자인 김성운 감독에게 제작 노하우 등에 대한 협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2 타자에 대한 태도

<이태원 클래스>에서 ‘단밤’에서 주방장을 맡고 있는 마현이와 <롯데호텔 클래스>에서 ‘2대 미야베’의 주방을 맡고 있는 아야세 리쿠(綾瀬リク)는 트랜스젠더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화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상징성도 박 새로이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인 직장의 조직 문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타자로서 배제되고 소외받는 등장인물이지만 박 새로이의 ‘단밤’이라는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 출신인 김 토니 역시 마찬가지다. 토니는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기니인으로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단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롯데호텔 클래스>에서는 토니와 유사한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주제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토니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 4. 결론을 대신하며

시청자의 세대 변화와 TV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동시에 드라마가 공개됨으로써 기존의 현지화 작업과는 차이점이 있다. 원작이 문화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이 중요하다면, 현지화된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표현)이 필요할 것이고, 자국만의 특수한 문화적 코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문화 코드의 변용 요인을 분석을 통해 문화 비교 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 2000년 이후 김시종의 언어세계

— 「생리의 언어」와 「재소(在所)」를 중심으로 —

오카자키 료코 (라츠메이칸대 박사과정)

## 들어가며

김시종(1929-)은 재일조선인 1세이자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시인이다. 2022년 5월에는 김시종에게 첫 시비가 된 「공생의 비(共生の碑)」가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大阪コリアタウン歴史資料館)」 앞에 건립되었다. 이 작품 「헌시(獻詩)」는 「공생의 비」를 위해 김시종이 새로 쓴 것이다. 「헌시」는 제4연 42행으로 구성되고 재일조선인들이 만들어낸 동네 「이노카이노(猪飼野)」의 옛날 모습에 대한 묘사에서 현재 큰 관광지가 된 코리아타운으로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쓰여진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한반도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공생」을 바라는 내용이 담기고 있는 작품이다. 「이노카이노」는 김시종이 1949년 6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살았던 동네이며, 김시종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무대이기도 한다. 특히 1978년에 발표된 그의 제4시집 『이노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에는 「이노카이노」에서 생활하는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이노카이노시집』과 『헌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김시종이 언급하는 「생리의 언어」가 체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김시종의 언어관에 대해 논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일본어」, 아니면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일본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시종이 언급하는 「생리의 언어」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가 않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해 본 발표에서는 김시종이 가질 수 있는 언어인 「생리의 언어」,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익힌 「조선어」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김시종이 일본어를 변형시켜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리의 언어」와 「조선어」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생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살펴보고, 김시종이 「헌시」에서 「생리의 언어」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또한 그 때 김시종이 고향의 의미를 내포하는 「재소(在所)」라는 말과 같이 설명하는 것에 주목하고 「재소」라는 말의 배경에 있는 「조선어」와의 영관성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본 발표에서 「생리의 언어」와 「재소」의 개념에서 김시종의 언어관과 고향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 1. 언어관에 개요

본 발표에서는 김시종의 사용 언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것이 「조선어」, 「일본어」, 「생리의 언어」, 「재일교포로서의 일본어」다. 김시종에게 일본어는 식민지 조선 하에서 황민화 교육을 받으면서 심어진 언어였다. 이후 조선의 식민지 해방을 거치면서 그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것이 문어로서의 조선어였다. 그러나 그는 심어진 일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어에 보복할 의도를 갖고 일본어로 시를 계속 쓴다. 그 와중에 김시종의 언어관에 있어서의 토대

가 되는 것이 「생리의 언어」다. 김시종에 따르면 「생리의 언어」는 「사전을 다루어서 알 수 있는 대물(代物)이 아니다. 삶의 전승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공명하는, 몸뚱이마다의 양해(体ごとの了解<sup>1)</sup>)을 뜻한다. 김시종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생리의 언어」는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말, 심지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까지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일본어」란 김시종이 빼앗긴 조선어를 되찾고 심어진 일본어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창조된 새로운 「일본어」라고 볼 수 있다.

淺見洋子は「생리의 언어」를 재일조선인의 생활감각에 뿌리를 둔 말로, 세대를 이어 타향에서 살아 온 재일조선인들의 쓴웃음과 비수가 깃든 말이라고 하면서 일본어와도 조선어에도 없는 「유(喻)」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다<sup>2)</sup>. 淺見가 지적하듯이, 「생리의 언어」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일본어」의 기초가 되는, 일본어도 조선어도 아닌 「언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현시」(2022)에서 쓰여진 「생리의 언어」

2022년 발표된 「현시」에는 「생리의 언어」에 대해 직접 나오는 장명이 그려져 있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화란 원래 독자적인 것이다./세 번의 밥도 빼놓을 수 없는 오신코(おしんこ)도/끝내는 제사의 관례까지도/재소(在所)에서 익숙해진 풍속이 그대로/면 일본에서의 흔들리지 않은 기준이 되어/사는 연고의 의지와 같이/선대의 재일은 고집스럽게 살았다./그 완고한 집착이/말할 수 없는 생리의 언어가 되어 이어져/세대를 이은 차세대들의/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집스러운 재일의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야키니쿠(焼肉)도 김치도 누구나 좋아하는/일본의 풍부한 음식이 되기도 했다<sup>3)</sup>.

위의 인용분과 같이 김시종이 작품에서 「생리의 언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김시종은 재일조선인1세의 입장에서 「생리의 언어」를 공유하던 일원으로서 언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언어를 지금에 사는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 3. 고향 표상의 다양화와 「재소(在所)」

다음으로 「현시」에서 「생리의 언어」를 언급할 때 같이 등장하는 「재소(在所)」에 대해 살펴본다. 김시종이 「생리의 언어」를 설명할 때 「동포」나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생리의 언어」와 고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金時鐘『猪飼野詩集』東京新聞出版局, 1978년, 445.

2) 淺見洋子, 2012年度大阪府立大学博士学位論文『金時鐘の言葉と思想 : 注釈的読解の試み』大阪府立大学, p346.

3) 발표자 번역. 원문은 이하와 같다. 「文化とやらはもともと独自なものだ。／三度のめしも欠かせぬおしんこも／はては祭祀のしきたりまでも／在所でなじんだ風俗がそのまま／遠い日本でのゆるがぬ基準になっていて／生きるよすがの意地のよ／に／在日の先代たちはこだわって生きた。／そのかたくなな執着が／物言わぬ生理の言語ともなって受け継がれ／代を継いだ世代たちの／心の奥の語りともなって今に至った。／意固地なまでの在日の伝承があったればこそ／焼肉もキムチも誰もが好む／日本じゅうの豊かな食べ物に成りもした。」



「헌시」에서 고향을 표현하는 시어로 「나라(国)」, 「이향(異郷)」, 「가향(家郷)」, 「재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 「재소」를 처음으로 창작 작품 속에서 보이는 것이 2010년의 「잃어버린 계절」에 실려 있는 작품 「공극(空隙)과 「귀향」에 있어서였다. 그러나 김시중은 그 이전에도 2004년 운동주의 번역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있는 작품 「흰 그림자」에서 「소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시중은 「흰 그림자」의 「제고장」을 「자기의 재소(己の在所)」로 번역했다. 「하얀 그림자」에는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운동주 본인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나」를 「제고장」에게 보낸 후, 흰 그림자가 정화된다는 장면이 있다. 그 때 「제고장」이라는 것이 「나」의 영혼을 정화해 주는 이념적인 장소 혹은 이상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김시중은 「조선과 일본에 살다」(2015)에서 해방 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재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제고장 찾기운동(私の在所探し運動)」을 했다고 언급한다<sup>4)</sup>. 여기서도 역시 김시중은 「제고장」을 「자기의 재소」로 번역했다. 따라서 「고장」에는 일제강점기에 의해 훼손되거나 상실된 고향 또는 본래 있어야 하는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장소를 김시중은 일본어로 「재소」라고 번역한 것이기 바꾸어 말하면 김시중의 「재소」라는 말 뒤에는 「고장」이라는 조선어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시중의 고향 표상의 폭과 일본어의 폭을 넓힌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 「헌시」에서 쓰여진 「在所」

그렇다면 「재소」라는 말을 김시중은 「헌시」에서 어떻게 그렸을까. 「헌시」에 있어서의 「재소」가 그려지는 방법을 볼 때, 우선 본 작품의 큰 틀이 되는 주제인 강(川)

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 작품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하구(河口)가 만나는 바다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명확하게 동네가 수로(水路) 주변에서 북적거렸던 것이다」고 하는 묘사가 있듯이, 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노카이노」를 종단하는 히라노강(平野川)일 것이다. 히라노강은 김시중이 1978년 발간한 『이노카이노 시집』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시중은 이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노카이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하이지만, 흘러간 곳은 바다일 것이다. 그 더러운 강을 정식으로 히라노강이라고 해. 그 강이 흘러가는 앞을 이노카이노 사람들,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본격적 없어. 그러면서도 언젠가 이곳을 빠져나와 이노카이노를 빠져나와 연락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 거기에 환상의 배, 가지 못한 배가 항상 뜨고 있다는 것을 계속 쓰고 싶었어<sup>5)</sup>.

그로부터 44년 후, 김시중은 「헌시」에서 히라노강의 「수로」가 「바다에 이르는 것」일 거라고 썼다. 이 부분은 강에서 바다, 그리고 고향에 도달하지 못한 과거 재일조선들의 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진수가 되지 못했던」, 「환상의 배」가 바다를 통해 고향으로 나가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다. 그 고향이라는 것이 바로 영혼이 돌아가는 곳, 즉 「재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金時鐘 『朝鮮と日本に生きる—濟州島から猪飼野へ』岩波書店, 2015년, p87.

5) 金時鐘 「<인터뷰> 在日朝鮮人の源流—『猪飼野詩集』をめぐって」 『金時鐘コレクション「猪飼野」を生きるひとびと』 第IV巻, 藤原書店, 2019년, p378.

재일조선인들이 그 배를 타고 「재소」로 돌아갈 때 강은 더 이상 고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재소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재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시중은 이러한 재일조선인들의 이념적 고향의 귀환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나가며

이상과 같이 본 발표에서는 작품 「헌시」를 대상으로 하여 작중에 쓰여져 있는 「생리의 언어」와 「在所」를 다루면서 김시중의 언어관과 고향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리의 언어」와 「재소」는 부정형이고 이념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둘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는 언어, 혹은 어떤 특정 장소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생리의 언어」는 일본어도 조선어도 아닌 언어로서 성립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재소」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도 극복할 고향, 즉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김시중은 재일조선인 1세로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입장을 「생리의 언어」와 「재소」라는 말에 드러냈다. 이 표현들은 김시중이 일본어라는 범주 안에서 규정의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자신을 새로운 표현으로 설명하려고 문학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이다.

# 사건 이후 마이너리티 언어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 김석범, 메도루마 순을 중심으로 —

장은애 (국민대 국어국문학과)

##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사건 이후 마이너리티 언어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살핀다. 여기서 사건은 4·3과 오키나와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4·3과 오키나와 전쟁은 현실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재구축하는 기점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4·3과 오키나와 전쟁은 현실의 연속성을 탈구축하는 사건으로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 연속성으로부터 탈구된 4·3/오키나와 전쟁 이후의 시공간에서 주체는 기존의 언어적 관습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의미나 가치가 무용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김석범과 메도루마 순은 각각 4·3과 오키나와 전쟁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형상화해 왔다. 특히 두 작가에게서 사건 이후 출현하는 문제적 상황은 언어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한다. 이는 김석범과 메도루마 순이 사건으로 다루는 4·3과 오키나와 전쟁이 경험과 언어 감각을 분할하는 문턱일 뿐만 아니라 발화의 시공간을 조형하는 형성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김석범과 메도루마 순이 사건 이후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있어 그것이 마이너리티 발화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노정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두 작가는 포스트 사건이라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국민국가 등에 대하여 규범적 정체성에서 이탈한 하위 주체들의 말하기가 봉착하게 되는 ‘말할 수 없음’의 여러 양상을 살핀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이너리티의 언어를 봉인하거나 왜곡하는 조건을 우회하거나 그러한 조건과 대결하면서 마이너리티 언어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욕을 드러낸다.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본 발표는 김석범과 메도루마 순의 소설에서 사건 이후 제기되는 마이너리티 언어 문제에 관하여 마이너리티 언어의 재현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살핀다. 두 작가에게 이상의 작업은 현실의 언어적 규약 바깥에서 송신되는 유희의 언어, 비체의 언어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는데, 현실의 재현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이러한 언어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건과 사건 이후 출현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상징적 언어 체계에서의 발화의 제한과 취약한 존재의 말하기 방식

『화산도』에서 4·3에 대한 여성의 말하기는 가부장제와 젠더적 위계화에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3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여성의 말하기를 억압하는 중층적 구조 속에서 사장되거나 굴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언어는 규범적 세계 질서를 초과하

거나 미달하는 방식으로만 겨우 우리에게 당도하는데, 어느 쪽이든 규범적 언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여성의 언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하기로 간주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하여 기존의 재현 체계는 무능함을 드러내는데, 그 까닭은 재현이 곧 기성의 질서와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것을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 체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침묵이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재현 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비체의 형상으로 출현하고는 한다.

『화산도』에서 이상의 문제는 경야(經夜)라는 문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경야(經夜) 사건은 4·3 당시 ‘순경각시’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약탈혼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3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 토벌을 위해 입도한 군경이나 서북청년단 등 토벌대는 제주여성을 강제로 취해 결혼하거나 현지처로 삼았는데, 그렇게 서북청년단과 강제로 혼인한 여성들을 ‘순경각시’라고 한다. 순경각시는 4·3 당시 제주여성에게 가해진 여러 성폭력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4·3 당시 제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로 보고된 사례 중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다.

『화산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지점은 현실에서 사태에 대한 증언이나 고발 대신 침묵만 드리워진 것과 달리 『화산도』에서는 기존의 통상적 언어적 재현 체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발화가 목격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발화는 문장의 주어가 결여된 주체가 부재하는 발화라는 점에서 분열자 내지는 광인의 발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주어가 불분명한 발화가 발생할 때 우리는 발화의 당사자가 주체화의 선행 요건인 언어적 상징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듯 상징계 질서로의 이행이 대타자의 존재를 내면화함으로써 세계를 관통하는 일원적 질서에 순응하는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건에 대해 발화하는 여성의 산발적인 말하기 방식은 상징계 외부에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일관된 체계로서의 언어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일관된 언어 체계를 내화하지 못한 여성의 말하기는 사건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나 일관된 전망을 도출하지는 못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을 드러내면서 기성의 언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현상 이면에 잠재한 사건의 진실을 다층적으로 드러낸다.

『화산도』에서 이상의 문제는 순경 신부가 된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오남주를 바라보며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오남주 모친의 절망적인 언어를 통해 구체화한다. 오남주는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는 대가로 서북청년단원과 결혼한 여동생 오정애와 그의 남편인 양(楊)을 죽여서 오욕의 땅이 된 제주도의 치욕을 되갚아 주겠다고 날뛰다가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남주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오열하며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는데, 이를 통해 4·3이라는 폭력적 사태의 비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선생님, 부디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늙은 몸, 죽어도 상관 없지만, 딸이 불쌍해서……. 술에 취해 날뛰는 아들을,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둘 다 죽어 버리라고 울부짖는 아들을, 서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제사를, 살아 있는 육친과 여동생의 경야를 자기 혼자 치렀다는 아들을 어머니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래저래 울며 호소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서북’의 자식이……. 아이고—, 태어날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우파……. 하지만 ‘서북’의 자식이 태어나는 게 무서워요……. 부디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달래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이우다…….!)

오남주는 여동생을 유린한 양(楊)을 제거하면 사태가 종결되리라 믿지만, 오남주의 모친이 보기에 4·3이 초래한 비극은 그보다 더 깊고 질다. 그러나 현실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그녀의 언어는 의미를 산출하지 않는 노이즈로 취급될 뿐이다.

오남주 모친의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발화에는 제주 여성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복잡함이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자신을 저주하는 아들에게서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녀는 서복의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죄 없는 생명이 마주해야 할 비정한 앞날에 비애를 느낀다.

그녀는 현재의 비극이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뿐더러 원한과 증오 때문에 죽고 죽이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예감한다. 이처럼 오남주의 모친은 증오 속에서 타자를 살해하게 만드는 부조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상처 입고 고통스러우리라는 진실을 그 어떤 존재보다 깊이 통찰한다.

오남주 모친이 전하는 또 다른 진실은 비정한 세계에서 생명은 환대받으며 태어날 수 없다는 어둡고 절망적인 선언이다. 오정애가 품은 복중의 생명은 곧 비정한 세계에서 던져질 거라는 사실 때문에 공포에 질린다. 태아의 공포와 모친의 비애가 서로 공명한다. 태아는 모친에 빙의하여 비정하고 잔인한 세계에 던져질 자신의 공포를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익히지 못한 탓에 그저 울부짖는다.

이상과 같이 오남주 모친의 언어와 오정애가 품은 복중 태아의 언어가 공명할 때, 기성의 관습적인 언어의 재현 바깥에서 말하는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취약성에 기반한 마이너리티 연대의 가능성이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레비나스와 버틀러가 이론화한 ‘상처입을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의 실존적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sup>2)</sup>, 주체가 언어적 질서를 체화함으로써 세계의 성원으로서 권리와 안위를 보장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존재들이 실존적 취약성에 노출되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취약한 존재는 얼핏 존재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취약한 존재의 불안정성을 “세계 이해의 민감성, 자기 발전의 가능성 혹은 타인에 대한 개방성”<sup>3)</sup>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이상의 취약성으로부터 “상호 돌봄과 연대를 통한 자율성 증진과 역량강화(empowerment)”<sup>4)</sup>를 타진해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오남주 모친의 취약한 실존과 불안정한 언어가 또 다른 취약한 존재인 태아의 목소리가 틈입할 여백을 남겨 뉘으로써 들리지 않던 태아의 목소리를 가청 영역으로 옮기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기존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세계의 다면적 진실을 드러내는 언어를 발명했다는 점에서 이상의 논의는 신빙성을 갖는다.

### 3. 메도루마 순

마이너리티 언어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문제화할 때 메도루마 순이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오키나와 전쟁이라는 사건에 여러 다른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사건의 중층적 구조

1) 김석범, 김학동·김환기 역, 『화산도』 9권, 2015, 392쪽.

2) 노대원·이소연·황임경,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비교한국학』 30,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5-41쪽.

3) 위의 논문, 31쪽.

4) 위의 논문, 31쪽.

와 이러한 사건의 중층적 구조 가운데서 유령 화자의 말하기로 형상화되는 비체의 언어를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메도루마 순의 관심은 마이너리티 언어 재현을 둘러싼 윤리적 성찰에 있다고 보아도 좋다.

본 발표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는 메도루마 순의 단편 「혼 불어넣기」, 「이승의 슬픔을 껴안고」, 「내해」를 중심으로 마이너리티의 언어가 유령의 언어로서 형상화되는 배경과 유령의 언어를 청취함에 있어 윤리적 성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마이너 영화 속 이언어적 말걸기

— 재일/오키나와 재현 속 보이소 오버와 구술 아카이브의 수행성 —

안민화 (동의대)

## 1. 서론: 대안적 번역성

번역은 단순히 모국어-외국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언어공동체 내부의 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사 소통의 문제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카이 나오키는 ‘말걸기’와 ‘소통’을 구분한다. 말걸기가 “일차적으로 수행적이고 따라서 미결정되고 다가올 (말거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라면, 소통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이 전제된 속에서 그 관계의 상상적 표상”<sup>1)</sup>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사카이 나오키는 『번역과 주체』에서 번역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양식의 소통/말걸기를 구분하는데, 이는 청중 혹은 청자가 번역행위 안에 함축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들로서 균질적인 언어적 소통과 이언어적 말걸기를 의미한다. 균질적인 언어적 소통은 “말거는 자/발신자가 균질언어로 추정되는 사회의 대표자적 입장을 수용하고 또한 동등하게 균질언어적 공동체의 대표자이기도 한 일반적 수신자들과도 관계를 맺는 언명 속에서 자기 자신과 타자들을 관계 짓는 어떤 이의 레짐이다. 번역 상황 안에서 그러한 소통 양식은 능동적으로 다른 언어 공동체 간의 하나의 경계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언어 공동체를 분리된 것으로 그리고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사카이가 보기에 이런 방식으로 수행된 번역은 주체들을 예컨대 서구와 나머지 세계간의, 혹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문명적 분할들(혹은 일본 제국과 피식민 아시아 국가들간의)로 호명하는 조형적 도식을 구성한다.”<sup>2)</sup> 이때 사카이에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균질언어적 ‘소통’이란 말걸기 행위로부터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잔여물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처럼 소통에서 ‘실패’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통에 근거한 근대적 번역 체제는 (신)자유주의체제에 적용 가능한 지배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푸코적인 통치 테크놀로지가 된다.

이러한 비판적 틀에서 볼 때, 일본 제국과 그 타자의 문제 중 하나로 전후 오키나와를 재현한 일본 영화인 <신들의 깊은 욕망>(1968, 이마무라 쇼헤이)이나 <그라마 섬의 유혹>(1959, 가와시마 유조) 보면, 일본 남성 주체들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균질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영화 서사의 중심에 자리잡지만, **하위주체인 오키나와 여성들은 장애인으로 등장하며 말을 더듬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음’은 소통 속에 들어가지 못한 소외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푸코적인 통치 테크놀로지에 배제된 자의 비정상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언어의 비정상성은 이이러니하게 균질언어적 소통의 통치성의 실패를 드러낸다.**

이 실패는 모든 번역이 이러한 단일화 방식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점을 상기한다. 우리는 번역이 통치성의 작동과 그것의 균질언어적 소통을 휘방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이중성을 생산할 수 있다는

1) 나오키 사카이, 존 솔로몬, 강내희 옮김, 「흔적 4: 번역, 생정치, 식민지적 차이」, 문화과학사, 2012, 17쪽.

2)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후지이 다케시 옮김, 이산 2005. 3-6쪽.

점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균질언어적 소통은 서양인(혹은 아시아내에서의 일본인)들은 비-서양인(비-일본인)들과 비교하여 서양(일본)의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발상은 서양인(일본인)들 사이에서의 소통이 아무런 단절없이 손쉽게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카이가 강조하는 것은 ‘이언어적 말걸기(heterolingual)’, 즉 나의 언어가 타자에게 온전하게 번역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걸기이다. 이처럼 이언어적 말걸기는 “근대 민족-국가라는 차원에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는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이언어적 말걸기는 말걸기 상황이 말걸기에 내포되어 있는 청자가 균질언어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맥락을 가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말 거는 자가 끊임없이 번역 혹은 대안번역을 요구하는 또 한명의 국외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언어적 말걸기는 “상호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의 정상성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어떤 언어적 혹은 다른 종류의 매개체이든 간에 그 안에 이중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모든 발언은 의사소통에 실패할 수 있다”<sup>3)</sup>고 가정한다. 이것은 사카이가 “외국인의 무집합적 공동체”라고 부른 것, 혹은 솔로몬과의 공동 저술에서 그가 “외국인 다중”<sup>4)</sup>이라고 명명한 것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불안정하지만 새로운 주체의 형상은 복수 일인칭 대명사를 균질언어적 소통에서 내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사용된다, 사카이는 “무집합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이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로서 지칭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와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함은 어떤 공통의 동질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것은 공통이라는 단어를 넓게 사용한 예이지만, 사카이는 이후에 그 용어에 더욱 정확하고 개념적인 형상을 제공한다. 문화적 차이가 어떠한 본질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는 그 차이들이 “서로에게 이질적이고 다양한 파편들”에 연루되면서 “새롭고 우발적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도 분열될 수도 있는 방식을 지적한다. 그는 비록 이러한 종류의 배치들이 “차이와 분리에 대한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된다”<sup>6)</sup>하더라도, 거기에는 “펼쳐져서 공통으로-존재하기”라는 어떤 커뮤니티의 시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up>6)</sup>

## 2. 본론

### 2.1 재일 여성감독 박수남, 금선희의 보이스 오버의 수행성과 이언어적 말걸기

재일 여성 감독 박수남과 금선희의 마이너 영화 속 ‘보이스 오버의 수행성’과 ‘구술 아카이브와 시/음악가사’로서의 언어는 이언어적 말걸기 혹은 다언어적 말걸기의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례들이다. 박수남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재일 피폭자,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조선인 생존자, 위안부 문제 등, ‘공식, 대중 아카이브’에서 배제된 마이너리티 역사를 끊임없이 기록한다는 점에서 작가적으로 연구가치가 높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박수남은 고마쓰가와(小松川事件)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재일조선인 2세 이진우와 서신을 교환하며 재일조선인이 당하는 사회적 편견들을 일본사회에 알렸다.

3) 사카이 나오키, 같은 책, 8쪽.

4) 나오키 사카이, 존 솔로몬, 같은 책, 32쪽.

5) 사카이 나오키, 같은 책, 7쪽.

6)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남청수 옮김, 『방법으로서의 경계』, 갈무리, 2021, 408-409쪽



이진우의 사형이 집행된 1962년까지 오간 이 서신들은『죄와 죽음과 사랑과』(1963),『이진우 전 서간집』(1979) 등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이는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 <교사형(絞死刑)>(1968) 제작의 모티프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위안부를 다룬 그의 영화, <침묵>(2016)이 2016년 서울여성영화제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상영되면서 한국사회에 알려졌다. 그의 초기작인 <또 하나의 히로시마-아리랑의 노래>(1986)도 2021년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키나와의 조선인 강제징용 군속과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그리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초기작 <아리랑의 노래- 오키나와로부터의 증언>(アリランのうた-オキナワからの証言, 1991)에 주목한다. 이 영화는(줄여서 "오키나와로부터의 증언")은 오키나와 전투에 끌려온 강제징용자 출신의 조선인 군속과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명시적, 암시적으로 다룬다. 영화는 오키나와 전투 속에 놓인 폭력과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조선인 군속출신의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키나와 전투와 집단 자결 강요라는 트라우마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집단적 기억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비가시화된 조선인 군속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다.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오키나와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선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하면서 조선인과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넘어서, 조선인 군속과 오키나와 주민들, 즉 마이너리티들간의 (불균등한 관계까지 포함한) 피해에 대한 공유와 연대이다.

이때 이러한 연대의 기저에 있는 것은 박수남 감독의 ‘이언적 말걸기’이다. 박수남 감독의 보이소 오버의 수행성은 이를 잘 드러내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즉 영화에서 다른 다큐멘터리와 특이할만하게 다른점은 조선인 증언이 조선어로 증언할 때, 그것을 본인 스스로 더빙작업을 해서 일본어로 입히는 점이다. 이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키나와에서의 마이너리티인, 조선인의 존재를 먼저 일본사회에 알리기 위한 일본어권 관객을 소구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사전배제를 다르게 바꾸어 써 나가는 것”(도미야마 이치로)<sup>7)</sup>의 하나의 예로 보여지며 감독이 중간에 매개되어 “말이 들리지 않았던 장소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번역이 완벽히 일어나지 못하며 때때로 증언자의 조선어가 날 것 그대로 들리면서 일본어권 관객에게 일본어로 들렸던 친밀감이 순식간에 곤혹감으로 바뀐다. 한편 한국어권 관객은 친숙하리라고 예상된 한국인 증언자들의 언어 위로 더빙된 박수남의 일본어를 통해, 또한, “곤혹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sup>8)</sup> 즉 이 순간은 번역됨과 동시에 번역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실패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새롭고 우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통성이 내재하는 이언어적 말걸기의 한 순간이다.<sup>9)</sup>

한편 재일조선인 3세, 금선희 작가는 동시대 미디어 아티스트 겸 행위 예술가로서 재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민족과 젠더라는 교차 속에서 고민하며 그것을 넘어 다른 마이너리티들과의 접촉을 끊임

7) 도미야마 이치로는 증언에는 사전배제라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주디스 버틀러의 개념으로 (법정에서처럼) 증언에는 내용의 시비를 묻는 검열과 발화 주체의 가능성 자체를 문제삼는 검열이 존재하는데, 후자는 전자의 전제이며 이 전제로서의 검열에 의해 발화가능성이 박탈되는 사태가 사전 배제라고 설명한다. 도미야마 이치로 저, 정유진 역 「증언 ‘이후’: 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미 타인의 일이 아니다」, 기억의 연대 e-시리즈, 51-53쪽.

8) 영화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때때로 일본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거나 오키나와 주민들이 감독의 ‘조선인을 만난 적 있냐요?’라는 질문에 갑자기 아리랑을 부르며 조선민요를 떠올리는 장면등도 각각 한국인과 일본인 청자로 하여금 ‘곤혹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9) 영화에서 박수남 감독은 오키나와인들에게 “혹시 조선인 군속을 만났나요?”라고 묻자, 그들은 조선인들을 기억해내며 ‘아리랑’ 노래를 흥얼거리는 데, 감독은 이것을 우발적으로 포착한다. 여기서 감독의 매개적 위치는 오키나와인의 조선인과의 조우, 연대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즉 감독은 우발적으로 오키나와와 조선인의 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언어적 말걸기’를 보여준다.

없이 고민한다는 점에서 박수남 감독과 비견될 만하다. 그의 초기 다큐멘터리 <타국의 하늘>(2005)와 <비스트 오버 미>(2005)에서 북한 국적 재일 조선인이 겪는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젠더적 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Still hear the wound>(2009)에서는 오키나와 집단자결에 관한 그림, 시, 음악을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피해자들을 애도한다. <레이테 드림>에서는 그의 조선인 할아버지가 태평양전쟁의 격전지 중 하나였던 필리핀의 레이테 섬으로 징병당한 것을 알게 되고 그곳의 주민들의 증언을 취재하며 일본 제국의 상흔을 되돌아본다. 먼저 <타국의 하늘>는 작가의 일인칭 보이스오버로 읊어지는 일본어와 조선학교와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영상을 보여질 때, 흘러 나오는 조선어의 끊임없는 병치가 이중언어적(bilingual)작용을 한다. 여기서 그는 재일이 숙명적으로 가지는 이중언어적 혼란은 공식사에서 배제되거나 환원될 수 없었던 작가 자신의 정동적인 사적 보이스오버로 승화되고 ‘이언어적 말걸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로 작용한다.

<레이테 드림>에서는 작가의 사적인 나레이션이 더 두드러진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피해자, 목격자의 증언들을 뒷받침해 주는 필리핀과 일본의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나레이션과 사진들을 아카이브로 삽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가의 나레이션이다. 그는『레이테 전기レイテ 戦記』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 나레이션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맞닥뜨리는 역사적 진실에 대해 주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며 다소 시적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보이스-오버들을 표출한다. 더구나 책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적인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주며 이러한 보이스 오버와 같이 필리핀의 민속음악, <Himig nag Pagbig그 노래를 들어봐>가 흐르고 여기에 병치된 이미지는 감독의 주관적 시선으로 찍은 듯한 끊임없는 트랙킹 샷의 레이테의 애잔한 풍경들이다. 보이스-오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신체가 처벌당하는 생각에 크나큰 공포감을 느끼고  
 내가 불러일킨, 다수의 조선인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 알고 있기에  
 그 괴로운 신체도, 부상당한 신체도, 후사당하고 쇠약해진 신체도,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신체도, 처형당한 신체도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복수보다는,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 부들부들 떨려 그들을 말소하려고 기를 썼어 고통스러운 그들은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그 상처를 기억하는데 그것을 범한 자들의 뇌리에는, 그들이 상처주고, 고통 주고, 살해한 정신과 신체의 무서운 피투성의 기억이 공포로서 강하게 새겨져 있어. 공포로 떨면 떨수록, 그들은 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 폭력의 연쇄. 그 입장이 역전할 때, 그들의 뇌리에는, 그들이 학대한 수만명의 조선인의 원혼이 순간적으로 엄습해옴에 틀림없어.  
 이 유령에,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의해서 깨고 마는 흥분된 신경처럼, 그들은 일어나 있을 때도 끊임없이 원령에게 지배당하고 있어. 그들이 불러일킨 공포심은, 신체에도, 게다가 많은 희생자를 낳게 하고 있어. ....중략....<sup>10)</sup>

10) 琴仙姫(2011),『ケモノ道一断の狭間、動植物たちの栄える場所』, 博士論文、東京芸術大学, pp.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罪悪感から、そして、自らの身が処されることに強大な恐怖心を感じ  
 / 自らが惹き起こした、多大な朝鮮人が、どのように苦しみ死んでいった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  
 / その苦しんだ身体も、傷ついた身体も、酷使されてやせ衰えた身体も、拷問されて殺された身体も、  
 処刑された死体も、知っているからこそ/ 自分たちが復讐により、彼らの恨みがどれほど  
 大きいかわ知っているから/ それに対し、恐怖におののき/ それらの人々を/ 抹消しようと躍起になった/  
 苦しんだ人々は自らの痛みからその傷を記憶するが/それを課した者の脳裏には、彼らが傷つけ、苦しめ、殺した、精神と身体のおぞましい血みどろの記憶が恐怖として焼き付いている。  
 恐怖におののけばおののくほど、彼らはまた人々を殺そうとする。暴力の連鎖。/

여기서 금선희는 조선인 피해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원한으로 인해 유령이 되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일본 제국, 가해자의 공포심이 오히려 더 폭력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한 죄를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죄책성과 응답책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방어기제에서 오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데 그는 이를 악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레이테의 풍경 속에서 들리는 필리핀어와 생생한 일본어의 병치된 장면은 제국주의의 피해자가 단지 조선인 민족과 인종의 알레고리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청중, 타인종(필리핀)의 피해자, 재일여성이라는 젠더차와 조우한 탈식민주의의 매개로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함은 어떤 본질적인 공통의 동질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언어적 말결기의 순간이다. 이질적인 정체성들의 조우안에서 서로가 새롭게 생성되고 연결될 수도 있는 방식인 것이다.

## 2.2 증언(불)가능성: 구술 아카이브와 시/음악가사로서의 언어

박수남과 금선희 영화에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증인들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이다. 그들의 증언을 담는다는 것은 데리다식의 기원(정전화되어 있는 공식기록)으로부터의 열망을 파괴하는 행위로서의 아카이브의 실천이다<sup>11)</sup>. 즉 그들의 증언은 오키나와 전투와 집단자결을 일본의 피해자 민족주의로 미화시키는 제국의 아카이브에 저항하며 망각된 조선인들의 존재들을 소환하며 오키나와인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수면으로 끄집어 낸다. 이것은 데리다식의 망각되거나 혹은 공식 기록(외부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억)으로서의 문서적인, 혹은 기념비적인 장치를 근본적으로 삭제하라는 아카이브의 또다른 임무이다.<sup>12)</sup> 더 구체적으로는 이 구술 아카이브 속 증언들은 속도, 리듬, 주저함, 침묵 등에 따라 문자와는 또 다르게 표현되는 구술 아카이브에 따르는 필연적인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는 증언들의 번역 불가능성이 발현된다. 저널리스트였던 박수남 감독은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온전히 말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침묵, 슬픔, 분노 그리고 원한같은 감정들이 더 절실했기때문에 그것을 담기 위해 영상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감독의 말을 반영이라도 하듯, <오키나와 전투>에서 인상적인 것은 마치 ‘구술역사’처럼 증인의 말과 사건의 현장을 끊임없이 병치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말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침묵과 그들의 감정이다. 그들은 말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연자실해 한다. 이것은 매끄러운 기억과 회상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증언 불가능성은 피해자의 증언이 하나의 통합적이고 선형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때때로 기승전결이라는 일반적인 언설의 형태로 이야기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조선인 피해자, 김원영과 이상춘 등의 말의 끊김과 망연자실해 있는 표정에 잘 드러난다. 박수남 감독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증언할 때 몸이 먼저 떨어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때의 고통의 기억을 찾아내서 말을 가지려면 또 한번 죽어야하는 경험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정확한 말을 가지지 않고, 내뱉는 말은 깊은 침묵인데, 그것은 슬픔이고 분노이고 원한이었다고 회고한다.<sup>13)</sup> 이것은

その立場が逆転したとき、彼らの脳裏には、彼らが虐げた数万という朝鮮人の怨魂が瞬時に襲ってきたに違いない。/ そのユリオン幽霊に、熟睡も出来ず毎晩悪夢によって起こされる高ぶった神経のように、彼らは起きていても絶えずその怨霊たちに支配されている。かれらが惹き起こした恐怖心は、皮肉にも、さらに多くの犠牲者を生み出すことになった。

11) Jaques Derrida, *Archive Fev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12

12) Ibid, p.14.

13) “CINE TALK: Sunam Park,” by 황미요조, 이유미, <아카이브의 주소를 묻는다: 여성, 디아스포라, 필름메이킹>, 한국예술

다카하시 테쓰야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증언을 할 때 “역사 앞에서의 책임을 위하여 살아남고자 ‘잊지 않으면 안되’었던 기억을 상기시켜야만 했다”<sup>14)</sup>라는 설명과 연관이 있다. 다카하시는 이 기억은 말하자면 때면 “정신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상기할 수 없는 기억<sup>15)</sup>”이며, 레비나스식으로 말하자면 “언제까지나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상처”<sup>16)</sup>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매우 흥미롭게도 박수남과 다카하시는 공통적으로 학살과 고통의 증언 (불)가능성을 증언자가 다시 한번 죽은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상기되는 기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민족언어로 얘기를 해도 전달되지 않는 소통의 실패, 즉 균질언어적 소통으로서 한계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이 한계 안에서 이언어적 말걸기의 실천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조선인의 때려러운 증언들은 그것을 민족주의 역사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홀로코스트 등과 같은 집단을 학살 겪은 피해자들의 증언의 경험들과 우발적으로 겹치면서 서로에게 공명한다. 이것은 단일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우선적 연대”의 가능성을 맛보게 하는 순간인데, 즉 한 문화의 공통의 사상과 정서에 기인하지 않는 새로운 공통적인 것의 생성을 가르킨다. 영화들의 이러한 장면들은 말이 소통되지 못하게 되었다 해도, 잠시 중단하고, 언어를 새롭게 구성해나갈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를 넘어선 “코뮤니즘”이 발휘될 수 있는 이언어적 말걸기의 순간일 수 있다.

한편, 금선희 영화, <여전히 상흔은 들린다><sup>17)</sup>에서는 오키나와 시와 음악이 구술 아카이브에서의 증언(불)가능한 기능을 한다. 작곡가 타카하시 유지(高橋悠治)의 오키나와 전통악기(산신)로 연주된 음악을 배경으로 오키나와 시인인 나카야 코키치(中谷幸吉)의 시가 아래와 같이 읊어진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멀리, 더 멀리에서조차  
 작고 작은 생명위에조차도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바위조차 젖었고 하늘조차도 내 손가락조차도 젖었고 속절없이, 피할 수 없게 젖네  
 アメガフッテル アメガフッテルトオオク トオオク ニモ フッテル/  
 차이사이 차이사이 이노치ノウ에니모/ 이시모 슌테일/ 아메하 야ప్ప리 푸텔/ 소라모/우비의사키모  
 슌테일/도우쇼우모나쿠 이타시카타나쿠/스레틸

문학자, 신조 이쿠오(新城郁夫)는 “비가 내리네 멀리 더 멀리에서조차, 작고 작은 생명 위에조차 비가 내리고 또 내리네”의 첫구에서 보이는 여기서의 비의 기도가 실재없이 다른 장소와 이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 즉 여기서 불탄 오키나와인들만 이 빛속에 잠겨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한다. 신조는 이 비는 전후 시기의 전장에서 학살당한 침묵하는 모든 죽은 이들 위에 보편적으로 내려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즉 그는 나카야가 예상했던 “저 멀리에서조차”가 1948년의 제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없으며 1980년의 광주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카야가 상상했던 것

종합학교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연구소, 2021년 9월 30일.

14) 다카하시 테쓰야, 고은미 역, 기억의 에티카-전쟁, 철학, 아우슈비츠, 소명출판사, 2021, 143쪽.

15) 같은 책, 144쪽.

16) 같은 책, 144쪽.

17) 이 영상은 재일 페미니스트이자 철학자인 이정화에 의해서 기획된 아시아, 정치, 예술에 관한 프로젝트인 <잔상의 소리, 「아시아, 정치, 예술의 미래로」 殘傷の音「アジア・政治・アート」の未来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식민주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반응을 포함한 것으로 새로운 방법론들을 제 공하고 있다. 즉 이것은 한국(혹은 제주)과 중첩된 오키나와의 식민지적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어떻게 두 지역이 새로운 정치학, 정치 공동체의 모드들을 추구할 것 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

은 전쟁의 화염속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땅들과 생존했거나 죽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비의 확장된 지역이었다. 이 비는 셀 수 없는 텅빈 시체들 위에 떨어져야만 한다. 또한 멀리 떨어지는 이 비는 오늘날 오키나와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에게도 떨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 시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이언어적 말걸기의 상상력이 되지 않을까? 오키나와 전투와 집단자결을 기리는 멜로디같은 시안에 제주의 학살 등이 겹쳐지며 한일을 넘어선 마이너리티 청중을 상징할 수 있다. 여기서 멜로디같은 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자로서의 시가 아니라 말과 리듬의 시, 멜로디의 장치로서 말과 리듬의 몸짓을 정의하는 노래로서의 시를 말한다. 시와 노래는 다층적이고 전염적이고 다른 예술의 형태 사이에 온전하게 남아있다. 혹은 오히려 다른 예술과 병합되고 그것들에 스며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잡한 명제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 안에서 스며들 수 있어서 쉽게 기억된다.<sup>18)</sup>

다른 표현매체 안에 기억들이 스며들게 하는 능력때문에 기억의 수단으로써 시와 노래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 신체의 전염병적인 움직임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몸짓을 나타내는 말들로서 혹은 집단적 소외감과 공감을 환기시키는 것으로써 보여질 수 있다. 노래와 시는 다른 예술적 형태들 중에서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몸짓의 속성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 우리 신체의 심연 안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신체적 노동은 기억이 퍼뜨리는 순환 안으로 스며들어간다. 신조 이쿠오는 나카야의 시와 다카하시의 음악은 이러한 요청과 응답의 관계의 시작을 향해 길을 열었다고 평한다. 즉 다카하시의 음악과 신조의 시는 오늘날 아시아 안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인종적, 언어적 분리를 연결하는 이상적인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리와 말이라는 언어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들 속으로 결정체를 이루어가고 동시에 그것들은 신체에 필요한 변형들을 권한다는 요청이다.<sup>19)</sup> 따라서 이러한 정동적인 언어로서의 음악과 시는 균질언어적 소통에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잔여물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이언어적인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발표문은 필자의 논문, 「박수남 감독 다큐멘터리 속 오키나와의 강제징용 군속과 위안부 재현 연구: 마이너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비커밍 아웃'으로서의 증언」(문학과 영상, 2021)과 「트랜스내셔널한 로컬의 영상예술과 수행적 기억: '잔상의 소리(殘傷の音)' 프로젝트와 금선희(琴仙姬)감독」(비교일본학, 2022)을 바탕으로 수정,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18) 新城郁夫 「音の輪郭—高橋悠治の音楽とイトタリ的身體パフォーマンスを繋ぐ場所」, 『残傷の音』, 岩波書店, 2009, 29쪽, 『高橋悠治コレクション—一九七〇年代』, 平凡社ライブラリー, 287쪽에서 재인용.

19) 新城郁夫, 같은 논문, 28쪽, 李 静和(2004), 『求めの政治学—言葉・這い舞う島』, 岩波書店에서 재인용.

# 언어를 파괴하는 언어들

— 오키나와와 제주4·3 소설을 중심으로 —

이해미 (경희대 류큐오키나와연구소)

## 1. 들어가며

언어는 인류의 세계를 담는 그릇이다. 인간이라는 종의 절대무기인 언어는 음성기관을 거친 외마디 소리로 시작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단발적이고 휘발적인 음성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언어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까지 도모하며 언어는 인류의 역사를 담아왔다. 그 과정에서 언어는 단순히 인류의 역사 발전에 부속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자의적이면서 관습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호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특성에 기인한다. 언어기호는 동일 언어집단에 속한 구성원 사이에서만 공통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렇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회적 함의를 품어 안으며 언어집단이 정착한 그 땅에 뿌리를 내려왔다. 따라서 언어는 그 지역의 물과 양분을 먹고 자란 산물이며 그 땅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것이 지역의 언어, 방언이다. 어떻게 보면 방언이야말로 인간의 언어적 본능에 가장 충실한 자연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위를 다투며 가장 꼭대기에 서려는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언은 근본을 부정당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어도 약육강식의 세계에 내몰렸다. 그 결과 모든 언어는 같은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쳐진 지역의 언어와 앞서나간 지역의 언어로 우열 관계가 형성되었다. 앞서나간 지역의 언어는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 중앙어, 표준어, 공통어, 보통어, 국가어 등으로 명명되며 주류언어로 부상했다.

어느덧 주류언어에서 밀려나 이질적인 변종으로 치부되는 방언은 주류언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지역적인 것, 그 본연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오키나와어와 제주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 경험과 국가폭력의 정황들은 언어 속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언어의 흔적들은 ‘기억의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로컬의 역동성’으로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표준어를 파괴하고, 중앙어에 저항해 온 이들 언어가 단순히 ‘방언’으로 치부되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본 발표에서는 오키나와와 제주4·3 소설이 발신해 오고 있는 ‘방언’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 2. 주류언어와 방언

전한시대에 양웅(揚雄)은 각 지역의 방언과 고대 어휘를 수집해서 해설한 『방언(方言, BC 53-AD 18)』을 썼고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 7-8세기)』에 고대일본의 변방에 있던 아즈마 지역의 언어로 만든 「아즈마우타(東歌)」나 「사키모리우타(防人歌)」가 실려있듯이 방언은 예전

부터 존재하는 오래된 개념이다. 방언의 중립적인 개념은 지역마다 사용하는 각각의 언어를 말한다. 여기에서 ‘중립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19세기에 국어, 표준어, 공통어 등의 인공적인 언어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연어인 방언에 가치평가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서양 열강이 세계를 무대로 각축전을 벌이던 19세기, 일본은 서양 열강과 타협하고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정책의 일환에 언어 통일이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에도시대에 고착되어 있던 강한 지방색을 불식시키고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언어인 ‘일본어’라는 용어보다 국가의 언어인 ‘국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했다. 국어는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언어로 보는 개념이며 국가어라는 개념이 가진 언어의 정치성을 은폐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이 주변과 연계성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인식 근원을 추구하는 주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통일은 중앙집권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생성해서 동질화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국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는 1985년에 『国語のため』를 통해 표준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894년 10월에는 「国語と国家と」 주제 강연에서 「日本語は日本人の精神的血液」라며 국가와 국어의 유대를 설파했다. 이후 1902년에 국어조사위원회(国語調査委員会)가 문부성(文部省)에 설치되며 표준어 제정이 일본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우에다는 일본도 선진국처럼 ‘아름다운 표준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도쿄어가 훗날 명예를 향유할 자격을 갖춘 말이라 확신한다. (중략) 도쿄어란 교육을 받은 도쿄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뜻(現今の東京語が他日其名譽を享有すべき資格を供ふる者なりと確信する。(中略)東京語とは、教育ある東京人の話すことばと言う義なり)<sup>1)</sup>」이라고 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앞서나간 도쿄어가 표준어의 표본이 되는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언어의 가치 규정에 지역적 힘의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진보 가구(神保格)가 「標準語研究」(1941)에서 정의한 규정이 수용되어 1949년 이전까지 표준어는 널리 「도쿄의 야마노테선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東京の山の手の教養ある人々の言語)」라 여겨졌다. 이시구로 로헤이(石黒魯平)도 표준어에 대해 「도쿄어를 토대로 그것을 능률적, 합리적, 정미적, 지성적, 윤리적으로 높여 사용하기 위한 일본민족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언어체계(東京語を土台にして、能率的に、合理的に、情味的に、知性的に、倫理的に、それを高いものにして使をオと、日本民族各員が追求する理想的言語体系<sup>2)</sup>)」라고 정의하는 등 메이지시대에 형성된 「도쿄의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갈고 닦은 말(東京の教養層の言語に磨きをかけたことば)」이라는 표준어상은 오랫동안 굳어졌다. 이후 「어떤 언어 안에서 규범적인 정식 말투로 간주되어 공적인 장소나 격식을 차릴 때 사용되는 말(ある言語の中で、規範的な正式の言い方と見なされて、公的な場や改まった場で話したり書いたりする時に使われることば<sup>3)</sup>)」로 표준어의 정의가 자리 잡았다. ‘도쿄’라는 특정 지역의 우월주의가 표면적으로만 없어졌을 뿐, 여전히 ‘규범적’, ‘정식’, ‘공적인 장소’,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우월한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에 역학 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언은 앞서 언급한 중립적 정의에서 나아가 지역을 초월한 언어인 표준어와 대비될 때 비로소 존재하는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지역을 초월한 언어의 우월한 가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존재인 방언은 반대의 이미지를 덧입을 수밖에 없었다.

1) 上田萬年(1985) 「標準語に就きて」

2) 石黒魯平(1950) 「標準語」

3) 「ことば」シリーズ6『標準語と方言』, 文化庁, pp.7-8

현대 사회는 점점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인종차별, 젠더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은 표준어라는 주류의 언어 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일 뿐 언어 간 평등에 대한 담론은 부족하다.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표준어라는 인공어에 밀려난 자연어 ‘방언’이 스스로 주류언어의 영향력 속에서 언어에 새겨진 그 지역의 역사를 어떤 형태로 발신하는지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방언의 모색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또 다른 신체이다. 단어라는 피가 흐르고 문이 골격을 가지고 부사나 형용사로 살을 붙인 신체. 주류언어의 등장으로 방언은 상처받고 훼손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언어에도 흉터가 남았다. 각자의 사정은 있지만 큰 줄기에서 오키나와와 제주는 공통된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폭력과 주류언어와의 차별의 기억은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남겨졌다. 지역의 언어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키야마 다미(崎山多美)와 한림화의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소설이라는 보편 장르 안에서 각각의 언어로 주류언어에 저항하는 형태에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3.1 언어의 내적 번역

야콥슨(Jakobson, 1959)에 따르면 번역은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언어의 내적 번역(intra-lingual) 3종류로 나눌 수 있다<sup>4)</sup>. 언어의 내적 번역은 어떤 언어로 된 표현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표현으로 풀어 쓰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 다른 표현으로 풀어 쓰는 경우로 보겠다. 번역의 기본이자 중요한 역할은 원천 언어와 대상 언어 사이의 의미 동등성을 유지시켜 주는 일이다. 언어의 내적 번역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천 언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등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키야마 다미와 한림화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이 언어의 내적 번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1) 메께라! 지슬이?  
뭘라고! 감자가?

예2) “나가 그디 사는 사람인디 마썸. 모슬포에 살압수다.(내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요. 모슬포에 삽니다.)”

예3) ～～ヌーしちん、いかねー、ならんな？(どうしても、行かねば、ならないのかねえ)

예4) 因みに、先の、エーエー、の調子を遂語訳すると、～～もしもし、そんなに、慌てて、どこに、行く？  
である。

4) Jakobson, Roma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R.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232-239.



앞서가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란 지역의 언어골격 위에 학습해서 습득한 표준어를 덧대어 방언과 표준어 2개의 체계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선택 사용한다. 2개의 언어 체계를 가진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야기장을 구성하는 데 위와 같이 방언으로 이야기장을 구성하고 표준어를 괄호 안에 넣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어를 방언이 구성하는 주요 이야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약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의 뿌리인 방언과 외부의 언어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자신의 언어이기도 한 표준어의 병기는 방언을 주류언어에 흡수시키지 않기 위한 저항의 노력이자 타 지역과의 타협이라 할 수 있다.

### 3.2 시각적 모색

방언은 언어의 초기단계인 음성언어로 전락하며 폭력과 차별의 주체가 사용하는 문자를 그대로 빌려 써야 한다. 일본어의 문자는 크게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종류가 있다. 한자는 실질적인 개념을 표기하는데 사용하고 히라가나는 한자의 개념을 보조하거나 읽는 법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가타카나는 외래어, 의성어와 의태어, 동식물명, 방언 등 특수한 어휘군을 표기하는 데 쓰이는 등 각 문자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明治、大正、昭和에 걸쳐 소설에서는 회화문을 쓸 때 줄바꿈 후 「」 괄호를 넣어 표기하여 지문과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갔다<sup>5)</sup>. 그런데 사키야마 다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주류언어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칙’을 파괴함으로써 저항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5) ~ええーええー、あんし、アワていてイ、マーカい、イチゆが?

예6) 「とても立派なお屋敷ですね」

さりげなさを装ってわたしは言ってみる。

広いだけよ、なにもないし、だれもない。

ムスメは口元に張り付いた笑いをひきのばすようにして、言う。

「こんな大きなお屋敷に、おひとりで」

そう、もう何十年も、というのは、ムスメの若さを考えると妙な言い方だと思ったがそのことは聞きながし、

午後の陽の下で明るくひろがる庭をながめや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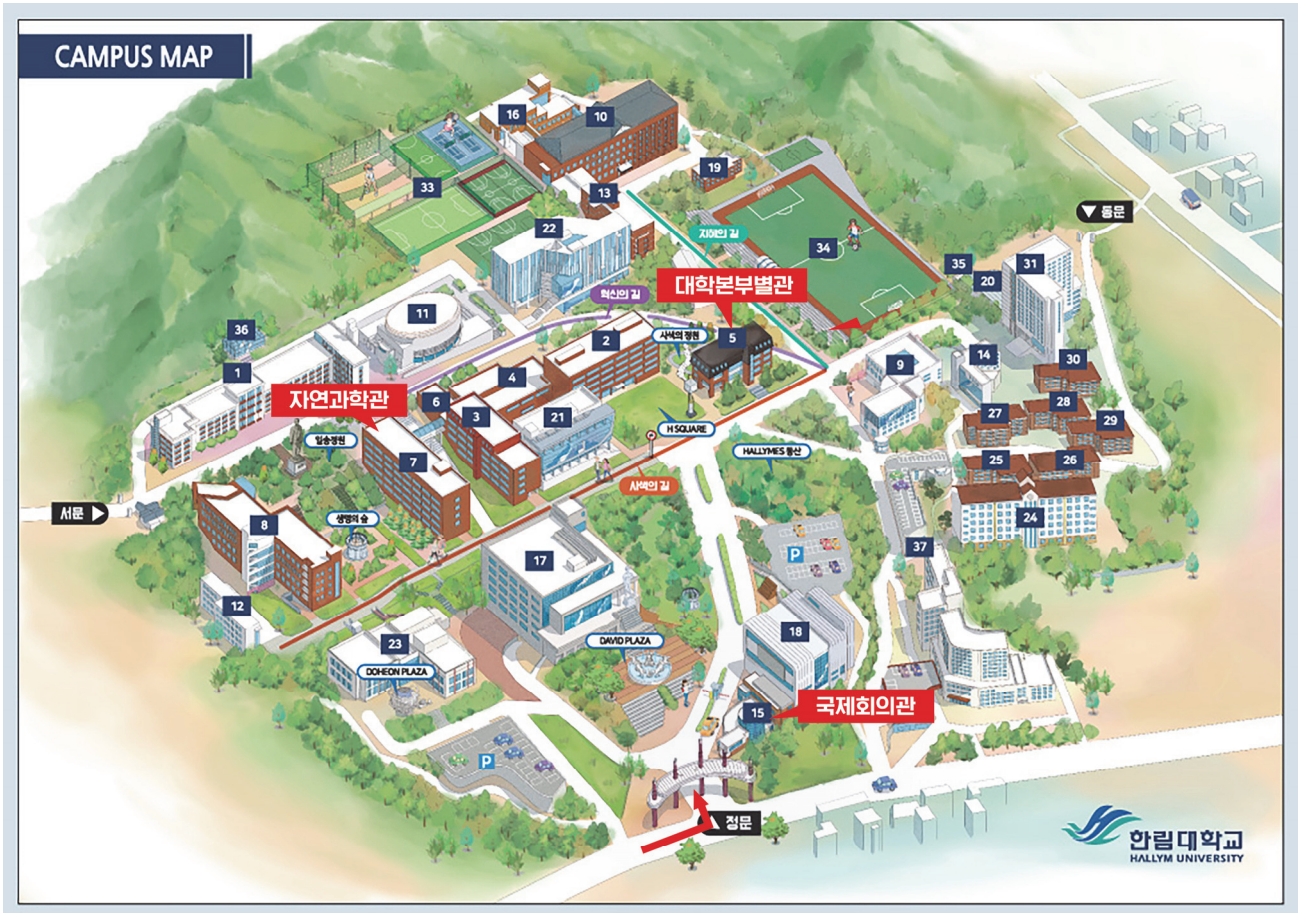
이러한 규칙 파괴는 사키야마 다미가 말한 일본어라고 하는 적들 속에 파고들어 뒤섞이면서 언어로 가차시(ガチャーシー)하는 행위이다.

‘사투리로 말하고 쓰기를 고수할 경우, 그것은 (표준말의) 규범 문화의 독점에 대한 항의를 대표한다<sup>6)</sup>’는 송상일의 말과 같이 오키나와어와 제주어는 언어의 내적 번역, 시각적 저항, 청각적 저항의 형태로 표준어의 한가운데에서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며 기억의 도구로서 저항한다는 면에서 서로 맞닿아있다.

5) 斎藤理生(2008) 「近代小説におけるカギカットコと<読み>」, 『語文』(91), p.90

6) 송상일(1993) 「<살아진다>의 부정과 긍정」,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 동광문화사, p.184

♣ 캠퍼스안내



- 접수 / 제2부 : 국제회의관 1층 국제회의실 [건물15]
- 제1부 / 제3부 : 자연과학관 [건물7]
- 점심식사 장소 : 대학본부별관 [건물5]